

# 문화유산 통계

## 대표지표 개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index  
for Cultural heritage statistics

주관 연구기관 : 더랩 씨

2018

문화재청



## 제 출 문

문화재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 12.

연구기관명 : 더랩 씨

연구기관대표 : 박성환 더랩 씨 대표

책임 연구원 : 박성환 더랩 씨 대표

선임 연구원 : 전주희 더랩 씨 수석연구원

공동 연구원 : 이소현 BIRC 책임연구원

김연주 더랩 씨 프로젝트 디렉터

윤슬미 더랩 씨 연구원

연구 보조원 : 오윤정 더랩 씨 보조연구원

차정윤 더랩 씨 보조연구원

자 문 위 원 : 이석준 광운대학교 교수

##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연구

---

발 행 처 : 문화재청

발 행 일 : 2018년 12월 14일

연 구 기 관 : 더랩 씨 The lab c

책임 연구원 : 박성환 더랩 씨 대표

선임 연구원 : 전주희 더랩 씨 수석연구원

공동 연구원 : 이소현 BIRC 책임연구원

김연주 더랩 씨 프로젝트 디렉터

윤슬미 더랩 씨 연구원

연구 보조원 : 오윤정 더랩 씨 보조연구원

차정윤 더랩 씨 보조연구원

자 문 위 원 : 이석준 광운대학교 교수

© 본 연구의 저작권은 문화재청에 있으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본 연구의 내용은 문화재청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기간 : 2018년 8월 2일 - 2018년 12월 14일



## 초 록

사업명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연구용역		
연구과제명	한글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연구	
	영어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index for Cultural heritage statistics	
연구기간	2018. 8. 2. ~ 12. 14.		
연구기관명	더랩 씨	연구기관대표	박성환
책임연구원	박성환	참여연구원 수	7명
연구목적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현황에 관한 객관적·종합적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전략적·정책적 목표가 반영된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연구내용	1. 국내·외 주요 통계 동향 분석 - 유네스코 및 국외 주요 국가, 국내 타 분야 통계 동향 조사·분석 2.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 분석 및 문화유산 통계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문화유산 통계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 제시 3.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해 생산 가능한 통계를 3개 주제로 나누고, 주제에 따라 8개의 대표지표를 정립한 후 각 대표지표별 관련 지표를 120개 세부지표로 개발 및 정비. 대표지표 시각화 및 세부지표 카드 작성하여 제시 4. 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방안 제안 - 문화유산 통계의 개선방안과 과제를 제시한 후 관련 로드맵 제안		
연구 성과품	1. 최종보고서 : 20부(필수납본 별도) 2. 최종성과품 전체내용 수록 USB : 3개 3. 보고회 자료 : 최종성과품 전체내용 수록 USB에 포함 4. 제작 및 수집자료 일체 : 최종성과품 전체내용 수록 USB에 포함		
색인어	한글	문화유산, 통계, 통계자료, 문화재 통계, 대표지표, 개선방안	
	영어	Cultural heritage, Statistics, Statistical data, Cultural heritage statistics, Representative index, Improvement strategies	



# 문화유산 통계

## 대표지표 개발 연구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index  
for Cultural heritage statistics

2018

# 목 차

## 그림 목록

## 표 목록

### 1. 서론

1.1. 연구 목적 .....	1
1.2. 연구 내용 .....	4
1.3. 연구 방법 .....	5

### 2. 국내·외 주요 통계 동향 분석

2.1. 국외 문화유산 관련 통계 동향 .....	9
2.1.1. 문화유산의 특징과 통계 .....	9
2.1.2. 유네스코 및 주요 국가 통계 사례 .....	16
2.1.3. 시사점 .....	23
2.2. 국내 타 분야 주요 통계 동향 .....	24
2.2.1. 통계의 생산과 활용 동향 .....	24
2.2.2. 주요 통계 및 지표 사례 .....	25
2.2.3. 시사점 .....	35

### 3.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

3.1. 문화유산 통계 현황 진단 .....	39
3.1.1. 문화유산 통계를 둘러싼 환경 분석 .....	39
3.1.2. 문화유산 통계의 특징 분석 .....	44
3.2. 문화유산 통계지표 개발 및 정비 방법 .....	47
3.2.1. 문화유산의 주제와 통계의 범주 .....	47
3.2.2. 수요자 정의 .....	50
3.2.3. 통계 디렉토리 및 분류체계 .....	52

#### 4.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4.1. 한국의 문화유산 .....	57
4.1.1. 문화유산 현황 지표 .....	57
4.1.2. 문화유산 가치 지표 .....	118
4.2.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163
4.2.1. 문화유산 보존 지표 .....	163
4.2.2. 문화유산 관리 지표 .....	248
4.2.3. 문화유산 활용 지표 .....	317
4.3. 문화유산 이야기 .....	376
4.3.1. 문화유산 역사 지표 .....	376
4.3.2. 문화유산 연구 지표 .....	404
4.3.3. 문화유산 향유 지표 .....	445

#### 5. 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방안

5.1. 문화유산 정책통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언 .....	487
5.1.1. 문화유산 통계 SWOT 분석 .....	487
5.1.2.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안 .....	490
5.2. 문화유산 정책통계 추진 과제 .....	504

#### 6. 결론

6.1. 문화유산 통계의 현재와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지향점 .....	517
6.2. 연구 내용에 관한 정리 사항 .....	521

#### 참고문헌

부록 1. 문화유산 통계 주제별 인포그래픽 / 3매(별첨)

부록 2.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별 시각화 도안 / 52매(별첨)

## 그림 목록

〈그림 1〉 연구 목적 및 배경 요약도 .....	1
〈그림 2〉 연구 필요성에 따른 과제 요약도 .....	3
〈그림 3〉 연구 방법 개념도 .....	5
〈그림 4〉 캐나다의 자연유산에 관한 통계 인포그래픽 .....	9
〈그림 5〉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밀렵 등에 관한 통계 인포그래픽 .....	11
〈그림 6〉 미국 피바디뮤지엄의 마이아사우라 공룡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인포그래픽 .....	12
〈그림 7〉 국가 특징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이탈리아 통계 인포그래픽 .....	13
〈그림 8〉 터키의 문화유산 종합 통계 인포그래픽 .....	14
〈그림 9〉 페루 마추픽추 관람객 추이를 나타낸 통계 인포그래픽 .....	15
〈그림 10〉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통계자료 사례 .....	16
〈그림 11〉 일본 문화청 통계자료 사례 .....	19
〈그림 12〉 중국 문화발전통계공보 통계자료 사례 .....	21
〈그림 1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통계 콘텐츠 및 통계자료 사례 .....	25
〈그림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통계 콘텐츠 및 통계자료 사례 .....	27
〈그림 15〉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사례 .....	29
〈그림 16〉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사례 .....	31
〈그림 17〉 서울특별시, 세종시, 강릉시 통계 서비스 사례 .....	33
〈그림 18〉 대중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주요 변화 .....	40
〈그림 19〉 스마트 융합의 개념도 .....	41
〈그림 20〉 사람-사물-공간의 초연결축과 인식-판단-처리의 초지능축의 상호관계 .....	42
〈그림 21〉 빅데이터의 수집처와 빅데이터 도입을 통해 조직이 달성하려는 목표 .....	43
〈그림 22〉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 개념도 .....	44
〈그림 23〉 문화유산의 주제에 따른 통계의 범주 개념도 .....	47
〈그림 24〉 문화유산 정책 및 향유가치 모형도 .....	48
〈그림 25〉 문화유산 주제와 정책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계지표 정비 방향 개념도 .....	49
〈그림 26〉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 기본 개념도 .....	50
〈그림 27〉 통계의 기본 분류법 .....	51



〈그림 28〉 문화유산 통계 디렉토리 .....	52
〈그림 29〉 문화유산 통계 분류체계 및 친구체계 비교 .....	53
〈그림 30〉 문화유산 통계 SWOT 분석도 .....	489
〈그림 31〉 일반적 통계 생산 구조와 현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구조 비교 .....	490
〈그림 32〉 통계의 품질 기준과 통계 조직 관계도 .....	491
〈그림 33〉 통계의 종류별 메타항목 사례 .....	495
〈그림 34〉 메타-데이터베이스 사례 .....	496
〈그림 35〉 witches의 역사와 문화 소개 서비스 현황 .....	498
〈그림 36〉 내 손안의 궁 모바일 통합서비스 .....	498
〈그림 37〉 통계의 효용성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공급과 소비 과정 .....	517

## 표 목 록

〈표 1〉 국가승인통계 현황 .....	45
〈표 2〉 문화유산 통계 현실 진단 .....	45
〈표 3〉 문화유산 통계 유형 정의 .....	54
〈표 4〉 문화유산 통계 분류체계와 활용 방향 .....	54
〈표 5〉 사진 메타데이터의 속성 .....	494
〈표 6〉 공통적으로 호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속성 .....	494
〈표 7〉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사회 영역별 가치 .....	499
〈표 8〉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와 활용 예시 .....	500
〈표 9〉 문화유산 정책통계 추진 과제 .....	504

# 1. 서론

1.1. 연구 목적

1.2. 연구 내용

1.3. 연구 방법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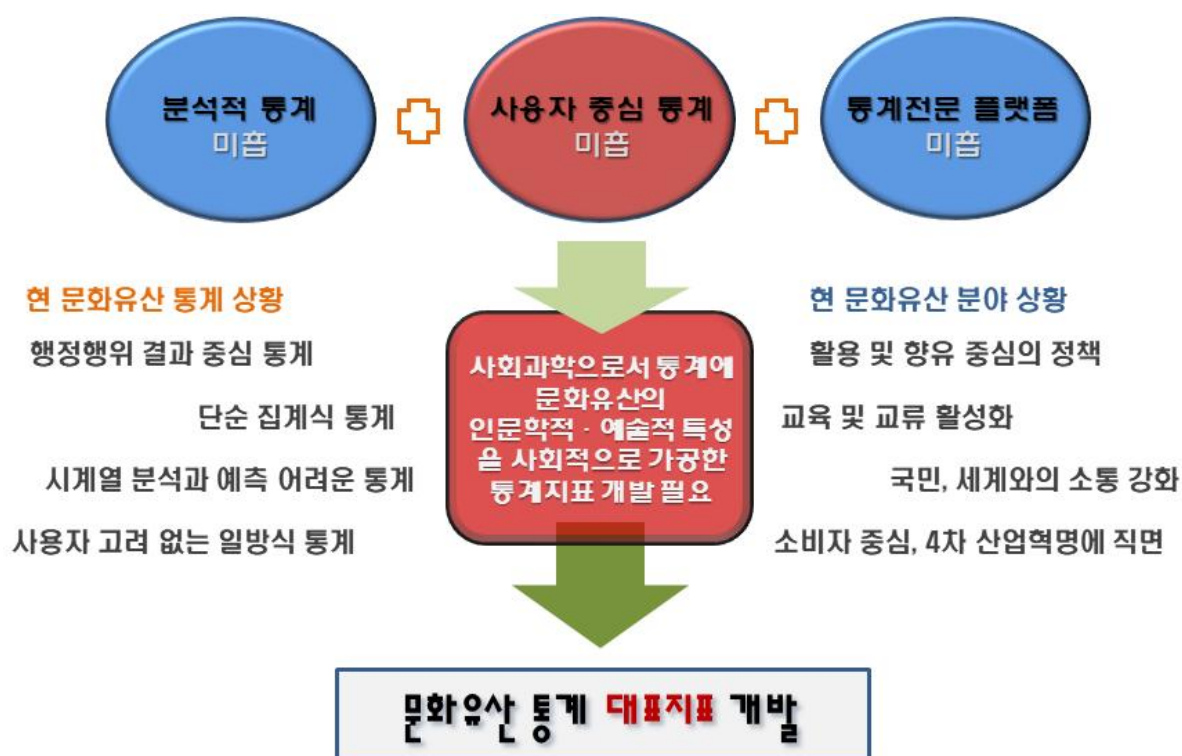
## 1.1. 연구 목적

### ■ 연구 목적과 배경

본 연구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현황에 관한 객관적·종합적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정책적·전략적 목표가 반영된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문화재 통계는 여전히 행정 결과 위주의 통계에 머물고 있는데, 그 원인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 세 가지 한계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행정행위 결과를 수량 위주로 단순 정리한 집계식 통계가 대부분으로 시계열적 추이 진단 등을 통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활용 가능한 분석적 통계 미흡
- 빅 데이터 및 공간정보 등을 활용한 사용자 중심의 통계지표와 가공통계 미흡
- 문화유산 통계의 생산 및 관리체계, 정책적·전략적 운용을 위한 플랫폼 미흡



〈그림 1〉 연구 목적과 배경 요약도

이에 우리나라 문화유산 현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관련한 각종 시계열적 추이를 진단할 수 있으며, 우리 문화유산의 추이를 글로벌 통계와 비교·분석하여 문화유산의 비전을 수립하는데 토대가 되는 정책통계로의 질적 전환과 문화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유산 통계 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는 현행 통계의 세부지표별 정비를 요구하며, 대표지표 개발은 세부지표 정비를 기반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 연구 필요성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기술 발전에 의한 생활 및 업무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 각 분야마다 정보로서 통계의 역할 역시 점차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정책 분야에서도 통계는 모든 증거기반의 기초자료나 평가기반 자료로만 활용되던 차원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향유·활용 자료로 확대되고 있다.

문화유산 분야 역시 보존 및 관리에 집중하던 문화재 정책이 이미 문화유산의 활용 및 향유로 확산한 지 여러 해가 지났으나, 관련 통계는 아직 이러한 흐름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팀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필요에 따라 객관적·종합적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한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를 개발하고, 나아가 조사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문화유산 통계의 관리 및 운용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재청의 활동과 성과를 적극 반영한 통계 필요

- 현황 : 수량 위주의 계량적 통계
- 지향점 : ‘발굴·지정·관리·보호·전승’이라는 범주를 넘어 ‘육성·활용·교류·협력’이라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는 문화재청 활동 과정과 성과를 담은 통계지표 개발

둘째, 문화유산 분야 정책수립 및 정책적·전략적 목표가 반영된 문화재 통계 필요

- 현황 : 결과 위주의 단순 집계식 통계
- 지향점 : 시계열적 추이 진단이 가능하고, 문화재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반영하는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셋째, 국민의 필요와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재 통계 필요

- 현황 : 행정행위 중심의 일방식 통계

- 지향점 : 대국민 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국민과 국내·외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사용자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활용할 수 있는 문화유산 통계 세부지표 개발

■ 문화재청의 활동과 성과를 적극 반영한 통계 필요

- a. 현황 : 수량 위주의 계량적 통계
- b. 지향점 : ‘발굴·지정·관리·보호·전승’ + ‘육성·활용·교류·협력’  
⇒ 문화재청의 활동과정 및 성과를 담은 통계지표 개발

문화재청의 활동과 성과를  
담은 통계지표 개발

■ 문화유산 분야 정책 수립이 가능하고, 전략·정책 목표 반영된 통계 필요

- a. 현황 : 결과 위주의 단순 집계식 통계
- b. 지향점 : 시계열 분석과 예측이 가능하고, 정책 방향 및 추진 전략을 반영한 통계지표 개발

시계열 분석과 예측,  
정책과 전략을 반영한  
통계지표 개발

■ 국민의 필요와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통계 필요

- a. 현황 : 행정행위 중심의 일방식 통계
- b. 지향점 : 국민과 국내·외 문화유산 관련 기관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선택·활용하는 통계 세부지표 개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활용할 수 있는  
통계 세부지표 개발

〈그림 2〉 연구 필요성에 따른 과제 요약도

## 1.2. 연구 내용

### ■ 연구 과제 및 방향

과업지시서상 과업내용은 ①문화유산분야 통계 대표지표 개발 ②유네스코 등 국외 통계자료 조사·분석 ③문화유산분야 통계 대표지표 개발을 위한 세부지표 마련 ④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안 제시 이상 네 가지이다.

본 연구팀은 네 가지 과업내용을 근간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대표지표 개발을 위하여 우리나라 문화유산 및 관련 통계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표지표 개발에 수렴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세부지표 정비 역시 단순한 개선 차원에 머물지 않고 새롭게 개발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근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체계화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최종보고서에서는 과업내용을 ①국내·외 주요 통계자료 동향 분석 ②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 ③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제안 ④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방안 제안 이상 네 가지 장으로 구성해 담아내고자 하였다.

### ■ 주요 내용

본 연구팀은 과업지시서의 연구범위를 바탕으로 총 6장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장 국내·외 주요 통계 동향 분석’에서는 유네스코 및 국외 주요 국가, 국내 타 분야 통계 동향을 조사·분석하여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을 위한 참고로 삼았다.

‘3장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을 분석하고, 문화유산 통계의 현황을 진단한 후 문화유산 통계의 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4장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제안’에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통해 생산 가능한 통계를 3개 주제로 나누고, 8개 대표지표를 정립한 후 각 대표지표별 관련 지표를 120개 세부지표로 정비하였으며, 대표지표 시각화 및 세부지표 카드를 작성해 제시하였다.

‘5장 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방안 제안’에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통계의 개선안과 과제를 제시한 후 관련 로드맵 제안하였다.

그 외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개발·정비 결과를 담은 3장의 주제별 인포그래픽과 52장의 대표지표 시각화 그래픽을 직접 제작하여 별첨하였다.



### 1.3. 연구 방법

연구의 기본적 수행방법은 전방위에 걸친 철저한 자료조사 및 분석에 기반하며, 최종 목표는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현황에 관한 분석 및 진단이 가능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정책적·전략적 목표가 반영된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조사 및 전문서적 참조, 각종 통계자료 조사 및 분석, 문화재 현장과 행정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용, 문화재 분야 및 통계 분야 전문성 담보를 위한 전문가 활용을 기반으로 연구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상 연구방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연구 방법 개념도



## **2. 국내·외 주요 통계 동향 분석**

### **2.1. 국외 문화유산 관련 통계 동향**

#### **2.1.1. 문화유산의 특징과 통계**

#### **2.1.2. 유네스코 및 주요 국가 통계 사례**

#### **2.1.3. 시사점**

### **2.2. 국내 타 분야 주요 통계 동향**

#### **2.2.1. 통계의 생산과 활용 동향**

#### **2.2.2. 주요 통계 및 지표 사례**

#### **2.2.3.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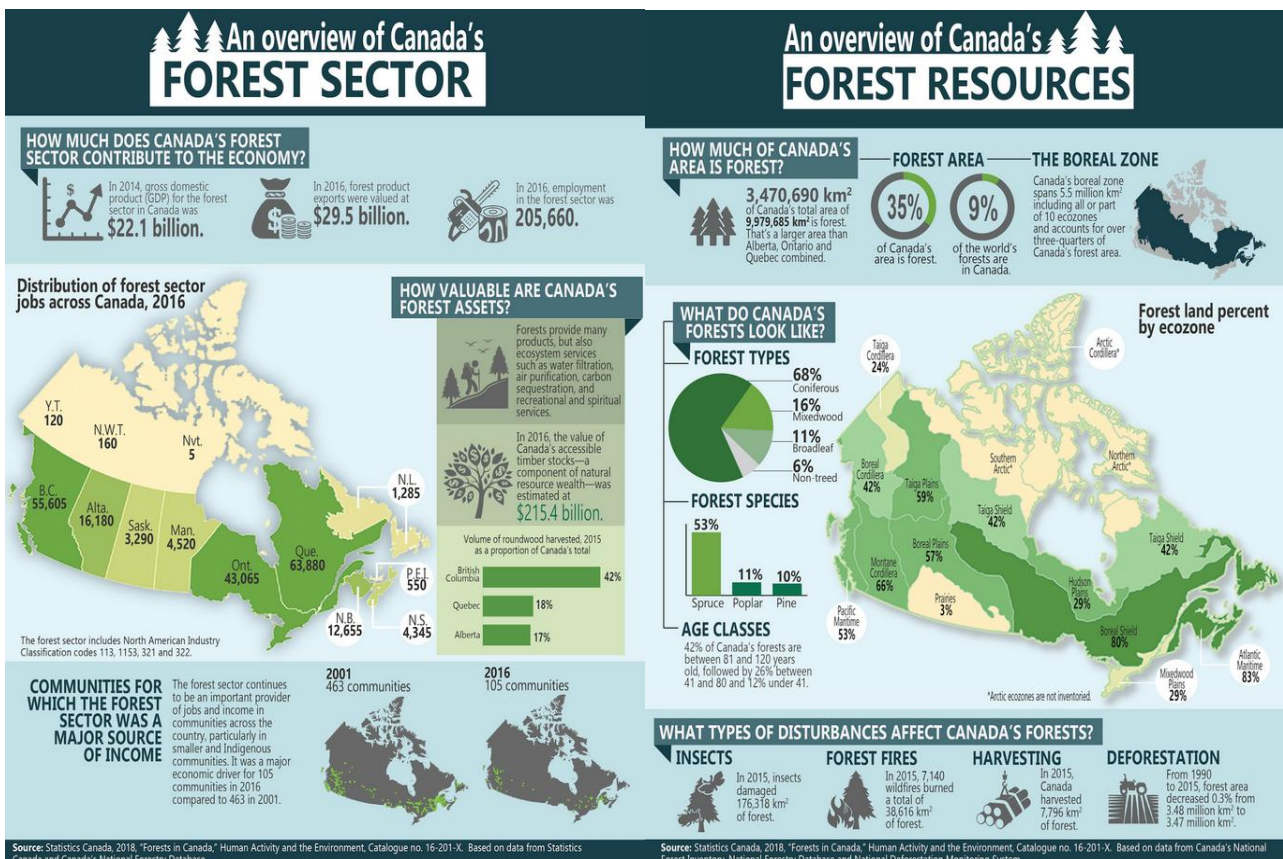
## 2. 국내 · 외 주요 통계 동향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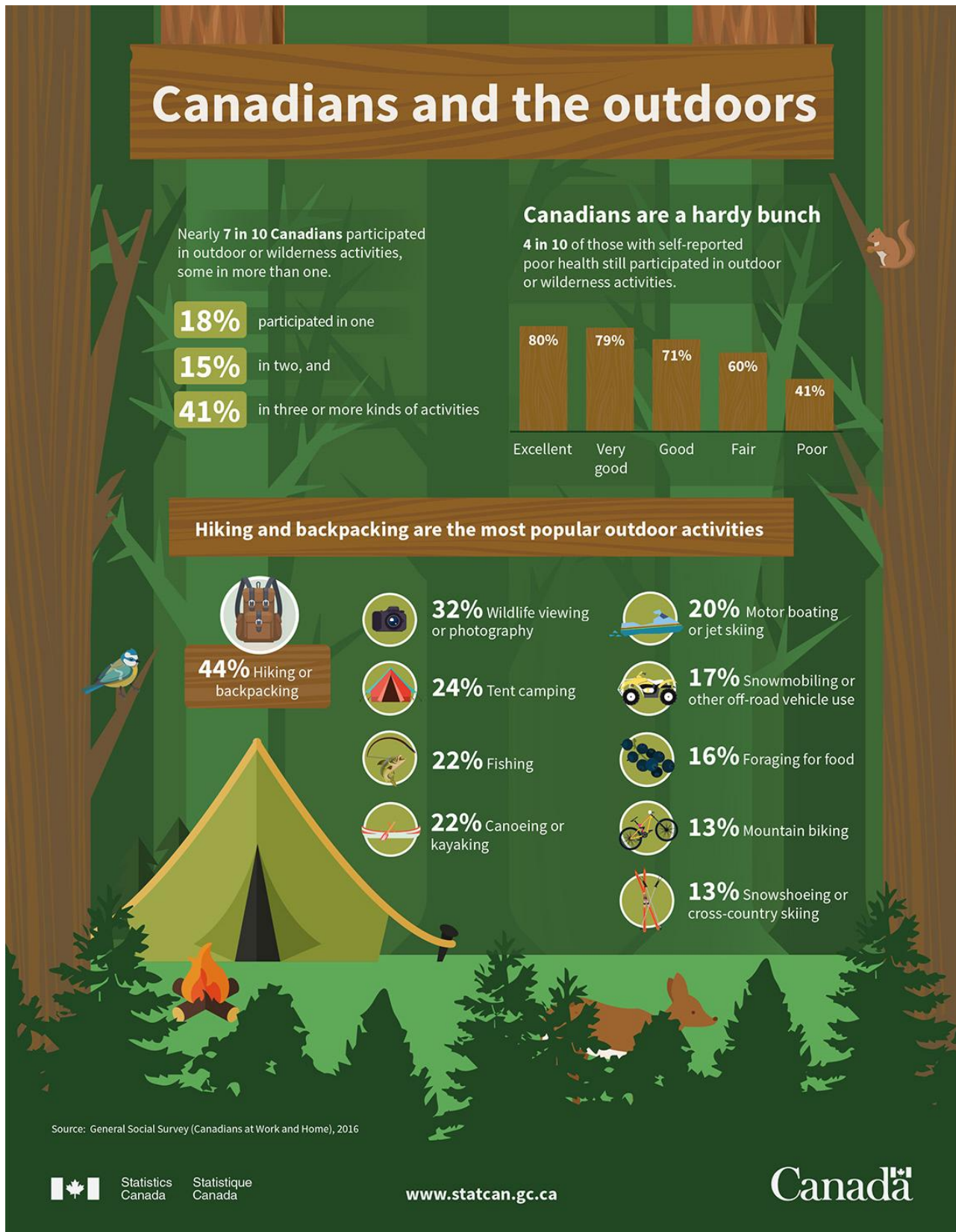
### 2.1. 국외 문화유산 관련 통계 동향

#### 2.1.1. 문화유산의 특징과 통계

##### ■ 세계 주요 통계 동향 1 : 자연유산 중심

- 세계의 문화유산 관련 통계는 대체로 각 나라의 문화환경에 기반하고 있음. 건립연도가 비교적 짧고 자연유산 중심의 문화유산을 지닌 국가는 자연환경의 가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통계가 주를 이룸
- 자연유산이 중심인 국가 사례로는 캐나다, 미국, 호주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중 캐나다는 매년 당해연도 이슈가 된 주제의 인포그래픽을 제작해 국민에게 공개하며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에서 관리함. 2018년에는 자연유산과 관련하여 산림 자원의 다양성과 보존방향, 자연유산 활용현황, 산림자원의 경제적 가치 등을 통계화한 후 인포그래픽으로 가공해 발표하고 관련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도록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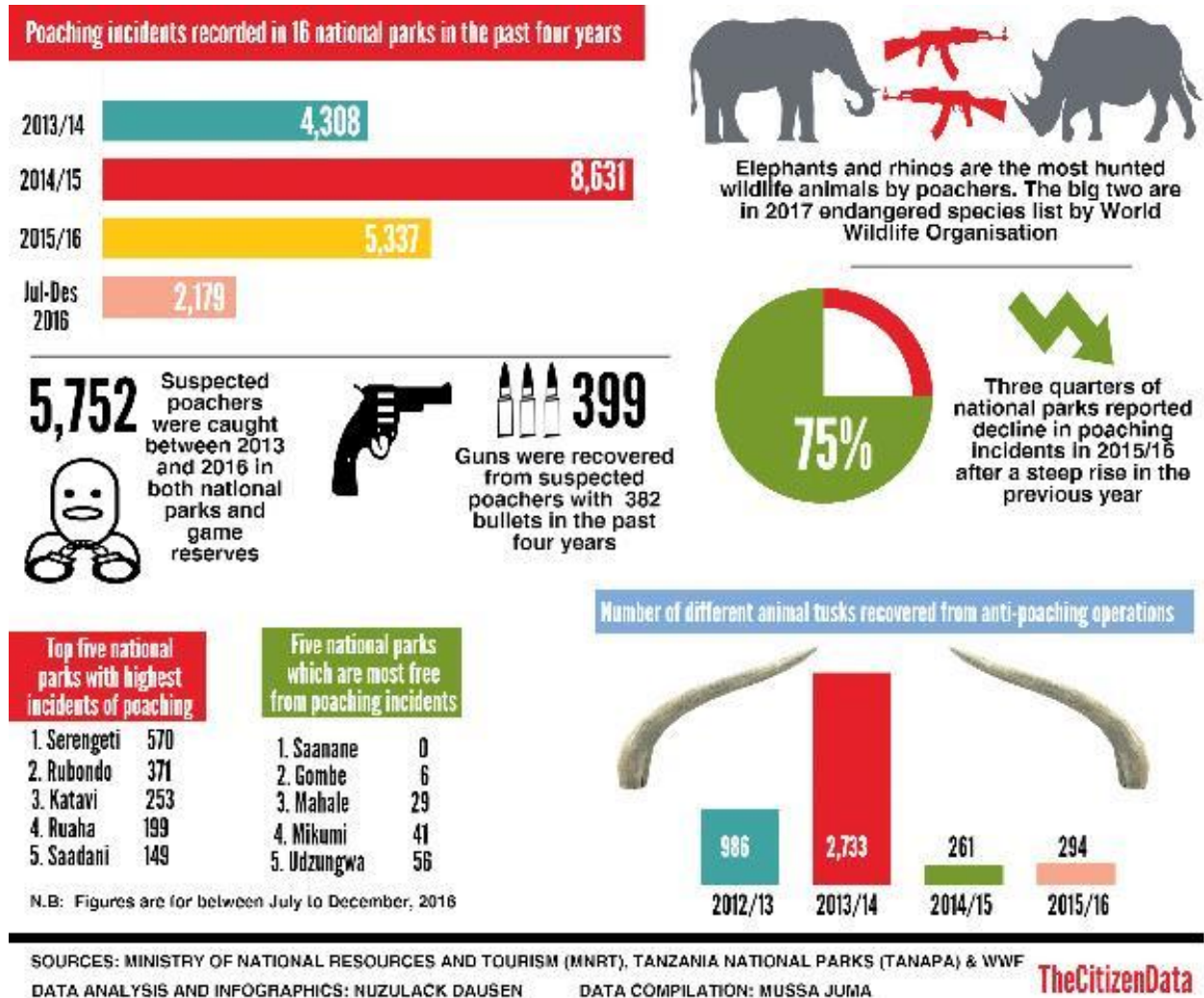




〈그림 4〉 캐나다의 자연유산에 관한 통계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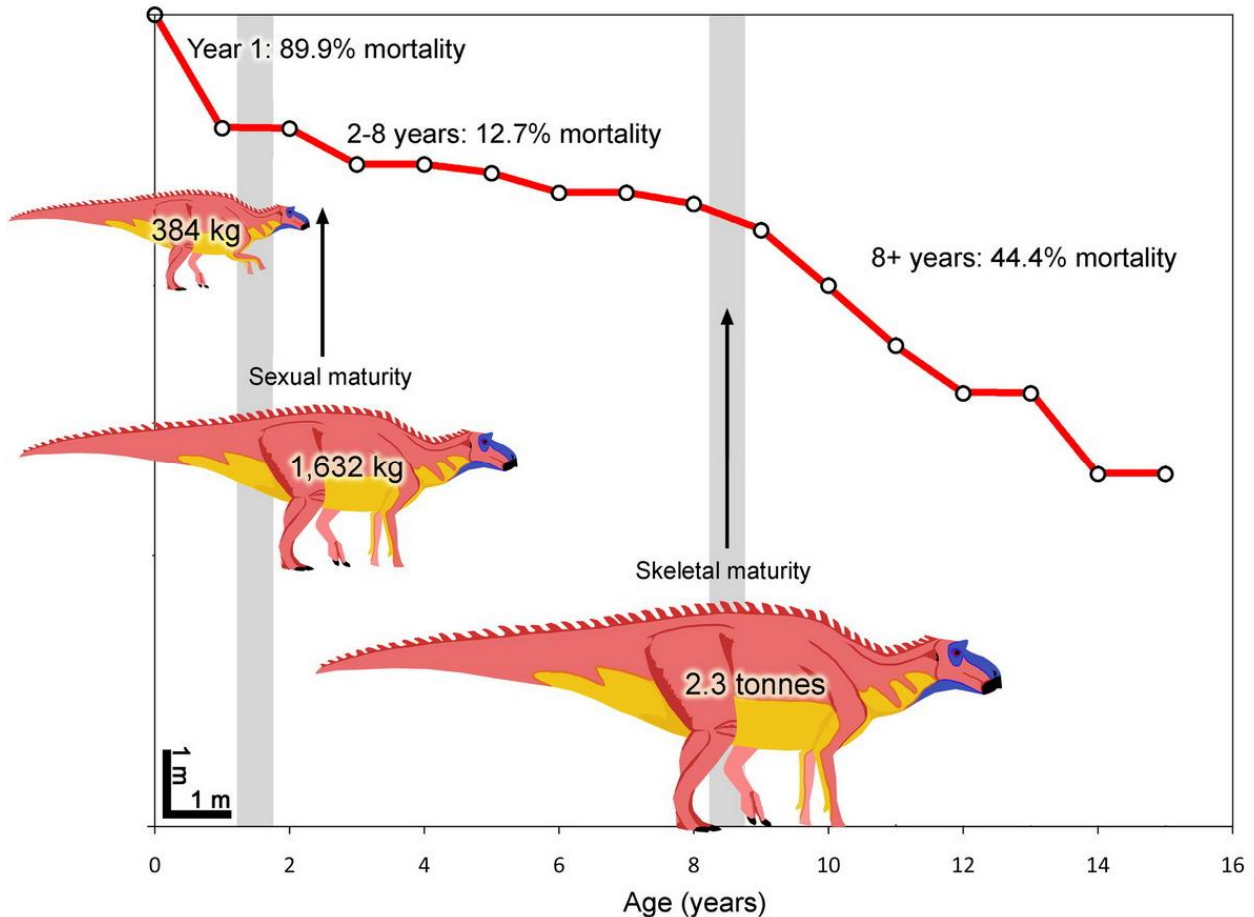


- 자연유산 중심의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국가 중 탄자니아의 사례는 자연유산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밀렵에 관한 통계 인포그래픽을 통해 유산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음



〈그림 5〉 탄자니아 국립공원의 야생동물 밀렵 등에 관한 통계 인포그래픽

- 자연유산 중심의 국가 중 미국의 경우 유산의 역사를 가공하여 교육적 효과를 확대해 가는 사례를 볼 수 있음. 미국 피바디뮤지엄의 마이아사우라(Maiasaura) 공룡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인포그래픽은 학술연구 결과를 표현한 것으로 엄밀하게 통계를 위한 가공 사례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통계가 지니는 또 다른 방향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보통 통계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진단하는 데 주로 사용되지만, 이 사례는 이미 지나간 역사를 통계화 하여 교육적·학술적 효과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그림 6〉 미국 피바디뮤지엄의 마이아사우라(Maiasaura) 공룡의 삶과 역사에 대한 인포그래픽

## ■ 세계 주요 통계 동향 2 : 인공유산 중심

-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스페인, 터키 등 오랜 역사를 통해 다양한 인위적 유산, 즉 인공유산을 지니게 된 국가의 문화유산 관련 통계는 문화유산의 현황 및 보존현황, 수리 및 복원현황, 관람객 현황 등 행정 또는 사업 행위 결과 위주의 통계가 주를 이루며 대부분 연 단위로 발행되는 행정보고서 내에 포함되어 있음
- 인공유산 중심 국가의 문화유산 통계가 가진 공통점은 주로 관광을 위한 안내 및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 이들 국가는 대체로 관광이 주요 수입원인 경우가 많기에 자신의 나라만이 갖는 독특하거나 독자적인 인공유산들을 관광자원으로 소개하는 경향을 지님
- 이탈리아의 경우 국가 특징과 홍보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배포하는데, 이탈리아 전체 산림면적, 국기, 축구를 비롯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유비율과 전통음식, 베네치아 가면과 축제, 이탈리아의 종교, 역사와 문화에 관련한 사항을 간략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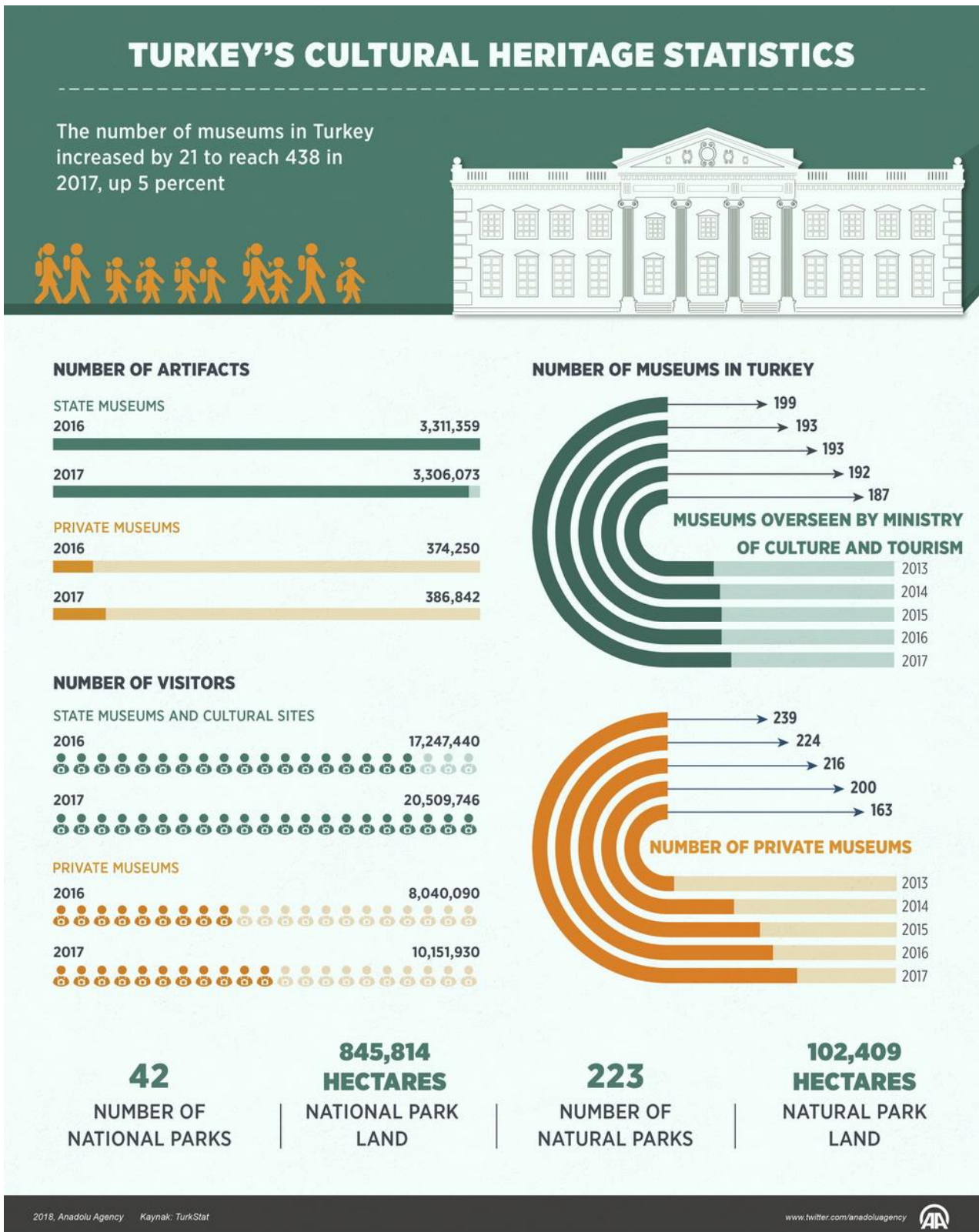




〈그림 7〉 국가 특징과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이탈리아 통계 인포그래픽

- 이처럼 인공유산 중심 국가들은 문화유산 관련 통계를 대체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포그래픽을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별 역량이나 성향에 따라 통계를 표현하는 방법과 수준에 차이가 남. 앞서 살펴 본 이탈리아의 경우 다채로운 그래픽과 내용으로 기초통계를 가공하여 인포그래픽을 구성하는 반면, 일반적으로는 투입대비 성과라는 맥락에서 접근하기에 박물관 또는 문화시설 수, 유적지 또는 유물 수, 종사인력 수, 관람객 현황 등 행정통계의 기본적인 내용을 시각적으로 읊진 정도에 머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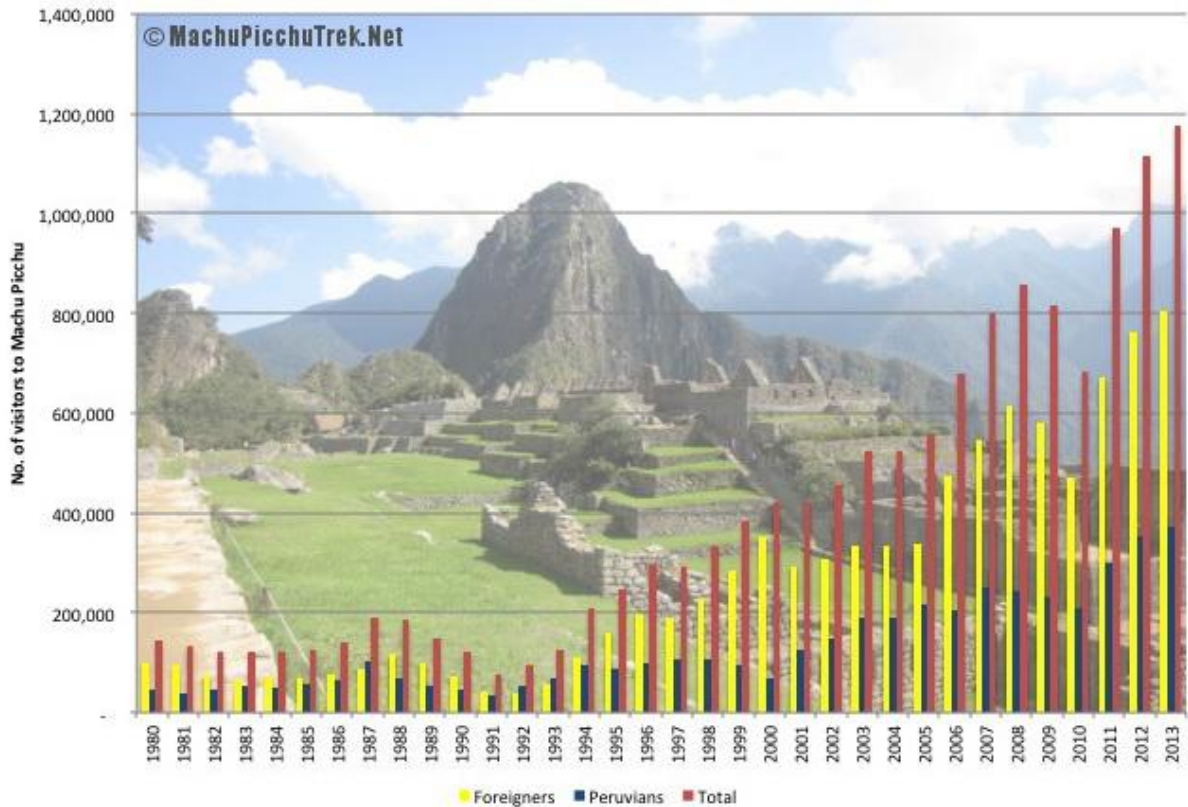
- 터키의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은 박물관 수, 유물 수, 관람객 수, 국립공원 수 등 행정통계에 의한 기본적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데, 인공유산 중심의 국가가 자국의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일반적 사례를 보여 줌



〈그림 8〉 터키의 문화유산 종합 통계 인포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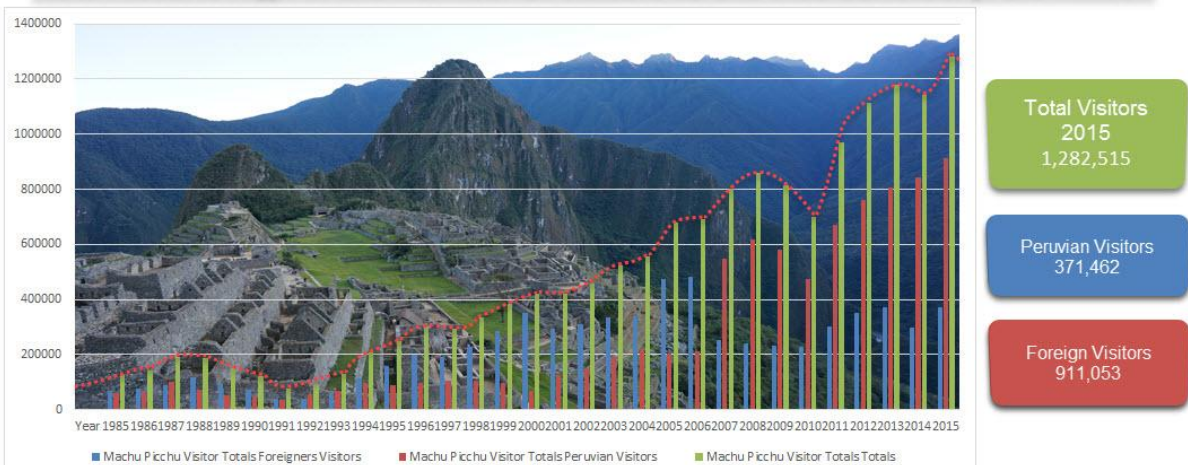


- 그 외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간단한 방문자 현황만을 이용해 가공한 페루 마추픽추 통계 인포그래픽 사례처럼, 주요 인공유산의 관람객 현황 등의 기초적인 통계 현황만을 소개하는 통계자료 생산 및 활용이 세계 문화유산 통계의 일반적 동향임



## Visitor Totals Machu Picchu 1985 - 2015

**New Historic High in the number of visitors to the Inca Sanctuary: 1.3 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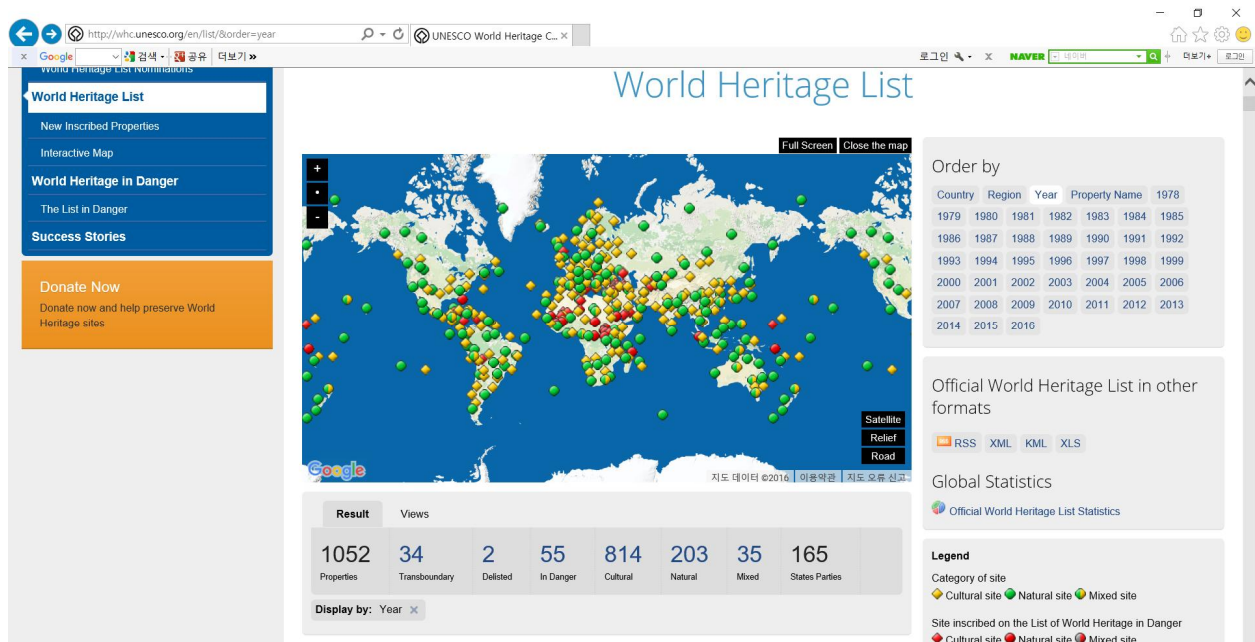
Source: Peru Ministry of Foreign Commerce and Tourism

〈그림 9〉 페루 마추픽추 관람객 추이를 나타낸 통계 인포그래픽

## 2.1.2. 유네스코 및 주요 국가 통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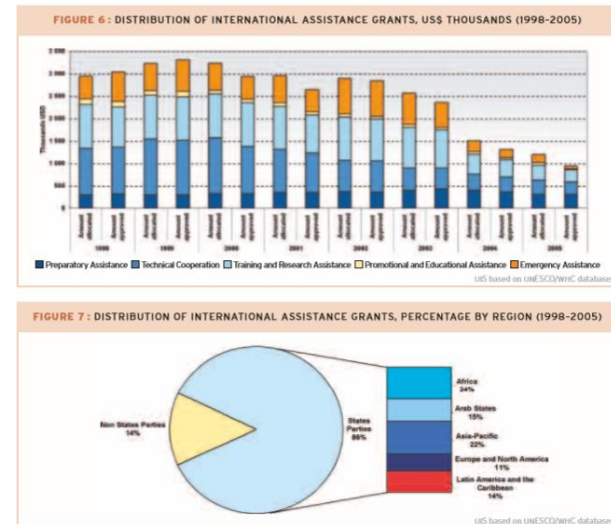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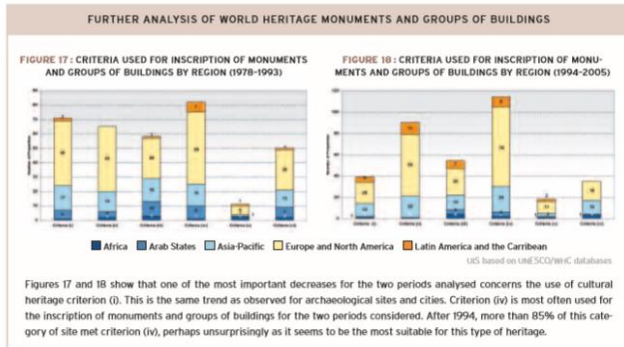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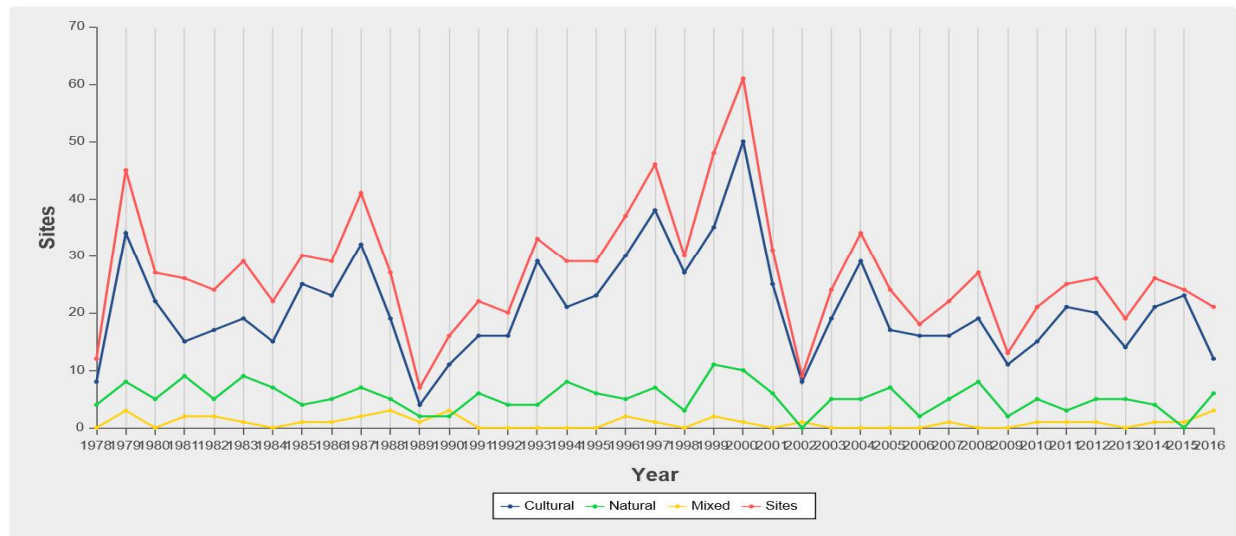
### ■ 유네스코(UNESCO)

-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현황 통계 외에도 사회·문화·인류·환경·과학 등에 관한 통계를 주제에 따라 복합적인 통계 지표로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며, 그 주제가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음
- 유네스코는 통계 전용 홈페이지 UIS.Statistics(<http://data.uis.unesco.org>)를 별도로 운영 중인데, 사용자가 직접 교육·언어·과학·기술·이노베이션·문화·커뮤니케이션·정보 등의 주제를 선택해 자신에게 필요한 통계를 구축·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 또한 별도로 운영 중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는 ‘세계유산목록’과 ‘긴급보호목록’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 ①지역(Region) ②국가(Country) ③연도(Year) ④명칭(Property Name) 등 항목에 따라 세계유산을 분류하고 있음
- 각각의 세계유산은 구글 위성지도(google map)와 연동해 지도 위에 점으로 표시되는데 점을 누르면 작은 사진과 함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자료를 원할 경우 해당 사진을 누르면 세계유산 관련 기본정보(위도, 경도, 지정년도, 국가, 면적 등), 사진, 주요사항, 관련 미디어자료 등의 내용을 영어, 불어 등 8개 언어로 확인할 수 있음





Number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inscribed each Year (Cultural Natural, Mixed)



EVOLUTION OF INTERNATIONAL ASSISTANCE (1998-2005)

Figure 6 shows the amounts of International Assistance allocated since 1998 b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and the amounts approved by the relevant body, clearly indicating the fall in available funding. Preparatory assistance corresponds to one-seventh of the allocated assistance budget, although since 2004 it has been raised to over 25%. Technical cooperation represents about 37% of the total budget, training and research 30%, emergency assistance 19% and education, information and awareness-raising grants 1%.

Figure 7 presents all the requests approved from 1998 to 2005 by region, indicating that Africa has received the largest share of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a total of 175 grants

(24%). The Asia and Pacific region closely follows with 22% of the value of all approvals, distributed through 197 grants. The Arab States with 119 grants, representing 15% of total International Assistance, are in third place.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s fourth with 113 grants approved (14%). Europe and North America was attributed the least International Assistance with 111 grants (11%). Non-States parties (mainly ICCROM and IUCN) were granted a greater amount of funds (14%) than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region, but with fewer approved requests (only seventy-two grants). The grants for these organizations are primarily for training programmes usually organized at regional level, such as AFRICA 2009. Thus a specific amount can be approved for a specific region or organization but spent in a different region.



Figure 3 shows the success of the World Heritage List, with 830 sites as of July 2006. Figure 4 demonstrates the predominance of cultural over natural and mixed heritage sites: as of 2006, a total of 644 cultural, 162 natural and 24 mixed sites located in 138 States Parties have been listed (70 in Africa, 63 in the Arab States, 167 in Asia and the Pacific, 414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nd 116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is pattern has been evid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In some instances, the annual number of inscribed cultural heritage sites has been five times higher than natural heritage.

Map 1 shows the concentration of World Heritage sites per country. Five States Parties have thirty or more sites listed: China, France, Germany, Italy and Spain. On the other hand, forty-four States Parties have no sites listed, the majority being in Africa, the Caribbean and the Pacific (see regional presentation, Section 4).



&lt;그림 10&gt;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련 통계자료 사례

[출처]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http://whc.unesco.org/en/list>) UIS.Stat. Official World Heritage List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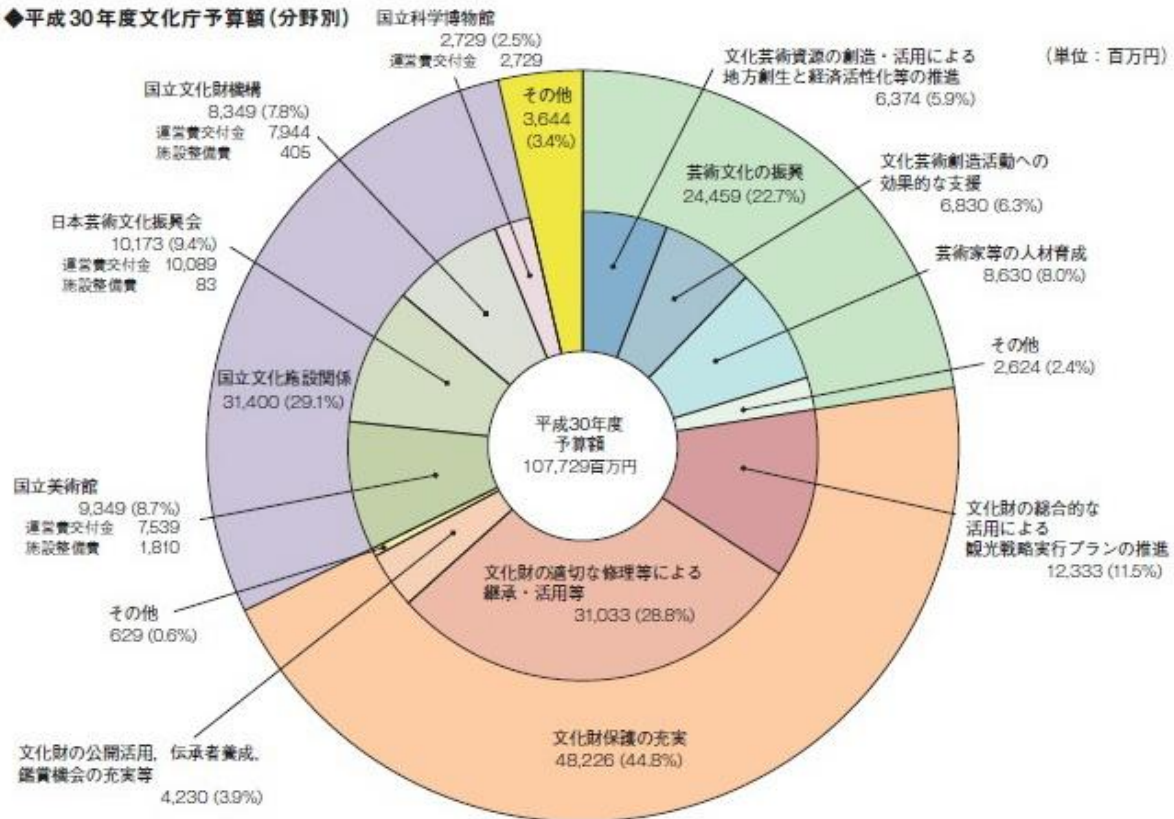
- 유네스코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통계는 사진 및 서술형 정보가 함께 제공되고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 현황을 수치로만 알려주는 차원을 넘어 홈페이지 방문자로 하여금 세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관련한 정보를 얻거나 학습하도록 유도함. 나아가 직접 해당 문화유산을 방문하거나 체험할 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통계 항목을 설명하는 페이지에서 지표 내용에 관한 교육용 킷(kit)을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서비스하는 경우가 대다수임

## ■ 일본

- 일본 문화청은 문화청 홈페이지(<http://www.bunka.go.jp>) 및 매년 발간하는 백서를 통해 문화재 관련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자료는 대부분 문화재에 관한 종합적 현황, 문화재 관련 조사 및 행정행위 결과를 보고식으로 간략히 전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일본 문화재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제공하는 문화청 홈페이지의 통계는 ‘국보’, ‘중요문화재’,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등 지정 종류 및 지정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연도별 관람객 및 향유자 수 등 계량적 통계가 대부분임
-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는 국보, 중요문화재 등 국가지정문화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페이지([http://kunishitei.bunka.go.jp/bsys/index\\_pc.html](http://kunishitei.bunka.go.jp/bsys/index_pc.html))를 별도 운영하고 있음. 해당 페이지는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종류·시기 등으로 구분해 지정건수를 표기하고 행정구역 별 지정 문화재 현황을 제공하는 한편, 세부 검색을 통해 각 문화재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서비스 함.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계자료는 문화재에 관한 단순 정보만을 수치로 제공하는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음
- 한편, 문화청 홈페이지 내 ‘통계·백서·출판물’ 섹션은 문화재 또는 문화행정관련 통계자료 및 관련 분석내용을 웹페이지 혹은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보고서의 주제별로 통계를 단순 활용하는 차원이며, 문화재에 관한 통계를 중점적으로 다룬 단독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 ‘통계·백서·출판물’ 섹션에는 일본 문화에 관한 다양한 연구실적과 행정조사연구결과, 국제문화교류관련자료, 문화재관련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음. 이 중 지표에 대한 수치만 제시하는 다른 통계와 달리 조사 목적이 분명한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문화재 관련 인식조사 통계자료”가 눈에 띈다. 이 자료는 방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다음 사항을 조사해 통계화 한 것으로, ①일본 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관한 인지도 ②관심이 있는 일본 문화재 분야 ③일본문화재에 관한 정보 획득 매체 ④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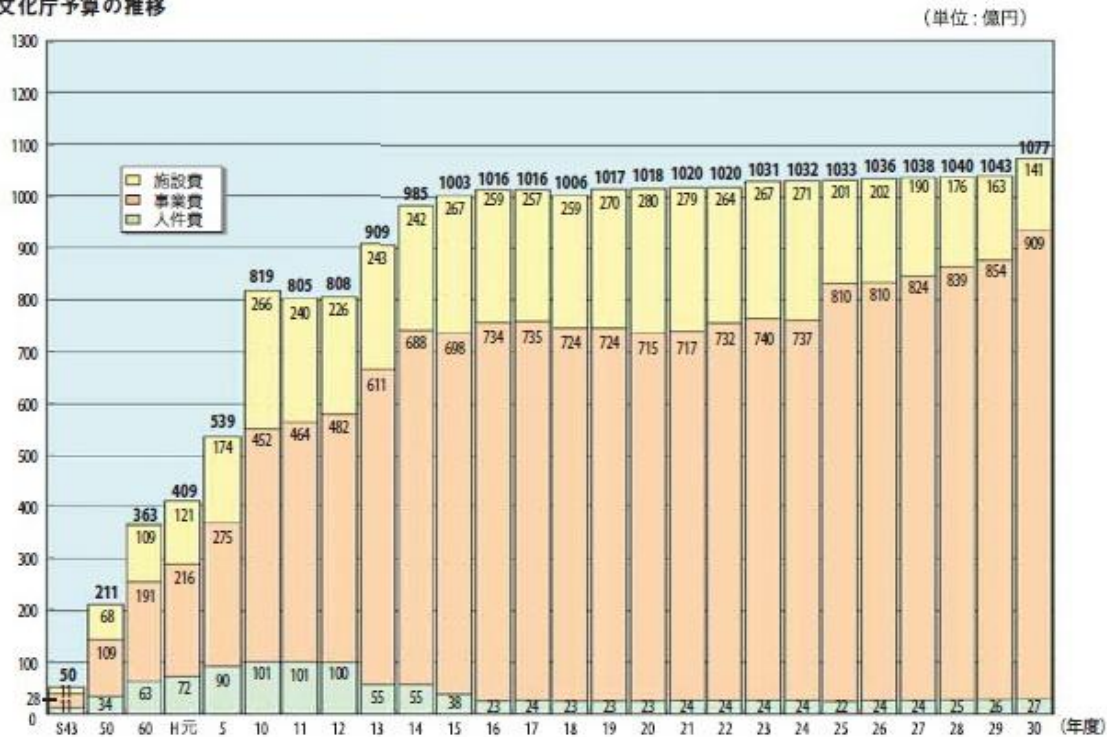
제 방문한 일본 문화재 분야 ⑤방문 문화재와 해당 지역의 결정 요소 ⑥문화재 관람 중 불만스럽거나 불쾌했던 요소 등을 조사해 통계자료로 제공함

◆平成30年度文化庁予算額(分野別)



注 単位未満を各々四捨五入しているため、合計額と合致しない場合がある。

◆文化庁予算の推移





◆国指定文化財等件数一覧

平成30年4月1日現在

指定			
重要文化財(うち国宝)		13,166件	(1,110件) ※1
建造物		2,480件	(225件)
美術工芸品		10,686件	(885件)
重要無形文化財		保持者・団体	
芸能	各個認定	39件	(57人)
	総合認定	14件	(14団体)
工芸技術	各個認定	38件	(57人) ※2
	保持団体認定	16件	(16団体)
重要有形民俗文化財		220件	
重要無形民俗文化財		309件	
史跡名勝天然記念物(うち特別史跡名勝天然記念物)		3,242件	(173件) ※3,4
史跡		1,805件	(62件)
名勝		410件	(36件)
天然記念物		1,027件	(75件)
選定			
重要文化的景観		61件	
重要伝統的建造物群保存地区		117地区	
登録			
登録有形文化財(建造物)		11,690件	
登録有形文化財(美術工芸品)		14件	
登録有形民俗文化財		44件	
登録記念物		106件	
文化財ではないが保護対象となるもの			
選定保存技術		保持者・団体	
	保持者	45件	(55人)
	保存団体	33件	(35団体) ※5

- ※1 重要文化財の件数は国宝の件数を含む  
 ※2 工芸技術の各個認定保持者は重複認定があり、実員数は56人となる  
 ※3 史跡名勝天然記念物の件数は、特別史跡名勝天然記念物を含む  
 ※4 史跡名勝天然記念物には重複指定があり、実指定数は3,128件(特別史跡名勝天然記念物は163件)となる。  
 ※5 選定保存技術については保存団体に重複認定があるため、実団体件数は32団体

◆国宝・重要文化財(建造物)種類別・時代別指定内訳

平成30年4月1日現在

種類別		件数	棟数
近世以前の分類	神社	575 (40)	1,234 (75)
	寺院	860 (157)	1,224 (165)
	城郭	53 (9)	235 (17)
	住宅	97 (14)	155 (20)
	民家	353	867
	その他	194 (3)	263 (3)
	小計	2,132 (223)	3,978 (280)
近代の分類	宗教	29	44
	住居	101 (1)	392 (1)
	学校	43	82
	文化施設	38	74
	官公庁舎	31	60
	商業・業務	23	30
	産業・交通・土木	78 (1)	282 (3)
	その他	5	17
小計		348 (2)	981 (4)
合計		2,480 (225)	4,959 (284)

(注) ( )内は国宝で内数

◆重要無形文化財指定件数

平成30年4月1日現在

区分	種類	件数	
		各個認定	総合認定・保持団体認定
芸能	雅楽	0	1
	能楽	6	1
	文楽	3	1
	歌舞伎	4	1
	組踊	3	1
	音楽	19	8
	舞踊	2	1
	演芸	2	0
	小計	39件	14件
工芸技術	陶芸	9	3
	染織	13	7
	漆芸	5	2
	金工	5	0
	木竹工	2	0
	人形	2	0
	てすまわし 手漉和紙	2	4
	小計	38件	16件
合計		77件	30件

◆重要有形民俗文化財指定件数

平成30年4月1日現在

種 類	件 数
衣食住に用いられるもの	30
生産、生業に用いられるもの	94
交通、運輸、通信に用いられるもの	19
交易に用いられるもの	1
社会生活に用いられるもの	1
信仰に用いられるもの	39
民俗知識に関して用いられるもの	7
民俗芸能、娯楽、遊戯に用いられるもの	23
人の一生に関して用いられるもの	3
年中行事に用いられるもの	3
合 計	220

◆重要無形民俗文化財指定件数

平成30年4月1日現在

種 類	件 数
風俗慣習	128
民俗芸能	165
民俗技術	16
合 計	309

〈그림 11〉 일본 문화청 통계자료 사례

[출처] 다음에서 그림 편집 인용. 일본 문화청 발간 <平成30年度 我が国の文化政策>



## ■ 중국

- 중국 문화관광부(中華人民共和國文化和旅游部) 홈페이지(<https://www.mct.gov.cn>)는 문화 관련 통계 섹션을 마련하고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문화행정 관련 통계가 주를 이루고 문화재 혹은 문화유산 관련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움
-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중국의 문화재에 대해 물질문화유산(物質文化遺產), 비물질문화유산(非物質文化遺產), 세계문화유산(世界文化遺產)으로 구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진자료와 설명을 통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문화재에 관한 통계자료는 찾아볼 수 없음
- 한편, 중국 문화관광부의 경우 일본 문화청의 백서 발간처럼 1년에 한 번 문화 관련 ‘문화발전통계공보(中華人民共和國文化和旅游部 文化發展統計公報)’를 발간하고 있음. ‘문화발전통계공보’의 주 내용은 문화정책에 관한 것이며, 내용 중 다루는 통계 항목은 ①전국문화기관종사자수 추이 ②전국공공도서관 이용객 추이 ③전국예술공연단체 현황 ④지역별 문화시장 규모 ⑤전국 문화재 관련 기구 종사자 ⑥문화재 유관기관 성인 및 미성년자 관람객 수 등임. 이 중 중국 문화부에서 문화유산보호와 관련 있다고 구분한 항목은 ⑤번 전국 문화재 관련 기구 종사자 수와 ⑥번 문화재 유관기관 성인 및 미성년자 관람객 수인데, 연도별 문화재기관 종사자 수 및 관람객 수의 수치만을 그래프로 작성해 비교하고 있음

图 3 2006 年—2017 年全国公共图书馆总流通人次及书刊外借册次



图 4 2006 年—2017 年全国平均每万人群众文化设施建筑面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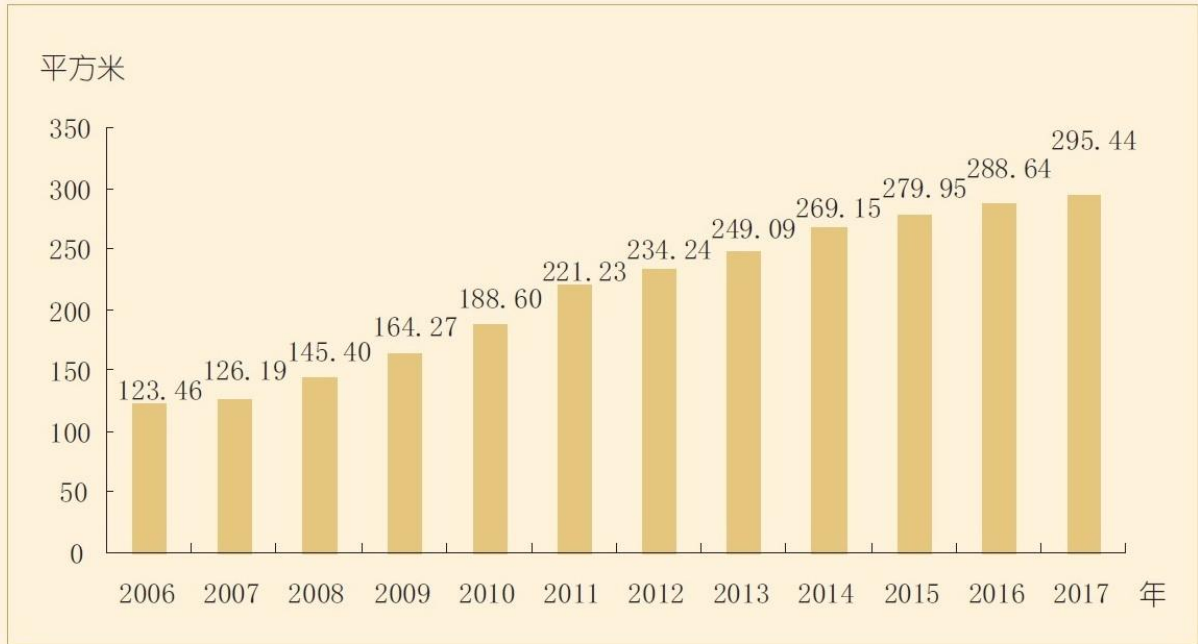


图 6 2008 年—2017 年全国文物机构接待观众人次及未成年人观众人次



## 〈그림 12〉 중국 문화발전통계공보 통계자료 사례

[출처] 중국인민공화국문화관광부 발간 <中华人民共和国文化和旅游部 2017年 文化发展统计公报>

### 2.1.3. 시사점

- 자연유산 중심이나 인공유산 중심이나에 따라 국가별 문화유산 통계의 지향점이 다르며, 표현하고 활용하는 방식 또한 다름. 우리나라의 경우 인공유산 중심의 국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유관 국가의 사례 중 이탈리아 사례를 참고할 만함
- 자연유산 중심인 캐나다의 문화유산 통계는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할 당위성과 함께 문화유산이 가진 자원으로서의 효용성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의 정책방향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던짐. 또한, 미국 피바디뮤지엄의 공통의 삶과 역사에 관한 통계는 이미 오래 전 역사의 일부로 오늘날 유의미한 사회현상을 찾기 어려운 주제에 관해 흥미로운 통계 사례를 보여주는데, 역사를 증언하는 문화유산을 통해 생산 가능한 통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시사점을 던짐
- 다양한 주제를 통해 문화와 문화유산 관련 통계를 복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통계는 통계 내용, 통계자료 분석방법, 활용방법 등에 대한 아이디어와 통계를 활용해 생산 가능한 미래 가치를 알려 주기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짐. 특히, 사용자가 직접 선택한 주제에 따라 필요 정보와 관련 통계를 활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통계’는 향후 우리나라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으로 참고할 만함
- 일본과 중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아 특별한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지만, 문화유산에 관한 행정통계로서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님

## 2.2. 국내 타 분야 주요 통계 동향

### 2.2.1. 통계의 생산과 활용 동향

#### ■ 사용자 중심의 통계 생산

- 최근 국내 통계 생산 및 활용의 주요 경향은 국내 환경에 맞는 ‘사용자 중심’의 통계지표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인데, 전반적으로는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몇몇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또는 특정 기관의 통계 사례는 향후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생산과 활용 모델을 제공하고 있음
- 대표적인 국내 비교 사례로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NTIS)’, ‘ICT통계포털(ITSTAT)’,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사례들은 지표 개발뿐만 아니라 통계자료의 플랫폼 구축 사례로도 좋은 참고가 되리라 예상됨

#### ■ 위치기반정보 및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활용 중심의 통계 생산

- 위치기반정보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 내 활용하고자 하는 콘텐츠에 관한 정보를 통계를 통하여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활용 중심의 통계를 생산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음. 현재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 공간정보(GIS)’를 서비스하고 있는데, 지역 및 관광자원과 이어져 있는 문화유산의 경우 이러한 방법을 적극 활용한다면 매우 유용한 통계 생산과 활용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상됨
- 나아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맞춤식 통계 정보’를 서비스함으로써 사용자가 단순히 통계자료를 참고하는 차원을 넘어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최적화 한 정보로서의 통계를 생산 및 제공하고자 시도하고 있음. 이러한 동향은 향후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등의 첨단기술과 결합하여 통계의 활용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2.2.2. 주요 통계 및 지표 사례

###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에서는 ‘정책자료’ 콘텐츠의 하위 콘텐츠로 ‘통계’ 항목을 만들어 ‘대표통계’, ‘통계연보·주제별 통계’, ‘승인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구분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제에 따라 e-나라지표, 국가기록원, 국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원봉사포털 등과 통계 정보를 공유해 서비스 함
- 행정안전부는 통계자료도 다수 발간하고 있음. 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과 인식 정도 등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이며,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이용률, 만족도 등 다양한 현황을 제공함. 2012년에는 국가승인통계(일반통계 제11029호)로 지정되었으며, 2014년부터는 국제 기구(OECD, UN 등)에서 요구하는 통계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표본규모를 확대하여 전국 400개 조사구의 가구원 4,000명을 대상으로 가구방문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이 조사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지표를 산출하는 한편, 조사 주제별로 상세하면서도 시각적으로 접근하기 쉽도록 통계화 하고 있음

**통계**

대표통계

통계연보·주제별 통계

승인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정책자료 > 통계 > 대표통계

**대표통계** (7)국민안전처 승인통계

행정안전부 대표통계는 국정과제, 정책과제 관련 주요업무 통계로 국가승인통계, e-나라지표 및 행정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나라지표 통계 (37개)**

\* 해당 통계를 클릭하시면 e-나라지표 시스템으로 이동하며, 통계표, 그래프 및 의미분석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분야	통계명
정부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행정정보공개율</li> <li>정부민원포털 민원24 서비스 이용현황</li> <li>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li> <li>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현황</li> <li>공공기관 CCTV 설치 및 운영현황</li> </ul>
정부조직/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부기구 추이</li> <li>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li> <li>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li> <li>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현황</li> <li>행정부 국가공무원 정원 추이</li> <li>지방공무원 정원 현황</li> <li>행정기관위원회수 현황</li> </ul>
전자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자정부서비스 이용현황</li> <li>UN 전자정부 발전지수</li> </ul>
지방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예산 대비 지방예산 비율</li> <li>자치단체 재정자립도</li> <li>자치단체 채무 현황</li> <li>자치단체 사회복지비 비중</li> <li>지방채 발행</li> <li>지방교부세 현황</li> <li>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li> <li>지방재정 규모(세외수입 포함)</li> <li>자치단체 기금 현황</li> <li>지방채 현황</li> <li>지방공기업 재무 현황</li> </ul>
지방행정·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수</li> <li>새마을금고 현황</li> <li>자원봉사 참여율(성인)</li> <li>자전거도로 현황</li> </ul>
안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강기 보유 및 사고 현황</li> <li>민방위대 편성현황</li> </ul>
재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별재난지역 선포현황</li> <li>자연재난 복구비 추이</li> <li>자연재난 발생현황</li> <li>사고발생 현황</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기록물 보유 현황</li> <li>국가기록물 열람 현황</li> <li>국과수 감정처리(유형별) 현황</li> </ul>

**기타 주요통계 (22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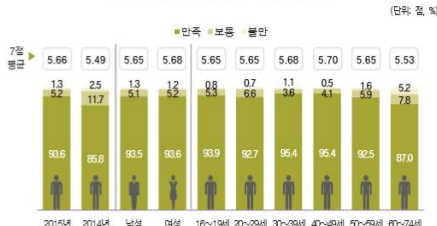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결과보고서

## 9.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93.6%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

-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93.6%는 전자정부서비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약간 만족 28.6% + 만족 55.9% + 매우 만족 9.0%)하는 반면, '보통' 5.2%, '불만' 1.3%이며, 7점 척도 평균은 5.66점으로 '약간 만족' 수준임
- 전년도 대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만족' 비율은 7.8%p 상승하였으며, 성·연령별 모두 상승하였음,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만족율이 11.2%p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4〉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문.15)



\* 기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표 2-14〉 전자정부서비스 만족도 비교(2014/2015)

구분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74세	
2015(A)	93.6	93.5	93.6	93.9	92.7	95.4	95.4	92.5	87.0	
2014(B)	85.8	86.3	85.3	87.6	83.8	88.1	84.2	87.9	80.4	
증감(A-B)	↑7.8	↑7.2	↑8.3	↑6.3	↑8.9	↑7.3	↑11.2	↑4.6	↑6.6	

\* '만족'(약간 만족 + 만족 + 매우 만족) 비율임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결과보고서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전망

### 1.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이용의향

- 만 16세~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98.9%는 향후에도 전자정부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연령별로 큰 차이 없이 현재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대부분이 향후에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0〉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이용의향 (문.23)



\* 기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표 3-50〉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이용의향

[단위: 명, %]						
구분	모집단수	이용		미이용		
		명	%	명	%	
■ 전체 ■	31,429,582	31,090,412	98.9	339,170	1.1	
성별	남성	16,830,912	16,852,169	98.9	178,743	1.1
	여성	14,598,670	14,438,243	98.9	160,427	1.1
연령별	16세~19세	2,511,374	2,511,374	100.0	—	—
	20대	6,263,921	6,221,363	99.3	42,558	0.7
	30대	7,163,708	7,122,261	99.4	41,446	0.6
	40대	7,414,523	7,388,985	99.7	25,537	0.3
	50대	5,728,483	5,657,597	98.8	70,886	1.2
	60세~74세	2,347,573	2,188,831	93.2	158,742	6.8

158

## 〈그림 13〉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통계 콘텐츠 및 통계자료 사례

[출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및 2015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조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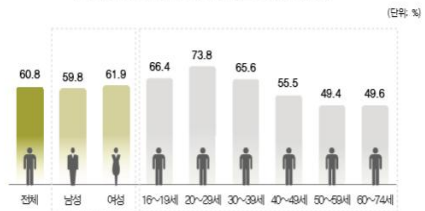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실태

### 1.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60.8%가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 만 16~74세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의 60.8%가 최근 1년 동안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경험이 있으며, 지난해보다 3.0%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성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연령층과 40대 이상 연령층에 따라 이용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폰 이용자의 증가 추세에 따라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은 50대와 60~74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전년도 대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2-15〉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률 (문.18)



\* 기준: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 2.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충만이유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 중 '향후에는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없는 집단'의 경우 가장 주된 이유(순위+2순위+3순위)는 '본인 확인결과 등 이용결과가 번거롭고 복잡하여서'(79.3%)이며, 그 다음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수 없어서'(39.8%),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36.0%) 등으로 집계됨
-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가 모두 '본인 확인결과 등 이용결과가 번거롭고 복잡하여서'가 향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충만의 주된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3-5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충만이유 (문.24)



\* 기준: 전자정부서비스 계속이용 미의향자 이용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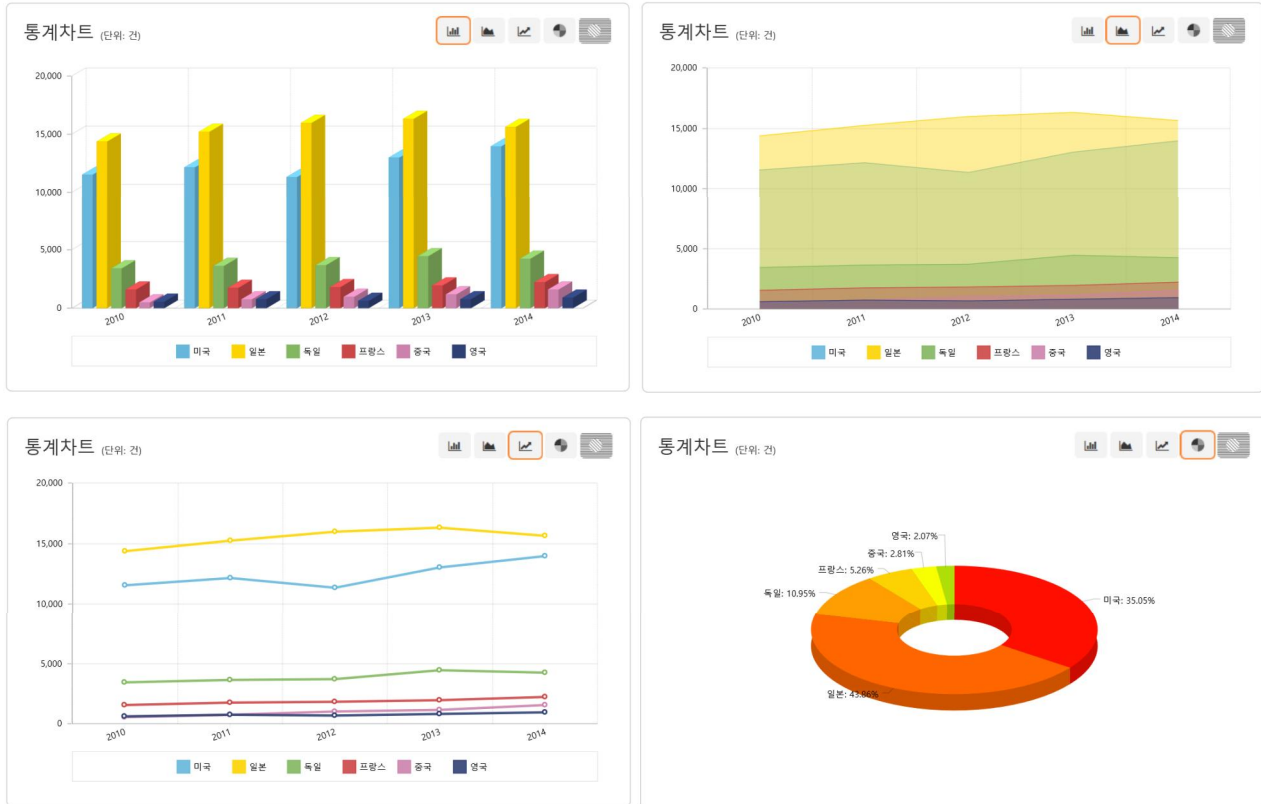
〈표 3-51〉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충만이유

구분	모집단수	본인 확인결과 등 이용결과가 번거롭고 복잡하여서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수 없어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서		관리 정보나 처리결과 등 지체되어서		원하는 정보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어서		
		명	%	명	%	명	%	명	%	명	%	
■ 전체 ■	339,170	268,880	79.3	135,084	39.8	122,154	36.0	113,508	34.9	85,640	25.2	
성별	남성	178,743	127,864	71.6	40,847	22.7	72,045	40.3	59,310	33.2	49,946	27.9
	여성	160,427	140,996	87.9	94,436	58.9	50,109	31.2	54,198	33.8	45,694	28.5
연령별	16세~19세	—	—	—	—	—	—	—	—	—	—	
	20대	42,558	35,808	83.7	18,570	43.6	17,775	41.8	22,736	78.9	6,213	14.6
	30대	41,446	34,799	84.0	14,521	35.2	20,525	49.5	7,826	18.4	7,092	17.1
	40대	25,537	19,043	74.6	9,470	37.2	17,145	67.1	6,485	25.4	5,875	23.0
	50대	70,886	51,425	72.5	45,137	63.7	5,073	7.2	18,331	25.8	26,821	37.9
	60세~74세	158,742	129,055	80.7	49,324	30.4	41,687	26.3	55,795	35.2	38,059	24.1

159







〈그림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통계 콘텐츠 및 통계자료 사례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및 “NTIS” ‘국가별 특허 출원건수’

##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는 통계 전용 홈페이지인 “문화센터”(http://stat.mcst.go.kr)를 운영하며, ‘주제별 통계’, ‘지표통계’, ‘시각화통계’ 등 크게 세 가지로 항목에 대하여 카테고리 별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주제별통계는 문화예술통계, 문화산업통계, 관광통계, 체육통계로 나누어 서비스 하고 있음. 지표통계는 소비자물가지수, 소비자동향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 수출입통계, 서비스업생산지수, 가계지출동향으로 나누어 서비스 하며, e-나라지표를 참조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시각화통계는 인포그래픽, 지도서비스, SNS분석, 통계보고서로 구성하여 방문자들이 보다 쉽게 통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자료는 ‘공공도서관 현황’, ‘공연/전시 횟수’, ‘등록 박물관/미술관 현황’ 등 연도별 문화, 체육, 관광 관련 사항들의 증감이나 추이 및 동향 분석만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통계자료가 많은 편이며, 홈페이지상 통계 디자인이나 다양한 활용기술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처에 비해 아쉬움을 남기지만 전자책으로 서비스 중인 통계 관련 각종 발간자료의 내용과 수준, 활용도는 상당히 뛰어남



- 한편, ‘소비자동향지수’ 등 문화와 관련한 지수를 개발하고 매달 서비스 하는 점, 각종 문화산업 현황 통계를 지도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점은 통계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좋은 참고 사례임. 그리고 홈페이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통계 주제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시행하는 설문에 이용자가 직접 응답하는가 하면, 국민의 관심에 대한 통계를 마련하여 통계를 활용해 국민과 직접적인 소통하는 점은 다른 부처와 차별화된 큰 장점이라고 판단됨



## 공지사항

[공지] 문화센터 사이트 일시 점검 안내 [2018.06.22]  
[공지] IDC SDN구축에 따른 서비스중단 [2017.10.15 00:00 ~ ~]  
[공지] 문화센터 사이트 일시 점검 안내 [2017.09.27]  
[공지] 문화센터 사이트 일시 점검 안내 [2017.08.31]  
[공지] 문화센터 사이트 일시 점검 안내 [2017.07.31]

## 자료실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2018-08-01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 고용동향 2018-08-01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물가지수 2018-07-15  
문화체육관광 소비자동향조사(2018년 1분기 현황 및 2분기 전망) 2018-07-12  
문화체육관광 기업경기동향조사(2017년 4분기 현황 및 2018년- 2018-07-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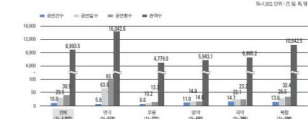


## 4) 기획·초청별 공연 실적

(1) 주요활동영역별 기획·제작 공연

주요활동영역별 기획·제작공연 실적은 상계로, 공연건수는 국악 단체가 평균 14.7건으로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연수익은 공연당수익은 평균 14만 6,339원, 931회로 가장 높았다. 관객수 또한 국악 단체가 평균 14,042,489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21 공연단체 주요활동영역별 기획·제작 공연 실적(단위: 건, 관객수, 수익)



5-15 공연단체 주요활동영역별 기획·제작 공연 실적(단위: 건, 관객수, 수익)

구분	단체 수	공연건수(건)		공연수익(천원)		관객수(명)		평균 수익(천원)	
		합계	평균	합계	평균	합계	평균		
전체		1,802	18,190	18.0	66,612	28.5	73,900	38.5	12,203,360
연극	204	2,070	5.9	31,004	63.0	48,013	83.1	8,400,547	67.8
무용	221	1,405	8.4	2,284	1.6	2,000	13.3	1,095,346	4,770.0
연가	681	7,810	11.0	10,201	14.8	10,000	14.2	4,107,400	5,510.0
연가	109	5,005	18.7	8,510	22.1	4,800	22.1	2,000,000	17,382.0
연가	100	1,382	13.1	2,854	28.5	3,200	28.4	1,000,000	19,61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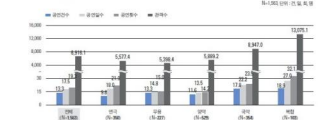
5-22 공연단체 주요활동영역별 기획·제작 공연 실적(단위: 건, 관객수, 수익)



## (2) 주요활동영역별 행사·참가·초청 공연

주요활동영역별 행사·참가·초청공연 실적은 상계로, 공연건수, 공연수익, 관객수 및 관객당수익은 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공연당수익은 평균 14만 6,339원, 931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23 공연단체 주요활동영역별 행사·참가·초청 공연 실적(단위: 건, 관객수, 수익)



5-14 공연단체 주요활동영역별 행사·참가·초청 공연 실적(단위: 건, 관객수, 수익)

구분	단체 수	공연건수(건)	공연수익(천원)	공연당수익(천원)	관객수(명)	관객당수익(천원)	평균 수익(천원)
전체	1,802	20,814	18.2	21,423	11.0	18,000	18.2
연극	204	3,382	8.6	6,200	10.0	2,000	6,200
무용	227	3,011	13.1	3,340	14.0	1,200,000	3,340
연가	681	6,180	11.6	7,100	12.0	14.2	5,110,000
연가	304	6,327	17.0	7,800	22.0	6,300	22.0
연가	100	1,000	18.0	2,200	22.0	2,200	2,200

5-24 공연단체 주요활동영역별 행사·참가·초청 공연 실적(단위: 건, 관객수, 수익)



## 소비자동향지수

전분기대비

'18년 3분기 현황지수 및 4분기 전망지수 모두 기준치(100) 이상의 수치를 기록함에 따라, 3분기 문화체육관광 분야 소비 지출 증가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

- 3분기 현황은 103.8, 전분기대비 0.2p 하락
- 4분기 전망은 102.7, 전분기대비 6.9p 하락

### '18년 3분기 항목별 소비지출 전망



### 주요 품목별 3분기 소비지출 증감 현황 (기준치:100)



### 주요 품목별 4분기 소비지출 증감 전망 (기준치:100)



출처: 문화체육관광 경제지표 | 2018.10월호

### '18년 3분기 및 4분기 소비자동향지수



### 3분기 소비지출 현황 중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관광·여행비



- 전분기 대비 1.5p 상승
- 관광·여행비: 현황 소비자동향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전년 4분기를 기점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소비지출 자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분기 소비지출 전망 중 가장 크게 증가한 품목은 오락·음용 구입비



- 전분기 대비 1.7p 상승
- 오락·음용 구입비: 전망 소비자동향지수는 전분기 대비 상승하며 하락세를 회복하였으며, 기준치(100) 이상의 수준으로 반등함에 따라 향후 소비지출 역시 3분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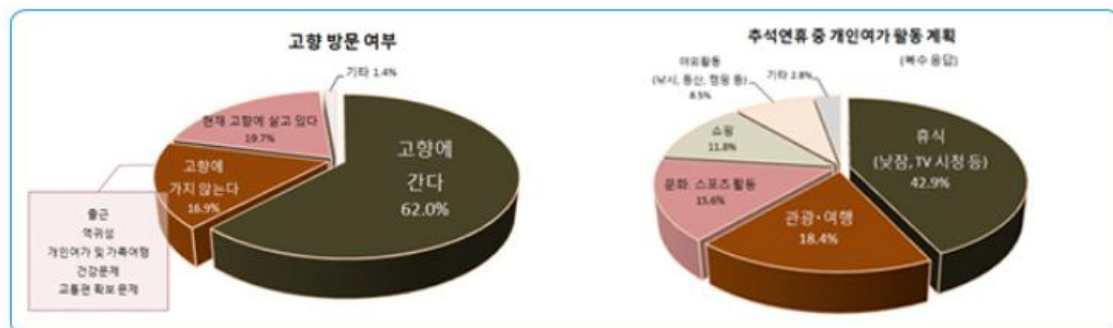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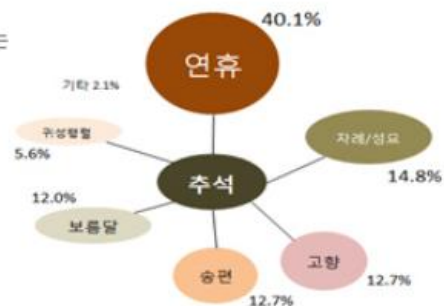


06 | 07

## 나에게 '추석'이란?

추석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추석은 쉬어야 제맛~ '연휴'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추석이라는 연휴를 통해 평소 지쳤던 몸과 맘을 쉬도록 한다면 좋겠죠? 그 외에도 '차례/성묘', '고향', '송편', '보름달' 등 전통적인 추석과 연관된 단어를 생각하기도 했고, 민족 대이동 기간 답게 '귀성행렬'을 떠올리기도 했네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 즐겁게 보내셨으리라 예상해봅니다.



〈그림 15〉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자료 사례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 홈페이지

##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서울특별시가 출연하여 운영 중인 서울연구원은 통계자료만으로도 서울특별시의 역사와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http://data.si.re.kr>)를 2015년 6월 개설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축적·관리할 ‘도시자료분석팀’을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센터’ 내에 설치해 운영 중임. 서울연구원은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서울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의 분석·연구하여 매우 수준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관련한 통계자료집을 별도의 서적으로 발간함
-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하여 통계 이해와 활용에 참고할 만한 사진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 홈페이지 서비스 내용은 ‘통계연구 시리즈’, ‘주제별 데이터’, ‘조사데이터’, ‘서울연구논문공모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구를 위한 연구가 아닌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 큰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통계연구를 확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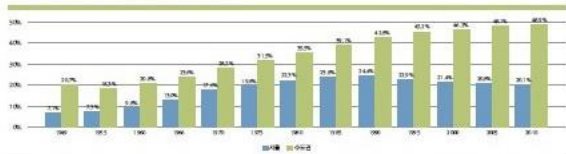
## 1. 인구변화와 인구성장률

### 1.1 총인구성장률 성장률

서울 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수도권 인구의 지속적 성장

인구가 54배 증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서울의 인구는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는 1990년 1,060만 명을 정점으로 정점 감소하는 반면,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2-1 전국 인구 증가율 및 수도권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추이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표 2-1 서울과 수도권의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 추이

구분	인구		수도권	
	인구	%	인구	%
1949	1,437,670	7.1%	4,171,614	20.7%
1955	1,568,746	7.3%	3,328,306	18.3%
1960	2,445,402	9.8%	5,194,167	20.8%
1965	3,793,280	13.0%	6,895,605	23.6%
1970	5,325,302	17.6%	8,878,534	28.2%
1975	6,879,444	19.8%	10,944,171	31.5%
1980	8,250,616	22.3%	13,280,931	35.3%
1985	9,625,735	23.8%	15,403,286	39.1%
1990	10,603,230	24.4%	18,573,937	42.8%
1995	10,271,717	22.9%	20,155,295	45.2%
2000	9,803,972	21.4%	21,258,062	46.2%
2005	9,362,546	20.8%	22,621,232	48.1%
2010	9,631,842	20.1%	23,405,570	48.9%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 %는 전국 인구에 대한 서울 및 수도권 인구의 비율

서울시 인구 증가율은 1990년부터 부(-)의 증가율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55~1960년에 55.8%, 1960~1965년에 55.1%로 정점에 달한다. 이후에도 1985~1990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인구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3.6%로 감소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하여 현재까지 부(-)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양(+)의 인구성장률을 보인다.

그림 2-2 서울과 수도권의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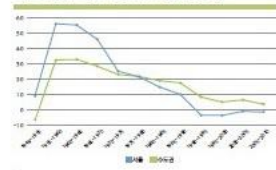


표 2-2 서울과 수도권의 1949년부터 2010년까지 인구증가율

구분	서울	수도권
1949~1955	55.82	-5.83
1955~1960	55.08	32.22
1960~1965	55.12	32.76
1965~1970	45.66	28.76
1970~1975	24.51	22.93
1975~1980	21.38	21.69
1980~1985	15.27	18.99
1985~1990	10.75	17.53
1990~1995	-3.64	8.54
1995~2000	-3.55	5.45
2000~2005	-0.95	6.41
2005~2010	-1.34	3.71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 1.2 서울 자치구별 인구변화

서울 자치구의 수는 2010년 현재 25개구, 송파구 인구

자치구 중 가장 많아  
인구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1990년대 인구 63만 명이었다고 2005년에 57만 명으로 감소한 것을 제외하면 63만~64만 명의 인구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강남지역에 속하는 자치구의 인구는 많은 반면, 과거 도심지역이면서

현재 1번지인 밀려난 종로구, 중구 등의 상무인구는 10만 명에서 15만 명 정도로 줄어든 상무인구의 측면에서 수도 자치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동인구 등 주간인구를 고려하면, 도심지역 자치구의 1일 인구는 여전히 매우 높다. 2010년 현재는 송파구, 노원구, 강서구, 관악구 등의 순으로 상무인구의 양이 크다.

그림 2-3 2010년 서울 자치구별 인구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그림 16〉 서울연구데이터베이스 사례

## ■ 지방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세종시, 강릉시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통계 서비스는 대체로 '인구', '세대', '출생', '사망', '혼인', '주택', '시설', '경지', '면적', '상수도', '전력'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 및 생활과 관련한 정보이기에 거의 비슷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그 중 주목할 만한 사례는 서울특별시, 세종시, 강릉시임
-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 중 내용 및 활용면에서 가장 우수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통계 전용 홈페이지 '서울열린데이터광장'(http://data.seoul.go.kr)에서 체계적 분류에 의한 다양한 통계 정보와 통계 시각자료를 개발해 서비스하고 있음. 특히, 오픈 API, 개방데이터 카달로그, 서울통계서비스, 통계간행물 등을 서비스하며 수요자 중심의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 세종시 역시 통계 전용 홈페이지 '세종 통계'(http://www.sejong.go.kr/stat.do)를 운영하고 있는데, 홈페이지 구성은 다른 지자체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인포그래픽을 포함해 시각적 효과를 높인 통계 자료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 강릉시는 별도의 전용 홈페이지 없이 강릉시청 홈페이지(https://www.gn.go.kr) 내 '공개/개방' 콘텐츠의 하위 콘텐츠로 '통계정보'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정보서비스를 이용해 '살고싶은 우리동네'라는 통계 정보를 개발해 수요자 중심의 특색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눈에 띈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데이터 이용하기 | 데이터 즐기기 | 데이터 참여소통

데이터 활용 | 열린데이터광장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 데이터 분류

서울시(본청·사업소), 투자유연기관 및 자치구가 개발한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카테고리**

- 보건
- 일반행정
- 문화관광
- 산업/경제
- 복지
- 환경
- 교통
- 도시관리
- 교육
- 안전
- 인구/가구
- 주택/건설

**공지사항**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실시간 대여정보 2018.12.05
- 서울특별시 지하철 컷차, 막차정보 서... 2018.12.04
- '오픈API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2018.11.09
-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2018.08.29
- 서울특별시 공공자전거 공공데이터 개... 2018.07.20

**데이터 리스트**

연기 데이터	최신 데이터	최근 본 데이터
1.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도착정보	2018.05.02	
2. 서울시 지하철 실시간 열차 위치정보	2018.05.02	
3. 서울시 권역별 실시간 대기환경 현황	2018.08.07	
4. 서울시 미세먼지 예경보 현황	2018.08.07	
5. 서울시 초미세먼지 예경보 현황	2018.08.07	

**오픈 API**

API를 이용하여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직접 개발할 수 있습니다.

**개방데이터 카달로그**

공공 데이터와 함께 민간 및 개인이 보유한 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서울통계서비스**

서울통계DB를 다양한 형태로 확인해 보세요.

**통계간행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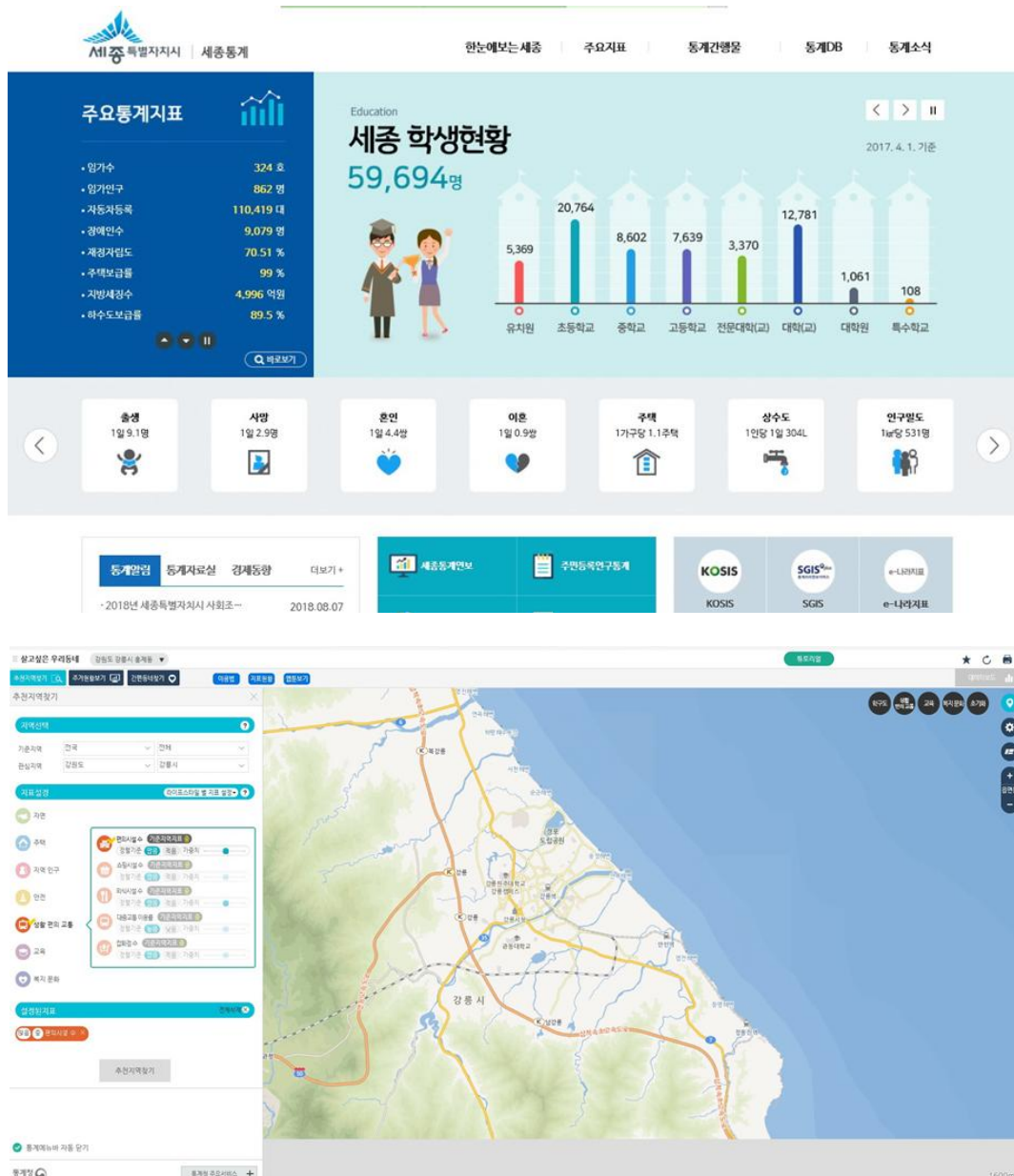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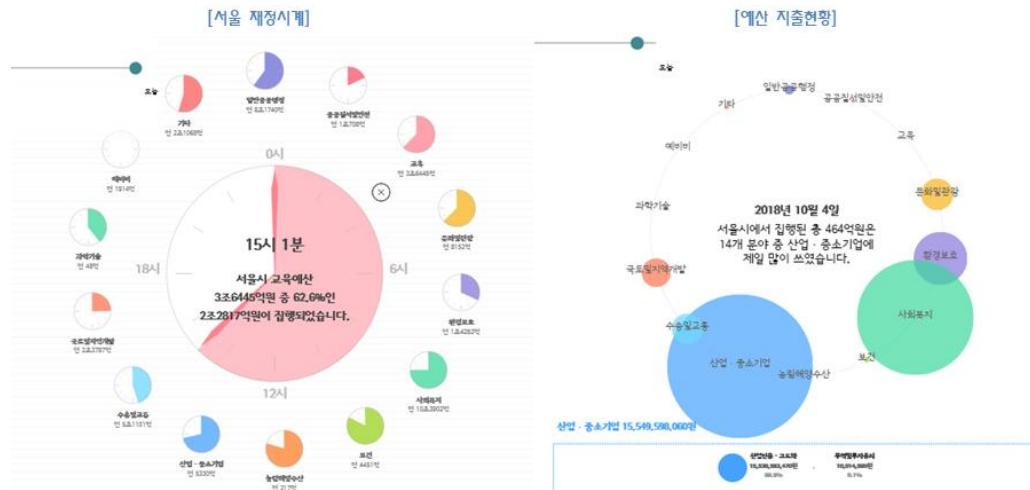
서울통계간행물 통계 자료를 테마별, 기간별로 정리한 통계간행물을 확인하세요.

**서울 100대통계**

서울주요통계	경제생활	시민생활
서울인구(천명) 이민인구(천명)	무역수지(백만불) 계정외수지(백만불)	출생(천명) 출산(천명)
10,049 2018.4/4	-8,164 2018.12	4.9 2018.07
204 2018.4/4	100.5 2018.09	4.0 2018.07

**인기검색어**

유동인구	▲ 2
인구	▲ 12
지하철시간표	▼ 2



〈그림 17〉 서울특별시, 세종시, 강릉시 통계 서비스 사례

### 2.2.3. 시사점

- 최근 들어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생산 및 활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몇몇 사례는 단순한 통계 영역을 넘어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 높은 통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동향은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사회와 IT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의 요구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주요 매개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이러한 흐름이 더욱 고도화 하는 이유는 통계에 대하여 단순히 결과나 행정 행위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던 시대가 지나고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거나 매개하는 효율적 가치가 풍부한 분야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향후 이러한 동향이 가속화 할수록 통계는 공급자와 수요자와의 관계, 정부와 국민의 관계 등을 새롭게 규정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
- 이상의 국내 타 분야 주요 통계 및 지표 사례 외에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공공데이터포털'(<https://www.data.go.kr>)은 우수한 통계 정보 및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해당 사이트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통계 정보 사이트이기에 문화유산 통계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하거나 통계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필요할 때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3.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및 정비방안**

#### **3.1. 문화유산 통계 현황 진단**

- 3.1.1. 문화유산 통계를 둘러싼 환경 분석
- 3.1.2. 문화유산 통계의 특징 분석

#### **3.2. 문화유산 통계지표 개발 및 정비 방법**

- 3.2.1. 문화유산의 주제와 통계의 범주
- 3.2.2. 수요자 정의
- 3.2.3. 통계 디렉토리 및 분류체계



### 3.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 및 정비 방안

#### 3.1. 문화유산 통계 현황 진단

##### 3.1.1. 문화유산 통계를 둘러싼 환경 분석

###### ■ 문화유산 분야의 정보로서 문화유산 통계

- 통계는 기본적으로 해당 분야에서 ‘정보’로서의 기능을 함. 문화유산 통계 역시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문화유산 통계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그러므로, 문화유산 통계를 통해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고 전달할 것인지가 통계를 생산하는 목적이자 기본 태도가 되며, 정보를 만들고 전달하는 전략적 목표는 시대 변화에 따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음
- 정보로서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통계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살펴야 하는데,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 등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할 수 있지만 정보를 초점에 둘 때 다음 네 가지를 대표적 환경으로 들 수 있음(관련 환경은 2016년도 ‘문화재 통계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제기한 바 있음). 이러한 환경은 앞으로 문화유산 통계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시사함

###### ■ 네트워크 사회(Network Society)

- 현대사회는 대중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이동 중이며, 사회를 향해 빅 데이터로 개방된 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생산할 것임
- 네트워크 사회란 자본과 노동·사람·지식·정보가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된 사회를 의미함. 정보, 상품, 자본, 사람, 지식이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해 서로 연결됨과 동시에 이동함<sup>[1]</sup>

[1] 네트워크 사회라는 용어는 네덜란드의 안 반 다이크(Jan van Dijk)가 정보통신기술과 디지털기술의 전반적인 도입을 통해 새롭게 드러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본인의 저서 『네트워크 사회』(2005)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현대 정보사회를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이다. 네트워크 사회에 관한 이론을 보다 확장한 미국의 사회학자 마누엘 카스텔(Manuel Castells)은 네트워크 사회를 자본과 정보 지식, 노동이 흘러 다니는 '흐름 사회(flow society)'로 정의하고, 정보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정보화 사회의 유형으로 메가시티(예\_서울, 상하이, 도쿄, LA, 상파울로, 캘커타 등)를 제시하였다. 메가시티는 정보도시, 세계도시, 이중도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정보도시는 지식에 기반하고 네트워크를 통해 조직되어 정보의 '흐름'으로 구성된 도시이다. 세계도시는 정보에 대한 결정과 지시 기능, 정보의 결정과 허브 역할을 갖는 도시이고, 이중도시는 고부가가치 창출 집단과 기능을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평가절하된 집단과 격화된 공간을 갖고 있는 도시이다. 반 다이크 저, 배현석 역, 『네트워크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마누엘 카스텔 저, 박행웅 역, 『네트워크 사회: 비교문화 관점』, 도서출판 한울, 2009 : 백옥인 저 『정보자본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참조 및 요약

- 다음 그림은 네트워크 사회에 관한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여 대중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전환하며 변화 중인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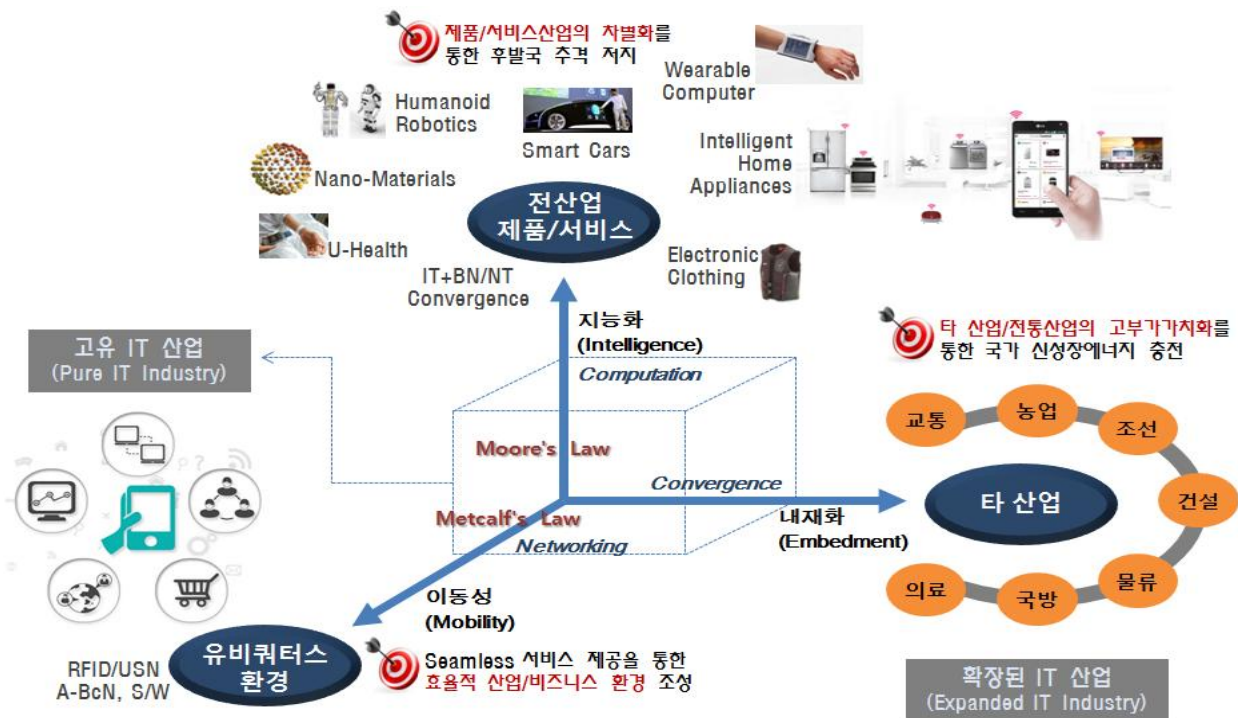


〈그림 18〉 대중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의 주요 변화

#### ■ 사용자 중심 사회 : 스마트 시대와 스마트 융합

- 스마트시대의 'SMART'에 대한 정의는 ICT 기술발전에 의한 작업환경의 효율성이거나 서비스 효과의 개념을 초월함. 스마트시대는 '개인화의 시대'이며, 소비자가 자신이 쓸 제품을 직접 정의하는데서 스마트화가 시작되어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플랫폼(공급자와 소비자가 연결·공유하는 표준 기술·서비스 기반/애플·구글이 제공하는 운영체제, 튜터비스타가 운영하는 강의 인프라 등)·휴먼 인터페이스와 인텔리전스 기술을 배경으로 '소비자'가 스마트 혁신을 주도할 것임
- 스마트 융합(Smart Convergence)은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측됨.  
 ①미래 IT 기술의 때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이동성 ②스마트폰과 같은 이용자 수요 맞춤형 지능기반의 정보 서비스 같은 지능성 ③제품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내재성
- 스마트 융합은 '스마트 사회'로의 이행과 동시에 일어나 일하는 방식, 생활양식, 사회문화 전분야를 '지능형'으로 전환시킬 것임. 인간과 사물간 의사소통은 사물과 사물간 의사소통까지 확장되고, 타 산업과의 IT 융합이 보편화 되는 한편, 스마트폰·

스마트TV·스마트패드 등 지능형 기기는 더욱 고도화되어 사회 전반의 새로운 혁신과 가치를 창출할 것임



〈그림 19〉 스마트 융합의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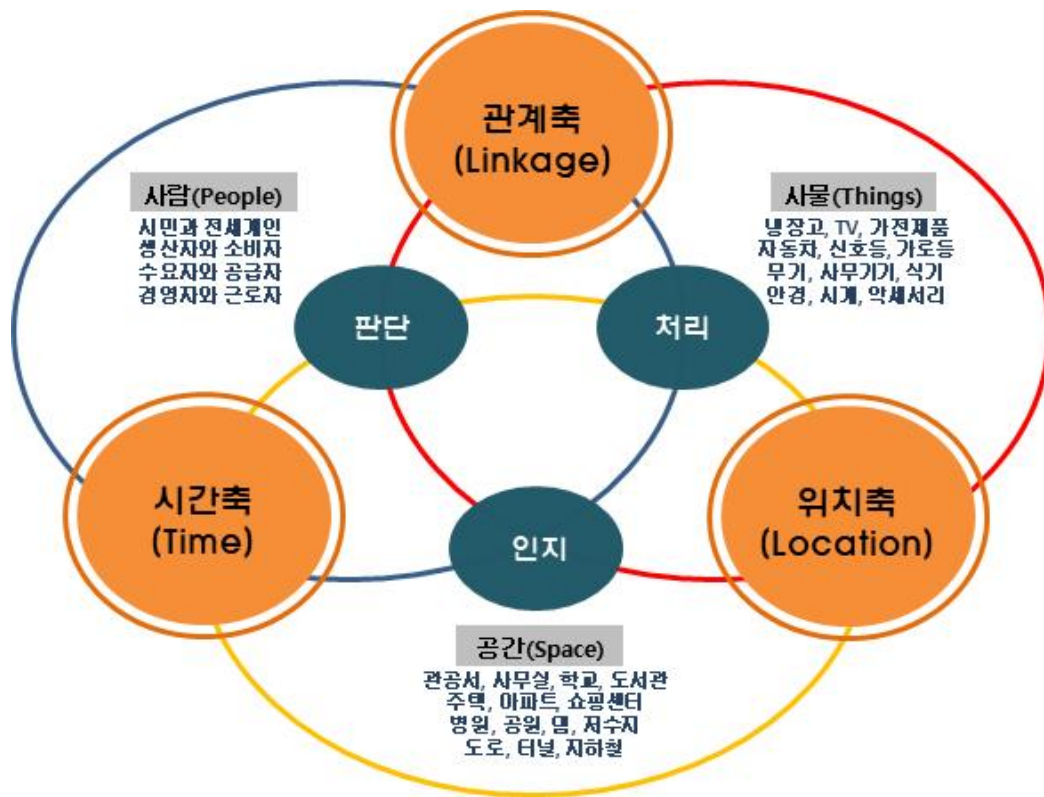
[출처] 다음에서 그림 다시 그려 인용. 노규성·고찬 외 공저, 『스마트융합 비전과 국가전략』, 내하출판사, 2012

## ■ 만물지능화시대

- 만물지능화란 모든 사물이 통신네트워크 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지능화된다는 개념으로, 스마트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 생태계가 진화하고 인간을 둘러싼 만물(萬物)이 서로 통신을 통해 교감하는 만물인터넷(IoE : Internet of Everything) 시대를 의미함. 똑똑해진 만물은 더 이상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센서와 칩을 통해 서로 연결돼 사람의 개입 없이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사람과 도시, 집, 자동차, 건물 등을 하나로 묶는 '초연결'의 사회를 구현할 것으로 전망됨
- 세상을 구성하는 사람, 사물, 공간,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고 경제·사회를 혁신함으로써 만물지능화시대의 패러다임은 네트워크의 '초

[2] 하원교, 최민석, 김수민, 「만물지능인터넷 패러다임과 미래창조」, 주간기술동향, 2013. 초연결성이라는 말은 캐나다 사회과학자 애너벨 퀴안-하세(Anable Quan-Hasse)와 베리 웰만(Barry Wellamn)이 네트워크 조직이나 네트워크 사회에서 사람-사람, 사람-기계 간의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새로운 용어로, 초연결성은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대면 접촉, 웹2.0 정보 서비스 등과 같은 다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장치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음 [출처 : 영문 위키피디아 <http://en.wikipedia.org/wiki/Hyperconnectivity>, 2015. 8. 7]

연결화'와 서비스의 '초융합화', 단말의 '초지능화', 시스템의 '초최적화'에 이르게 됨[3]



〈그림 20〉 사람-사물-공간의 초연결축과 인식-판단-처리의 초지능축의 상호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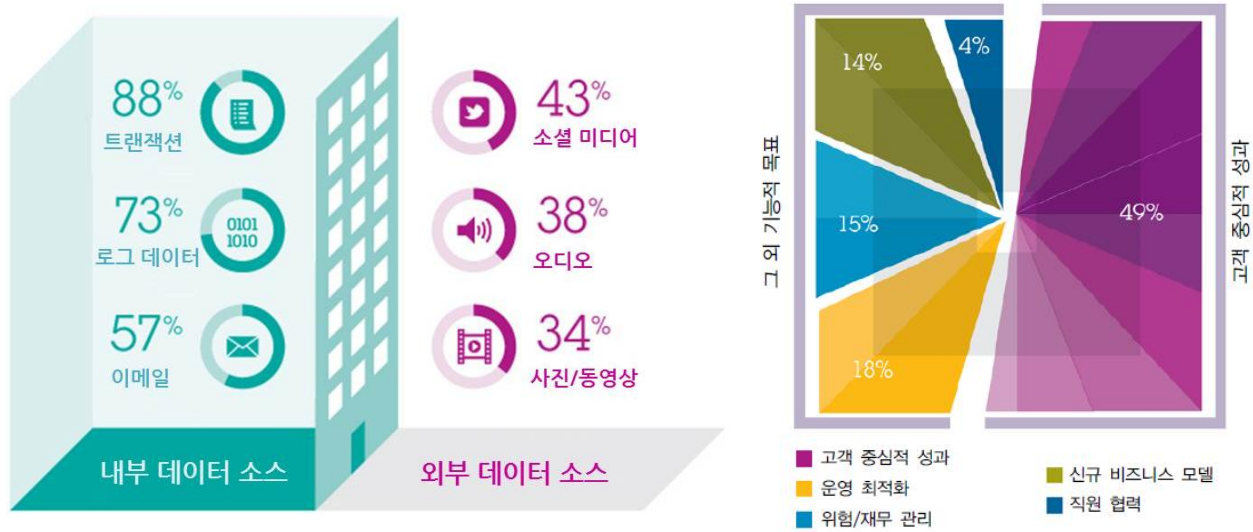
[출처] 다음에서 그림 다시 그려 인용. 하원교, 최민석, 김수민, 「만물지능인터넷 패러다임과 미래창조」, 주간기술동향, 2013

## ■ 빅 데이터 시대

- 빅 데이터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로 데이터를 수집, 저장, 관리,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 데이터의 집합을 뜻하나, 근래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전략적으로 필요한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차세대 기술에 초점을 둠
- 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한 생성, 수집, 분석, 표현을 그 특징으로 하는 빅 데이터 기술의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 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케 하고, 개인화된 현대 사회 구성원 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 가능케 하며,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함. 또한 빅 데이터는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와 인류에게 가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며 그 중요성이 부각됨. 그러나 보안 측면

[3] 미래사회연구실, 「만물지능통신시대 10대 메가트렌드」, 2014

과 사생활 침해는 빅 데이터가 보완해야할 측면임.[4]



〈그림 21〉 빅데이터의 수집처와 빅데이터 도입을 통해 조직이 달성하려는 목표

[출처] 다음에서 그림 다시 그려 인용. IBM, '애널리틱스: 빅데이터 이용의 현실' 보고서,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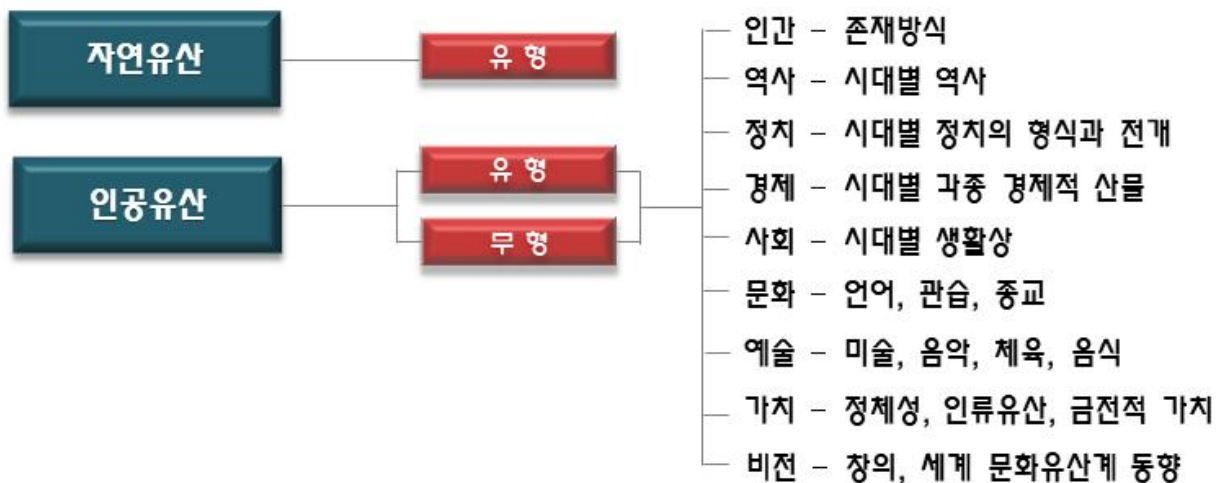
[4] 위키피디아(<https://ko.wikipedia.org/wiki>)의 '빅 데이터' 참고 및 인용



### 3.1.2. 문화유산 통계의 특징 분석

####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은 유구한 역사, 작은 면적, 높은 인구밀도 등으로 인하여 자연유산보다는 사람들에 의하여 시대별로 창출된 인공유산이 대세를 이룬다는 것임. 인공유산은 또다시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까지 전해지는 유산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재방식, 역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등을 확인하거나 가치와 비전을 도출해 낼 수 있음
- 이러한 분야별 주제들은 처음 생겨났을 당시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오늘날의 새로운 이야기를 생산할 수도 있음



〈그림 22〉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 개념도

#### ■ 문화유산 통계의 현실 진단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특징과 그에 따른 문화유산 통계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문화유산 통계는 행정 결과 집계식의 보고통계 성격을 오랜 기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문화유산 통계에 대하여 지적되어 온 약점들을 바탕으로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통계의 한계를 정리하자면 ‘분석적 통계 불가능’, ‘사용자 중심 통계 미흡’, ‘통계전문 플랫폼 부재’로 압축할 수 있음
- 이러한 문화유산 통계의 아쉬운 현실은 다음의 표처럼 국가승인통계 현황 대비 문화유산 통계의 국가승인통계 현황에서도 잘 나타남



〈표 1〉 국가승인통계 현황(2018년 8월 현재)

구분	작성 통계 수	종류별		작성방법별			비고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중앙행정기관	385	58	327	191	151	43	문화재청의 국가승인 통계는 '문화재 관리 현황' 1개임. 종류는 일반, 작성방법은 보고 유형임
지방자치단체	519	17	502	189	263	67	
합계	904	75	829	380	414	110	

- 문화유산 통계의 아쉬운 현실은 '행정행위 결과 중심 통계', '단순 집계식 통계', '시계열 분석과 예측 어려운 통계', '사용자 고려 없는 일방식 통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근본적 측면에서의 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행정행위 결과 중심 통계 진단 : 문화유산 통계는 통계의 자원 자체가 유산이라는 '과거'이기에 통계를 생산하는 가장 근본 요인인 '현상'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단순 집계식 통계 진단 : '발굴', '보존', '공연', '전시'에 집중해 왔던 기존의 사업은 공급방식과 수요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에 '결과 중심 집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 시계열 분석과 예측 어려운 통계 진단 : 시계열 분석의 기본 조건인 '관찰'의 필요성이 모호한 문화유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변동요인' 도출 이유 역시 불명확함
- 사용자 고려 없는 일방식 통계 진단 : 지금까지 국가와 국민 모두 유산의 '발굴'과 '보존'에만 관심을 집중했기에 자원의 '공급'에만 집중해 전략 통계의 필요성 부각되지 못함

〈표 2〉 문화유산 통계 현실 진단

현실	원인	결과
행정행위 결과 중심 통계	자원 자체가 유산이라는 '과거'	'현상'이 될 수 없는 한계
단순 집계식 통계	제한된 방식의 공급과 수요	결과 중심의 집계
시계열 분석과 예측 어려운 통계	시계열의 기본인 '관찰' 필요성 모호	'변동요인' 도출 이유 불명확
사용자 고려 없는 일방식 통계	유산의 '발굴' 및 '보존'에만 관심	유산의 '공급'에만 집중

## ■ 문화유산 분야의 상황과 통계의 지향점

- 우리나라 문화유산 분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정책 및 전략 면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그 결과 역시 의미 있는 성과를 일궈내고 있다고 생각함. 특히, 기존의 보존 및 관리 중심의 문화재 정책이 활용·향유·교육·확산 등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활용 및 향유 중심으로 전환되어 왔음
- 문화유산 분야의 이러한 변화와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활용 및 향유 중심의 정책’, ‘교육 및 교류 활성화’, ‘국민, 세계와의 소통 강화’, ‘소비자 중심, 4차 산업혁명에 직면’ 이상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음
- 활용 및 향유 중심의 정책에 대응해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의례 재현·공연·전시·체험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관람 집계 중심’에서 ‘조사 및 분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이와 관련해 관람층·관람 사유·관람 만족도 등의 기존 실태조사를 활용할 수 있음
- 교육 및 교류 활성화에 대응해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강연·교육·교류 등의 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행정 결과 홍보 중심’에서 ‘교육 및 교류로 인한 결과와 영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함. 이와 관련해 각종 교육 및 교류의 목적에 따른 인문학적·사회학적 결과 분석 필요함
- 국민, 세계와의 소통강화에 대응해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정책 방향 및 민원을 우선하던 사업에 대하여 ‘정책 시행·민원 대응적 사업’에서 ‘소통에 기반한 전략 사업’ 활성화로 전환해야 함. 이와 관련해 전략 사업의 결과가 국민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에 관한 통계 개발 필요함
- 소비자 중심, 4차 산업혁명에 직면한 현실에 대응해 문화유산 통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문화재청의 역할 모델을 개발 중인만큼 ‘소비자를 배려하는 사업’에서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사업’ 개발로 전환해야 함. 이와 관련해 기초 통계 다양화 및 가공 통계 프레임 개발 필요함

## 3.2. 문화유산 통계지표 개발 및 정비 방법

### 3.2.1. 문화유산의 주제와 통계의 범주

#### ■ 문화유산의 주제와 통계의 범주

- 문화유산의 주제 :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한 통계 대표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에 내재된 주제를 파악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은 유형이든 무형이든 해당 유산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종교, 예술이 포함되어 있어 다양한 분야의 문화유산을 통하여 ①해당 유산이 제작·유통·향유된 시기의 사회, 문화, 경제, 과학기술, 종교, 예술 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으며 ②해당 유산이 속한 분야의 관련 문화유산을 시대별로 정리하면 각 분야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음
- 문화유산통계의 범주 : 문화유산을 통하여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문화유산통계에 담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활용하려면 일종의 범주가 필요함. 이러한 차원에서 현 시점의 문화유산을 되짚어보면 우선 ‘지나간 시간의 유물’로 존재하며,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는 ‘근거 또는 기록’으로 기능하고, 내일의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국가와 변별될 수 있는 ‘창의와 가치’를 기대하게 함. 그러므로 통계로서의 활용성을 염두에 두고 문화유산통계의 범주를 제시한다면 ‘역사’, ‘유산’, ‘가치’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음



〈그림 23〉 문화유산의 주제에 따른 통계의 범주 개념도

## ■ 문화유산의 향유 가치 모형

- 대표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문화재 기본계획에서 지향하는 문화유산 정책 및 향유의 핵심가치인 ‘발굴’, ‘보존’, ‘활용’, ‘향유’라는 기본 모형에 근거하여 대표지표 개발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현행 문화재 통계목록을 분석 및 분류하여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화 할 목록을 정비하여야 함. 이에 따라 대표지표는 문화재 기본계획의 비전·핵심가치·전략목표에 따라 문화유산의 향유가치를 생산·활용·향유하는 네 목표를 두고 목록화하고자 함
- 우리나라 문화유산 정책 및 향유가치 모형도를 통해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기본 카테고리 설정이 가능함. 아래 그림 중 핵심가치이자 문화유산 정책의 본원 활동에 해당하는 ‘발굴’, ‘보존’, ‘관리’, ‘연구’, ‘활용’, ‘향유’는 문화유산 정책 활동의 핵심가치이자 흐름이면서 순환 구조이기도 함



〈그림 24〉 문화유산 정책 및 향유가치 모형도

## ■ 문화유산 주제 및 정책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계지표 정비 방향

- 현행 문화유산 통계는 대부분 ‘유산’에 관한 통계로 ‘발굴’, ‘보존’, ‘관리’, ‘연구’, ‘활용’, ‘향유’의 문화재 정책 핵심가치 6가지 범주에 대응하여 분류 가능함. 다만, 통계의 작성방법이 행정자료를 우선순위로 하여 작성되고 있기에 ‘문화재 관리기반’, ‘문화재 지정 및 등록 현황’, ‘문화재 보수 및 정비’, ‘문화재 보존 관리’, ‘문화재 가치 창출 및 활용’, ‘국제교류 및 협력’, ‘소속기관’ 등으로 주요 지표들이 정리되어 있어

새로운 문화유산 통계 체계에 따라 지표 분류 및 정비 필요함

- 결론적으로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개발을 위해 앞서 확인한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주제 및 정책의 핵심가치를 근간으로 문화유산 통계지표를 정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본적인 문화유산 통계지표 도출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음. 참고로 문화유산의 주제 중 '역사'는 정책의 핵심가치 중 '발굴, 연구, 활용'에 대응하고, '유산'은 '발굴, 보존, 관리, 연구, 활용, 향유'에 대응하며, '가치'는 '관리, 활용, 향유'에 대응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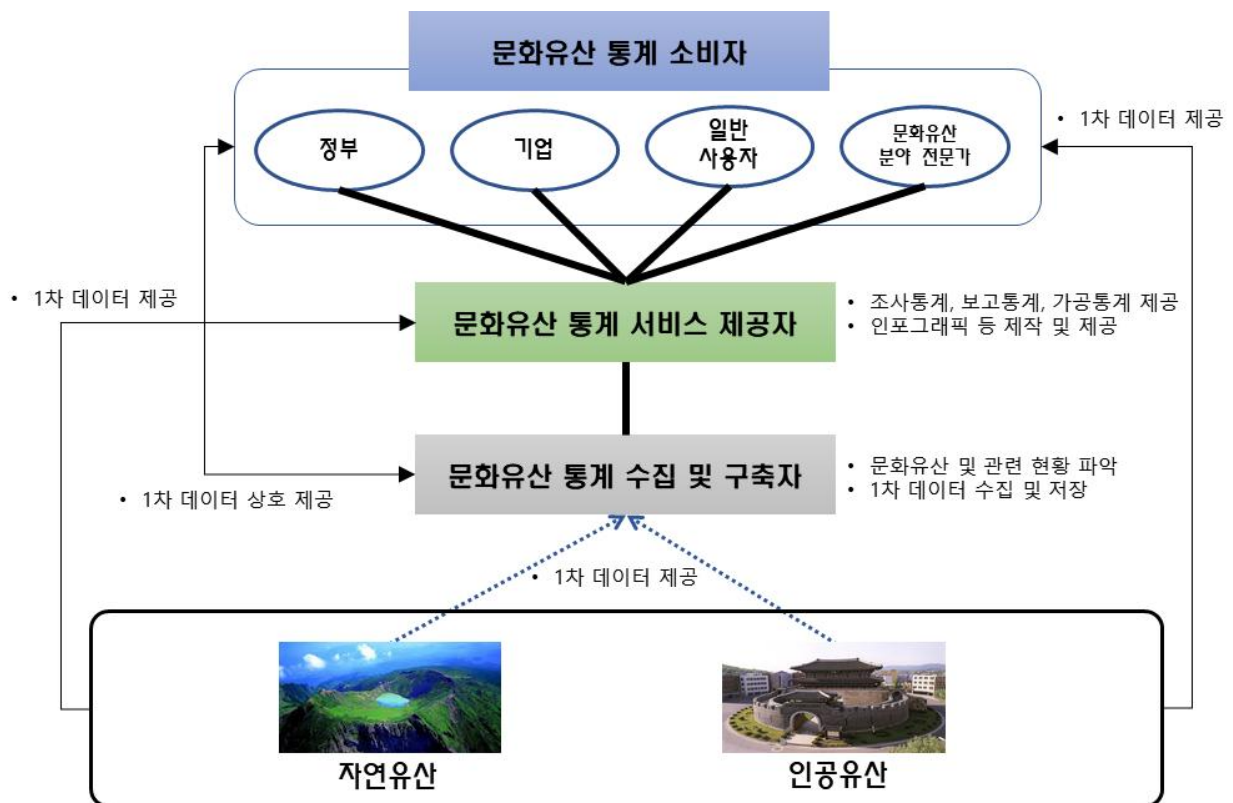


〈그림 25〉 문화유산 주제와 정책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한 통계지표 정비 방향 개념도

### 3.2.2. 수요자 정의

#### ■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와 수요자

- 오늘날 경제적·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의 맞춤형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 맞춤형 고용·복지 등 주요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시의성 있는 통계 개발 및 개선이 시급하며, 정부 각 부처가 효율적으로 통계를 생산 및 서비스할 수 있도록 통계체제 전반을 점검하여 종합적인 통계인프라 강화 필요함
- 특히, 행정 환경 변화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문화유산 관련 통계를 통해 민·관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함. 생태계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유기체 간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체계를 의미함
- 따라서,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란 문화유산에서 발생하는 1차 데이터를 수집 및 가공하여 통계 및 정보를 생성·공유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기적인 상호작용 환경으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리고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의 소비자는 정부·기업·일반 사용자·문화유산 분야 전문가로 구분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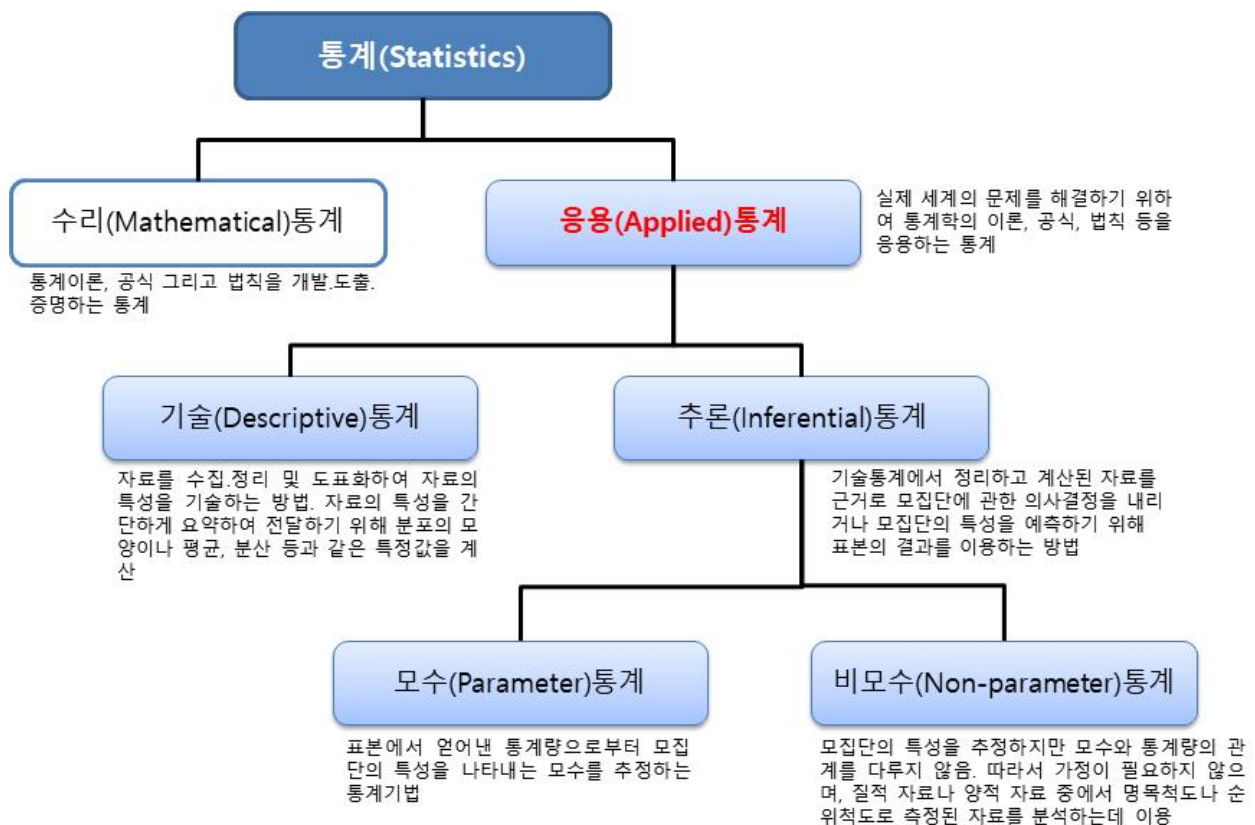


〈그림 26〉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 기본 개념도

-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에는 세 가지 주체가 존재하며,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문화유산 통계수집 및 구축자 : 모든 국가 문화유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1차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역할을 수행함
  - 문화유산 통계 서비스 제공자 : 1차 데이터를 가공하여 조사통계, 보고통계, 가공통계 및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제공함
  - 문화유산 통계 소비자 : 정부, 기업, 일반사용자, 문화유산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고 '문화유산 통계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통계 정보를 제공받음. 또한 '문화유산 통계 소비자'는 '문화유산 통계 수집 및 구축자'와 1차 데이터를 상호 제공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으로부터 직접 1차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음

### ■ 문화유산 통계 수요 관리를 위한 통계의 기본 분류법

- 문화유산 통계를 체계화 하고 수요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통계의 기본 분류법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개념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그림 27〉 통계의 기본 분류법



### 3.2.3. 통계 디렉토리 및 분류체계

#### ■ 문화유산 통계 디렉토리

- 문화유산의 주제, 문화유산 통계의 범주, 문화유산 정책의 핵심가치를 종합해 문화유산 통계의 주제를 정하면, ‘우리나라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유산 이야기’ 세 가지임. 각 주제에 따라 세부지표를 분류해 정비한 후 내용에 따라 묶어 그룹별로 통계 내용을 정의할 수 있는 그룹명, 즉 지표범주명을 정함. 지표범주 아래에는 해당 범주에 속하는 120개 세부지표를 배치함. 최종적으로는 3개 주제와 19개 지표범주를 잇는 여덟 가지 개념을 도출하였는데, 이 8개 개념은 문화유산 통계의 주제와 지표들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임
- 그러므로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정의하고, 문화유산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기록하며, 과거-현재-미래를 이어 문화유산을 증언하는 핵심 개념으로 ‘현황’, ‘가치’, ‘보존’, ‘관리’, ‘활용’, ‘역사’, ‘연구’, ‘향유’ 이상 여덟 가지를 정하고 문화유산 통계의 대표지표로 규정함
- 이상 3개 주제 - 8개 대표지표 - 19개 지표범주 - 120개 세부지표로 이어지는 문화유산 통계 디렉토리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28〉 문화유산 통계 디렉토리

## ■ 문화유산 통계 분류체계

- 문화유산 통계 디렉토리를 기반으로 새롭게 정비될 통계 개선안을 현행 통계와 비교하면 다음 그림과 같음



〈그림 29〉 문화유산 통계 분류체계 및 신구체계 비교

[참고] 현행은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의 내용이며, 개선안은 통계 디렉토리상 지표범주를 향후 인터넷 플랫폼 개선을 염두에 두고 재정리한 것임

## ■ 문화유산 통계의 유형과 활용

- 이상의 과정을 통해 정비될 문화유산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 유형에 대한 정의와 통계 분류체계에 따른 활용방향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표 3〉 문화유산 통계 유형 정의

구분	통계 유형	정의
작성방법에 따른 분류 (일반적 분류)	보고통계	조사통계 외에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통계를 말하며, 현행 문화재 통계 대부분이 해당함
	조사통계	통계작성을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를 말하며, 일반적인 대부분의 통계가 해당함
	가공통계	보고, 조사 통계를 활용하여 생성된 새로운 통계를 말하며, 현재까지는 찾아보기 어려움
목적·대상에 따른 분류 (자의적 분류)	행정통계	문화재청 과/소속기관 단위 부서별 행정 행위 기반 통계를 말하며, 현행 통계 대부분이 해당함
	응용통계	행정 외 일반 수요 대상에 따라 선별해 제공하는 기초·조사·가공통계를 말하며, 정비 및 개발 필요함

〈표 4〉 문화유산 통계 분류체계와 활용 방향

구분	유형	우리나라 문화유산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문화유산 이야기		
		현황	가치	보존	관리	활용	역사	연구	향유
작성방법상 분류	보고통계	●	●	●	●	●		●	●
	조사통계		●			●	●		●
	가공통계	●	●	●	●	●	●		●
목적·대상상 분류	행정통계	●	●	●	●	●		●	●
	응용통계	●	●	●	●	●	●	●	●
시계열 분석 여부		●		●	●	●	●		●

## **4.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 **4.1. 한국의 문화유산**

4.1.1. 문화유산 현황 지표

4.1.2. 문화유산 가치 지표

### **4.2.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4.2.1. 문화유산 보존 지표

4.2.2. 문화유산 관리 지표

4.2.3. 문화유산 활용 지표

### **4.3. 문화유산 이야기**

4.3.1. 문화유산 역사 지표

4.3.2. 문화유산 연구 지표

4.3.3. 문화유산 향유 지표



## 4. 문화유산 통계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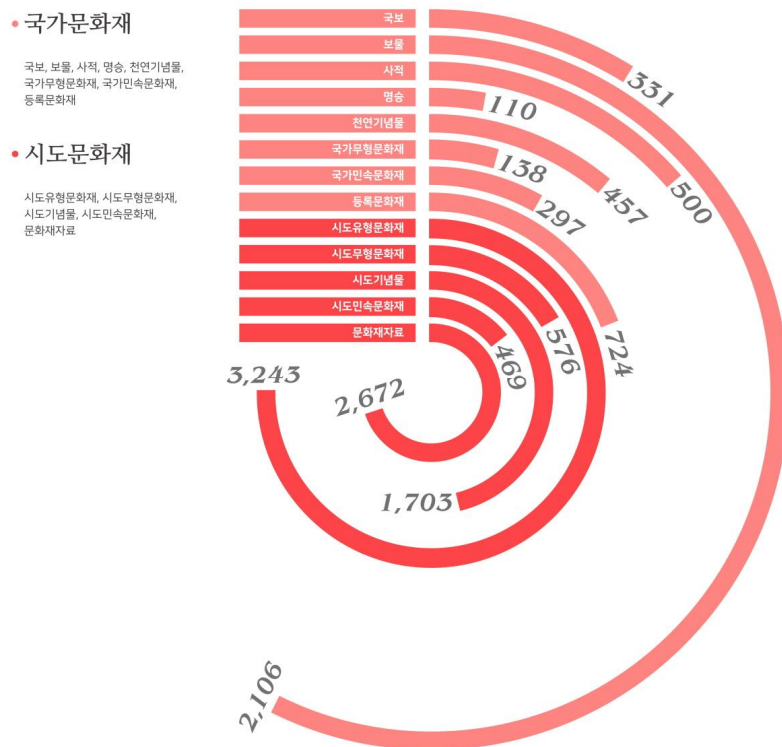
### 4.1. 한국의 문화유산

#### 4.1.1. 문화유산 현황 지표

##### ■ 대표지표

- 대표지표 정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국가 및 시도에서 문화재로 지정한 문화유산의 종류와 수, 특징에 관한 종합적 현황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총괄 현황, 연도별 변화 추이 등 우리나라 문화재의 현황 및 변화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형태·유형·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문화유산의 종류와 수



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로 나뉜다. 지정문화재는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의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유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시도기념물·시도민속문화재의 시도지정문화재가 해당된다. 비지정문화재는 등록문화재(국가), 문화재자료(시도)가 해당된다.

2017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국가지정문화재는 3,939건이었으며, 국가등록문화재는 724건이었다. 그리고 시도지정문화재는 5,991건이었으며, 문화재자료는 2,672건이었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 단위:건  
2000 - 2017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 단위: 건  
2000 - 2017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리국(1961년 설치)이 문화재청으로 승격(1999년)된 이후 2000년부터 더욱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문화유산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문화유산 관련 다양한 기록 역시 이때부터 보다 체계적으로 생산·관리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지정문화재 현황 역시 2000년 이후 정확한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으며, 해당 기간 18년 동안 지정문화재의 변화 추이를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문화유산의 특징

형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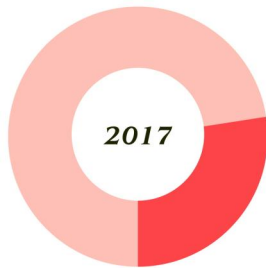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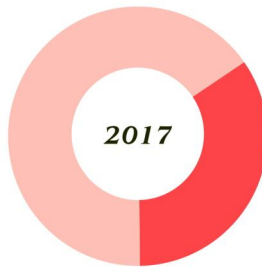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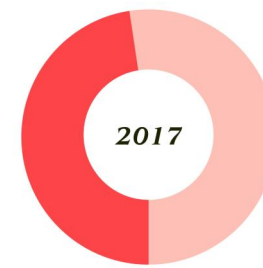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형태별 현황 단위: 건



우리나라 문화재의 특징을 형태별·유형별·재질별·종교별·소유자별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 중 형태별 특징은 기본적으로 유형문화재 및 무형문화재로 나누어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12월 현재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형태별 현황은 총 4,663건 중 유형문화재가 4,525건(97%), 무형문화재가 138건(3%)이며,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형태별 현황은 총 8,663건 중 유형문화재가 8,087건(93.4%), 무형문화재가 576건(6.6%)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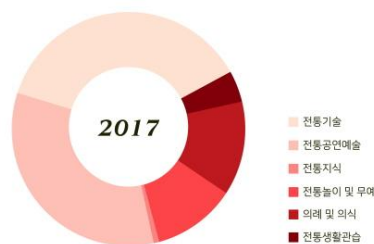
## 유형

국보  
유형별 현황 단위: 건보물  
유형별 현황 단위: 건명승  
유형별 현황 단위: 건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국보와 보물의 유형은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2017년도 12월 현재 국보는 총 331건 중 동산문화재가 235건(71%), 건조물문화재가 96건(29%)이었다. 보물은 총 2,106건 중 동산문화재가 1,447건(68.7%), 건조물문화재가 659건(31.3%)이었다.

명승은 역사문화명승과 자연명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110건이 지정돼 있으며, 역사문화명승이 59건(53.6%), 자연명승이 51건(46.4%)이었다.

천연기념물은 노거수·수림지·마을숲 등 17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총 457건 중 노거수가 170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류가 46건(10.1%), 지형지질일반이 35건(7.7%) 순으로 많았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 단위: 종목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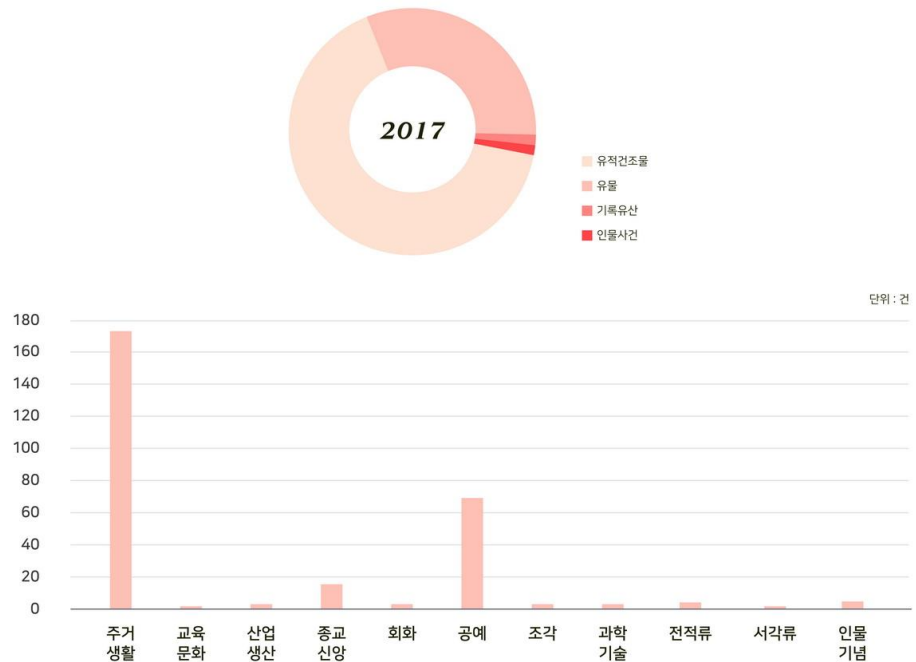


2016년 3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반에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기존의 기능과 예능으로 구분했던 유형 분류를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의 7개 지정범주로 구분하게 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는 '구전전통 및 표현' 범주를 제외하고 6개 범주 내 138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전통기술'이 51건(37%), '전통공연·예술'이 46건(33.3%)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통지식'이 1건(0.7%)으로 가장 적었고 '구전전통 및 표현'은 아직 지정 종목이 없다.

지역별로는 기타 지역을 제외하고 서울이 28건(20.3%)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1건(0.7%)으로 가장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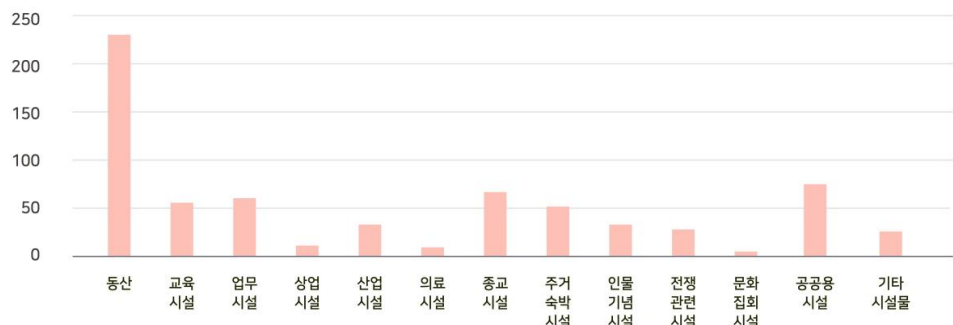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 단위: 종목



국가민속문화재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으로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인물·사건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아래 주거생활, 교육문화, 산업생산, 종교신앙(이상 유적건조물), 회화, 공예, 조각, 과학기술(이상 유물), 전적류, 서각류(이상 기록유산), 인물기념(인물사건) 이상 11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2017년 12월 현재 총 297건의 국가민속문화재 중 4개 유형에서는 유적건조물이 195건(65.7%)으로 가장 많고, 11개 세부 유형에서는 주거생활이 176건(59.3%), 공예가 88건(29.6%)으로 이 두 가지 세부유형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등록문화재는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는데, 2017년 12월 현재 총 724건 중 동산이 232건(32%), 부동산이 492건(68%)이다. 동산은 그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해 세부 유형을 나누기 어려우나 부동산은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부동산 유형 중에서는 종교시설이 76건으로 부동산 전체 등록문화재의 15.4%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74건의 공공용시설로 부동산의 15%를 차지한다.

### 재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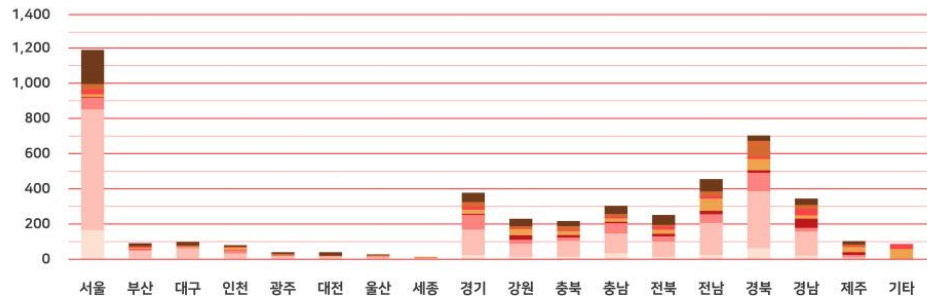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재질 역시 그 종류가 방대하고 다양해 '석조', '목조', '금속', '도자', '종이' 이상 5개 재질을 제외하고는 기타로 분류한다. 단, 재질은 유형문화재를 대상으로 하기에 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2017년 12월 현재 기타를 제외한 5개 재질 중 종이가 840건(18.6%)으로 가장 많았고, 석조가 695건(15.4%)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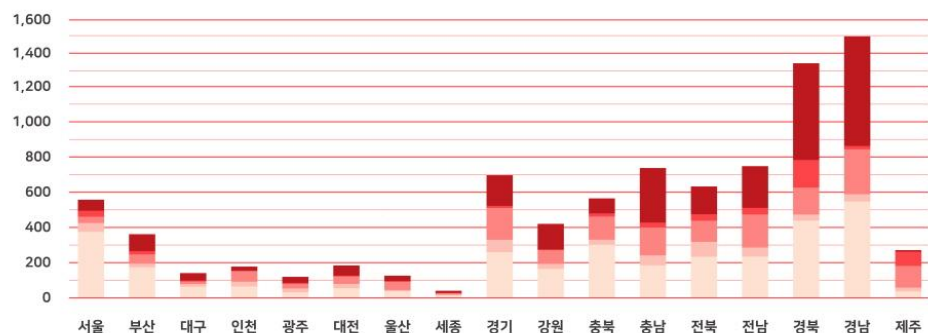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단위: 건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단위: 건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역별 현황은 총 4,663건 중 2017년 12월 현재 서울이 1,195건(25.6%)으로 가장 많고, 세종이 4건(0.1%)으로 가장 적다.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지역별 현황은 총 8,663건 중 경남이 1,492건(17.2%)로 가장 많고, 세종이 40건(0.5%)으로 가장 적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현황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18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현황 지표의 18개 세부지표는 다음 18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1. 문화유산 현황 세부지표

### 1.1. 문화유산의 종류와 수

#### 1.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 1-1-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유형별·지역별)
- 1-1-1-2.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

#### 1.1.2.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 1-1-2-1.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
- 1-1-2-2.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

### 1.2. 문화유산의 특징

#### 1.2.1. 형태

- 1-2-1-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
- 1-2-1-2.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형태별 현황

#### 1.2.2. 유형

- 1-2-2-1. 국보 유형별 현황
- 1-2-2-2. 보물 유형별 현황
- 1-2-2-3. 명승 유형별 현황
- 1-2-2-4.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
- 1-2-2-5.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
- 1-2-2-6.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
- 1-2-2-7. 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

#### 1.2.3. 재질

- 1-2-3-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
- 1-2-3-2.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목조·석조)

#### 1.2.4. 종교

- 1-2-4-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종교별 현황

#### 1.2.5. 소유자

- 1-2-5-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 1-2-5-2.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주체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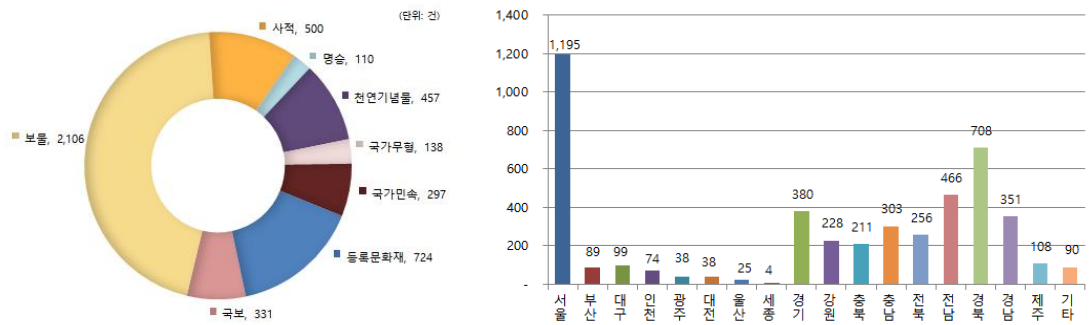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1-1-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총괄 현황 (유형별 · 지역별)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보 · 보물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국가무형문화재 · 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국가지정 문화재에 등록문화재를 더한 총 8가지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현황			
지표의의	국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중요 문화재 전체 현황과 지정 유형별 · 지역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유형별·지역별)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합계
국보	164	5	3	1	2	1	2	0	11	11	12	27	8	21	52	11	0	0	331
보물	682	45	69	27	12	12	7	2	165	79	95	125	93	184	337	164	8	0	2,106
사적	67	5	8	18	2	1	5	0	69	18	19	50	36	45	99	51	7	0	500
명승	3	2	0	1	1	0	0	0	4	25	10	3	6	19	15	12	9	0	110
천연기념물	12	7	2	14	2	1	3	1	19	41	23	16	32	61	67	44	49	63	457
국가무형문화재	28	5	0	5	1	0	0	0	12	3	3	4	8	15	9	14	4	27	138
국가민속문화재	41	2	6	0	3	2	2	1	22	11	21	24	13	38	91	12	8	0	297
소계	997	71	88	66	23	17	19	4	302	188	183	249	196	383	670	308	85	90	3,939
등록문화재	198	18	11	8	15	21	6	0	78	40	28	54	60	83	38	43	23	0	724
총계	1,195	89	99	74	38	38	25	4	380	228	211	303	256	466	708	351	108	90	4,663

해설

2017년 우리나라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는 총 4,663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 3,939건, 등록문화재 681건이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외 등록문화재를 포함하여 총 8가지 유형의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를 국가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의 현황 추이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유형별로는 보물과 등록문화재의 증가 추이가 다른 유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크다. 특히, 등록문화재는 우리나라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대기 이후에 생성된 문화유산 중 지정문화재 제도로 보존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소유자의 자발적 보존 의지를 근간으로 유연한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50년 이상의 문화유산이면 등록 가능하기에 시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유연하여 등록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li> <li>•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li> <li>•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li> <li>• 보물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li> <li>• 사적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유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명승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li> <li>• 천연기념물 : 동물(그 서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국가무형문화재 :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국가민속문화재 :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 제23조~제26조</li> <li>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추이</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지정해제 추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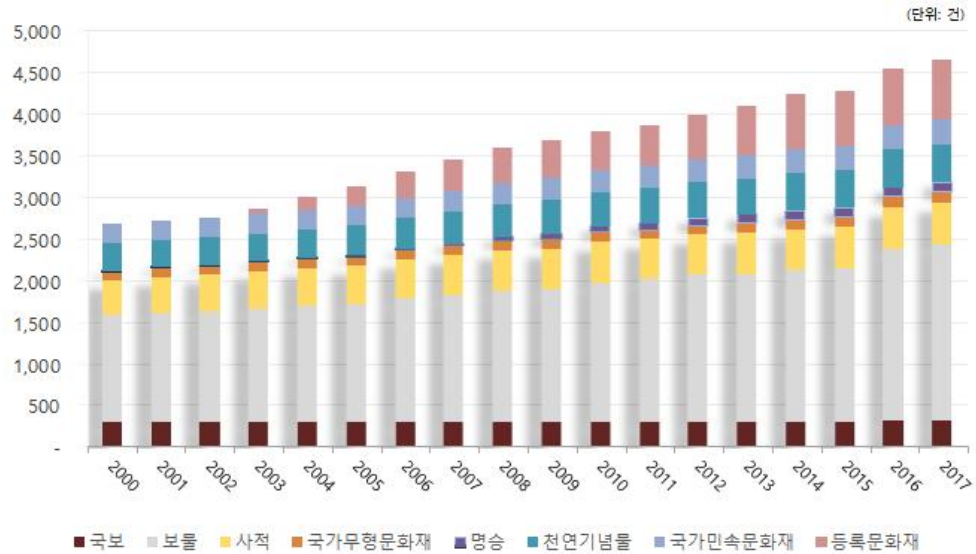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1-1-2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통계			
지표의의	2000년 이후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증가 현황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문화재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조사 대상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연도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변화 추이(2000년 이후)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보	302	303	304	305	306	307	307	309	309	313	313	314	315	315	315	317	328	331
보물	1,290	1,315	1,337	1,371	1,401	1,416	1,482	1,513	1,573	1,588	1,667	1,710	1,758	1,774	1,813	1,842	2,060	2,106
사적	419	432	437	448	454	462	471	489	488	490	491	479	483	485	488	491	495	500
명승	7	7	7	10	12	15	19	30	51	67	72	82	89	106	109	109	109	110
천연 기념물	327	329	329	330	337	358	367	381	389	404	407	422	429	434	454	455	456	457
국가 무형문화재	104	108	108	108	109	110	112	113	114	114	114	114	116	119	120	122	135	138
국가 민속문화재	234	237	239	240	240	241	242	253	254	261	262	264	269	280	284	286	294	297
소계	2,683	2,731	2,761	2,812	2,859	2,909	3,000	3,088	3,178	3,237	3,326	3,385	3,459	3,513	3,583	3,622	3,877	3,939
등록문화재	-	-	-	65	146	227	319	368	422	452	466	485	535	594	657	665	681	724
총계	2,683	2,731	2,761	2,877	3,005	3,136	3,319	3,456	3,600	3,689	3,792	3,870	3,994	4,107	4,240	4,287	4,558	4,663

[참고] 2000년~2008년까지 '사적 및 명승'으로 분류된 지정문화재는 '사적'으로 분류하여 계수함

해설

1961년 10월 설치되었던 문화재관리국이 문화재청으로 승격한 1999년 5월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 분야는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는데, 2000년 이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문화재 정책이 본격화된다.

2000년 이후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변화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명승, 등록문화재 2개 유형이 눈에 띈다. 명승의 경우 2006년부터 지정문화재가 크게 증가하는데 고도 보존과가 신설되어 지정영역이 확대된 영향이 크다. 등록문화재의 경우 2001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3년 21건 등록을 시작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18년 동안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지정·지정해제, 등록·등록해제에 의한 국가문화재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116.5건이었다.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li> <li>•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li> <li>• 보물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li> <li>• 사적 :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유적지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명승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li> <li>• 천연기념물 : 동물(그 서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국가무형문화재 :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국가민속문화재 :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1 문화재연감」 ~ 「2018 문화재연감」</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12.12.31)</li> <li>3.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추이</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지정해제 추이</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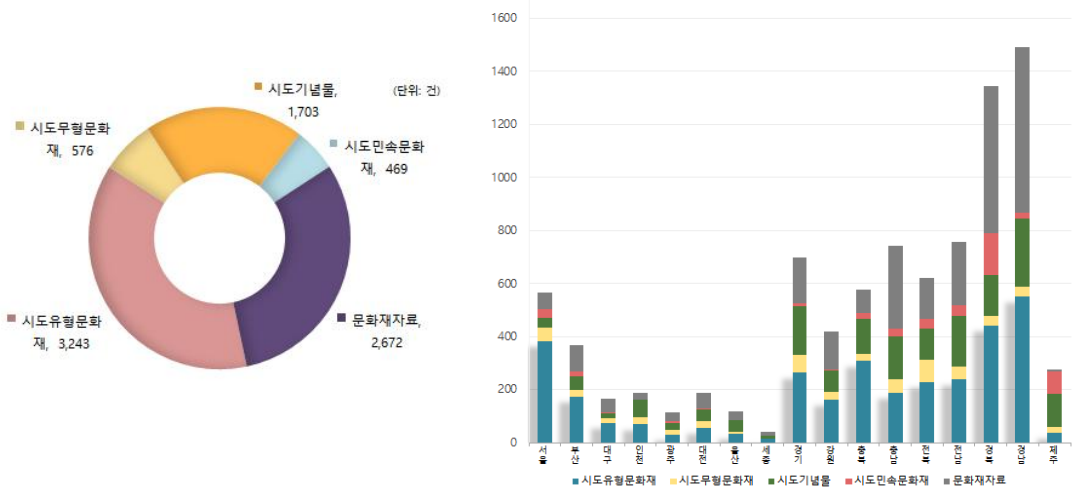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1-2-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등 각 시·도지사가 시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유형별·지역별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 시·도에서 지정한 지자체별 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유형별·지역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전국 시 · 도 문화재과(혹은 문화재 소관부서)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시도문화재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시·도지정문화재 현황 (단위: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시도 유형문화재	383	174	75	68	29	55	34	13	263	161	307	187	229	237	442	550	36	3,243
시도 무형문화재	49	24	18	28	20	24	5	3	67	29	27	53	83	50	36	39	21	576
시도 기념물	39	52	17	65	24	47	46	11	183	80	133	161	118	192	152	255	128	1,703
시도 민속문화재	33	18	4	2	9	2	1	0	12	4	20	28	35	40	158	21	82	469
문화재자료	63	98	52	25	30	58	30	13	172	143	88	314	156	238	555	627	10	2,672
소계	567	366	166	188	112	186	116	40	697	417	575	743	621	757	1,343	1,492	277	8,663

해설

2017년 우리나라 시도문화재는 총 8,663건이다. 이 중 시도지정문화재는 5,991건, 문화재자료는 2,672건이다.

시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7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 중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대상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한다. 시도유형문화재·시도무형문화재·시도기념물·시도민속문화재 이상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이 외 문화재자료를 포함하여 총 5가지 유형의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를 시도차원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지역별 시도문화재 현황을 살펴보면 경남 1,492건, 경북 1,343건 등 경상지역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원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유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인정될만한 것을 각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li> <li>• 시도무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시도기념물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사적, 명승,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것 중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li> <li>• 시도민속문화재 :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li>• 문화재자료 : 시도지정문화재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 제70조</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지정해제 추이</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추이</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1-2-2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통계			
지표의의	2000년 이후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의 증가 현황을 통해 시도문화재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조사 대상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 조사를 통해 매년 업데이트)
	조사 표본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연도별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변화 추이(2000년 이후)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도유형문화재	1,822	1,927	2,011	2,059	2,098	2,211	2,296	2,345	2,426	2,528	2,647	2,711	2,823	2,915	3,010	3,091	3,144	3,243
시도무형문화재	254	265	286	296	320	332	349	350	356	364	412	446	435	497	501	516	529	576
시도기념물	1,291	1,329	1,394	1,408	1,440	1,459	1,500	1,492	1,500	1,513	1,559	1,593	1,601	1,588	1,597	1,603	1,692	1,703
시도민속문화재	284	295	304	305	312	317	319	314	320	321	335	342	361	388	383	390	460	469
문화재자료	1,625	1,693	1,790	1,831	1,098	1,983	2,104	2,126	2,173	2,238	2,398	2,451	2,467	2,467	2,536	2,597	2,657	2,672
총계	5,276	5,509	5,785	5,899	5,268	6,302	6,568	6,627	6,775	6,964	7,351	7,543	7,687	7,855	8,027	8,197	8,482	8,663

해설

2000년 이후 시도지정문화재의 변화 추이를 유형별로 살펴봤을 때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문화재자료 3개 유형이 눈에 띈다. 이들 3개 유형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기초이자 근간이기도 하다. 그 외 시도기념물, 시도민속문화재는 지역 문화재의 성격과 특징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난 18년 동안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지정해제에 의한 연평균 증가 건수는 199.2건이었다. 연도별 증감 현황을 보면, 2003년 총 5,899건이던 문화재 건수가 2004년 5,268건으로 631건이나 크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현재 확인 불가능한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2005년 총 6,302건으로 1,034건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기록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특기사항] 문화재연감 총괄표를 기준으로 위 표를 작성하였으나, 총괄표 건수와 본문 중 '시도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건수 사이 수치상 차이가 남. 일례로 「2001 문화재연감」에 의하면, 총괄표에는 2005년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한 지정해제 건수가 총 662건(시도유형문화재 245건, 시도기념물 193건, 문화재자료 171건 등)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제8절 시도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 건수를 2004년도와 대입해 보면 이와 달라 오차 있음.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도유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인정될만한 것을 각 시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li> <li>• 시도무형문화재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것 중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시도기념물 : 국가지정문화재가 아닌 사적, 명승,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것 중 역사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li> <li>• 시도민속문화재 :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li>• 문화재자료 : 시도지정문화재 4가지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1 문화재연감」 ~ 「2018 문화재연감」</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12.12.31)</li> <li>3.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li> <li>• 주요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지정해제 추이</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추이</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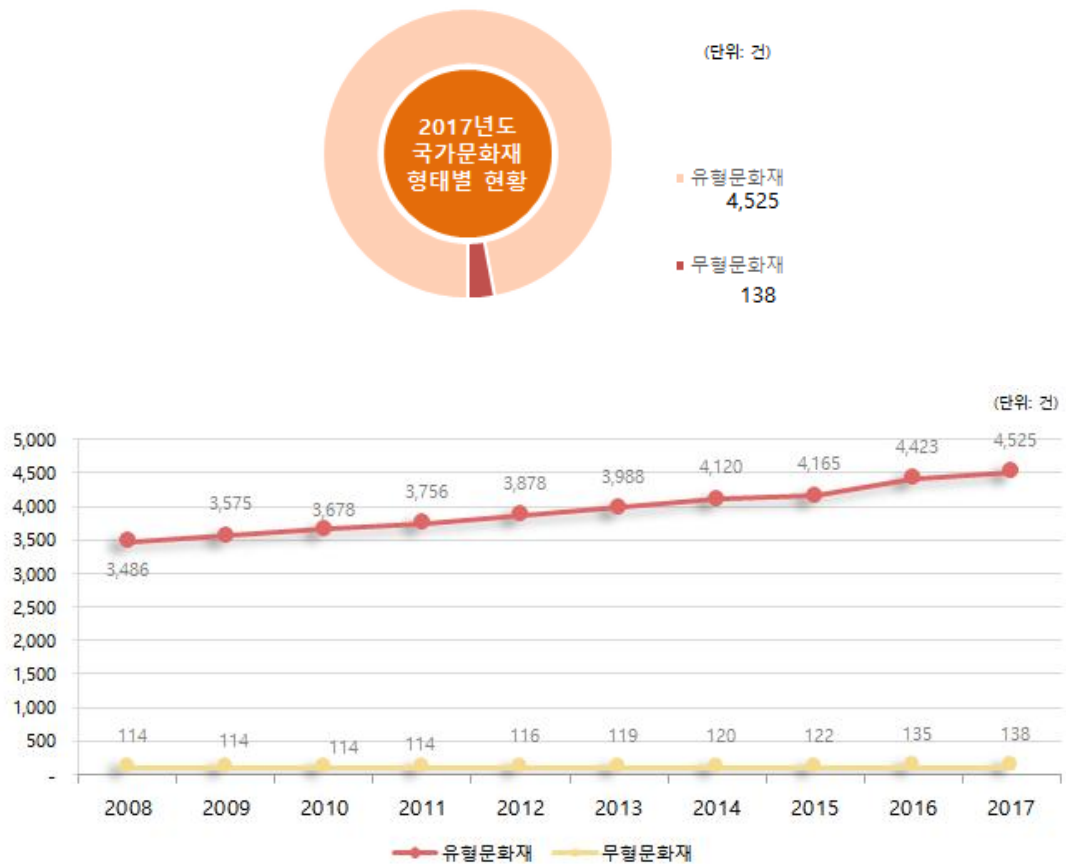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1-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가공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형태별 현황 지표			
지표의의	형태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뉘는 우리나라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형태 별 현황과 지난 10년간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대상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시기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방법	없음((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형문화재	3,486	3,575	3,678	3,756	3,878	3,988	4,120	4,165	4,423	4,525
무형문화재	114	114	114	114	116	119	120	122	135	138
합계	3,600	3,689	3,792	3,870	3,994	4,107	4,240	4,287	4,558	4663

해설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형태는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유형문화재는 연평균 103.9건씩 증가하였으며, 무형문화재는 연평균 2.4건씩 증가하였다. 이는 유형문화재의 세부 유형이 7개로 상대적으로 다양한데다가 살아있는 문화재인 무형문화재 전승자 및 무형문화재 종목의 지정대상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문화재의 보존 및 활용은 '원형(原形)' 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문화재보호법」 제3조).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 역시 이를 기반으로 발굴 지정되어 왔으나,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승기술의 '전형(典型)'이란 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이는 수요 및 환경(재료, 기술 등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하는 기술의 특성상 오랜 기간 다양한 요인에 의해 기술은 변화할 수밖에 없기에 오늘날을 기준으로 해당 종목 해당 기술의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라고 규정하고 있음</li> <li>• 무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라고 규정하고 있음</li> <li>• 원형(原形) : 복잡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바뀌기 이전의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으로 본디의 꼴.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에서는 원형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지 않음</li> <li>• 전형(典型) : 같은 부류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본보기로 기준이 되는 꼴을 의미하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하고 있음</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9 문화재연감」 ~ 「2018 문화재연감」</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보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보물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명승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형태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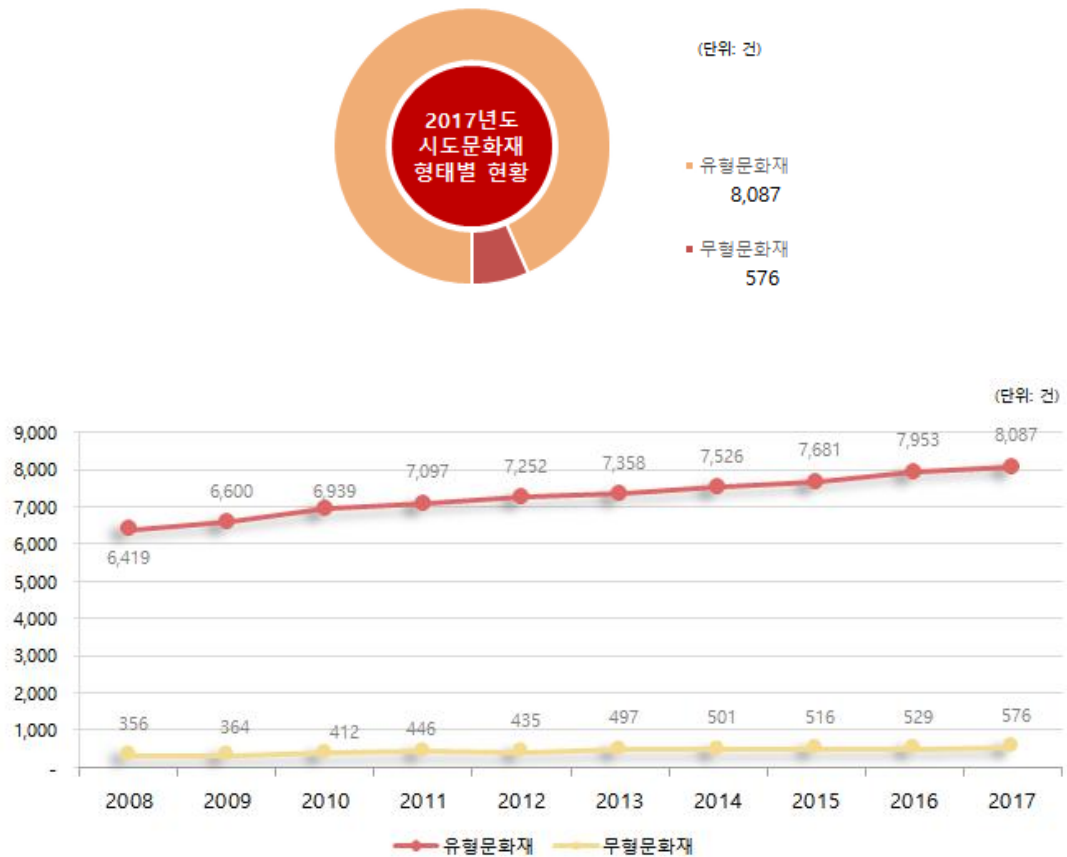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1-2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형태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의 형태별 현황 지표			
지표의의	형태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뉘는 우리나라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의 형태별 현황과 지난 10년간 연도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대상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시기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방법	없음(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을 바탕으로 가공)		
	조사 표본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형태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유형문화재	6,419	6,600	6,939	7,097	7,252	7,358	7,526	7,681	7,953	8,087
무형문화재	356	364	412	446	435	497	501	516	529	576
합계	6,775	6,964	7,351	7,543	7,687	7,855	8,027	8,197	8,482	8,663

해설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의 형태 역시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는 크게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지난 10년간 유형문화재는 연평균 166.8건씩 증가하였으며, 무형문화재는 연평균 22건씩 증가하였다. 국가지정·등록문화재와 비교할 때 시도지정문화재의 무형문화재 증가 건수가 많은 이유는 전국 17개 자치단체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기 때문인데 1개 자치단체별 연평균 무형문화재 지정 건수는 1.3건으로 오히려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건수에 비하여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형문화재 :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문화재를 통틀어 이르는 단어로,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건조물, 전적(典籍),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라고 규정하고 있음</li> <li>• 무형문화재 : 「문화재보호법」에서는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9 문화재연감」 ~ 「2018 문화재연감」</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형태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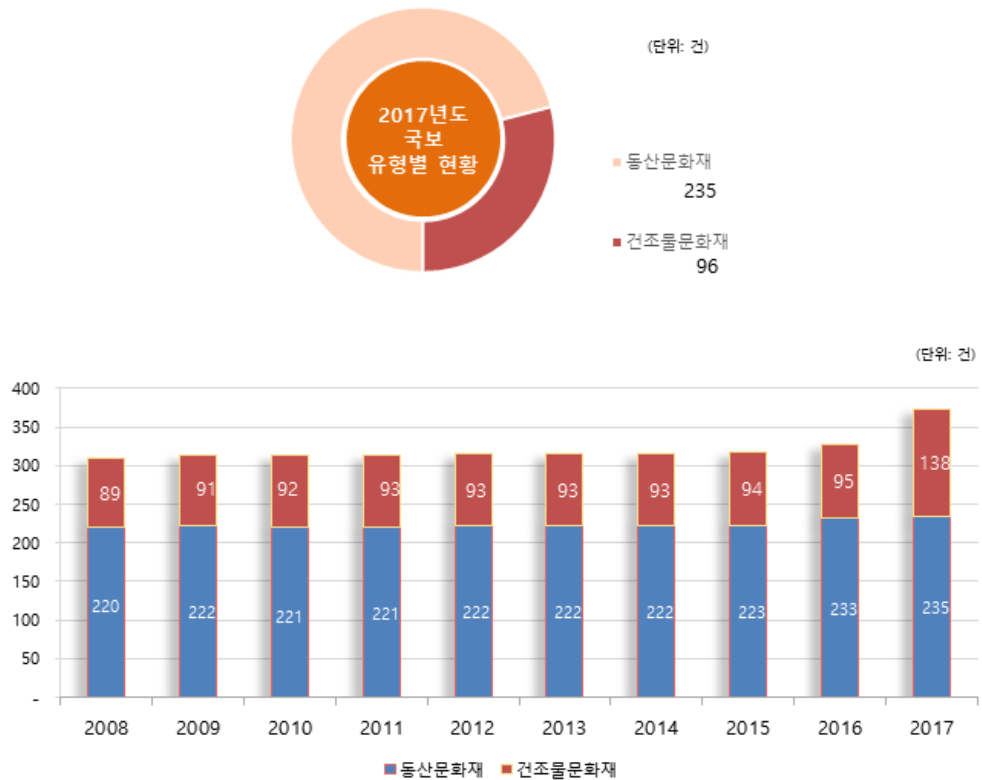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2-1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지 표 명	국보 유형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동산문화재(회화, 조각, 서적, 조각, 과학기기, 공예, 서각) 및 건조물문화재(석조, 목조)로 구분한 국보의 유형별 현황			
지표의의	회화, 조각, 서적, 조각, 과학기기, 공예, 서각(이상 동산문화재), 석조, 목조(이상 건조물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는 국보의 유형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보 유형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동산 문화재	회화	21	23	23	23	24	24	24	24	25	25
	전적	56	56	55	55	55	55	55	56	64	65
	서적	1	1	1	1	1	1	1	1	1	1
	조각	38	38	38	38	38	38	38	38	38	39
	과학기기	4	4	4	4	4	4	4	4	4	4
	공예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1	101
	서각	0	0	0	0	0	0	0	0	0	0
	소계	220	222	221	221	222	222	222	223	233	235
건조물 문화재	석조	67	68	69	69	69	69	69	70	71	72
	목조	22	23	23	24	24	24	24	24	24	24
	소계	89	91	92	93	93	93	93	94	95	96
합계		309	313	313	314	315	315	315	317	318	331

해설

국보 및 보물의 유형은 크게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산문화재가 회화, 전적, 공예 등 7가지로, 건조물문화재가 석조와 목조 2가지로 나뉜다. 지난 10년간 국보의 동산문화재 연평균 증가 건수는 1.5건이었으며, 건조물문화재 연평균 증가 건수는 0.7건이었다. 국보의 연평균 증가 건수가 적은 이유는 명칭이 갖는 무게와 가치만큼 역사성·예술성·학술성이란 측면에서 지정가치를 충족하는 보물을 대상으로 다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지정하기 때문이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li> <li>• 동산문화재 :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한 부동산(不動産)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動産)에 해당하는데, 법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범위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정하고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li> <li>• 건조물문화재 : 건조물(建造物)은 지어 만들거나 세운 물건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는 가옥, 창고, 건물 등 주거생활과 관련이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석탑, 석불, 암각화, 각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법에서는 건조물문화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년도~2017년도)</li> <li>2. 「문화재연감」 (2008년도~2017년도)</li> <li>3.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년도~2017년도)</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보물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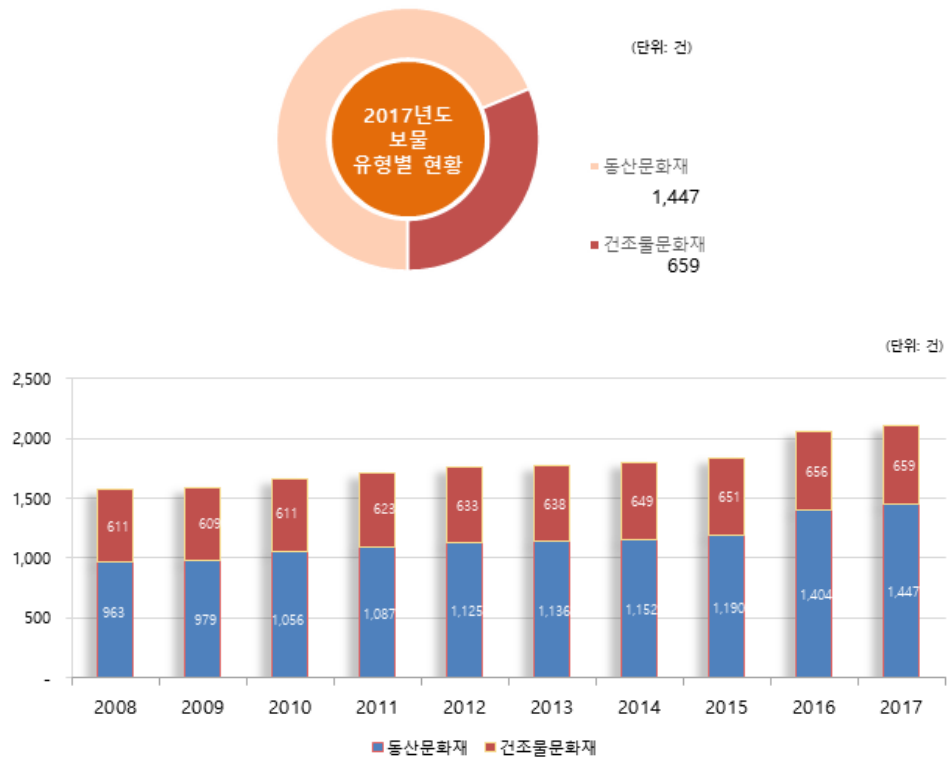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2-2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지 표 명	보물 유형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동산문화재(회화, 조각, 서적, 조각, 과학기기, 공예, 서각) 및 건조물문화재(석조, 목조)로 구분한 보물의 유형별 현황			
지표의의	회화, 조각, 서적, 조각, 과학기기, 공예, 서각(이상 동산문화재), 석조, 목조(이상 건조물문화재)로 구분하고 있는 보물의 유형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보물 유형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동산 문화재	회화	178	184	198	204	209	213	216	225	246
	전적	407	410	422	438	448	451	452	461	582
	서적	7	7	38	38	38	38	38	38	81
	조각	90	96	110	116	131	134	144	154	161
	과학기기	70	69	70	70	70	69	69	70	78
	공예	211	212	217	220	228	230	232	241	255
	서각	0	1	1	1	1	1	1	1	4
	소계	963	979	1,056	1,087	1,125	1,136	1,152	1,190	1,404
건조물 문화재	석조	482	481	483	488	490	494	498	499	500
	목조	129	128	128	135	143	144	151	152	158
	소계	611	609	611	623	633	638	649	651	659
합계		1,574	1,588	1,677	1,710	1,758	1,774	1,801	1,841	2,060

해설

국보 및 보물의 유형은 크게 동산문화재와 건조물문화재로 나눌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동산문화재가 회화, 전적, 공예 등 7가지로, 건조물문화재가 석조와 목조 2가지로 나뉜다. 지난 10년간 보물의 동산문화재 연평균 증가 건수는 48.4건이었으며, 건조물문화재 연평균 증가 건수는 4.8건이었다.

[특기사항] 총괄 현황 지표의 보물 수량과 세부 현황 지표의 보물 수량에 오차 있음.

①2008년도 보물의 총괄 현황은 1,573건, 세부 현황을 더하면 1,574건으로 차이 있음.

②2014년도 보물의 총괄 현황은 1,813건, 세부 현황을 더하면 1,801건으로 차이 있음.

③2015년도 보물의 총괄 현황은 1,842건, 세부 현황을 더하면 1,841건으로 차이 있음.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물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li> <li>• 동산문화재 :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한 부동산(不動産)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動産)에 해당하는데, 법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범위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정하고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li> <li>• 건조물문화재 : 건조물(建造物)은 지어 만들거나 세운 물건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는 가옥, 창고, 건물 등 주거생활과 관련이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석탑, 석불, 암각화, 각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법에서는 건조물문화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2016년도~2017년도)</li> <li>2. 「문화재연감」(2008년도~2017년도)</li> <li>3. 「주요업무통계자료집」(2008년도~2017년도)</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보 유형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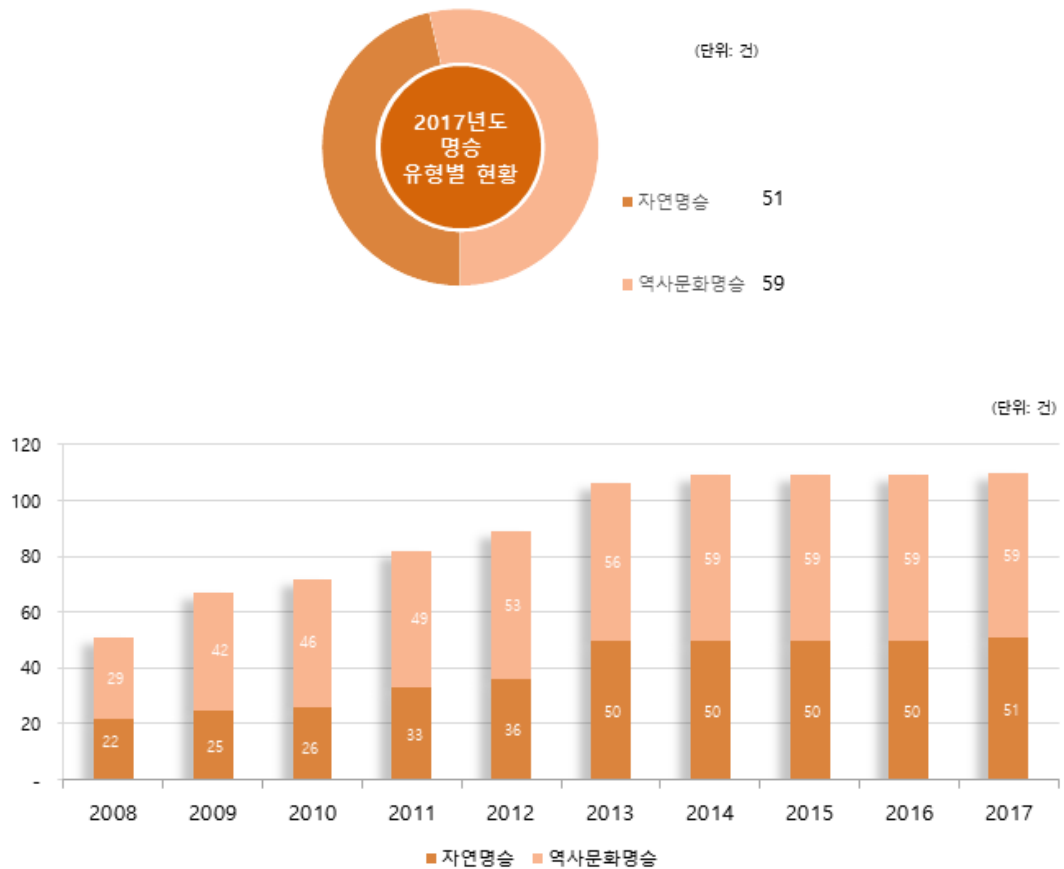
관리번호	현황 1-2-2-3	소관부서		천연기념물과
지 표 명	명승 유형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자연명승 및 역사문화명승으로 구분한 명승의 유형별 현황			
지표의의	자연명승, 역사문화명승으로 구분하고 있는 명승의 유형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천연기념물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명승 유형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자연명승	22	25	26	33	36	50	50	50	50	51
역사문화명승	29	42	46	49	53	56	59	59	59	59
합계	51	67	72	82	89	106	109	109	109	110

해설

명승의 유형은 자연명승과 역사문화명승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명승은 말 그대로 자연 자체가 명승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역사문화명승은 자연과 인공적인 문화유산이 복합되어 이뤄진 명승을 말한다.

지난 10년간 자연명승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2.9건이었으며, 역사문화명승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3건이었다. 명승의 지정 추이는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4년 이후부터는 추가 지정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이는 명승 발굴이 어느 정도 완료된 것을 의미한다.

[참고] 명승 유형 분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홈페이지 '문화유산 검색' 하위 콘텐츠에서 '문화재검색-유형분류'에 의한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김학범의 저술 2권을 참조함.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승 :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지정문화재를 말하며, 지정문화재의 종류 중 기념물에 해당함</li> <li>• 자연명승 : 자연 자체가 명승으로 지정된 것으로 명산, 계곡 지형, 해안과 도서, 하천과 폭포 등이 해당함</li> <li>• 역사문화명승 : 자연과 인공적인 문화유산이 복합되어 이뤄진 명승으로 고정원, 누원과 대, 팔경구곡과 옛길, 역사·문화 명소, 전통산업·문화 경관 등이 해당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a href="http://www.heritage.go.kr">www.heritage.go.kr</a>)</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년도~2017년도)</li> <li>3. 「문화재연감」 (2008년도~2017년도)</li> <li>4. 김학범 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1(역사문화명승편)』, 김영사, 2013</li> <li>5. 김학범 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2(자연명승편)』, 김영사, 2104</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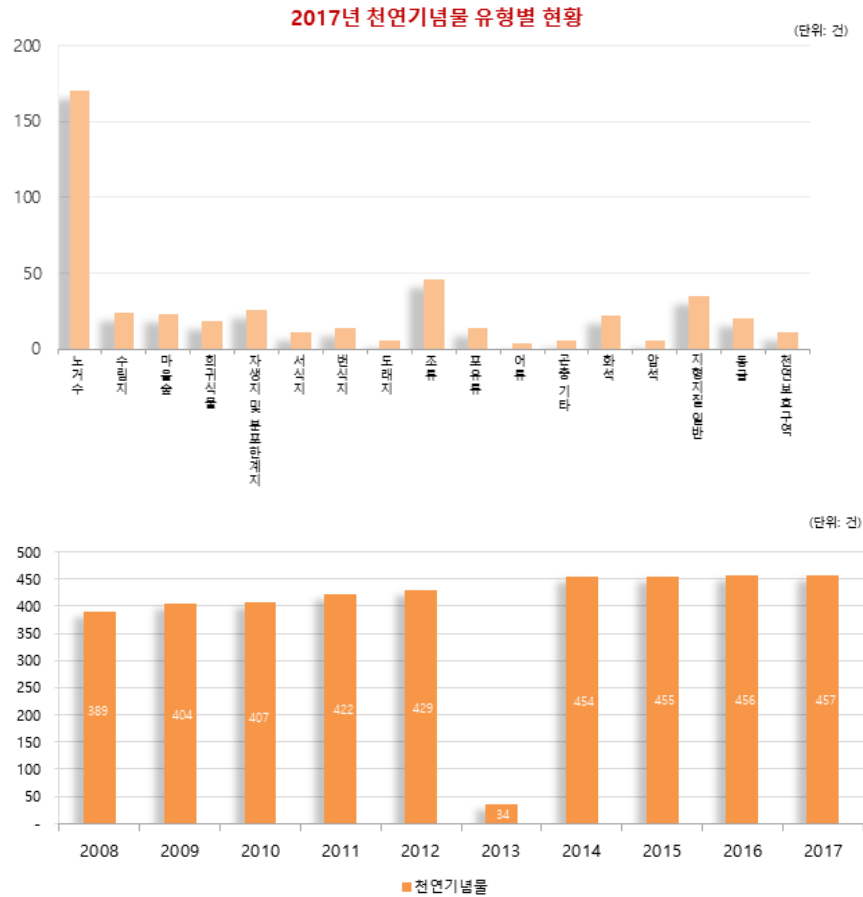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2-4	소관부서		천연기념물과
지 표 명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식물, 동물, 지질, 천연보호구역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			
지표의의	식물, 동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4가지 유형과 그 아래 총 17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 중인 천연기념물의 유형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천연기념물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식물	노거수	245	162	164	168	171	171	170	169	170	170
	수림지		45	24	24	24	24	24	24	24	24
	마을숲		0	22	22	22	23	23	23	23	23
	회귀식물		19	19	19	19	19	19	19	19	19
	자생지·분포한계지		26	26	26	26	26	26	26	26	26
동물	서식지	78	9	9	9	11	11	11	10	10	11
	번식지		14	14	14	14	14	14	14	14	14
	도래지		6	6	6	6	6	6	6	6	6
	조류		27	27	27	27	27	47	46	46	46
	포유류		10	10	10	11	12	12	14	14	14
	어류		4	4	6	4	4	4	5	5	4
	곤충 기타		6	6	6	6	6	6	6	6	6
지질	화석	56	19	20	21	22	21	22	22	22	22
	암석		5	5	5	5	6	6	6	6	6
	지형지질 일반		24	23	30	32	35	35	35	35	35
	동굴		18	18	18	18	18	18	19	19	20
천연보호구역		10	10	10	11	11	11	11	11	11	11
합계		389	404	407	422	429	434	454	455	456	457

해설	<p>천연기념물은 크게 식물, 동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를 다시 총 17개의 세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2008년까지는 식물, 동물, 지질, 천연보호구역 4개 유형으로 나누어 통계로 관리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17개 세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p> <p>지난 10년간 천연기념물의 연평균 증가 건수는 6.8건이었는데, 식물이 연평균 1.7건, 동물이 연평균 2.3건, 지질이 연평균 2.7건, 천연보호구역이 0.1건이었다.</p> <p>[참고] 2009년 세부 유형 중에는 ‘자생지’와 ‘자생북한대’를 구분하였으나, 2010년부터 이 두 가지를 묶어 ‘자생지·분포한계지’ 하나의 세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마을숲’의 경우 2010년부터 세부 유형화 하여 관리 중이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천연기념물 : 동물(그 서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 <li>• 노거수 : 나무의 수령이 오래된 당산목·풍치목·정자목 등의 나무를 말함. 오래된 나무는 대개 속이 썩어 있어 수령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마을에서 오래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구전(口傳)을 따라서 수령을 추정하는 사례가 많음</li> <li>• 수림지 : 그 자체로 식생이 유지되는 숲으로 특수한 지역에 발달하는 식물의 군락이나 희귀한 종류, 특수한 습성을 가진 식물의 군락을 보존하고자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숲</li> <li>• 마을숲 : 한국의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마을 주변에 조성되어 관리되어 온 숲으로 당숲·성황림·서낭숲처럼 토착신앙 또는 풍수지리설을 배경으로 조성됨</li> <li>• 희귀식물 :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자생하는 특산식물 일부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종류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만 자라고 있는 식물군락</li> <li>• 자생지 : 특정식물이 한정된 장소에 자랄 수 있는 일정한 장소로 생육하는 식물 중 자체보다 환경적 요인이 중요시 되는 지역의 식물군락</li> <li>• 분포한계지 : 식물별로 정해진 분포범위 중 그 한계선상에 생육하고 있는 개체나 군락</li> <li>• 서식지 : 생물 따위가 일정한 곳에 자리 잡고 사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말함</li> <li>• 번식지 : 동물이 새끼를 치며 번식해 사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말함</li> <li>• 도래지 : 철새 따위가 다른 곳에서부터 들어와 머무는 곳으로 자연환경을 말함</li> <li>• 천연보호구역 : 식물상·동물상·지질학적 또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기념물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보존 관리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정한 보호 지역</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www.heritage.go.kr)</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년도~2017년도)</li> <li>3. 「문화재연감」 (2008년도~2017년도)</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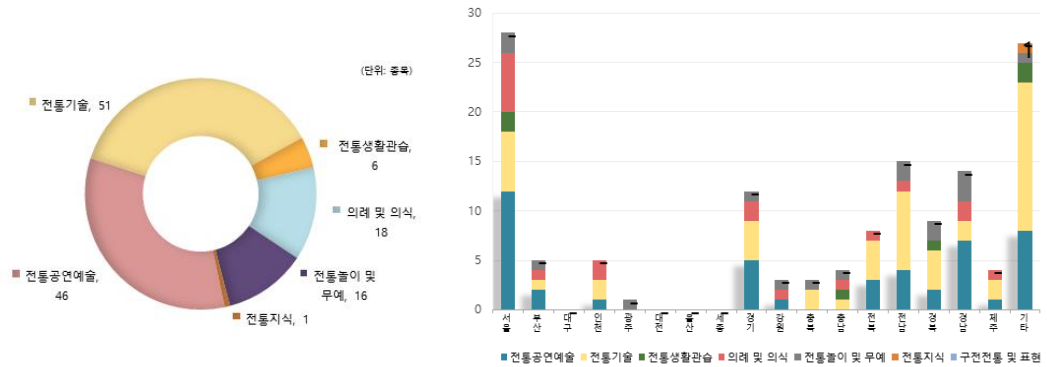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2-5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7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			
지표의의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7가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종목 수와 지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유형별·지역별) (단위: 건)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전통공연예술	12	2	0	1	0	0	0	0	5	1	0	0	3	4	2	7	1	8	46
전통기술	6	1	0	2	0	0	0	0	4	0	2	1	4	8	4	2	2	15	51
전통생활관습	2	0	0	0	0	0	0	0	0	0	0	1	0	0	1	0	0	2	6
의례·의식	6	1	0	2	0	0	0	0	2	1	0	1	1	1	0	2	1	0	18
전통놀이·무예	2	1	0	0	1	0	0	0	1	1	1	1	0	2	2	3	0	1	16
전통지식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구전전통 및 표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28	5	0	5	1	0	0	0	12	3	3	4	8	15	9	14	4	27	138

해설

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국가적·민족적·역사적·예술적 의미가 큰 것을 말한다.

2017년까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138개 중 51개 종목(41.5%)이 전통기술 범주에 해당하며, 46개 종목(33.3%)이 전통 공연·예술에 해당한다. 그 다음이 18개 종목(13.1%)의 의례·의식, 16개 종목(11.6%)의 전통놀이·무예 순으로 이어진다.

2005년까지는 기능 및 예능으로 구분하던 범주를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7가지 범주로 세분화 되었다. 이 중 구전전통 및 표현 범주는 아직 지정된 바가 없어 추후 1개 종목만 지정되어 있는 전통지식 범주와 함께 구전전통 및 표현 범주의 종목 발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학·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전통공연예술 : 전통공연·예술의 대표범주는 ‘음악’ ‘춤’ ‘연희’ ‘종합예술’ ‘그 밖의 공연·예술 등’ 이상 다섯 가지로 나뉘며, 2017년 12월 현재 46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li> <li>• 전통기술 : 전통기술의 대표범주는 ‘공예’ ‘건축’ ‘미술’ 이상 세 가지로 나뉘며, 2017년 12월 현재 51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li> <li>• 전통생활관습 : 전통생활관습의 대표범주는 ‘절기풍속’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그 밖의 생활관습’ 이상 다섯 가지로 나뉘며, 2017년 12월 현재 6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li> <li>• 의례·의식 : 의례·의식의 대표범주는 ‘민간신앙의례’ ‘일생의례’ ‘종교의례’ ‘그 밖의 의식·의례’ 이상 네 가지로 나뉘며, 2017년 12월 현재 18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li> <li>• 전통놀이·무예 : 전통놀이·무예의 대표범주는 ‘놀이’ ‘축제’ ‘기예’ ‘무예’ 이상 네 가지로 나뉘며, 2017년 12월 현재 16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li> <li>• 전통지식 : 전통지식의 대표범주는 ‘한의학’ ‘농경’ ‘어로’ 이상 세 가지로 나뉘며, 2017년 현재 1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음</li> <li>• 구전전통 및 표현 : 2017년 12월 현재까지 구전전통 및 표현에서 지정된 종목은 없으나, ‘언어표현’ ‘구비전승’ 등이 구전전통 및 표현 범주에 해당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대상 및 기준</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li> <li>• 주요지표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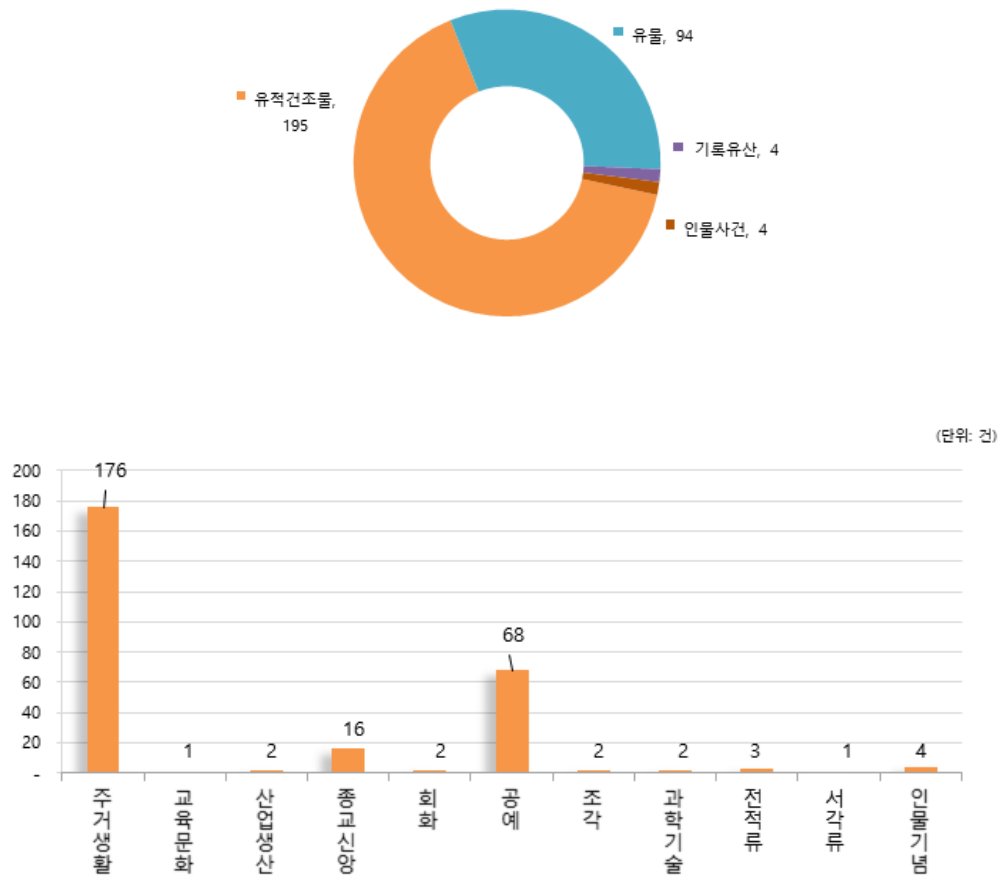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2-6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인물·사건 4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			
지표의의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인물·사건 4가지 유형 및 주거생활, 교육문화, 회화, 공예, 전적류, 서각류 등 유형별 11가지 세부 종류에 해당하는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근대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2017년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인물사건
	주거생활	교육문화	산업생산	종교신앙	회화	공예	조각	과학기술	전적류	서각류	인물기념
건수	176	1	2	16	2	88	2	2	3	1	4
합계	195				94				4		4

해설

국가민속문화재는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중 전형적인 것으로 유적건조물, 유물, 기록유산, 인물·사건 4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그 아래 주거생활, 교육문화, 산업생산, 종교신앙, 회화, 공예, 조각, 과학기술, 전적류, 서각류, 인물기념 이상 11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문화재로 구성되어 있기에 국가민속문화재는 근대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등 국가민속문화재의 각 유형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나누어 관리 중이다.

지난 10년간 국가민속문화재는 연평균 4.3개씩 증가하였는데, 국가지정문화재의 다른 유형에 비하여 그 증가폭이 크지 않다.

※ 참고 : 국가민속문화재 유형 분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홈페이지 '문화유산 검색' 하위 콘텐츠에서 '문화재검색-유형분류'에 의한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함.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민속문화재 : 한국민족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것 중 의식주에 관한 것, 생산·생업에 관한 것, 교통·운수·통신에 관한 것, 교역에 관한 것, 사회생활에 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민속 예능·오락·유희에 관한 것</li> <li>• 유적건조물 : 건축물이나 싸움터 또는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졌던 곳이나 패총, 고분 등의 유적 중 주거생활, 교육문화, 산업생산, 종교신앙과 관련한 건조물에 해당하는 것</li> <li>• 유물 :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필요에 의해 의도적으로 만들어 후대에 남긴 물건으로 유적에 비해 작고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것</li> <li>• 기록유산 : 선조들이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적은 글 등을 말하며, 책과 같이 문자로 기록된 것을 비롯하여 지도나 악보, 설계도면처럼 이미지나 기호로 기록된 것 등을 포함</li> <li>• 인물·사건 : 우리 민족이 기억하거나 기념할 가치가 있는 역사적 사건 및 해당 사건에 관한 주요 인물</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a href="http://www.heritage.go.kr">www.heritage.go.kr</a>)</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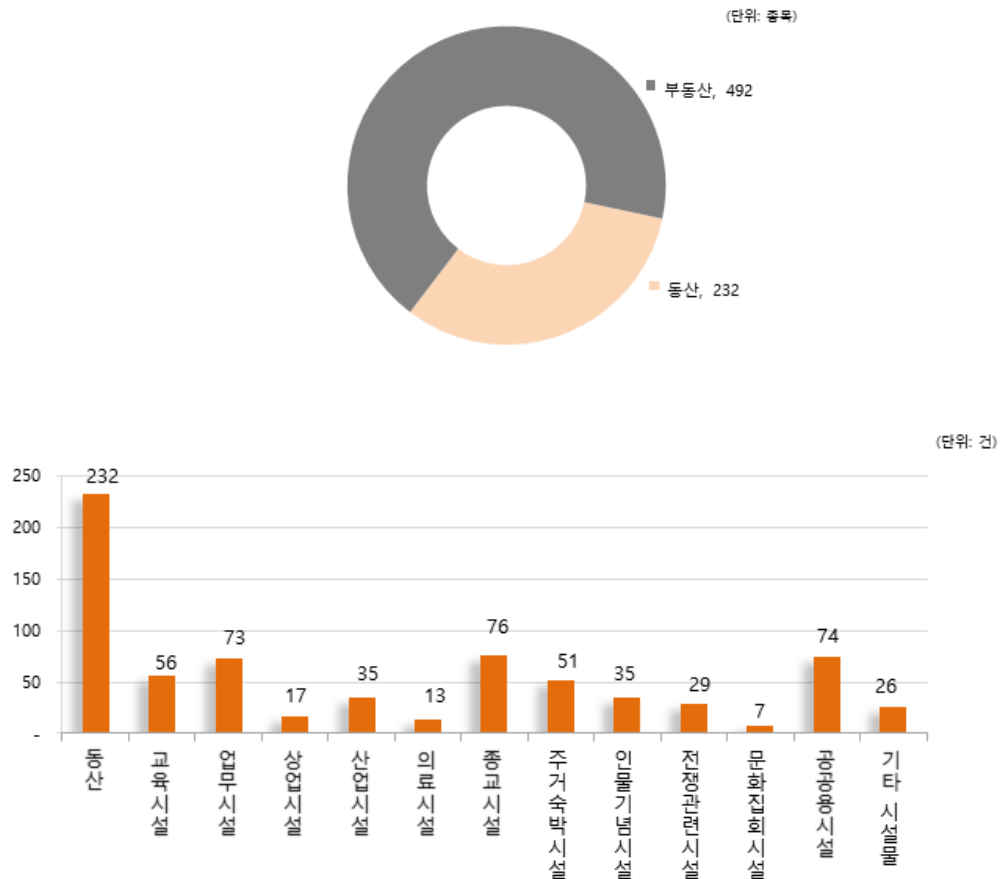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2-7	소관부서		근대문화재과 외
지 표 명	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동산, 교육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13개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			
지표의의	동산, 교육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 인물 기념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용 시설, 기타 시설 등 13개 유형으로 나누 어 관리하는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근대문화재과, 유형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2017년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동산	부동산												합계
		교육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	인물기념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용시설	기타 시설물	
건수	232	56	73	17	35	13	76	51	35	29	7	74	26	724
합계	232	492												724

해설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말하며, 특별히 소유자의 문화재 보존에 대한 뜻과 관리 행위가 뒷받침되어야 지정 가능하다.

등록문화재의 유형을 크게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면 2017년 12월 현재 동산이 32%(232건), 부동산이 68%(492건)임. 동산은 그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다양해 세부 유형을 나누기 어려우나 부동산은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 부동산 유형 중에서는 종교시설이 76건으로 부동산 전체 등록문화재의 15.4%를 차지하며, 그 다음이 74건의 공공용시설로 부동산 전체의 15%를 차지한다.

※ 참고 : 국가등록문화재 유형 분류는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홈페이지 '문화유산 검색' 하위 콘텐츠에서 '문화재검색-유형분류'에 의한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함.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li>• 동산 :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한 부동산(不動産) 이외의 물건은 모두 동산(動産)에 해당하는데, 법에서는 동산문화재의 범위를 '회화, 조각, 석조물, 공예, 전적(典籍), 고문서, 서간(書簡), 서각(書刻),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로 정하고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li> <li>• 시설 : 시설이란 특정 목적을 위해 관련 도구, 기계, 장치 따위를 베풀어 설비한 것을 말하며, 이에 따라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시설은 교육시설, 업무시설, 상업시설, 산업시설, 의료시설, 종교시설, 주거숙박시설, 인물기념시설, 전쟁관련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용 시설, 기타 시설 등 12개 유형으로 나누고 있음</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a href="http://www.heritage.go.kr">www.heritage.go.kr</a>)</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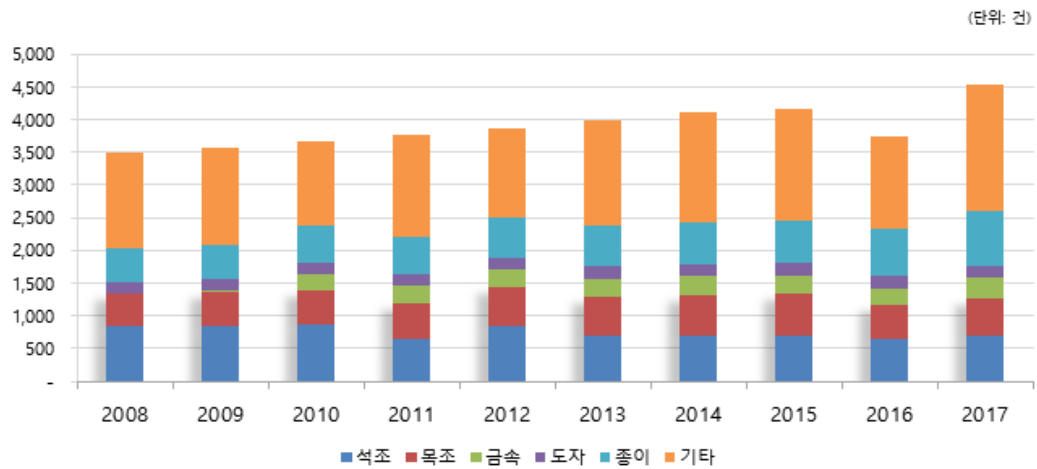
관리번호	현황 1-2-3-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의 재질별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석조, 목조, 금속, 도자, 종이, 기타(성곽 등) 등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의 재질별 현황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석조	834	846	859	647	854	692	703	706	674	695
목조	506	516	537	554	579	599	621	625	546	573
금속	7	30	236	255	267	278	280	289	312	315
도자	164	164	182	176	180	179	180	181	183	188
종이	524	537	555	570	613	629	655	661	826	840
기타(성곽 등)	1,451	1,482	1,309	1,554	1,385	1,611	1,681	1,703	1,994	1,914
합계	3,486	3,575	3,678	3,756	3,878	3,988	4,120	4,165	4,535	4,525

해설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재질은 매우 다양하지만, 문화재 관리 차원에서는 석조, 목조, 금속, 도자, 종이, 기타(성곽 등) 등 6가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각 재질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석조의 경우 2008년 834건이었던 수량이 2017년 695건으로 139건이 줄어 든 것이 눈에 띈다. 그 외 다른 5가지 재질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데, 그 중 금속은 2008년 7건이었던 수량이 2017년 315건으로 늘어나 증가율이 45배(4,500%)에 이르고 있다.

위 표에서 연도별 합계는 당해연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중 종목과 보유자(사람)이 지정·인정되어 별도의 재질로 나눌 수 없는 국가무형문화재 수를 뺀 건수이다.

[참고] 위 표의 내용 중 2016년 현황은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해당 지표 내용을 옮겨 놓은 것이지만,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과 차이가 있어 2016년 현황표 작성에 잘못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추후 확인 수정 필요).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li>• 석조 : 돌로 만든 물건이나 건조물을 의미함. 석조문화재는 관천대·굴뚝·당간·마애불·석굴·석등·탑 등 주로 건조물이 많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화강암·안산암·대리암·사암·응회암·점판암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조유물이 가장 많음</li> <li>• 목조 : 나무로 만든 물건이나 건조물을 의미함. 목조문화재는 주로 궁궐건축·사찰건축·서원·향교·불상·불감·가구 등의 건조물 및 공예품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나는 다양한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특히 건조물에서는 소나무, 가구에서는 느티나무 등이 좋은 재료로 쓰였음</li> <li>• 금속 : 금속은 열을 잘 전도하고, 펴지고 늘어나는 성질이 풍부하며, 특수하고 다채로운 광택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 금속문화재는 불상·귀금속·식기·생활용구·활자 등 주로 공예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필요에 따라 제작되었기에 그 형태 역시 매우 다양함. 재료 역시 금·은·동·무쇠 등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가치와 만들고자 하는 형태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금속이 사용되었음</li> <li>• 도자 : 도자는 도기와 자기를 일컫지만, 여기에서는 토기까지 포함하고 있음. 토기는 흙을 빚어 형태를 만드는 데 그치지만 도기와 자기는 흙, 모래 등을 이용해 빚은 그릇 등을 불에 구워 미감과 효용성을 높인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음</li> <li>• 종이 : 식물성 섬유를 이용해 만든 얇은 물건으로, 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고 인쇄할 때 사용함. 종이의 형태와 재질은 재료와 용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우리나라에서는 닥종이로 만든 한지는 그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 문화재 중에서도 종으로 만든 각종 기록물, 공예품 등이 전해져 있음</li> <li>• 기타(성곽 등)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석조·목조·금속·도자·종이 외에 섬유·피혁 등 기타 재료나 한 가지 재료로 규정이 불가능한 성곽 등의 건조물을 합쳐 기타로 구분함</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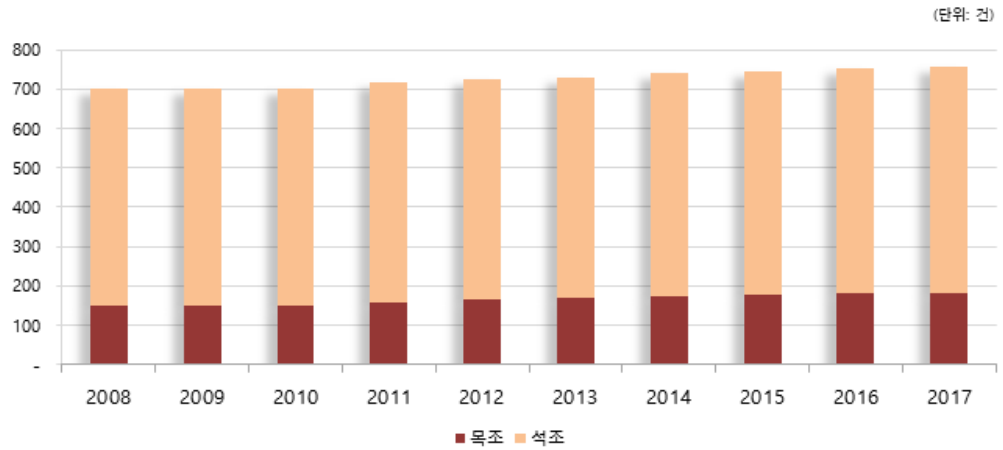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3-2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외
지 표 명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중 건조물문화재의 재질별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고가·관아건축·궁궐건축·서원·향교 등 9가지 유형의 목조문화재와 관천대·굴뚝·당간·대좌·불상·석굴·석등·탑 등 27가지 유형의 석조문화재의 재질 및 유형별 현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목조	고가	12	12	12	12	12	12	13	13	13	13
	관아건축	4	4	4	4	4	4	4	4	4	4
	궁궐건축	18	18	18	18	24	24	24	24	24	24
	누정·각	13	13	13	13	13	13	13	13	14	14
	사묘재실	6	6	6	9	10	10	10	10	10	10
	사찰건축	81	81	81	82	83	84	90	91	92	94
	서원	6	6	6	7	7	7	7	7	7	7
	성곽건축	5	5	5	7	7	7	7	7	8	8
	향교	6	6	6	7	7	7	7	7	8	8
	소계	151	151	151	159	167	168	175	176	180	182
석조	관천대	1	1	1	2	2	2	2	2	2	2
	굴뚝	2	2	2	2	2	2	2	2	2	2
	귀부이수	6	6	6	6	6	6	6	6	6	6
	노주	1	1	1	1	1	1	1	1	1	1
	당간	28	28	28	28	28	28	28	28	28	28
	대좌	4	4	4	4	4	4	4	4	4	4
	마애불	41	41	41	41	41	41	43	43	43	43
	모전석탑	3	3	3	3	3	4	4	4	4	4
	불간	1	1	1	1	1	1	1	1	1	1
	불상	87	87	88	88	88	88	88	88	90	90
	비	66	66	67	67	68	71	72	73	73	73
	석교	10	10	10	11	12	12	12	12	12	12
	석굴	2	2	2	2	2	2	2	2	2	2
	석등	2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석빙고	5	5	5	6	6	6	6	6	6	6
	석사자·천인상	2	2	2	2	2	2	2	2	2	2
	석연지·석연대	2	2	2	2	2	2	2	2	2	2
	석조	6	6	6	6	6	6	6	6	6	6
	석종	1	1	1	1	1	1	1	1	1	1
	석주	2	2	2	2	2	2	2	2	2	2
	석축·계단	3	3	3	4	4	4	4	4	4	4
	승탑	59	59	59	59	59	60	60	60	60	60
	암각화·각석	3	3	3	3	3	3	3	3	3	3
	자격루	1	1	1	1	1	1	1	1	1	1
	전탑	5	5	5	5	5	5	5	5	5	5
	첨성대	1	1	1	1	1	1	1	1	1	1
	탑	178	178	179	180	180	179	180	181	181	183
	풍기대·석표수표	4	4	4	4	4	4	4	4	4	4
	소계	549	549	552	557	559	563	567	569	571	573
	합계	700	700	703	716	726	731	742	745	751	755

해설	<p>건조물문화재는 재질별로 목조와 석조로 나뉘는데, 석조문화재가 목조문화재에 비하여 3배 이상 많다. 목조문화재는 고가·관아건축·궁궐건축·서원·향교 등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 중이며, 석조문화재는 관천대·굴뚝·당간·대좌·불상·석굴·석등·탑 등 27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관리 중이다.</p> <p>지난 10년간 건조물문화재의 증가 추이는 연평균 5.5건으로 증가율이 크게 높지 않은데, 목조문화재 중에는 궁궐건축(연평균 6건)과 사찰건축(연평균 1.4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유형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석조문화재 중에는 비(석비/연평균 0.7건)와 탑(0.5건)의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p> <p>이러한 증가율을 고려할 때 건조물문화재의 발굴과 지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는 건조물문화재 관련 정책이 발굴보다는 보존과 보호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천대(觀天臺) : 간의를 설치한 조선시대 천문관측시설로, 간의대(簡儀臺)라고도 함</li> <li>• 귀부(龜趺) 및 이수(螭首) : 귀부는 거북모양의 비석 받침. 이수는 용의 모양을 새겨 장식한 비석의 머릿돌</li> <li>• 노주(露柱) : 벽면에 붙어 있지 않고, 사방이 노출되어 있는 둥근 기둥</li> <li>• 당간(幢竿) : 사찰 입구에 세운 깃대의 일종으로 각종 행사를 알리는 기를 거는 기둥</li> <li>• 대좌(臺座) : 불상을 안치하는 대(臺)</li> <li>• 불감(佛龕) : 이동 시 불공을 드리기 위해 제작한 휴대용 법당</li> <li>• 석조(石槽) : 큰 돌을 넓게 파서 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만든 물통의 일종</li> <li>• 석주(石柱) : 돌로 만들어 세운 기둥</li> <li>• 석축(石築) :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돌을 쌓아 올린 벽</li> <li>• 승탑(僧塔) : 승려의 사리나 유골을 안치한 탑으로 부도(浮屠)라고도 함</li> <li>• 각석(刻石) : 비문이나 도상을 새긴 돌</li> <li>• 전탑(塼塔) : 흙을 구워 만든 벽돌로 쌓아 올린 탑</li> <li>• 풍기대(風旗臺) : 풍기대는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관측하기 위해 설치한 받침돌로 깃발(風旗)을 꽂아두었음</li> <li>• 수표(水標) : 하천의 수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측량기구</li> <li>• 석표(石標) : 경계, 풍수, 방액 등을 표시하기 위해 세운 돌</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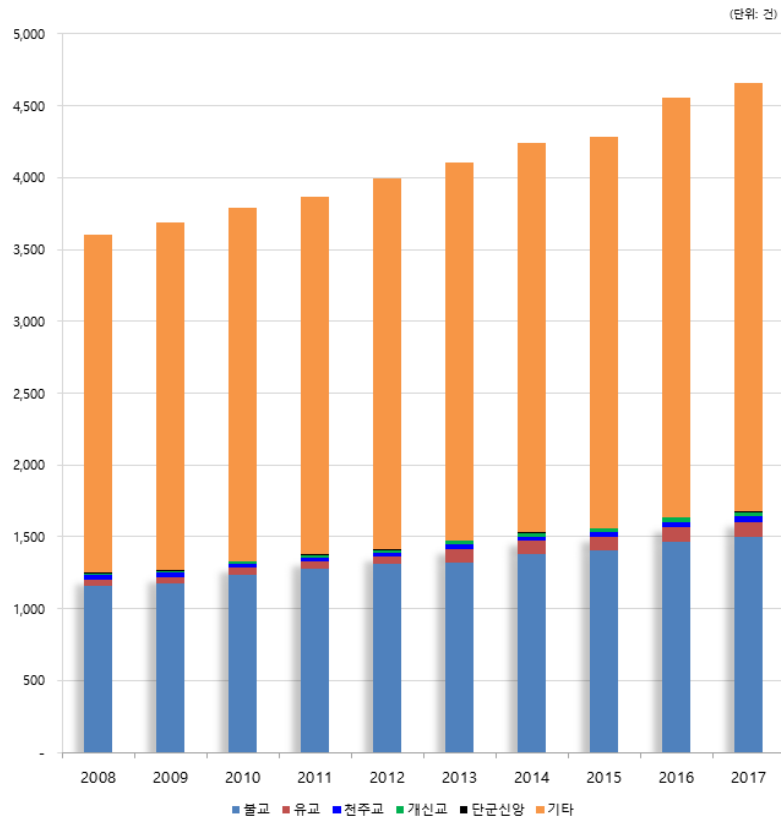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4-1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외
지 표 명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종교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의 종교별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단군신앙, 기타(비종교 포함) 등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의 종교별 현황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종교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불교	1,155	1,172	1,235	1,274	1,309	1,323	1,381	1,404	1,469	1,503
유교	50	50	48	52	52	93	89	95	98	99
천주교	27	28	30	30	31	32	32	34	36	38
개신교	14	15	15	17	17	24	25	26	29	33
단군신앙	3	3	3	3	3	3	4	2	3	3
기타(비종교 포함)	2,351	2,421	2,461	2,494	2,582	2,632	2,709	2,726	2,923	2,987
합계	3,600	3,689	3,792	3,870	3,994	4,107	4,240	4,287	4,558	4,663

해설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불교, 유교, 천주교, 개신교, 단군신앙, 기타(비종교 포함) 등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 속에 정착한 다양한 종교와 관련되어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로 인하여 무속·비종교 등이 포함된 기타가 2017년 12월 기준 64.1%를 차지하고 있다. 단일 종교로는 불교가 2017년 12월 기준 전체의 32.2%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인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불교만큼 전래된 기간이 오래되었고 심지어 500년의 역사를 가진 조선시대를 대표하던 유교가 2017년 12월 기준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 이는 인(仁)·덕(德)·예(禮)·의(義)·지(知) 등 윤리적 본성을 강조하며 윤리사상과 정치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우리나라 유교 또는 유학의 특성으로 인한 결과로 유추된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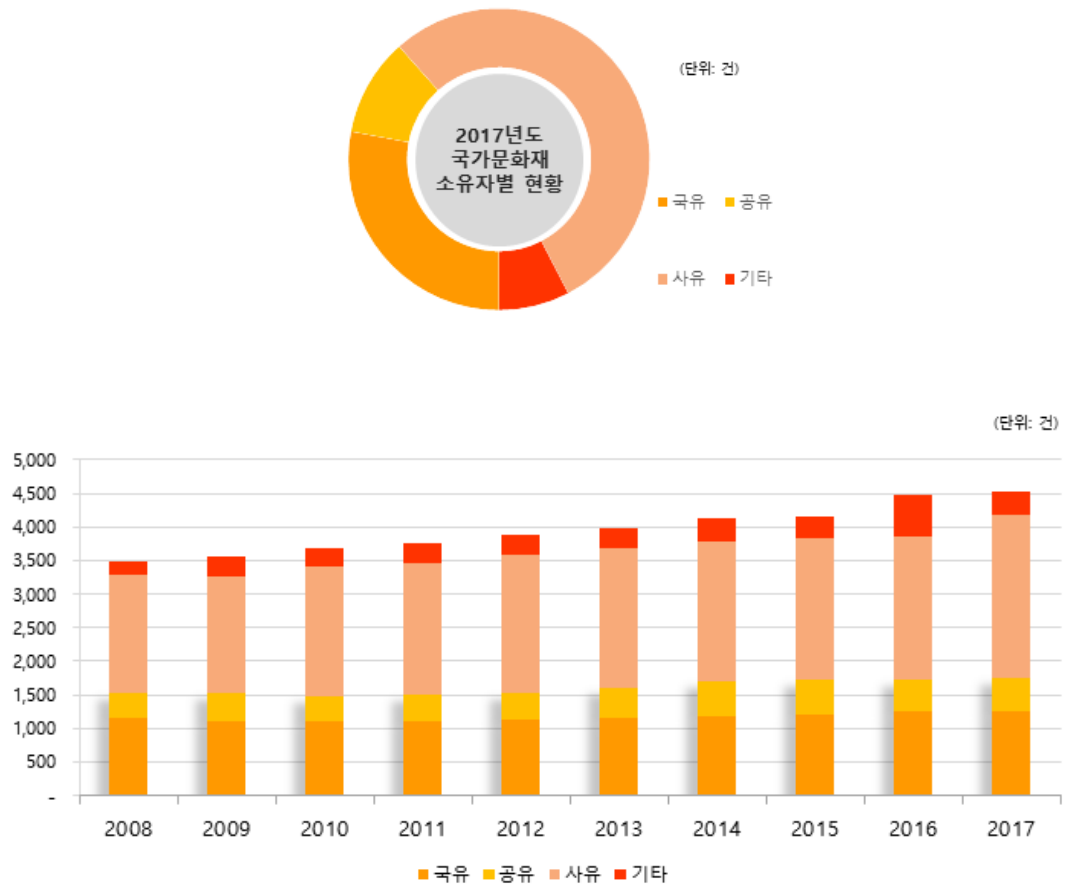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5-1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외
지 표 명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별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국유, 공유, 사유, 기타 등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별 현황에 대하여 지난 10년간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유	1,163	1,094	1,093	1,107	1,139	1,165	1,183	1,204	1,260	1,265
공유	363	423	394	391	400	424	528	529	473	475
사유	1,749	1,749	1,922	1,967	2,046	2,091	2,077	2,099	2,134	2,441
기타	211	302	269	291	293	308	332	333	617	344
합계	3,486	3,568	3,678	3,756	3,878	3,988	4,120	4,165	4,484	4,525

해설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소유자 현황은 2017년 12월 기준으로 사유가 전체의 53.9%를 차지해 가장 많으며, 그 다음이 국유로 전체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사유가 연평균 69.2건, 기타가 연평균 13.3건, 공유가 연평균 11.2건, 국유가 연평균 10.2건 순으로 증가해 왔다.

위 표에서 연도별 합계는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재질별 현황에서처럼 당해연도 국가무형문화재 수를 뺀 건수이다.

[참고] 위 표의 내용 중 2009년 현황 및 2016년 현황이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 및 재질별 현황과 차이가 있어 2016년 현황표 작성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09년 현황은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16년 현황은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의 해당 지표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이다(추후 확인 수정 필요).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주체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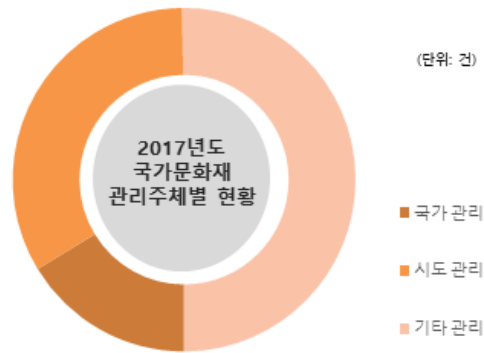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현황 1-2-5-2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외
지 표 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주체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관리주체별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국가 관리, 시·도 관리, 기타(개인 및 단체 등) 등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관리주체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근대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지정·등록문화재(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 그래프



## 통계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유형별 관리주체 현황 (단위: 건)			
구분	국가 관리	시도 관리	기타(개인 및 단체)
국보	112	46	173
보물	381	394	1,331
사적	40	414	46
명승	-	109	1
천연기념물	6	383	68
국가민속문화재	25	53	219
등록문화재	173	119	432
합계	737	1,518	2,270

2년간 국가지정·등록문화재 관리주체별 현황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16	2017
국가 관리	699	737
시도 관리	1,502	1,518
기타(개인 및 단체 등) 관리	2,222	2,270
합계	4,423	4,525

## 해설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관리주체는 소유자별 현황과 많이 다른데, 이는 국유일지라도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고 시·도 및 기관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거나 사유일지라도 개인이 관리하지 않고 국가, 시·도, 기관, 단체 등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관리주체별 현황은 2016년부터 작성되었기에 이 지표카드에서는 2016년 현황부터 작성하였다.

[참고] 위 표의 내용 중 2016년 현황의 합계가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의 해당 연도 합계와 차이가 있어 2016년 현황표 작성이 잘못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현황은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의 해당 지표 내용을 옮겨 정리한 것이다(추후 확인 수정 필요).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국보·보물·사적·명승·천연기념물·국가무형문화재·중요민속문화재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ul>
출 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소유자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 4.1.2. 문화유산 가치 지표

### ■ 대표지표

- 대표지표 정의 : 유네스코 유산 등재, 국외소재 문화재 조사와 환수, 국제교류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관리하는 문화유산 정책 동향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제고하고,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파악과 환수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다양한 방법의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세계인과 공유하는 등 우리 문화재의 가치 증진 및 가치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유산 정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유네스코 세계유산

#### • 세계유산

1. 석굴암, 불국사
2. 해인사 장경판전
3. 종묘
4. 창덕궁
5. 화성
6. 경주 역사유적지구
7. 고창, 화순, 강화 고인돌유적
8.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9. 조선왕릉
10. 한국의역사마을:하회와 안동
11. 남한산성
12. 백제역사유적지구

#### • 세계기록유산

1. 조선왕조실록
2. 훈민정음
3. 직지심체요절
4. 승정원일기
5.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6. 조선왕조 의궤
7. 동의보감
8. 일성록
9.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
10. 난중일기
11. 새마을 운동 기록물
12.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13. 한국의 유교책판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15. 국제보상운동기록물
16. 조선통신사기록물

#### • 인류무형유산

1.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
2. 판소리
3. 강릉단오제
4. 강강술래
5. 남사당놀이
6. 영산재
7. 제주철머리당 명등굿
8. 처용무
9. 가곡
10. 대목장
11. 매사냥
12. 택견
13. 줄타기
14. 한산모시짜기
15. 아리랑
16. 김장문화
17. 농악
18. 줄다리기
19.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해 보호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유산]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이상 3개 문화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총 12건의 우리 문화재가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되었다. 한편, 2017년 12월 현재 세계유산 등재 후보로 신청한 잠정목록은 총 16건(문화유산 12건, 자연유산 4건)이다.

[세계기록유산] 1997년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2건이 등재된 이후 2017년 12월 현재 총 16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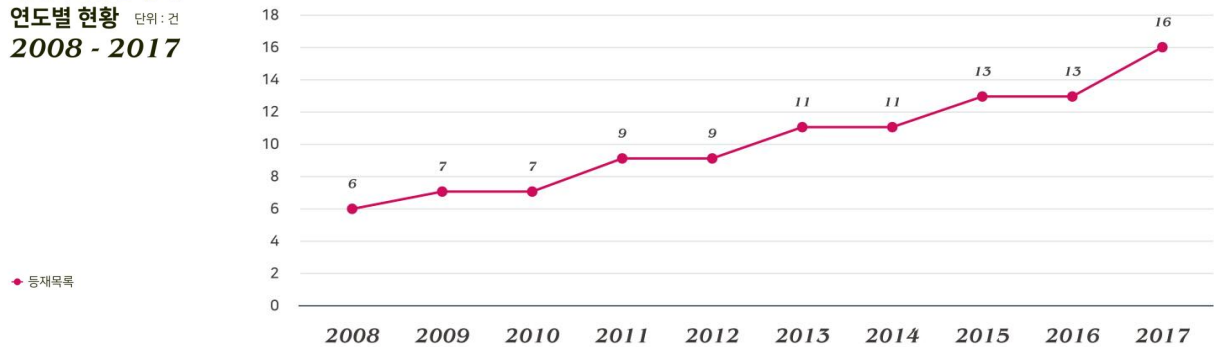
[인류무형유산] 2001년 종묘제례 및 종묘 제례악이 등재된 이후 2017년 12월 현재 총 19건이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으로 등재되었다.

세계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단위: 건  
2008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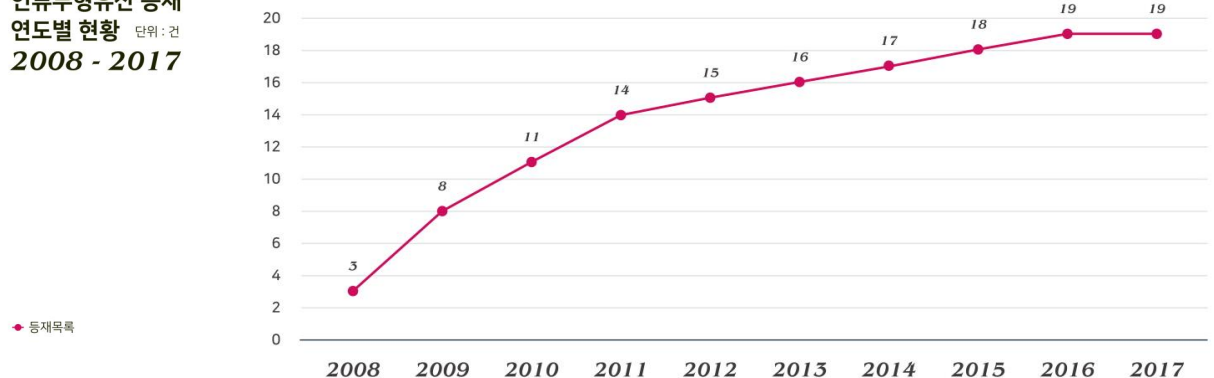
2017년 12월 현재 세계유산 누적 등재 건수는 12건이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우리 문화재의 세계유산 점유율은 1.1%이며, 2008년~2016년까지 9년간 연평균 등재 건수는 0.4건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연평균 등재 건수는 17.4건이었다.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단위: 건  
2008 - 2017



2017년 기준 세계기록유산 누적 등재 건수는 16건이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우리 문화재의 세계기록유산 점유율은 3.7%이며, 2008년~2016년까지 9년간 연평균 등재 건수는 0.7건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연평균 등재 건수는 19건이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재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 128개국 및 8개 기구 427건이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아 이를 통해 우리 민족의 기록유산의 우수성과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인류무형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단위: 건  
2008 - 2017





2017년 12월 현재 인류무형유산 누적 등재 건수는 19건이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우리 문화재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점유율은 5.7%이며, 2008년~2016년까지 9년간 연평균 등재 건수는 1.6건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연평균 등재 건수는 27.6건이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전 세계 점유율이 5.7%라는 점, 거의 매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 무형문화재가 등재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관련 정책의 특출함을 입증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문화재 환수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단위: 점  
20개국  
582개처  
168,330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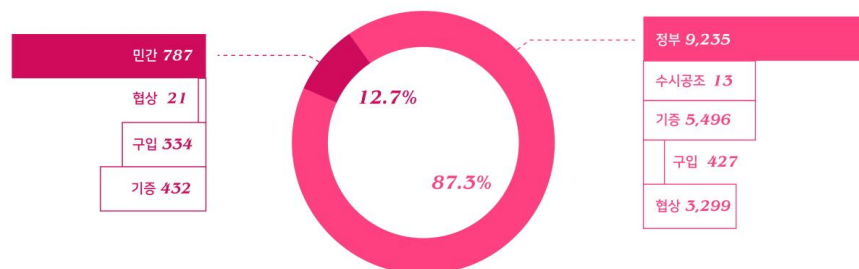
국외소재 문화재 대부분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여러 공공 및 민간기구와 공조해 국외문화재 조사, 국외문화재 관리 지원, 국외문화재 환수 등 중장기적 계획 및 유산의 상황에 따른 대응전략을 수립해 문화재 환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20개국에 168,330점이었다. 일본에 소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가 71,422점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국에 소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가 46,404점으로 전체의 27.6%로 다음 순위로 많았다.

##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점

12개국  
10,022점



문화재 환수는 '정부 간 협상', '기증', '구입', '수사공조'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두 가지 경로로 추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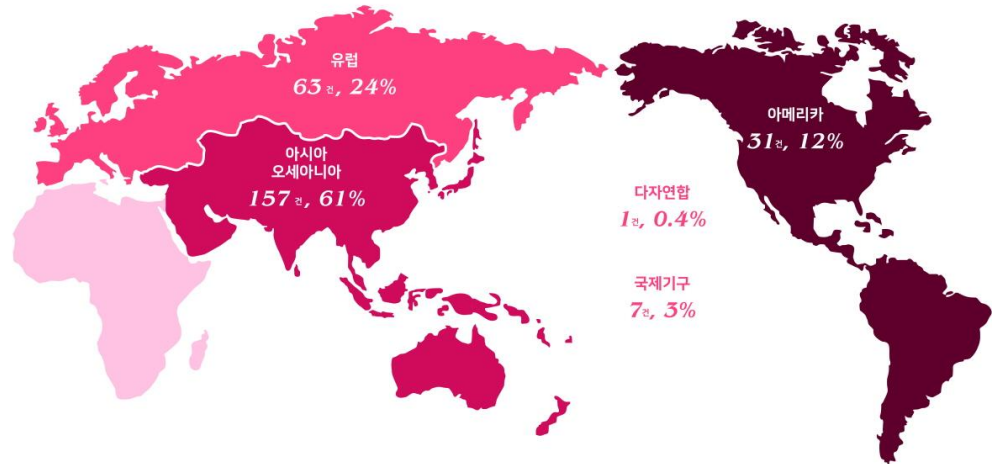
2017년 12월 현재까지 국외소재 중인 문화재를 제외하고 국내로 환수 완료된 문화재는 12개국에서 총 10,022점이었다. 이 중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을 통한 공공영역의 환수는 9,235점, 개인 및 사립박물관 등을 통한 민간영역의 환수는 787점이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6,568점(65.5%), 미국이 1,283점(12.8%), 독일이 696점(6.9%) 순으로 많았다.

## 국제 교류

국제 MOU 체결  
지역별 현황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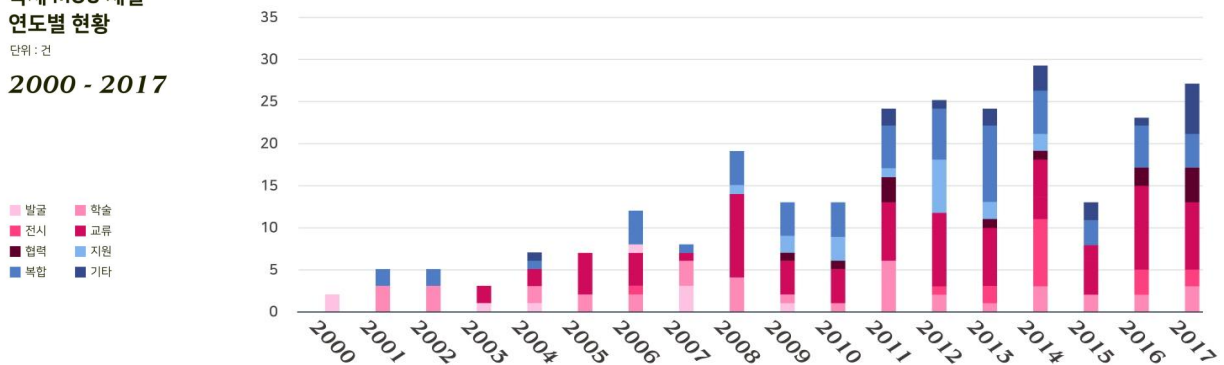


2000년 이후 국제 MOU를 체결한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69건, 중국 40건, 몽골 14건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약 건수가 전체 259건 중 약 61%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고 꾸준하게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극동아시아의 경우 인접 국가이기에 역사상 우리 민족의 이동에 의한 문화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데다 전쟁이나 수탈에 의해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아시아 지역의 경우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 학술적·문화적 교류나 협력이 상호 긍정적 시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메리카 지역은 미국 28건, 캐나다 2건 등 31건으로 12%, 유럽 지역은 러시아 35건, 프랑스 6건, 독일 6건, 이탈리아 5건 등 63건으로 약 24%를 차지하였다.

국제 MOU 체결  
연도별 현황

단위: 건

2000 - 2017



2000년 이후 국제 MOU 체결 추이는 증가하는 양상이다. 문화유산 분야 MOU는 공동으로 추진할 업무나 공통의 이해관계에 관한 사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성격과 내용을 토대로 '발굴', '학술', '전시', '교류', '협력', '지원' 등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교류' 및 '학술' 관련 협약이 전체 259건 중 125건(48.3%)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와 관련하여 '전시', '지원', '협력' 등의 협약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가치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13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가치 지표의 13개 세부지표는 다음 13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2. 문화유산 가치 세부지표

### 2.1. 유네스코 세계유산

#### 2.1.1. 세계유산

- 2-1-1-1.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 2-1-1-2. 세계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 2.1.2. 세계기록유산

- 2-1-2-1.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현황
- 2-1-2-2.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 2.1.3. 인류무형유산

- 2-1-3-1. 인류무형유산 등재목록 현황
- 2-1-3-2. 인류무형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 2.2. 문화재 환수와 교류

#### 2.2.1. 국외소재 한국 문화재

- 2-2-1-1.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 2-2-1-2. 국외소재 문화재 연도별 현황

#### 2.2.2. 문화재 환수

- 2-2-2-1.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 2-2-2-2.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연도별 현황

#### 2.2.3. 문화재 국제 교류

- 2-2-3-1. 국제 MOU 체결 국가별·지역별 현황
- 2-2-3-2. 국제 MOU 체결 연도별 현황
- 2-2-3-3. 국제 MOU 체결 추진기관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1-1-1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우리나라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지표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및 등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하여 보호 중임.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세계유산(World Heritage)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함.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음</li> <li>• 등재목록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명단.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이후 본 신청서 제출-자문기구의 현지 실사와 평가-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거쳐 세계유산으로 등재</li> <li>• 잠정목록(Tentative Lists) :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후보 명단. 3가지 유형의 유네스코 유산 중 세계유산에만 해당하는 제도</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세계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li> <li>• 보조지표 : 인류무형유산 등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1-1-2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세계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 및 등재 추진 중인 우리나라 문화재의 연도별 현황 추이를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현황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등재건수	8	9	10	10	10	10	11	12	12	12
한국 잠정건수	8	7	10	14	15	18	17	15	15	16
전세계 등재건수	878	890	911	936	962	981	1,007	1,031	1,052	?

해설

2008년 이후 10년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추가 등재된 우리 문화재는 4건으로 2009년 조선왕릉, 2010년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와 양동), 2014년 남한산성, 2015년 백제역사유적 지구였다. 2017년 12월 현재 총 등재목록 건수는 12건이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우리 문화재의 세계유산 점유율은 1.1%이며, 2008년~2016년까지 9년간 연평균 등재 건수는 0.4건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연평균 등재 건수는 17.4건이었다.

문화재청은 우리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해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 정책적·학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세계유산의 후보 성격을 지닌 잠정목록은 2008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여서 향후 더 많은 우리 문화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기대된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하여 보호 중임.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세계유산(World Heritage) :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이 규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으로서 그 특성에 따라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함.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고 있는 부동산 유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떤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머물지 않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함. 세계유산 운영지침에 따르면, 세계유산은 기본적으로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고, 법적·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음</li> <li>• 등재목록 :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명단.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부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잠정목록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되며, 이후 본 신청서 제출-자문기구의 현지 실사와 평가-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 과정을 거쳐 세계유산으로 등재</li> <li>• 잠정목록(Tentative Lists) :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기 위하여 유네스코에 제출하는 후보 명단. 3가지 유형의 유네스코 유산 중 세계유산에만 해당하는 제도</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li>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1-2-1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우리나라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			
지표의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그래프 작성 불가)		
통계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목록 현황 (단위: 건)		
	번호	등재 목록	등재 일
	1	조선왕조실록	1997. 10. 1.
	2	훈민정음	1997. 10. 1.
	3	직지심체요절	2001. 9. 24.
	4	승정원일기	2001. 9. 24.
	5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2007. 6. 14.
	6	조선왕조 의궤	2007. 6. 14.
	7	동의보감	2009. 7. 31.
	8	일성록	2011. 5. 25.
	9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2011. 5. 25.
	10	난중일기	2013. 6. 18.
	11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3. 6. 18.
	12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2015. 10. 9.
	13	한국의 유교책판	2015. 10. 9.
	14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2017. 10. 31.
	15	국채보상운동기록물	2017. 10. 31.
	16	조선통신사기록물	2017. 10. 31.
	합계	총 16건	
해설	1997년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2건이 등재된 이후 2017년 12월 현재 총 16건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 11월 현재 세계기록유산은 전 세계 128개국 및 8개 기구 427건이 등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16건의 세계기록유산은 단일 국가 기준 세계에서 네 번째, 아태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많다고 한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민족의 기록과 관련한 우수성과 지금까지 일궈 온 기록유산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하여 보호 중임.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 MOW)’ 사업을 설립한 이후 1995년 인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을 보존·이용하기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고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함.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기에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는 한편,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을 보존하여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로, 파피루스·양피지·야자 잎·나무껍질·섬유·돌 등에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필사본·도서·신문·그림·지도·오디오·비디오 등 단독 기록 또는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 등을 등재 대상으로 함 [등재기준]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시간·장소·인물·주제·형태·사회적 가치·보존 상태·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보조 요건(희귀성, 관리계획 등)’ 4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평가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li> <li>• 보조지표 : 인류무형유산 등재목록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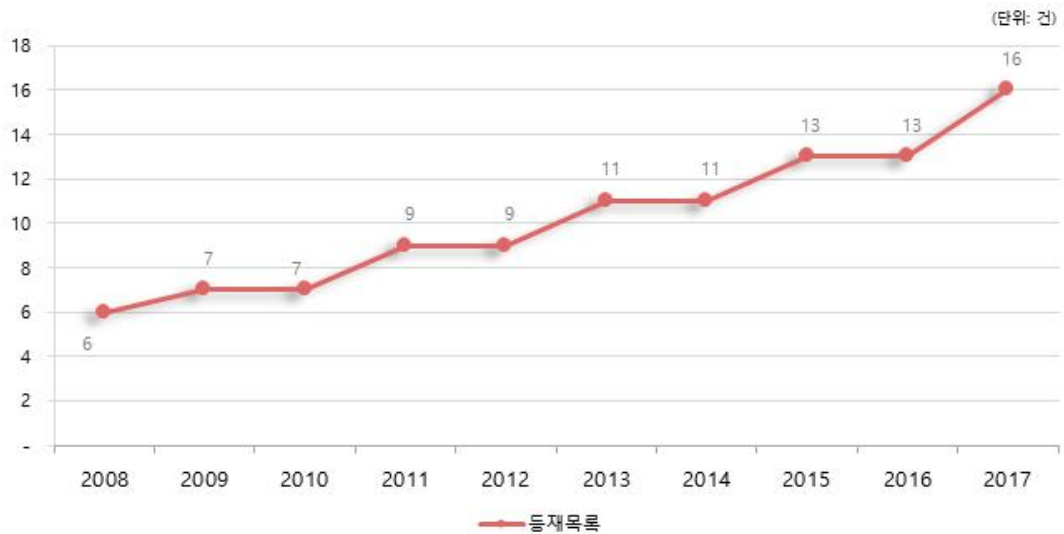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1-2-2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문화재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문화재의 연도별 등재 현황 추이를 전 세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현황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등재건수	6	7	7	9	9	11	11	13	13	16
전세계 등재건수	158	193	193	238	238	300	300	348	348	?

해설

2008년 이후 10년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추가 등재된 우리 문화재는 10건으로 2009년 동의보감, 2011년 일성록,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2013년 난중일기, 새마을운동 기록물, 2015년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한국의 유교책판, 2017년 조선왕실 어보와 어책, 국채보상운동기록물, 조선통신사기록물이 등재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총 등재목록 건수는 16건이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우리 문화재의 세계기록유산 점유율은 3.7%이며, 2008년~2016년까지 9년간 연평균 등재 건수는 0.7건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연평균 등재 건수는 19건이었다.

우리 문화재의 세계기록유산 점유율이 전체의 3.7%라는 사실은 우리 기록유산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하여 보호 중임.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 유네스코는 1992년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 : MOW)’ 사업을 설립한 이후 1995년 인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인데도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을 보존·이용하기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고자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사업을 시작함. 세계의 기록유산이 인류 모두의 소유물이기에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이를 보호하는 한편, 기록유산에 담긴 문화적 관습과 실용성을 보존하여 모든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 기록유산은 기록을 담고 있는 정보 또는 그 기록을 전하는 매개물로, 파피루스·양피지·야자 잎·나무껍질·섬유·돌 등에 기록이 남아있는 자료, 필사본·도서·신문·그림·지도·오디오·비디오 등 단독 기록 또는 기록의 모음(archival fonds) 등을 등재 대상으로 함 [등재기준] 세계기록유산은 영향력·시간·장소·인물·주제·형태·사회적 가치·보존 상태·희귀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산의 진정성(Authenticity)’, ‘독창적(Unique)이고 비(非)대체적(Irreplaceable)인 유산’, ‘세계적 관점에서 유산이 가지는 중요성’, ‘보조 요건(희귀성, 관리계획 등)’ 4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평가함</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li>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1-3-1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			
지표의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하여 보호 중임.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전통문화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됨. 유네스코는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는데,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됨. 또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는 이정표가 됨 [등재기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두 가지 무형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은 ‘소멸위험’, ‘긴급상황’, ‘공동체·집단·개인이 실연 가능하도록 보호조치 구비’ 등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함</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유산 등재목록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기록유산 등재목록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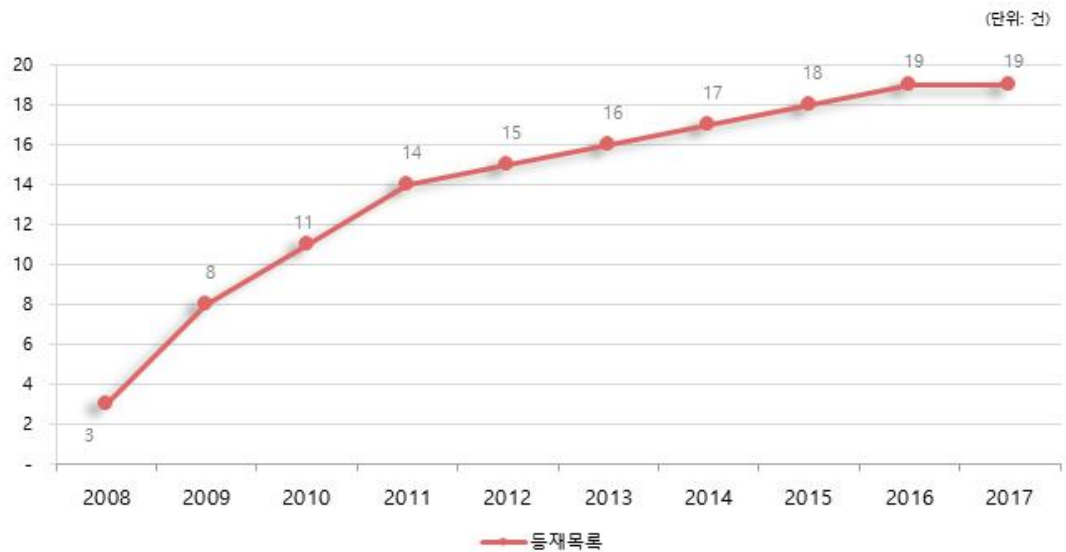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1-3-2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연도별 등재 현황 추이를 전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현황과 비교하며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네스코 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변화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한국 등재건수	3	8	11	14	15	16	17	18	19	19
전세계 등재건수	90	166	213	232	257	310	344	336	366	?

해설

2008년 이후 10년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추가 등재된 우리 문화재는 16건으로 2009년 강강술래, 남사당놀이, 영산재, 제주칠머리당 영등굿, 처용무, 2010년 가곡, 대목장, 매사냥, 2011년 택견, 줄타기, 한산모시짜기, 2012년 아리랑, 2013년 김장문화, 2014년 농악, 2015년 줄다리기, 2016년 제주해녀문화가 등재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총 등재목록 건수는 19건이다.

2016년 기준 전 세계 대비 우리 문화재의 인류무형문화유산 점유율은 5.7%이며, 2008년~2016년까지 9년간 연평균 등재 건수는 1.6건이었다. 참고로 같은 기간 동안 전세계 연평균 등재 건수는 27.6건이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전 세계 점유율이 5.7%라는 점, 거의 매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우리 무형문화재가 등재되었다는 점은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우수성과 관련 정책의 특출함을 입증하는 사례인데,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매우 뛰어난 체계와 업적을 갖고 있으며, 세계 무형문화유산 분야의 리더로 활약하고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네스코 유산 : 유네스코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유산(World Heritage), 소멸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한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세계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기록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각각 등재하여 보호 중임. 우리나라는 1988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가입 이후,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홍보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우리 문화재의 유네스코 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음</li> <li>•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전통문화로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해온 각종 지식과 기술, 공연예술, 문화적 표현을 아우름.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됨. 유네스코는 1997년 제29차 총회에서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제도’를 채택했는데, 2001년, 2003년, 2005년 모두 3차례에 걸쳐 70개국 90건이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지정됨. 또한 2003년 유네스코 총회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사회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이 건축물 위주의 유형 문화재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유산(living heritage), 즉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하는 이정표가 됨</li> </ul> <p>[등재기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두 가지 무형유산 목록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긴급보호가 필요한 무형문화유산은 ‘소멸위험’, ‘긴급상황’, ‘공동체·집단·개인이 실연 가능하도록 보호조치 구비’ 등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은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문화간 대화에 기여하는 한편,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할 것’,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등 5가지 기준으로 평가함</p>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li>4.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세계기록유산 등재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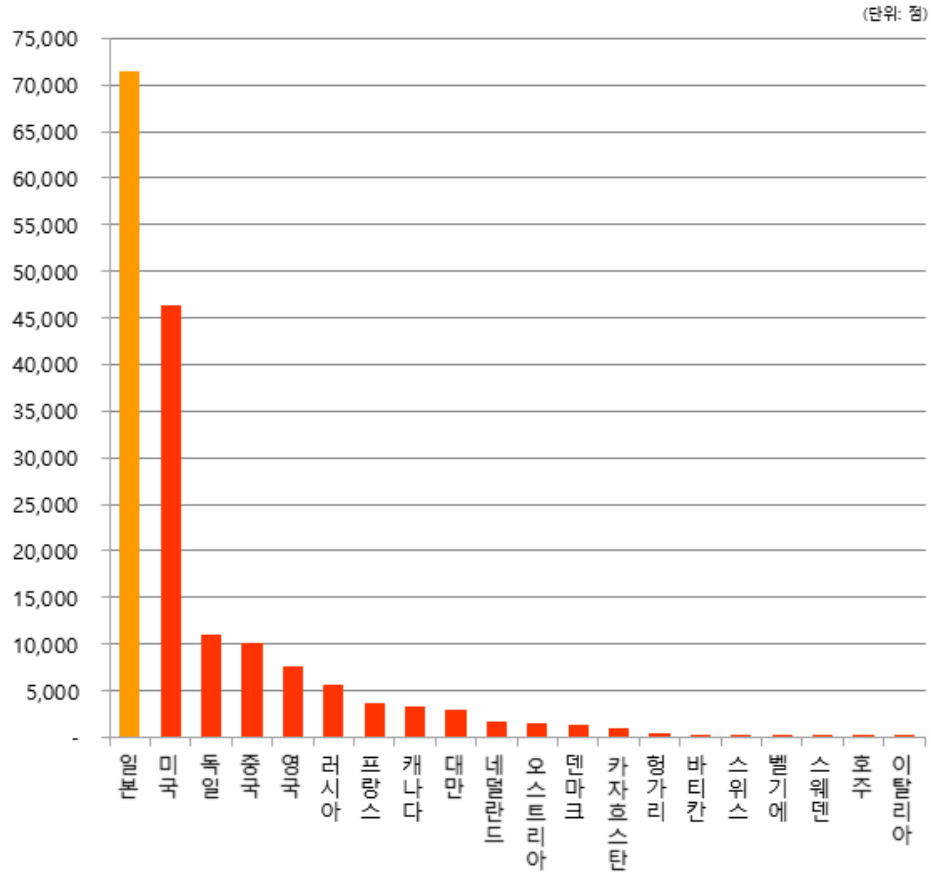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2-1-1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을 국가별로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소재 중인 우리 문화재 현황을 국가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단위: 점, 개처)			
구분	문화재 수	소장처 수	주요 소장처
일본	71,422	?	동경국립박물관 등
미국	46,404	?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등
독일	10,940	?	켈른동아시아박물관 등
중국	10,050	?	북경고궁박물관 등
영국	7,638	?	영국박물관 등
러시아	5,633	?	모스크바국립중앙박물관 등
프랑스	3,600	?	국립기예박물관 등
캐나다	3,289	?	로얄온타리오박물관 등
대만	2,881	?	국립고궁박물관 등
네덜란드	1,737	?	라이덴국립민속박물관 등
오스트리아	1,511	?	빈민속박물관 등
덴마크	1,278	?	국립박물관
카자흐스탄	1,024	?	국립도서관
헝가리	341	?	웨렌츠호프동양미술박물관
바티칸	298	?	민족박물관
스위스	119	?	민족학박물관 등
벨기에	56	?	왕립예술역사박물관
스웨덴	51	?	동아시아박물관 등
호주	41	?	뉴사우스웨일즈박물관 등
이탈리아	17	?	국립동양예술박물관
합계	168,330	582	



해설	<p>2017년 12월 현재 문화재청이 파악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는 20개국에 168,330점이었다. 일본에 소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가 71,422점으로 전체의 42.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미국에 소장 중인 것으로 확인된 문화재가 46,404점으로 전체의 27.6%로 다음 순위로 많았다.</p> <p>국외소재 문화재의 대부분은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 국가적 혼란기에 유출된 것으로, 우리 정부는 여러 민간기구와 공조하여 국외문화재 조사, 국외문화재 관리 지원, 국외문화재 환수 등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p> <p>국외문화재 조사는 반출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출처조사’,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유통조사’, 현황과 가치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로 구분된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소재 문화재 :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말하며,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역사적·사회적 혼란기에 다양한 경로로 국외로 반출됨</li> <li>• 출처조사 : 2010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3년부터 국외소재 문화재단으로 조사업무가 이관되어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li> <li>• 유통조사 : Christie’s, Sotheby’s 등 외국 경매소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2014년에 국외소재문화재단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매년 약 총 20여 개국 300여 개 경매소의 우리 문화재 거래 현황(‘14년 2,732건/’15년 2,432건/’16년 2,823건/’17년 2,934건)을 파악하고 있음</li> <li>• 실태조사 : 1992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조사해 오다가 2013년부터는 국외소재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실시 중임. 2017년 12월 현재까지 총 11개국 70여 개 기관 73,526점을 조사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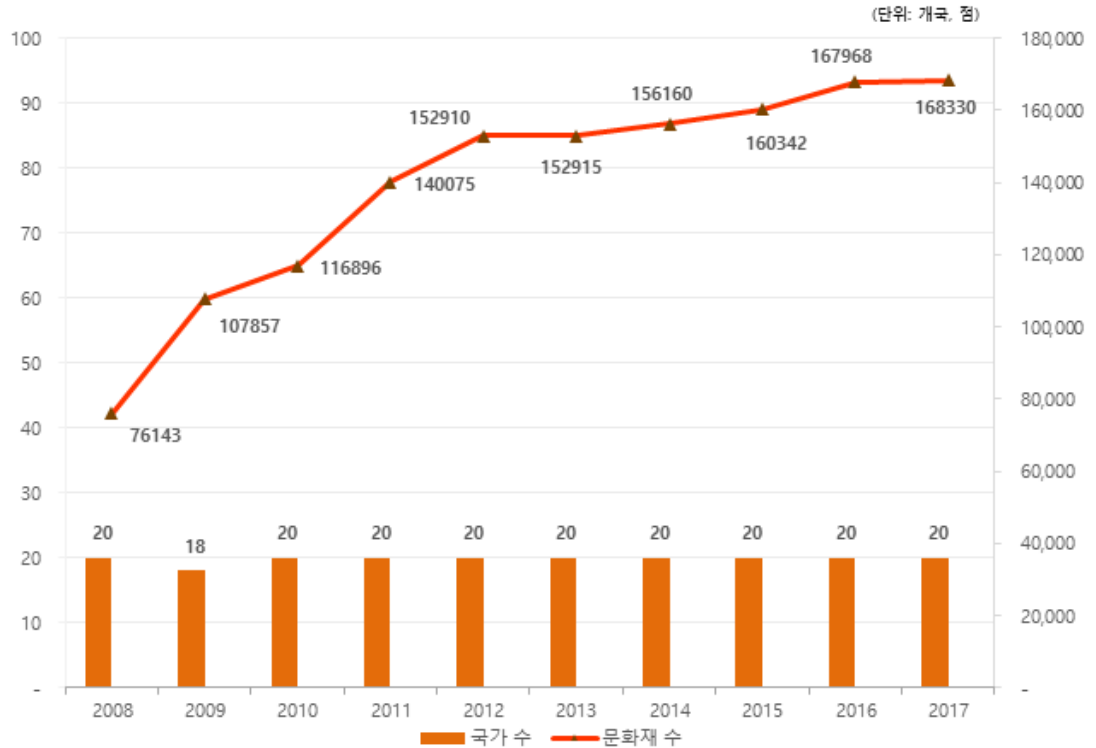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2-1-2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국외소재 문화재 연도별 파악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파악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소재 중인 우리 문화재 파악 현황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파악 변화 추이 (단위: 개국, 점, 개처)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가 수	20	18	20	20	20	20	20	20	20	20
문화재 수	76,143	107,857	116,896	140,075	152,910	152,915	156,160	160,342	167,968	168,330
소장처 수	?	?	?	?	?	579	579	582	582	582

[참고] 1. 위 현황은 현지조사 및 자료조사에서 확인한 것이며, 정밀조사 결과와 차이 있을 수 있음  
2. 2012년 이전 소장처 수는 공식자료에서 확인 불가

해설

지난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파악의 연평균 점수는 9,218.7건이었으며, 매년 큰 폭으로 확인 수량이 증가하였다.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조사는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며 국내 연구 및 국제교류기관, 국외 소장기관 등과 함께 파악해 오다가 2013년 이후부터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의 협업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다.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파악은 문화재 환수로 이어가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한데, 현황 파악 이후 각 소장처별 실태조사, 관리 지원, 도록 제작 및 전시 지원 등으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관리 방안을 다각화 하고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소재 문화재 :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말하며,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역사적·사회적 혼란기에 다양한 경로로 국외로 반출됨</li> <li>• 출처조사 : 2010년부터 문화재청 주관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2013년부터 국외소재 문화재재단으로 조사업무가 이관되어 주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li> <li>• 유통조사 : Christie's, Sotheby's 등 외국 경매소에 출품된 우리 문화재 현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2014년에 국외소재문화재재단 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매년 약 총 20여 개국 300여 개 경매소의 우리 문화재 거래 현황('14년 2,732건/'15년 2,432건/'16년 2,823건/'17년 2,934건)을 파악하고 있음</li> <li>• 실태조사 : 1992년부터 국립문화재연구소 주관으로 조사해 오다가 2013년부터는 국외소재문화재재단과 협업으로 실시 중임. 2017년 12월 현재까지 총 11개국 70여 개 기관 73,526점을 조사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연도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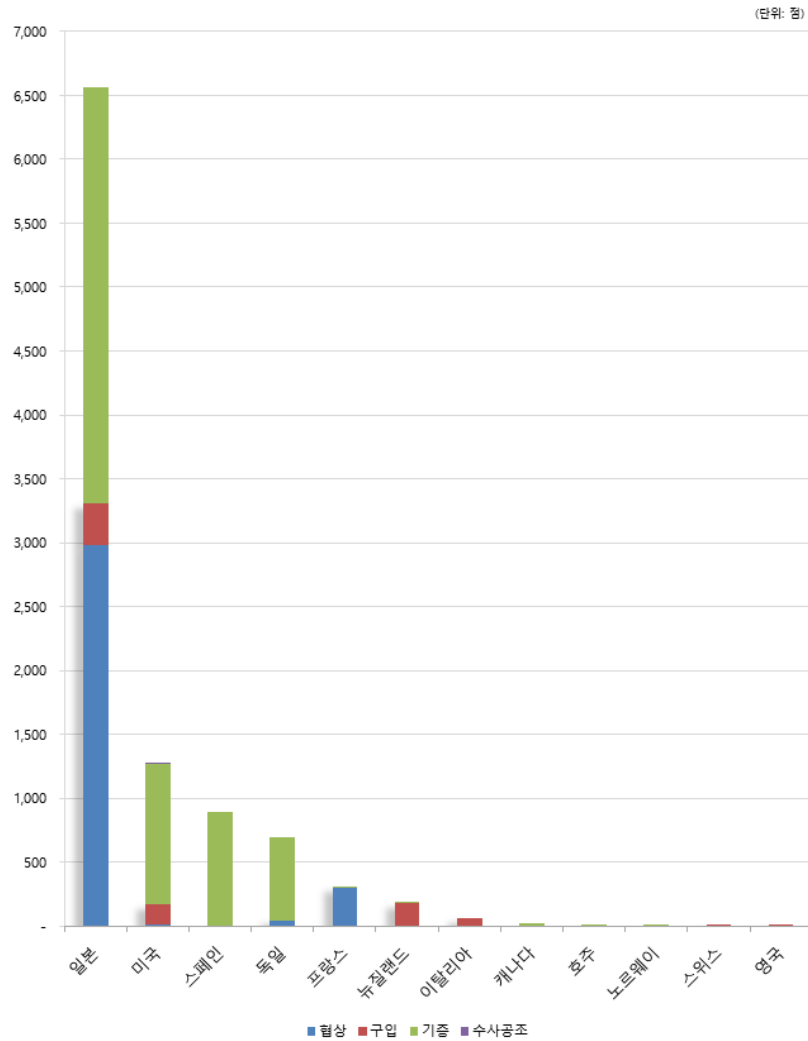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2-2-1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을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소재 중이던 우리 문화재의 국내 환수 현황을 환수방법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 (단위: 점)										
대상국	계	공공(정부기관, 지자체 등)					민간(개인, 사립박물관 등)			
		소계	협상	구입	기증	수사공조	소계	협상	구입	기증
일본	6,568	6,002	2,978	16	3,008		566		318	248
미국	1,283	1,098	8	165	912	13	185		1	184
스페인	892	892			892					
독일	696	673	16		657		23	21	2	
프랑스	303	302	297	2	3		1		1	
뉴질랜드	186	186		184	2					
이탈리아	59	59		59						
캐나다	20	20			20					
호주	1	1			1					
노르웨이	1	1			1					
스위스	3						3		3	
영국	10	1		1			9		9	
합계	10,022	9,235	3,299	427	5,496	13	787	21	334	432

해설	<p>2017년 12월 현재까지 국내로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는 12개국에서 총 10,022점이었다. 이 중 중앙 및 지방정부 등을 통한 공공영역의 환수는 9,235점, 개인 및 사립박물관 등을 통한 민간영역의 환수는 787점이었다.</p> <p>문화재 환수는 '정부 간 협상', '기증', '구입', '수사공조' 등의 방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2017년에 환수된 문화재는 3개국 24점(일본 5점, 미국 10점, 영국 9점)이며, 방법별로는 협상 2점, 수사공조 2점, 기증 8점, 구입 12점 등이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소재 문화재 :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말하며,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역사적·사회적 혼란기에 다양한 경로로 국외로 반출됨</li> <li>• 문화재 환수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국내 반환을 의미하며,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영역과 개인 및 사립박물관 등의 민간영역 2가지 통로로 전개됨. 환수는 '협상', '기증', '구입', '수사공조' 등 4가지 방법별로 추진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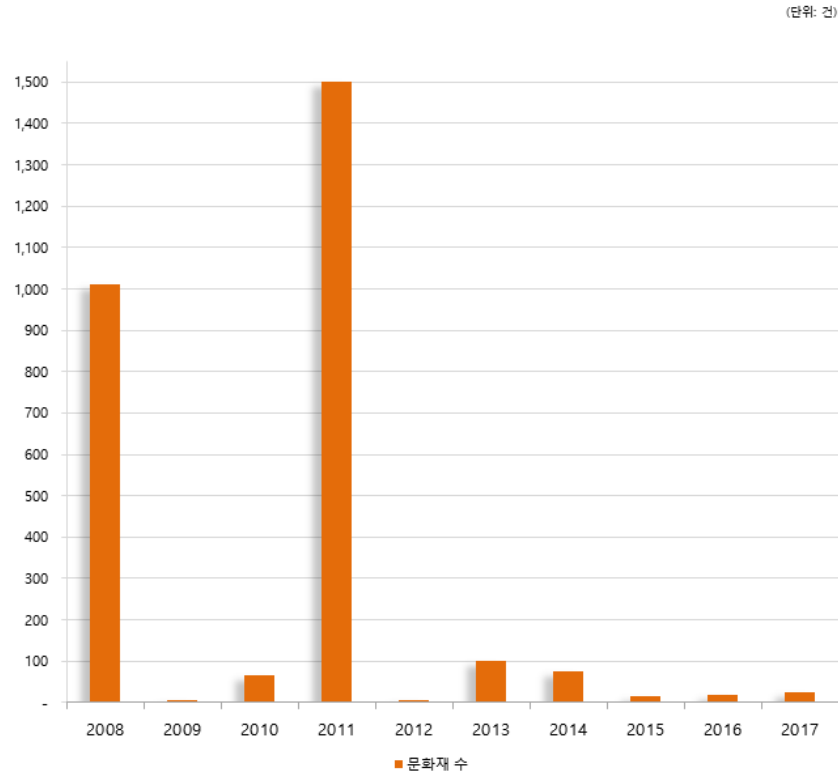
관리번호	가치 2-2-2-2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을 연도별로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소재 중이던 우리 문화재의 국내 환수 현황을 연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0년간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연도별 현황 추이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환수 국가 수	1	2	2	2	1	4	2	3	2	3
환수 문화재 수	1,012	5	67	1,502	5	100	77	14	18	24

해설

지난 10년간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 현황은 5개국에서 총 2,824점이었다. 환수 국가는 일본, 미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였으며, 그 중 일본이 2,230건 이상(공식 자료상으로는 2013년~2015년까지 환수 국가별 현황 파악 불가)으로 가장 많았다. 이 기간 중 연도별 환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이 1,502점으로 가장 많았는데 프랑스에서 외규장각도서 297책, 일본에서 의궤 등 조선왕조도서 1,205점이 환수되었다. 그 다음이 2008년 1,012점을 환수한 것인데 재일교포 하정웅 선생으로부터 영친왕비 관련 유품 684점, 일본인 아메미야 하로스케로부터 마제석검 등 328점이 환수되었다. 그 외 2013년 최초의 한미 공조를 통해 호조태환권 원판이 환수된 것, 연이어 2014년 또 다시 한미공조를 통해 대한제국 국새 등 인장 9점이 환수된 것이 주목할 만한 환수사례이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외소재 문화재 : 우리나라 외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를 말하며, 대부분 19세기 말부터 이어진 역사적·사회적 혼란기에 다양한 경로로 국외로 반출됨</li> <li>• 문화재 환수 :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국내 반환을 의미하며,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공영역과 개인 및 사립박물관 등의 민간영역 2가지 통로로 전개됨. 환수는 '협상', '기증', '구입', '수사공조' 등 4가지 방법별로 추진됨</li> </ul>
<p><b>출 처</b></p>	<p>1. 「문화재연감」(2009~2018)</p>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2-3-1	소관부서		국제협력과
지 표 명	국제 MOU 체결 국가별 · 지역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문화유산 분야 국제 MOU 체결 국가 및 지역별 현황			
지표의의	2000년 이후 문화유산 분야 MOU 체결 국가별 · 지역별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가 별 MOU 체결 추이 파악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국제 협력의 정책 방향 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제 MOU 체결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제협력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제 MOU 체결 결과(100%)
	조사 주관	국제협력과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제 MOU 현황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MOU 체결 국가별 현황(2000년 이후)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중국		1	1		2	2	1	2	2	3	1	3	4	4	4	1	3	6	40
일본			1	2	3	2	2		7	2	3	8	5	4	15	5	4	6	69
몽골					1		2		2				1			3	3	2	14
러시아	2	4	3	1	1	2	4	5	4	1	3	1	2		1	1			35
카자흐스탄														1	1		2	2	6
우즈베키스탄										2			1		1				4
필리핀												1							1
베트남							1	1		1		1	1	1		1	2	1	10
라오스							1					1		2					4
태국																	1	1	2
캄보디아														1				1	2
미얀마													1						1
스리랑카														1					1
호주										1	1			1					3
캐나다																	1	1	2
미국							1		3	2	4	3	4	6	3	1	1		28
멕시코												1							1
영국										1		2							3
프랑스						1			1					1	2			1	6
네덜란드													1						1
독일													3		1		2		6
오스트리아																		1	1
헝가리											1	1		1					3
이탈리아															1	1	2	1	5
그리스													1						1
키프로스																		1	1
포르투갈																	1		1
다자연합														1					1
국제기구												2	1				1	3	7
합계	2	5	5	3	7	7	12	8	19	13	13	24	25	24	29	13	23	27	259

[참고] 2000년 이전 MOU 체결은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동안 5건은 중국 2건, 일본 1건, 러시아 2건이었음. 2012년도 다자연합 MOU 체결 국가는 한국, 중국, 터키, 그리스 4개국임.

해설	<p>2000년 이후 국제 MOU를 체결한 국가를 살펴보면 일본 69건, 중국 40건, 러시아 35건 등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국가들과의 협약 건수가 전체의 74%를 차지할 정도로 활발하고 꾸준히 전개되었다. 그 이유는 극동아시아의 경우 인접 국가이기에 역사상 우리 민족의 이동에 의한 우리 문화 전파가 자연스럽게 이뤄진데다 전쟁이나 수탈 등에 의하여 반출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외의 아시아 지역의 경우 유럽이나 아메리카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사 문화유산을 갖고 있어 학술적·문화적 교류나 협력이 상호 긍정적 시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p> <p>지역별 MOU 체결 추이 중 유럽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다양한 국가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며, 아메리카의 경우 2006년부터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주로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역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과 관련이 깊다. 한편, 아직까지 아프리카 지역의 MOU는 체결된 바 없는데 그 이유 역시 문화유산의 특성 차이,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 현황과 관련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양해각서) : 원래는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요즘은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쓰이면서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li> </ul>
출처	<p>1. 국제협력과 내부자료 : MOU 체결 통계자료</p>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제 MOU 체결 연도별 추이</li> <li>• 주요지표 : 국제 MOU 체결 추진기관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소재 문화재 국가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외문화재 환수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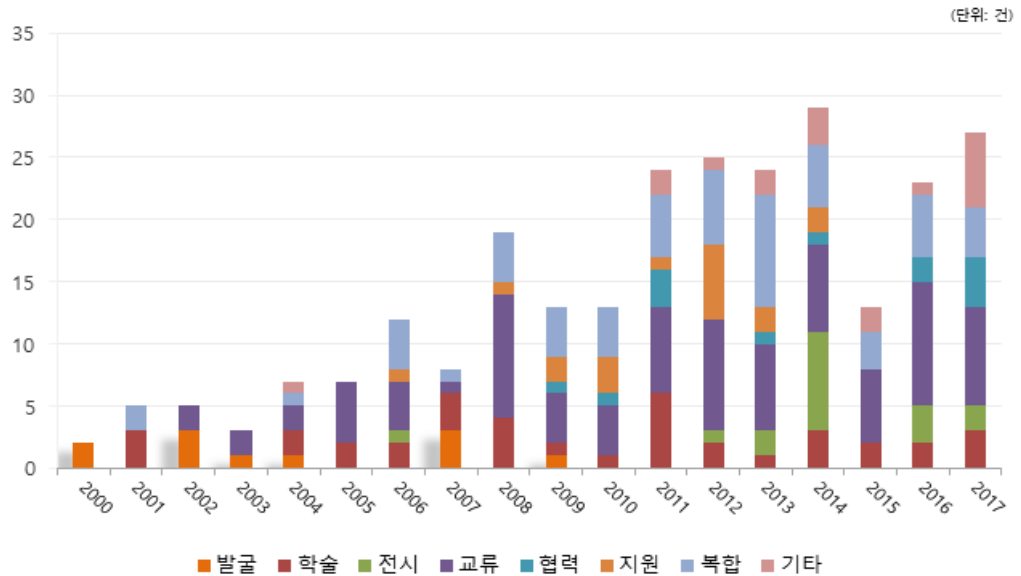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2-3-2	소관부서		국제협력과
지 표 명	국제 MOU 체결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문화유산 분야 국제 MOU 연도별 체결 현황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2000년 이후 문화유산 분야 국제 MOU 체결 현황을 연도별로 파악할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국제 협약의 정책적 방향과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제 MOU 체결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제협력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제 MOU 체결 결과(100%)		
	조사 주관	국제협력과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제 MOU 현황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제 MOU 체결 유형별 연도별 추이(2000년 이후) (단위: 건)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소계
발굴	2		3	1	1			3		1									11
학술		3			2	2	2	3	4	1	1	6	2	1	3	2	2	3	37
전시							1						1	2	8		3	2	17
교류			2	2	2	5	4	1	10	4	4	7	9	7	7	6	10	8	88
협력										1	1	3		1	1		2	4	13
지원							1		1	2	3	1	6	2	2				18
복합		2			1		4	1	4	4	4	5	6	9	5	3	5	4	57
기타					1							2	1	2	3	2	1	6	18
합계	2	5	5	3	7	7	12	8	19	13	13	24	25	24	29	13	23	27	259

[참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 2년 동안 체결한 5건의 MOU 체결 유형은 발굴 1건, 학술 1건, 교류 3건이었음

해설

2000년 이후 국제 MOU 체결 추이는 대체로 증가하는 양상이다. 문화유산 분야 MOU는 일반적으로 큰 틀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업무나 공통의 이해관계에 관련한 사안에 대한 합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협약의 성격과 내용을 토대로 유형을 나눈다면 ‘발굴’, ‘학술’, ‘전시’, ‘교류’, ‘협력’, ‘지원’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기타’로, 2가지 이상의 유형별 내용이 함께 규정된 경우를 ‘복합’으로 설정하여 지난 18년간의 추이를 정리하면 위의 표와 같다.

가장 일반적인 ‘교류’ 및 ‘학술’ 관련 협약이 전체의 48.3%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전시’, ‘지원’, ‘협력’ 등의 협약이 새롭게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협약 중에는 국외소재 문화재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 현황 파악과 함께 학술조사, 출판, 전시 등이 추진된 후 해당 문화재에 대한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지원이나 환수 또는 보존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협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적 성과를 반영하고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양해각서) : 원래는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요즘은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쓰이면서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li> <li>• 발굴에 관한 협약 :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학술에 관한 협약 : 학술조사, 학술연구, 유물조사 등 각종 학술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전시에 관한 협약 : 전시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담은 협약. 단, 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의 경우에는 기타 협약으로 분류</li> <li>• 교류에 관한 협약 : 학술교류, 인적교류, 자매결연 등 기초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상호 교류에 대한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협력에 관한 협약 : 특정 부문 또는 분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지원에 관한 협약 : 특정 부문 또는 분야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담은 협약. 특히,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협약</li> <li>• 복합적인 협약 : 발굴, 학술, 전시, 교류, 협력, 지원 등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담은 협약</li> <li>• 기타 협약 : 출판, 유물 대여, 합작사업 등 특수 목적에 대한 추진 사항을 담은 협약</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협력과 내부자료 : MOU 체결 통계자료</li> <li>2. 두산백과</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제 MOU 체결 국가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제 MOU 체결 추진기관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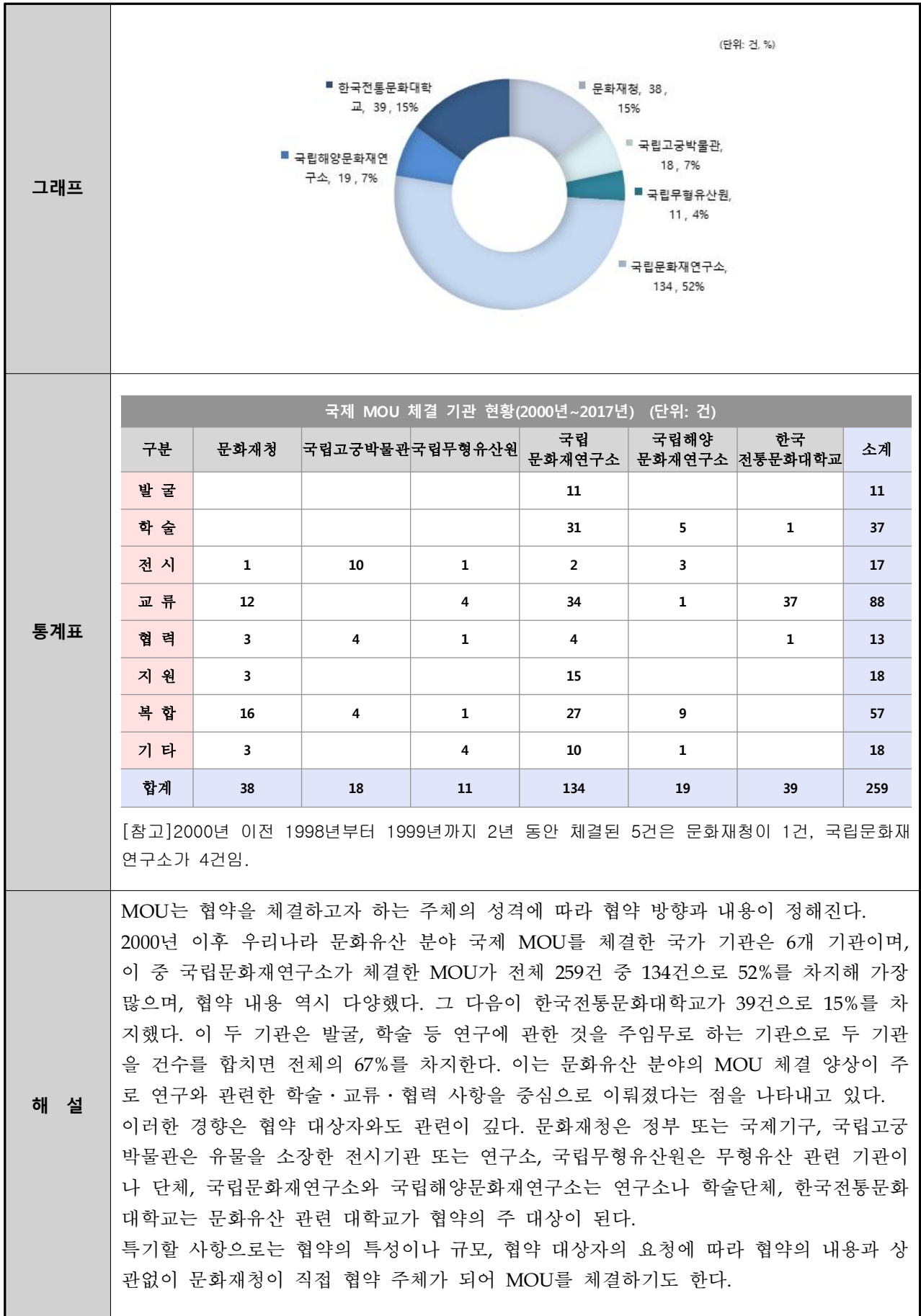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가치 2-2-3-3	소관부서		국제협력과
지 표 명	국제 MOU 체결 추진기관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국제 MOU 체결의 추진기관 현황			
지표의의	2000년 이후 국제 MOU 체결을 추진한 기관별 추진 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제 MOU 체결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제협력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제 MOU 체결 결과(100%)			
	조사 주관	국제협력과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제 MOU 현황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諒解覺書, 양해각서) : 원래는 당사국 사이의 외교교섭 결과에 따라 서로 양해된 사항을 확인·기록하거나, 본 조약·협정의 후속 조치를 목적으로 작성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지만, 조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요즘은 좀 더 포괄적 의미로 쓰이면서 국가 대 국가뿐 아니라 국가기관 사이, 일반기관 사이, 일반기업 사이 등에서도 다양한 문서의 형태로 협정이나 조약과는 상관없는 내용을 담는 경우도 있다.</li> <li>• 발굴에 관한 협약 : 발굴조사 및 연구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학술에 관한 협약 : 학술조사, 학술연구, 유물조사 등 각종 학술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전시에 관한 협약 : 전시 개최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사항을 담은 협약. 단, 전시를 위한 유물 대여의 경우에는 기타 협약으로 분류</li> <li>• 교류에 관한 협약 : 학술교류, 인적교류, 자매결연 등 기초적이고 일반적 수준의 상호 교류에 대한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협력에 관한 협약 : 특정 부문 또는 분야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담은 협약</li> <li>• 지원에 관한 협약 : 특정 부문 또는 분야에 대하여 지원 사항을 담은 협약. 특히,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협약</li> <li>• 복합적인 협약 : 발굴, 학술, 전시, 교류, 협력, 지원 등의 사항을 두 가지 이상 동시에 담은 협약</li> <li>• 기타 협약 : 출판, 유물 대여, 합작사업 등 특수 목적에 대한 추진 사항을 담은 협약</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협력과 내부자료 : MOU 체결 통계자료</li> <li>2. 두산백과</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제 MOU 체결 연도별 추이</li> <li>• 주요지표 : 국제 MOU 체결 국가별 현황</li> </ul>

## 4.2.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 4.2.1. 문화유산 보존 지표

#### ■ 대표지표

- 대표지표 정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기반, 발굴 및 지정,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종합적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전문기반과 행정기반, 문화재 발굴 현황, 국가지정 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연도별 변화 추이,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보존관리 및 육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보존전문기반

#####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명

■ 인원  
■ 중감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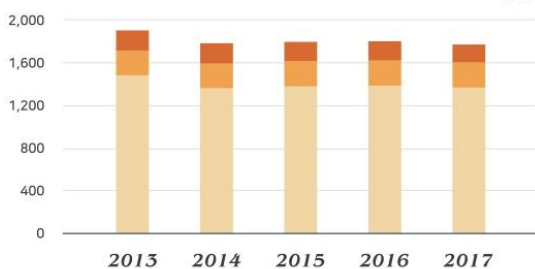
##### 위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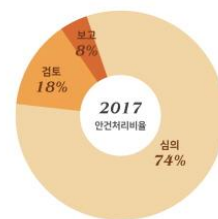
##### 안전처리

단위 : 건

■ 심의  
■ 검토  
■ 보고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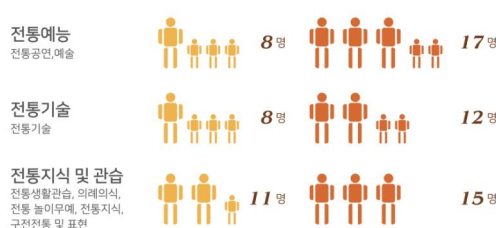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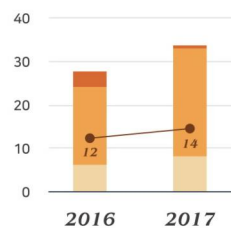
■ 위원  
■ 전문위원

##### 위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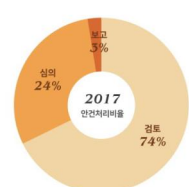


##### 안전처리

단위 : 회, 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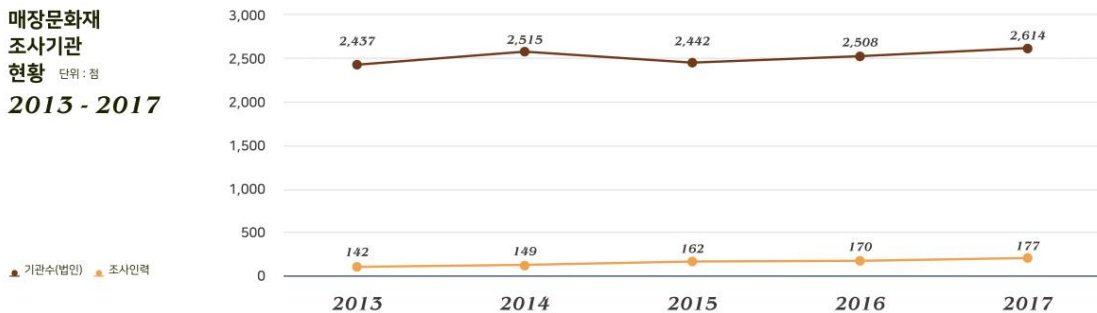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최상위 전문기반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8개 분과 8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7명 겸직), 문화재기본계획·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 반출 등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문화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그 외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를 위하여 총 176명의 문화재전문위원이 있으며, 2년이다. 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이전까지는 문화재위원회 내 무형문화재분과로 조직되어 있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지정 및 해제·국가지정문화재 지정 등의 사항을 조사·심의하며, 위원 26명, 전문위원 44명으로 구성된다. 임기는 2년이다.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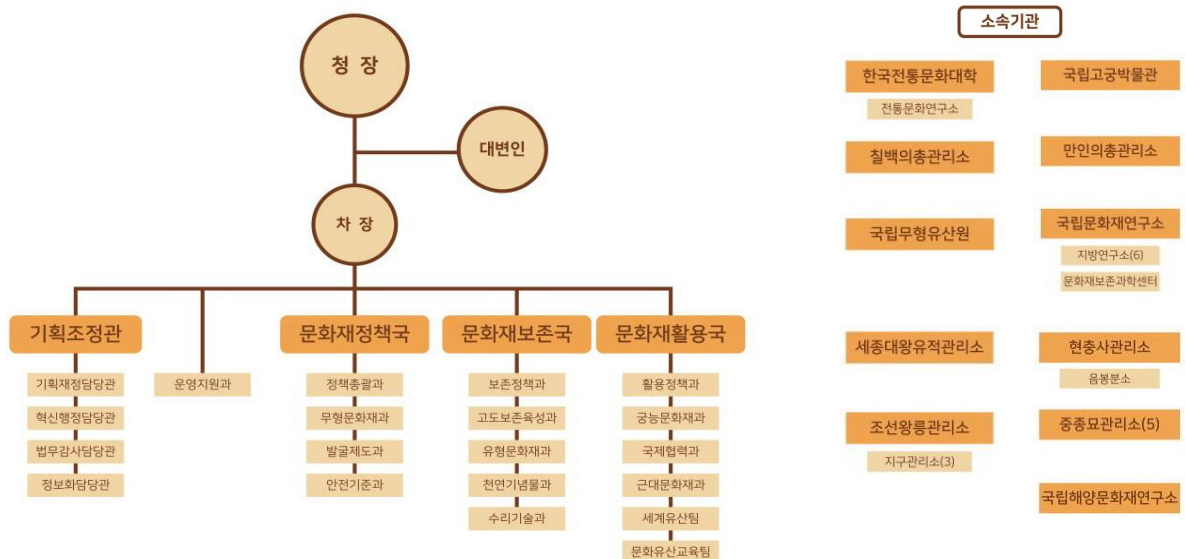
2013 - 2017



토지·해저·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매장문화재는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기술 및 학술의 전문성 외에도 적시성·공공성·책임성이 요구되는데, 그 중요성 때문에 2011년 2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에서 발굴전문법인의 설립·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수는 연평균 4.2개소씩 증가하였고, 조사인력 수는 56.8명씩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177개 기관이며, 조사인력은 2,614명이다. 이 중 106개 기관이 법인이며, 1,861명이 법인 소속 인력이다.

## 보존행정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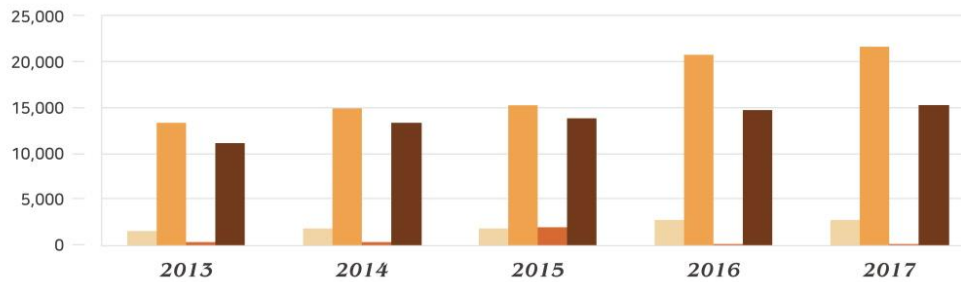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화유산 관련 행정을 총괄하는 문화재청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은 1961년부터인데,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1961년 문교부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었다. 1999년 5월 24일에는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4년 3월 24일 차관청으로 다시 승격되었다.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을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문화재청 조직은 1975년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을 신설한 이후 업무 내용과 전문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2018년 10월 현재 청장 및 차장을 중심으로 1관 3국 19과 2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6개의 소속기관이 있다. 2017년 12월 현재 문화재청 인력은 총 960명이며, 지난 10년간 문화재 정책의 고도화와 함께 문화재 행정을 전담할 전문인력도 연평균 17.5명씩 증가하였다.

문화재청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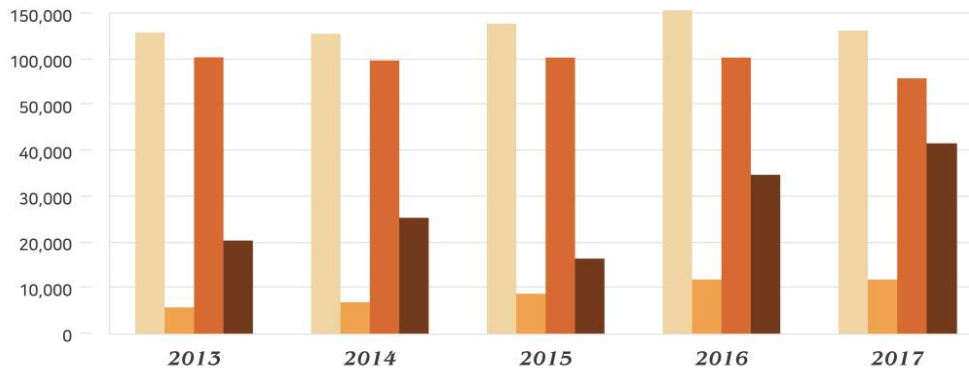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및용역판매  
수입대체경비



문화재청  
기금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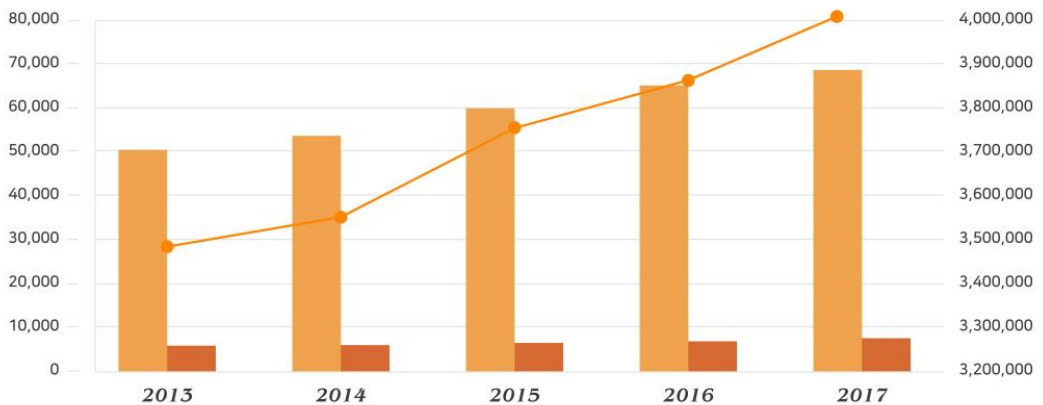
문화재보호기금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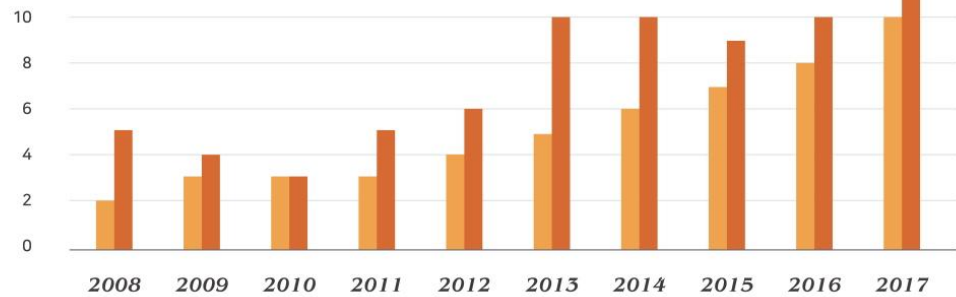
문화관광분야  
문화재청  
정부



문화재청 기구가 다양화되고 문화재 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문화재관리 자원 역시 규모가 성장하였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11.37%의 증가율을 보였다. 2017년 문화재청의 세입예산은 약 808억원이었고, 기금수입은 약 2,670억원으로 총 예산은 약 3,478억원이었다. 문화재청의 재정지출 규모 점유율을 정부 및 문화관광분야와 비교하면, 2017년도 기준 정부예산 대비 0.20%, 문화관광분야 예산 대비 11.4%에 위치하고 있다.

지자체 문화재  
전담 부서 수  
현황

■ 광역전담  
■ 기초전담

지자체 문화재  
전담 부서 인력  
현황

단위 : 명

■ 광역인력  
■ 기초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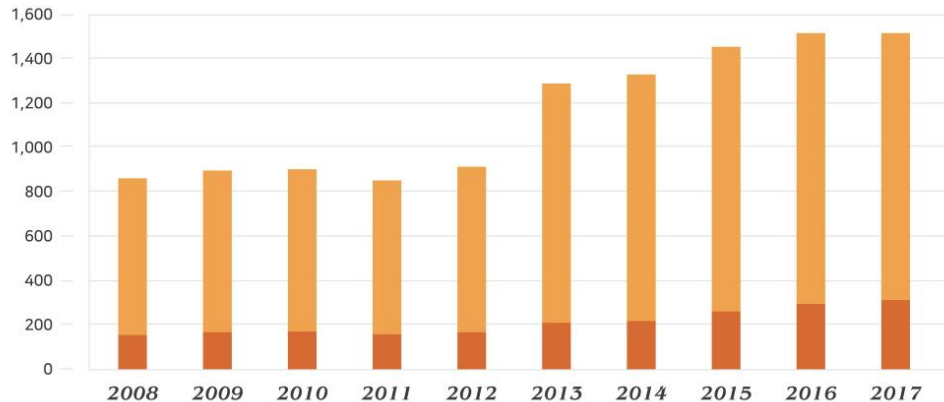
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며, 각각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장으로 하여 문화재 전담기구, 문화재관리 자원, 문화재위원회를 기반으로 문화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역단체의 전담부서 수는 연평균 0.8개 부서, 17.4명씩 증가하였고, 기초단체의 전담부서 수는 연평균 0.6개 부서, 9.5명씩 증가하였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개 전담조직에 230명의 인력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개 조직에 182명의 인력이 문화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조직 수의 현황을 파악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중 58.8%,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중 4.9%에 해당하는 문화재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단위 : 명

■ 광역단체  
■ 기초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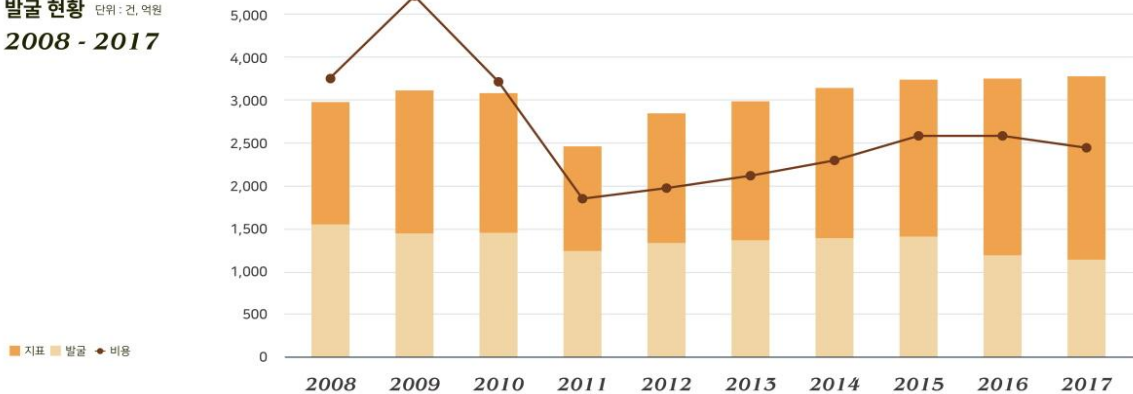
2017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인력 총원은 1,576명이었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은 총 330명으로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19.4명이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은 총 1,246명으로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5.5명이었다.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인력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업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행정·기술직 및 학예직(전문경력관 포함)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인력 대비 95.2%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학예직(전문경력관 포함)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인력 대비 14.2%,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2.4%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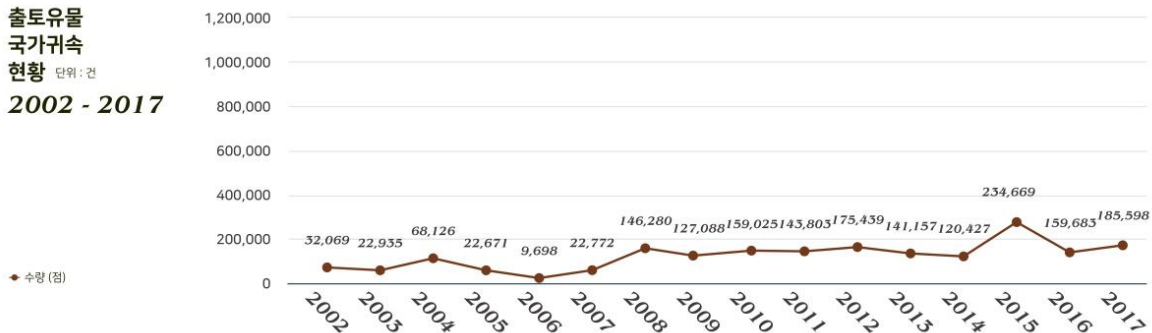
## 발굴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단위: 건, 억원  
2008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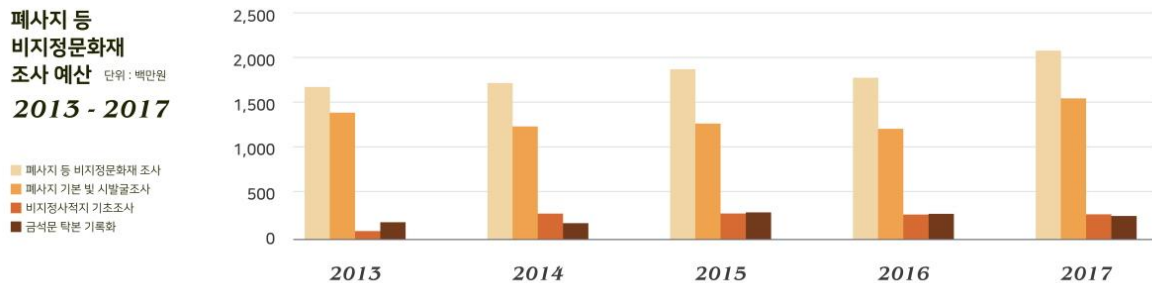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매년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지표조사·발굴조사를 허가 및 관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공업단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의 개발 사업이 증가하면서 발굴조사 건수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발굴 건수는 총 16,542건으로 매년 1,654건씩 추진되었고, 추진비용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매년 약 1천 2백억원씩 투입되었다. 지표조사 누적 건수가 6,351건(350억원 투입), 발굴조사 누적 건수가 10,191건(11,789억원 투입)이었다.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단위: 점  
2002 - 2017



2017년 12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 현황은 총 1,837,288점이다. 참고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국가귀속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2002~2012년까지의 국가귀속 현황 점수에 자료별 오차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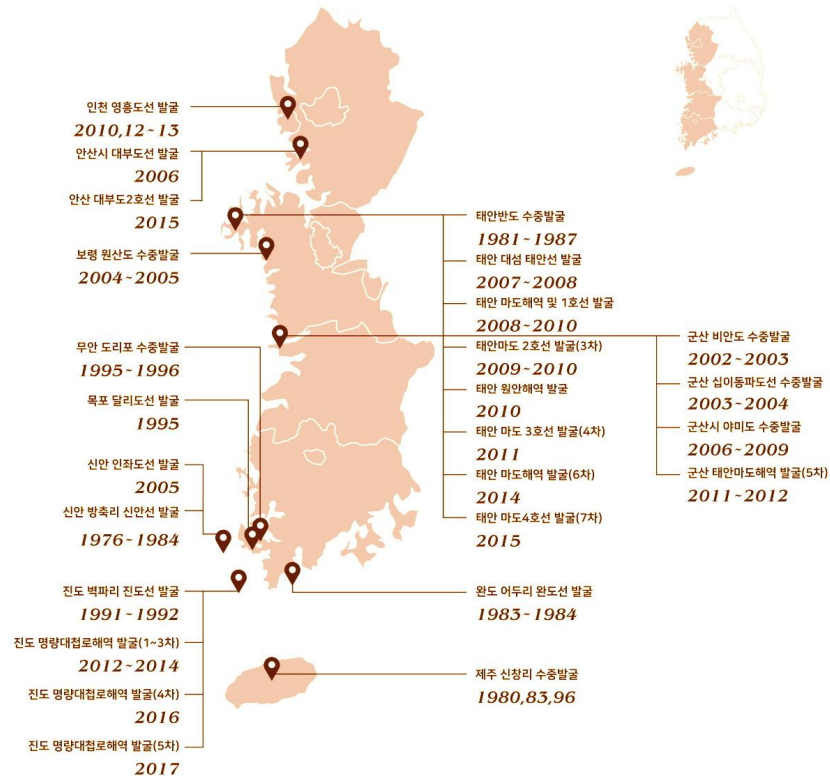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예산 단위: 백만원  
2013 - 2017



2017년도 폐사지 등 조사 예산은 약 42억 3천만원이었다. 이 중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비용으로 약 21억원, 폐사지 보존·관리·활용 비용으로 약 15억 8천만원,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비용으로 약 2억 8천만원, 금석문 탁본 기록화 비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투입하였다.

2017년 12월 현재 전체 5,393개소 중 조사가 완료된 곳이 3,159개소, 미완료된 곳이 2,234개소로 폐사지 조사 완료율은 약 59%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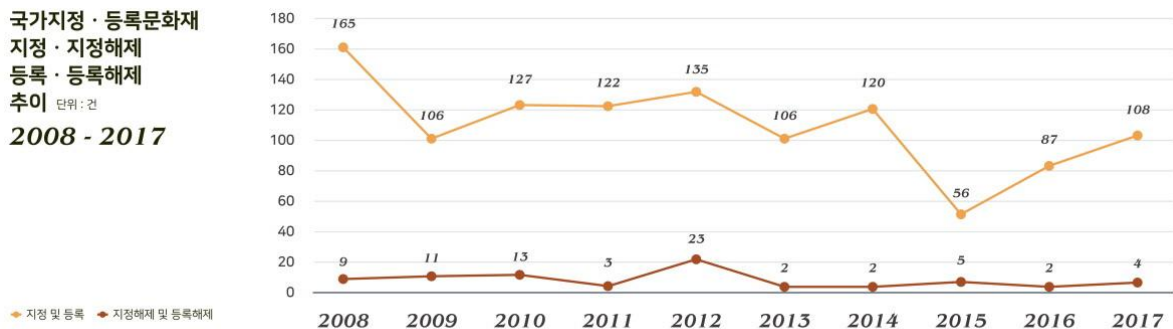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우리의 해양문화 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역사를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수중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외에도 목재문화재를 비롯한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고선박(옛 침몰선)과 전통 선박 복원, 옛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기술 연구, 해양 유적지와 유물 조사·연구, 섬문화 조사·연구 등이 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현재까지 진행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약 25건이며, 선박, 고려 청자, 백자, 총통 등의 유물을 발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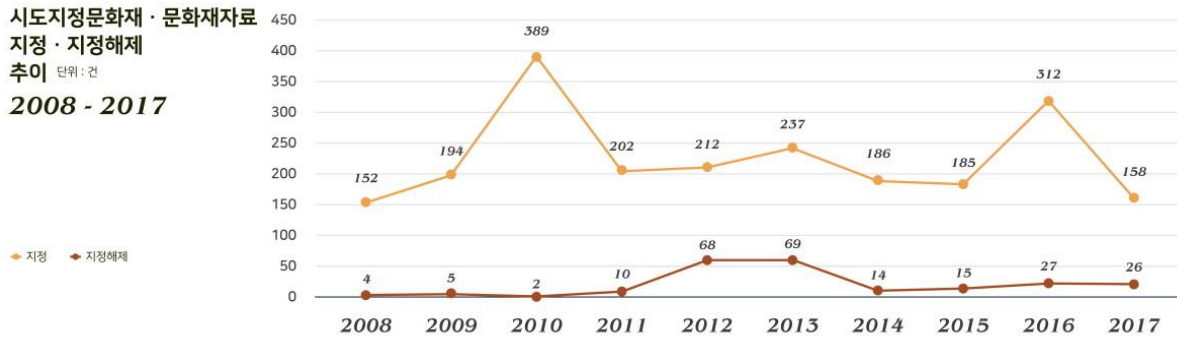
## 지정 및 등록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등록·등록해제  
추이 단위:건  
2008 - 2017



지난 10년간 새롭게 추가된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1,132건이었으며,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된 국가문화재는 총 74건이었다. 이 기간 국가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추이는 평균 113.2건이었으며,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 추이는 평균 7.4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정 및 등록의 경우 보물이 10년간 총 514건(연평균 51.4건)으로 가장 많으며, 등록문화재가 10년간 총 366건(연평균 36.6건) 순이었다.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의 경우는 사적 총 39건(연평균 3.9건), 보물 총 19건(연평균 1.9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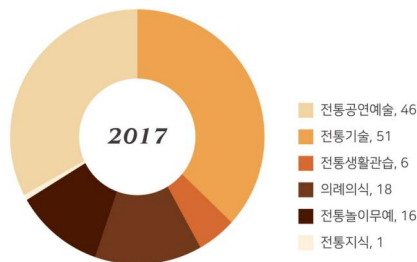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지정 · 지정해제  
 추이 단위: 건  
 2008 - 2017



지난 10년간 새롭게 추가된 시도문화재는 총 2,227건이었으며, 지정해제된 시도문화재는 총 240건이었다. 이 기간 시도문화재의 지정 추이는 평균 222.7건이었으며, 지정해제 추이는 평균 24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정의 경우 시도유형문화재가 10년간 총 924건(연평균 92.4건)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재자료가 10년간 총 622건(연평균 62.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정해제의 경우는 문화재자료가 총 75건(연평균 37.5건), 시도무형문화재가 총 54건(연평균 5.4건), 시도기념물이 총 49건(연평균 4.9건) 순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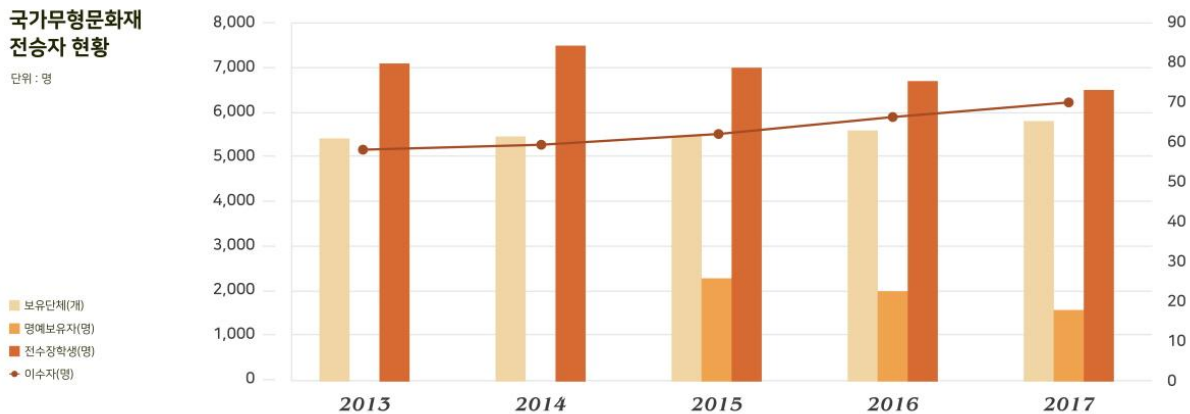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단위: 종목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단위: 명



2017년 12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종목은 126개 종목인데, 세부종목을 포함하면 138개가 된다. 138개 종목을 지정범주별로 살펴보면, 전통기술에서 51개 종목(37%), 전통공연·예술에서 46개 종목(33.3%), 의례·의식에서 18개 종목(%), 전통놀이·무예에서 16개 종목(%), 전통생활관습에서 6개 종목(%), 전통지식에서 1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구전전통 및 표현에서는 아직 지정된 종목이 없다. 최근의 지정 동향을 보면 아리랑(2015년 지정), 제다(2016년 지정),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이상 2017년 지정) 등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공동으로 보유해 온 무형문화유산의 발굴·지정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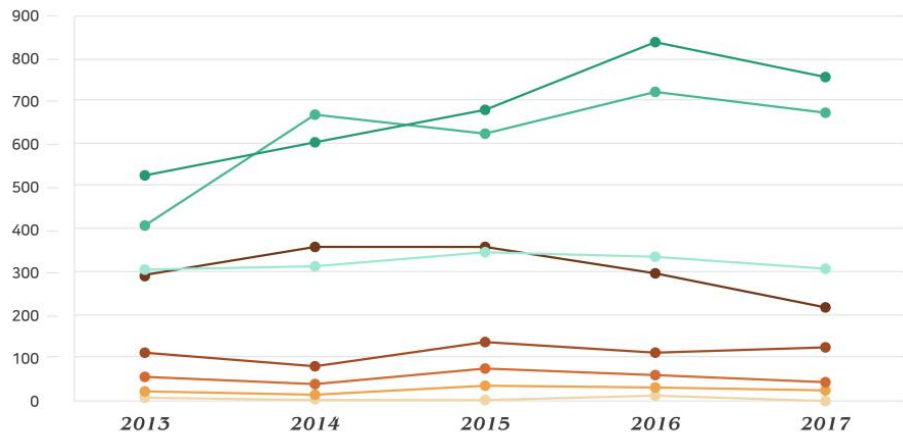
## 문화재 보존과 육성

국가 및 시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현상변경허가라고 한다. 문화재 현상변경은 주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국민의 사유재산 보호 및 과잉복원 예방 등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시행한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상변경 처리 건수는 총 10,728건이다. 문화재 관련 규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변경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행정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총 1,894건이 마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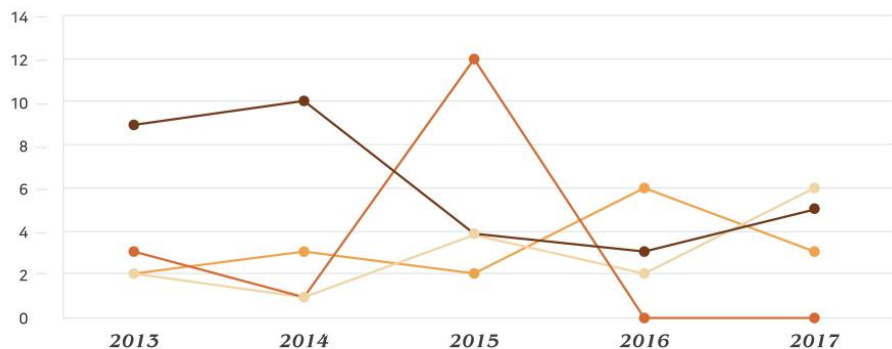
**현상변경  
처리 건수** 단위: 건  
**2013 - 2017**

◆ 사적분과(문화재구역)  
 ◆ 사적분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건축문화재분과(문화재구역)  
 ◆ 건축문화재분과(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 동산문화재분과  
 ◆ 천연기념물분과  
 ◆ 근대문화재분과  
 ◆ 민속문화재분과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현황** 단위: 건  
**2013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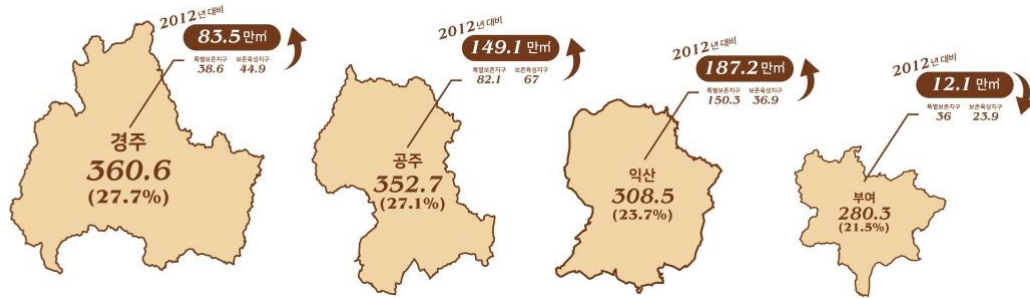
◆ 국보, 보물  
 ◆ 사적  
 ◆ 천연기념물, 명승  
 ◆ 국가민속문화재



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옛 도시를 말하며, 고도지구지정은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 한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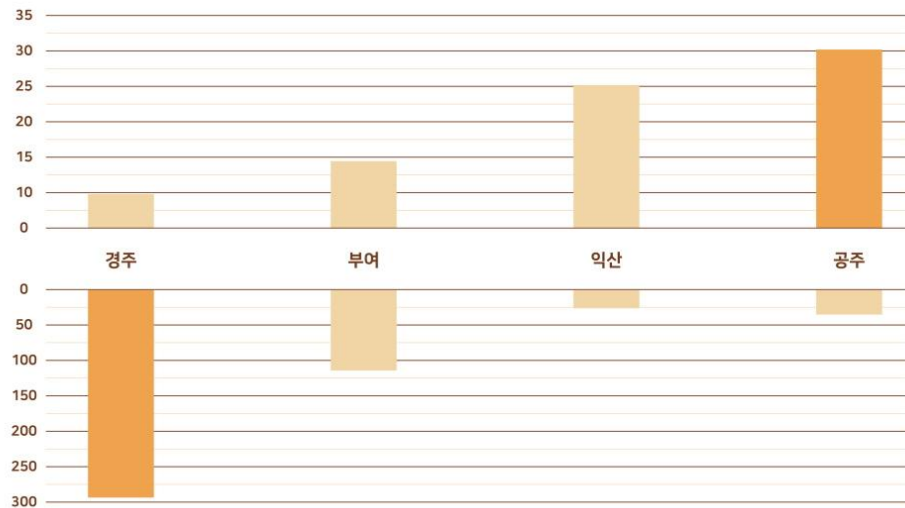
2017년 12월 현재 경주, 공주, 익산, 부여 네 곳이 지정돼 있다. 네 곳의 전체 지정 면적은 총 1,302만㎡이며,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은 경주(27.7%), 공주(27.1%), 익산(23.7%), 부여(21.5%)순이다. 전체 비율에서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비율은 60.5 : 39.5로 나뉜다.

고도지정지구  
총 면적 단위: 만㎡  
1,3020.1



2017년의 고도별 국비지원 예산현황은 총 465억 이며, 고도별 예산 현황은 경주가 289억(62.1%), 공주31억 (6.7%), 부여119억(25.6%), 익산26억(5.6%) 순으로 나타났다.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승인('12.3월) 이후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지원 실시되었으며, 2017년엔 전년대비 소폭 감소된 예산이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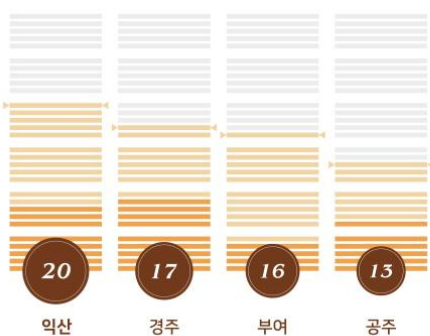
고도 보존 및  
육성 사업비 투입  
(국비기준)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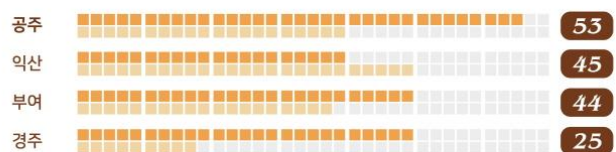
고도 지구별  
예산지원 현황  
(국비) 단위: 억원

4개 고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경주(월성 복원·정비 사업 등 17개), 부여(사비도성 원형 발굴·정비사업 등 16개), 익산(왕궁리 유적 고도골격 회복사업 등 20개), 공주(공산성 부근 발굴 및 정비사업 등 13개)순으로 총 6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도 보존  
육성 사업 건수 단위: 건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건수 단위: 건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보존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24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보존 지표의 24개 세부지표는 다음 24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3. 문화유산 보존 세부지표

#### 3.1. 보존기반

##### 3.1.1. 전문기반

- 3-1-1-1.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 3-1-1-2.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 3-1-1-3.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 3.1.2. 행정기반

- 3-1-2-1. 문화재청 조직 현황
- 3-1-2-2. 문화재청 인력 현황
- 3-1-2-3.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
- 3-1-2-4.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 3-1-2-5. 지자체 문화재 전담 인력 현황

#### 3.2. 발굴과 지정

##### 3.2.1. 발굴

- 3-2-1-1.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 3-2-1-2.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
- 3-2-1-3.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 3-2-1-4. 폐사지 조사 사업 현황
- 3-2-1-5.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 3.2.2. 국가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 3-2-2-1.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추이
- 3-2-2-2.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

##### 3.2.3. 시도문화재의 지정

- 3-2-3-1.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지정·지정해제 추이

#### 3.3. 문화재 보존

##### 3.3.1. 보존

- 3-3-1-1. 현상변경 처리 건수
- 3-3-1-2.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현황
- 3-3-1-3. 고도지구 지정 현황
- 3-3-1-4.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 3-3-1-5.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 3.3.2. 육성

- 3-3-2-1. 고도보존육성사업 현황
- 3-3-2-2.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
- 3-3-2-3.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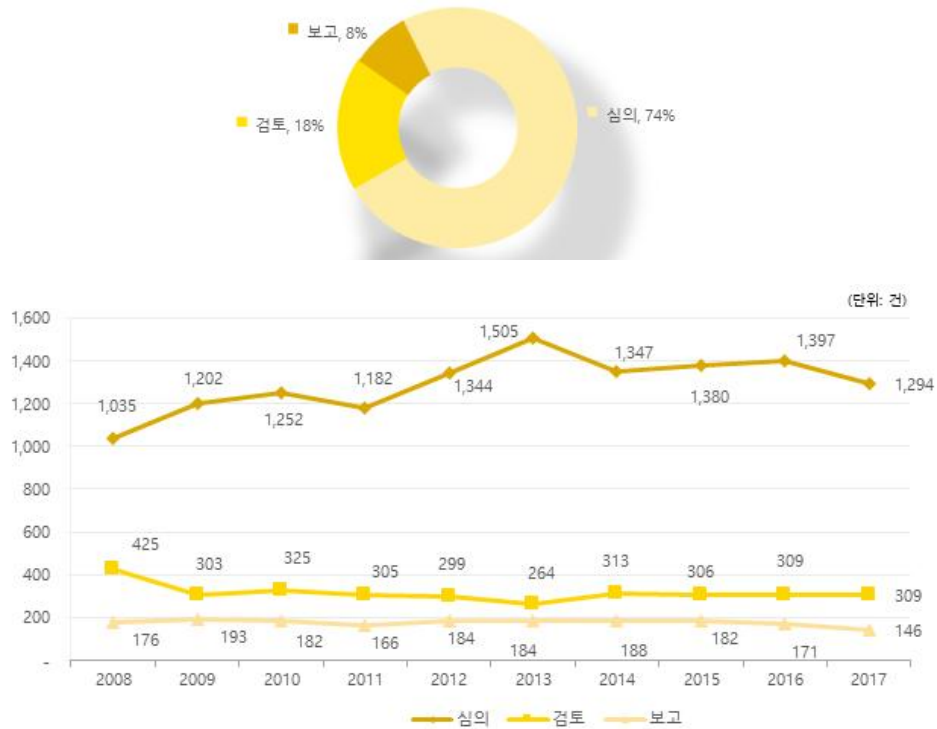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1-1-1	소관부서		정책총괄과
지 표 명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위원회 분과별 위원 구성 및 안전 처리현황			
지표의의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조직 구성, 주요 활동 및 지난 10년간의 안전처리 건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정책총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위원 구성 현황(임기: 2017.5.1.~2019.4.30.) (단위: 명)		
구분	인원	중감인원
건축문화재분과	10명	겸직 0명
동산문화재분과	13명	겸직 2명
사적분과	13명	겸직 2명
천연기념물분과	11명	겸직 0명
매장문화재분과	9명	겸직 0명
근대문화재분과	11명	겸직 1명
민속문화재분과	9명	겸직 1명
세계유산분과	8명	겸직 1명
계(8개 분과)	84명 (겸직 제외 시 77명)	겸직 7명

안전 처리 현황 (단위: 건, 천)						
구분	회의횟수(회)	안전처리				회의당 평균안전 처리수
		심의	검토	보고	계	
2008	98	1,035	425	176	1,636	16.7
2009	86	1,202	303	193	1,698	19.7
2010	85	1,252	325	182	1,759	20.7
2011	80	1,182	305	166	1,653	20.7
2012	82	1,344	299	184	1,827	17.4
2013	80	1,505	264	184	1,953	24.4
2014	85	1,347	313	188	1,848	21.7
2015	86	1,380	306	182	1,868	21.7
2016	85	1,397	309	171	1,877	22.1
2017	80	1,294	309	146	1,749	21.9



해설	<p>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두고 있다.</p> <p>문화재위원회는 8개 분과 8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7명 겸직 포함), 문화재기본계획,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및 국외 반출 등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문화재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p> <p>그 외 문화재위원회는 심의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를 위하여 문화재전문위원을 두고 있는데, 총 17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p> <p>문화재위원회의 주요 활동인 회의 횟수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84.7회였다. 10년간의 안건 처리 건수는 총 17,868건이며, 회의당 평균 안건처리 건수는 20.7건이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위원회 :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문화재청의 자문 사항에 관하여 조사·심의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위원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치]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설치</li> <li>[정원]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li> <li>[위촉권자] 문화재청장</li> <li>[임기] 2년 (연임가능)</li> <li>[자격]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혹은 이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인류학·사회학·건축·도시계획·관광·환경·법률·종교·언론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li> </ul> </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15.12.31)</li> <li>「2018 문화재연감」</li> <li>「문화재위원회 체계적 운영연구」 (2016년)</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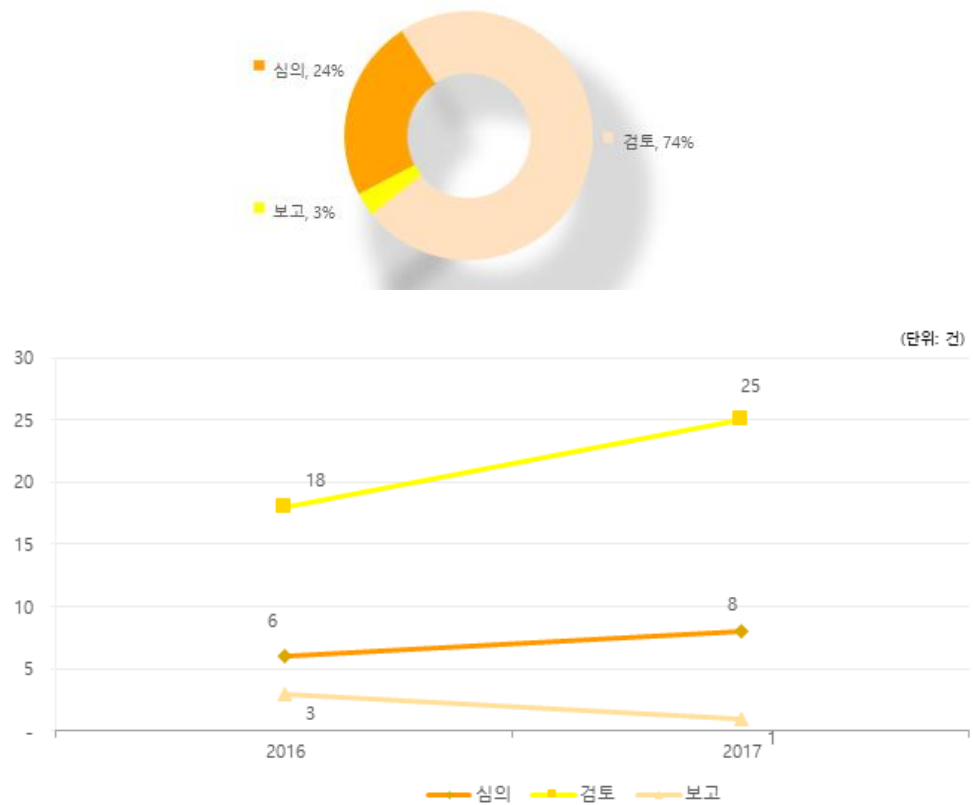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1-1-2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			
지표의의	2016년부터 새롭게 설치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조직 구성, 안건처리 건수 등 주요 활동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무형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위원 구성 현황(입기: 2016.5.1.~2018.4.30.) (단위: 명)			
구분	인원		담당 범주
	위원	전문위원	
전통예능 분야	8	17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분야	8	12	전통기술
전통지식 및 관습 분야	10	15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구전전통 및 표현
계	26	44	

안전 처리 현황 (단위: 건, 천)						
구분	회의횟수(회)	안전처리				회의당 평균안전 처리수
		심의	검토	보고	계	
2016	12	6	18	3	27	2.3
2017	14	8	25	1	34	2.4

해설	<p>2016년 3월 28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2016년 5월 1일 동법 제9조(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에 의거 무형문화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전까지 문화재위원회 내 무형문화재분과로 조직되어 있었으나, 새 법의 시행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위원 26명, 전문위원 4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p> <p>구체적 조사·심의 사항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국가무형문화재 및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및 해제·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의 인정 및 해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 등이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가운데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로 시·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와 구별됨.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li> <li>•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의미함. 문화재청장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li> <li>2. 전승자 발굴</li> <li>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li> <li>4. 무형문화재의 기록</li> </ol> </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7조, 제31조</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위원회 운영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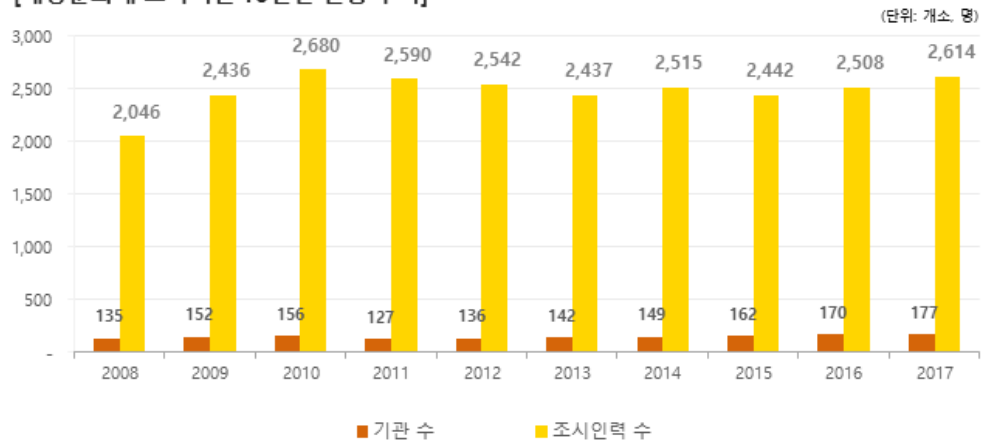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1-1-3	소관부서		발굴제도과
지 표 명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수와 조사인력 현황 변화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및 조사인력 수의 변화 추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중 법인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인 기관 및 인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매장문화재 기관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발굴제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 그래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10년간 현황 추이]



## 통계표

10년간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 추이 (단위: 개소,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기관 수 (법인)	135 (53)	152 (67)	156 (71)	127 (72)	136 (76)	142 (78)	149 (83)	162 (95)	170 (100)	177 (106)
조사인력 (법인 소속인력)	2,046 (1,226)	2,436 (1,630)	2,680 (1,943)	2,590 (2,011)	2,542 (1,912)	2,437 (1,820)	2,515 (1,849)	2,442 (1,782)	2,508 (1,814)	2,614 (1,861)

## 해설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적시성, 공공성,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매장문화재 발굴전문 조사기관 설립이 매년 강조되어 왔는데, 2011년 2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을 신설함으로써 발굴전문법인의 설립·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2017년에는 발굴전문법인이 추가로 8개 기관이 설립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은 177개 기관이며, 조사인력은 2,614명이다. 이 중 106개 기관이 법인이며, 1,861명이 법인 소속 인력이다.

지난 10년간 기관 수는 연평균 4.2개소씩 증가하였고, 조사인력 수는 56.8명씩 증가하였는데, 같은 기간 법인 수가 5.3개소씩, 법인 소속인력이 63.5명씩 증가한 것은 발굴전문 조사기관 설립과 인력 확충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인식할 수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문화재 : 비지정문화재로서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를 말하며 보통 발굴에 의해 드러남. 고고학에서는 매장문화재를 유적, 유구, 유물로 구분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매장문화재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li> </ol> </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li>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li> <li>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li> <li>주요지표 :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li> <li>보조지표 : 폐사지 조사사업 현황</li> <li>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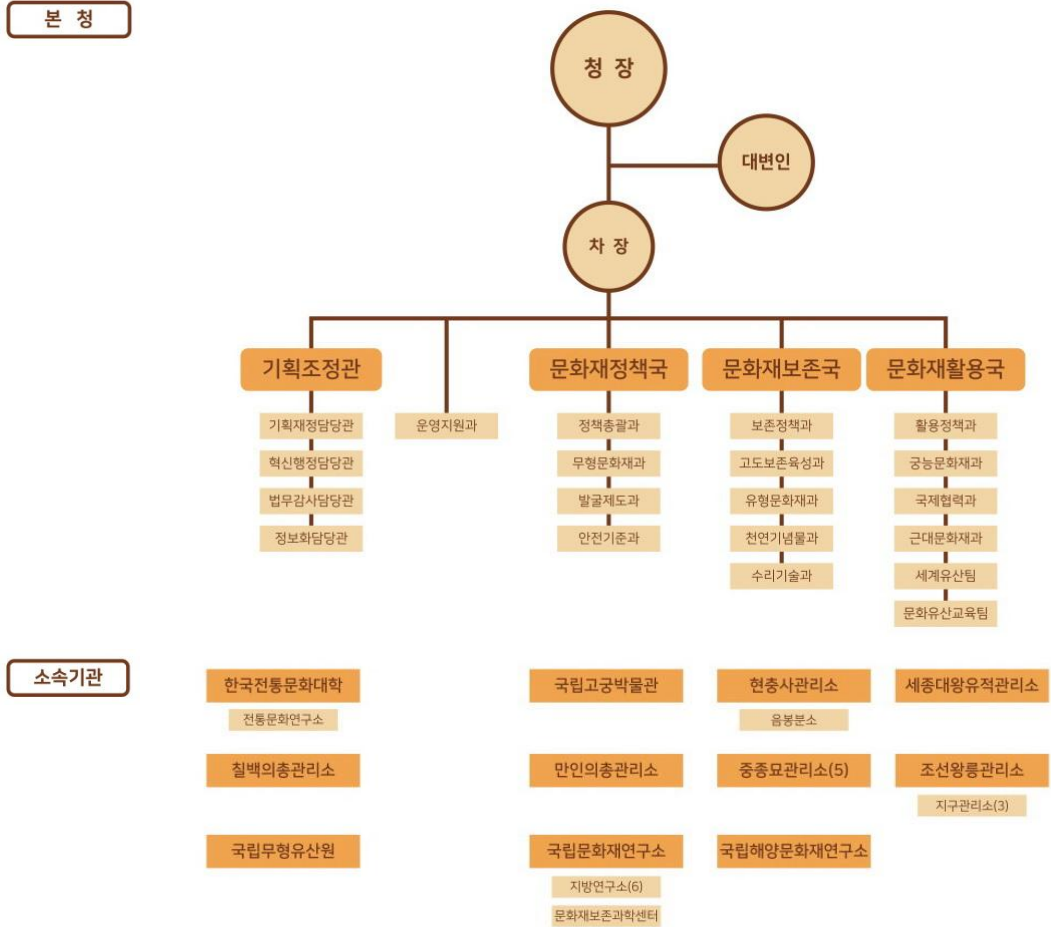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1-2-1	소관부서		정책총괄과
지 표 명	문화재청 조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1관 3국 19과 2팀(이상 본청) 26소속기관으로 구성된 문화재청의 기구 현황 및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속한 문화재관리 인력 정원의 5년간 증감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 문화재의 보존·관리·활용·조사·연구 및 선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문화재 청의 문화재관리 기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청 조직 및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정책총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청 조직 및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청 조직 현황 (단위: 명)		
구분		소관업무 개수
대변인		4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19
	혁신행정담당관	20
	법무감사담당관	14
	정보화담당관	20
운영지원과		10
문화재정책국	정책총괄과	18
	무형문화재과	23
	발굴제도과	21
	안전기준과	22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21
	고도보존육성과	16
	유형문화재과	19
	천연기념물과	17
	수리기술과	18
문화재활용국	활용정책과	11
	공능문화재과	19
	국제협력과	16
	근대문화재과	18
	세계유산팀	10
	문화유산교육팀	9

해설	<p>문화재청의 역사는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5년 11월 8일 일제의 이왕직 관제가 미군정기에 구왕궁(사무청)으로 명칭 변경(군정법률 제26호)한 후 1955년 6월 구황실재산 사무총국으로 개편된다.</p> <p>본격적인 문화재청 활동이 시작된 것은 1961년부터인데,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 시행에 맞춰 1961년 문교부의 외국으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되었고,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문화공보부 외국(1968년), 문화부 외국(1989년), 문화체육부 외국(1993년), 문화관광부 외국(1998년)으로 개편되었다가 1999년 5월 24일 문화재청으로 승격되었으며, 2004년 3월 24일 차관청으로 다시 한번 승격되었다.</p> <p>문화재청 내부 및 하위 조직은 1975년 문화재연구소 및 민속박물관을 신설한 이후 업무 내용과 전문성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해 왔다. 주요 변화로는 2009년 문화재 활용국이 설치되면서 그간 문화재 보존 및 관리에 집중하던 문화재 정책이 문화재 활용 영역으로 본격 확대된 것이며, 2011년 국외문화재팀(현 국제협력과, 세계유산팀 참조)이 신설되면서 국제교류 활동이 보다 본격화 된 것을 들 수 있다.</p> <p>1961년 문화재관리국 설치 이후 문화재청은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을 전문화·고도화하기 위하여 조직·인력·예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청장 및 차장을 중심으로 1관 3국 19과 2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26개의 소속기관이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왕직(李王職) : 1910년 대한제국의 몰락과 함께 대한제국황실(大韓帝國皇室)이 이왕가로 격하됨으로써 기존의 황실업무를 담당하던 궁내부(宮內府)를 계승하여 설치한 일제 강점기 이왕가(李王家)와 관련한 사무 일체를 담당하던 기구. 조선총독부가 아닌 일본의 궁내성(宮內省)에 소속이었음</li> <li>• 이왕직 관제 : 1910년 12월 30일에 발표된 ‘황실령(皇室令) 제34호’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가됨. 기존의 궁내부 업무는 자연히 이왕직으로 이관되면서, 이왕직이 업무를 개시하기 하루 전날인 1911년 1월 30일 구궁내부 소속 직원 340여 명은 모두 해직됨. 이왕직 관제에 의하면, 최고책임자로서 장관(長官) 1명, 차관(次官) 1명, 사무관(事務官) 36명, 찬시(贊侍) 12명, 전사(典祀) 8명, 전의(典醫) 6명, 기사(技師) 3명, 이외에 속(屬)·전사보(典祀補)·전의보(典醫補)·기수(技手)으로 구성되었는데 직원 수는 총 198명이었음. 이외에 조선 역대의 왕릉을 관장하는 참봉(參奉) 75명을 배속시킴</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li> <li>4. 한국민족문화대백과</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청 관리인력 현황</li> <li>• 주요지표 :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3-1-2-2	소관부서		정책총괄과
지 표 명	문화재청 인력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청 본청 및 소속기관에 속한 문화재 행정 인력 정원의 10년간 증감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청의 전문관리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청 조직 및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정책총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청 조직 및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p>관련용어</p>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3 문화재연감」</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청 조직 현황</li> <li>• 주요지표 :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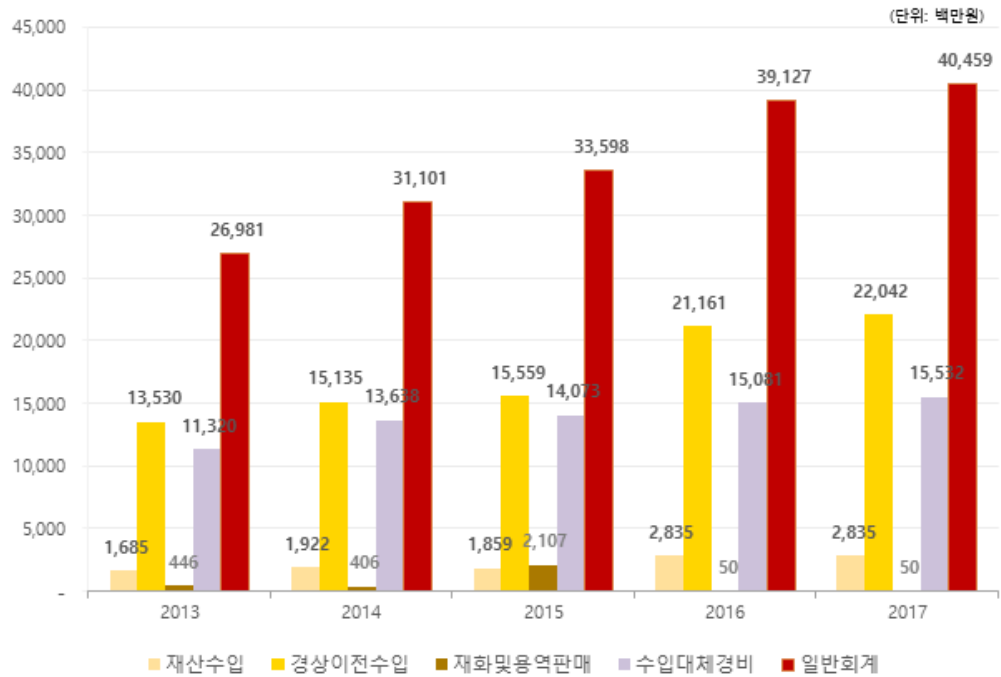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1-2-3	소관부서		기획재정담당관실
지 표 명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청의 세입예산과 기금수입에 대한 5년간 증감 현황 및 정부·문화관광분야의 재정지출 규모 대비 문화재청의 재정지출 규모의 점유율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청 세입예산 및 기금수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재 전반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기관으로서 정부, 문화관광분야의 재정지출 규모 대비 문화재청 재정지출 규모의 점유율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기획재정담당관실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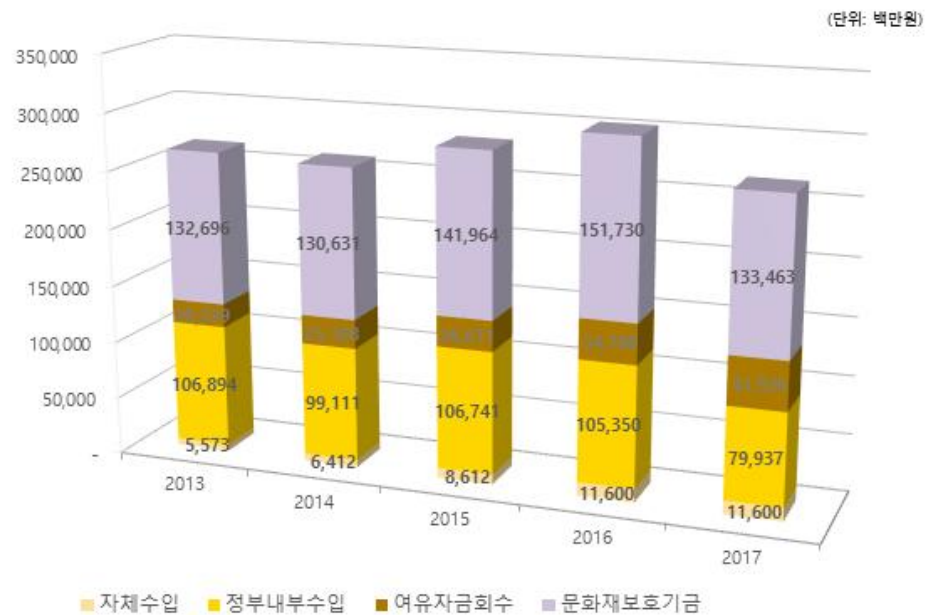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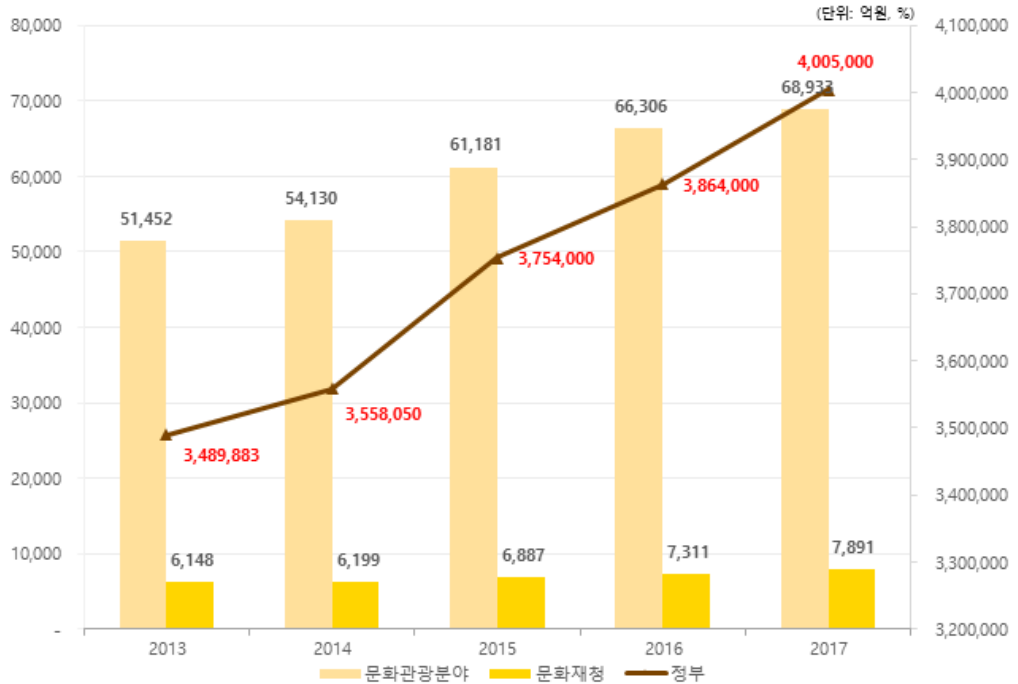
[문화재청 세입예산]



[문화재청 기금수입]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통계표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일반회계	26,981	31,101	33,598	39,127	40,459
재산수입	1,685	1,922	1,859	2,835	2,835
경상이전수입	13,530	15,135	15,559	21,161	22,042
재화및용역판매	446	406	2,107	50	50
수입대체경비	11,320	13,638	14,073	15,081	15,532

기금수입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문화재보호기금	132,696	130,631	141,964	151,730	133,463
자체수입	5,573	6,412	8,612	11,600	11,600
정부내부수입	106,894	99,111	106,741	105,350	79,937
여유자금회수	20,229	25,108	26,611	34,780	41,926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정부		문화관광분야			문화재청			
	재정지출규모	전년 대비	재정지출규모	전년 대비	점유율 (정부)	재정지출규모	전년 대비	점유율 (정부)	점유율 (문화)
2013 (추정)	3,489,883	7.2	51,452	12.4	1.47	6,148	10.2	0.17	11.9
2014	3,558,050	2.0	54,130	5.2	1.52	6,199	0.8	0.17	11.5
2015	3,754,000	5.5	61,181	13.0	1.63	6,887	11.1	0.18	11.3
2016	3,864,000	2.9	66,306	8.4	1.72	7,311	6.2	0.19	11.0
2017	4,005,000	3.6	68,933	4.0	1.72	7,891	7.9	0.20	11.4



해설	<p>문화재청 기구가 다양화되고 문화재관리업무가 전문화됨에 따라 문화재관리 재원 역시 규모가 성장하였는데, 일반회계의 경우 지난 5년간 해마다 평균 11.37%의 증가율을 보였다.</p> <p>2017년 문화재청의 세입예산은 약 808억원이었고, 기금수입은 약 2,670억원으로 총 예산은 약 3,478억원이었다.</p> <p>한편, 정부예산 및 문화관광분야 대비 문화재청의 재정지출 규모 점유율을 보면, 2017년도 기준 정부예산 대비 0.20%, 문화관광분야 예산 대비 11.4%에 위치하고 있다.</p>
관련용어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li> <li>• 보조지표 :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li> <li>• 보조지표 : 지역 문화재 지원사업 예산 현황</li> <li>• 보조지표 : 궁궐 활용프로그램 예산 지원 현황</li> <li>• 보조지표 : 생생문화재 사업 예산 지원 현황</li> <li>• 보조지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지원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야행 사업 예산 지원 현황</li> <li>• 보조지표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지원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1-2-4	소관부서		정책총괄과
지 표 명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지표의의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및 지난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정책총괄과 및 전국 지자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 그래프



## 통계표

지자체 문화재전담 조직현황 (단위: 개,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시	전담부서	2	3	3	3	4	5	6	7	8	10
	인력	56	82	81	61	77	128	130	145	165	230
	해당 지자체	서울, 경북	서울, 인천, 경북	서울, 인천, 경북	서울, 인천, 경북	서울, 인천, 경기 경북	서울(2), 인천, 경기, 경북	서울(2), 인천, 경기, 경북, 충남	서울(2), 인천, 경기, 경북, 충남, 전북	서울(2),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충남, 전북	서울(2), 인천, 대전, 경기(2), 전북, 충남, 경북, 제주
기초	전담부서	5	4	3	5	6	10	10	9	10	11
	인력	87	71	71	106	116	155	166	157	157	182
	해당 지자체	경주, 공주, 김해, 안동, 여주	경주, 공주, 김해, 여주	경주, 공주, 김해	경주, 부여, 익산, 공주, 김해	공주, 부여, 익산, 경주, 김해, 연천	서울 강동구, 수원(2), 공주, 익산, 경주(2), 김해, 부여, 연천	서울 강동구, 수원(2), 공주, 익산, 경주(2), 김해, 부여, 연천	서울 강동구, 수원(2), 공주, 익산, 경주(2), 김해, 부여	서울 강동구, 수원(2), 공주, 익산, 경주(2), 김해, 부여(2)	서울 강동구, 서울 송파구, 수원, 공주, 부여(2), 전주, 익산, 경주(2), 김해

해설	<p>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전담조직을 두어 해당 지역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p> <p>지난 10년간 광역단체의 전담부서 수는 연평균 0.8개 부서, 17.4명씩 증가하였고, 기초단체의 전담부서 수는 연평균 0.6개 부서, 9.5명씩 증가하였다.</p> <p>2017년 12월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개 전담조직에 230명의 인력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11개 조직에 182명의 인력이 문화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조직 수의 현황을 파악하면 광역자치단체는 전체 중 58.8%, 기초자치단체는 전체 중 4.9%에 해당하는 문화재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있다.</p>
관련용어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지자체 문화재 전담 인력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청 조직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청 인력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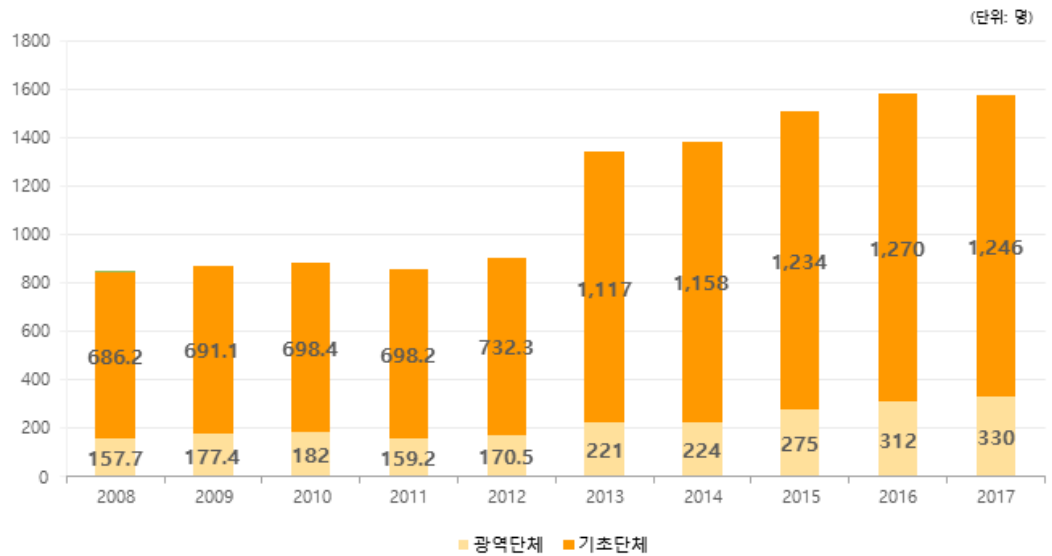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1-2-5	소관부서		정책총괄과
지 표 명	지자체 문화재 전담 인력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인력의 10년간 증감 현황 및 직군별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전담기구, 문화재관리 재원, 문화재위원회를 기반으로 문화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의 변동 및 직군별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자체 문화재 전담 인력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정책총괄과 및 전국 지자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지자체 문화재 전담 인력 현황(100%)	
	조사 주관	정책총괄과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지자체 문화재 관리인력 현황 (단위: 명)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광역단체 (17)	157.7	177.4	182	159.2	170.5	221	224	275	312	330
기초단체 (226)	686.2	691.1	698.4	698.2	732.3	1,117	1,158	1,234	1,270	1,246
계	843.9	868.5	880.4	857.4	902.8	1,338	1,382	1,509	1,582	1,576

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인력 직급별 현황 (단위: 명)								
구분		총계	행정	기술	학예	전문경력관 (별정)	전문 계약직	기타
2013년	광역	221	99	49	28	9	14	22
	기초	1,117	635	240	94	33	34	81
	합계	1,338	734	289	122	42	48	103
2014년	광역	224	109	48	40	6	1	20
	기초	1,158	676	256	115	11	20	80
	합계	1,382	785	304	155	17	21	100
2015년	광역	275	140	76	35	6	-	18
	기초	1,234	714	260	125	10	17	108
	합계	1,509	854	336	160	16	17	126
2016년	광역	312	141	94	42	5	-	30
	기초	1,270	721	281	131	10	15	112
	합계	1,582	862	375	173	15	15	142
2017년	광역	330	146	121	42	5	-	16
	기초	1,246	761	295	136	18	-	36
	합계	1,576	907	416	178	23	0	52

해설	<p>우리나라 문화재 관리 체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나누어지며, 각각 문화재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수장으로 하여 문화재 전담기구, 문화재관리 재원, 문화재위원회를 기반으로 문화재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인력 총원은 1,576명이었는데,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은 총 330명으로 광역자치단체별 평균 19.4명이었으며,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재 관리 인력은 총 1,246명으로 기초자치단체별 평균 5.5명이었다.</p> <p>지방자치단체 문화재관리 인력을 직군별로 살펴보면, 업무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행정·기술직 및 학예직(전문경력관 포함)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인력 대비 95.2%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97.0%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학예직(전문경력관 포함)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전체 인력 대비 14.2%,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12.4%이었다.</p>
관련용어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지자체 문화재 전담 조직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청 조직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청 인력 현황</li> <li>• 보조지표 : 문화재청 예산 및 기금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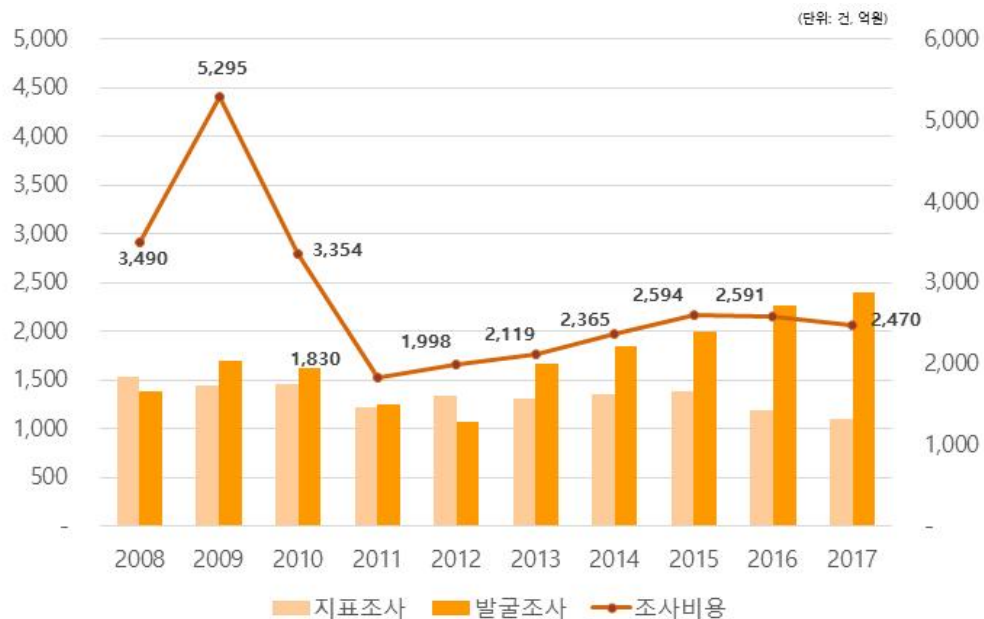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2-1-1	소관부서		발굴제도과
지 표 명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 매장문화재의 10년간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매장문화재 발굴 및 지원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발굴제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 (단위: 억원)						
연도별	지표조사		발굴조사		계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2008	1,534	181	1,382	3,309	2,916	3,490
2009	1,449	203	1,705	5,092	3,154	5,295
2010	1,464	136	1,627	3,218	3,091	3,354
2011	1,221	85	1,258	1,745	2,479	1,830
2012	1,348	79	1,510	1,919	2,858	1,998
2013	1,313	70	1,676	2,049	2,989	2,119
2014	1,349	63	1,851	2,302	3,200	2,365
2015	1,390	68	2,001	2,526	3,391	2,594
2016	1,196	82	2,266	2,509	3,462	2,591
2017	1,103	67	2,397	2,403	3,500	2,470
계	6,351	350	10,191	11,789	16,542	12,139

[참고] 발굴변경 허가 건수는 발굴조사 건수에 포함하여 계수함

해설

문화재청은 매년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허가 및 관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공업단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발굴조사 건수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매장문화재 발굴 건수는 총 16,542건으로 매년 1,654건씩 추진되었고, 추진 비용은 약 1조 2천억원으로 매년 약 1천 2백억원씩 투입되었다. 세부적으로는 지표조사 누적 건수가 6,351건(350억원 투입), 발굴조사 누적 건수가 10,191건(11,789억원 투입)이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문화재 : 비지정문화재로서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를 말하며 보통 발굴에 의해 드러남. 고고학에서는 매장문화재를 유적, 유구, 유물로 구분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매장문화재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li> </ol> </li> <li>지표조사 : 지표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지하에 있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조사행위. 세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된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음</li> <li>발굴조사 :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행위.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연구·유적 정비·멸실 및 훼손 우려 등의 상황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가능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li> <li>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li> <li>주요지표 :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li> <li>보조지표 : 폐사지 조사사업 현황</li> <li>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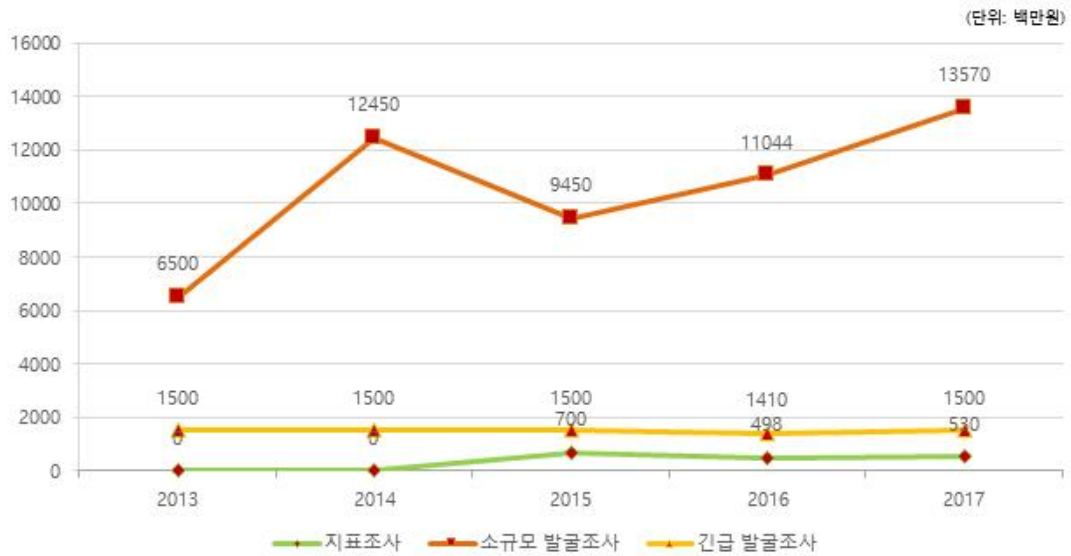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2-1-2	소관부서		발굴제도과
지 표 명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			
지표의의	지난 5년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발굴제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지표조사	소규모 발굴조사	긴급발굴조사	계
2013	-	6,500	1,500	8,000
2014	-	12,450	1,500	13,950
2015	700	9,450	1,500	11,650
2016	498	11,044	1,410	12,952
2017	530	13,570	1,500	15,600
계	1,728	53,014	7,410	62,152

해설

문화재청은 매년 각종 개발 사업으로부터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허가 및 관리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공업단지,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이 증가함에 따라 발굴조사 건수도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소규모 개발 사업에 대하여 조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매장문화재의 보존에 힘쓰고 있는데, 지난 5년간 이에 대한 조사비용은 총 621억 5천 2백만원이었다. 이 중 지표조사는 약 17억원, 소규모 발굴조사는 약 530억원, 긴급발굴조사는 약 74억원이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문화재 : 비지정문화재로서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를 말하며 보통 발굴에 의해 드러남. 고고학에서는 매장문화재를 유적, 유구, 유물로 구분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매장문화재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li> </ol> </li> <li>지표조사 : 지표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정보를 통해 지하에 있는 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 조사행위. 세밀한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된 유적의 성격을 알 수 있음</li> <li>발굴조사 : 매장문화재를 발굴하는 조사행위.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규정된 곳은 발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연구·유적 정비·멸실 및 훼손 우려 등의 상황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발굴 가능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li> <li>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li> <li>주요지표 :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li> <li>보조지표 : 폐사지 조사사업 현황</li> <li>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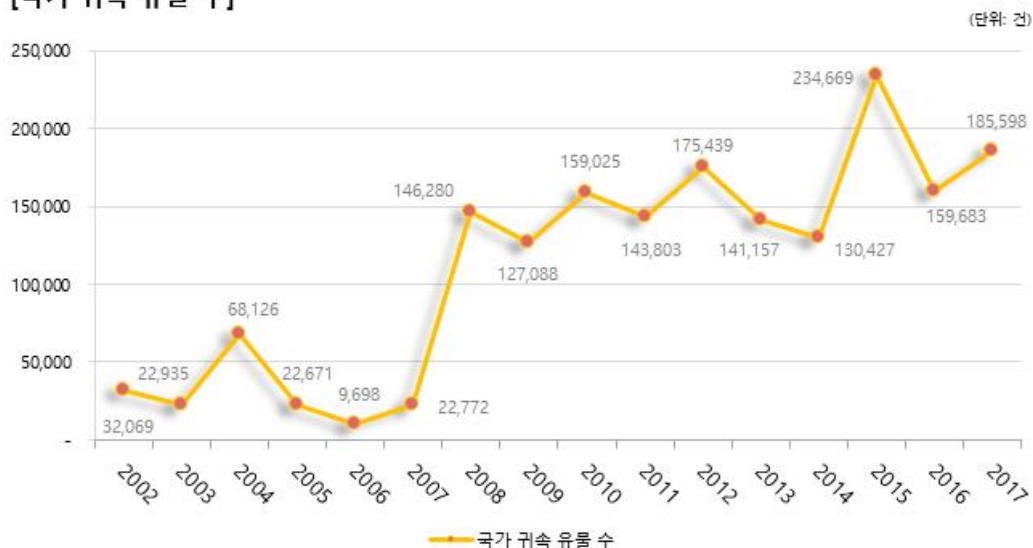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2-1-3	소관부서		발굴제도과
지 표 명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2002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에 의한 출토유물 국가기속 현황 추이			
지표의의	2002년 이후 매장문화재 발굴에 의해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 현황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발굴제도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국가 귀속 유물 수]



통계표

16년간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 추이 (단위: 점)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수량	32,069	22,935	68,126	22,671	9,698	22,772	146,280	127,088	159,025	143,803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수량	175,439	141,157	130,427	234,669	159,683	185,598				
합계	2002~2017년까지 16년간 총 1,837,288점									

[참고] 2002~2012년까지의 현황은 2012년 12월 31일자 「주요업무통계자료집」에서 해당 자료의 내용을 옮긴 것이며, 해당 기간 귀속 유물 수량은 총 929,906점임. 그러나, 2018년 12월 현재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및 담당과의 “주요업무통계” 자료에서는 2002~2012년까지 귀속 유물 수량은 총 958,754점으로 되어 있어 이에 근거해 합계를 기재하였기에 표 내용상 합계와 차이 있음(그래프의 경우 2002~2012년까지 연도별 정확한 수량을 확인할 수 없어 위 표 내용대로 입력해 제작함)

해설

2017년 12월 현재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의해 출토된 유물의 국가귀속 현황은 총 1,837,288점이다.

2002년부터 2017년까지 16년간 국가귀속 현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현장 및 통계 관리상의 오류로 인해 2002~2012년까지의 정확한 국가귀속 현황 점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단, 현재 관리 중인 최신 자료에 의하면, 2002~2012년까지 국가귀속 현황 총계가 958,754점으로 기록되어 있어 합계에서는 이를 반영해 표를 작성하였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장문화재 : 비지정문화재로서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된 문화재'를 말하며 보통 발굴에 의해 드러남. 고고학에서는 매장문화재를 유적, 유구, 유물로 구분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매장문화재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2. 건조물 등에 포장(包藏)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li> <li>3. 지표·지중·수중(바다·호수·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li> </ol> </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12.12.31.)</li> <li>3. “주요업무통계”(발굴제도와 내부자료)</li> <li>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li> <li>• 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li> <li>• 보조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li> <li>• 보조지표 : 폐사지 조사사업 현황</li> <li>• 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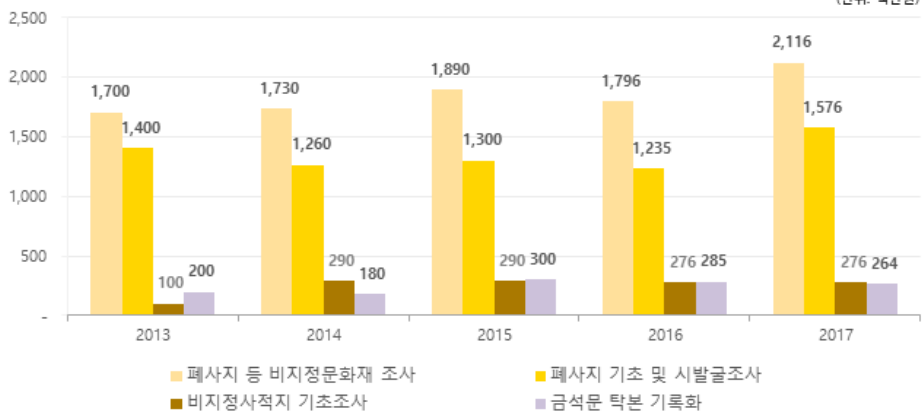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2-1-4	소관부서		보존정책과
지 표 명	폐사지 조사 사업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폐사지 발굴조사 출토 유물 수량, 예산 등에 대한 현황과 전국 5,393개소 폐사지 지역별 현황 및 조사에 대한 현황			
지표의의	사적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전국 5,393개소 폐사지의 지역별 현황 및 조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폐사지 조사 사업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보존정책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폐사지 조사 사업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비용]



통계표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예산(문화재보호기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	1,700	1,730	1,890	1,796	2,116
▪ 폐사지 보존·관리 및 활용	1,400	1,260	1,300	1,235	1,576
- 폐사지 기초조사	1,200	1,080	1,100	1,035	900
- 폐사지 시·발굴조사	200	180	200	200	676
▪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100	290	290	276	276
▪ 금석문 탁본 기록화	200	180	300	285	264

출토유물 현황 (단위: 점)

구분		도·토류	금속류	옥·석·유리	총수량
폐사지 발굴조사	경주 미탄사지 1차	82	23	5	110
	경주 미탄사지 2차	57	5	2	64
	보성 개흥사지 1차	41	1	-	42
	보성 개흥사지 2차	192	66	2	260
	삼척 홍천리사지 1차	110	17	2	129
	삼척 홍천리사지 2차	114	48	6	168
합계		596	160	17	773

폐사지 분포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서울·인천·경기	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	대전·충북·충남	제주
계	5,393	636	377	501	1,411	1,056	1,367	45
지정	소계	106	14	13	15	14	17	2
	국가	35	4	3	1	12	5	-
	시도	71	10	10	14	2	12	2
비지정	5,287	622	364	486	1,397	1,039	1,336	43

폐사지 조사 완료 현황 (단위: 개소)

완료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완료 폐사지	558	374	231	231	395

해설	<p>2017년도 폐사지 등 조사 예산은 약 42억 3천만원이었다. 이 중 폐사지 등 비지정문화재 조사비용으로 약 21억원, 폐사지 보존·관리·활용 비용으로 약 15억 8천만원, 비지정사적지 기초조사 비용으로 약 2억 8천만원, 금석문 탁본 기록화 비용으로 약 2억 6천만원을 투입하였다.</p> <p>사라진 옛 절터인 폐사지는 전국에 약 5,393개소가 있다. 이 중 대부분은 비지정문화재로 관리되고 있으나, 그 중요성이 인정되고 있어 국비를 지원하여 꾸준히 발굴조사 하고 있다. 폐사지의 보존상태 조사, 실측과 현황도면 작성, 분포유물 조사 등 현황 학술조사를 시행하여 폐사지에 관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p> <p>1481년에 편찬되고 1530년에 증보된 ‘신증국동국여지승람’, 1760년에 편찬된 ‘여지도서’, 1977년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유적총람’, 1990년말 ~ 2000년 문화유적 분포지도 등 수집 가능한 옛 문헌과 각종 연구 자료 등의 성과물을 반, 흩어져 있는 사지에 관한 각종 정보를 통계적으로 수집·정리(5,393건)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 서울·인천·경기지역(636건)</li> <li>- 2011년 광주, 전남, 제주, 부산지역(672건)</li> <li>- 2012년 구·경북지역(1,411건)</li> <li>- 2013년 강원·울산·경남·전북지역(1,307건)</li> <li>- 2014년 전·세종·충남·충북지역(1,367건)</li> <li>- 2015년 구·경북지역(231건)</li> <li>- 2016년 강원·전북지역(231건)</li> <li>- 2017년 전·세종·충남지역(395건)</li> </ul> <p>2017년 12월 현재 전체 5,393개소 중 조사가 완료된 곳이 3,159개소, 미완료된 곳이 2,234개소로 폐사지 조사 완료율은 약 59%이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폐사지(廢寺址) : 사라진 옛 절터를 뜻하며, 전국에 약 5,393개소의 폐사지가 있음</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li> <li>• 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li> <li>• 주요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li> <li>• 주요지표 :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li> <li>• 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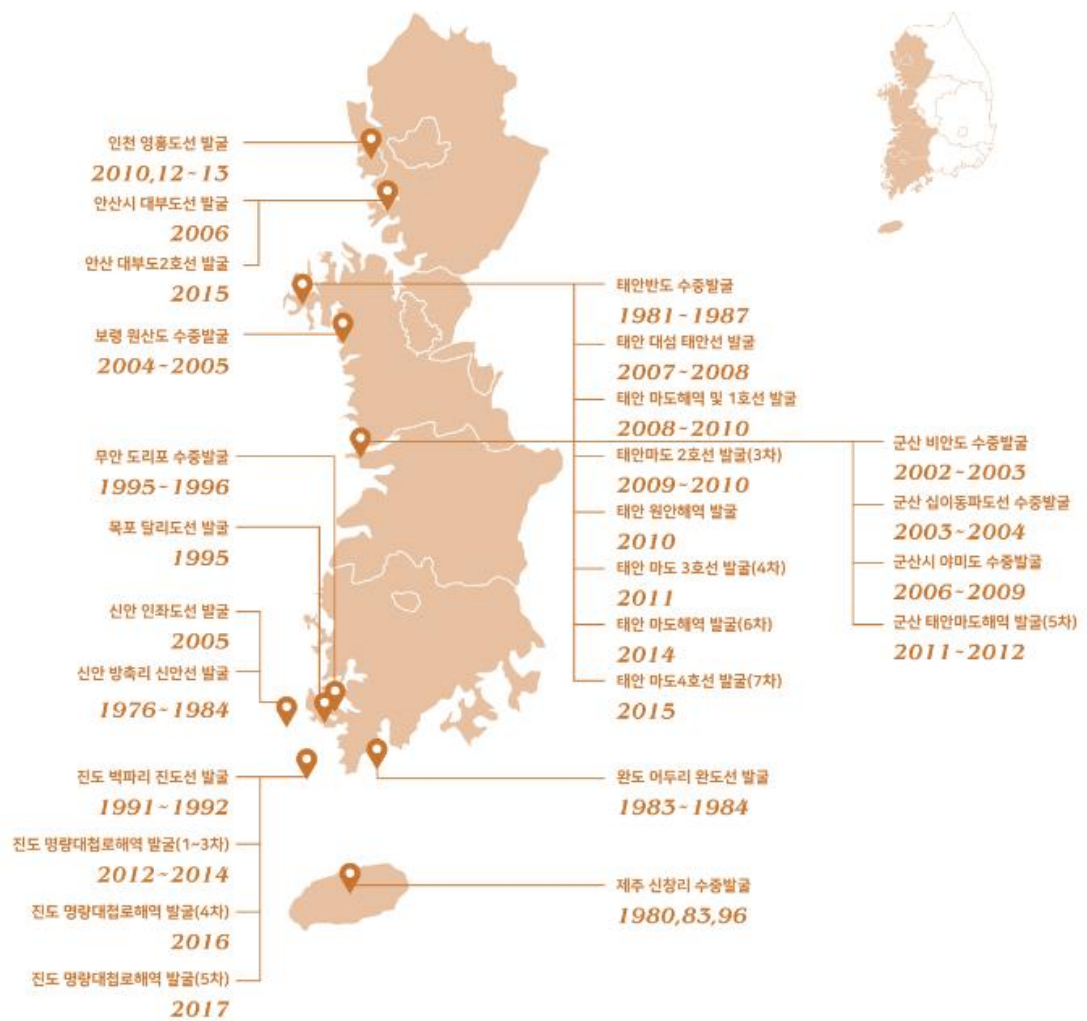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2-1-5	소관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지 표 명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발굴유적별 발굴연도, 기관, 유물성격 등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지표의의	1976년부터 현재까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시행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 통계표

수증문화재 발굴조사 현황				
연번	발굴연도	발굴유적	발굴기관	발굴문화재 성격
1	1976~1984	신안 방축리 신안선 발굴 (전남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문화재청, 해군합동	14세기 중국 무역선 1척, 동전 28톤, 도자기 등 23,000여점
2	1980, 1983, 1996	제주 신창리 수증발굴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신창리)	문화재청, 제주대학교박물관	12~13세기 금제장신구류, 중국 도자기 등 인양
3	1981~1987	태안반도 수증발굴 (충남 보령군 태안반도 근해)	문화재청, 해군합동	고려청자 40여점, 조선백자 등 14~17세기 유물 인양
4	1983~1984	완도 어두리 완도선 발굴 (전남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문화재청	12세기 고려 선박 1척, 도자기 3만여점, 선원생활용품 등
5	1991~1992	진도 벽파리 진도선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벽파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중국 통나무배 1척 출토
6	1995~1996	무안 도리포 수증발굴 (전남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4세기 고려상감청자 638점
7	1995	목포 달리도선 발굴 (전남 목포시 충무동 달리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14세기 고려 선박 1척
8	2002~2003	군산 비안도 수증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해군합동	12~13세기 고려청자 등 2,939점 인양
9	2003~2004	군산 십이동파도선 수증발굴 (전북 군산시 옥도면 십이동파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8,122점
10	2004~2005	보령 원산도 수증발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도)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3세기초 청자향로 편 등
11	2005	신안 안좌도선 발굴 (전남 신안군 안좌도 금산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4세기 고려시대 선박 1척, 고려상감청자 등 4점
12	2006~2009	군산시 야미도 수증발굴 (전북 군산시옥도면 야미도리)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고려청자 4,547점
13	2006	안산시 대부도선 발굴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해안)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13세기 선체 편
14	2007~2008	태안 대섬 태안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대섬 인근)	국립해양유물전시관	12세기 중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25,000여점
15	2008~2010	태안 마도해역 및 1호선 발굴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09.4.6 명칭변경)	13세기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40점
16	2009~2010	태안 마도 2호선 발굴(3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3세기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974점
17	2010	태안 원안해역 발굴 (충남 태안군 원안해수욕장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244점
18	2011	태안 마도 3호선 발굴(4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336점
19	2011~2012	태안 마도해역 발굴(5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667점
20	2010, 2012~2013	인천 영흥도선 발굴 (인천 옹진군 영흥면 섬업벌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선박 1척, 고려청자 등 723점
21	2012~2014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발굴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총통 등 614점
22	2014	태안 마도해역 발굴(6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백자 등 289점
23	2015	안산 대부도2호선 발굴 (안산 대부도 방어머리해수욕장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13세기 고려선박 1척, 고려청자 등 48점
24	2015	태안 마도4호선 발굴(7차) (충남 태안군 근흥면 마도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5~16세기 조선선박 1척, 분청 등 331점
25	2016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발굴(4차)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137점
26	2017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발굴(5차)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류리 인근)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고려청자 등 145점

해설	<p>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우리의 해양문화 뿐만 아니라 묻혀있던 역사를 발굴하고 발전시켜나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 <p>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수중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외에도 목재문화재를 비롯한 수중문화재의 과학적 보존과 분석, 고선박(옛 침몰선)과 전통 선박 복원, 옛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기술 연구, 해양 유적지와 유물 조사·연구, 섬문화 조사·연구 등이 있다.</p> <p>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현재까지 진행한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는 약 25건이며, 선박, 고려청자, 백자, 총통 등의 유물을 발굴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중문화재 : 수중문화재는 바다, 하천, 강, 호수 등 수중에 남겨진 인류의 흔적 중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말함. 침몰한 고선박, 선박에 실려 있던 선적물과 선상생활용품, 물 아래 잠긴 도시나 항구 등이 대표적인 수중문화재라 할 수 있음. 수중문화재는 물 속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육상 매장(埋藏)문화재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좀 더 생생한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018 문화재연감」</li> <li>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a href="http://www.seamuse.go.kr">http://www.seamuse.go.kr</a>)</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지표 : 매장문화재 발굴 현황</li> <li>보조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비용 지원 현황</li> <li>보조지표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현황</li> <li>보조지표 : 출토유물 국가귀속 현황</li> <li>보조지표 : 폐사지 조사사업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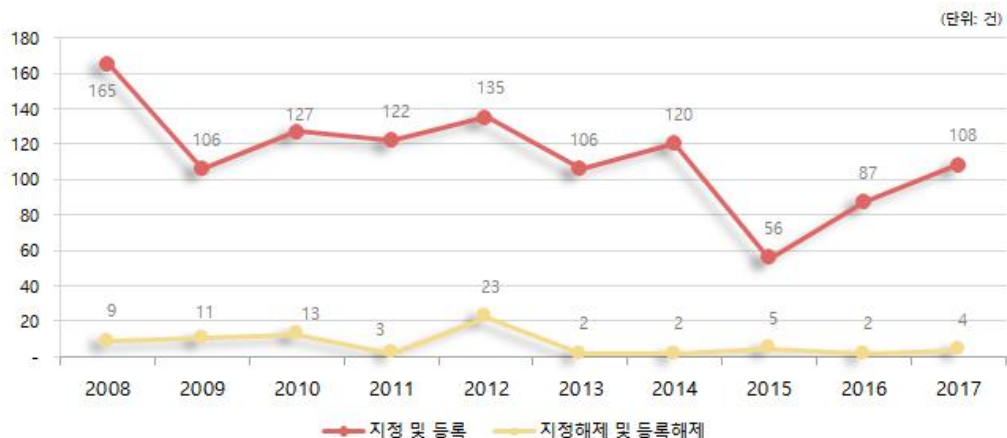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2-2-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추이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연도별 추가 지정 또는 지정해제, 추가 등록 또는 등록해제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각 연도별 지정 및 등록한 국가문화재, 국가가 지정하였으나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여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된 국가문화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무형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등록·등록해제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가지정 · 등록문화재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연도별 국가문화재 지정·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보	0	4	1	1	1	0	0	4	1	3
보물	68	23	100	65	57	17	42	36	58	48
사적	4	12	1	10	5	2	3	3	4	5
명승	21	16	5	10	7	17	3	0	0	1
천연기념물	10	17	3	15	7	6	1	1	1	1
국가무형문화재	1	0	1	0	2	3	1	2	1	3
국가민속문화재	1	4	1	2	5	2	6	2	5	4
등록문화재	60	30	15	19	51	59	64	8	17	43
합계	165	106	127	122	135	106	120	56	87	108

연도별 국가문화재 지정해제·등록해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보	0	0	1	0	0	0	0	0	0	0
보물	2	4	2	1	1	0	0	4	1	4
사적	0	5	10	2	22	1	0	0	0	0
명승	0	0	0	0	0	0	0	0	0	0
천연기념물	2	2	0	0	0	1	1	1	0	0
국가무형문화재	0	0	0	0	0	0	0	0	0	0
국가민속문화재	0	0	0	0	0	0	0	0	0	0
등록문화재	5	0	0	0	0	0	1	0	1	0
합계	9	11	13	3	23	2	2	5	2	4

해설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3조부터 제26조)

또한 지정된 문화재가 국가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31조)

지난 10년간 새롭게 추가된 국가지정·등록문화재는 총 1,132건이었으며,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된 국가문화재는 총 74건이었다. 이 기간 국가문화재의 지정 및 등록 추이는 평균 113.2건이었으며,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 추이는 평균 7.4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정 및 등록의 경우 보물이 10년간 총 514건(연평균 51.4건)으로 가장 많으며, 등록문화재가 10년간 총 366건(연평균 36.6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정해제 및 등록해제의 경우는 사적 총 39건(연평균 3.9건), 보물 총 19건(연평균 1.9건) 순이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시도문화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li> <li>• 지정해제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li> <li>• 등록 :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li> <li>• 등록해제(말소) : 문화재청장이 등록문화재에 대하여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하는 것. 또한 등록문화재가 지정문화재가 되면 그 등록 효력이 상실하는 것</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문화재연감」 (2009 ~ 2012)</li> <li>3. 「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7조, 제31조, 제53조, 제58조</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보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보물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명승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민속문화재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등록문화재 유형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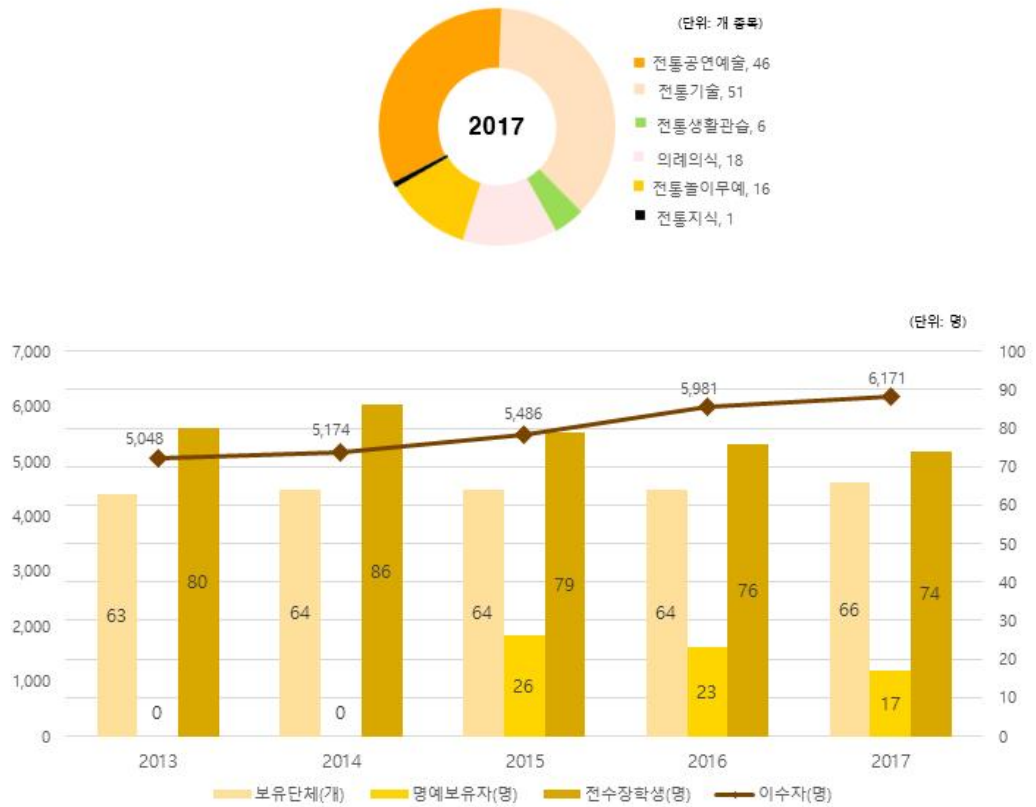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2-2-2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및 최근 5년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			
지표의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범주별 종목 현황 및 최근 5년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무형문화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현황 (단위: 개 종목)								
구분	전통공연·예술	전통기술	전통생활관습	의례·의식	전통놀이무예	전통지식	구전전통 및 표현	합계
종목 전승	1	-	2	-	1	1	-	5
개인 전승	13	50	3	-	1	-	-	67
단체 전승	32	1	1	18	14	-	-	66
합계	46	51	6	18	16	1	0	138

[참고] 종목 현황은 세부종목을 포함하여 계수

연도별 국가무형문화재 현황 (단위: 종목, 명, 개)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종목		131	132	134	135	138
전승자	보유자	175	172	174	173	170
	전수교육조교	286(1)	295(1)	296(1)	290(1)	286(1)
	이수자	5,048	5,174	5,486	5,981	6,171
	계	5,509(1)	5,641(1)	5,956(1)	6,444(1)	6,627(1)
	보유단체	63	64	64	64	66
명예보유자		36(1)	30(1)	26	23	17
전수장학생		80	86	79	76	74

[참고] ( ) 안의 수치는 2종목 이상 중복 인정 전승자(명예보유자) 수

해설	<p>무형문화재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국가적·민족적·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미가 큰 것을 말한다.</p> <p>2017년 12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종목은 126개 종목인데, 세부종목을 포함하면 138개가 된다. 138개 종목을 지정범주별로 살펴보면, 전통기술에서 51개 종목(37%), 전통 공연·예술에서 46개 종목(33.3%), 의례·의식에서 18개 종목(%), 전통놀이·무예에서 16개 종목(%), 전통생활관습에서 6개 종목(%), 전통지식에서 1개 종목(%)이 지정되어 있다. 구전전통 및 표현에서는 아직 지정된 종목이 없다.</p> <p>최근의 지정 동향을 보면 아리랑(2015년 지정), 제다(2016년 지정), 씨름, 해녀, 김치담그기(이상 2017년 지정) 등 보유자 없는 무형문화재가 지정되는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오랜 기간 공동으로 보유해 온 무형문화유산의 발굴·지정 사례가 확대되는 추세이다.</p> <p>한편 가사, 줄타기, 발탈(이상 2016년 지정) 등이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는데,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에 대하여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다양한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 여러 시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목]전통적 공연·예술/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구전전통 및 표현/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li> <li>•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소멸할 위험에 처한 국가무형문화재 또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단체가 상당 기간 동안 부재한 국가무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li> <li>• 주요지표 : 전승취약종목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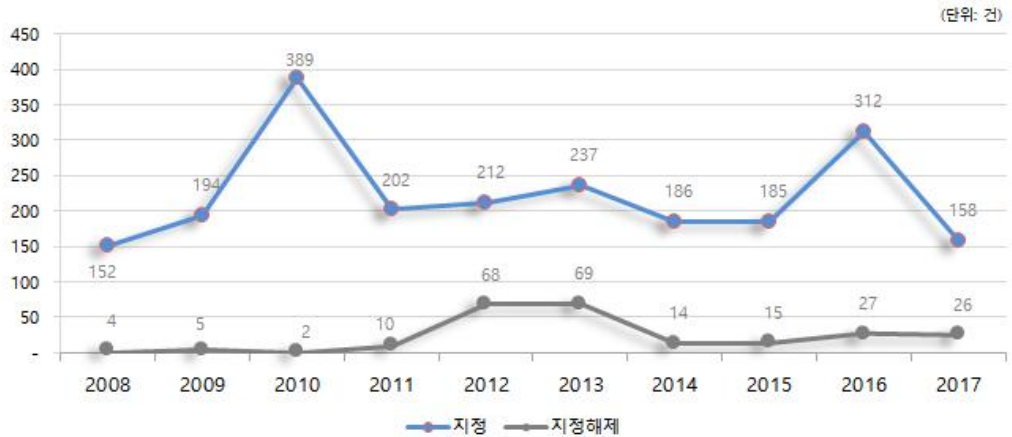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2-3-1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외
지 표 명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지정 · 지정해제 추이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연도별 추가 지정 또는 지정해제된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 현황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각 연도별 지정 또는 지정해제한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현황, 지역별 지정 또는 지정해제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시도지정문화재 · 문화재자료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재청 소관부서 및 전국 시 · 도 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시도문화재 지정 · 지정해제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시도문화재 관리,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연도별 시도문화재 지정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도유형문화재	82	103	119	74	120	98	95	92	56	85
시도무형문화재	6	9	48	34	10	63	8	16	35	20
시도기념물	10	14	46	34	20	14	12	7	89	14
시도민속문화재	6	3	14	7	19	30	1	8	72	12
문화재자료	48	65	162	53	43	32	70	62	60	27
합계	152	194	389	202	212	237	186	185	312	158

연도별 시도문화재 지정해제 현황 (단위: 건)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시도유형문화재	1	1	0	10	8	6	0	11	3	5
시도무형문화재	0	1	0	0	21	1	4	1	22	4
시도기념물	2	1	0	0	12	27	3	1	0	3
시도민속문화재	0	2	0	0	0	3	6	1	2	3
문화재자료	1	0	2	0	27	32	1	1	0	11
합계	4	5	2	10	68	69	14	15	27	26

해설

시·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70조)

또한 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지정해제·관리 등에 관해서는 제27조, 제31조~제37조, 제40조, 제42조~제45조, 제48조~제49조, 제81조를 준용한다. (「문화재보호법」 제74조)

지난 10년간 새롭게 추가된 시도문화재는 총 2,227건이었으며, 지정해제된 시도문화재는 총 240건이었다. 이 기간 시도문화재의 지정 추이는 평균 222.7건이었으며, 지정해제 추이는 평균 24건이었다.

유형별로 보면, 지정의 경우 시도유형문화재가 10년간 총 924건(연평균 92.4건)으로 가장 많으며, 문화재자료가 10년간 총 622건(연평균 62.2건)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정해제의 경우는 문화재자료가 총 75건(연평균 37.5건), 시도무형문화재가 총 54건(연평균 5.4건), 시도기념물이 총 49건(연평균 4.9건) 순이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 및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시도문화재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것)</li> <li>• 지정해제 : 국가 또는 시도지정문화재가 지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정을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것</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9 문화재연감」 ~ 「2018 문화재연감」</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12.12.31)</li> <li>3. 「문화재보호법」 제70조</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총괄 현황</li> <li>• 주요지표 : 시도지정문화재·문화재자료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문화재 지정·지정해제 및 등록·등록해제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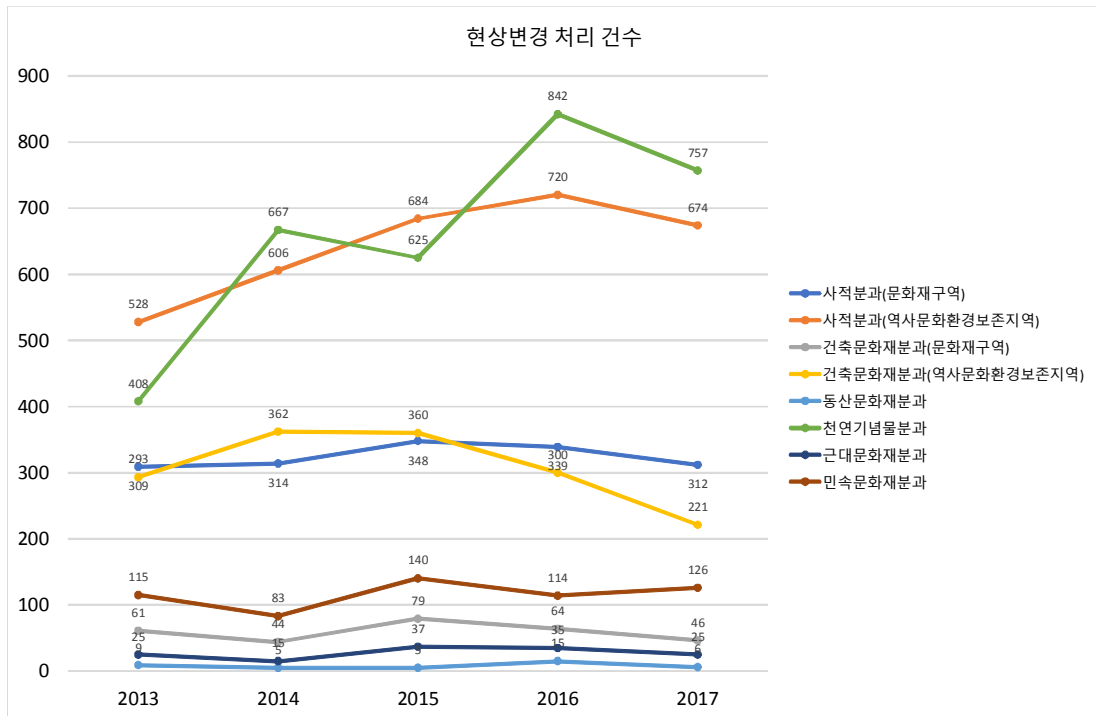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1-1	소관부서		보존정책과
지 표 명	현상변경 처리 건수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처리건수			
지표의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과잉복원을 예방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 그리고 사적지의 합리적인 보존정비 현황 파악을 위한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현상변경 처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보존정책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현상변경 처리 현황(100%)
	조사 주관	보존정책과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현상변경 처리 건수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사적분과	문화재구역	309	314	348	339	312	1,622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528	606	684	720	674	3,212
건축문화재분과	문화재구역	61	44	79	64	46	294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293	362	360	300	221	1,536
동산문화재분과		9	5	5	15	6	40
천연기념물분과		408	667	625	842	767	3,309
근대문화재분과		25	15	37	35	25	137
민속문화재분과		115	83	140	114	216	578
총계		1,748	2,096	2,278	2,429	2,177	10,728

해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현상변경 처리 건수는 총 10,728건이다. 문화재 관련 규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변경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행정의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총 1,894건이 마련되어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상변경 :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문화재의 현상변경은 크게 당해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 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 포함)와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로 나뉨(「문화재보호법」 제35조).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li> <li>- 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li> <li>- 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li> <li>◦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li> <li>◦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li> <li>◦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li> <li>◦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li> <li>◦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li> <li>◦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li> <li>◦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li> <li>◦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li> </ul> </li> </ul> </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li> <li>4. &lt;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gt; (한국지식산업연구원,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 2013)</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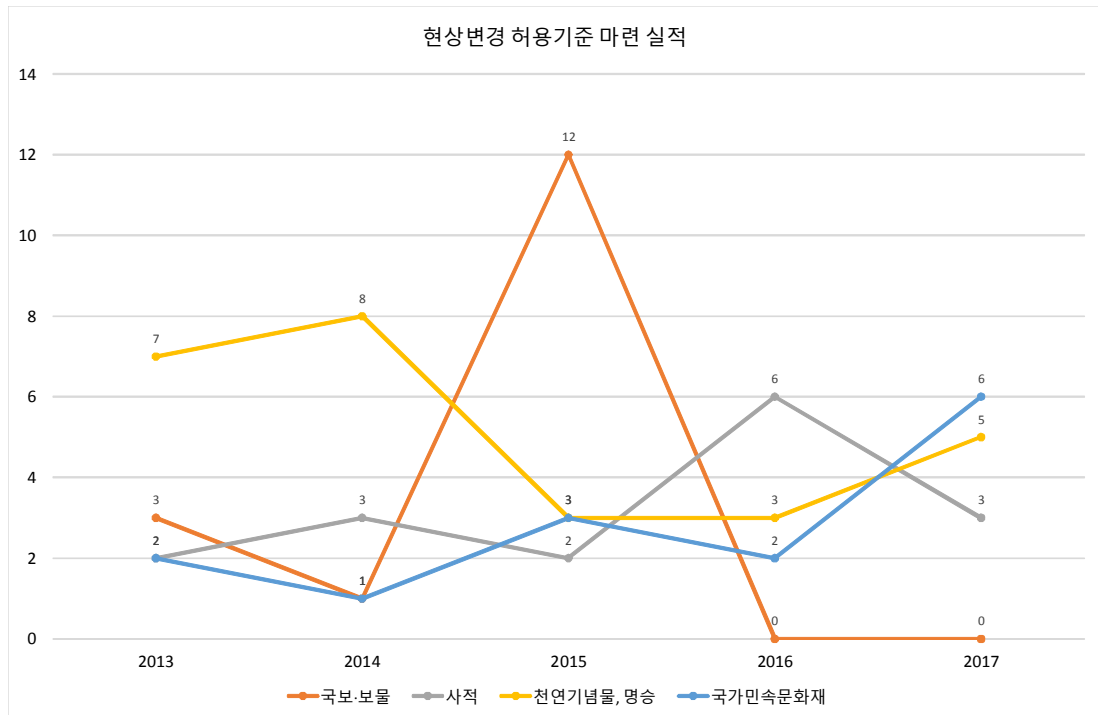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1-2	소관부서		보존정책과
지 표 명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 실적 현황			
지표의의	합리적인 문화재보호 및 보존을 위해 현상변경 허가기준 마련에 대한 실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보존정책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현상변경 허용기준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실적 (단위: 건)					
구분	국보·보물	사적	천연기념물·명승	국가민속문화재	계
2013	3	2	7	2	14
2014	1	3	8	1	13
2015	12	2	3	3	20
2016	-	6	3	2	11
2017	0	3	5	6	14

해설

문화재 관련 규제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현상변경에 대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행정의 투명성·객관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2017년 현재 총 1,894건이 마련되어 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 실적은 2017년 사적 3, 천연기념물, 명승이 5, 국가민속문화재 6, 총 14건의 허용기준이 마련되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상변경</b> : 문화재 원래의 모양이나 현재의 상태를 바꾸는 모든 행위로서 문화재의 생김새·환경·경관·대지 등 문화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조건이나 현 상태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문화재의 현상변경은 크게 당해 문화재(보호물·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 자체의 현상변경 행위(천연기념물을 표본·박제하는 행위 포함)와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 행위로 나뉨(「문화재보호법」 제35조). 현상변경 행위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를 수리·정비·복구·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li> <li>- 문화재를 포획·채취·사육하거나 표본·박제·매장·소각하는 행위</li> <li>- 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 목의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또는 도로·관로·전선·공작물·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행위</li> <li>◦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li> <li>◦ 토지 및 수면의 매립·간척·굴착·천공·절토·성토 등 지형 또는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li> <li>◦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li> <li>◦ 소음·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li> <li>◦ 오수·분뇨·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li> <li>◦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li> <li>◦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li> <li>◦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야적하는 행위</li> </ul> </li> </ul> </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li> <li>4. &lt;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gt; (한국지식산업연구원,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 2013)</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주요지표</b> : 현상변경 처리 건수</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1-3	소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지 표 명	고도지구 지정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고도별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지정 면적			
지표의의	우리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해 고도 지구 지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고도 지구 지정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고도보존육성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고도 지구 지정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table><tr><th colspan="6">고도 지구 지정 현황 (단위: 만㎡)</th></tr><tr><th>구분</th><th>경주 (2017.8월 변경)</th><th>공주 (2017.12월 변경)</th><th>부여 (2017.12월 변경)</th><th>익산 (2017.2월 변경)</th><th>계</th></tr><tr><td>특별보존지구</td><td>255.3</td><td>197.9</td><td>155.0</td><td>179.6</td><td>787.8</td></tr><tr><td>보존육성지구</td><td>105.3</td><td>154.8</td><td>125.3</td><td>128.9</td><td>514.3</td></tr><tr><td>총계</td><td>360.6</td><td>352.7</td><td>280.3</td><td>308.5</td><td>1,302.1</td></tr></table>	고도 지구 지정 현황 (단위: 만㎡)						구분	경주 (2017.8월 변경)	공주 (2017.12월 변경)	부여 (2017.12월 변경)	익산 (2017.2월 변경)	계	특별보존지구	255.3	197.9	155.0	179.6	787.8	보존육성지구	105.3	154.8	125.3	128.9	514.3	총계	360.6	352.7	280.3	308.5	1,302.1
고도 지구 지정 현황 (단위: 만㎡)																															
구분	경주 (2017.8월 변경)	공주 (2017.12월 변경)	부여 (2017.12월 변경)	익산 (2017.2월 변경)	계																										
특별보존지구	255.3	197.9	155.0	179.6	787.8																										
보존육성지구	105.3	154.8	125.3	128.9	514.3																										
총계	360.6	352.7	280.3	308.5	1,302.1																										
해설	<p>고도(古都)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2004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2년 3월 5일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상 4개 지역을 고도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p> <p>고도 지구 지정 면적은 총1,302만㎡로, 전체면적에 대한 비율로는 경주(27.7%), 공주(27.1%), 익산(23.7%), 부여(21.5%)순이며, 전체 비율에서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비율은 60.5 : 39.5로 나뉜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古都)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 (2004.3.5) · 시행(2005.3.6)함</li> <li>고도지구지정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현재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상 4개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음.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3월 5일 8년만에 4개 지역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지구 지정 범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확정했음. 지구 지정 총 면적은 13,097필지 894.4만㎡(이 중 특별보존지구는 전체의 61.8%인 552.8만㎡,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전체의 38.2%인 341.6만㎡)임. 지구별 면적 및 지구 내 주요 유적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고도지구(277.1만㎡) : 황룡사지, 경주 월성, 경주 읍성, 대릉원 등</li> <li>- 공주 고도지구(203.6만㎡)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공주 정지산 유적 등</li> <li>- 부여 고도지구(292.4만㎡) :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부여 나성 등</li> <li>- 익산 고도지구(121.3만㎡) : 금마도토성, 익산 향교 등</li> </ul> </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li> <li>4.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li> <li>보조지표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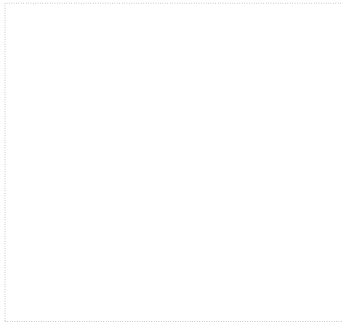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1-4	소관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지 표 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10년간 수행한 유물 보존처리 현황			
지표의의	국가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지난 10년간 시행한 유물 보존 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 그래프



## 통계표

보존처리 중 유물 현황: 1,560					
연번	유적지명(출토지명)	수량	재질	종류일	비고
1	신라왕경	55	금속	2018.12.31.	
2		13	도토기	2018.12.31.	
3		1	목재	2018.12.31.	
4		10	기타	2018.12.31.	
5	경주월성	14	금속	2018.12.31.	
6		25	도토기	2018.12.31.	
7		10	목재	2018.12.31.	
8		330	금재	2018.12.31.	
9		1	석재	2018.12.31.	
10	죽림지구	70	금속	2018.12.31.	
11	황룡사지 외곽	25	도토기	2018.12.31.	
12	황룡사지 동문지	18	금속	2018.12.31.	
13		1	석재	2018.12.31.	613
14	기타	40	석재	2018.12.31.	경주문화재연구소
15	나주 오량동 묘지 제7차 발굴	38	토기	2018.08.31.	41
16	나주 오량동 묘지 제7차 발굴	3	금속	2018.08.31.	나주문화재연구소
17	익산 제석사지(4차)	43	금속	2018.1.1.	
18	익산 제석사지(4차)	1	토기	2018.2.18.	
19	부여군 발견대장문화재	1	금속	2018.6.30.	
20	부여 황공리(11차)	3	금속	2018.9.30.	
21	공주 공산성(8차)	2	목재		
22	부여 관북리유적	109	목재		
23	부여 황룡사지	6	목재		
24	부여 관북리유적	7	목재		
25	익산 인목사지	2	목재		217
26	익산 황공리	2	목재		부여문화재연구소
27	제천 무도리유적	20	금속	국가귀속	중원문화재연구소
28	함안 도합리 양각화 고분군 외 14개 유적	23	금속	참고유물	
29	고성내산리고분군	10	금속	제거처	
30	함평 고분 39호분 및 주변 고분	7	금속		
31	함평 복산면 계산리	1	금속	발견신고문화재	

보존처리 중 유물 현황: 1,560					
연번	유적지명(출토지명)	수량	재질	종류일	비고
32	부산 배산성지 시굴(부산박물관)	27	목재	의뢰유물	
33	공주 장항리유물 전입유구간 축관 (이천문화유산연구소)	1	목재	의뢰유물	89
34	함안 성안산성14차	20	목재	참고유물	가야연구소
35	울산 동산리 출토 철갑 등	2	금속		
36	삼척 흥천리사지 출토 금동편	1	금속		
37	산청원지 출토 불상	1	금속		
38	창덕궁 인정전 일월오악도	1	지류		
39	울산 학대 출토 철기류	127	금속		
40	주미공사 외곽 축전고 등	19	지류 등		
41	원주 법천사지 지왕각사합	33	석재		
42	순창 청소고분 출토 옥관 및 철기	6	목재 등		
43	충남태안 출토 철기	8	금속		
44	삼척 흥천리사지 출토 방편	4	금속		
45	파주 구룡포 출토 야장도 등	3	지류		
46	함평 공산사 전회 사리구	2	지류 등		
47	장문가의 유물	2	지류		
48	울산 학대 출토 철기	145	금속		
49	이화여자박물관 전회 토기 용기류	1	토기		
50	세종대박물관 전회 동궁비행상 등	7	지류		
51	죽림기내관 전회 서재철 전회가운 등	3	지류		
52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의뢰유물(가운)	2	지류		
53	재판이비문가 외곽 양각화 중간 그문서 등	10	지류		
54	나주 청소고분 출토 목재편	1	목재		
55	관산 일당고분 출토 금속유물	137	금속		
56	강진 월남사지 삼층석탑 출토 방통병	2	금속		
57	안산 영인 오층석탑 출토 방통병 등	5	금속		
58	울진 유곡사 삼층석탑 출토 관동여의상 등	2	금속		
59	강북 구의 동원사지	1	지류		
60	충주 고신 출토 유서형로 복식	34	지류		
61	함평 양천사 고분 출토 직함부	1	지류		621
62	관산화양고분 출토 철조상 등	61	금속 등		문화재보존과학센터
총계		1,560			

보존처리 완료 유물 현황: 1,374					
연번	유적지명(출토지명)	수량	재질	종류일	비고
1	신라왕경	53	금속	2017.11.30.	
2		3	목재	2017.11.30.	
3		22	도토기	2017.11.30.	78점
4	사천왕사지	23	금속	2017.11.30.	
5		28	도토기	2017.11.30.	
6		1	금재	2017.11.30.	
7		7	기타	2017.11.30.	59점
8	경주월성	20	금속	2017.11.30.	
9		10	목재	2017.11.30.	
10		10	도토기	2017.11.30.	
11		20	금재	2017.11.30.	60점
12	죽림지구	70	금속	2017.11.30.	
13		9	도토기	2017.11.30.	
14		4	목재	2017.11.30.	83점
15	황룡사지 외곽	6	도토기	2017.11.30.	4점
16	발간문화재	1	금속	2017.11.30.	임성
17	나주월성고분	260	금속	2017.12.28.	경주문화재연구소
18	나주 오량동 묘지 제7~8차	7	금속	2017.7.31.	
19	나주 오량동 묘지 제7~8차	14	토기	2017.7.31.	이상
20	부여 관북리유적	1	목재	2017.6.30.	나주문화재연구소
21	부여황룡사지	17	금속	2017.9.29.	
22	부여 황룡사지	2	금속	2017.9.29.	
23	천안시 발견대장문화재	1	금속	2017.10.27.	부여문화재연구소
24	충주 합평리(팔공사지)	4	금속	2017.5.10.	
25	충주 합평리(팔공사지)	8	금속	2017.5.10.	
26	충주 연구사지 고분군(팔공사지)	10	금속	2017.12.8.	
27	제천 무도리	12	금속	2017.8.10.	
28	충주 누암리 고분군(가. 발굴)	6	금속	2017.12.8.	
29	충주 월곡동 892-5번지 유적	21	금속	2017.5.20.	임성
30	장성고분 39호분 및 주변 고분	56	금속	2017.07.27.	중원문화재연구소
31	고령 지산동 518호분	35	금속	2017.07.27.	
32	함평 양천사 유적지 고분군 외	69	금속	2017.10.30.	
33	장성 송현동 67호분	2	금속	2017.10.30.	

보존처리 완료 유물 현황: 1,374					
연번	유적지명(출토지명)	수량	재질	종류일	비고
34	장성 고분고분군 비수로경비사업 부지내유물	3	금속	2017.10.30.	
35	함안 성안산성14차	52	목재	2017.04.28.	
36	함안 성안산성17차	169	목재	2017.08.30.	
37	함안 성안산성 14차	62	목재	2017.10.30.	
38	부산 배산성지 시굴(부산박물관)	9	목재	2017.11.29.	
39	함평군 통산면, 화동면 직랑면	5	토기	2017.01.26.	
40	장성 고분 39호분 및 주변 고분	29	토기	2017.03.30.	
41	함안 성안산성17차	3	토기	2017.08.30.	
42	고성 내산리 고분군 6차	38	토기	2017.08.30.	
43	고령 지산동 518호분	8	토기	2017.09.28.	
44	함안 성안산성 17차	2	토기	2017.10.30.	이상
45	공산성 출토 옥철 갑옷 등	129	철기류 외	2017.08.31.	가야문화재연구소
46	일백의총 전의서 등	5	지류	2017.12.31.	
47	현충사 이월재 고지	21	지류	2017.12.31.	
48	정문가의 유물	3	지류	2017.12.31.	
49	득수궁 중화전 일월오악도	1	지류	2017.07.31.	
50	부여대조사석조미륵보살입상 불상	2	유리	2017.09.30.	
51	화성 화남지구 적색토기	1	토기	2017.09.30.	이상
총계		1,374			문화재보존과학센터

해설	<p>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나라 고고, 미술, 건축, 자연 등의 국가유산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유일한 국립연구기관으로서 지난 49년 동안 문화재의 정책적·학술적 연구를 선도해 왔다. 행정운영과, 연구기획과, 고고연구실, 미술문화재연구실, 건축문화재연구실, 보존과학연구실, 복원기술연구실, 자연문화재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의 2과 7실로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주문화재연구소, 부여문화재연구소, 가야문화재 연구소, 나주 문화재연구소, 증원문화재연구소, 강화문화재연구소 등 6개 지방연구소와 문화재보존과학센터를 2차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p> <p>2007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된 후로는 더욱 체계적인 연구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연구성과 향상을 위하여 부서와 학제가 어우러진 융복합연구를 활발히 도모하고 있다.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각종 조사, 연구, 개발 업무를 통해 전문도서 발간, 산업재산권 확보와 더불어 논문의 질적 수준 향상시키고 있으며, 문화재 정기조사, 긴급점검, 매장문화재 유적 평가등 문화재에 대한 합리적 보존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와 보존관리의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지원에 기여하고 있다.</p> <p>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문화유산의 공동 조사·연구, 국제학술대회, 인적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의 국제협력을 위해 국외에 현지기술교육팀을 파견해 왔으며, CollAsia와 Asian Archaeology를 개최하여 국제적 학술연구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국제기구와 MOU체결과 협업을 통해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공동조사 연구를 통해 고대문화 네트워크 연구를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역사왜곡에 따라 국외 발굴 및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p> <p>이 같은 연구성과를 토대로 2017년 12월까지 61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42건을 특허등록하였다.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보존처리를 완료한 유물은 공주 공산성 출토 옷칠 갑옷 등 1,374점이며, 현재 보존처리를 진행하고 있는 유물은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등 1,560점이다.</p>
관련용어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li> <li>4.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li> <li>• 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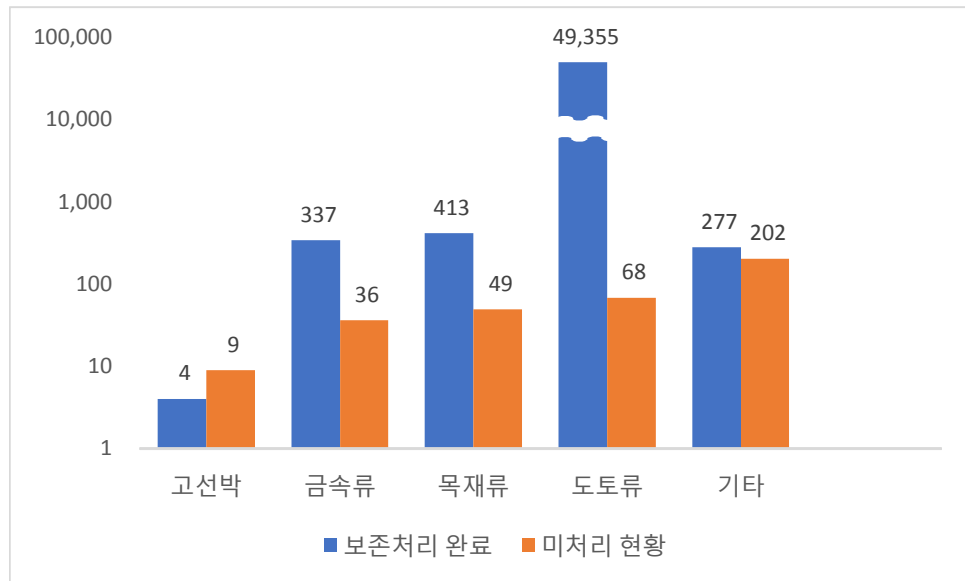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1-5	소관부서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지 표 명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수중에서 발굴된 유물의 재질에 따른 보관현황, 처리 현황 등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 바다의 수중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및 관련 연구를 위한 수중문화재 보존처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수중문화재 보존관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재질별 수증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단위: 점)						
구분	고선박	금속류	목재류	도토류	기타	계
보존처리 완료	4	337	413	49,355	277	50,386
미처리 현황	9	36	49	68	202	364

해설

수증에서 발굴된 유물 중 50,386점이 보존처리 완료된 상황이며, 364점은 처리 예정에 있다(고선박 4척 완료 9척 미처리, 금속류 337점 완료 36점 미처리, 목재류 413점 완료 49점 미처리, 도토류 49,355점 완료 68점 미처리, 석재류 등 기타가 277점 완료 202점 미처리). 이 중 국가귀속, 보고서 발간 등으로 등록된 유물은 47,301점이며, 도토류가 46,402점으로 가장 많고, 목재류, 금속류 순으로 등록되어 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중문화재 : 수중문화재는 바다, 하천, 강, 호수 등 수중에 남겨진 인류의 흔적 중 문화적, 역사적, 고고학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무언가를 말함. 침몰한 고선박, 선박에 실려 있던 선적물과 선상생활용품, 물 아래 잠긴 도시나 항구 등이 대표적인 수중문화재라 할 수 있음. 수중문화재는 물 속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육상 매장(埋藏)문화재보다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좀 더 생생한 과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줌</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a href="http://www.seamuse.go.kr">http://www.seamuse.go.kr</a>)</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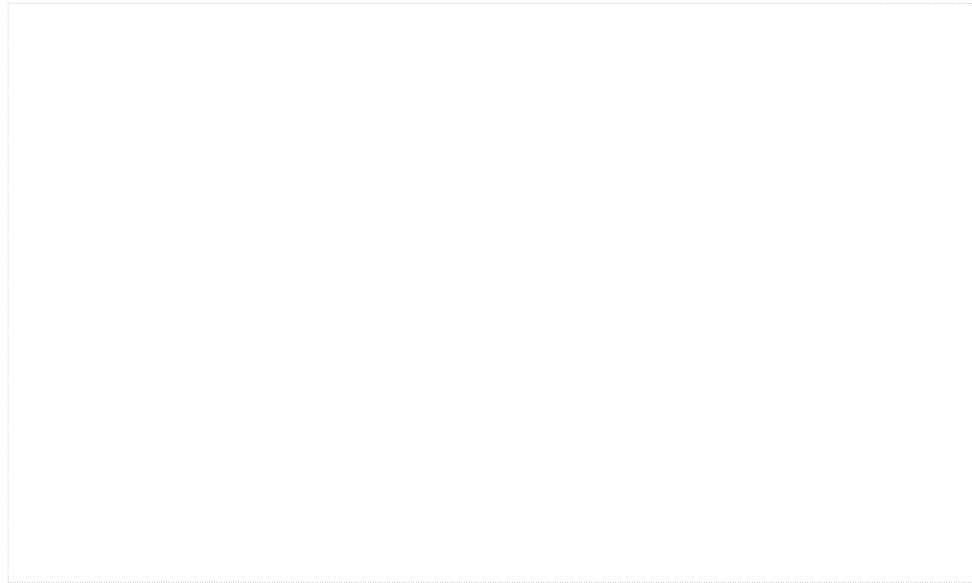
관리번호	보존 3-3-2-1	소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지 표 명	고도보존육성사업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의해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해 고도별로 승인된 사업 수에 대한 집계			
지표의의	고도 보존을 위한 육성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고도보존육성사업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고도보존육성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고도보존육성사업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고도 보존 육성사업 현황				
구분	경주 (2017.8월 변경)	공주 (2017.12월 변경)	부여 (2017.12월 변경)	익산 (2017.2월 변경)
특별 보존지구	9개 사업 월성 복원·정비사업 등	6개 사업 공산성 부근 발굴 및 정비 사업 등	4개 사업 사비도성 원형 발굴·정비사업	8개 사업 왕궁리유적 고도골격 회복사업 등
미처리 현황	보존 육성지구	8개 사업 한옥형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7개사업 제민천변 활력 거점사업 등	12개 사업 구드래 역사마을 조성사업
총계 (66개 사업)	17개 사업	13개 사업	16개 사업	20개 사업

해설

4개 고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은 경주(월성 복원·정비 사업 등 17개), 부여(사비도성 원형 발굴·정비사업 등 16개), 익산(왕궁리 유적 고도골격 회복사업 등 20개), 공주(공산성 부근 발굴 및 정비사업 등 13개)순으로 총 66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古都)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2004.3.5)·시행(2005.3.6)함</li> <li>고도지구지정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현재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상 4개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음.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3월 5일 8년만에 4개 지역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지구 지정 범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확정했음. 지구 지정 총 면적은 13,097필지 894.4만㎡(이 중 특별보존지구는 전체의 61.8%인 552.8만㎡,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전체의 38.2%인 341.6만㎡)임. 지구별 면적 및 지구 내 주요 유적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고도지구(277.1만㎡) : 황룡사지, 경주 월성, 경주 읍성, 대릉원 등</li> <li>- 공주 고도지구(203.6만㎡)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공주 정지산 유적 등</li> <li>- 부여 고도지구(292.4만㎡) :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부여 나성 등</li> <li>- 익산 고도지구(121.3만㎡) : 금마도토성, 익산 향교 등</li> </ul> </li> <li>고도보존육성사업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함.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2012년 승인)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문화재보수정비 총액예산 등을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2,270.5억원(국비 기준)을 투입해 추진함</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li> <li>4.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고도 지구 지정 현황</li> <li>보조지표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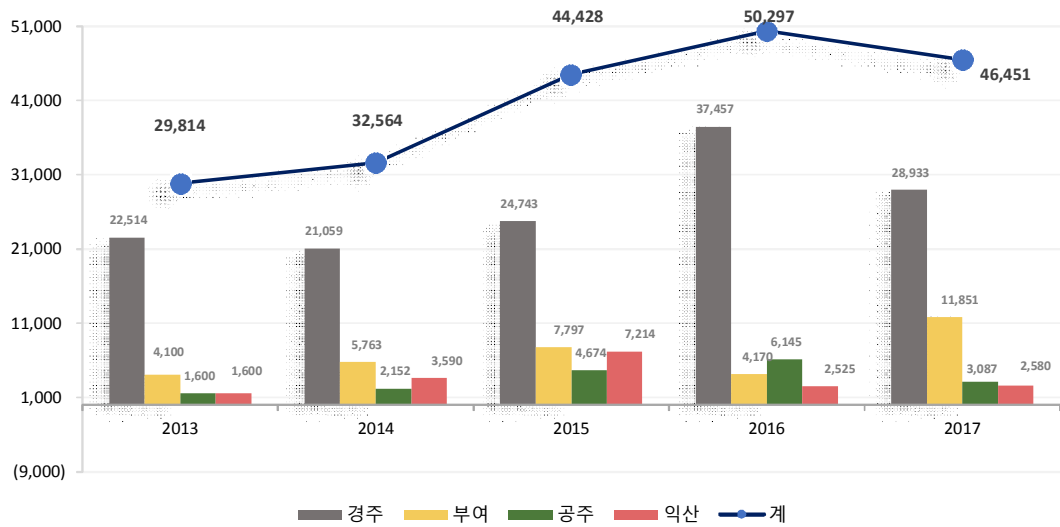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2-2	소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지 표 명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2017년까지 고도보존육성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고도별로 지원된 예산(국비)			
지표의의	고도보존육성을 위한 사업별 지원 예산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고도보존육성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고도 지구별 예산(국비) 지원 현황					
구분	경주	공주	부여	익산	계
2013	22,514 (추경6,314백만원 포함)	1,600	4,100	1,600	29,814
2014	21,059	2,152	5,763	3,590	32,564
2015	24,743	4,674	7,797	7,214	44,428
2016	37,177	5,150	5,725	2,245	50,297
2017	28,933	3,087	11,851	2,580	46,451

해설

2017년의 고도별 국비지원 예산현황은 총 465억이며, 고도별 예산 현황은 경주가 289억 (62.1%), 공주31억 (6.7%), 부여119억(25.6%), 익산26억(5.6%) 순으로 나타났다. 고도보존 육성기본계획 승인(12.3월) 이후 고도보존육성사업에 대한 본격적으로 지원 실시되었으며, 2017년엔 전년대비 소폭 감소된 예산이 투입되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古都)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2004.3.5)·시행(2005.3.6)함</li> <li>고도지구지정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현재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상 4개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음.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3월 5일 8년만에 4개 지역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지구 지정 범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확정했음. 지구 지정 총 면적은 13,097필지 894.4만㎡(이 중 특별보존지구는 전체의 61.8%인 552.8만㎡,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전체의 38.2%인 341.6만㎡)임. 지구별 면적 및 지구 내 주요 유적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고도지구(277.1만㎡) : 황룡사지, 경주 월성, 경주 읍성, 대릉원 등</li> <li>- 공주 고도지구(203.6만㎡)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공주 정지산 유적 등</li> <li>- 부여 고도지구(292.4만㎡) :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부여 나성 등</li> <li>- 익산 고도지구(121.3만㎡) : 금마도토성, 익산 향교 등</li> </ul> </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li> <li>4.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고도보존육성사업 현황</li> <li>보조지표 : 고도지구 지정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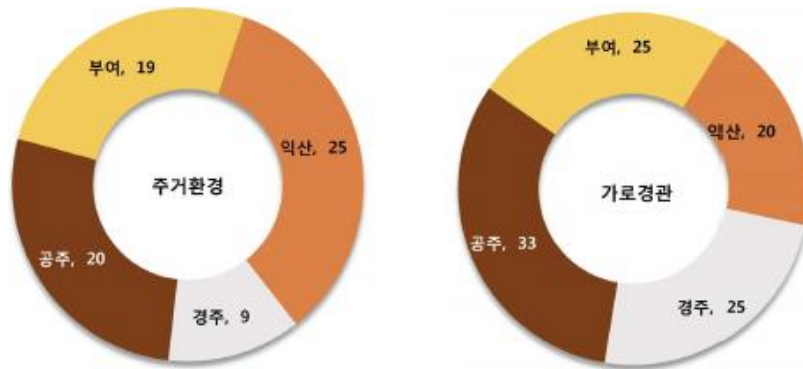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보존 3-3-2-3	소관부서		고도보존육성과
지 표 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고도별 이미지 찾기 사업신청 건수 현황			
지표의의	주변환경 및 가로 경관 개선 지원과 같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신청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고도보존육성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신청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신청건수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5				2016				2017				계			
	예산 (국비)	주거 환경	가로 경관	계	예산 (국비)	주거 환경	가로 경관	계	예산 (국비)	주거 환경	가로 경관	계	예산 (국비)	주거 환경	가로 경관	계
경주	2,000	11	1	12	1,720	17	10	27	948	9	25	34	4,668	37	36	73
공주	2,000	16	10	26	2,980	33	11	44	3,087	20	33	53	8,067	69	54	123
부여	2,000	1	1	2	1,580	28	13	41	1,400	19	25	44	4,980	48	39	87
익산	2,000	2	2	4	1,720	25	16	41	2,580	25	20	45	6,300	52	38	90
총계	8,000	30	14	44	8,000	103	50	153	8,015	103	103	176	24,015	206	167	373

해설

고도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의 경관회복을 위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 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은 고도 지정지구 내 한옥 또는 한옥건축양식으로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한다. '가로경관개선'은 고도 지정지구 내 가로변 건축물 외관을 정비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한 사업비를 보조한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도(古都) :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그 밖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함. 우리 민족 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고도지역의 역사문화환경을 보존하고, 문화재 보존과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조화롭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현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포(2004.3.5)·시행(2005.3.6)함</li> <li>고도지구지정 : 고도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각 고도의 핵심지역 중 일부를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의미함. 현재 경주·부여·공주·익산 이상 4개 지역이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음. 문화재청은 2004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고도지역에 대한 기초조사, 지역주민 의견 수렴, 4개 고도의 고도보존 계획안 마련, 관계부처 협의, 고도보존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3월 5일 8년만에 4개 지역을 고도 지구로 지정하게 되었음. 지구 지정 범위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고도 회복의 상징성, 사업추진의 편의성,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우선 최소한의 시범 지역을 확정했음. 지구 지정 총 면적은 13,097필지 894.4만㎡(이 중 특별보존지구는 전체의 61.8%인 552.8만㎡, 역사문화환경지구는 전체의 38.2%인 341.6만㎡)임. 지구별 면적 및 지구 내 주요 유적지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주 고도지구(277.1만㎡) : 황룡사지, 경주 월성, 경주 읍성, 대릉원 등</li> <li>- 공주 고도지구(203.6만㎡)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공주 정지산 유적 등</li> <li>- 부여 고도지구(292.4만㎡) : 부소산성, 관북리 유적, 부여 나성 등</li> <li>- 익산 고도지구(121.3만㎡) : 금마도토성, 익산 향교 등</li> </ul> </li> <li>고도이미지찾기사업 : 고도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문화환경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함. 고도(古都)는 과거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많은 역사유적을 가지고 있으나, 현대화 과정에서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기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됨. 추진 내용은 고도(古都: 경주 공주, 부여, 익산) 지정지구 내 주거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 지원</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li> <li>4.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s://www.cha.go.kr">https://www.cha.go.kr</a>)</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고도지구 지정 현황</li> <li>보조지표 : 고도별 예산지원 현황</li> </ul>



## 4.2.2. 문화유산 관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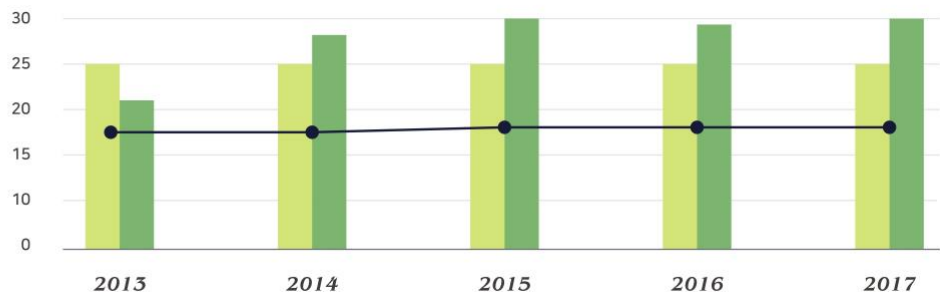
### ■ 대표지표

- 대표지표 정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관리기반, 보수와 정비, 문화재 보호와 단속에 관한 종합적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문화유산의 체계적·능동적 관리를 위한 전문기반과 국민기반, 문화재 보수와 정비 사업 현황, 문화재 보호를 위한 비공개·공개제한·전승취약 문화재 관리 현황, 문화재 훼손과 도난에 관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관리전문기반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2013 - 2017  
단위 : 명, 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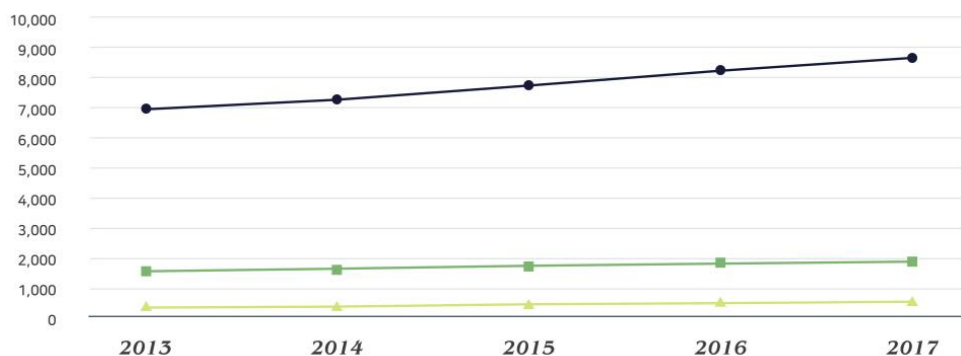
상근위원  
비상근위원  
감정관실수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불법으로 국외반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국제우체국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반출품)에 대해 비문화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국제공항 및 여객터미널에 18개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5명의 상근위원과 30명의 비상근위원이 근무하고 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기능자 업체  
현황  
2013 - 2017  
단위 : 개, 업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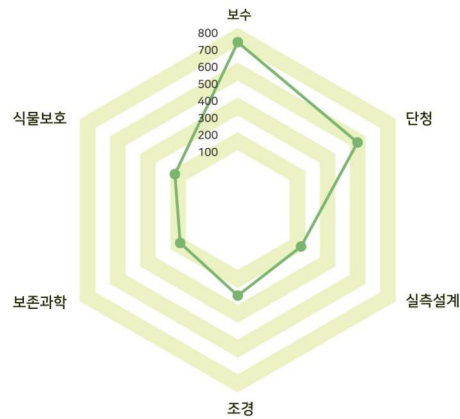
수리기능자  
수리기술자  
수리업체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체가 수리하거나,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 절차는 사전조사, 설계, 시공 순으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업의 유형별·직종별·업종별 변화 추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수리기술자의 경우 5년간 연평균 61명이 증가하였고, 수리기능자의 경우 5년간 연평균 406명이 증가하였다. 수리업체의 경우 5년간 연평균 32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이 중 문화재감리업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은 소멸되어 현재 등록된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 6개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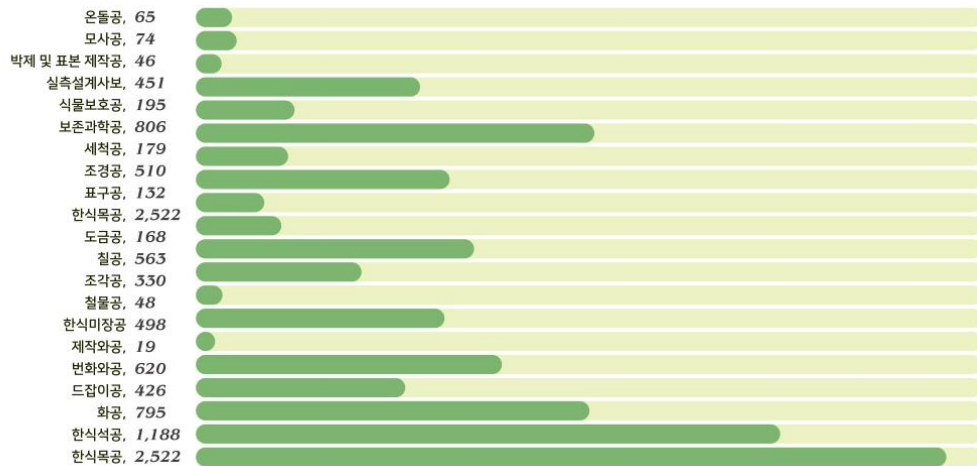
단위: 명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직종별로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6개로 나뉘며, 2017년 현재 총 1,847명이 배출되었다. 6개 직종 중에서 보수분야가 729명으로 39.47%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 20개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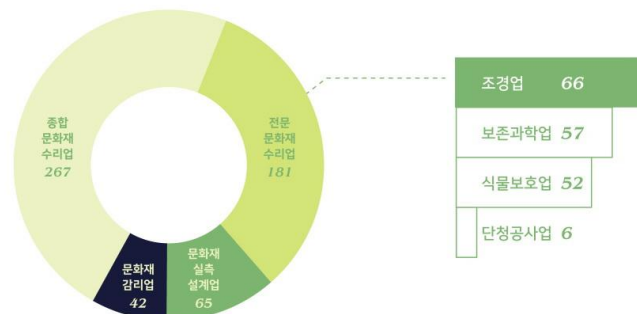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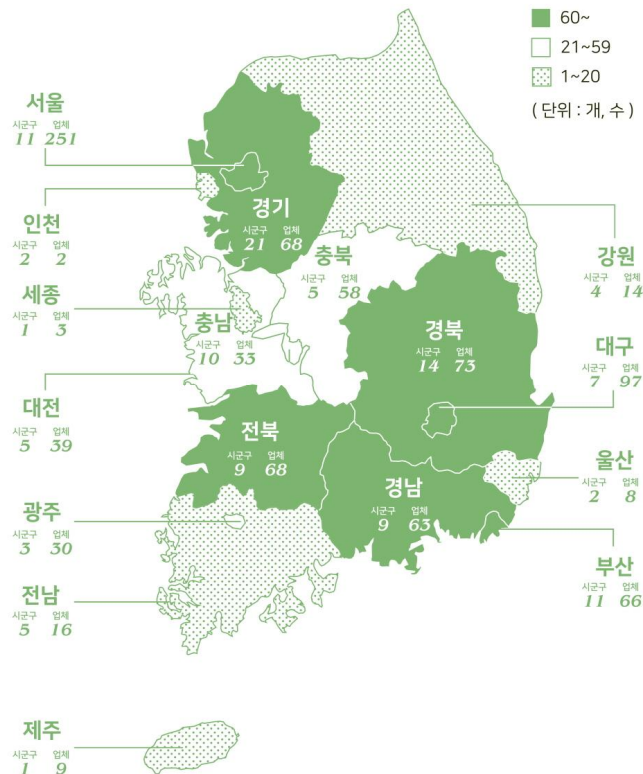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변화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나뉘며, 2017년 현재 총 8,636명이 배출되었다. 20개 직종 중에서 한식목공이 1,522명으로 17.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188명이 한식석공으로 13.76%를 차지하고 있다.

###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 - 10개 업종

단위: 개



문화재수리업체는 업종별로 보수단청업, 보존과학업, 석공사업, 문화재감리업 등 10개로 나뉘며, 2017년 현재 총 555개 업체가 있다. 이 중 보수단청업이 267개 업체로 전체의 48.1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집계는 자격증 취득 수량을 의미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다수 있다.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문화재매매업은 문화재를 사고파는 업종으로 우리 문화재의 국민 향유에도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후대에 물려 줄 우리 민족의 소중한 자산이기에 투명한 거래와 질서가 요구된다.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현재 120개 시·군·구에 898개 업체가 있다. 인구대비 대구에 문화재매매업이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

## 관리국민기반

문화재지킴이  
현황 단위: 명

전국에 산재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데, 최근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호활동에 대한 국민의 참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지킴이는 국민들이 개인·가족·단체별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와 결연해 정기적·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2005년 4월 위촉된 이래 2017년에는 개인, 가족, 단체지킴이가 59,604명,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25,000명, 청년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46명 등 총 84,650명이 활동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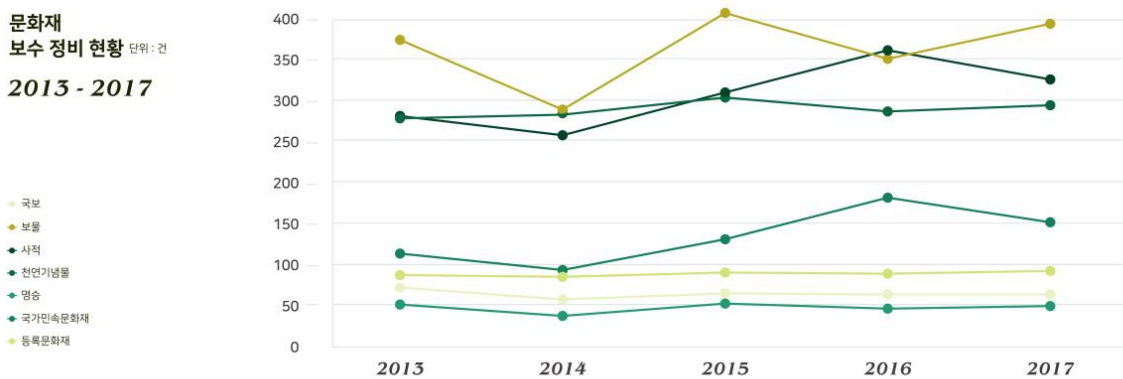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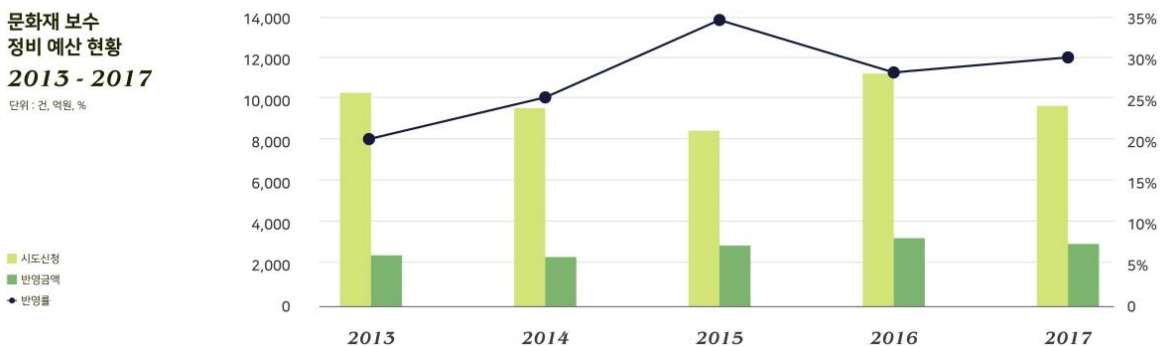
2006년 3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어 보전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를 전담으로 하는 특수법인단체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설립되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 편 문화유산 매입과 보전·관리를 위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기부금은 총 2,171,767,224원이었으며, 12,075명의 개인과 23개의 기관이 기금을 기부했다.

## 문화재 보수와 정비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단위: 건  
2013 - 2017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  
단위: 천, 억원, %  
2013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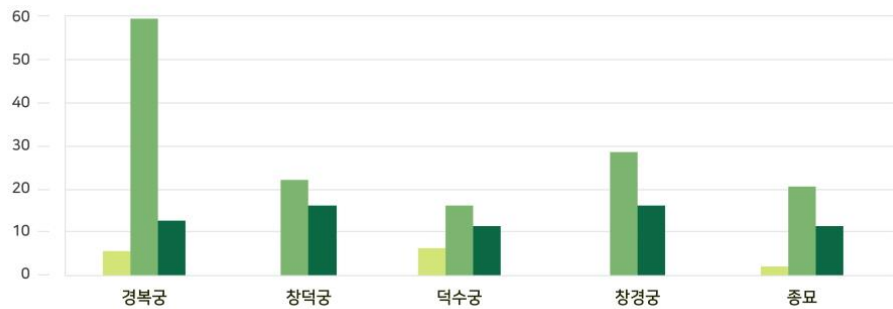


지난 5년간 국보 및 보물의 보존·관리를 위해 1,924건의 사업에 4,594억 원을 투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조물 및 석조문화재 원형복원·보존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사적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1,468건의 사업에 11,006억 원을 투입, 중요문화재 지역 내 사유지 매입·정비, 발굴조사, 멸실·훼손된 문화재 원형 복원, 관람편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원형보존·활용을 위해 1,625건의 사업에 1,759억 원을 투입, 천연기념물 동물 혈통보존 및 서식지 정비, 식물문화재 생육환경 개선, 화석 보존처리 및 명승 경관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국가민속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670건의 사업에 828억 원을 투입, 고가옥 보수·정비, 민속마을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386건의 사업에 544억 원을 투입, 주요건물 보수·정비, 모니터링, 활용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2017년도  
궁 복원 정비  
및 보수 현황

단위 : 건, 천원

■ 복원 정비  
■ 보수 정비  
■ 전통조경 정비



문화재청은 건립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노후 되었거나 일제에 의해 훼손·변형된 조선왕궁에 대한 복원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궁의 기본 궁제를 복원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1986년 창경궁의 일부 시설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4대궁 정비 및 보수사업은 1990년 경복궁, 1991년 창덕궁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4대 궁의 복원 정비 및 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총 13,979,313천원이었으며, 사업건수는 모두 227건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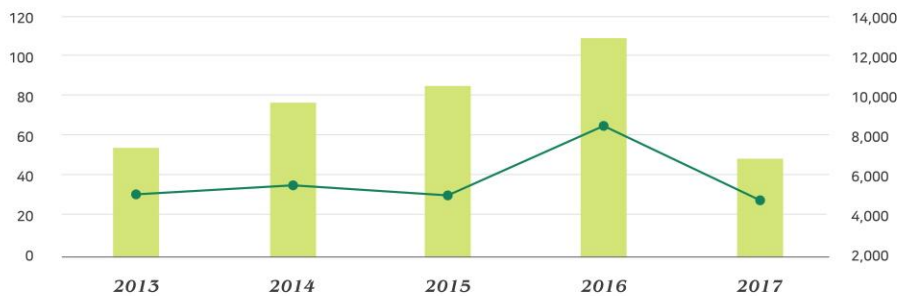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2013-2017

단위 :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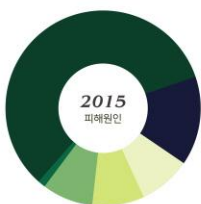
■ 재해건수  
◆ 지원액

지원금액(국비)



지원건수

단위 : 건



2015  
피해원인

- 살해 (동파포함), 7
- 중해 (원개미), 7
- 재선충병 (소나무), 7
- 동물, 1
- 기타, 48
- 풍수해, 12



2016  
피해원인

- 기타, 61
- 풍수해, 35
- 살해 (동파포함), 9
- 재선충병 (소나무), 4
- 동물, 1



2017  
피해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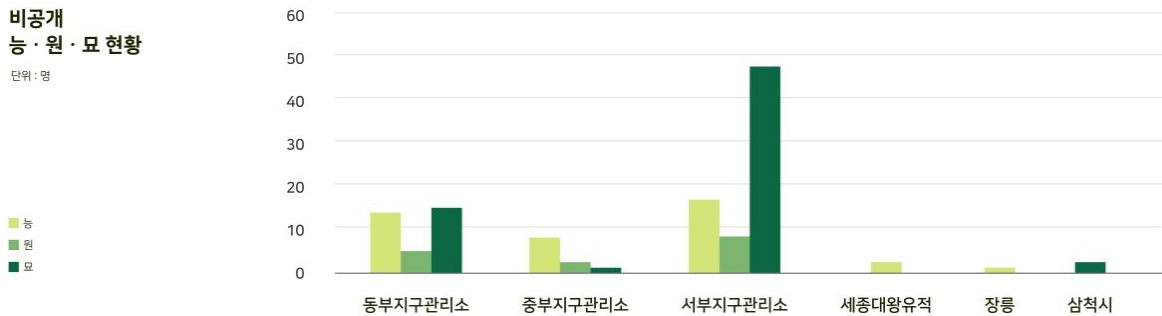
- 살해 (동파포함), 1
- 풍수해, 7
- 기타, 31
- 재선충병 (소나무), 3
- 중해 (원개미), 4

문화재청은 풍수해·설해·충해·지진 등 각종 재해로부터 예상치 못한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긴급 보수를 시행한다. 2016년 9월 발생했던 경주지역의 규모 5.8 지진이 대표적이다. 지난 5년간 재해 피해로 인한 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해 총 293억 2천 3백만 원, 연평균 58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였다. 이중 주목할 만한 재해 긴급 보수 사례로는 2016년도 9월 경주지역 규모 5.8 지진으로 인한 문화재 긴급 보수 비용으로 35억 원을, 2017년도 11월 포항지역 규모 5.4 지진으로 인한 긴급 보수 비용으로 6억 원을 투입한 것을 들 수 있다.

## 문화재 보호와 단속

### 비공개 능·원·묘 현황

단위 : 명



###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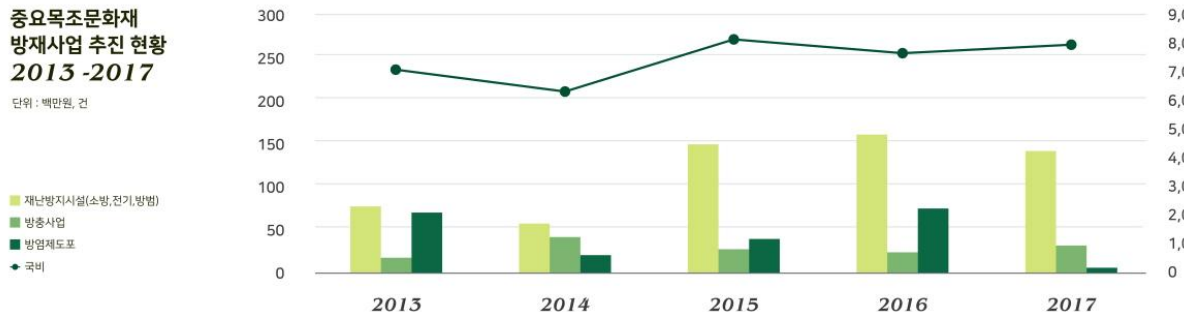
단위 : 건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및 명승 중 문화재 보호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이 지역을 공개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2017년 기준 118기 중 비공개 능·원·묘는 66기로 능이 2기, 원이 6기, 묘가 58기이다. 2016년 기준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 수는 총 37건으로 이 중 약 40%정도가 천연동굴에 해당되었다. 한편 공개된 천연동굴은 11개소가 있다.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사업 추진 현황 2013-2017

단위 : 백만원,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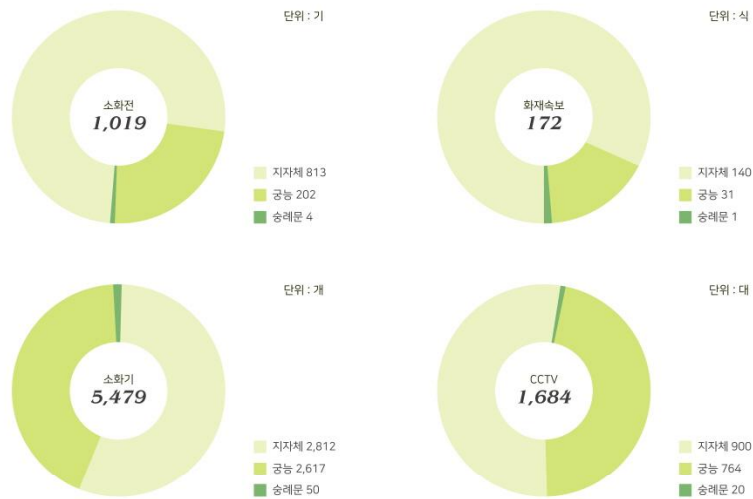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훼손되기 쉬운 중요목조문화재 국보·보물·사적에 대하여 각종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있다. 2017년에는 총 174건의 사업에 총 83억 5천여 만원이 투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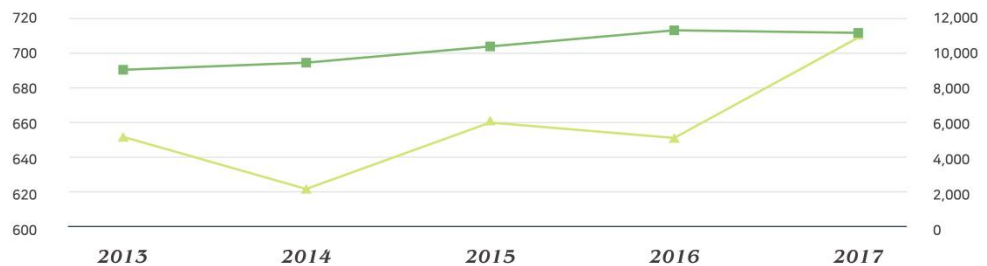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 현황

방재시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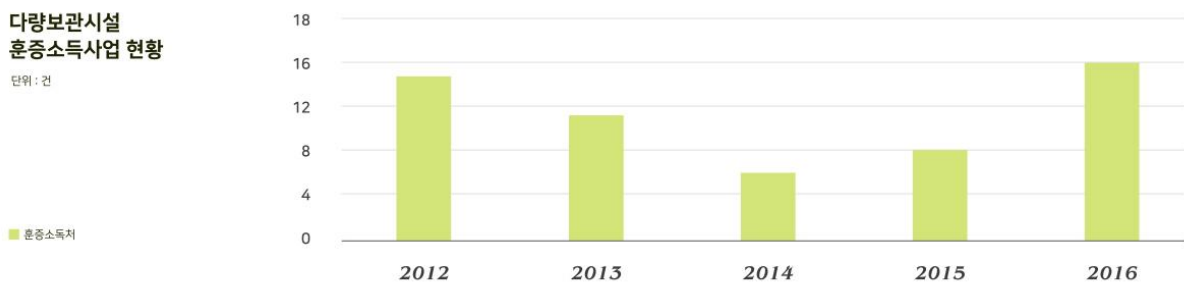
안전관리원 배치



2008년 설날 발생한 승례문 화재 사건은 문화재 안전관리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을 크게 환기시켰는데, 문화재청은 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각종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있다. 방재시설 설치 대상은 승례문 및 공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중요목조문화재이다. 방재시설은 소화전, 소화기, 경보시설, CCTV, 전기설비, 방충, 방염제도포가 주를 이루며, 최근 5년간 총 908억 4천여 만원을 투입했다. 2017년 안전관리원은 7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4명 증원되었다.

###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단위: 건



동산문화재 중 사유 재산인 경우 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사찰·문중 등의 보관시설에 다량으로 보관된 서화류·섬유류·목재류 등에 대하여 충·균 등으로 인한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6년까지 173개소를 대상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6개소를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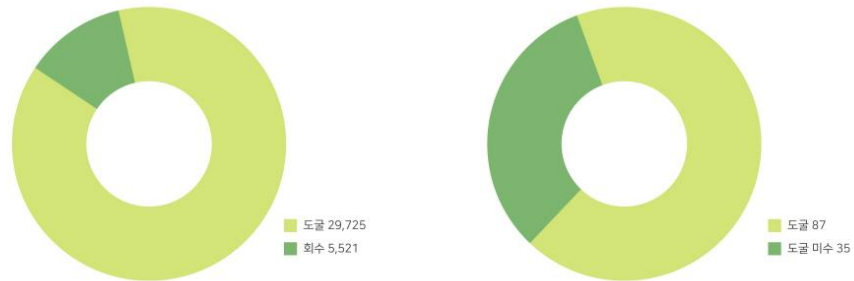




문화재감정관실은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국제우체국에서 문화재가 불법으로 국외반출 되는 것을 예방하고,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반출품)에 대해 비문화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18개 문화재감정관실의 비문화재확인 현황은 총 117,094점에 이르며,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일반 동산문화재는 643점이다.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단위: 건, 점



문화재청은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사범단속활동을 하고 있으며, 1985년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의 도난·도굴 건수는 총 825건이며, 도난 점수는 총 29,725점이다. 이 중 회수 문화재는 225건 5,521점으로 전체 도난 문화재 중 18.6%가 회수되었다. 그 외 도굴미수는 36건에 이른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관리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22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관리 지표의 22개 세부지표는 다음 22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4. 문화유산 관리 세부지표

### 4.1. 관리기반

#### 4.1.1. 전문기반

- 4-1-1-1.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 4-1-1-2.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 4-1-1-3.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 4-1-1-4.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 4-1-1-5.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
- 4-1-1-6.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 4.1.2. 국민기반

- 4-1-2-1. 문화재지킴이 현황
- 4-1-2-2.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영 현황

### 4.2. 문화재 관리

#### 4.2.1. 보수와 정비

- 4-2-1-1.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 4-2-1-2.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
- 4-2-1-3. 4대궁 및 종묘 보수 정비 현황
- 4-2-1-4. 능·원 보수정비 현황
- 4-2-1-5.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 4.2.2. 보호와 단속

- 4-2-2-1. 비공개 능·원·묘 현황
- 4-2-2-2.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사업 추진 현황
- 4-2-2-3.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 현황
- 4-2-2-4.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 4-2-2-5.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
- 4-2-2-6.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 4-2-2-7.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
- 4-2-2-8.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현황
- 4-2-2-9.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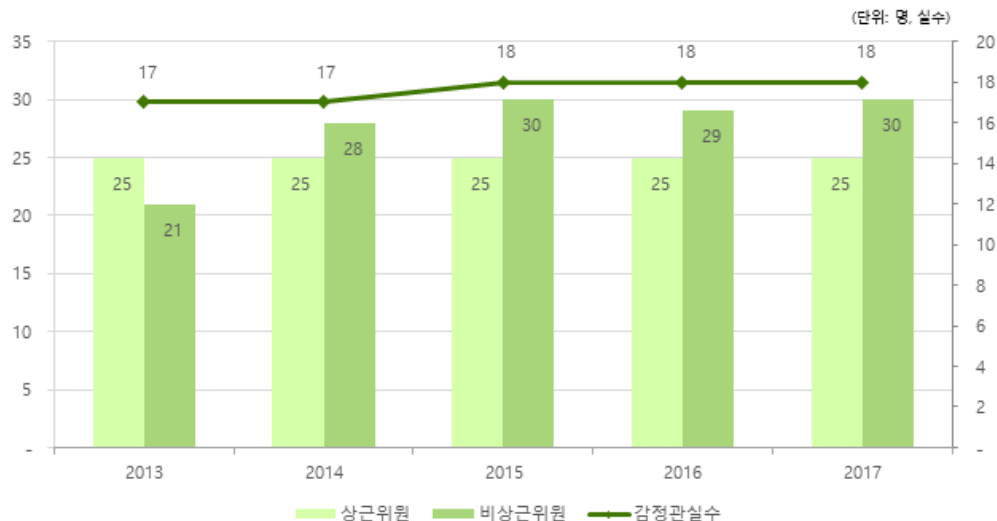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1-1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의 불법 국외 반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화재감정관실의 과거 5년간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감정관실	감정위원		국제선 출항 현황
	상근	비상근	
인천국제공항/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7	2	일본 등 55개국, 주7일 3,500편
김포국제공항	3	1	일본, 대만 등 3개국, 주7일 420편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부산국제우체국	3	2	일본, 주7일 490편
김해국제공항	3	2	일본 등 12개국, 주7일 1,118편
대구국제공항	1	2	중국, 일본 등 6개국, 주7일 420편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3	4	중국, 주6일, 114편 *여객청사 2개소
청주국제공항	2	2	중국, 대만, 일본 등 3개국, 주7일 55편
제주국제공항	1	3	중국 등 8개국, 주7일 190편
파주 남북출입사무소	-	2	북한, 주6일, 매일 11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	2	중국, 주7일 48편
양양국제공항	1	3	러시아, 일본, 중국, 주7일 20편
속초항 국제여객터미널			러시아 주2회
동해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러시아 주2일 2편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	1	중국, 주 3편
무안국제공항	1	2	중국, 일본 등 3개국, 주7일 35편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	2	중국, 일본 주7일 15편
18개소	25	30	

해설

문화재청은 문화재가 불법으로 국외반출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제공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국제우체국에 문화재감정관실을 설치하여 문화재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동산(반출품)에 대해 비문화재 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국 국제공항 및 여객터미널에 18개소의 문화재감정관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 현재 25명의 상근위원과 30명의 비상근위원이 근무하고 있다.

관련용어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 주요지표 :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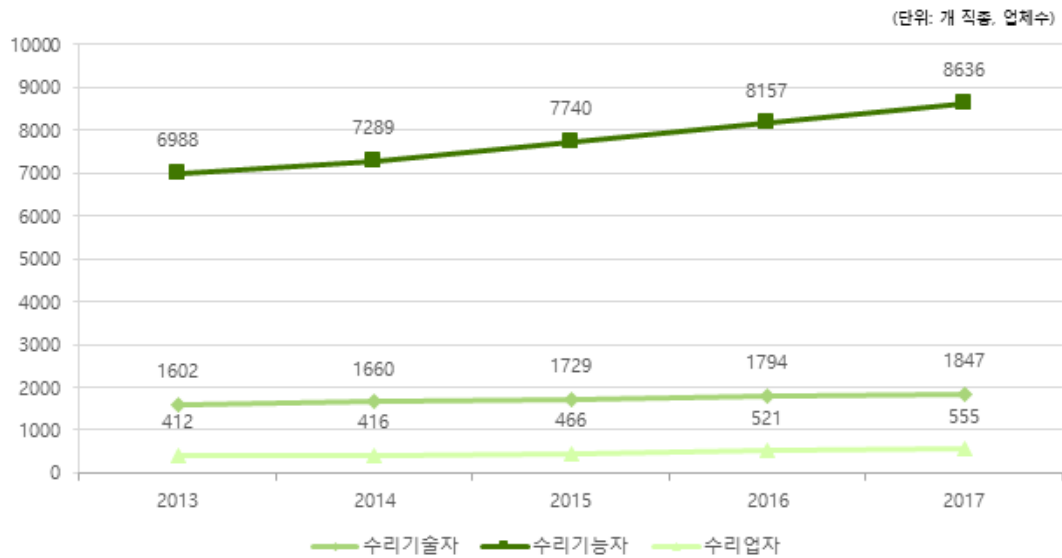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1-2	소관부서		수리기술과
지 표 명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업 관련 총괄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업의 유형별·직종별·업종별 현황 및 수리제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수리기술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100%)		
	조사 주관	수리기술과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수리기술자 · 업체 현황 (단위: 개 업체수)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수리기술자	6개 직종 1,602	6개 직종 1,660	6개 직종 1,729	6개 직종 1,794	6개 직종 1,847
수리기능자	20개 직종 6,988	20개 직종 7,289	20개 직종 7,740	20개 직종 8,157	20개 직종 8,636
수리업자	10개 업종 412	10개 업종 416	10개 업종 466	10개 업종 505	10개 업종 555

해설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 수리업자가 수리하거나, 문화재 수리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기능자가 함께 수리하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 수리기술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면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다.

문화재 수리의 절차는 사전조사, 설계, 시공 순으로 진행하되, 모든 문화재 수리과정을 기록화 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 문화재 수리업의 유형별·직종별·업종별 변화 추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수리기술자의 경우 5년간 연평균 61명이 증가하였고, 수리기능자의 경우 5년간 연평균 406명이 증가하였다. 수리업체의 경우 5년간 연평균 32개 업체가 증가하였다. 이 중 문화재감리업의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목공사업, 석공사업, 변와공사업은 소멸되어 현재 등록된 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는 보수기술자(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등), 단청기술자(불화 및 단청분야의 시공 및 감리 등), 실측설계기술자(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등), 조경기술자(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등), 보존과학기술자(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등), 식물보호기술자(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등) 이상 6개로 구분됨.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li> <li>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번와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구분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018 문화재연감」</li> <li>문화재보호법 제23조, 제27조, 제31조</li> <li>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li> <li>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li> <li>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a href="https://www.nuch.ac.kr">https://www.nuch.ac.kr</a>)</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li> <li>주요지표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li> <li>주요지표 :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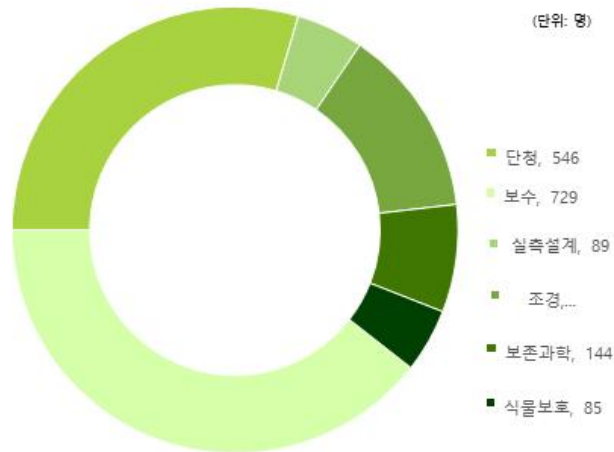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1-3	소관부서		수리기술과
지 표 명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6개 직종별 우리나라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			
지표의의	직종별 문화재 수리업의 기술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수리기술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6개 직종 (단위: 명)							
구분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계
인원	729	546	90	253	144	85	1,847

해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직종별로 보수, 단청, 실측설계,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등 6개로 나뉘며, 2017년 현재 총 1,847명이 배출되었다. 6개 직종 중에서 보수분야가 729명으로 39.47%를 차지하여 가장 많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는 보수기술자(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등), 단청기술자(불화 및 단청분야의 시공 및 감리 등), 실측설계기술자(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등), 조경기술자(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등), 보존과학기술자(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등), 식물보호기술자(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등) 이상 6개로 구분됨.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li> <li>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번와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구분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li> <li>4.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li> <li>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a href="https://www.nuch.ac.kr">https://www.nuch.ac.kr</a>)</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li> <li>보조지표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li> <li>보조지표 :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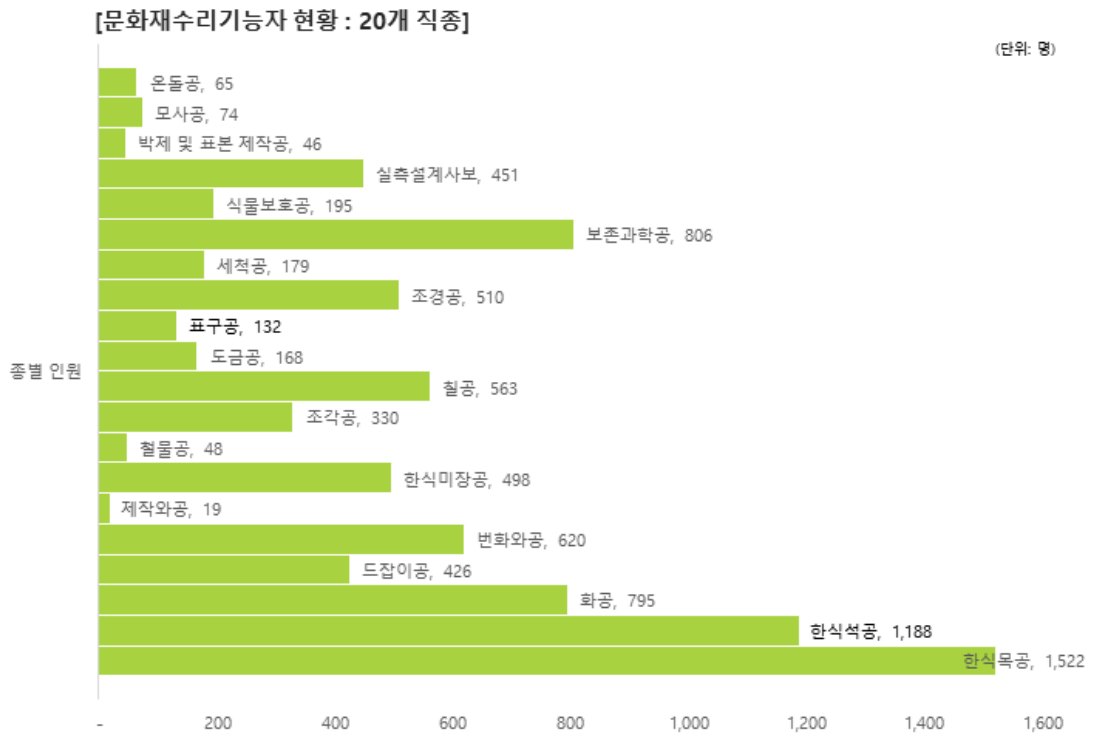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1-4	소관부서		수리기술과
지 표 명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20개 직종별 우리나라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			
지표의의	직종별 문화재 수리업의 기술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수리기술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20개 직종 (단위: 명)																					
구분	한식 목공	한식 석공	화공	드잡 이공	변와 공	제작 와공	한식 미장 공	철 물 공	조 각 공	철 공	도 금 공	표 구 공	조 경 공	세 척 공	보존 과학 공	식물 보호 공	실측 설계 사보	박제 및 표 본 제 작 공	모 사 공	온 돌 공	계
인원	1,522	1,188	795	426	620	19	498	48	330	563	168	132	510	179	806	195	452	46	74	65	8,636

해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이다.

문화재수리기능자는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변화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나뉘며, 2017년 현재 총 8,636명이 배출되었다. 20개 직종 중에서 한식목공이 1,522명으로 17.62%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1,188명이 한식석공으로 13.76%를 차지하고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는 보수기술자(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등), 단청기술자(불화 및 단청분야의 시공 및 감리 등), 실측설계기술자(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등), 조경기술자(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등), 보존과학기술자(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등), 식물보호기술자(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등) 이상 6개로 구분됨.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li> <li>• 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번와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구분됨</li> <li>• 드잡이공 : 문화재 수리업에서, 기울거나 내려앉은 구조물을 해체하지 않고 도구를 이용해 바로잡는 일을 하거나 그에 따른 업무 수행하는 사람. 전통기능교육과정(문화재수리기능자양성과정)을 통해 필요 기술 이수 가능.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함</li> <li>• 번와공 : 번와공은 기와를 덮는 장인. 기와를 덮는 일을 '번와(翻瓦)'라고 하고, 그 장인을 '번와와공(翻瓦瓦工)'이라 부름. '번와장'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으로, 2008년 10월 21일 중요무형문화재(현 국가무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었음</li> <li>• 한식미장공 : 한식미장공은 미장과 그에 따른 업무를 시공하는 장인. 미장바름재(진흙, 회삼물, 강회 등)를 사용해 한식벽체, 양벽, 온돌, 외역기 등을 전통기법대로 시공하는 장인을 말함</li> <li>• 모사공 : 모사공은 궁중장식화, 풍속화, 초상화, 기록화, 산수화, 불화 등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모사하는 장인. 현상모사, 복원모사로 구분 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li> <li>4.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li> <li>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a href="https://www.nuch.ac.kr">https://www.nuch.ac.kr</a>)</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li> <li>• 보조지표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li> <li>• 보조지표 :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1-5	소관부서		수리기술과
지 표 명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10개 업종별 우리나라 문화재수리업체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의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수리기술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업종별 문화재수리업체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단위: 개)

**업종별**

- 종합 문화재수리업, 267
- 전문 문화재수리업, 181
- 문화재 실측 설계업, 65
- 문화재감리업, 42

**전문 문화재수리업**

- 보존과학업, 57
- 식물보호업, 52
- 단청공사업, 6
- 조경업, 66

통계표

문화재수리업체 현황-10개 직종 (단위: 개)	구분	종합 문화재 수리업	전문 문화재 수리업	문화재 실측 설계업	문화재 감리업	계					
보수단청업	조경업	보존 과학업	식물 보호업	단청 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 공사업				
업체수	267	66	57	52	6	0	0	0	65	42	555

해설

문화재수리업체는 업종별로 보수단청업, 보존과학업, 석공사업, 문화재감리업 등 10개로 나뉘며, 2017년 현재 총 555개 업체가 있다. 이 중 보수단청업이 267개 업체로 전체의 48.11%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된 문화재수리기술자와 문화재수리기능자 집계는 자격증 취득 수량을 의미하며, 2개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도 다수 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수리기술자 :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술적 업무를 담당하고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감독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는 보수기술자(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등), 단청기술자(불화 및 단청분야의 시공 및 감리 등), 실측설계기술자(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등), 조경기술자(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등), 보존과학기술자(보존처리 시공 및 감리 등), 식물보호기술자(식물의 보존·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등) 이상 6개로 구분됨. 문화재 수리에 대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능 인력을 배출하여 문화재 수리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철저한 문화재 원형보존을 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격제도</li> <li>문화재수리기능자 :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지도·감독을 받아 문화재수리에 관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직종별로 한식목공, 드잡이공, 번와공, 철물공, 도금공, 조경공 등 20개로 구분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li> <li>4. 네이버 지식백과 자격증 사전</li> <li>5.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a href="https://www.nuch.ac.kr">https://www.nuch.ac.kr</a>)</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업체 현황</li> <li>보조지표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술자 현황</li> <li>보조지표 : 직종별 문화재수리기능자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1-6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및 지역별 허가업체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매매업 허가 및 허가업체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및 필요시 설문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매매업 허가 업체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div> <div>그래프</div> </div>	<div> <div>(단위: 업체수)</div> <table> <tr> <th>연도</th><th>시·군·구</th><th>업체</th></tr> <tr> <td>2012</td><td>119</td><td>957</td></tr> <tr> <td>2013</td><td>122</td><td>941</td></tr> <tr> <td>2014</td><td>122</td><td>941</td></tr> <tr> <td>2015</td><td>123</td><td>934</td></tr> <tr> <td>2016</td><td>120</td><td>898</td></tr> </table> </div>	연도	시·군·구	업체	2012	119	957	2013	122	941	2014	122	941	2015	123	934	2016	120	898																																																														
연도	시·군·구	업체																																																																															
2012	119	957																																																																															
2013	122	941																																																																															
2014	122	941																																																																															
2015	123	934																																																																															
2016	120	898																																																																															
<div> <div>통계표</div> </div>	<div> <table> <tr> <th colspan="4">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th> </tr> <tr> <th>시도</th><th>시·군·구</th><th>업체</th><th>허가업체 현황</th></tr> <tr> <td>서울</td><td>11</td><td>251</td><td>종로(108), 동대문(110), 중구(14), 서초(5), 구로(2), 마포(1), 성북(1), 은평(1), 강남(7), 금천(1), 강동(1)</td></tr> <tr> <td>부산</td><td>11</td><td>66</td><td>중구(21), 수영(10), 서구(7), 기장(11), 해운대(5), 연제(3), 금정(1), 부산진(2), 남구(3), 동구(1), 강서구(1)</td></tr> <tr> <td>대구</td><td>7</td><td>97</td><td>남구(47), 중구(28), 수성(9), 동구(6), 달서(2), 달성(1), 북구(4)</td></tr> <tr> <td>인천</td><td>2</td><td>2</td><td>중구(1), 남동구(1)</td></tr> <tr> <td>광주</td><td>3</td><td>30</td><td>동구(20), 북구(9), 서구(1)</td></tr> <tr> <td>대전</td><td>5</td><td>39</td><td>동구(17), 유성(8), 서구(4), 중구(7), 대덕(3)</td></tr> <tr> <td>울산</td><td>2</td><td>8</td><td>남구(3), 울주(5)</td></tr> <tr> <td>경기</td><td>21</td><td>68</td><td>수원(9), 고양(2), 성남(2), 용인(5), 안산(2), 남양주(4), 화성(5), 의정부(1), 김포(3), 광명(1), 광주(7), 군포(1), 이천(3), 양주(1), 포천(3), 의왕(1), 여주(3), 양평(9), 오산(2), 평택(2), 하남(2),</td></tr> <tr> <td>강원</td><td>4</td><td>14</td><td>춘천(6), 원주(5), 강릉(2), 속초(1)</td></tr> <tr> <td>충북</td><td>5</td><td>58</td><td>충주(32), 청주(21), 음성(5), 옥천(3), 제천(3)</td></tr> <tr> <td>충남</td><td>10</td><td>33</td><td>공주(8), 천안(5), 부여(7), 아산(2), 논산(5), 서산(1), 보령(1), 당진(2), 서천(1), 계룡(1)</td></tr> <tr> <td>전북</td><td>9</td><td>68</td><td>전주(33), 남원(9), 익산(10), 부안(7), 완주(3), 정읍(3), 순창(1), 고창(1), 무주(1)</td></tr> <tr> <td>전남</td><td>5</td><td>16</td><td>순천(9), 목포(3), 해남(2), 나주(1), 보성(1)</td></tr> <tr> <td>경북</td><td>14</td><td>73</td><td>경주(18), 안동(19), 포항(5), 영주(4), 문경(6), 김천(5), 상주(2), 경산(3), 영천(1), 칠곡(4), 성주(1), 구미(1), 고령(1), 청도(3), 군위(1)</td></tr> <tr> <td>경남</td><td>9</td><td>63</td><td>창원(13), 진주(22), 통영(1), 김해(7), 밀양(5), 양산(7), 창원(1), 하동(2), 거창(5)</td></tr> <tr> <td>제주</td><td>1</td><td>9</td><td>제주(9)</td></tr> <tr> <td>세종</td><td>1</td><td>3</td><td>세종(3)</td></tr> <tr> <td>합계</td><td>120</td><td>898</td><td>120개 시·군·구 / 898개 업체</td></tr> </table> <div> <div>* '문화재 매매업 허가 현황'에 대한 통계수치는 매년 6월 집계됨</div> </div> </div>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시도	시·군·구	업체	허가업체 현황	서울	11	251	종로(108), 동대문(110), 중구(14), 서초(5), 구로(2), 마포(1), 성북(1), 은평(1), 강남(7), 금천(1), 강동(1)	부산	11	66	중구(21), 수영(10), 서구(7), 기장(11), 해운대(5), 연제(3), 금정(1), 부산진(2), 남구(3), 동구(1), 강서구(1)	대구	7	97	남구(47), 중구(28), 수성(9), 동구(6), 달서(2), 달성(1), 북구(4)	인천	2	2	중구(1), 남동구(1)	광주	3	30	동구(20), 북구(9), 서구(1)	대전	5	39	동구(17), 유성(8), 서구(4), 중구(7), 대덕(3)	울산	2	8	남구(3), 울주(5)	경기	21	68	수원(9), 고양(2), 성남(2), 용인(5), 안산(2), 남양주(4), 화성(5), 의정부(1), 김포(3), 광명(1), 광주(7), 군포(1), 이천(3), 양주(1), 포천(3), 의왕(1), 여주(3), 양평(9), 오산(2), 평택(2), 하남(2),	강원	4	14	춘천(6), 원주(5), 강릉(2), 속초(1)	충북	5	58	충주(32), 청주(21), 음성(5), 옥천(3), 제천(3)	충남	10	33	공주(8), 천안(5), 부여(7), 아산(2), 논산(5), 서산(1), 보령(1), 당진(2), 서천(1), 계룡(1)	전북	9	68	전주(33), 남원(9), 익산(10), 부안(7), 완주(3), 정읍(3), 순창(1), 고창(1), 무주(1)	전남	5	16	순천(9), 목포(3), 해남(2), 나주(1), 보성(1)	경북	14	73	경주(18), 안동(19), 포항(5), 영주(4), 문경(6), 김천(5), 상주(2), 경산(3), 영천(1), 칠곡(4), 성주(1), 구미(1), 고령(1), 청도(3), 군위(1)	경남	9	63	창원(13), 진주(22), 통영(1), 김해(7), 밀양(5), 양산(7), 창원(1), 하동(2), 거창(5)	제주	1	9	제주(9)	세종	1	3	세종(3)	합계	120	898	120개 시·군·구 / 898개 업체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																																																																																	
시도	시·군·구	업체	허가업체 현황																																																																														
서울	11	251	종로(108), 동대문(110), 중구(14), 서초(5), 구로(2), 마포(1), 성북(1), 은평(1), 강남(7), 금천(1), 강동(1)																																																																														
부산	11	66	중구(21), 수영(10), 서구(7), 기장(11), 해운대(5), 연제(3), 금정(1), 부산진(2), 남구(3), 동구(1), 강서구(1)																																																																														
대구	7	97	남구(47), 중구(28), 수성(9), 동구(6), 달서(2), 달성(1), 북구(4)																																																																														
인천	2	2	중구(1), 남동구(1)																																																																														
광주	3	30	동구(20), 북구(9), 서구(1)																																																																														
대전	5	39	동구(17), 유성(8), 서구(4), 중구(7), 대덕(3)																																																																														
울산	2	8	남구(3), 울주(5)																																																																														
경기	21	68	수원(9), 고양(2), 성남(2), 용인(5), 안산(2), 남양주(4), 화성(5), 의정부(1), 김포(3), 광명(1), 광주(7), 군포(1), 이천(3), 양주(1), 포천(3), 의왕(1), 여주(3), 양평(9), 오산(2), 평택(2), 하남(2),																																																																														
강원	4	14	춘천(6), 원주(5), 강릉(2), 속초(1)																																																																														
충북	5	58	충주(32), 청주(21), 음성(5), 옥천(3), 제천(3)																																																																														
충남	10	33	공주(8), 천안(5), 부여(7), 아산(2), 논산(5), 서산(1), 보령(1), 당진(2), 서천(1), 계룡(1)																																																																														
전북	9	68	전주(33), 남원(9), 익산(10), 부안(7), 완주(3), 정읍(3), 순창(1), 고창(1), 무주(1)																																																																														
전남	5	16	순천(9), 목포(3), 해남(2), 나주(1), 보성(1)																																																																														
경북	14	73	경주(18), 안동(19), 포항(5), 영주(4), 문경(6), 김천(5), 상주(2), 경산(3), 영천(1), 칠곡(4), 성주(1), 구미(1), 고령(1), 청도(3), 군위(1)																																																																														
경남	9	63	창원(13), 진주(22), 통영(1), 김해(7), 밀양(5), 양산(7), 창원(1), 하동(2), 거창(5)																																																																														
제주	1	9	제주(9)																																																																														
세종	1	3	세종(3)																																																																														
합계	120	898	120개 시·군·구 / 898개 업체																																																																														
<div> <div>해설</div> </div>	<div> <div>문화재매매업은 문화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하고 있으며, 120개 시·군·구에 898개 업체가 있다. 인구대비 대구에 특히 문화재매매업이 많은 것이 주목할 만하다.</div> </div>																																																																																
<div> <div>관련용어</div> </div>																																																																																	
<div> <div>출처</div> </div>	<div> <div>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div> <div>2. 「2018 문화재연감」</div> </div>																																																																																
<div> <div>관련지표</div> </div>	<div> <div> <div>• 보조지표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div> </div>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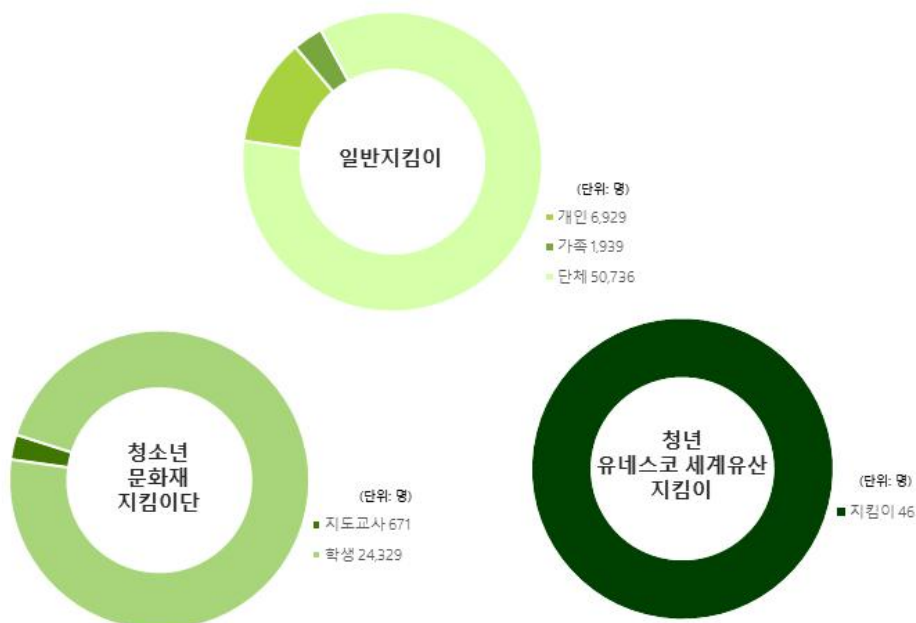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2-1	소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지 표 명	문화재지킴이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지킴이 운동의 국민 참여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민간의 참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지킴이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유산교육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및 필요시 설문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지킴이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지킴이 운영 현황 (단위: 명)									
구분	일반지킴이				청소년 문화재 지킴이단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합계
	개인	가족	단체	계	지도교사	학생	소계		
활동인원	6,929	1,939	50,736	59,604	671	24,329	25,000	46	84,650

해설

2017년 12월 현재 개인, 가족, 단체지킴이가 59,604명,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 25,000명, 청년유네스코세계유산지킴이 46명 등 총 84,650명이 활동하였다.

문화재지킴이란 개인, 가족, 단체별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와 결연하여 정기적·지속적으로 문화재의 보존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을 수행하는 활동을 말하며, 2005년 4월 처음 위촉되었다. 문화재청은 개인, 가족 외에도 기업 및 계층별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데,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노력을 문화재보호와 연결시키는 ‘문화재지킴이’ 기업 협약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의 문화재분야 사회공헌 참여를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9년 7월 청소년문화재지킴이단을 발족하여 2017년에는 지도교사 671명과 24,329명의 청소년이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운영한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운영사업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문화재 사랑 운동을 전개하여, 젊은 계층의 문화재 보호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문화유산 대학생 대표 프로그램으로, 201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46명, 11개 팀)를 배출하였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지킴이 : 문화재지킴이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하여 개인, 가족, 단체별로 지역에 소재한 문화재와 결합함으로써 정기적·지속적으로 문화재 보존상태 모니터링 및 문화재 주변 정화활동 등을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함. 문화재청은 2004년 11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4월부터 문화재지킴이를 위촉했음. 2017년 12월 31일 현재 19,546건(84,650명 활동)의 문화재지킴이가 활동 중에 있음</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a href="https://jikimi.cha.go.kr">https://jikimi.cha.go.kr</a>)</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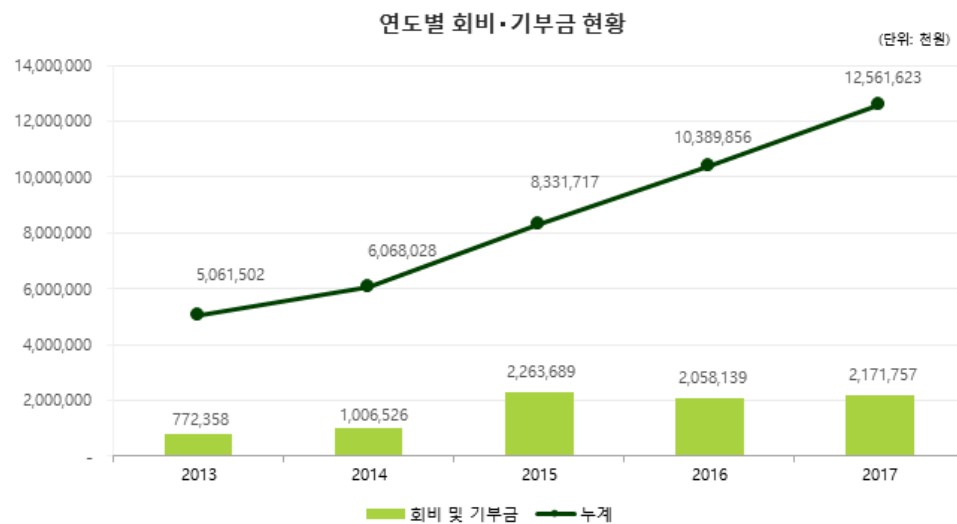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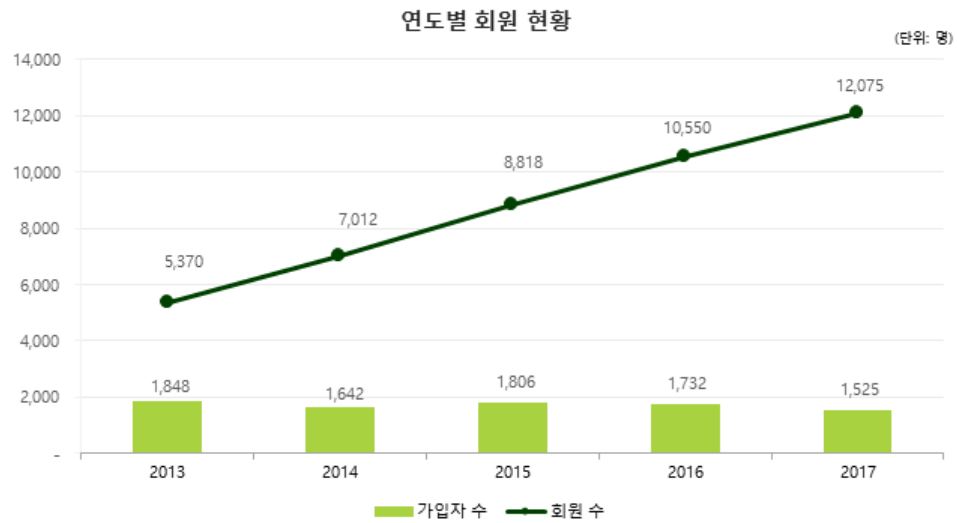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1-2-2	소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지 표 명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유산국민신탁에 가입된 회원과 신탁이 연간 모금한 기부금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문화유산국민신탁 가입 회원과 연각 기부금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유산교육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및 필요시 면담조사
	조사 표본	문화유산 국민신탁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연도별 회원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가입자수	1,848	1,642	1,806	1,732	1,525
회원수	5,370	7,012	8,818	10,550	12,075

연도별 회비·기부금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회비 및 기부금	772,358	1,006,526	2,263,689	2,058,139	2,171,757
누계	5,061,502	6,068,028	8,331,717	10,389,856	12,561,623



해설	<p>국민신탁은 국민신탁법인(수탁자)이 국민·기업·단체 등(신탁자)으로부터 기부, 증여 받거나 위탁 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활용해 보전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 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행위를 말한다.</p> <p>2006년 3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약칭: 국민신탁법)이 제정되었고, 보전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국민신탁운동이 본격화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이를 전담으로 하는 특수법인단체인 ‘문화유산국민신탁’이 설립되었다. ‘문화유산국민신탁’은 문화유산 소유자 등과 보전 협약을 체결하고 보존·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한 편 문화유산 매입과 보전·관리를 위한 모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p> <p>2017년 문화유산국민신탁의 기부금은 총 2,171,767,224원 이었으며, 12,075명의 개인과 23개의 기관이 기금을 기부해왔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국민신탁 : 문화유산국민신탁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보전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나 자연환경자산을 매입하여 보전·관리하는 국민신탁운동을 의미함. 2006년 3월 24일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 법률 제7912호로 공포되었고, 동법 시행령을 대통령령 제19945호로 2007년 3월 22일 공포하여 동년 3월 25일자로 시행됨. 문화재청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각계 민간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된 ‘문화유산국민신탁설립위원회’의 운영을 통해 2007년 3월 20일 창립 총회를 개최하고, 4월 6일 정관 인가 절차를 거쳐 2007년 4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립 등기하여 「문화유산 국민신탁」 법인을 설립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관리</li> <li>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보존관리</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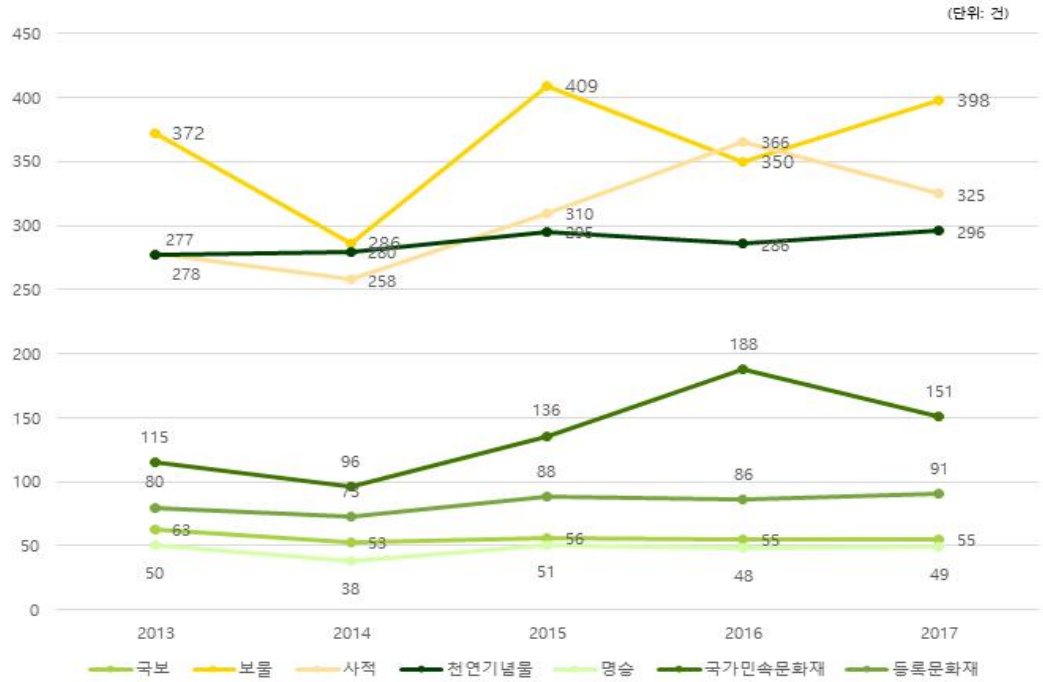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1-1	소관부서		보존정책과
지 표 명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국가민속문화재) 및 등록 문화재의 보수 정비 건수 및 예산 현황			
지표의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보수 정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보존정책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보·보물 보수 정비 현황 (단위: 천, 천원)						
구분	보수 정비 건수			투입 금액		
	국보	보물	계	국비	지방비	계
2013	63	372	435	66,142,151	35,752,065	101,894,216
2014	53	286	339	56,452,684	29,638,674	86,091,358
2015	56	409	465	58,430,226	31,487,815	89,918,041
2016	55	350	405	68,984,241	33,202,103	102,186,344
2017	55	398	453	66,703,600	31,038,171	97,741,771
평균	53	343	396	60,790,733	32,070,451	92,861,184

사적 보수 정비 현황 (단위: 천, 천원)				
구분	보수 정비 건수	투입 금액		
		국비	지방비	계
2013	278	133,959,152	58,149,208	192,108,360
2014	258	139,882,560	61,048,240	200,930,800
2015	310	180,017,430	78,244,899	258,262,329
2016	366	188,743,782	83,389,047	272,132,289
2017	325	167,348,500	75,920,785	243,269,285
평균	307	161,990,285	71,350,436	233,340,613

천연기념물명승 보수 정비 현황 (단위: 천, 천원)						
구분	보수 정비 건수			투입 금액		
	천연기념물	명승	계	국비	지방비	계
2013	277	50	327	25,098,367	10,936,443	36,034,810
2014	280	38	318	22,914,569	11,720,911	34,635,480
2015	295	51	346	24,678,600	11,997,876	36,676,476
2016	286	48	334	27,277,450	11,690,052	38,967,502
2017	296	49	345	30,000,980	12,857,943	42,858,547
평균	287	47	334	25,993,993	11,840,645	37,834,563

	국가민속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보수 정비 건수	투입 금액		
			국비	지방비	계
	2013	115	12,256,480	5,999,920	18,256,400
	2014	96	9,060,437	4,116,016	13,176,453
	2015	136	10,526,440	4,626,034	15,152,474
	2016	188	14,916,398	7,292,171	22,208,569
	2017	151	13,045,620	5,691,177	18,736,597
	평균	137	28,269,075	5,545,064	17,506,099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보수 정비 건수	투입 금액		
			국비	지방비	계
	2013	80	5,543,850	5,543,850	11,087,700
	2014	73	5,489,750	5,489,750	10,979,500
	2015	88	6,347,304	6,347,304	12,694,608
	2016	86	5,078,129	5,078,129	10,156,258
	2017	97	7,401,300	7,680,500	15,081,800
	평균	81	5,764,327	5,810,860	11,575,187
해 설	<p>지난 5년간 국보 및 보물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 1,924건(국보 264건, 보물 1,660건)의 정비사업에 4,594억 원(국비 2,980억 원, 지방비 1,614억 원)을 투입, 동산문화재 보존처리, 건조물 및 석조문화재 원형복원·보존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p> <p>지난 5년간 사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총 1,468건의 정비사업에 11,006억 원(국비 7,594억 원, 지방비 3,412억 원)을 투입, 중요문화재 지역 내 사유지 매입·정비, 발굴조사, 멸실·훼손된 문화재 원형 복원, 관람편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천연기념물 및 명승의 원형보존 및 활용을 위해서는 총 1,625건(천연기념물 1,412건, 명승 213건)의 정비사업에 1,759억 원(국비 1,205억 원, 지방비 554억 원)을 투입, 천연기념물 동물 혈통보존 및 서식지 정비, 식물문화재 생육환경 개선, 화석 보존처리 및 명승 경관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다.</p> <p>지난 5년간 국가민속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총 670건의 정비사업에 828억 원(국비 563억 원, 지방비 265억 원)을 투입, 고가옥 보수·정비, 민속마을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 등록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지난 5년간 총 386건의 정비사업에 544억 원(국비 217억 원, 지방비 217억 원)을 투입, 주요건물 보수·정비, 모니터링, 활용기반시설 등을 구축하였다.</p>				
관련용어					
출 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li> <li>• 보조지표 :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li> <li>• 보조지표 : 4대궁 및 종묘 보수 정비 현황</li> <li>• 보조지표 : 능·원 보수정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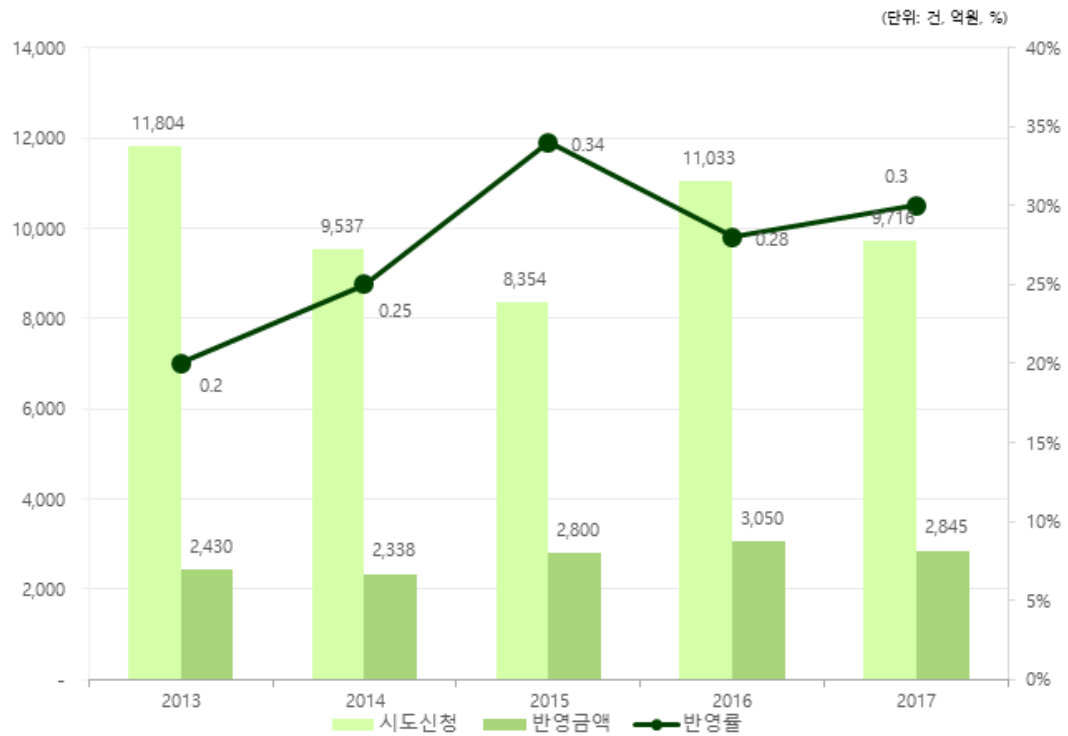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1-2	소관부서		보존정책과
지 표 명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각 시·도에 소재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난 5년간 시·도가 요청한 보수정비 예산에 대한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 현황			
지표의의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방지를 위한 보수정리를 위한 예산지출과 지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보존정책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연도별 시도 요구 및 예산 반영추이 (단위 : 건, 억원, %)						
연도별	시도 신청		반영		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청대비 반영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3	1,788	11,804	1,235	2,430	20.6	21.4
2014	1,518	9,537	1,081	2,338	24.5	△3.8
2015	1,867	8,354	1,345	2,800	33.5	19.8
2016	2,017	11,033	1,379	3,050	27.6	8.9
2017	2,058	9,716	1,371	2,845	29.3	△6.7
계	1,788	9,586	1,244	2,578	26.9	

해설

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방지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보수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시도별 요구에 대하여 문화재청이 지원한 예산은 평균 2,524억 원이었으며, 신청대비 반영률은 평균 25.5%이었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li> <li>• 국보 :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것</li> <li>• 보물 : 건조물,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중요한 것</li> <li>• 건조물문화재 : 건조물(建造物)은 지어 만들거나 세운 물건을 통칭하며, 일반적으로는 가옥, 창고, 건물 등 주거생활과 관련이 있으나 문화재 분야에서는 이 외에도 석탑, 석불, 암각화, 각석 등을 포함하고 있음. 법에서는 건조물문화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li> <li>• 석조 : 돌로 만든 물건이나 건조물을 의미함. 석조문화재는 관천대·굴뚝·당간·마애불·석굴·석등·탑 등 주로 건조물이 많으며 매우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화강암·안산암·대리암·사암·응회암·점판암 등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중 화강암으로 조성된 석조유물이 가장 많음</li> <li>• 목조 : 나무로 만든 물건이나 건조물을 의미함. 목조문화재는 주로 궁궐건축·사찰건축·서원·향교·불상·불감·가구 등의 건조물 및 공예품 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나는 다양한 나무를 이용해 만들어졌는데 특히 건조물에 서는 소나무, 가구에서는 느티나무 등이 좋은 재료로 쓰였음</li> <li>• 등록문화재 :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등록한 것. 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은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 이상 지난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 중에서도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음(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4조①항)</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li> <li>• 보조지표 :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li> <li>• 보조지표 : 4대궁 및 종묘 보수정비 현황</li> <li>• 보조지표 : 능·원 보수정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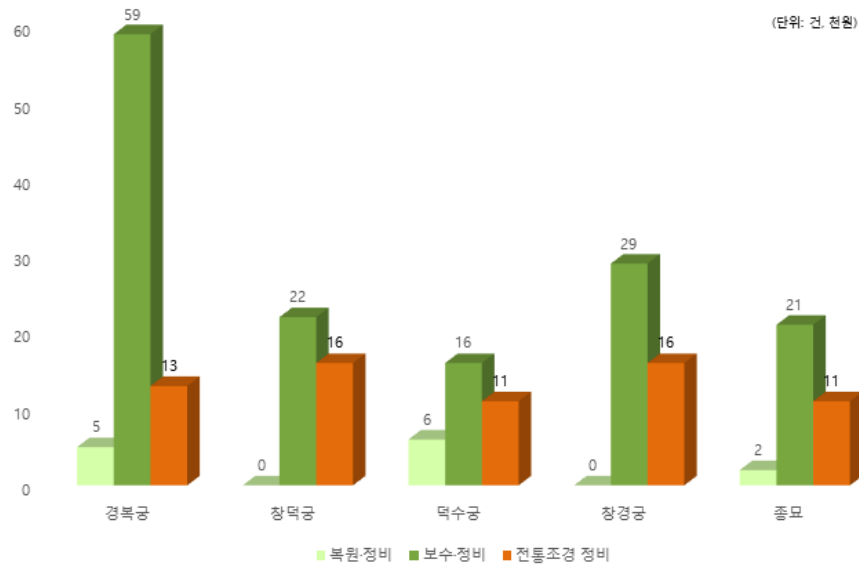
관리번호	관리 4-2-1-3	소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지 표 명	4대궁 및 종묘 보수 정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조선의 4대 왕궁 및 종묘에 대한 복원 및 보수정비 추진 현황			
지표의의	조선의 4대 왕궁의 원형보존과 보수정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4대궁 및 종묘 보수정비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궁능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4대궁 및 종묘 보수정비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궁 복원 정비 및 보수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계
복원·정비	건수	5	-	6	-	2	13
	사업비	4,800,000	-	2,291,000	0	1,300,000	8,391,000
보수·정비	건수	59	22	16	29	21	147
	사업비	345,104	1,065,377	671,982	1,779,985	965,797	4,828,245
전통조경 정비	건수	13	16	11	16	11	67
	사업비	198,815	181,460	183,818	104,225	91,750	760,068
합계	건수	77	38	33	45	34	227
	사업비	5,343,919	1,246,837	3,146,800	1,884,210	2,357,547	13,979,313

해설

문화재청은 건립 후 오랜 기간이 경과되어 노후 되었거나 일제에 의해 훼손·변형된 조선 왕궁에 대한 복원 및 보수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조선왕궁의 기본 궁제를 복원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세계유산으로 조성하여 역사 교육 및 문화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함이다.

1986년 창경궁의 일부 시설을 복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던 4대궁 정비 및 보수사업은 1990년 경복궁, 1991년 창덕궁으로 확대되었다. 2017년 4대 궁의 복원 정비 및 보수에 들어간 예산은 총 13,979,313천원이었으며, 사업 건수는 모두 227건이었다.

관련용어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 주요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
- 보조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
- 보조지표 : 능·원 보수정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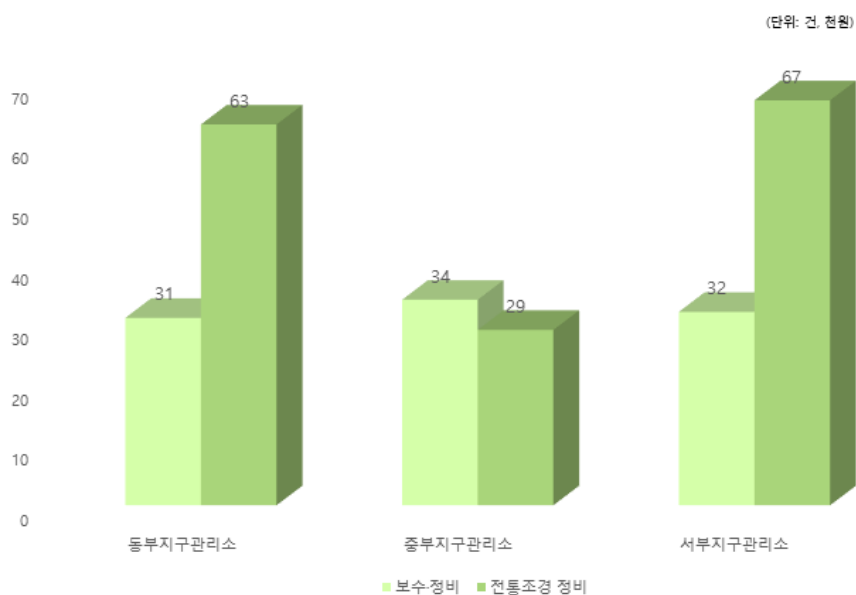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1-4	소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지 표 명	능·원 보수정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118기의 능·원·묘에 대한 보수정비 현황			
지표의의	조선왕릉 기본능제의 원형보존과 능력의 경관유지 사업 및 보수 정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능·원 보수정비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궁능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능·원 보수정비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능·원 보수 현황 (단위: 건, 천원)						
구분		동부지구관리소	중부지구관리소	서부지구관리소	공동사업	계
보수·정비	건수	31	34	32	0	97
	사업비	1,944,614	288,962	2,751,637	0	4,985,213
전통조경 정비	건수	63	29	67	0	159
	사업비	2,520,631	752,905	1,739,490	0	5,013,026
합계	건수	94	63	99	0	256
	사업비	4,465,245	1,041,867	4,491,127	0	9,998,239

해설

능원(陵園)은 조영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묘제상 특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조선왕릉 기본능 제의 원형보존과 능역의 경관유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2017년 능·원 보수정비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총 9,998,239천원이었으며, 사업 건수는 모두 256건이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陵) : 왕과 왕비의 무덤. 한국의 왕릉은 삼국시대인 고구려·백제·신라의 무덤 양식이 각기 달랐는데, 통일신라 때에 왕릉 형식의 기본이 이루어지면서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봉토(封土)에 호석(護石)을 둘러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새기고, 주위에 석난간(石欄干)을 두르며,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석사자(石獅子)를 세우는 신라능묘 제도는 흥덕왕릉대에 이루어짐. 고려는 대체로 신라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으나,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및 정자각을 세우고 봉분 주위에 석양, 석호를 배치하는 것 등이 다름. 대부분의 고려 왕릉들이 북한에 소재하여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나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와 자신을 위해 조영한 정릉(개풍군 중서면 여릉리, 1365)과 현릉(1374)이 조선시대 왕릉형식의 표준이 된 것으로 알려짐</li> <li>• 원(園) : 왕세자나 왕세자빈 같은 왕족, 즉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li> <li>• 묘(墓) : 묘는 조상·성인·신(神)·신주(神主)·위판(位版)·영정(影幀) 따위를 모신 사당. 종묘·문묘를 통틀어 이룸.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임. 묘는 태조 3년(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음</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 현황</li> <li>• 주요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현황</li> <li>• 보조지표 : 4대궁 및 종묘 보수 정비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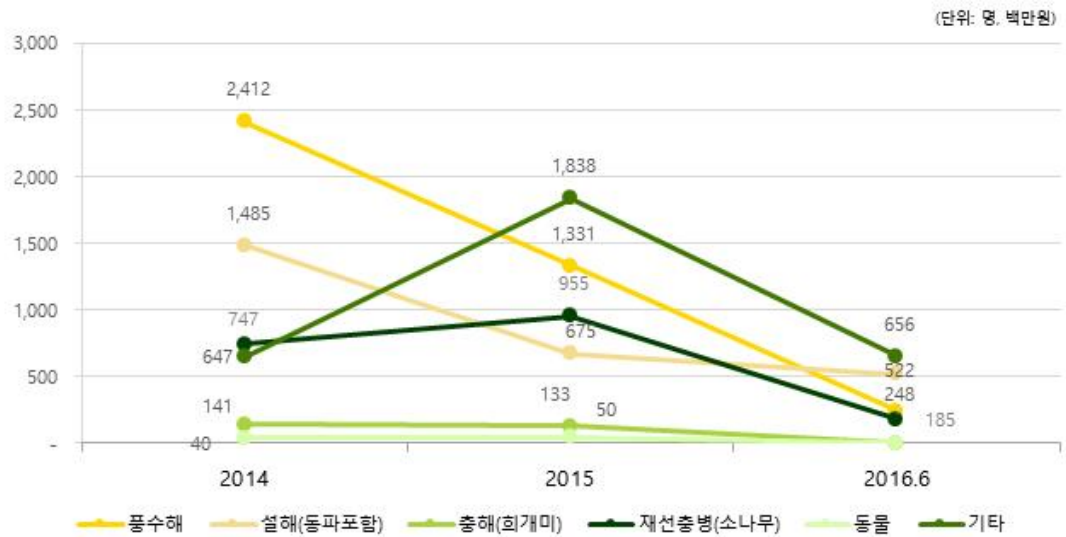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1-5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풍수해, 설해, 충해, 동물 등 재해피해 원인별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재해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긴급보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재해 피해 문화재 긴급보수 현황							
연도	예산			지원현황			비고
	국비	지방비	합계	피해원인	건수	지원액(국비)	
2013	5,000	-	5,000	풍 수 해	18	2,523	문화재 보호기금 (국비 100%)
				설해(동과포함)	9	766	
				충 해	12	1,083	
				동 물	-	-	
				기 타	14	628	
				계	53	5,000	
2014	5,472	-	5,472	풍 수 해	25	2,412	문화재 보호기금 (국비 100%)
				설해(동과포함)	23	1,485	
				충해( 흰 개 미 )	5	141	
				재선충병(스나무)	7	747	
				동 물	2	40	
				기 타	16	647	
2015	4,982	-	4,982	풍 수 해	12	1,331	문화재 보호기금 (국비 100%)
				설해(동과포함)	7	675	
				충해( 흰 개 미 )	7	133	
				재선충병(스나무)	7	955	
				동 물	1	50	
				기 타	48	1,838	
2016	8,232	659	8,891	풍 수 해	35	2,109	문화재 보호기금 (국비 100%)
				설해(동과포함)	9	417	
				충해( 흰 개 미 )	-	-	
				재선충병(스나무)	4	1,230	
				동 물	1	25	
				기타(지진 등)	61	4,451	
2017	4,514	464	4,978	풍 수 해	7	520	문화재 보호기금 (국비 100%)
				설해(동과포함)	1	100	
				충해( 흰 개 미 )	4	160	
				재선충병(스나무)	3	1,650	
				동 물	-	-	
				기 타	31	2,084	
계	46	4,514					

해 설

풍수해·설해·충해 등 재해피해로 인한 문화재 긴급 보수를 위해 지난 5년간 총 293억 2천 3백만 원, 연평균 58억 6천여만 원을 투입하였다. 이중 2016년도 9월에는 경주지역에 규모 5.8 지진이 발생하여 인근 지역 문화재 피해가 발생하여 35억 원을, 2017년도 11월에는 포항지역에 규모 5.4 지진이 발생하여 6억 원을 투입하여 긴급 보수하였다.

관련용어

출 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 보조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 예산현황
- 보조지표 : 문화재 보수 정비현황
- 보조지표 : 4대궁 및 종묘 보수 정비 현황
- 보조지표 : 능·원 보수정비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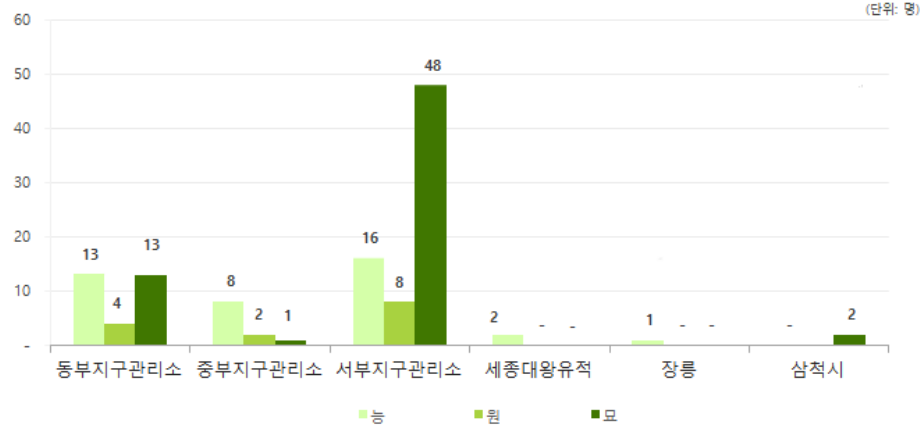
관리번호	관리 4-2-2-1	소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지 표 명	비공개 능·원·묘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66기 비공개 능·원·묘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로 관리되고 있는 능·원·묘는 총 118기 중, 66기 비공개 능·원·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비공개 능·원·묘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궁능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비공개 능·원·묘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비공개 능·원·묘 현황						
관리기관	소재지	지정연적 (단위: m <sup>2</sup> )	능	원	묘	합계
동부 지구 관리소	구리시	1,977,550	건원릉, 현릉, 목릉, 휘릉, 송릉, 혜릉, 원릉, 수릉 경릉(景陵)		명빈묘(비)	묘1
	남양주시	423,659		순강원(비)	의창군묘(비)	원1, 묘1
		1,231,751.1	광릉	취경원(비)	영빈묘(비)	원1, 묘1
		1,276,928	홍릉(洪陵), 유릉	영원 회인원	의친왕묘, 덕혜옹주묘, 광희당묘(비), 삼축당묘(비), 수인당묘(비), 귀인장씨묘(비), 수관당묘(비)	묘5
		223,387	사릉		광해군묘(비) 성묘(비) 안빈묘(비)	묘3
중부 지구 관리소	서울 노원구	1,619,903	태릉, 강릉			
	서울 동대문구	55,015		영취원, 송인원		
	서울 도봉구	14,301			연산군묘	
	서울 성북구	297,798	정릉(貞陵)			
	서울 성북구	434,386	의릉			
	서울 강남구	240,589.4	선릉, 정릉(靖陵)			
	서울 서초구	1,057,646	현릉, 인릉			
서부 지구 관리소	고양시	1,870,267	창릉, 경릉(敬陵), 영릉, 익릉, 홍릉(弘陵)	순창원, 수경원	대빈묘	
		1,361,665	희릉, 예릉, 효릉(비)	의정원, 효장원 수경원(비)	희묘, 경선군묘 등 47기(비) ※태실 54기(비)	능1, 원1, 묘47, 태실 54기
	양주시	211,848	운릉(비)			능1
	광명시	33,163		영회원(비)		원1
	화성시	842,662	용릉, 건릉			
	파주시	1,318,078.4	공릉, 순릉, 영릉(永陵)			
		414,427	장릉(襄陵, 시범개방)			
		535,262		수경원(비) 수길원(비)		원2
	김포시	522,297	장릉(章陵)			
	경기도 여주시	2,133,511	영릉(英陵), 영릉(寧陵)			
세종대 왕유적	강원도 영월군	50,545	장릉(莊陵)			
장릉	강원도 삼척시	65,154			준경묘, 영경묘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합계			40	14	64	능2, 원6 묘68

해설

118기 중 비공개 능·원·묘는 66기로 능이 2기, 원이 6기, 묘가 58기이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능(陵) : 왕과 왕비의 무덤. 한국의 왕릉은 삼국시대인 고구려·백제·신라의 무덤 양식이 각기 달랐는데, 통일신라 때에 왕릉 형식의 기본이 이루어지면서 고려·조선시대로 이어짐. 무덤 앞에 비석을 세우고, 봉토(封土)에 호석(護石)을 둘러 십이지신상(十二支神像)을 새기고, 주위에 석난간(石欄干)을 두르며, 문인석(文人石), 무인석(武人石), 석사자(石獅子)를 세우는 신라능묘 제도는 흥덕왕릉대에 이루어짐. 고려는 대체로 신라의 양식을 그대로 따랐으나,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 및 정자각을 세우고 봉분 주위에 석양, 석호를 배치하는 것 등이 다름. 대부분의 고려 왕릉들이 북한에 소재하여 학문적인 연구가 부족하나 공민왕이 노국대장공주와 자신을 위해 조영한 정릉(개풍군 중서면 여룡리, 1365)과 현릉(1374)이 조선시대 왕릉형식의 표준이 된 것으로 알려짐</li> <li>• 원(園) : 왕세자나 왕세자빈 같은 왕족, 즉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li> <li>• 묘(墓) : 묘는 조상·성인·신(神)·신주(神主)·위판(位版)·영정(影幀) 따위를 모신 사당. 종묘·문묘를 통틀어 이룸. 종묘는 조선왕조 역대 왕과 왕비 및 추존된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유교사당으로서 가장 정제되고 장엄한 건축물 중의 하나임. 묘는 태조 3년(1394) 10월 조선 왕조가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그해 12월에 착공하여 이듬해 9월에 완공하였으며, 곧이어 개성으로부터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의 신주를 모셨음</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능·원 보수정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2-2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사업 추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시설구축 현황			
지표의의	우리나라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중요목조문화재의 방재시설 구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사업 추진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사업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연도	건수	국비 (백만원)
2013	151	7,417
2014	113	6,268
2015	206	8,307
2016	262	8,069
2017	174	8,358

통계표

방재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국비)	건수	사업비 (국비)	건수	사업비 (국비)	건수	사업비 (국비)	건수	사업비 (국비)	건수
재난방지시설 (소방, 전기, 방범)	6,307	73	4,789	54	6,322	147	5,751	169	7,483	142
방충사업	374	10	1,282	40	1,247	24	683	22	733	27
방염제도포	736	68	197	19	738	35	1,635	71	142	5
계	7,417	151	6,268	113	8,307	206	8,069	262	8,358	174

해설

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훼손되기 쉬운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각종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있다.

방재시설의 대상은 승례문 및 궁·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중요목조문화재이다. 방재시설은 소화전, 소화기, 경보시설, CCTV, 전기설비, 방충, 방염제도포가 주를 이룬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908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하였다.

관련용어

- 중요목조문화재 : 중요목조문화재는 건조물 중 목재로 제작된 문화재 중,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말함. 사찰, 궁궐, 성곽, 향교, 누·정·각, 사묘재실 등이 있음

출처

-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 「2018 문화재연감」
- 국가통계포털(KOSIS)

관련지표

- 주요지표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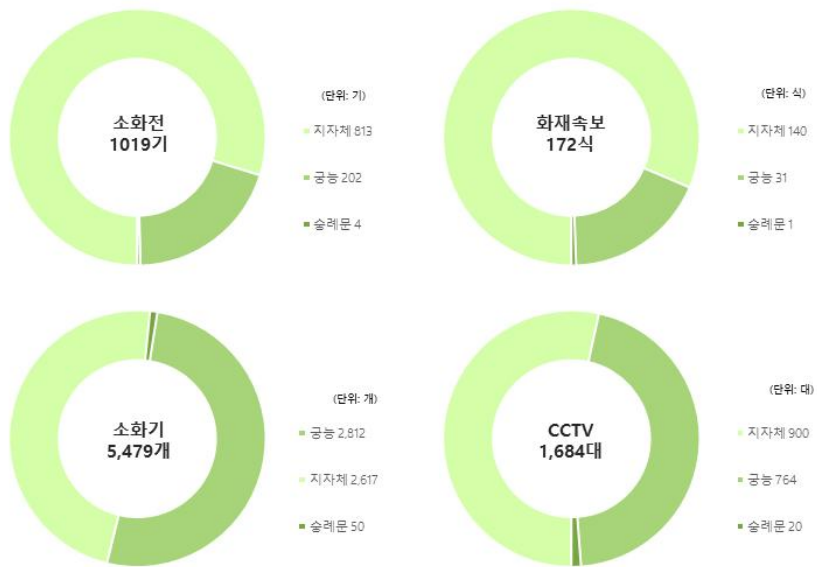
관리번호	관리 4-2-2-3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전국 중요목조문화재의 소화전, 소화기, 화재속보, CCTV 등 방재시설 현황 및 지난 5년 간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원 배치 현황			
지표의의	훼손되기 쉬운 중요목조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방재 시설 및 안전관리원 배치 현황 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중요목조문화재 방재 인프라 구축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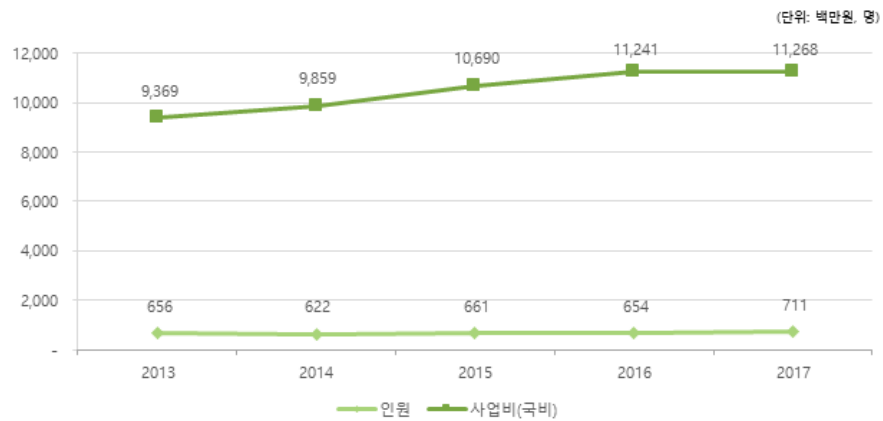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방재시설]



[안전관리원 배치]



통계표

방재시설현황 (단위: 건, 개, 식, 대)

구분	소화전 등	소화기	화재속보 (경보설비)	CCTV
지자체 (148)	813	2,617	140	900
공·능 (31)	202	2,812	31	764
승례문 (1)	4	50	1	20
합계 (180)	1,019	5,479	172	1,684

안전관리원 배치 (단위: 백만원, 명)

2013		2014		2015		2016		2017	
사업비 (국비)	인원	사업비 (국비)	인원	사업비 (국비)	인원	사업비 (국비)	인원	사업비 (국비)	인원
9,369	656	9,859	622	10,690	661	11,241	654	11,268	711

해설	<p>문화재청은 우리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훼손되기 쉬운 중요목조문화재에 대하여 각종 방재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있다.</p> <p>2017년 안전관리원은 711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54명 증원되었다. 방재시설의 대상은 승례문 및 궁·능,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중요목조문화재이다.</p> <p>방재시설은 소화전, 소화기, 경보시설, CCTV, 전기설비, 방충, 방염제도포가 주를 이룬다.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시설 구축 등을 위해 최근 5년간 총 908억 4천 6백만 원을 투입하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요목조문화재 : 중요목조문화재는 건조물 중 목재로 제작된 문화재 중, 국가지정 목조문화재를 말함. 사찰, 궁궐, 성곽, 향교, 누·정·각, 사묘재실 등이 있음</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국가통계포털(KOSIS)</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중요목조문화재 방재사업 추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2-4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지 표 명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2003년부터 연도별로 진행된 동산문화재 다량보관시설의 훈증소독 추진 현황			
지표의의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동산문화재에 대한 연도별 훈증소독 추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p>[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p> <p>(단위: 건)</p>  <p>■ 훈증소독처</p> <table><thead><tr><th>연도</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r></thead><tbody><tr><td>훈증소독처 (건)</td><td>15</td><td>11</td><td>6</td><td>8</td><td>16</td></tr></tbody></table>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훈증소독처 (건)	15	11	6	8	16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훈증소독처 (건)	15	11	6	8	16														
통계표	<table><thead><tr><th colspan="6">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단위: 건)</th></tr><tr><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합계</th></tr></thead><tbody><tr><td>15</td><td>11</td><td>6</td><td>8</td><td>16</td><td>56</td></tr></tbody></table>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5	11	6	8	16	56
다량보관시설 훈증소독사업 현황 (단위: 건)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15	11	6	8	16	56														
해설	<p>서화류·섬유류·목재류 등 다양한 재질의 동산문화재를 다량보관하고 있는 사찰·문중 등의 동산문화재 다량 보관시설의 충·균 등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6년까지 173개소를 대상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하였고, 2017년에는 16개소를 추진하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동산문화재 : 동산문화재는 문화재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일반동산문화재)를 의미함. 일반동산문화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회화(전통, 근대, 불교, 종교), 조각(일반, 불교, 근대), 석조물, 공예(일반, 불교, 유교, 도자), 전적류, 고문서류, 서간류, 서각류,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 외국문화재</li></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li>「2018 문화재연감」</li></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조지표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li></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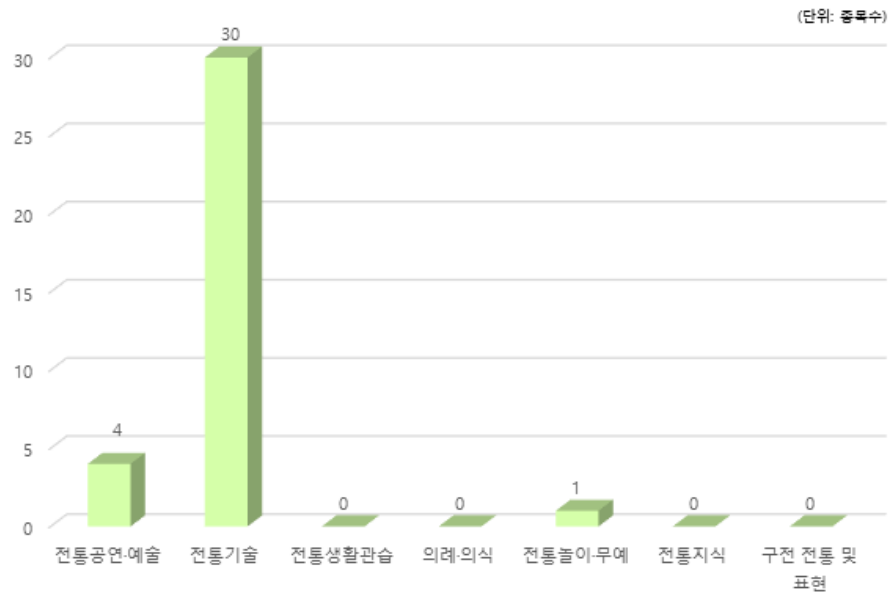
관리번호	관리 4-2-2-5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전승보급 활동 및 활성화가 어려운 전승 취약종목 현황			
지표의의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승취약종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전승취약종목 현황]



통계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 (단위: 개)		
구분	종목수	종목명
전통공연·예술	4	서도소리, 가곡, 가사, 발탈
전통기술	30	갓질, 한산모시짜기, 매듭장, 나주의셋골나이, 낙죽장, 곡성의돌실나이, 조각장, 궁시장, 채상장, 장도장, 백동연죽장, 망건장, 탕건장, 입사장, 바디장, 침선장, 제와장, 전통장, 소반장, 금속활자장, 완초장, 누비장, 화각장, 윤도장, 염장, 염색장, 화해장, 금박장, 궁중채화, 전자장
전통생활관습	-	
의례·의식	-	
전통놀이·무예	1	줄타기
전통지식	-	
구전 전통 및 표현	-	
합계	38	

해설

2017년 12월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중 전승취약종목으로 지정한 종목 수는 총 38개 종목이다. 전승취약종목은 종목 전승을 위한 안정기반, 경제적 자립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타 종목과 비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을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어 왔다.

문화재청은 기본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기획행사 지원, 전통공예 활성화사업 지원, 전승취약종목 보호 및 우리 공예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공예분야 전승자 작품 구입 및 활용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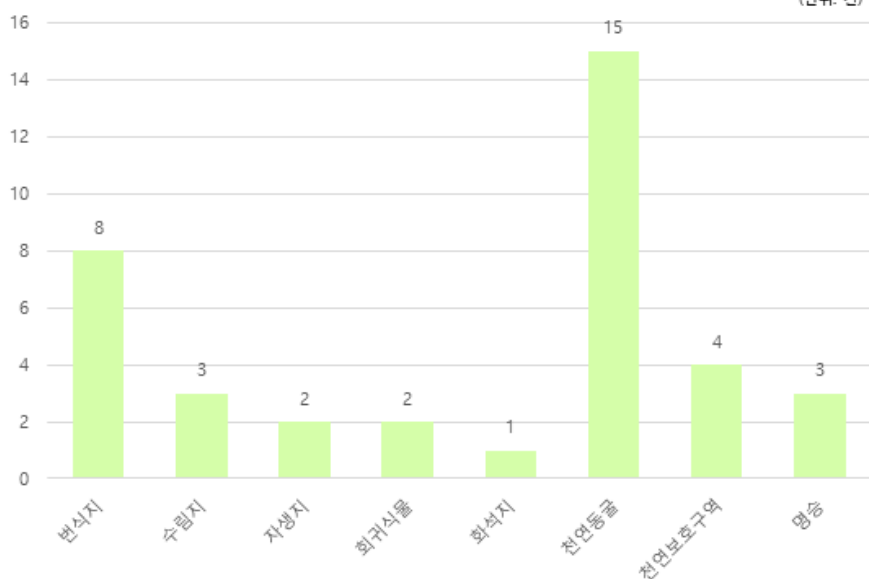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 가운데 그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로 시·도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와 구별됨. 문화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음</li> <li>• 전승취약종목 :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전승 중인 종목을 대상으로 전승취약종목을 선정해 이에 해당되지 않는 종목에 비하여 전승지원금 추가 보조, 전승자 발굴 지원 등 보다 세밀한 관리를 하고 있음. 전승취약종목 선정은 안정기반(전승 인적기반 현황, 사회적 인적 기반), 자립도(종목의 사회적 수요도, 종목의 경제적 자립도), 전승환경(전승 환경 특성도), 지속 및 발전가능성(대중적 인지도 및 관심도, 정부 및 기업의 기여도, 향후 종목 발전가능도)의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함</li> <li>•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소멸할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재를 의미함. 문화재청장은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예술적, 기술적, 과학적 연구</li> <li>2. 전승자 발굴</li> <li>3.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li> <li>4. 무형문화재의 기록</li> </ol> </li> <li>• 무형문화재 전승 : 무형문화재 전승이란 무형문화를 이어받아 계승함. 또는 그것을 물려주어 잇게 하는 것을 말함</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현황</li> <li>• 보조지표 :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2-6	소관부서		천연기념물과
지 표 명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 보호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개가 제한되어 고시된 현황			
지표의의	천연기념물과 명승, 천연보호구역의 보존을 위해 공개가 제한되어 고시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천연기념물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div><p>[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p><p>(단위: 건)</p><table><tr><th>구분</th><th>번식지</th><th>수림지</th><th>자생지</th><th>회귀식물</th><th>화석지</th><th>동굴</th><th>천연동굴</th><th>천연보호구역</th><th>명승</th><th>합계</th></tr><tr><td>현황</td><td>8</td><td>3</td><td>2</td><td>2</td><td>1</td><td>-</td><td>15</td><td>4</td><td>3</td><td>38</td></tr></table></div>	구분	번식지	수림지	자생지	회귀식물	화석지	동굴	천연동굴	천연보호구역	명승	합계	현황	8	3	2	2	1	-	15	4	3	38																			
구분	번식지	수림지	자생지	회귀식물	화석지	동굴	천연동굴	천연보호구역	명승	합계																																
현황	8	3	2	2	1	-	15	4	3	38																																
통계표	<table><tr><th colspan="11">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단위: 건)</th></tr><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8">천연기념물</th><th rowspan="2">명승</th><th rowspan="2">합계</th></tr><tr><th>번식지</th><th>수림지</th><th>자생지</th><th>회귀식물</th><th>화석지</th><th>동굴</th><th>천연동굴</th><th>천연보호구역</th></tr><tr><td>현황</td><td>8</td><td>3</td><td>2</td><td>2</td><td>1</td><td>-</td><td>15</td><td>4</td><td>3</td><td>38</td></tr></table>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단위: 건)											구분	천연기념물								명승	합계	번식지	수림지	자생지	회귀식물	화석지	동굴	천연동굴	천연보호구역	현황	8	3	2	2	1	-	15	4	3	38
천연기념물 및 명승 공개제한지역 현황 (단위: 건)																																										
구분	천연기념물								명승	합계																																
	번식지	수림지	자생지	회귀식물	화석지	동굴	천연동굴	천연보호구역																																		
현황	8	3	2	2	1	-	15	4	3	38																																
해설	<p>2016년 기준으로 천연기념물 및 명승에 대한 공개가 제한된 수는 총 37건으로 이 중 약 40%정도가 천연동굴에 해당되었다. 한편 공개된 천연동굴은 11개소가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천연기념물 : 동물(그 서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li><li>명승 :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li></ul>																																									
출처	<p>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p> <p>2. 「2018 문화재연감」</p>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보조지표 :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li><li>보조지표 : 명승 유형별 현황</li></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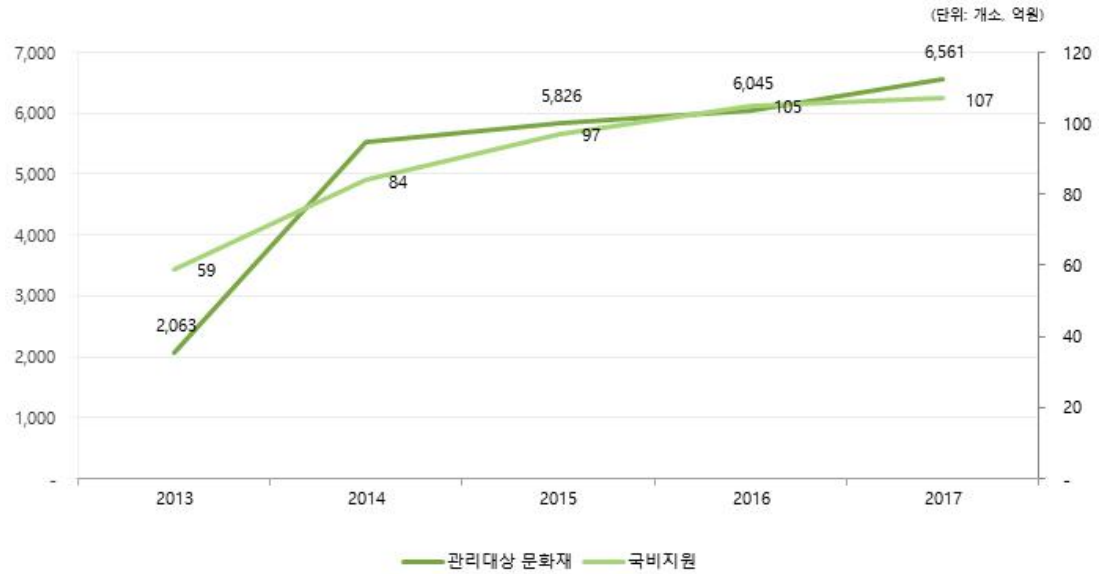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2-7	소관부서		보존정책과
지 표 명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연도별 문화재 돌봄사업의 대상 수, 지원금액, 인력배치 등에 대한 현황			
지표의의	비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를 상시관리하는 주요사업인 문화재 돌봄 사업의 대상과 수, 지원금액, 인력배치 등 문화재를 돌본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보존정책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및 필요시 설문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돌봄사업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2017년 돌봄사업 관리대상문화재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 문화재	등록 문화재	시도유형 문화재	시도 기념물	시도민속 문화재	문화재 자료	비지정 문화재
계	6,561	36	361	287	49	263	175	276	1,089	1,074	223	1,259	1,469
서울	85	2	5	23	1	3	-	14	18	8	9	2	-
부산	70	-	-	2	-	8	-	1	13	38	1	6	1
대구	269	-	13	7	-	2	3	10	47	17	4	42	124
인천	234	-	4	13	1	11	-	1	15	41	-	11	137
광주	174	-	4	2	1	24	-	10	17	-	5	24	87
대전	172	-	-	1	-	1	2	15	15	45	1	37	55
울산	127	2	4	6	-	3	-	5	15	45	-	16	31
세종	85	-	-	-	-	1	1	-	3	10	-	10	60
경기	618	1	26	40	3	12	8	16	95	171	7	115	124
강원	461	2	38	16	9	20	1	33	85	55	3	89	110
충북	518	4	31	15	3	-	15	18	128	120	15	75	94
충남	606	4	26	40	3	11	13	10	69	122	14	162	132
전북	491	3	56	29	2	24	13	39	84	55	18	113	55
전남	670	6	47	16	7	34	33	50	75	110	30	137	125
경북	967	10	68	37	9	33	78	20	99	57	106	268	182
경남	528	2	32	33	5	31	-	12	84	163	10	152	4
제주	486	-	7	7	5	45	8	22	227	17	-	-	148



연도별 문화재 돌봄사업 지원 내역 (단위: 개소, 억원, %, 명)							
구분	단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관리대상문화재	개소	2,063	5,518	5,826	6,045	6,561	7,048
국비 지원	억원	59	84	97	105	107	104
국비 보조율	%	7:3	6:4	6:4	5:5	5:5	5:5
상시고용	명	321	524	593	589	651	659
수시고용	명	2,744	2,360	4,142	2,884	1,000	800

해설	문화재 돌봄사업은 문화재 상시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을 목표로 문화재 훼손부위 경미 보수, 관람환경 개선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로, 2010년 도입되어 점점 관리대상 문화재의 확대와 함께 예산도 증액되고 있는 추세이다. 2018년도에는 전국의 7,048개 문화재를 대상으로 총 104억원이 투입되어 추진 중에 있다. 이처럼 사업 규모가 확대되는 이유는 2010년 5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행한 이후 2013년 전국사업으로 확대되고, 2014년부터는 시도지정문화재까지 관리대상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문화재 돌봄사업은 상시 문화재 관리체계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청장년층의 일자리 사업으로도 기여하고 있다.
	문화재 돌봄사업 : 문화재 모니터링을 통한 훼손부위 경미보수, 관람환경 개선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함. 2010년 문화재 상시 관리를 통한 사전예방을 목표로 2010년 5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되어 2013년 전국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시도지정문화재가 관리대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관리대상문화재가 급증함하여 예산도 같이 증가하게 됨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	--

관련지표	• 보조지표 : 문화재지킴이 현황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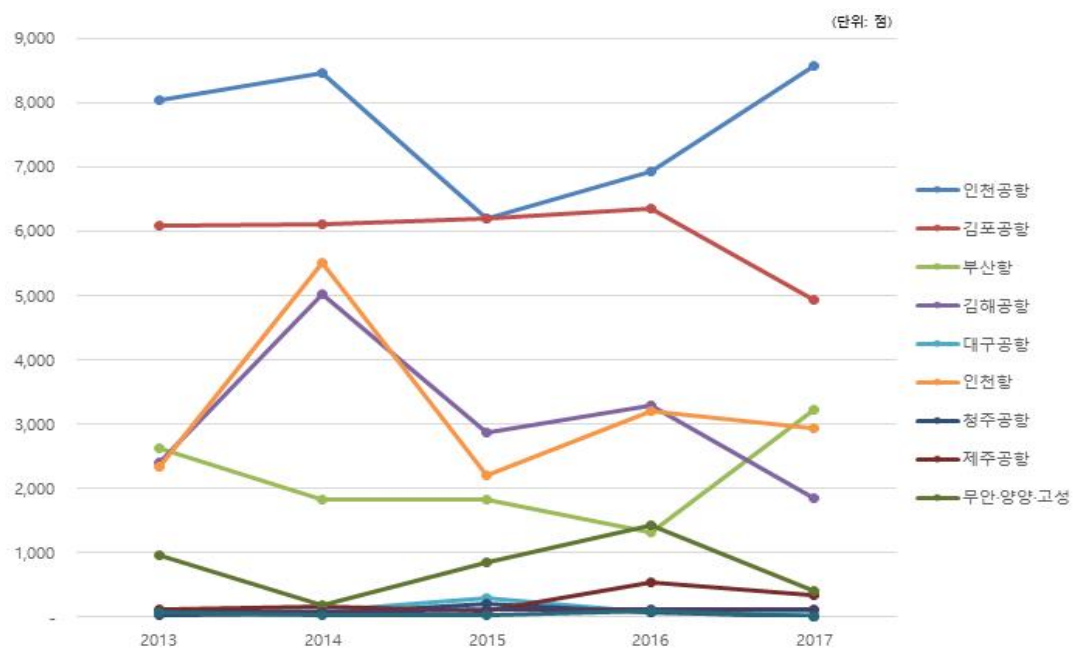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2-8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문화재감정관실에서 확인한 비문화재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감정관실 확인 비문화재에 대해 과거 5년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감정관실 비문화재 확인 현황 (단위:점)												
연도	인천공항 (국제우편 물류센터)	김포공항	부산항 (국제우체 국포항)	김해공항	대구공항	인천항	청주공항	제주공항	무안·양양· 고성	평택·파주	속초·군산· 통해·광양· 제주항 등	계
2013	8,033 (35)	6,081 (21)	2,635 (1)	2,395 (1)	84 (24)	2,331 (96)	24 (6)	121	971	66	69	22,810 (184)
2014	8,460 (35)	6,105 (36)	1,827 (12)	5,013 (45)	101	5,504 (138)	56 (19)	157	189 (2)	81 (16)	26	27,519 (303)
2015	6,207 (2)	6,200 (4)	1,837	2,868 (7)	287	2,203 (2)	203	99	849	125	40	20,918 (15)
2016	6,918 (54)	6,347 (1)	1,315	3,297 (8)	66	3,207	71	545 (1)	1,435	108 (1)	96	23,405 (65)
2017	8,569 (7)	4,932 (9)	3,221 (45)	1,849 (4)	63	2,931 (3)	13	344 (8)	398	118	4	22,442 (76)

\* 인천국제우편물류센터, 부산국제우체국 문화재감정관실에서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비문화재 확인

해설

지난 5년간 18개 문화재감정관실의 비문화재확인 현황은 총 117,094점에 이르며, 국외 반출이 불가능한 일반 동산문화재는 643점이다.

관련용어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 주요지표 : 문화재감정관실 운영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관리 4-2-2-9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1985년 이후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해 문화재의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div><div>[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div><div>(단위: 건, 점)</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도난 29,725</div><div>■ 회수 5,521</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 도굴 87</div><div>■ 도굴 미수 35</div></div></div></div>																																																				
통계표	<table><tr><th colspan="8">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단위: 건, 점)</th></tr><tr><th colspan="2" rowspan="2">구분</th><th colspan="2">지정문화재</th><th colspan="2">비지정</th><th colspan="2">계</th></tr><tr><th>건수</th><th>점수</th><th>건수</th><th>점수</th><th>건수</th><th>점수</th></tr><tr><td rowspan="2">문화재 도난·회수</td><td>도난</td><td>171</td><td>2,303</td><td>567</td><td>27,422</td><td>738</td><td>29,725</td></tr><tr><td>회수</td><td>71</td><td>884</td><td>154</td><td>4,637</td><td>225</td><td>5,521</td></tr><tr><td rowspan="2">도굴·도굴미수</td><td>도굴</td><td>23</td><td>-</td><td>64</td><td>-</td><td>87</td><td>-</td></tr><tr><td>도굴미수</td><td>27</td><td>-</td><td>9</td><td>-</td><td>36</td><td>-</td></tr></table>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단위: 건, 점)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문화재 도난·회수	도난	171	2,303	567	27,422	738	29,725	회수	71	884	154	4,637	225	5,521	도굴·도굴미수	도굴	23	-	64	-	87	-	도굴미수	27	-	9	-	36	-
도난·회수 및 도굴·도굴미수 현황 (단위: 건, 점)																																																					
구분		지정문화재		비지정		계																																															
		건수	점수	건수	점수	건수	점수																																														
문화재 도난·회수	도난	171	2,303	567	27,422	738	29,725																																														
	회수	71	884	154	4,637	225	5,521																																														
도굴·도굴미수	도굴	23	-	64	-	87	-																																														
	도굴미수	27	-	9	-	36	-																																														
해설	<p>문화재청은 도난·도굴 등으로 인한 문화재의 멸실, 훼손 방지를 위한 문화재 사범단속 활동을 하고 있으며, 1985년 이후 우리나라 문화재의 도난·도굴 건수는 총 825건이며, 도난 점수는 총 29,725점이다. 이 중 회수 문화재는 225건 5,521점으로 전체 도난 문화재 중 18.6%가 회수되었다. 그 외 도굴미수는 36건에 이른다.</p>																																																				
관련용어																																																					
출처	<p>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p> <p>2. 「2018 문화재연감」</p>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조지표 : 문화재매매업 허가 현황</li></ul>																																																				

### 4.2.3. 문화유산 활용 지표

#### ■ 대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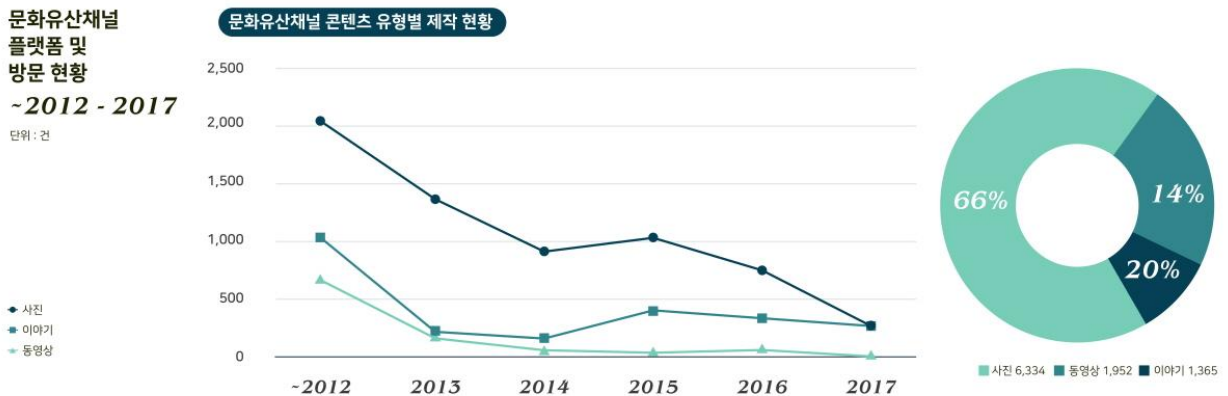
- 대표지표 정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활용기반 및 각종 문화유산 활용사업 현황에 관한 종합적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문화유산 활용 플랫폼 및 콘텐츠 현황, 궁궐 활용프로그램 · 생생문화재 사업 · 향교 및 서원문화재 활용사업 · 문화재야행 사업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등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활용기반 - 플랫폼

#####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및 방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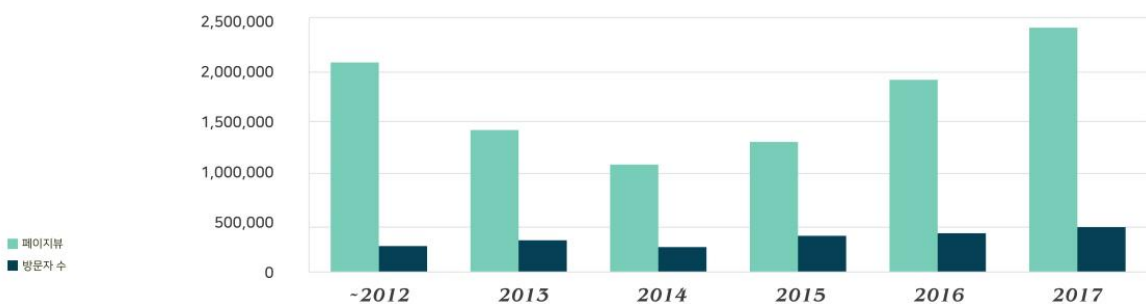
~2012 - 2017

단위: 건



#####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 방문 실적

단위: 뷰, 수



문화유산 활용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플랫폼 및 활용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문화유산채널'이 대표적이며, 오프라인 플랫폼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 대표적이다.

문화유산채널은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을 시작으로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재 발굴현장, 유·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와 역사 이야기를 영상·이야기·사진 등의 멀티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www.k-heritage.tv), 인터넷, 유무선 방송, 이동방송, 공공장소 대형 모니터로 시청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으로 2014년 6월에 '문화유산채널'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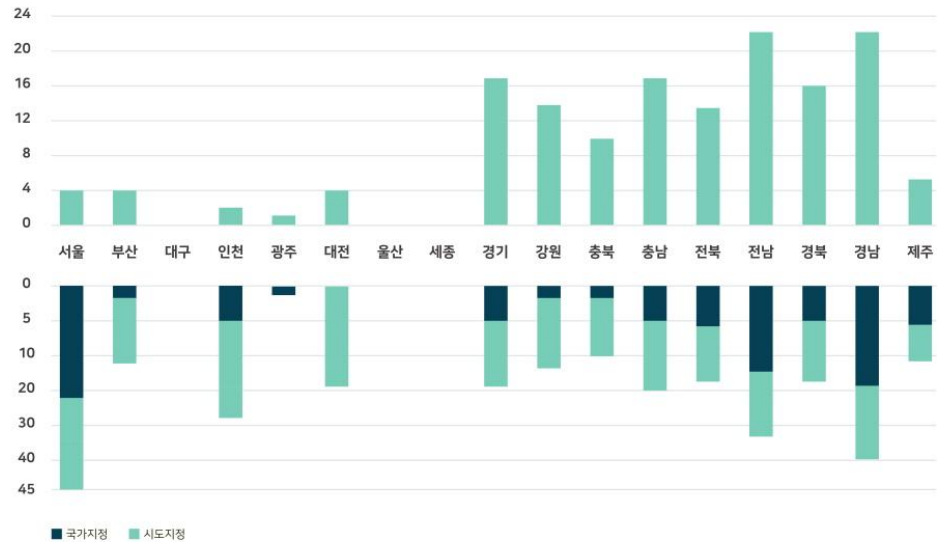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와 휴대용 미디어장치의 발달로 인해 문화유산채널의 방문자수와 조회수 그리고 활용성은 해마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문화유산채널을 방영하는 32개의 플랫폼(홈페이지 포함) 중에서 방문자수 조회가 가능한 8개 플랫폼의 방문조회수를 살펴보면, 3대 플랫폼(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 구글 유튜브, 네이버 지식백과)의 방문자수가 전체방문자수의 약 85%를 차지한다. 청소년부터 노년층까지 인지도가 높은 3대 플랫폼은 방문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접속 가능한 주문형 비디오시스템(VOD)에 집중하고 있다. 그 외 24개 플랫폼은 TV 기반으로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고정돼 있어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 한편,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5%에 가까운 점은 앞으로 VOD 기반의 플랫폼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질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단위 : 교육관 수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입주 종목 현황

단위 : 종목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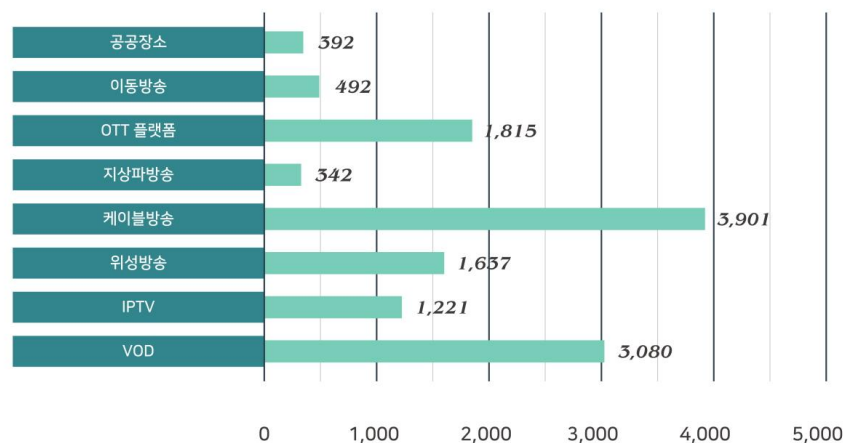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성화를 위한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거점시설로 국가 무형문화재 및 지방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전국의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모두 151개이며, 교육관 수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로 각 22개씩 설치되어 있다. 입주종목 수가 30개 이상인 지역은 서울(45), 경남(40), 전남(33)이고, 15개 이상인 지역은 인천(28), 충남(20), 대전과 경기(각각 19), 전북(18), 경북(17)이다. 최근 매년 문화재청·지자체·전승자들이 함께 개최하고 있는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을 통해 전승자만의 공간으로 인식되던 전수교육관이 국민이 함께 전통문화를 향유하는 시설로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 활용기반 - 콘텐츠

####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유형별 콘텐츠 제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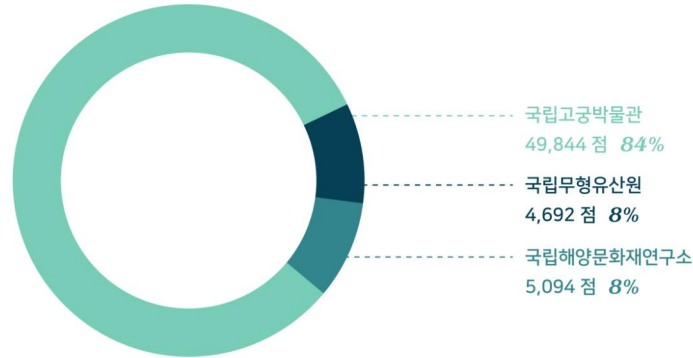
단위 : 건



2017년에는 문화유산채널의 외부 플랫폼이 CJ E&M, 유폴넷 커뮤니케이션, 상생방송, 환경T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에브리온TV와 신규협약으로 확대('16년 24개→'17년 32개)하였고, 3대 주요플랫폼 콘텐츠 이용자도 전년대비 34%('16년 3,439천명→'17년 4,623천명) 증가하였다. 특히 콘텐츠 제공수와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 수를 비교해 보면, 외부 플랫폼의 콘텐츠 제공수와 방문자 수가 정확하게 우상향으로 선을 그리며 비례하고 있어 콘텐츠 제공 수에 따라 방문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장품 기관별  
보유율 현황

단위: 점



박물관의 다양한 소장품과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공예 작품은 그 자체로 훌륭한 문화유산 콘텐츠이다. 2017년 12월 현재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소장품 보유 현황을 확인하면 국립고궁박물관이 49,844점으로 약 84%(83.6),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5,094점으로 약 8%(8.5),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은행이 4,692점으로 약 8%(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대한제국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을 인수받아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소장품 컬렉션을 확보하고 있는 까닭이다. 이 세 기관 외에도 전국 박물관에 소장된 수많은 유물 역시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 콘텐츠이다.

국립고궁박물관  
보유유물  
유형별 현황

단위: 점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 현황은 2017년 12월 현재 총 49,844점이며, 그 중 공예품이 31,340점으로 소장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수집 동향은 고문서류, 전적류, 기타유물이 증가하고, 가구류와 현판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한편, 지난 10년간 국가 귀속 또는 취득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귀속유물은 2008년 5,802건에서 2017년 8,165건으로 2,363건(40%) 증가하였다. 수탁유물은 2008년 6건에서 2018년 72건으로 66건(110%) 증가하였다. 구입유물은 2008년 5,802건에서 2018년 8,165건으로 2,363건(45%) 증가하였다.



국립 해양  
문화재 연구소  
소장유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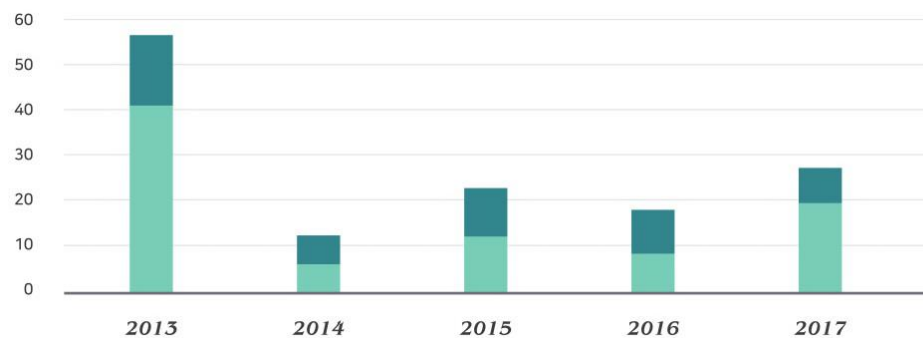
단위: 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우리나라 해양문화재를 발굴 및 연구하는 기관이자 관련 유물을 활용해 전시·교육하는 기관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2017년 12월 현재 소장유물은 총 5,094점으로 등록유물이 47,301점, 임시보관유물이 1,213점, 차용유물이 5,094점이다.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국내외  
활용 현황 단위: 건

■ 국내 ■ 국외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국내외  
대여 현황 단위: 점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들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조교 등의 작품으로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해 취득한다. 1979년부터 2017년까지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취득한 작품의 총계는 4,692점이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취득한 작품의 평균수량은 218점이며, 평균 구매작품가는 약 3,760천원이다. 이렇게 취득한 작품은 공공기관, 박물관, 도서관, 기업, 해외 대사관, 문화원 등에 대여해 활용하고 있다. 전승공예품은행은 무엇보다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돕기 위한 제도로, 현대미술계의 미술은행제도 사례와 비교하여 운영 목적 및 운영 방법상 차이를 지니고 있다.

## 활용사업

### 궁궐 활용프로그램

현황 단위: 명

7,946,635

#### 체험

- 창덕궁 달빛기행
- 궁중음식 관람 콘텐츠 확충  
(경복궁 별빛야행, 사식공간)
- 궁궐 일상모습재현 체험행사  
(궁궐 일상을 걷다, 다례체험)
- 전통혼례 재현(인천공향)
- 왕가의 산책(인천공향)
- 북악산 한양도성 탐방

#### 의례 재현

- 경복궁 수문장교대의식
- 대한제국 외국공사 접견례
- 세자빈 종묘참배 묘현례
-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접중



#### 강연·기타

- 궁중문화축전
- 궁궐 야간특별관람

#### 공연·전시

- 덕수궁 풍류
- 고궁음악회(경복궁, 창경궁)
- 고궁일상전시(창경궁, 덕수궁)

조선시대 궁궐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국민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 4대궁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면 모두 14개 프로그램 1,927회 운영되었고 총 5,229,776명이 참관하였다. 궁궐별로 살펴보면, 경복궁에서는 7개 프로그램을 1,543회 운영하여 5,118,935명 참여하였고, 창덕궁에서는 1개 프로그램을 67회 운영하여 8,801명 참여하였고, 창경궁에서 4개 프로그램을 191회 운영하여 86,544명이 참여하였고, 덕수궁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여 14,571명이 참여하였다. 장소적 입지조건인 영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 경복궁은 전체 약97% 참여인원으로 다른 세 궁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요소는 수문장 교대식이 대다수의 관람객을 확보하여 참여율을 높였다.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원현황

단위: 건

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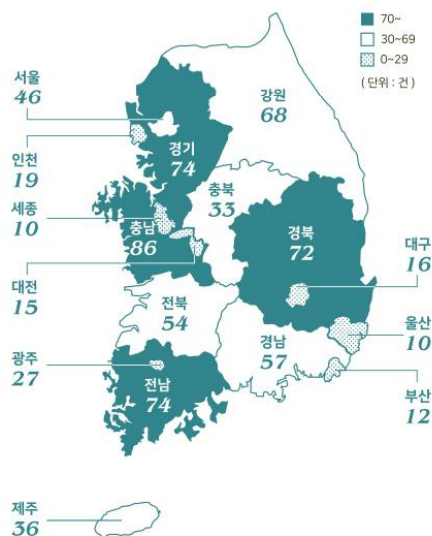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관람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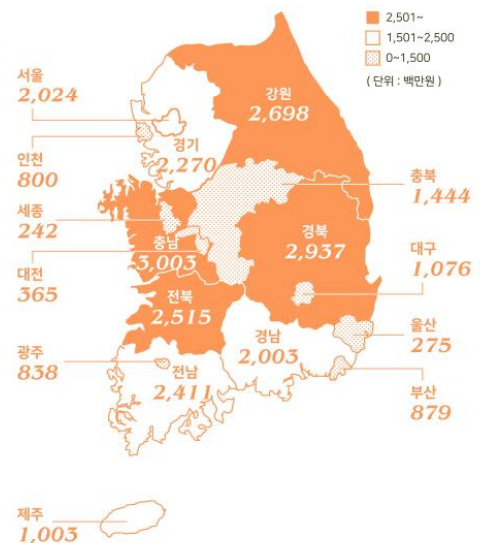
2,720,000



###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수 누적 현황



###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비 누적 현황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사업은 지역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지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총 사업 건수는 709건(생생문화재 382건, 향교서원문화재 275건, 문화재야행 27건, 전통산사 25건)이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전남이 각각 74건, 경북이 72건, 강원이 68건 순으로 사업을 실행하였다.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은 매년 4개 사업별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관련 전승자 및 문화재 관련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수  
누적 현황 단위: 건  
709



지역문화재  
활용 사업비  
누적 현황 단위: 백만원  
26,783

생생문화재  
지역별  
사업추진 현황  
단위: 건,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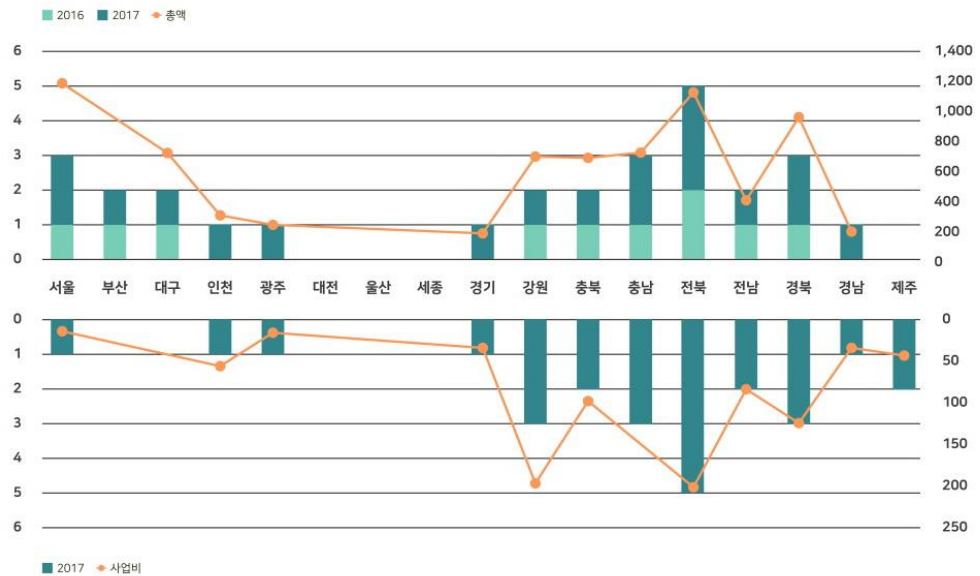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의 만형격인 '생생문화재 사업'은 2008년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 아래 잠자고 있는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으로 기획된 문화재 관광상품이다. 지난 4년간 총 382개 프로그램에 약 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해당 기간 중 충남이 49건, 강원 40건, 경기와 서울이 각각 38건 등의 순으로 사업을 실행하였다.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사용층이 한정적이었던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현재의 인문학적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과거와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년간 총 275개의 프로그램에 약 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해당 기간 중 전남이 37건, 경기도가 34건, 경북이 32건, 충남이 31건, 경남이 26건 등의 순으로 사업을 실행하였다.

#### 문화재 야행 사업 현황

단위: 건, 백만원



‘문화재 야행 사업’은 2016년부터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2년간 총 28개의 프로그램에 약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으며, 지역별로는 해당 기간 중 전북이 5건, 서울·충남·경북이 각각 3건, 부산이 2건 등의 순으로 사업을 실행하였다.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7년부터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체험·답사·공연 등의 형태로 구성해 진행 중인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이다. 2017년 진행하였던 25개의 프로그램 중 전북이 5건, 경기·경북·충남이 각각 3건, 충북이 2건 등의 순으로 사업을 실행하였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활용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15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활용 지표의 15개 세부지표는 다음 15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5. 문화유산 활용 세부지표

### 5.1. 활용기반

#### 5.1.1. 플랫폼

- 5-1-1-1.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방문 현황
- 5-1-1-2.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 5.1.2. 콘텐츠

- 5-1-2-1.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
- 5-1-2-2.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현황
- 5-1-2-3. 주요 기관별 문화유산 보유 현황
- 5-1-2-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연도별 현황
- 5-1-2-5. 전승공예품은행 취득 및 활용 현황

### 5.2. 활용사업

#### 5.2.1. 궁궐 활용프로그램

- 5-2-1-1.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현황
- 5-2-1-2. 궁·능·원 안내해설사 현황

#### 5.2.2.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 5-2-2-1.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총괄 현황
- 5-2-2-2.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현황

#### 5.2.3. 생생문화재 사업

- 5-2-3-1.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현황

#### 5.2.4.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 5-3-4-1.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 5.2.5. 문화재야행 사업

- 5-2-5-1. 문화재야행 사업 운영 현황

#### 5.2.6.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 5-2-6-1.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1-1-1	소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지 표 명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방문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유산채널을 활용하는 플랫폼별(홈페이지, 공중파, IPTV 등) 이용자 방문 현황			
지표의의	문화유산채널 플랫폼별 방문현황은 사회구성원들과 문화유산에 대한소통과 공감 그리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살필 수 있으며,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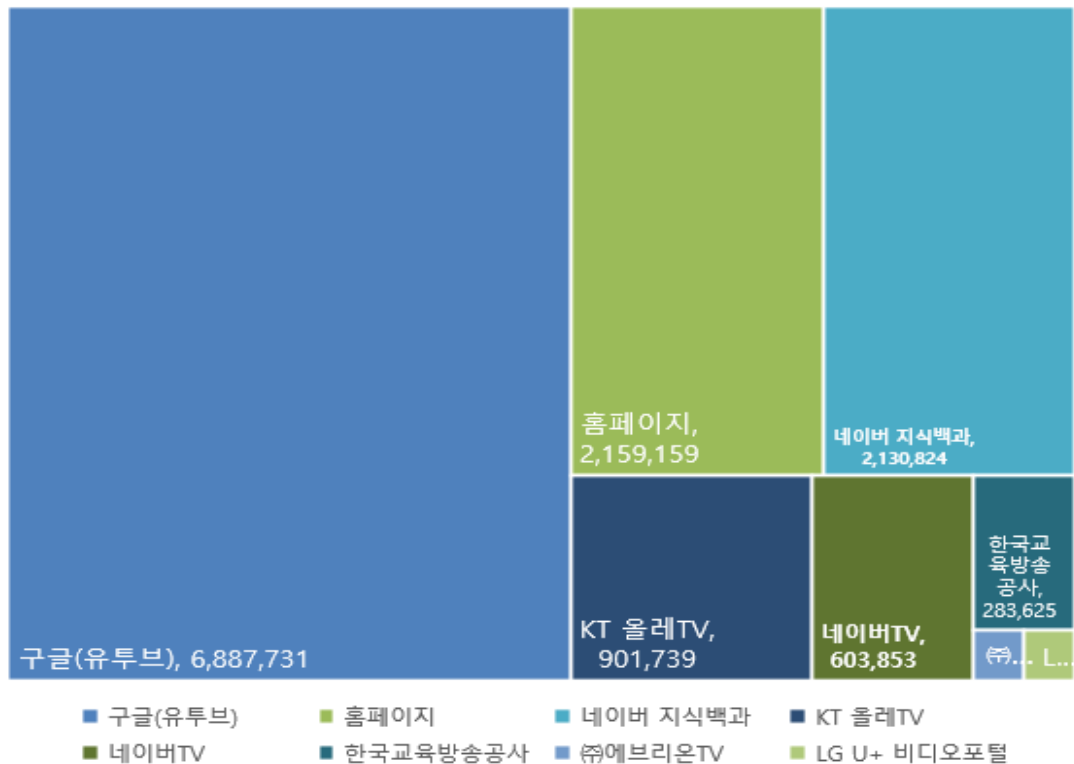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채널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유산교육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방문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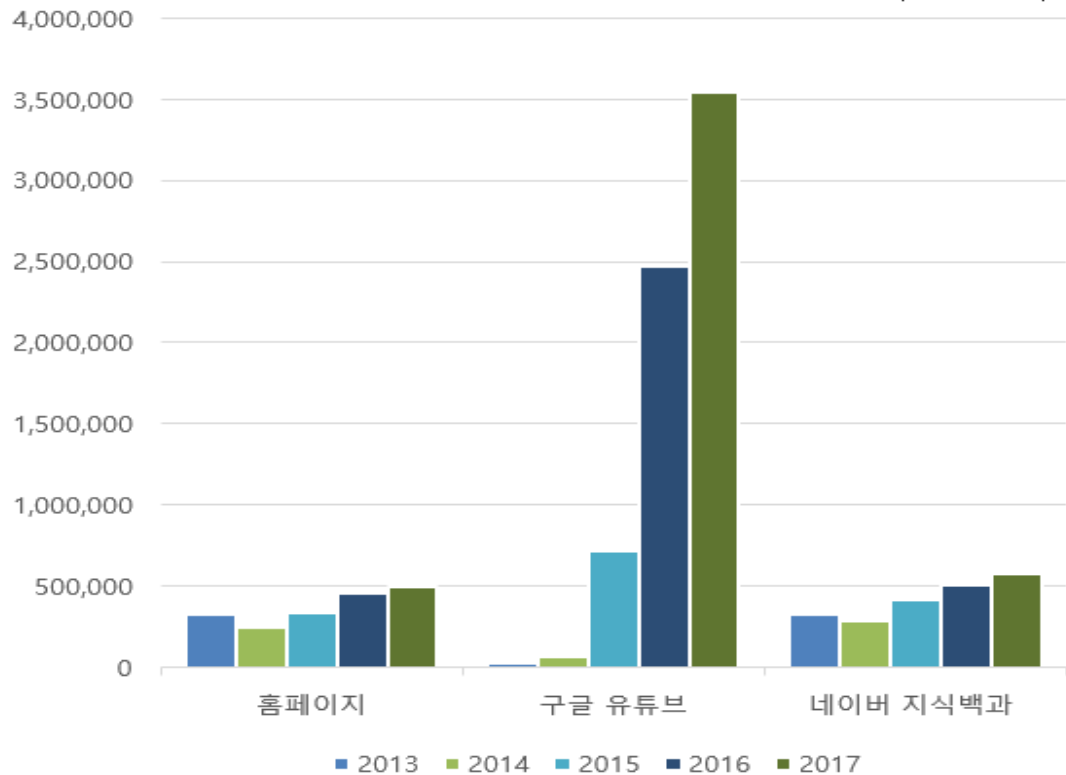
문화유산채널 플랫폼별 누적방문 현황

(단위: 건)



3대 주요플랫폼 년도별 방문자수 현황

(단위: 방문자수)





## 통계표

문화유산채널 플랫폼별 누적방문 현황 (단위: 명, 2017년 기준)		
구분	플랫폼명	방문자(조회)수
Web	홈페이지	2,159,159
VOD	구글 유튜브	6,887,731
	한국교육방송	283,625
	네이버(지식백과)	2,130,824
	네이버 (TV)	603,853
	LG유플러스(비디오포털)	45,504
IPTV	KT 올레TV	901,739 *
OTT 플랫폼	에브리온TV	46,923
합계	8개 플랫폼	13,059,358

\* 2017년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18년 2월 발행)에는 17년 11월 기준치인 897,046으로 표기되어있어, 2018년 문화재연감(18년 9월 발행) 수치인 901,739로 수정.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수 현황 (단위: 명)						
플랫폼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홈페이지	329,514	244,377	341,145	458,354	501,771	2,159,159
구글 유튜브	24,080	68,847	714,613	2,474,266	3,539,718	6,887,731
네이버 지식백과	329,254	290,940	412,753	506,977	582,205	2,130,824
합계	682,848	604,164	1,468,511	3,439,597	4,623,694	11,177,714

## 해설

미디어 플랫폼의 다양화와 휴대용 미디어장치의 발달로 인해 문화유산채널의 방문자수와 조회수 그리고 활용성은 해마다 높게 상승하고 있다.

2017년 기준, 문화유산채널을 방영하는 32개의 플랫폼(홈페이지 포함) 중에서 방문자수 조회가 가능한 8개 플랫폼의 방문조회수를 살펴보면, 3대 플랫폼(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 구글 유튜브, 네이버 지식백과)의 방문자수가 전체방문자수의 약85%를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부터 중장년, 노년층까지 인지도가 높은 3대 플랫폼은 방문자가 원하는 성격의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접속 가능한 주문형 비디오시스템(VOD)에 집중되어 있다. 그 외 24개 플랫폼은 TV 기반으로 프로그램 편성시간이 고정되어 방문자가 원하는 콘텐츠를 보려면 시간과 장소를 맞춰야하는 불편함이 따라 다수의 플랫폼에도 불구하고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진다. 한편, 한국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95%에 가까운 점은 앞으로 VOD 기반의 플랫폼들이 보다 접근성이 집중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3대 주요플랫폼의 방문자수 현황에서 주목할 점은 2015년부터 구글 유튜브 방문자수가 지속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3개 주요플랫폼들 중에서 약61%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 유튜브는 사용자의 관심주제별로 연관 콘텐츠가 효과적으로 링크되어 접근의 효율성이 높다. 또한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에서 와이파이망이 발달하여 데이터 소모에 대한 방문자들의 부담이 줄어든 점도 동영상 전문 플랫폼의 방문을 상승에 도움을 주고 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유산채널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을 시작으로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재 발굴현장, 유·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와 역사 이야기를 영상·이야기·사진 등의 멀티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www.k-heritage.tv), 인터넷, 유무선 방송, 이동방송, 공공장소 대형 모니터로 시청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 2014년부터는 한국문화재재단에서 관리하며, 2014년 6월에 '문화유산채널'로 이름을 변경함.</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018 문화재연감」</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li> <li>주요지표 :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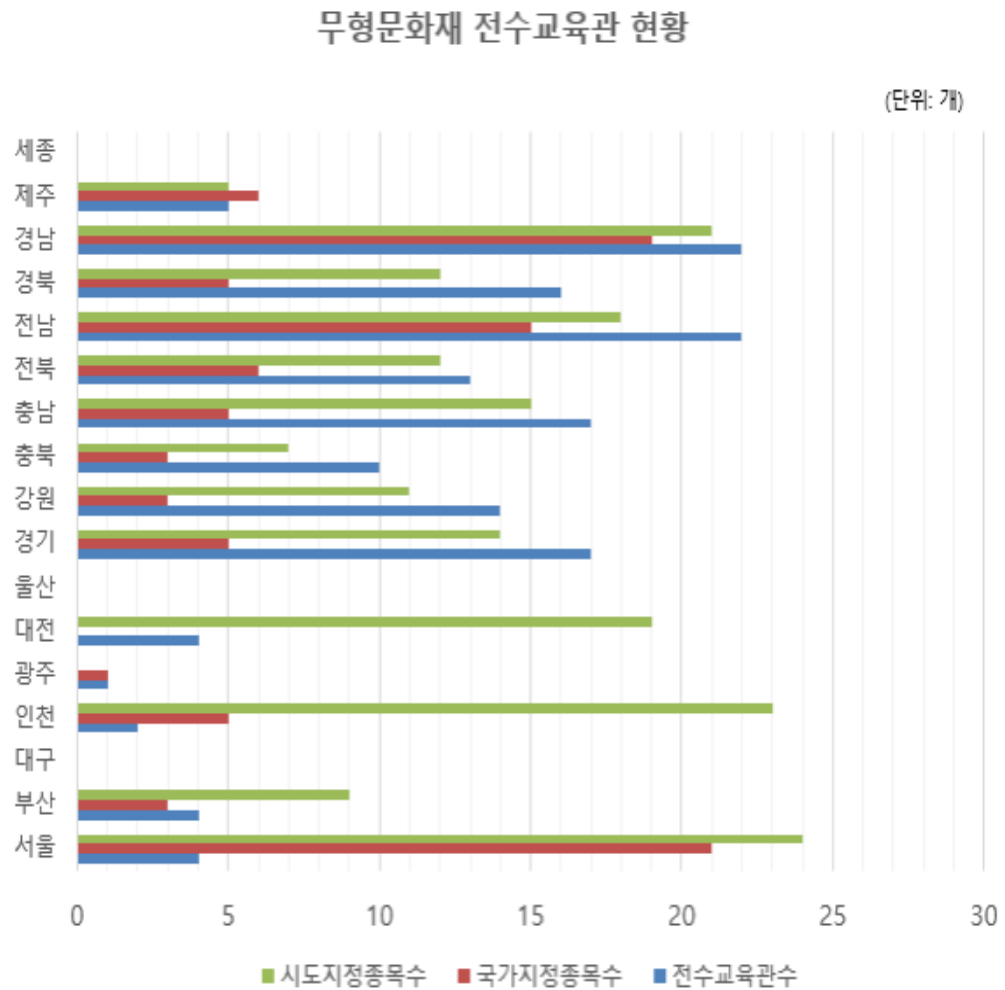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1-1-2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지역별 소재 및 무형문화재 지정종목 입주 현황			
지표의의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거점시설의 소재현황과 전수교육관에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는 무형문화재 종목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전수교육관 건립현황 (단위: 개, 종목)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구분																			
전수교육관수		4	4	0	2	1	4	0	17	14	10	17	13	22	16	22	5	0	151
입 종 목 수	국가 지정	21	3	0	5	1	0	0	5	3	3	5	6	15	5	19	6	0	97
	시·도 지정	24	9	0	23	0	19	0	14	11	7	15	12	18	12	21	5	0	190
	계	45	12	0	28	1	19	0	19	14	10	20	18	33	17	40	11	0	287

해설	<p>전국에 배치된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모두 151개이며, 교육관수가 가장 많이 소재한 지역은 남부지역으로 전라남도과 경상남도로 각 도에 22개씩 배치되어 있다. 그 다음으로 전수교육관이 15개 이상 배치된 지역은 경기(17개), 충남(17개), 경북(16개)이다.</p> <p>입주종목수가 30개 이상인 지역은 서울(45종목), 경남(40종목), 전남(33종목)이고, 15개 이상인 지역은 인천(28종목), 충남(20종목), 대전과 경기(19종목), 전북(18종목), 경북(17종목)이다.</p> <p>전수교육관수와 입주종목수를 비교해보면, 전수교육관 수 대비 입주종목수가 1:1로 정합되는 곳은 3지역(광주, 강원, 충북)이고, 2배수 이하는 4지역(경기, 충남, 전북, 경북)이고, 3배수 이하는 2지역(부산, 제주)이고, 그 외 서울, 인천, 대전은 4배수에서 최대 14배수의 종목들이 한 교육관에 입주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다수의 특별시와 광역시(서울, 부산, 인천, 대전, 제주)에서는 높은 지대와 유지비로 인하여 5개 이하의 교육관이 개설되어 있으며, 한 교육관에 최소 2종목 또는 10종목 이상의 전수자들이 입주하여 비교적 좁은 면적에서 입주활동이 이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외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전수교육관 수와 입주종목수가 대등하게 비례함을 알 수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형문화재 :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전통적 공연·예술, 공예·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한의약·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에 해당하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국가적·민족적·역사적·예술적·학술적 의미가 큰 것</li> <li>•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활성화를 위하여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거점시설로 국가 무형문화재 및 지방 무형문화재 보유자 등이 입주하여 활동하고 있음. 2017년 12월 현재 전국에 151개 전수교육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전수교육관은 1974년 9월 개관한 부산민속예술관임</li> <li>•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종목 : 총 138개 종목(세부종목 포함)으로, 전통 공연·예술이 46종목(33.3%), 전통기술이 51종목(37.0%), 전통 생활관습이 6종목(4.4%), 의례·의식이 18종목(13.0%), 전통 놀이·무예가 16종목(11.6%), 전통지식이 1종목(0.7%)으로 구성</li> <li>•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으로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무형문화재</li> <li>•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형문화재로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무형문화재</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종목 및 전승자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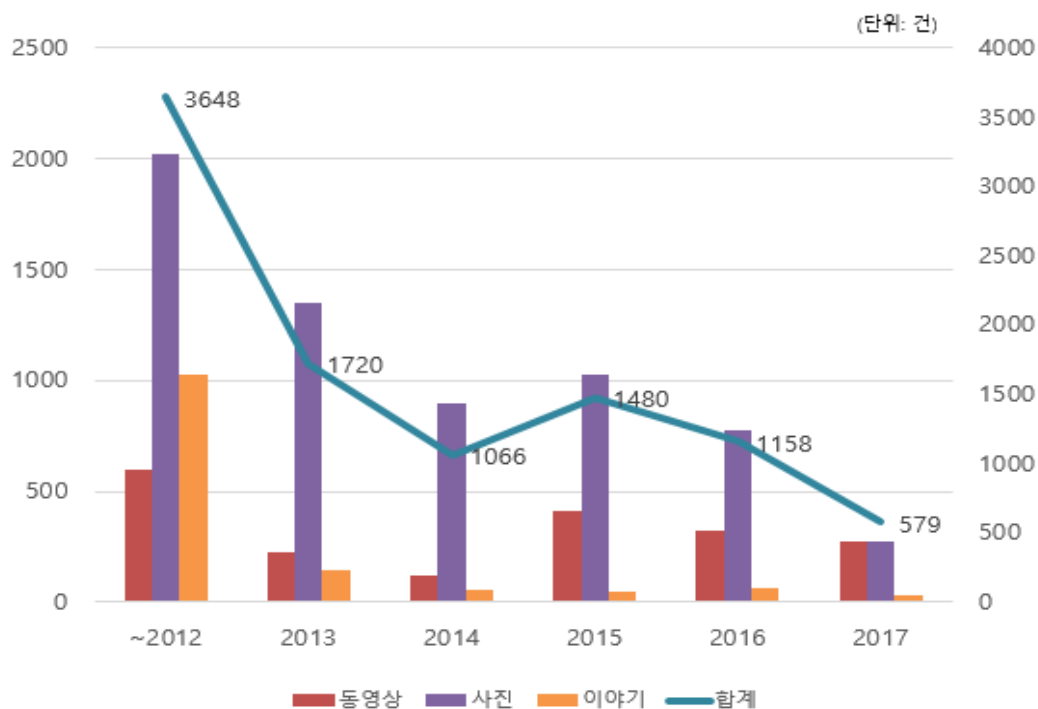
관리번호	활용 5-1-2-1	소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지 표 명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동영상, 이야기, 사진 등 문화유산 관련 콘텐츠 연도별 제작 편수			
지표의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창의적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의 유형별 개발 및 제공 현황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채널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유산교육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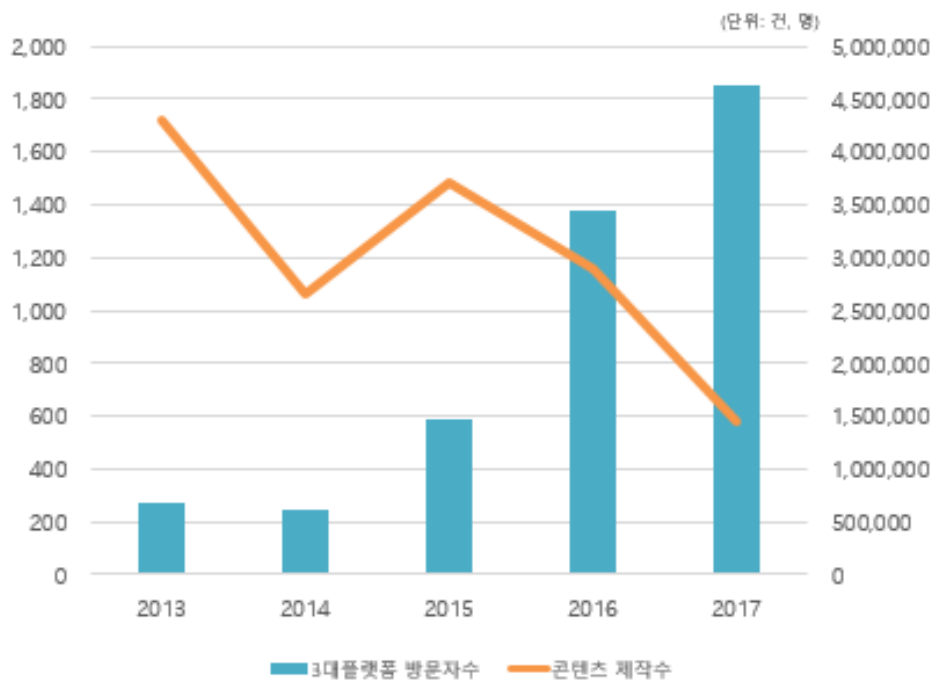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작 및 3대 플랫폼 방문자수 비교



통계표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 (단위: 건)						
	코너별	동영상	사진	이야기	합계		
	~2012	600	2,020	1,028	3,648		
	2013	226	1,347	147	1,720		
	2014	119	893	54	1,066		
	2015	411	1,025	44	1,480		
	2016	323	775	60	1,158		
	2017	273	274	32	579		
	합계	1,952	6,334	1,365	9,651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작 및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수 비교 (단위: 건/명)						
플랫폼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콘텐츠 제작	1,720	1,066	1,480	1,158	579	6,003	
3대주요플랫폼 방문자수	682,848	604,164	1,468,511	3,439,597	4,623,694	11,177,714	

해설	<p>2010년 동영상, 이야기, 사진을 제공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동영상 1,952건, 사진 6,334건, 이야기 1,365건, 모두 9,661건을 제작하였다.</p> <p>전체 제작 추이를 살펴보면, 2015년에 콘텐츠 총제작수가 1,480건으로 전년대비 약38%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방문현황(지표카드 활용 5-1-1-1)’에서 3대 주요플랫폼의 2015년 방문자수가 1,468,511명으로 전년대비 약143% 월등하게 상승하였다. 즉, 콘텐츠수와 방문자수는 비례하여 증가한다. 단, 2017년의 콘텐츠 제작수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방문자수가 늘어난 것은 개인미디어디바이스의 보급률이 높아지고, 접속환경이 개선된 점과 기제작된 콘텐츠가 재시청되는 부분이 도움이 되었다. 하지만 기제작된 콘텐츠의 재시청은 한계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새로운 콘텐츠가 풍부하고 다양할수록 방문자들의 관심을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플랫폼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시사점을 읽을 수 있다.</p>
----	--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유산채널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을 시작으로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재 발굴 현장, 유·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와 역사 이야기를 영상·이야기·사진 등의 멀티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www.k-heritage.tv), 인터넷, 유무선 방송, 이동방송, 공공장소 대형 모니터로 시청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 2014년부터는 한국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며, 2014년 6월에 ‘문화유산채널’로 이름을 변경함</li></ul>
------	---

출처	<p>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p> <p>2. 「2018 문화재연감」</p>
----	---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요지표 :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방문 현황</li><li>주요지표 :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현황</li></ul>
------	---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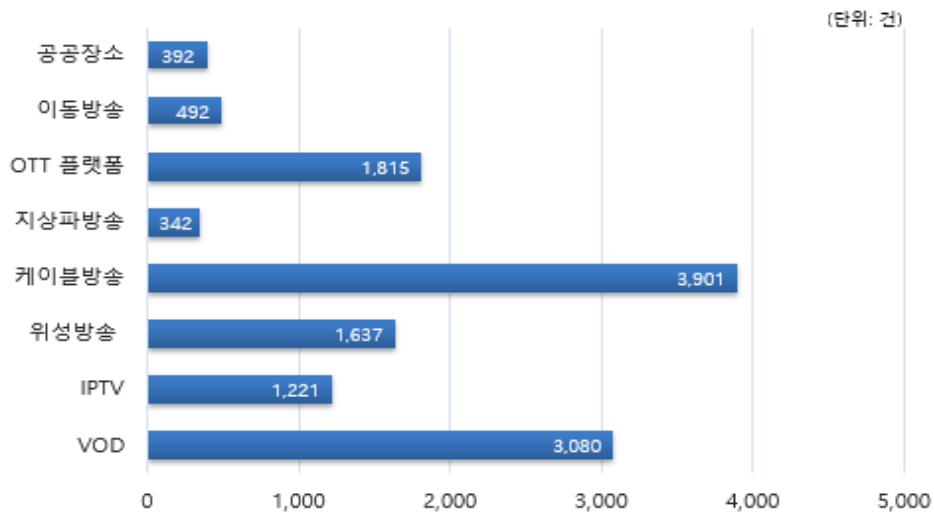
관리번호	활용 5-1-2-2	소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지 표 명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유산채널 외부 플랫폼별 콘텐츠 제공 편수와 누적 이용자 수			
지표의의	문화유산채널 홈페이지 방문자현황과 외부 플랫폼의 유형별 콘텐츠 제공현황을 확인하여 유형별 활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채널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유산교육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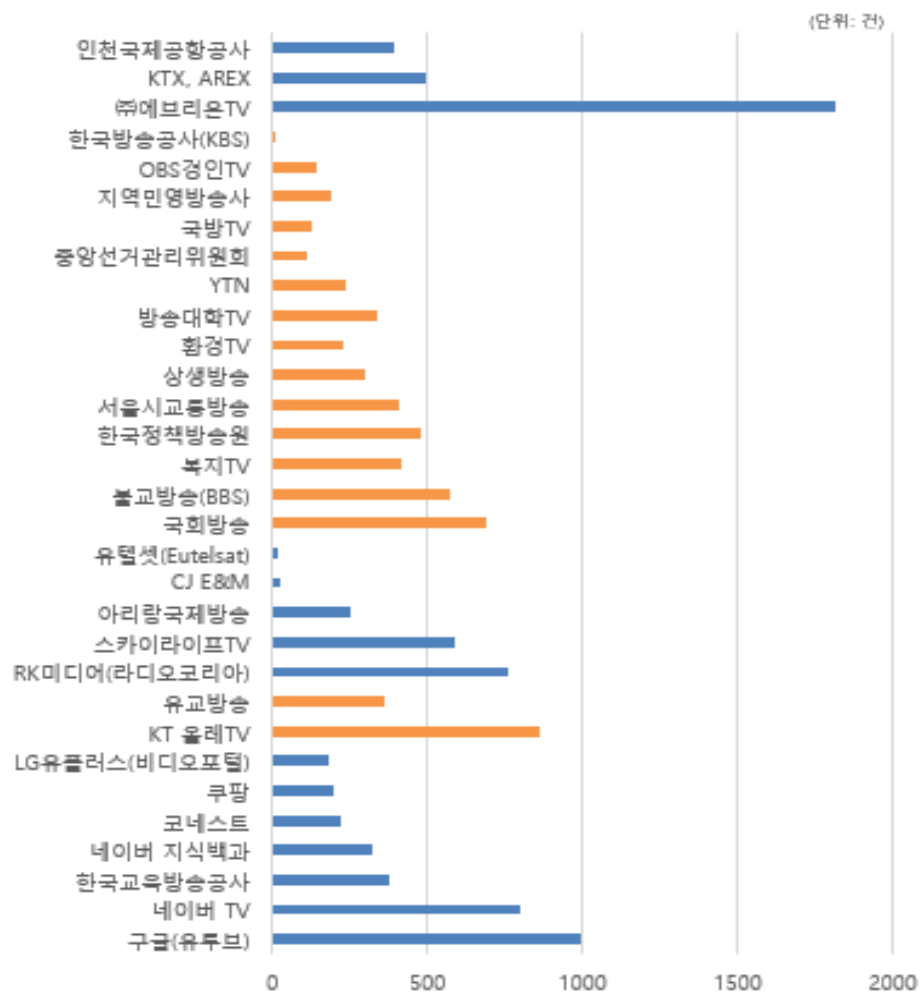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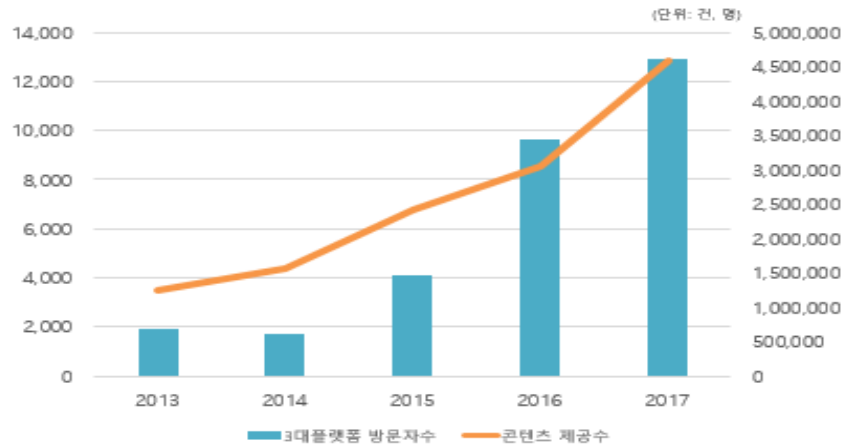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유형별 콘텐츠 제공수



문화유산채널 플랫폼별 콘텐츠 제공 현황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및 3대 플랫폼 방문자수 비교



## 통계표

문화유산채널 플랫폼별 콘텐츠 제공 및 이용자현황 (단위:건) *서비스 개시 일부터 누적건수				
구분	플랫폼명	개시일	제공	소계
VOD (7개)	구글(유튜브)	'10.7.2	992	3,080
	네이버 TV	'13.5.4	796	
	한국교육방송공사	'12.9.1	378	
	네이버 지식백과	'12.9.7	321	
	코네스트	'15.9.9	217	
	쿠팡	'15.8.3	197	
	LG유플러스(비디오포털)	'15.4.23	179	
IPTV (2개)	KT 올레TV	'10.10.1	863	1,221
	유교방송	'13.9.2	358	
위성방송 (5개)	RK미디어(라디오코리아)	'16.5.2.	756	1,637
	스카이라이프TV	'14.10.29	588	
	아리랑국제방송	'15.11.09	251	
	CJ E&M	'17.6.28	28	
	유텔샷(Eutelsat)	'17.6.28	14	
케이블방송 (11개)	국회방송	'12.8.8	687	3,901
	불교방송(BBS)	'13.3.1	569	
	복지TV	'12.5.31	418	
	한국정책방송원	'12.6.28	482	
	서울시교통방송	'13.5.1	409	
	상생방송	'17.6.28	297	
	환경TV	'17.10.31	226	
	방송대학TV	'13.6.17	334	
	YTN	'15.4.23	23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7.10.31	111	
	국방TV	'13.6.17	130	
	지역민영방송사	'15.2.3	190	
지상파방송 (3개)	OBS경인TV	'16.9.19	145	342
	한국방송공사(KBS)	'14.7.7	7	
OTT 플랫폼(1개)	(주)에브리온TV	'17.4.21	1,815	1,815
이동방송(1개)	KTX, AREX	'10.8.1	492	492
공공장소(1개)	인천국제공항공사	'12.5.31	392	392
합계	31개 플랫폼		12,880	12,880

	<table><tr><th colspan="7">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및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수 비교 (단위: 건/명)</th></tr><tr><th>플랫폼명</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h>합계</th></tr><tr><td>콘텐츠 제공수</td><td>3,501</td><td>4,377</td><td>6,750</td><td>8,540</td><td>12,880</td><td>36,048</td></tr><tr><td>3대주요플랫폼 방문자수</td><td>682,848</td><td>604,164</td><td>1,468,511</td><td>3,439,597</td><td>4,623,694</td><td>11,177,714</td></tr><tr><td>외부 플랫폼 수</td><td>14</td><td>15</td><td>20</td><td>23</td><td>32</td><td>-</td></tr></table>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및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수 비교 (단위: 건/명)							플랫폼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콘텐츠 제공수	3,501	4,377	6,750	8,540	12,880	36,048	3대주요플랫폼 방문자수	682,848	604,164	1,468,511	3,439,597	4,623,694	11,177,714	외부 플랫폼 수	14	15	20	23	32	-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제공 및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수 비교 (단위: 건/명)																																				
플랫폼명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콘텐츠 제공수	3,501	4,377	6,750	8,540	12,880	36,048																														
3대주요플랫폼 방문자수	682,848	604,164	1,468,511	3,439,597	4,623,694	11,177,714																														
외부 플랫폼 수	14	15	20	23	32	-																														
해설	<p>2017년에는 문화유산채널의 외부 플랫폼이 CJ E&amp;M, 유텔셋 커뮤니케이션, 상생방송, 환경T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에브리온TV와 신규협약으로 확대('16년 24개→'17년 32개) 하였고, 3대 주요플랫폼 콘텐츠 이용자도 전년대비 34%('16년 3,439천명→'17년 4,623천명) 증가하였다.</p> <p>특히 콘텐츠 제공수와 3대 주요플랫폼 방문자수를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외부 플랫폼의 콘텐츠 제공수와 방문자수가 정확하게 우상향으로 선을 그리며 비례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콘텐츠 제작수와 콘텐츠 제공수 그리고 플랫폼 방문자수는 직접적이고 유기적인 영향을 서로에게 끼치고 있음이 확인된다.</p> <p>향우 시대적 감성을 담지한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다수의 플랫폼으로 접근성으로 높이고 방문자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는 구독률 높은 콘텐츠로 문화유산과의 공감, 역사에 대한 이해에 한층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심화할 수 있을 것이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문화유산채널 : 2010년 8월 '헤리티지채널'을 시작으로 한국의 세계유산, 문화재 발굴 현장, 유·무형문화재 등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아름다운 이미지와 역사 이야기를 영상·이야기·사진 등의 멀티콘텐츠로 제작하여 웹사이트(www.k-heritage.tv), 인터넷, 유무선 방송, 이동방송, 공공장소 대형 모니터로 시청가능한 OSMU(One Source Multi Use) 사업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 사업. 2014년부터는 한국문화재단에서 관리하며, 2014년 6월에 '문화유산채널'로 이름을 변경함</li></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li>「2018 문화재단연감」</li></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요지표 : 문화유산채널 플랫폼 방문 현황</li><li>주요지표 : 문화유산채널 콘텐츠 유형별 제작 현황</li></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1-2-3	소관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외
지 표 명	주요기관별 문화유산 보유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청 소속기관에서 관리하고 문화자산 콘텐츠의 보유 및 취득, 대여 현황			
지표의의	문화자산의 유형과 활용방법에 따른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문화자산의 취득규모, 활용방향 등의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 보유 및 활용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기관별 소장유물(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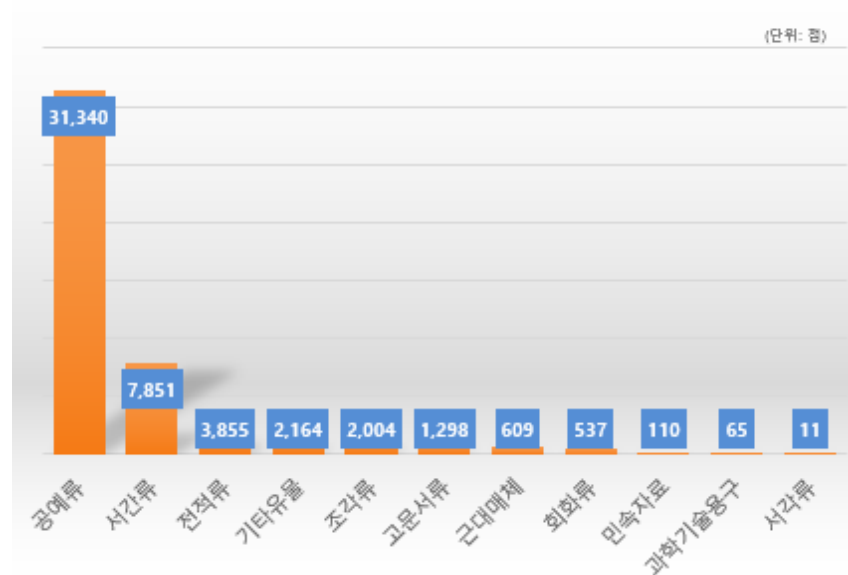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주요기관별 문화유산 소장품 보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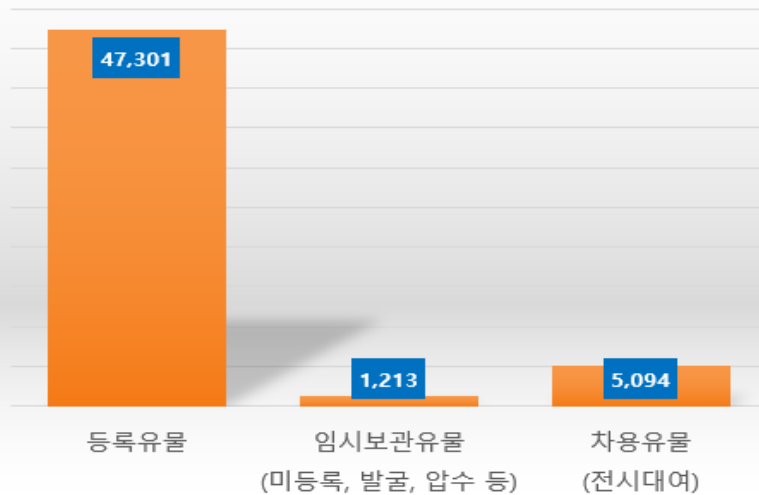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유형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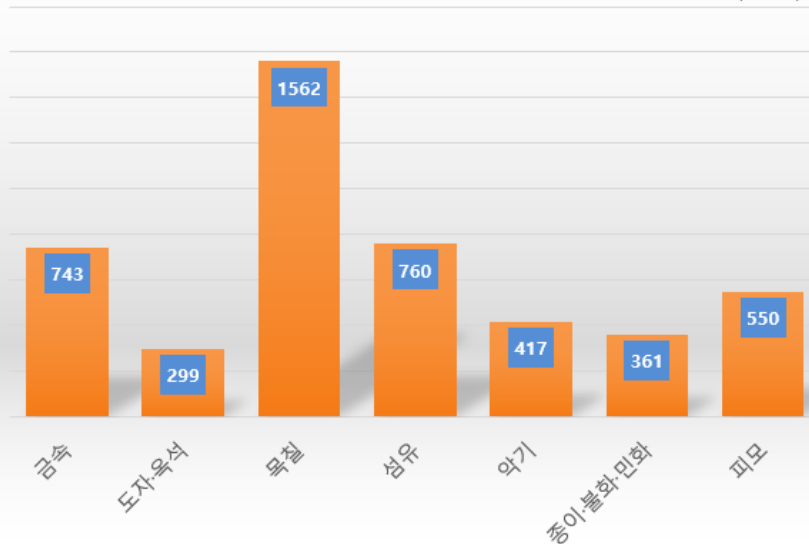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품 현황

(단위: 점)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유형별 현황(안)

(단위: 점)



\*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 유형별 현황(안) 그래프는  
2016년 발간자료(전승공예품은행 운영 연구)에서 표기된  
소장품의 유형별 백분율을 참고하여  
2017년 기준의 소장품 총량으로 추산하였음

## 통계표

국기관별 소장품 보유현황 (단위:건)	
구분	소장품수
국립고궁박물관	49,84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53,608
국립무형유산원	4,692
계	108,144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현황 (단위:점)		
연번	구분	수량
1	회화류	537
2	조각류	2,004
3	석조물	0
4	공예류	31,340
5	전적류	3,855
6	고문서류	1,298
7	서간류	7,851
8	서각류	11
9	근대매체	609
10	고고자료	0
11	자연사자료	0
12	과학기술용구	65
13	민속자료	110
14	기타유물	2,164
계		49,84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소장품 현황 (단위:점)		
연번	구분	수량
1	등록유물	47,301
2	임시보관유물 (발굴,신고,압수,미등록)	1,213
3	차용유물 (전시대여)	5,094
계		53,608



	국립무형유산원 소장품(전승공예은행) 현황(안) (단위:점)		
	연번	구분	수량
	1	금속	743
	2	도자·옥석	299
	3	목칠	1562
	4	섬유	760
	5	악기	417
	6	종이·불화·민화	361
	7	피모	550
	계		4,692
해설	<p>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소장품 보유를 비교한 결과, 국립고궁박물관이 49,844점으로 84%,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가 5,094점으로 8%, 국립무형유산원의 전승공예품은행이 4,692점으로 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립고궁박물관이 대한제국 이왕가박물관의 소장품을 인수받아 다른 두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소장품 컬렉션을 확보하고 있는 까닭이다.</p> <p>[참고] 보다 세밀한 자료공유를 위해서는 세 기관의 소장품의 유형별 세부 집계(고궁박물관 공예류의 하위분류, 전승공예품의 유형별 분류, 해양유물의 유형별 분류 등)와 소장품 대여 등에 대한 기초데이터가 세분화되어야 기관별 비교와 명확한 통계 산출 용이</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승공예품은행 : 판로가 취약한 전승자의 작품제작 의욕을 고취하고,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선양하기 위해 보유자작품전 출품작 등 전승자의 작품을 구입하고, 구입한 작품은 재외공관, 해외한국문화원, 정부기관, 박물관, 미술관, 학교, 단체 등에 대여할 수 있는 제도</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연도별 현황</li> <li>주요지표 : 전승공예품은행 취득 및 활용 현황</li> <li>보조지표 : 전시 사업 운영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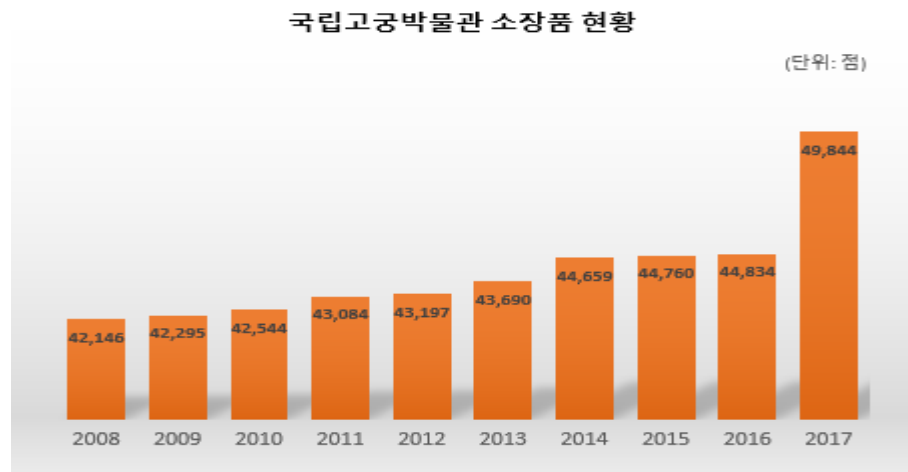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1-2-4	소관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지 표 명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관리하는 소장품의 보유 및 취득 현황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의 유형과 취득 방법에 따른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소장품 관리 및 활용방향 등의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 보유 및 활용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립고궁박물관 소장유물(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월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및 소장품 관리정책 수립,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현황 (단위: 점)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회화류	289	289	289	289	289	290	290	291	291	537
서화/서예류	19	19	19	19	19	19	19	19	19	0
악기류	316	316	316	316	316	316	316	316	316	0
어보류	374	374	374	375	375	375	376	377	377	0
어책류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373	0
현판류	771	771	771	771	769	769	769	769	769	0
제구류	13,029	13,029	13,029	13,029	13,029	13,029	13,029	13,029	13,029	0
의상류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794	1,801	1,801	0
장신구류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1,202	0
고문서류	13	13	13	29	29	29	356	356	356	1,298
전적류	30	30	30	30	30	30	508	508	582	3,855
조각류	2,096	2,096	2,096	2,096	2,096	2,097	2,105	2,105	2,105	2,004
가구류	1,550	1,550	1,550	1,550	1,550	1,522	1,522	1,522	1,522	0
도자류	4,101	4,101	4,101	4,102	4,102	4,102	4,102	4,102	4,102	0
토기류	362	362	362	362	362	362	362	362	362	0
무구류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
노부류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651	0
과학기술용구	49	49	49	49	49	49	49	49	49	65
피지초직류	5,218	5,218	5,218	5,218	5,218	5,218	5,218	5,218	5,218	0
금속공예류	2,459	2,459	2,459	2,459	2,459	2,459	2,459	2,459	2,459	0
기타유물	610	610	610	610	610	610	610	610	610	2,164
석조물	0	0	0	0	0	0	0	0	0	0
공예류	0	0	0	0	0	0	0	0	0	31,340
서간류	0	0	0	0	0	0	0	0	0	7,851
서각류	0	0	0	0	0	0	0	0	0	11
근대매체	0	0	0	0	0	0	0	0	0	609
고고자료	0	0	0	0	0	0	0	0	0	0
자연사자료	0	0	0	0	0	0	0	0	0	0
민속자료	0	0	0	0	0	0	0	0	0	110
소계	35,406	35,406	35,406	35,424	35,422	35,396	36,210	36,219	36,293	49,844
국가귀속	932	932	945	949	949	949	949	949	949	(1,226)
귀일유물	5,802	5,950	6,182	6,700	6,762	7,281	7,459	7,551	7,551	(8,165)
수탁유물	6	7	11	11	64	64	41	41	41	(72)
소계	6,740	6,889	7,138	7,660	7,775	8,294	8,449	8,541	8,541	(9,683)
합계	42,146	42,295	42,544	43,084	43,197	43,690	44,659	44,760	44,834	(59,527)

해설	<p>이 지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고궁박물관의 소장품을 소재나 기능별 유형과 취득방법별 유형으로 분리하여 정리한 것이다.</p> <p>분류의 특기사항은 문화재 연감을 기준의 소장품 분류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까지는 총 24개(소재 및 기능 21개, 취득방법 및 귀속 3개)의 유형으로 분류하던 방법을 2017년에는 소재 및 기능의 14개 유형으로 분류방법을 달리하였고, 취득 및 귀속방법으로 따로 표기하였다. 예를 들어, 의상, 장신구, 가구, 도자, 토기, 금속공예, 피지초직 등이 공예류로 통합되어 31,340점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에는 석조, 서간, 서각, 근대매체, 고고자료, 자연사자료, 민속자료 등으로 새로운 분류가 편성되었다.</p> <p>지난 10년간 소장품 총량은 2008년 42,146점에서 2017년 49,844점으로 7,698점(18%)가 증가하였다. 소장품 중에서 눈에 띄게 수집량이 늘어난 소재 및 기능 유형은 고문서류, 전적류, 기타유물이다. 고문서류는 2008년 13점에서 2017년 1,298점으로 1,285점(9,880%) 증가하였고, 전적류는 2008년 30점에서 시작하여 2018년 3,855점으로 3,825점(12,750%) 증가하였고, 기타유물은 2008년 610점에서 2017년 2,164점으로 1,554점(250%) 증가하였다.</p> <p>이와 반대로, 감소한 유형은 가구류와 현판류가 있다.(2016년 기준, 2017년에는 이 분류가 삭제됨) 가구류는 2018년 1,550점에서 2016년 1,522점으로 28점(-0.12%)이 감소하였고, 현판류는 2008년 771점에서 2016년 769점으로 2점(-0.25%) 감소하였다.</p> <p>국가 귀속 또는 취득 방법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가귀속유물은 2008년 5,802건에서 2017년 8,165건으로 2,363건(40%) 증가하였다. 수탁유물은 2008년 6건에서 2018년 72건으로 66건(110%) 증가하였다. 구입유물은 2008년 5,802건에서 2018년 8,165건으로 2,363건(45%) 증가하였다.</p>
관련용어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li>2.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3.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주요 기관별 문화유산 보유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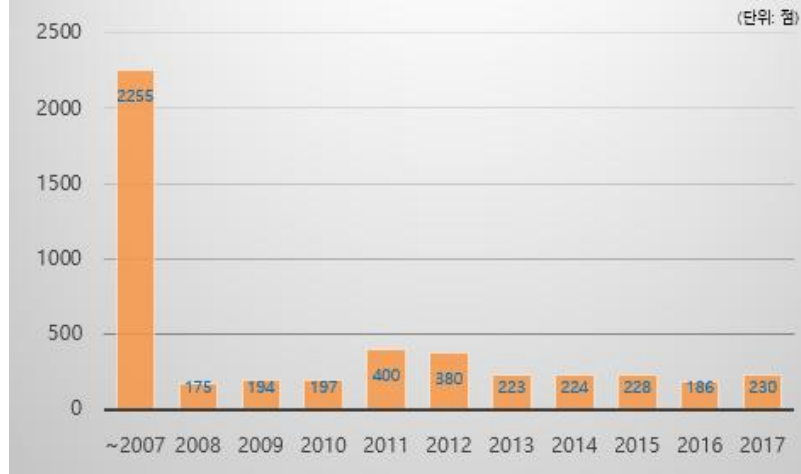
관리번호	활용 5-1-2-5	소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지 표 명	전승공예품은행 취득 및 활용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연도별 취득한 전승공예품 수량 및 현재 보유한 전승공예품 활용 현황			
지표의의	문화유산의 국민향유권을 확대를 위하여 동산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궁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격높은 문화의 공유와 공감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 보유 및 활용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무형유산원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전승공예품은행 취득 및 활용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1. 소장품은 전체누계로 표기하여야 함(통계집에 표기되는 최근 5년간만 표기할 경우 전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워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전승공예품 은행 작품 년도별 취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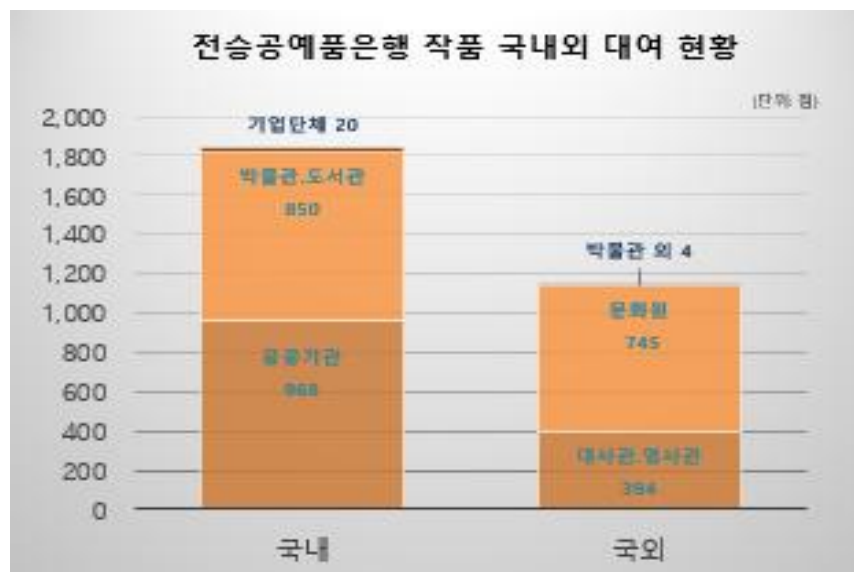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취득 및 구입가격 현황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국내외 활용 현황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연도별 취득 현황 (단위: 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취득수량	2,255	175	194	197	400	380	223	224	228	186	230	4,692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취득 및 구입가격 현황 (단위: 점, 천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취득수량	223	224	228	186	230	1,091
구입총액	800,080	904,700	890,000	752,000	742,400	4,089,180
평균가	3,587	4,038	3,903	4,043	3,227	3,760

전승공예품 활용 현황 (단위: 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총계
국내기관	2	88	122	532	261	1,410
국외기관	5	23	187	160	68	755

전승공예품은행 작품 대여기관별 현황 (단위: 점)										
구분	국내				국외				무형원 (보관소)	총계
	공공 기관	박물관 도서관	기업, 단체	소계	대사관 영사관	해외 문화원	기타 (박물관)	소계		
기관수	14	3	2	19	19	12	1	32	1	53
작품수	968	850	20	1,836	394	745	4	1,143	1,682	4,663
계	대여(활용) 2,981									

통계표

해설	<p>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들은 무형문화재 기능 보유자 또는 전수조교 등의 작품으로 제작년도가 비교적 최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입 또는 기증을 통해 취득된다. 관리는 한국문화재단에서 해마다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p> <p>1979년부터 2017년까지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취득한 작품의 총계는 4,692점이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취득된 작품의 평균수량은 218점이며, 평균 구매작품가는 약3,760천원이다.</p> <p>‘전승공예품은행 취득 및 구입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구입총액이 최대 8억원에서 최소 7억4천만원으로 약 6천만원의 편차가 발생하며 구매작품수는 최대 230점에서 186점으로 44점의 차이가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승공예품 :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li> <li>• 전승공예품은행 : 전통기술의 전승활성화 및 전통공예의 우수성 홍보 등을 위하여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 및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주요 기관별 문화유산 보유 현황</li> <li>• 주요지표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전시 사업 운영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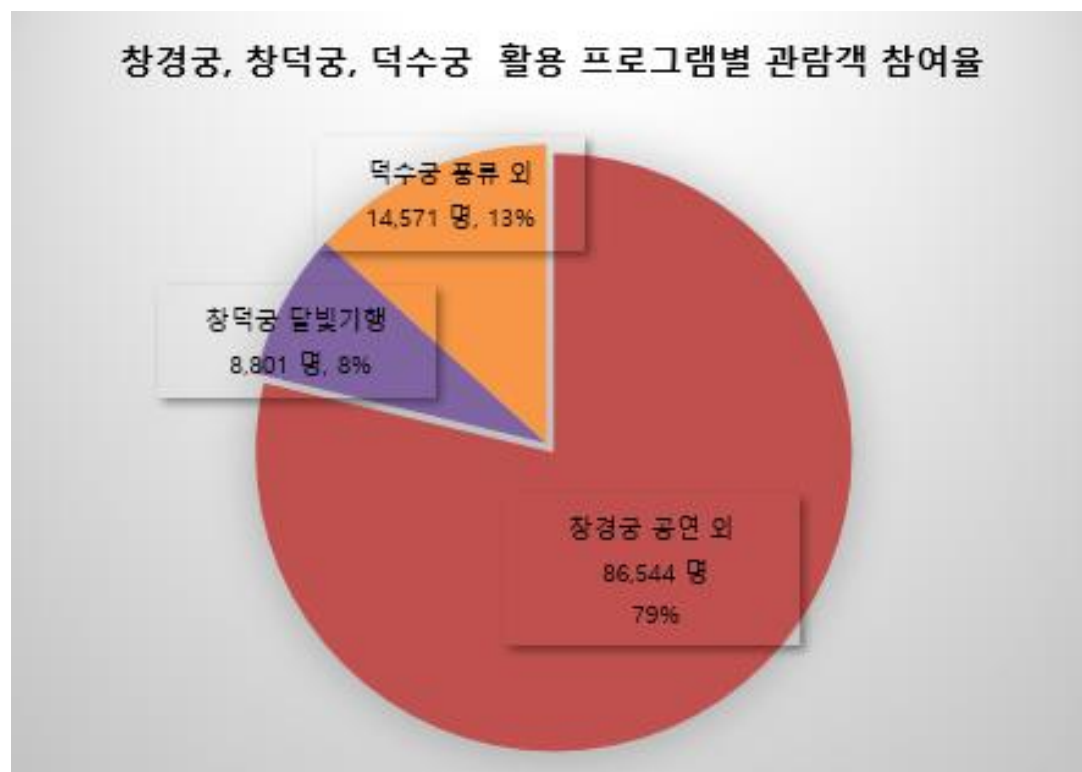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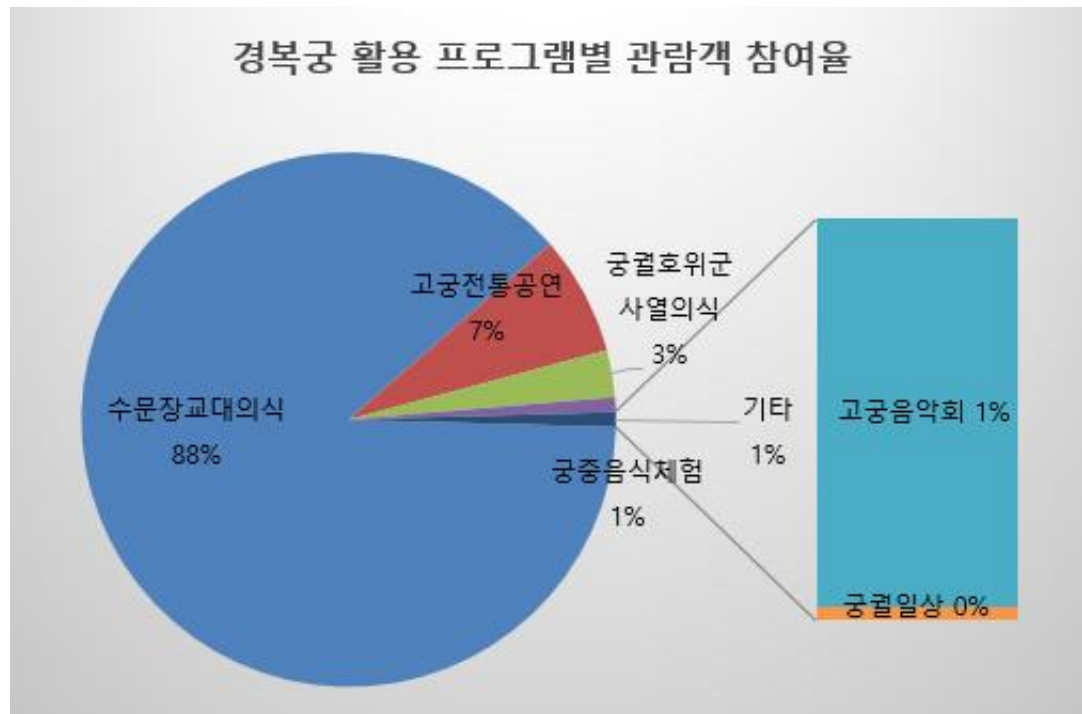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2-1-1	소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지 표 명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서울 중심부에 소재한 4대궁을 활용한 프로그램과 참여 규모 현황			
지표의의	문화유산의 국민향유권을 확대를 위하여 동산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궁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격높은 문화의 공유와 공감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궁능문화재과, 한국문화재단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궁궐활용프로그램 운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사업명		횟수	인원	소계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	730	4,513,485	1,639회/ 5,118,935명
	경복궁	궁궐 호위군 사열의식 체험	4	145,135	
		궁중음식체험:생과방, 별빛야행, 시식공감	561	45,941	
		궁궐일상(다례체험)	68	1,400	
		고궁전통공연	180	368,963	
		고궁음악회	96*	44,011*	
	창덕궁	달빛기행	67	8,801	67회/8,801명
	창경궁	고궁전통공연	23	19,982	191회/ 86,544명
		스토리텔링 활용한 전시	1	3,492	
		고궁음악회	96*	44,011*	
		궁궐일상	71	19,982	
	덕수궁	덕수궁 풍류	21	3,281	30회/ 14,571명
		스토리텔링 활용한 전시	1	3,492	
		대한제국 외국공사접견례	8	7,798	
	계	12개 프로그램	1,927	5,229,774	
* 경복궁과 창경궁의 고궁음악회의 횟수는 3월부터 10월까지 주3회 개최 수치로 환산하였고, 총관람객 88,022명을 두 개의 궁으로 분산하였음.					
해설	<p>4대궁에서 개최되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면 모두 14개 프로그램 1,927회 운영되었고 총 5,229,776명이 참관하였다. 궁궐별로 살펴보면, 경복궁에서는 7개 프로그램을 1,543회 운영하여 5,118,935명 참여하였고, 창덕궁에서는 1개 프로그램을 67회 운영하여 8,801명 참여하였고, 창경궁에서 4개 프로그램을 191회 운영하여 86,544명이 참여하였고, 덕수궁에서는 3개 프로그램을 30회 운영하여 14,571명이 참여하였다.</p> <p>장소적 입지조건의 영향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한 경복궁은 전체 약97% 참여인원으로 다른 세 궁궐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정적인 요소는 수문장 교대식이 대다수의 관람객을 확보하여 참여율을 높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궁 : 조선시대에 건립되어 왕실에서 사용한 궁으로 서울 종로구에 소재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과 서울 중구에 소재한 덕수궁으로 구성</li> <li>• 수문장 교대의식 : 조선시대 궁성문을 지키던 수문장들의 교대절차와 광화문을 열고 닫는 과정으로 구성된 의식을 재현하는 프로그램</li> <li>• 궁궐호위군 사열의식 : 조선시대 국왕이 직접 흥례문에 거둥하여 궁궐 호위 군사를 살피는 의식을 재현하는 프로그램</li> <li>• 대한제국 외국공사접견례 :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외국공사를 접견했던 의례와 식후 연회를 재현한 프로그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2017년 궁궐활용 프로그램 개발 운영사업 관람객수</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총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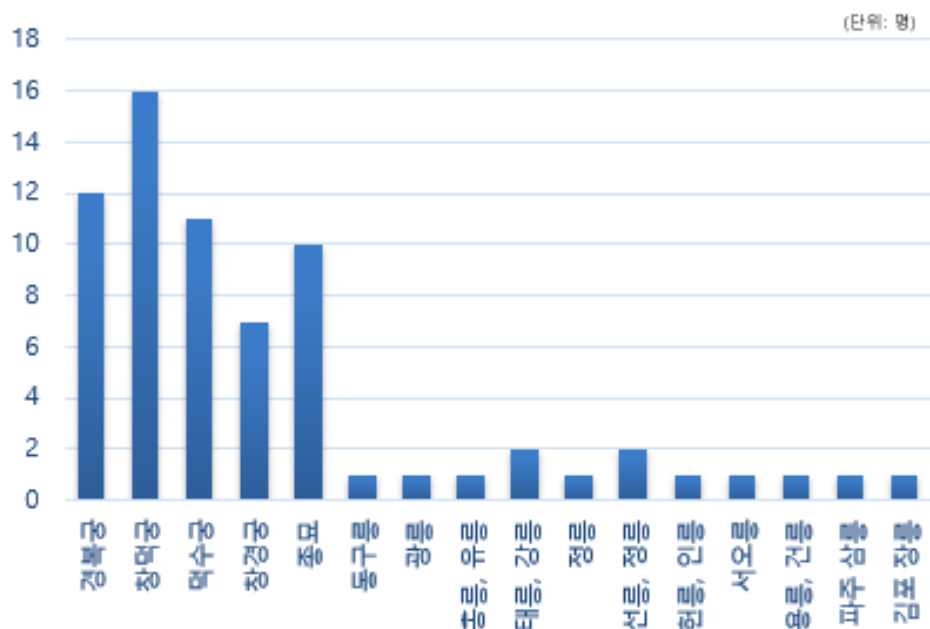
관리번호	활용 5-2-1-2	소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지 표 명	궁 · 능 · 원 안내해설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서울 중심부에 소재한 4대궁을 활용한 사업과 참가자의 규모 현황			
지표의의	문화유산의 국민향유권을 확대를 위하여 동산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궁중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품격높은 문화의 공유와 공감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궁 · 능 · 원 안내해설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궁능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궁 · 능 · 원 안내해설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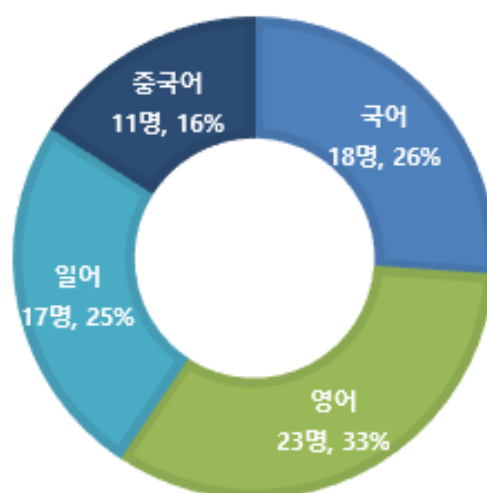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궁·릉·원 안내해설사 배정 현황



궁·릉·원 안내해설사 언어별 현황



	문화재 안내해설사 현황 (단위: 명)					
	구분 (휴관일)	국어	영어	일어	중국어	계
통계표	경복궁 (화요일)	0	6 (전문경력관 1)	3	3	12 (전문경력관 1)
	창덕궁 (월요일)	0	8 (전문경력관 1)	5	3	16 (전문경력관 1)
	덕수궁 (월요일)	5 (석조전5)	3 (전문경력관 1)	2	1	11 (전문경력관 1)
	창경궁 (월요일)	0	3 (전문경력관 1)	2	2	7 (전문경력관 1)
	종 묘 (화요일)	0	3	5	2	10
	동구릉 (월요일)	1	0	0	0	1
	광릉 (월요일)	1	0	0	0	1
	홍릉과 유릉 (월요일)	1	0	0	0	1
	태릉과 강릉 (월요일)	2	0	0	0	2
	정릉 (월요일)	1	0	0	0	1
	선릉과 정릉 (월요일)	2	0	0	0	2
	현릉과 인릉 (월요일)	1	0	0	0	1
	서오릉 (월요일)	1	0	0	0	1
	용릉과 건릉 (월요일)	1	0	0	0	1
	파주 삼릉 (월요일)	1	0	0	0	1
	김포 장릉 (월요일)	1	0	0	0	1
	계	18	23 (전문경력관 4)	17	11	69 (전문경력관 4)
해설	<p>궁과 종묘, 11개의 주요 능에 배치된 문화재 안내해설사는 모두 69명(전문경력관 4명 포함)이다. 관람객이 집중되는 4개 궁과 종묘에 전체의 66%에 해당하는 46명이 배치되어 있다.</p> <p>언어별로 살펴보면, 국어가 18명으로 26%, 영어가 23명으로 33%, 일어가 17명으로 25%, 중국어가 11명으로 16%를 차지한다. 특이점으로는 전문경력관 4명은 모두 영어에 집중되어 있다.</p>					
관련용어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지표 : 궁·능·원 안내해설사 현황 지표</li> <li>보조지표 :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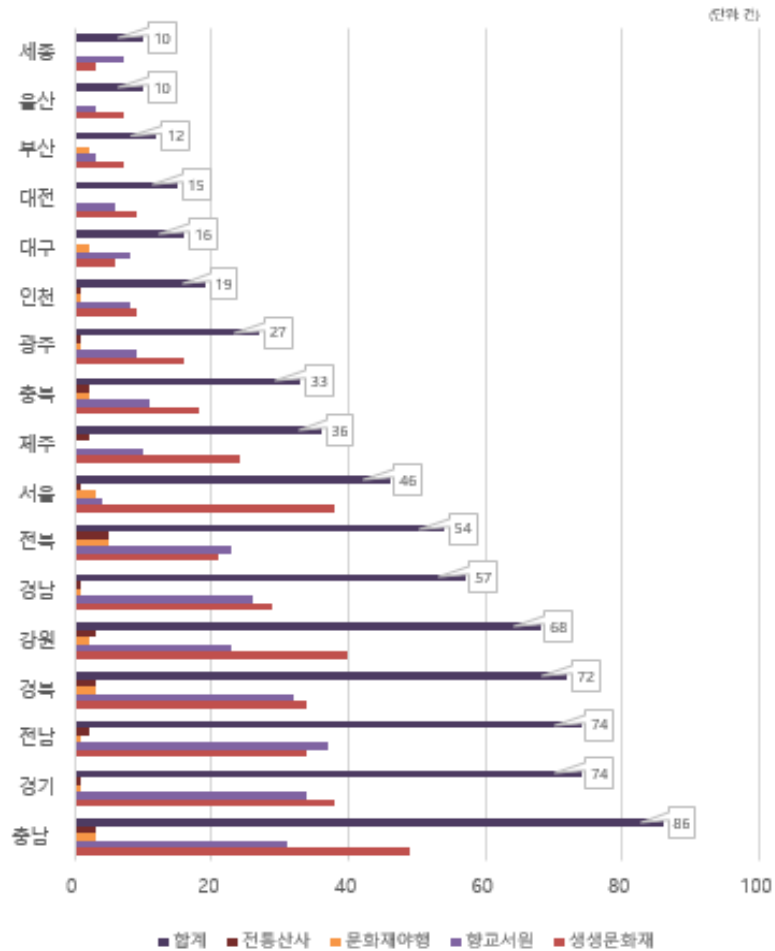
관리번호	활용 5-2-2-1	소관부서		활용정책과
지 표 명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총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문화재)의 운영 총괄 현황			
지표의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지역별 사업 참여 누적 현황과 세부사업별 편차를 확인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사업방향 기획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활용정책과, 기타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문화재 지원사업(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문화재 제감 증진사업 지역별 참여 누적 현황



통계표

지역문화재 활용 4개 사업수 총괄 현황 (단위: 건)					
구분	생생문화재 (2014-2017)	향교서원 (2014-2017)	문화재야행 (2016-2017)	산사 (2017)	합계
충남	49	31	3	3	86
경기	38	34	1	1	74
전남	34	37	1	2	74
경북	34	32	3	3	72
강원	40	23	2	3	68
경남	29	26	1	1	57
전북	21	23	5	5	54
서울	38	4	3	1	46
제주	24	10	0	2	36
충북	18	11	2	2	33
광주	16	9	1	1	27
인천	9	8	1	1	19
대구	6	8	2	0	16
대전	9	6	0	0	15
부산	7	3	2	0	12
울산	7	3	0	0	10
세종	3	7	0	0	10
합계	382	275	27	25	709



해설	<p>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지역문화재 지원 사업에서 사업수행 건수를 분석한 결과, 총709건(생생문화재 382건, 향교서원문화재 275건, 문화재야행 27건, 전통산사 25건)이 진행되었다. 상위권을 살펴보면, 1순위는 충남으로 총86건, 2순위는 경기로 총74건, 공동 2순위는 전남으로 총74건, 4순위인 경북은 총72건을, 5순위인 강원으로 총68건의 사업을 실행하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사업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2008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야행사업은 2016년부터, 전통산사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li> <li>• 생생문화재 : 2008년부터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 아래 잠자고 있는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으로 기획된 문화재 관광상품</li> <li>•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사용층이 한정적이었던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현재의 인문학적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과거와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li> <li>• 문화재 야행 사업 : 2016년부터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li> <li>•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 2017년부터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체험·답사·공연 등의 형태로 구성된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현황</li> <li>• 주요지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li> <li>• 주요지표 : 문화재야행 사업 운영 현황</li> <li>• 주요지표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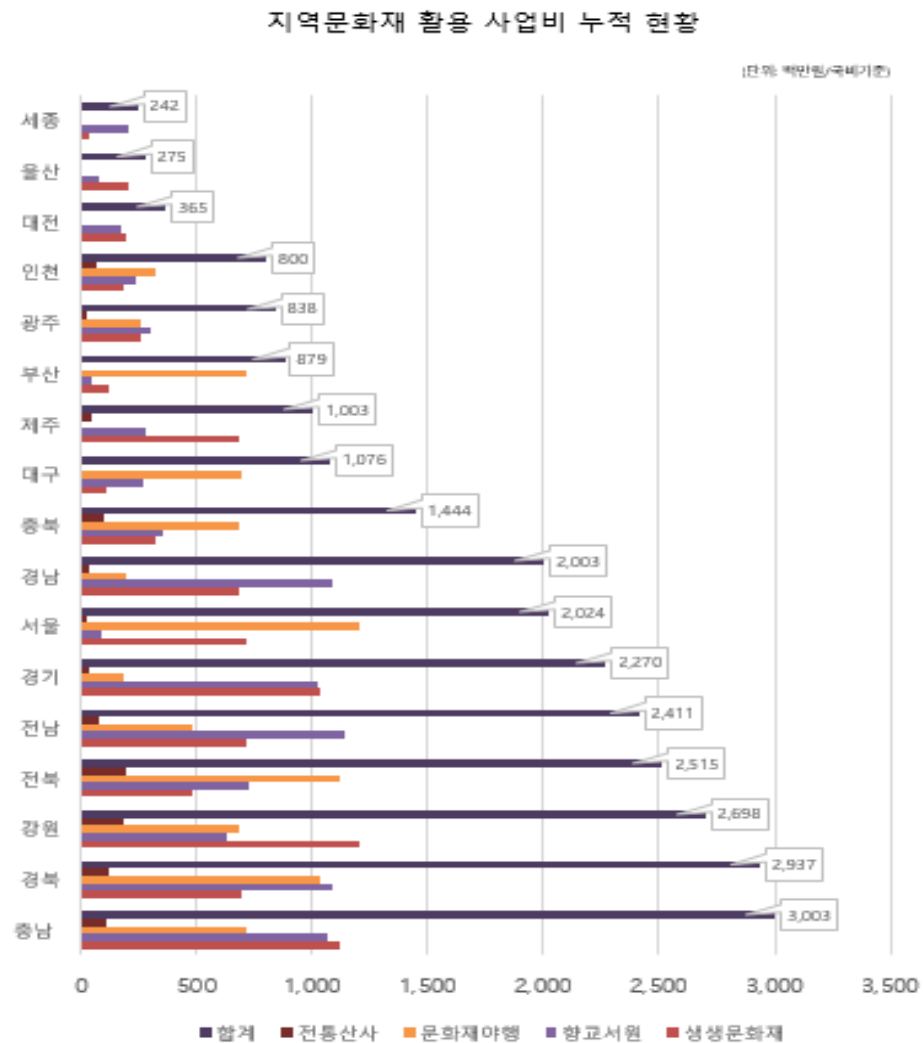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2-2-2	소관부서		활용정책과
지 표 명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예산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문화재)의 예산 총괄 현황			
지표의의	지역별 수행한 생생문화재사업의 추이 및 누적 현황과 편차를 확인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유산 콘텐츠 활용정도를 분석할 수 있어 향후 사업방향 기획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활용정책과, 시도별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생생문화재, 향교서원문화재, 문화재야행, 전통산사문화재 지원사업(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지역문화재 활용 4개 사업 예산지원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생생문화재 (2014-2017)	향교서원 (2014-2017)	문화재야행 (2016-2017)	산사 (2017)	총액 (백만원)
충남	1,121	1,060	718	104	3,003
경북	691	1,089	1,034	123	2,937
강원	1,204	629	684	181	2,698
전북	476	726	1,121	192	2,515
전남	714	1,143	476	78	2,411
경기	1,034	1,019	179	38	2,270
서울	718	84	1,204	18	2,024
경남	684	1,089	192	38	2,003
충북	317	352	680	95	1,444
대구	113	272	691	0	1,076
제주	680	277	0	46	1,003
부산	116	49	714	0	879
광주	261	297	261	19	838
인천	179	236	317	68	800
대전	192	173	0	0	365
울산	204	71	0	0	275
세종	35	207	0	0	242
합계	8,739	8,773	8,271	1,000	26,783

해설	<p>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지역문화재 지원 사업에서 사업비를 분석한 결과, 총267억(생생문화재 87억, 향교서원문화재 87억, 문화재야행 82억, 전통산사 10억)이 집행되었다. 상위권을 살펴보면, 1순위는 충남으로 총30억, 2순위는 경북으로 총29억, 3순위는 강원으로 총26억, 4순위인 전북은 총25억, 5순위인 전남은 총24억원의 사업비를 지출하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 지역에 있는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한 사업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은 2008년부터,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2014년부터, 문화재야행사업은 2016년부터, 전통산사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li> <li>• 생생문화재 : 2008년부터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 아래 잠자고 있는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으로 기획된 문화재 관광상품</li> <li>•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 사용층이 한정적이었던 향교와 서원을 사람과 이야기로 가득한 생기 넘치는 현재의 인문학적 공간으로 재생시키고, 과거와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인문정신과 청소년 인성을 함양하는 공간으로 조성하는 프로그램</li> <li>• 문화재 야행 사업 : 2016년부터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li> <li>•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 2017년부터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체험·답사·공연 등의 형태로 구성된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지표 :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현황</li> <li>• 주요지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li> <li>• 주요지표 : 문화재야행 사업 운영 현황</li> <li>• 주요지표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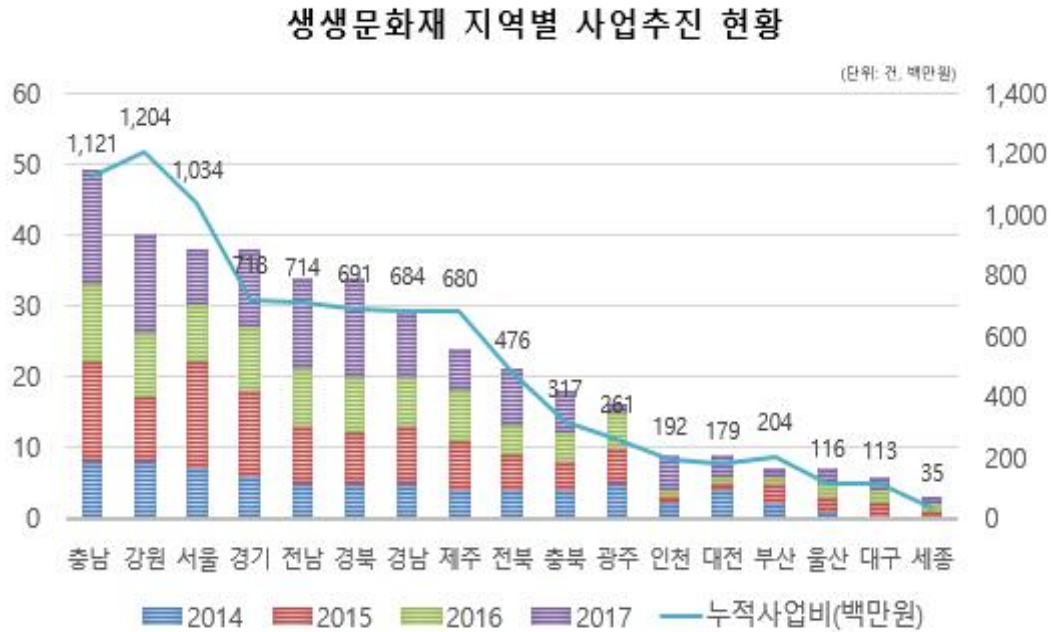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2-3-1	소관부서		활용정책과
지 표 명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작한 생생문화재 사업의 지난 4년간 지역별 수행사업에 대한 현황			
지표의의	지역별 수행한 생생문화재 사업의 추이 및 누적 현황과 편차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방향 기획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활용정책과, 시도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결과(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생생문화재 사업 연도별·시도별 누적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국비기준)			
순위	시도	누적건수	누적금액(백만원)
1	충남	49	1,121
2	강원	40	1,204
3	경기	38	1,034
4	서울	38	718
5	전남	34	714
6	경북	34	691
7	경남	29	684
8	제주	24	680
9	전북	21	476
10	충북	18	317
11	광주	16	261
12	대전	9	192
13	인천	9	179
14	울산	7	204
15	부산	7	116
16	대구	6	113
17	세종	3	35
계		0	0

생생문화재 사업 연도별·시도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국비기준)

시도	2014		2015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7	145	15	236.8	8	158	8	179
부산	2	40	3	36	1	21	1	19
대구	0	0	2	42	2	47	2	44
인천	2	60	1	34	1	28	5	57
광주	5	105	5	76	5	65	1	15
대전	4	100	1	14	1	14	3	64
울산	1	40	2	58	2	57	2	49
세종	0	0	1	8	1	10	1	17
경기	6	200	12	277	9	264	11	293
강원	8	250	9	258	9	298	14	398
충북	4	80	4	54	4	68	6	115
충남	8	205	14	295	11	270	16	351
전북	4	130	5	88	4	96	8	162
전남	5	127	8	140	8	134	13	313
경북	5	80	7	135	8	170	14	306
경남	5	135	8	156.2	7	170	9	223
제주	4	130	7	155	7	200	6	195
계	70	1,827	104	2,063	88	2,070	120	2,800

## 해설

지난 4년간 진행되었던 생생문화재 사업은 총382개의 프로그램에 약8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분석한 결과 중 상위권을 살펴보면, 1순위는 충남으로 총49건(약11억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였고, 2순위는 강원으로 총40건(약12억 규모)의 사업을, 3순위는 경기로 총38건(약10억 규모)의 사업을, 4순위인 서울은 총38건(약7억 규모)의 사업을, 5순위인 전남이 서울과 같은 총38건(약7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였다.

## 관련용어

- 생생문화재 : 2008년부터 '문화재 문턱은 낮게, 프로그램 품격은 높게, 국민 행복은 크게'라는 전략 아래 잠자고 있는 지역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고 문화콘텐츠로 새롭게 만들어 역사교육의 장이자 프로그램형으로 기획된 문화재 관광상품

##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 관련지표

- 주요지표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총괄 현황
- 주요지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 주요지표 : 문화재야행 사업 운영 현황
- 주요지표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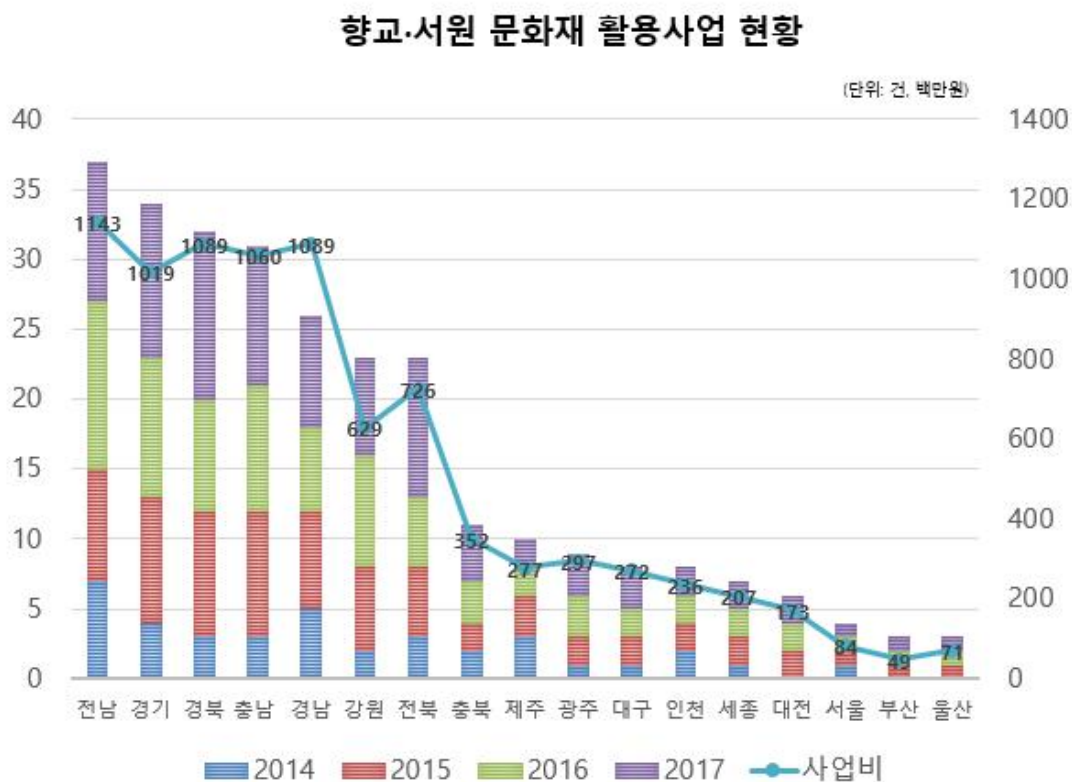
관리번호	활용 5-2-4-1	소관부서		활용정책과
지 표 명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시작한 향교·서원 문화재 사업의 지난 4년간 지역별 수행사업에 대한 현황			
지표의의	지역별 수행한 향교·서원문화재 사업의 추이 및 누적 현황과 편차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방향 기획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활용정책과, 시도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결과(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향교·서원 문화재 사업 연도별·시도별 누적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국비기준)			
순위	시도	누적건수	누적금액(백만원)
1	전남	37	1,143
2	경기	34	1,019
3	경북	32	1,089
4	충남	31	1,060
5	경남	26	1,089
6	전북	23	726
7	강원	23	629
8	충북	11	352
9	제주	10	277
10	광주	9	297
11	대구	8	272
12	인천	8	236
13	세종	7	207
14	대전	6	173
15	서울	4	84
16	울산	3	71
17	부산	3	49
계		275	8,7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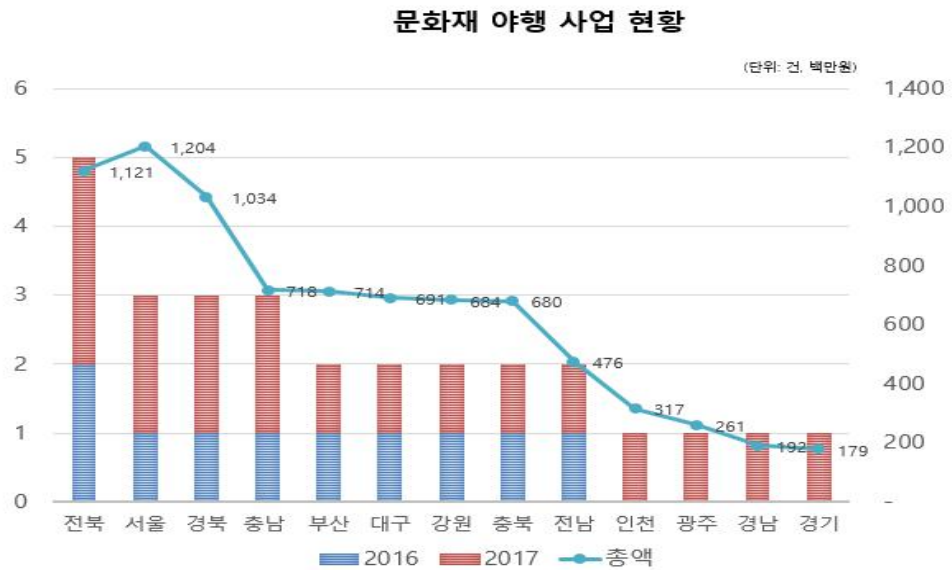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2-5-1	소관부서		활용정책과
지 표 명	문화재 야행 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시작한 문화재 야행 사업의 지난 2년간 지역별 수행사업에 대한 현황			
지표의의	지역별 수행한 문화재 야행 사업 사업의 추이 및 누적 현황과 편차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방향 기획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활용정책과, 시도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야행 사업 운영 결과(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문화재 야행사업 연도별·지역별 누적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국비기준)			
순위	시도	누적건수	누적금액(백만원)
1	전북	5	1,121
2	서울	3	1,204
3	경북	3	1,034
4	충남	3	718
5	부산	2	714
6	대구	2	691
7	강원	2	684
8	충북	2	680
9	전남	2	476
10	인천	1	317
11	광주	1	261
12	경기	1	179
13	경남	1	192
계		28	8,271

문화재 야행사업 연도별·지역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국비기준)

시도	2016		2017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1	200	2	350
부산	1	400	1	350
대구	1	165	1	200
광주	0	0	1	150
대전	0	0	0	0
인천	0	0	1	250
경기	0	0	1	250
강원	1	275	1	300
충북	1	200	1	350
충남	1	500	2	600
전북	2	600	3	850
전남	1	160	1	200
경북	1	500	2	450
경남	0	0	1	200
제주	0	0	0	0
계	10	3,000	18	4,500

## 해설

지난 2년간 진행되었던 문화재 야행 사업은 총28개의 프로그램에 약 8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분석한 결과 중 상위권을 살펴보면, 1순위는 전북으로 총5건(약11억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였고, 2순위는 서울로 총3건(약12억 규모)의 사업을, 3순위는 경북으로 총3건(약10억 규모)의 사업을, 4순위인 충남은 총3건(약7억 규모)의 사업을, 5순위인 부산은 총2건(약7억원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였다.

그리고 제주, 세종, 대전, 울산 지역은 지난 2년간 문화재 야행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 관련용어

- 문화재 야행 사업 : 2016년부터 지역 내 문화유산과 그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하나로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 관련지표

- 주요지표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총괄 현황
- 주요지표 :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현황
- 주요지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 주요지표 :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활용 5-2-6-1	소관부서		활용정책과
지 표 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시작한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의 지역별 수행사업에 대한 현황			
지표의의	지역별 수행한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의 추이 및 누적 현황과 편차를 확인하여 향후 사업 방향 기획을 보완하여 균형있는 사업진행을 추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활용정책과, 시도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결과(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시도별 지원 현황 (단위: 건, 백만원/국비기준)		
시도	2017	
	건수	금액
서울	1	18
인천	1	68
광주	1	19
세종	0	0
경기	1	38
강원	3	181
충북	2	95
충남	3	104
전북	5	192
전남	2	78
경북	3	123
경남	1	38
제주	2	46
계	25	1,000

해설	<p>지난 2017년 진행되었던 전통산사문화재 사업을 분석한 결과 중 상위권을 살펴보면, 1순위는 전북으로 총5건(약1.9억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였고, 2순위는 경기로 총3건(약1.8억 규모)의 사업을, 3순위는 경북으로 총3건(약1.2억 규모)의 사업을, 4순위인 충남은 총3건(약1억 규모)의 사업을, 5순위인 충북이 총2건(약9천만원 규모)의 사업을 실행하였다.</p> <p>그리고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지역은 2017년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 2017년부터 인문학적 정신유산과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통산사의 문화재적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자, 체험·답사·공연 등의 형태로 구성된 고품격 산사문화 관광프로그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총괄 현황</li> <li>주요지표 : 생생문화재 사업 운영 현황</li> <li>주요지표 : 향교·서원문화재 활용사업 운영 현황</li> <li>주요지표 : 문화재야행 사업 운영 현황</li> </ul>



## 4.3. 문화유산 이야기

### 4.3.1. 문화유산 역사 지표

#### ■ 대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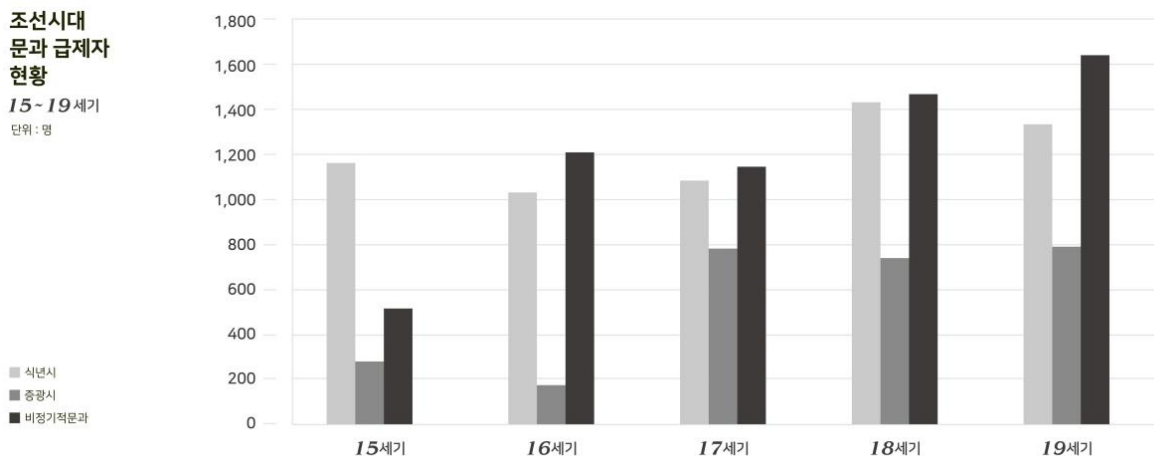
- 대표지표 정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과거의 정치, 사회, 문화, 대외교류 등에 관한 역사를 통계화 한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 대외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역사와 분야별 주요 쟁점을 통계를 통해 확인하거나 조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문화유산과 통계자료의 활용성 및 가능성을 제시함

#### 특기사항

역사 지표는 지금까지 문화유산 통계자료로 생산·활용된 바 없으나, 역사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개별 연구를 통해 생산·활용되어 왔다고 판단됨. 단, 그렇게 생산된 통계가 문화유산 분야나 역사 분야에서 별도로 다뤄진 바 없어 본 과업을 통해 이러한 통계 사례를 개발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역사 지표를 문화유산 통계의 한 부분으로 구축해 갈 것을 제안함

#### 정치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현황  
15~19세기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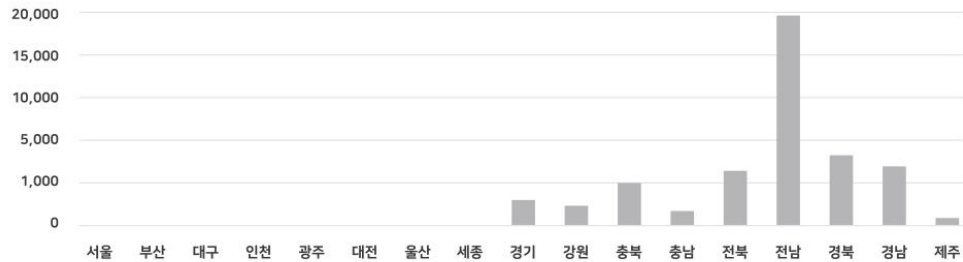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가운데 고위관료로 진출하기 위한 대표적 관문인 문과는 조선 건국 이후 1894년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502년 동안 끊임없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는 완전한 신분제 틀이 배제되진 않았지만 전조인 고려시대에 비해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배층의 저변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혈통을 중시하기보다는 발전된 관료사회의 변모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2년간 문과는 총 804회 실시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의한 정규시험인 식년시(式年試)는 162회 실시하여 5,997인이 합격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임시 시험인 증광시(增廣試)는 68회 개최되었고 2,748인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외 비정기 문과는 517회 시행되었으며 5,94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는 총 14,684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제도는 경국대전 에 실린 규정 자체가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된 적은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며 관련기록은 국가기록인 『국조문과방목』을 비롯해 집안에서 기록한 여러 『방목』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합격자의 이름, 출신지역 등 거주지 등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 외에도 정치와 관련하여 향후 생산 할만한 통계 지표로는 '조선시대 관청', '우리나라 행정 구역의 변천', '우리나라 왕족', '우리나라 귀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하나하나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 결과로 제작할 수 있기에 별도의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 사회

남한지역  
고인돌 지역별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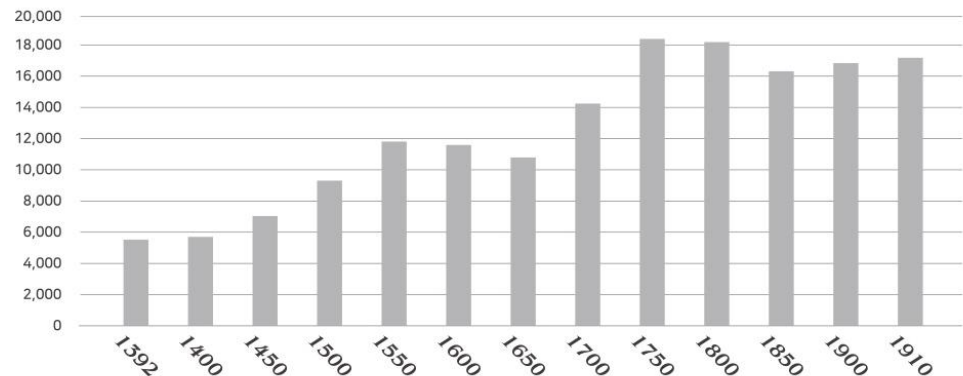
단위 : 고인돌 수



고인돌은 말 그대로 '돌을 고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다.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수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약 3만여 기, 북한에서 약 1만 기에서 1만 5천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세계 고인돌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이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산간 지대를 제외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며 그중에서도 전라남북도 등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전라남도 지역에만 약 2만여 기가 분포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 후반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공동묘지처럼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인돌이 많이 모여 있는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 강화도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조선시대  
인구변화 추이  
1392~1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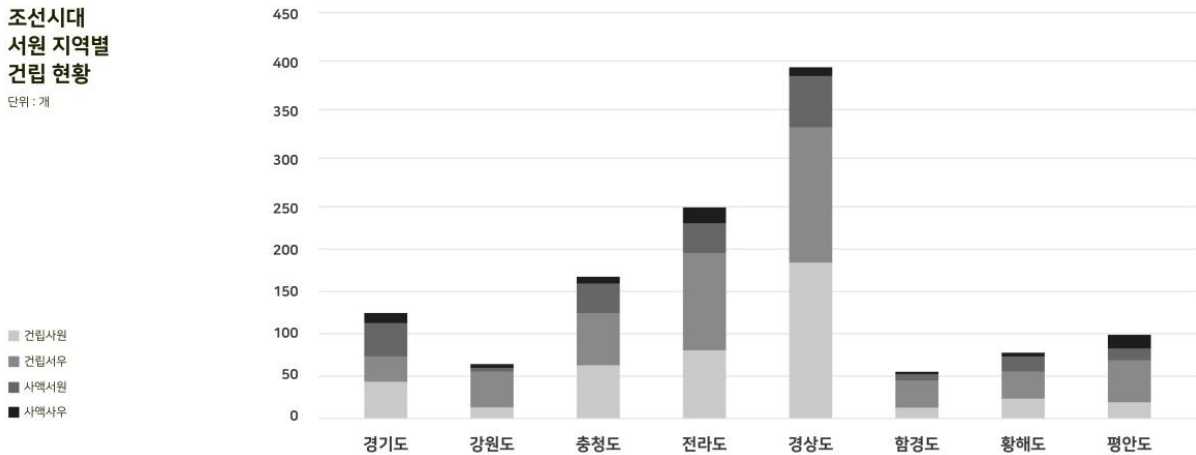
단위 : 천명



조선시대는 이전 시대와는 달리 인구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호구총수(戶口總數)』 등의 사료에 인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시기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해당 자료에 의하면 조선건국 초기 5,549,000명으로 시작해 16세기 두 배에 가까운 1,100만 여 명으로 증가하고, 17세기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인구가 감소하다가 18세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면서 인구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의 인구 수는 17,427,000명으로 건국 초기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하였다.

### 조선시대 서원 지역별 건립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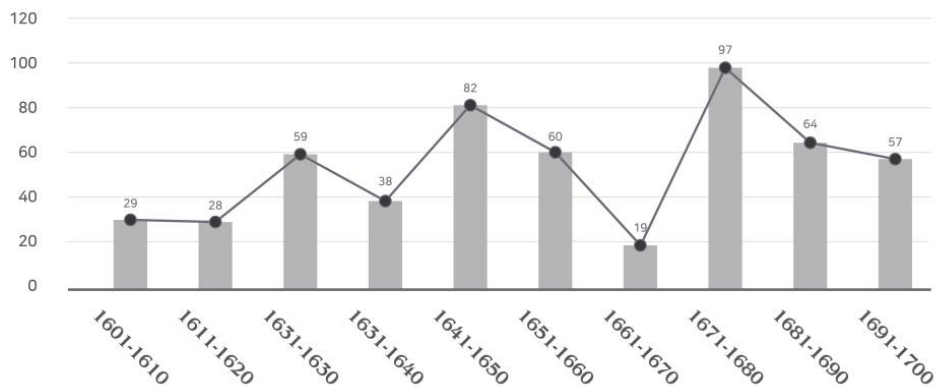


서원은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先賢祭享)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로 주세붕이 1543년 풍기 지역에 유생교육을 겸비한 백운동서원을 최초로 건립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조선시대에 건립된 서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료의 기록을 통해 보면 서원은 전 시기에 걸쳐 8도에 417개소가 있었으며, 사우(祠宇)는 492개소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후기 서원이 남설 되면서 서원·사우의 구별이 모호해졌으므로, 사우까지도 서원과 비슷한 성격으로 파악하여 양자를 합하면 모두 909개 소에 이른다. 초기의 서원은 인재를 키우고 선현·향현을 제사지내며 유교적 향촌 질서를 유지, 시정(時政)을 비판하는 사림(士林)의 공론(公論)을 형성하는 구실을 하는 등 긍정적인 기능을 발휘하였으나 증설되어감에 따라 혈연(血緣)·지연(地緣)관계나 학벌(學閥)·사제(師弟)·당파(黨派) 관계 등과 연결되어 지방 양반층의 이익집단화(利益集團化)하는 경향을 띠게 되고 사액서원의 경우 부속된 토지는 면세되고, 노비는 면역되기 때문에 양민의 투탁(投託)을 유인하여 그들의 경제적 기반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폐단이 점차 불거져 1738년(영조 14) 대대적인 서원 정비에 들어가 200여 개소를 철폐하였으며 1864년(고종 1)에 집권한 대원군(大院君)은 서원에 대한 일체의 특권을 철폐하여, 서원의 설치를 엄금하고 서원의 정비를 단행하여, 사표(師表)가 될 만한 47개소의 서원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였다.

이 외에도 사회와 관련하여 향후 생산 할만한 통계 지표로는 '조선시대 신분 변화', '조선시대 농업 생산량 변화', '조선시대 당파', '우리나라 가옥 형태의 변화', '우리나라의 질병' 등 매우 다양하다.

##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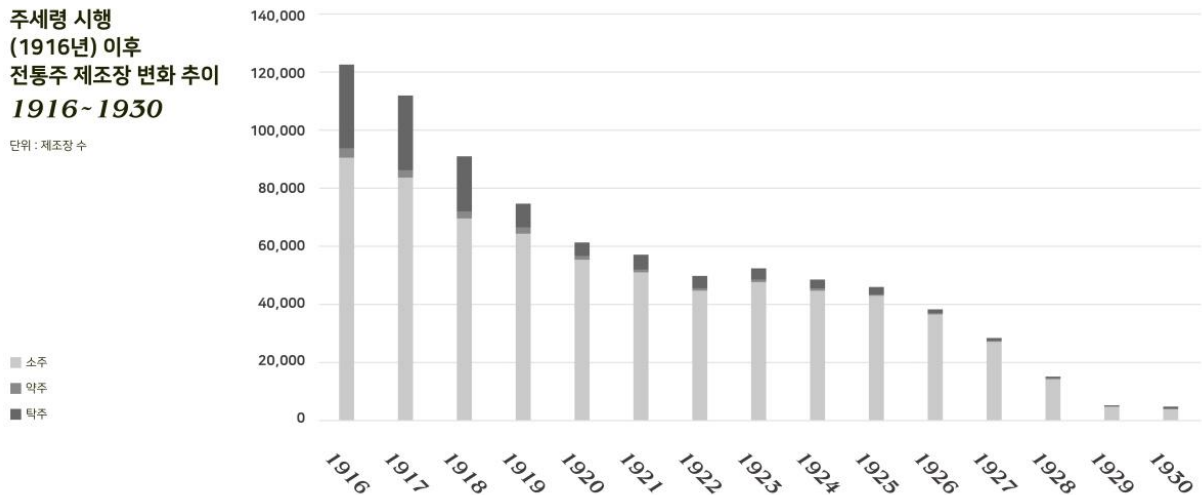
### 『조선왕실 의궤』 「장인질」내 기록된 17세기 야장 현황



『조선왕실의궤』『장인질』에는 궁궐 수리와 국장(國葬) 등의 국가 사업이나 행사에 동원된 각 분야 장인의 이름이 사업별로 기록돼 있다. 한 사람의 장인이 일정 시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어 당시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장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종의 전승계보도 어렵잖이 짐작 가능하다. 본 '17세기 야장 현황'은 역사 분야의 지표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조선왕실의궤』『장인질』에 등장하는 장인 이름을 데이터화 한 것 중 17세기에 한해서만 계수해 작성한 것이다. 이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①오늘날 무형문화재 대장장의 원형인 야장이 국가 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 한 하지만 17세기 얼마나 활동하고 있었는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②17세기 내 시기별로 야장 수의 증가 당시 국가와 관련한 주요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1647년 창덕궁 수리, 1674년 현종 및 인선왕후 국장 등)이다.

주세령 시행  
(1916년) 이후  
전통주 제조장 변화 추이  
1916~1930

단위 : 제조장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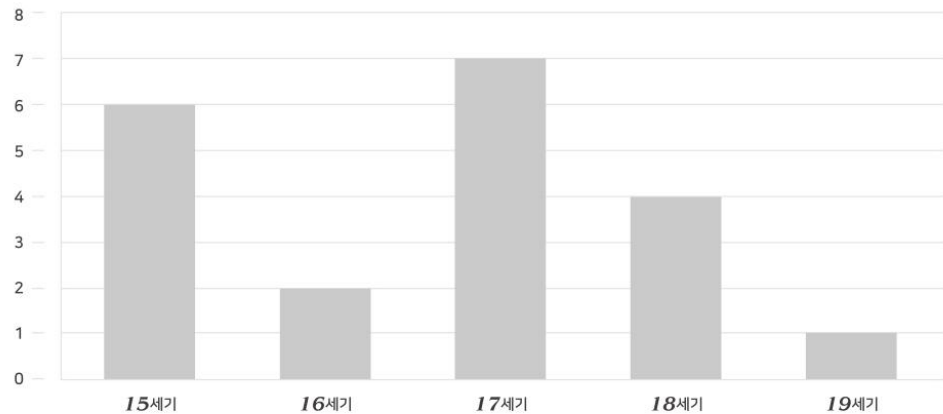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효율적으로 주세를 받기위해 1909년 2월 자가양조를 금지하는 「주세법」이 공포된 이후 전통주는 점점 사라져 갔는데, 다채롭던 우리의 누룩이나 술은 매우 단순하게 규격화되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은 술은 법적 제재로 인해 점차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주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밀주가 성행하자 1916년 1월 주세령을 시행하고 주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모든 주류를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 시켰다. 이로 인하여 전통주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1917년부터는 주류 제조업의 정비가 시작되면서 자가양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각 지방마다 대단위 주류 제조업 공장이 새로 선정되었다. 이에 전통주 양조장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데 주세령 시행초기 121,823개소에 달하던 양조장은 일제의 탄압과 전쟁, 식량문제 등으로 인해 1930년에는 4,770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이후 주세령은 5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주세에 의한 착취가 점점 지능화되었고, 허가제인 양조장 외에 자가용 술의 면허를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1932년에는 자가용 술 면허자가 단 1명만 남았었고 1934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

이 외에도 문화와 관련하여 향후 생산 할만한 통계 지표로는 '조선시대 화원의 변화 추이', '조선시대 분야별 장인 현황', '우리나라 불상 조성 현황',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도자기 생산량의 변화 추이', '우리나라의 사찰 건립 추이' 등 매우 다양하다.

## 대외교류

조선시대 통신사  
파견 현황  
15~19세기  
단위:명



1403년(태종 3)에 중국·조선·일본 간에는 사대·교린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조선국왕과 막부장군은 양국의 최고권력자로서 상호간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때 조선 국왕이 막부장군에게 보내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사절을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 통신사의 명칭이 처음 나타난 것은 1413년(태종 13)이었으나 중지되었고 그 뒤 통신사의 명칭을 가지고 일본에 파견된 사행은 1428년(세종 10) 정사 박서생(朴瑞生) 이하의 사절단이었다. 이후 통신사의 파견은 정례화되어 조·일 양국간에 우호교린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가 이루어졌다. 막부장군에게 조선국왕의 국서를 전달한 통신사는 대개 300~5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간은 6개월~1년이 소요되었다. 그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이 화려한 행렬도를 그린 병풍·회권·판화 등의 형태로 전해진다. 또 그들은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일들을 여러 형태로 남겼는데, 이것이『해행총재(海行總載)』라는 건문록으로 엮여져서 당시 두 나라 간의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여준다.

이 외에도 대외교류와 관련하여 향후 생산 할만한 통계 지표로는 '조선시대 사신 파견 현황', '우리나라의 전쟁', '우리나라의 대외 문물교류' 등 매우 다양하다.

이상 문화유산 역사 지표는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 각종 기록유산이나 실물자료인 동산문화재 등을 통해 통계 자료화 할 수 있다. 다만,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 연구를 통해 생산해야 한다는 전제가 뒤따르는데 각 분야 전문성을 담보한 정확한 통계 자료여야 한다는 점과 하나의 통계를 오랜 시간을 들여 제작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요소이다. 이러한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자면, 각종 연구용역 수행 시 통계자료 생산을 과업내용에 포함하는 방법과 별도의 연구팀을 설치해 문화유산을 통한 역사 통계지표를 개발하는 방법이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역사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7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현황 지표의 7개 세부지표는 다음 7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6. 문화유산 역사 세부지표

### 6.1. 정치

#### 6.1.1. 정치

6-1-1-1.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현황 : 15-19세기

### 6.2. 사회

#### 6.2.1. 생활

6-2-1-1. 남한지역 고인돌 분포 현황

6-2-1-2. 조선시대 인구변화 추이 : 1392-1910

#### 6.2.2. 교육

6-2-2-1. 조선시대 서원 지역별 건립 현황

### 6.3. 문화

#### 6.3.1. 기술

6-3-1-1. 17세기 야장 현황

6-3-1-2. 주세령(1916년) 시행 이후 전통주 제조장 변화 추이

### 6.4. 대외교류

#### 6.4.1. 교류

6-4-2-1. 조선시대 통신사 파견 현황 : 15-19세기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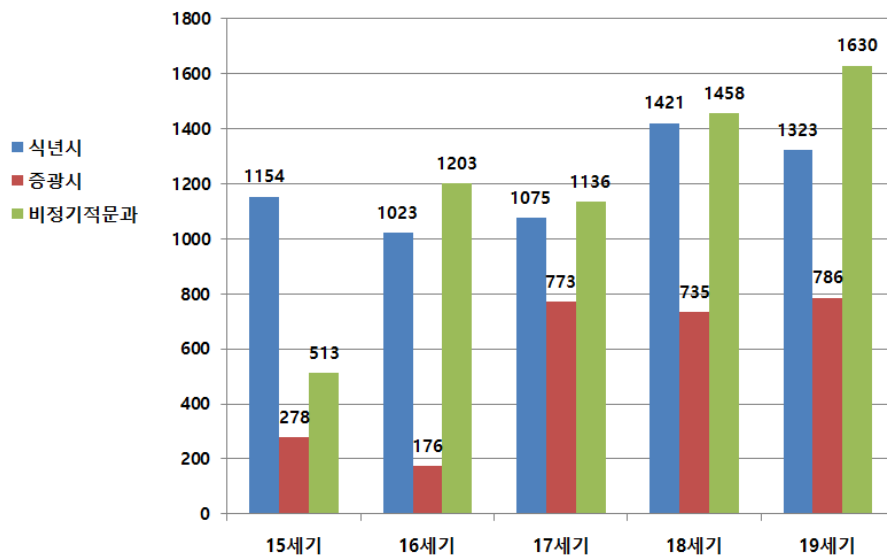
관리번호	역사 6-1-1-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현황 : 15~19세기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조선 건국 이후 502년간 실행된 문과(文科) 시험 급제자 수 세기별 현황			
지표의의	조선 핵심 지배계층인 관료를 배출하기 위해 시행된 시험인 무과의 502년간 급제자 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조선시대 정치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 표본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조선시대 문과 급제자 현황(15~19세기) (단위: 명)				
구분	식년시	증광시	비정기적 문과	총계
15세기	1,154	278	513	1,945
16세기	1,023	176	1,203	2,402
17세기	1,075	773	1,136	2,984
18세기	1,421	735	1,458	3,614
19세기	1,323	786	1,630	3,739
계	5,997	2,748	5,940	14,684

해설

조선시대의 과거시험 가운데 고위관료로 진출하기 위한 대표적 관문인 문과는 조선 건국 이후 1894년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502년 동안 끊임없이 시행되었다. 조선시대는 완전한 신분제 틀이 배제되진 않았지만 전조인 고려시대에 비해 개인의 능력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지배층의 저변을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혈통을 중시하기보다는 발전된 관료사회의 변모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02년간 문과는 총 804회 실시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의한 정규시험인 식년시(式年試)는 162회 실시하여 5,997인이 합격하였다.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임시 시험인 증광시(增廣試)는 68회 개최되었고 2,748인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그 외 비정기 문과는 517회 시행되었으며 5,94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여 조선시대 문과 합격자는 총 14,684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제도는 경국대전에 실린 규정 자체가 폐지되거나 새로운 법이 제정된 적은 없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된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며 관련기록은 국가기록인 『국조문과방목』을 비롯해 집안에서 기록한 여러 『방목』에 기록이 남아있는데 합격자의 이름, 출신지역 등 거주지 등이 함께 기록되어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 고려와 조선 시대에 관리를 뽑기 위해 시행된 시험 제도. 고려 시대의 과거 제도에서 중심이 된 것은 문과였지만 기술관을 뽑는 잡과와 승려들이 치르는 승과도 있었음. 과거 제도가 체계적으로 시행된 것은 조선 시대였는데 조선의 과거 제도는 문과와 무과, 잡과로 나누어 시행됨</li> <li>• 문과 : 문관(文官)을 등용하기 위해 실시한 과거. 문과에는 3년에 한 차례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문과(式年文科)가 있고, 그 밖에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임시 특설의 문과가 있었음</li> <li>• 식년시 : 3년마다 시행된 문과 정규시험. 502년간 162회 실시하여 5,997인이 합격</li> <li>• 증광시 :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실시된 임시 시험. 68회 개최되었고 2,748인이 합격</li> </ul>
<p>출 처</p>	<p>1. 「朝鮮時代 文科及第者 研究」, 원창애,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p>
<p>관련지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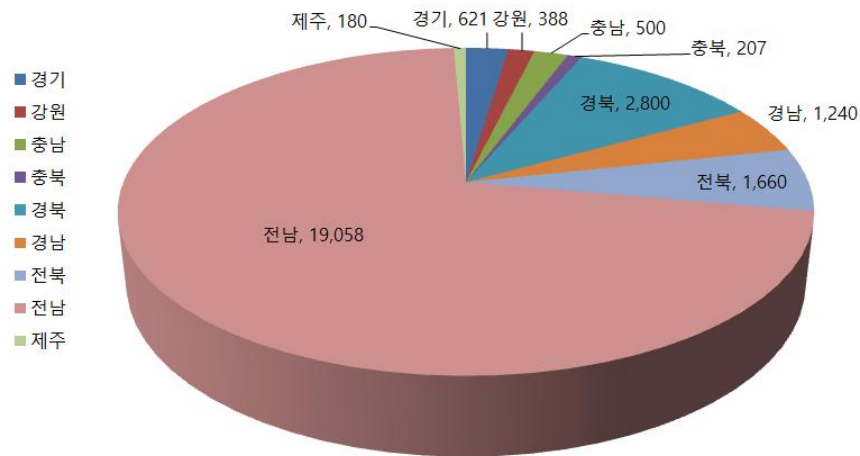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역사 6-2-1-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남한지역 고인돌 분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한반도 전역에 분포된 고인돌 중 남한지역 고인돌의 지역별 분포현황			
지표의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도 지정된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무덤 형식인 고인돌의 지역별 분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선사시대 사회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 표본	남한지역 고인돌 분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남한지역 고인돌 분포현황 (단위: 개)	
구분	고인돌 수
경기도	621
강원도	388
충청남도	500
충청북도	207
경상북도	2,800
경상남도	1,240
전라북도	1,660
전라남도	19,058
제주도	180
계	26,474

해설

고인돌은 말 그대로 ‘돌을 고였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이다.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수의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지금까지 남한에서 약 3만여 기, 북한에서 약 1만 기에서 1만 5천기에 가까운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세계 고인돌의 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이다. 평안북도와 함경북도의 산간 지대를 제외한 전국에 고르게 분포하며 그중에서도 전라남북도 등 서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전라남도 지역에만 약 2만여 기가 분포한다. 청동기시대 전기에서 중기 후반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공동묘지처럼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고인돌이 많이 모여 있는 전라북도 고창, 전라남도 화순, 인천 강화도 고인돌 유적은 2000년 12월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등록되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인돌 : 한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 지석묘(支石墓)라고도 부름. 고인돌은 전 세계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특히 중국과 우리나라,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음.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고인돌 왕국’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수의 고인돌이 발견되었음</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기도박물관 저, 『경기도 고인돌』, 경기도박물관, 2009</li> <li>문화콘텐츠닷컴(<a href="http://www.culturecontent.com">http://www.culturecontent.com</a>) 내 “지역별 고인돌의 분포”(한국콘텐츠진흥원)</li> </ol>
<p>관련지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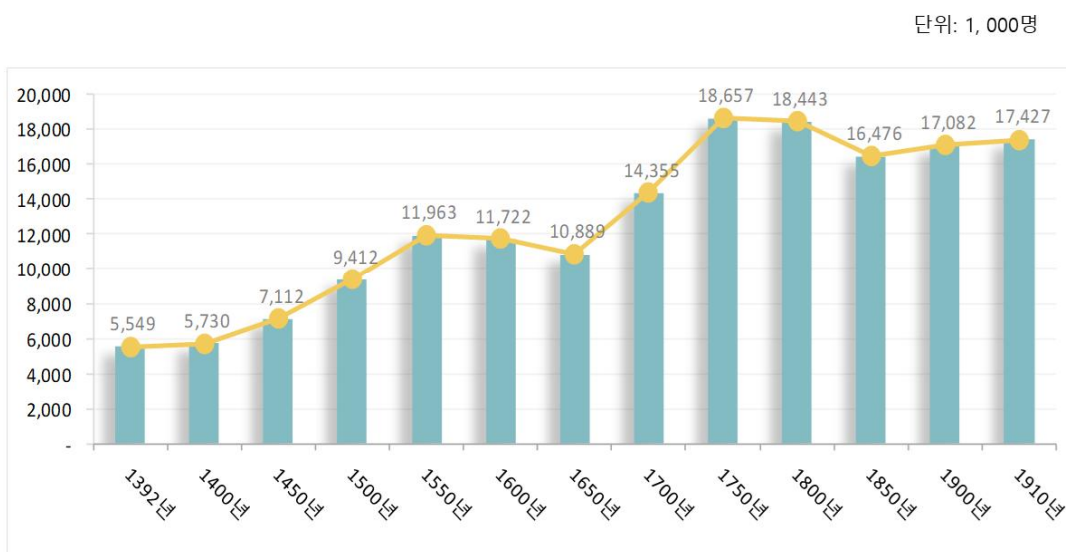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역사 6-2-1-2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조선시대 인구변화 추이 : 1392~1910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조선시대 시기별 인구 변화 추이			
지표의의	조선시대 시기별 인구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조선시대 사회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 표본	조선시대 인구 현황-호구총수, 조선왕조실록 등 관련사료(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조선시대 인구현황 (단위: 명)	
구분	인구수
1392년	5,549,000
1400년	5,730,000
1450년	7,112,000
1500년	9,412,000
1550년	11,963,000
1600년	11,722,000
1650년	10,889,000
1700년	14,355,000
1750년	18,657,000
1800년	18,443,000
1850년	16,476,000
1900년	17,082,000
1910년	17,427,000

해설	<p>고려시대 등 이전 시기에 비해 조선시대는 『호구총수(戶口總數)』 등의 사료에 인구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어 해당 시기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볼 수 있음. 자료를 보면 조선건국 초기 5,549,000명으로 시작해 16세기 두 배에 가까운 1,100만 여 명으로 증가하고, 17세기 두 차례의 전란을 겪으며 인구가 감소하다가 18세기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안정되고 발전하면서 인구가 다시 급증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1910년의 인구수는 17,427,000명으로 건국 초기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구 : 호(戶)는 민거(民居)를 뜻하고 구(口)는 인구(人口)를 의미</li> <li>• 호구총수 : 조선시대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기록한 책. 9책. 정확한 편찬자·편찬시기·편찬경위 등은 알 수 없음</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한국인구학회 저, 『인구대사전』, 통계청, 2007</li> <li>2. 『戶口總數』</li> <li>3. 『朝鮮王朝實錄』</li> </ol>
관련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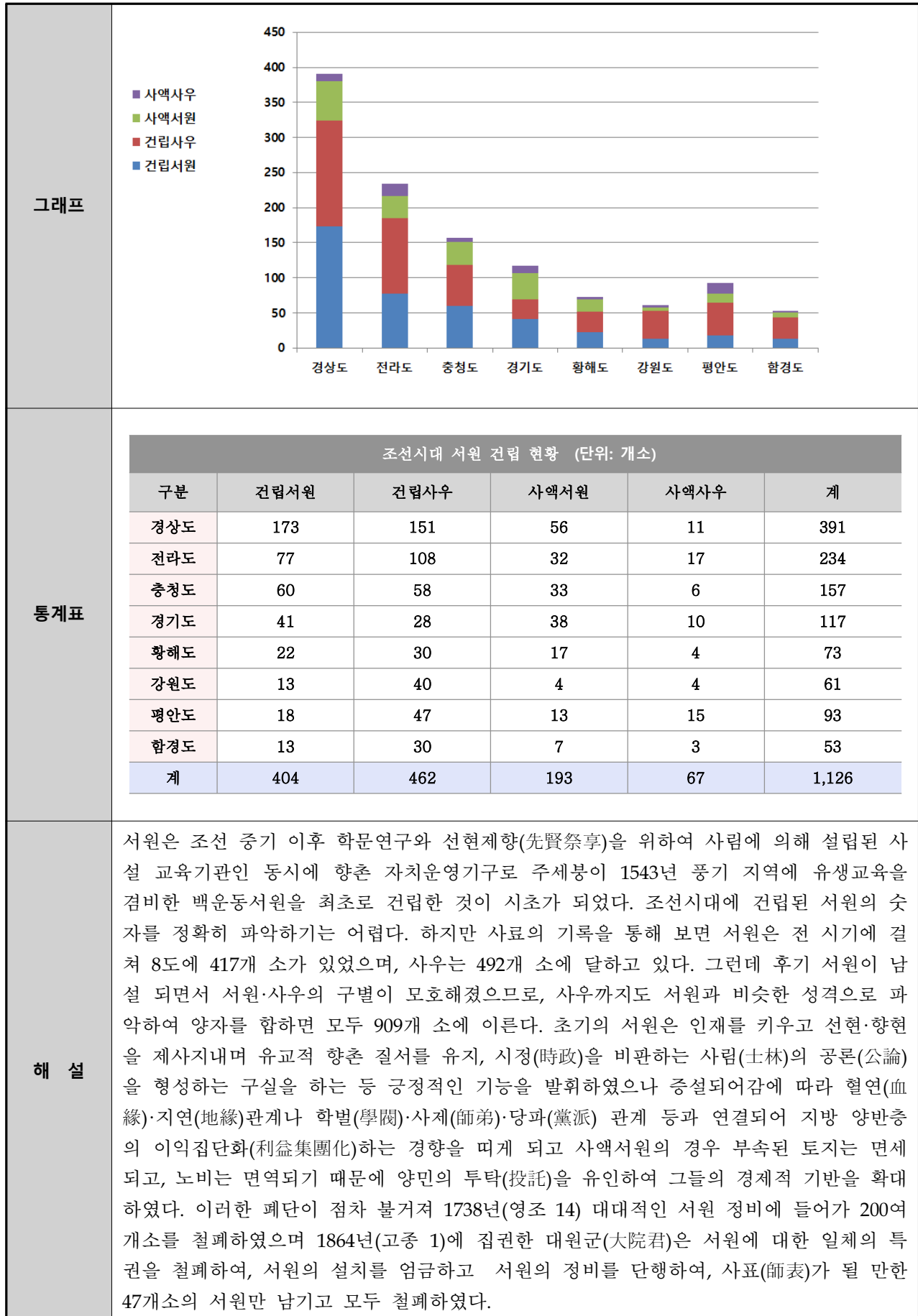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역사 6-2-2-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조선시대 서원 건립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조선시대 각 지역에 설립된 서원의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의의	1543년(중종 38) 이후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인 서원의 지역별 건립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조선시대 사회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 표본	조선시대 서원 건립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원 : 조선 중기 이후 학문연구와 선현제향을 위하여 사림에 의해 설립된 사설 교육 기관인 동시에 향촌 자치운영기구</li> <li>• 사우 : 선조 혹은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 두고 연 수차에 걸쳐 제향을 행하는 곳</li> <li>• 사액 : 조선시대에 왕이 사당이나 서원 등에 이름을 지어 그것을 새긴 편액(扁額)을 내리던 일</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書院謄錄』</li> <li>2. 『列邑院宇事蹟』</li> <li>3. 『文獻備考』</li> </ol>
<p><b>관련지표</b></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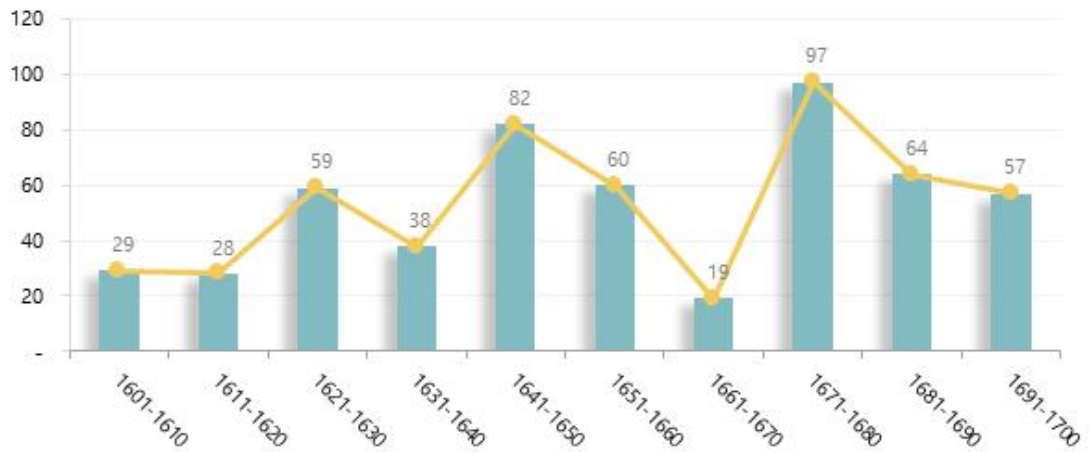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역사 6-3-1-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17세기 야장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조선왕실의궤』 「장인질」 에 기록된 17세기 야장(冶匠) 현황			
지표의의	현재 시도무형문화재 대장장의 원형인 야장(冶匠)의 17세기 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조선시대 문화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별도의 전문 연구용역
	조사 표본	조선시대 야장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17세기 야장 현황 (단위: 명)										
구분	1601 ~ 1610	1611 ~ 1620	1621 ~ 1630	1631 ~ 1640	1641 ~ 1650	1651 ~ 1660	1661 ~ 1670	1671 ~ 1680	1681 ~ 1690	1691 ~ 1700
야장 수	29	28	59	38	82	60	19	97	64	57

[참고] 본 자료는 『조선왕실의궤』 「장인질」에서 발췌한 현황 자료이기에 당시 국가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 한한 것임. 실제로 당시 이보다 훨씬 많은 야장이 활동했을 것으로 추정됨

해설

『조선왕실의궤』 「장인질」에는 궁궐 수리와 국장(國葬) 등의 국가 사업이나 행사에 동원된 각 분야 장인의 이름이 사업별로 기록돼 있다.

한 사람의 장인이 일정 시기에 여러 차례 참여한 사례도 종종 발견할 수 있어 당시 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장인 이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종의 전승계보도 어렵듯이 짐작 가능하다.

본 '17세기 야장 현황'은 역사 분야의 지표 사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조선왕실의궤』 「장인질」에 등장하는 장인 이름을 데이터화 한 것 중 17세기에 한해서만 계수해 작성한 것이다.

이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①오늘날 무형문화재 대장장의 원형인 야장이 국가 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 한 하지만 17세기 얼마나 활동하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②17세기 내 시기별로 야장 수의 증가 당시 국가와 관련한 주요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1647년 창덕궁 수리, 1674년 현종 및 인선왕후 국장 등)이다.

본 자료는 한서대학교 장경희 교수가 저술한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 2』의 내용을 토대로 연구팀이 직접 야장 수를 데이터화 하여 작성한 것이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야장(冶匠) : 흔히 대장장이를 뜻하는 조선시대 장인. 망치, 가위 따위로 금속을 단조하여 강이나 철판부터 물건을 만들어내며 연철문, 석쇠, 난간, 가벼운 정작물, 가구, 조각품, 공구, 농기구, 장식 물품, 종교에 쓰이는 물건, 요리기구, 말굽의 편자, 무기 등 다양한 물건을 만들며, 유사 용어로는 철장(鐵匠), 야공(冶工), 단야(鍛冶), 단야공(鍛冶工), 철공(鐵工) 등이 있음. 우리나라 야장의 역사는 『삼국유사』 「紀異第一」 신라 4대왕인 탈해왕(脫解王)편 탈해왕조의 설화에 “我本冶匠”이라 언급된 대목을 통해 처음 등장하며, 이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철을 다루는 장인은 다양한 분야의 수요에 맞춰 그 기능과 역할이 변화해 왔음. 조선시대에는 철물을 다루는 장인 중 단조(鍛造) 작업 관련 장인은 야장(冶匠), 연철장(練鐵匠), 화빈장(火鑪匠) 등이 있었는데, 경공장이나 외공장에 소속되어 무기를 생산하거나 관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철물을 제작하였음</li> <li>조선왕실의례(朝鮮王室儀軌) : 조선시대에 왕실이나 국가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후세에 참고할 수 있도록 일체의 관련 사실을 그림과 문자로 정리한 책. 결혼·잔치·장례 때 입은 왕의 옷과 행렬의 배치를 그림을 통해 상세하게 기록한 문서. 역사적으로 귀중한 가치를 지니며, 2007년 국내에 소장돼 있던 3,430책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됨</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경희 저, 『의례 속 조선의 장인 1, 2』, 술과학, 2013</li> <li>2. 한국민족문화대백과</li> <li>3.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li> </ol>
<p>관련지표</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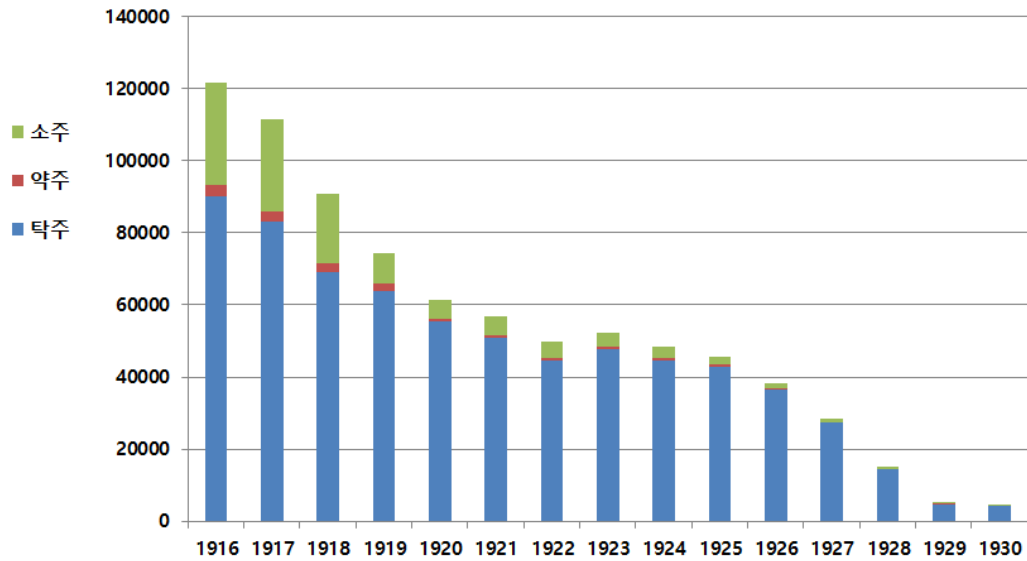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역사 6-3-1-2	소관부서		정 보 화 담 당 관 실
지 표 명	주세령 시행(1916년) 이후 전통주 제조장 변화 추이	통계 유형	작성법	보 고
			목적/대상	응 용
지표정의	1916년 일제에 의해 주세령이 실시된 이후 등록된 우리나라 전통주 제조장 수 변화 추이를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주세령 시행으로 인한 우리나라 전통주(소주, 약주, 탁주) 제조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근대 문화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 표본	근대 전통주 현황_1916년 이후 전통주 주종별 제조장 수(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주세령 시행(1916년) 이후 전통주(탁주, 양주, 소주) 제조장 수 변화 (단위: 개소)				
구분	탁주	양주	소주	총계
1916	90,097	3,322	28,404	121,823
1917	83,273	2,661	25,442	111,376
1918	69,128	2,521	19,001	90,650
1919	63,980	2,086	8,467	74,533
1920	55,313	972	5,056	61,341
1921	50,846	916	5,172	56,934
1922	44,602	765	4,320	49,687
1923	47,684	713	3,741	52,138
1924	44,549	706	3,175	48,430
1925	42,774	612	2,296	45,682
1926	36,466	469	1,303	38,238
1927	27,253	257	800	28,310
1928	14,441	174	630	15,245
1929	4,786	162	545	5,493
1930	4,149	130	491	4,770



해설	<p>일제강점기 효율적으로 주세를 받기위해 1909년 2월 자가양조를 금지하는 「주세법」이 공포된 이후 전통주는 점점 사라져 갔는데, 다채롭던 우리의 누룩이나 술은 매우 단순하게 규격화되었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은 술은 법적 제재로 인해 점차 만들지 못하게 되었다. 주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밀주가 성행하자 1916년 1월 주세령을 시행하고 주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모든 주류를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 시켰다. 이로 인하여 전통주는 점차 사라지게 되는데, 1917년부터는 주류 제조업의 정비가 시작되면서 자가양조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었고 각 지방마다 대단위 주류 제조업 공장이 새로 선정되었다. 이에 전통주 양조장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데 주세령 시행초기 121,823개소에 달하던 양조장은 일제의 탄압과 전쟁, 식량문제 등으로 인해 1930년에는 4,770개소로 줄어들게 된다. 이후 주세령은 5차에 걸쳐 개정되면서 주세에 의한 착취가 점점 지능화되었고, 허가제인 양조장 외에 자가용 술의 면허를 극도로 억제함으로써 1932년에는 자가용 술 면허자가 단 1명만 남았었고 1934년에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세법 : 1909년 일제에 의해 시행된 법률로 조선인의 자가 양조를 전면 금지하고, 주류에 대한 조세를 부과함. 해방 후에도 그 틀은 유지되고 있음</li> <li>• 주세령 : 주세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밀주가 성행하자 1916년 1월 주세법의 세부법령인 주세령을 시행하고 주류 단속을 강화하면서 모든 주류를 약주, 탁주, 소주로 획일화시킴</li> <li>• 양조장 : 발효식품, 즉 술이나 간장 식초 등을 만드는 공장</li> </ul>
출처	<p>1. 『조선주조사』, 배상면 편역, 우곡출판사, 1997</p>
관련지표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역사 6-4-2-1	소관부서		정보화담당관실
지 표 명	조선시대 통신사 파견 현황 : 15~19세기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조선시대 국왕에 의해 일본에 파견된 공식적 외교사절인 통신사(通信使)의 파견 횟수			
지표의의	조선시대 국왕의 명의로 일본의 막부장군에게 보낸 공식적인 외교사절의 시대별 파견 횟수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자료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조선시대 대외교류 분야 통계 조사연구		
	조사 대상	특정 불가		
	조사 시기	비정기		
	조사 방법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조사 표본	조선시대 통신사 파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역사) 통계, 각종 학술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조선시대 통신사 파견 현황(15~19세기) (단위: 건)		
구분	파견년도	파견횟수
15세기	1413(태종 13)	6
	1429(세종 11)	
	1439(세종 21)	
	1443(세종 25)	
	1460(세조 6)	
	1479(성종 10)	
16세기	1590(선조 23)	2
	1596(선조 29)	
17세기	1607(선조 40)	7
	1617(광해군 9)	
	1624(인조 2)	
	1636(인조 14)	
	1643(인조 21)	
	1655(효종 6)	
	1682(숙종 8)	
18세기	1711(숙종 37)	4
	1719(숙종 45)	
	1748(영조 24)	
	1764(영조 40)	
19세기	1811(순조 11)	1
계		20

해 설	<p>1403년(태종 3)에 중국·조선·일본 간에는 사대·교린의 외교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조선 국왕과 막부장군은 양국의 최고권력자로서 상호간에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때 조선 국왕이 막부장군에게 보내는 사절을 통신사, 막부장군이 조선 국왕에게 보내는 사절을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통신사의 명칭이 처음 나타난 것은 1413년(태종 13)이었으나 중지되었고 그 뒤 통신사의 명칭을 가지고 일본에 파견된 사행은 1428년(세종 10) 정사 박서생(朴瑞生) 이하의 사절단이었다. 이후 통신사의 파견은 정례화되어 조·일 양국간에 우호교린의 상징으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총 20회(조선 전기 8회, 조선 후기 12회)가 이루어졌다. 막부장군에게 조선국왕의 국서를 전달한 통신사는 대개 300~50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간은 6개월~1년이 소요되었다. 그들은 방문하는 곳마다 서화·시문 등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것이 화려한 행렬도를 그린 병풍·회권·판화 등의 형태로 전해진다. 또 그들은 귀국 후 일본에서 겪은 일들을 여러 형태로 남겼는데, 이것이 『해행총재(海行總載)』라는 견문록으로 엮여져서 당시 두 나라 간의 외교적인 역할 및 문화교류의 실상을 보여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신사 : 조선 시대에 일본으로 보내던 사신. 임진왜란 때 한때 중단되었다가 일본의 반성과 통신사 요청으로 통신사를 다시 보냄. 통신사는 임진왜란 전에는 왜구를 방지하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포로들을 데려오거나, 일본의 정세를 살피고, 막부 장군의 임명을 축하하기 위한 것으로 바뀌었음. 통신사는 일본에 학문과 기술, 문화를 전달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본은 통신사를 성대하게 대접함</li> <li>• 막부 : 12세기에서 19세기까지 쇼군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무사 정권을 지칭</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li> <li>2. 『통신사등록(通信使謄錄)』</li> <li>3. 『통문관지(通文館志)』</li> <li>4.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통신사’</li> </ol>
관련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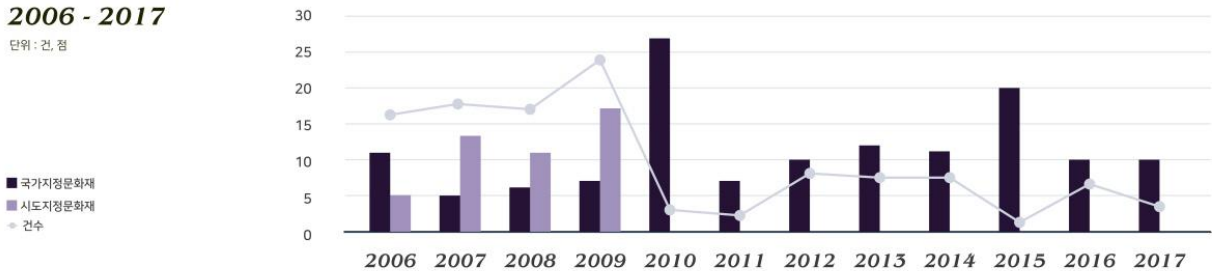
## 4.3.2. 문화유산 연구 지표

### ■ 대표지표

- 대표지표 정의 : 문화재 기록화 및 정보화, 문화재 연구 및 도서 발간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 및 추진 현황을 나타낸 종합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제고하는 중요한 방법인 문화유산 연구에 관한 다양한 활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문가 및 일반 국민이 문화유산 관련 학술 정보와 동향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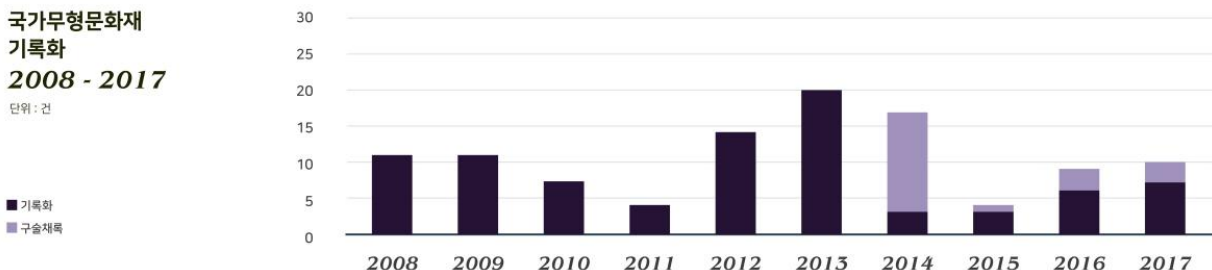
### 문화재 기록화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2006 - 2017  
단위 : 건, 점



2005년 보물 제749호 낙산사 동종의 소실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어 도난·화재 등으로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큰 중요동산문화재에 대한 점검 및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부터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범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는 소조불·목조불·철불·건칠불 등 불상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총 113건 192점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완료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2008 - 2017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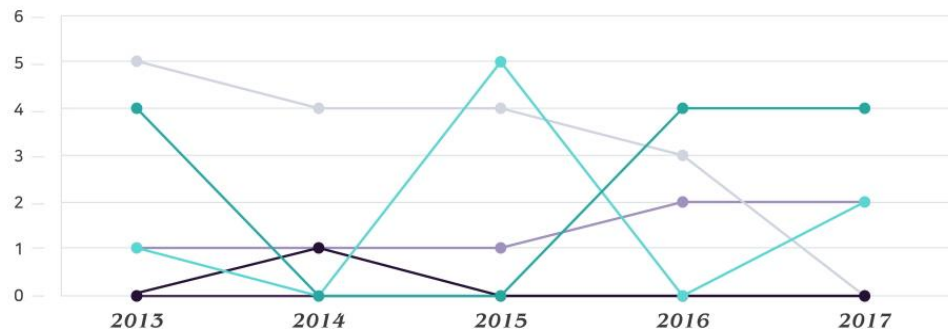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0년간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는 총 107건이었다.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는 크게 영상 및 도서 기록화, 구술채록 2가지로 나뉜다. 영상 및 도서기록화는 종목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사진 및 영상 촬영 이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영상 기록화라 할 수 있고, 별도의 도서로 발간한다. 구술채록은 개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구술채록 이후 이를 도서로 발간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로 제작한다.

## 문화재 정보화

**아태지역  
정보화 협력사업  
수행현황** 단위 : 개국  
**2013 - 2017**

- ◆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 ◆ 디지털화 지원사업
- ◆ 무형유산 정보화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개발조사
- ◆ 무형유산 보호 공적 개발 원조사업
- ◆ 무형유산 영상 기록사업
- ◆ 중앙아시아 정보 공유 지원사업

정보기반 조성 주요 사업 실적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정보 및 네트워킹 기능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양한 무형유산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제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1본부 1실 4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총장 1인 외 19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아태지역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무형유산 영상기록,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복원 지원사업 등 총 58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ICH Courier 발간, 유네스코 관련 도서 및 각종 회의 보고서 발간 등 총 224건의 정보보급 사업을 수행하였다.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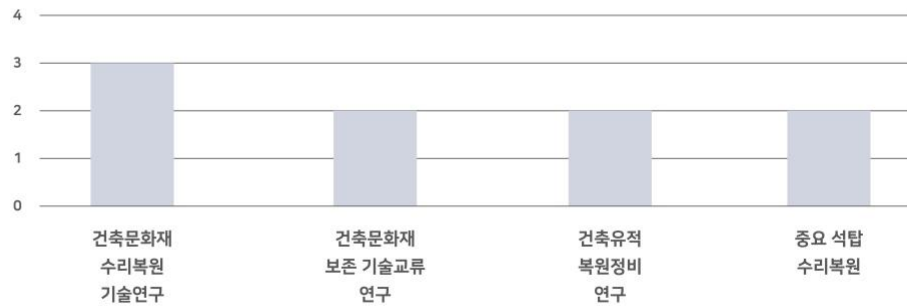
- 센터 소개 페이지, DB 서비스 (2012-2017)
-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 e-지식관 (2014-2017)



아태무형유산센터는 아태지역의 48개국 중 22개국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현황 정보 조사하였으며, 지난 5년간 축적한 문서, 영상, 음원, 사진 등 정보들을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 e-지식관 등 온라인 형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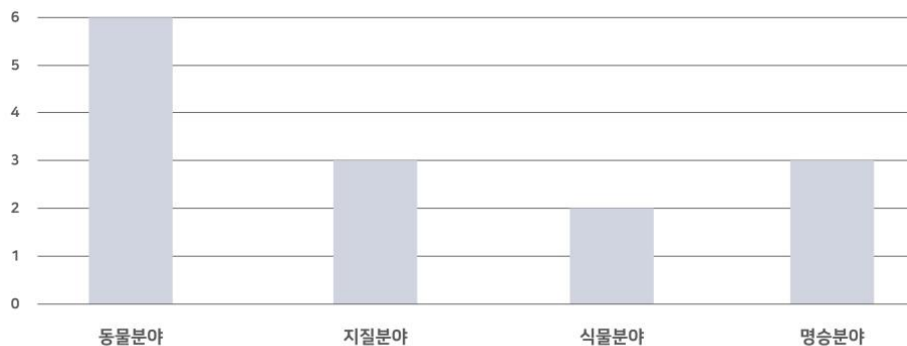
## 문화재 연구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단위: 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문화재 수리복원 기술 연구 총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017년까지 건축문화재 관련 조사기법, 보수 및 보강, 보존처리 기술조사(국내외 사례조사), 국가지정 석탑 원형 기록 보존을 통한 보수·복원 관련 기반 구축, 건축문화재 해체보수 수리기술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경상남도의 석탑 II』를 발간했다. 국가지정 석탑은 총 189건 205기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지역별로 국가지정 석탑의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위치한 석탑에 한 조사 완료하였다. 건축문화재 보존기술교류연구는 2017년~2021년까지 국외 건축문화재 수리현장 조사, 연구, 수리 등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국내 건축 문화재 수리현장 기술 및 정책지원으로 총 2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건축유적 복원정비연구는 '황룡사', '미륵사' 복원 정비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단위: 건



동물분야 조사연구 사업추진 기간(2009년~2020년) 동안 2017년 세부추진내용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번식지 여건 개선을 통한 증식·보존 연구",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 조류에 한 이동경로 기초연구", "축양동물 및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 "천연기념물 동물 및 자연사자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공동연구", "기증 매머드 화석표본 연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의 실태 및 보전현황 조사를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서식지 9개소에 한 정기조사 실시"로 총 6개 연구가 시행되었다. 지질분야 연구는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연구, 한반도 지질 다양성 조사, 한-포르투갈 공동발자국 국제공동연구,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 식물분야는 천연기념물 식물 신규 유형 개발 및 지정기준 개정 연구, 천연기념물 식물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로 총 두 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명승분야 연구는 전통 구곡과 팔경 자원조사 및 지정자원 DB 구축, 명승 원림 복원 연구 및 중요 유적지 실태조사, 명승분야 국제 공동연구로 세 가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

무형문화재의 조사연구를 위한 사업으로는 ①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2015년~계속), ②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현황조사의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2009년~계속),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정기조사(2016~2017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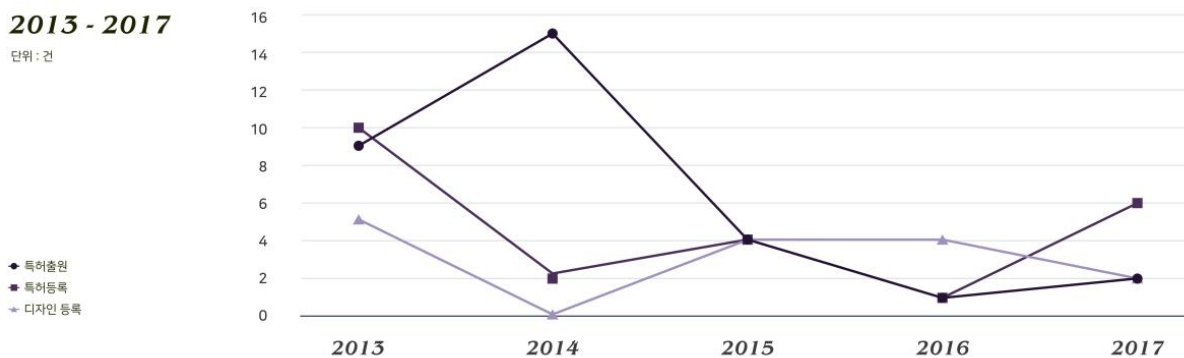
조선왕실문화재 조사연구는 ①서양식 생활유물 조사연구 ②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③왕실문화도감 발간 ④고문헌국역총서 발간 ⑤학술지 고궁문화 발간 ⑥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발간 이상 여섯 가지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주요 연구 사례로는 『국조보감감인소의궤』 등 36종 127책을 구축하여 총 116종 632책을 완료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과 순조의 딸 덕온공주의 가례와 관련된 기록인 『국역덕온공주가례등록』을 발간한 것을 들 수 있다.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

2013 - 2017

단위: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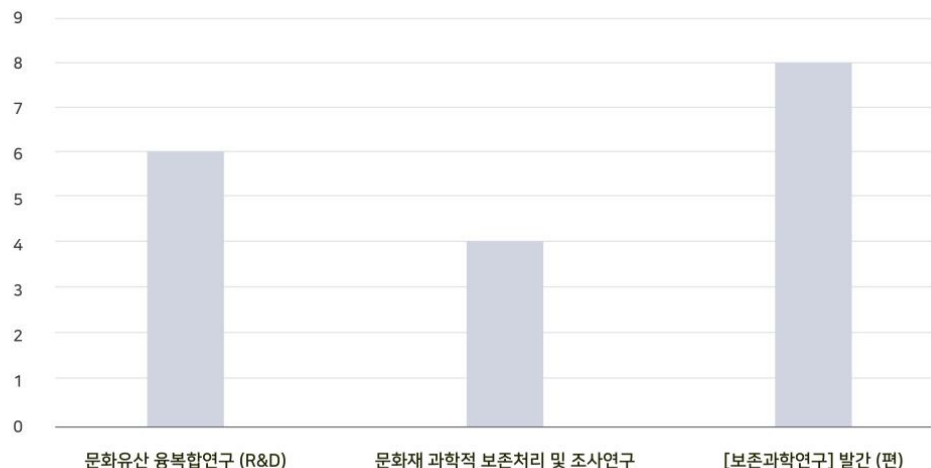
연구실적 특허(디자인), 출원, 등록 현황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문화유산의 공동 조사연구, 국제학술대회, 인적교류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의 국제협력을 위해 국외에 현지 기술교육팀을 파견해 왔으며, CollAsia와 Asian Archaeology를 개최하여 국제적 학술연구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국제기구와 MOU체결과 협업을 통해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공동조사 연구를 통해 고대문화 네트워크 연구를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역사왜곡에 따라 국외 발굴 및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를 토대로 2017년 12월까지 61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42건을 특허 등록하였다.

####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 현황

단위: 건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부분에서는 ①건조물문화재 생물피해 상관관계 분석 연구 (2015~2019년) ②전통 석회재료 품질개선 연구(2017~2021년), ③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 (2014~2020년), ④전통 한지 품질개선 연구(2017~2021년), ⑤출토 유물의 과학적 분석(2015~2022년), ⑥대형불화(괘불탱) 과학적 조사 연구( 2016~2020년)를 추진하고 있다.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부분에는 ①무기질문화재 보존처리(2010년~계속), ②유기질문화재 보존처리(2010년~계속), ③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공동연구( 2017년~2019년), ④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공개 행사(生生 보존처리 데이(Day)) 개최(2015년~계속)를 추진하고 있다. 연구 결과들은 『보존과학연구』를 통해 발표하여 국민과 공유하고 있다.

문화재  
안전방재기술개발  
연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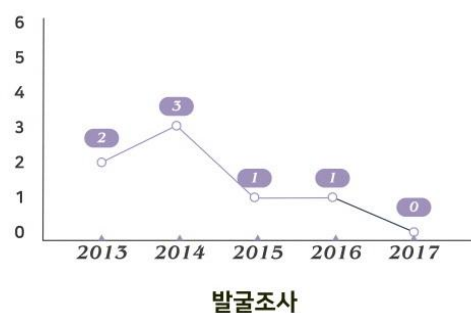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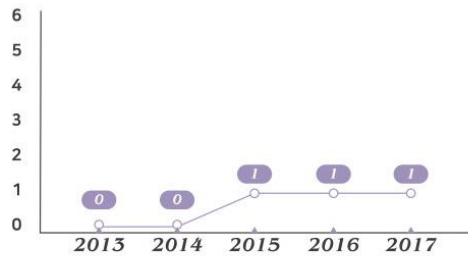


건축문화재 구조안전점검은 1981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 경주 첨성 등 33건에 한 구조·재료·생물 분야 모니터링을 시행했다. 긴급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지정 건축문화재에 한 관계 부서 및 지자체의 점검 요청에 따라 실시되는 요청안전점검은 2017년 해남 미황사 응전 등 12건에 한 구조안전점검 실시하였다. 국가지정 건조물문화재 정기조사는 2016부터 2020년까지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추진기간 중 2017년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 및 신규 지정 문화재 등 총 202건 조사했다. 건축문화재 지진대응 기초연구는 건축문화재의 실험 및 구조해석 등을 통한 지진거동 특성 파악, 구조 및 내진성능 평가기준 마련을 위한 DB 구축을 목적으로 2017~2021년까지 추진계획에 있다. 건축문화재 자동계측을 이용한 상시데이터 확보 및 데이터 분석, 안정성 평가기준 연구를 위한 건축문화재 자동계측데이터 분석연구는 2017~2021년 까지 사업추진 계획이다.

## 발간자료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서적  
발간  
2013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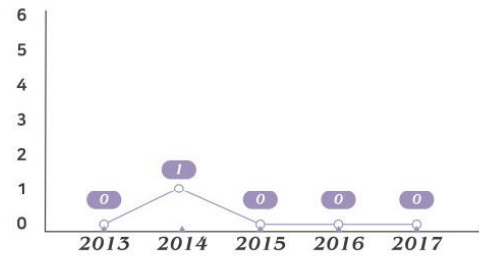
유적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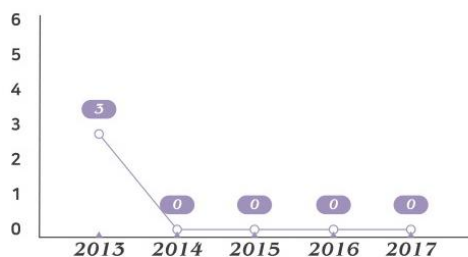
해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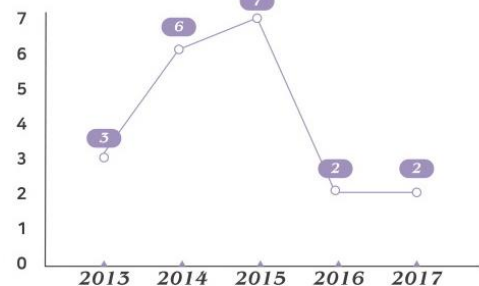
몽골조사



러시아조사



중국조사



기타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반서적  
발간  
2013 - 2017



국립 문화재연구소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은 매년 연구 결과를 각종 전문서적으로 발간해 공개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논문을 비롯하여 8종의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 30편의 학술 논문이 게재되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10개의 연구분야 중 8개의 전문학술서적을 발간하며, 국

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총 3가지 분야에서 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4가지 연구분야 중 조사연구보고서를 포함해 2개의 전문학술서적을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5가지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3가지 연구분야 중 2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7개의 연구 분야 중 4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4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은 4가지 분야의 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6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재재단은 2개의 전문학술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에 관한 다양한 정보 공유를 위해 홍보용 정기간행물 등 일반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창'을 비롯해 '홍보책자', '연보', '공감!문화재'와 같은 일반서적을 발간하고 있는데,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서적을 통해 다양한 정보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내용 일반을 파악할 수 있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연구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13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연구 지표의 13개 세부지표는 다음 13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7. 문화유산 연구 세부지표

### 7.1. 기록화

#### 7.1.1. 문화재 기록화

- 7-1-1-1.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
- 7-1-1-2.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 7.1.2. 문화재 정보화

- 7-1-2-1. 아태지역 정보화 협력사업 수행 현황
- 7-1-2-2.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 7.2. 연구

#### 7.2.1. 문화재 연구

- 7-2-1-1.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 7-2-1-2.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 7-2-1-3.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 7-2-1-4. 조선왕실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 7-2-1-5.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
- 7-2-1-6.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 현황
- 7-2-1-7. 문화재 안전방재기술개발 연구 현황

#### 7.2.2. 발간자료

- 7-2-2-1.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서적 발간 현황
- 7-2-2-2.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반서적 발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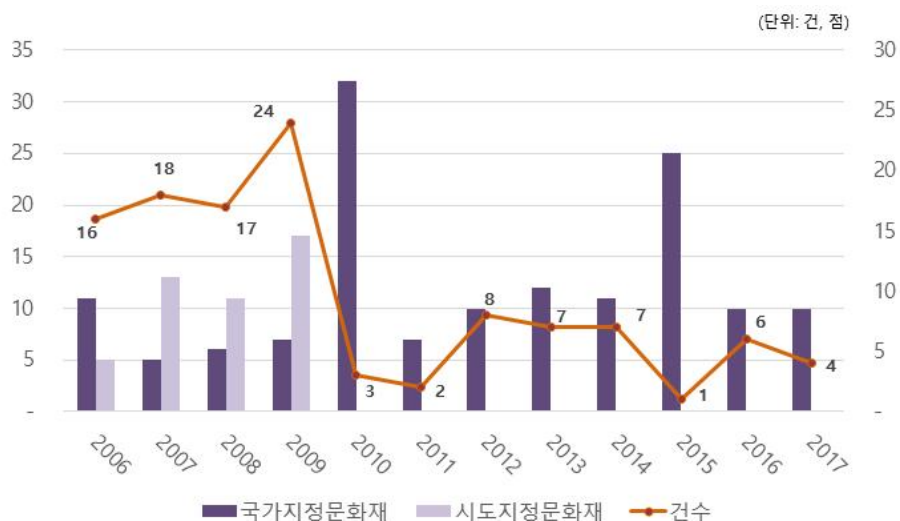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1-1-1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지 표 명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2006년부터 연도별로 진행된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현황			
지표의의	중요동산문화재의 원형 훼손 가능성에 따른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 추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사업			
구분	구축내역		
	국가지정문화재	시도지정문화재	소계
2006	범종 11건 11점	범종 5건 5점	범종 16건 16점
2007	범종 5건 5점	범종 13건 13점	범종 18건 18점
2008	범종 6건 6점	범종 11건 11점	범종 17건 17점
2009	범종 7건 7점	범종 17건 17점	범종 24건 24점
2010	소조불 3건 32점	-	소조불 3건 32점
2011	소조불 2건 7점	-	소조불 2건 7점
2012	목조불·철불·건칠불 8건 10점	-	목조불·철불·건칠불 8건 10점
2013	목조불·철불·건칠불 7건 12점	-	목조불·철불·건칠불 7건 12점
2014	목조불·건칠불 7건 11점	-	목조불·건칠불 7건 11점
2015	목조불 1건 25점	-	목조불 1건 25점
2016	목조불 6건 10점	-	목조불 6건 10점
2017	목조불 4건 10점	-	목조불 4건 10점
합계	67건 146점	46건 46점	113건 192점

해설

2005년 보물 제749호 낙산사 동종의 소실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어 도난·화재 등으로 원형이 훼손될 우려가 큰 중요동산문화재에 대한 점검 및 자료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6년부터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범종을 대상으로, 2010년부터는 소조불·목조불·철불·건칠불 등 불상을 대상으로 2017년까지 12년간 총 113건 192점에 대한 기록화사업을 실시하였다.

<p><b>관련용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중요동산문화재</b> : 중요동산문화재는 동산문화재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인 국가지정문화재를 의미함. 문화재청은 2006년 부터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화재 및 자연재해, 도난 등 불의의 사고로 문화재의 원형이 훼손·멸실 되었을 경우를 비하기 위해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한 3D 촬 자료, 실측도면, 비파괴 분석(성분분석) 결과를 자료로 확보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보존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 2006년~2009년: 중요동산문화재(범종) 75점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추진</li> <li>- 2010년~2011년: 중요동산문화재(소조불)중 국가지정문화재 5건 39점에 대한 조사를 추진</li> <li>- 2012년: 목조불·철불·건칠불 8건 10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li> <li>- 2013년~2017년: 목조불을 대상으로 25건 68점을 완료</li> <li>- 2018년: 보물 제1719호 여주 신륵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등 목조불 4건 8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li> <li>- 2021년까지: 국가지정문화재 불상(목조불·철불·건칠불 등)을 상으로 기록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li> </ul>
<p><b>출 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문화재연감」(2007~2018)</li> </ol>
<p><b>관련지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보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보물 유형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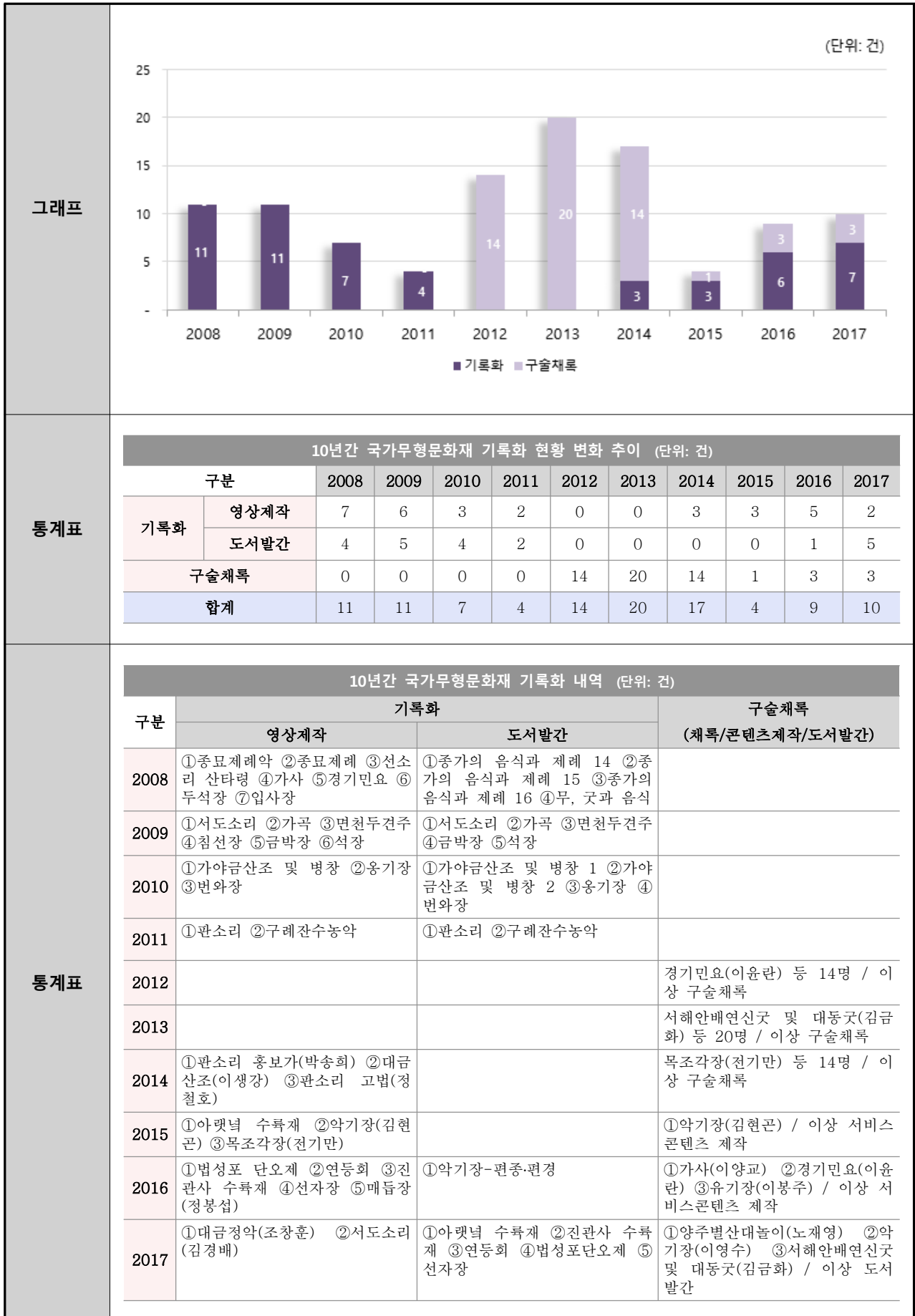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1-1-2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을 나타낸 지표			
지표의의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한 기록보존을 목적으로 199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국가무형문화재의 10년간 기록화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연구 현황,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해설	<p>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는 1995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지난 10년간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는 총 107건이었다.</p> <p>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는 크게 영상 및 도서 기록화, 구술채록 2가지로 나뉜다.</p> <p>영상 및 도서기록화는 종목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사진 및 영상 촬영 이후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영상 기록화라 할 수 있고, 별도의 도서로 발간한다.</p> <p>구술채록은 개인을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구술채록 이후 이를 도서로 발간하거나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로 제작한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 종목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사진 및 영상 촬영 이후 종목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도서로 발간</li> <li>• 국가무형문화재 구술채록 : 개인(보유자)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구술채록 이후 도서나 인터넷 서비스 콘텐츠로 제작해 활용</li> </ul>
출처	1. 「문화재연감」 (2009~2018)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총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연도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li> <li>• 보조지표 : 중요동산문화재 기록화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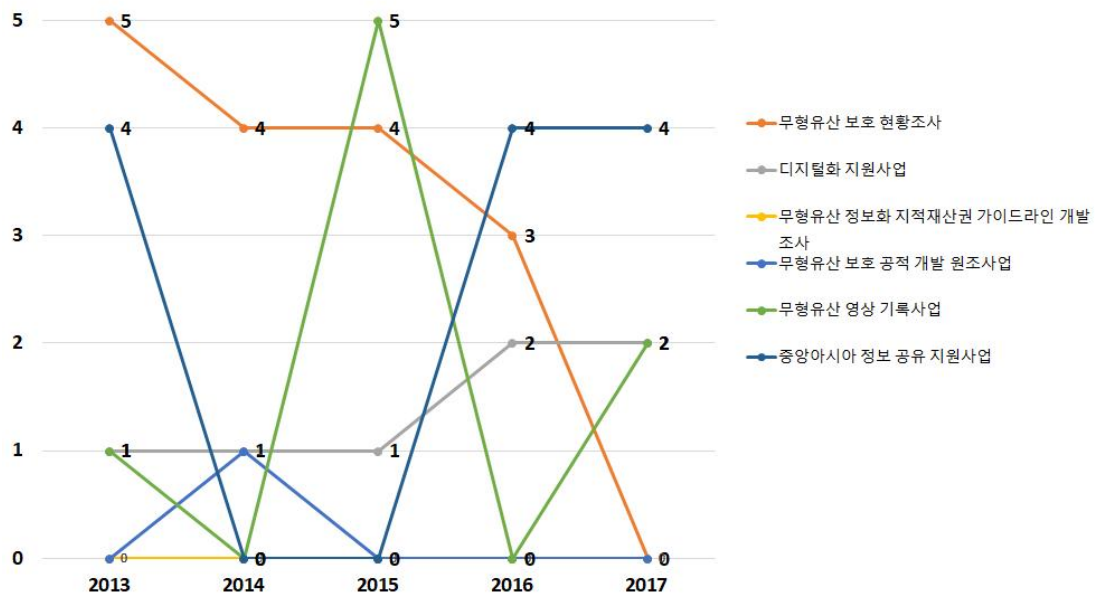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1-2-1	소관부서		아태무형유산센터
지 표 명	아태지역 정보화 협력사업 수행현 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아태지역 무형유산 연구 정보기반 조성 및 정보 보급관련 사업 수행 현황			
지표의의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연구, 보급관련 사업 수행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아태지역 정화 협력사업 수행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아태무형유산센터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정보기반 및 정보보급 주요 사업 실적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통계표

정보기반 조성 주요 사업 실적 (단위: 개국)						
사업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무형유산 보호 현황조사	5	4	4	4	3	16
디지털화 지원사업	1	1	1	2	2	7
무형유산 정보화 지적재산권 가이드라인 개발 조사	-	-	-	-	-	0
무형유산 보호 공적 개발 원조사업(ODA)	-	1	-	-	-	1
무형유산 영상 기록사업	1	-	5	-	2	8
중앙아시아 정보 공유 지원사업	4	-	-	4	4	12
계	11	6	10	9	8	44

정보보급 주요 사업 실적 (단위: 회, 종)						
사업내용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ICH Courier 발행	4	4	4	4	4	20
e-News 발행(국/영)	-	-	-	18	24	42
유네스코 및 무형유산 브로슈어 제작·발행·제작지원	1	1	-	16	11	29
유네스코 및 무형유산 관련 도서 발간(번역서 포함)	2	3	4	1	4	14
조사보고서·국제회의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발간	-	2	2	1	2	7
기록영상·애니메이션·DVD/CD 제작	6	1	2	13	56	78
무형유산 및 협약 사진전 개최 및 개최 지원	3	1	-	1	2	7
계	16	12	12	54	103	197

※ 정보보급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2014년 'e-지식관' 및 '무형유산 아카이브 운영 시스템' 구축, 2015년 '무형문화유산 DB 구축 및 서버장비 증설' 및 '미얀마 전통악기 목록 DB화'는 표에서 제외함

해설	<p>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는 정보 및 네트워킹 기능을 중심으로 무형유산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다양한 무형유산 이해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무형유산의 가시성과 인식제고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1본부 1실 4팀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무총장 1인 외 19명의 정규직원이 근무하고 있다.</p> <p>아태지역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 무형유산 영상기록,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복원 지원사업 등 총 58건의 사업을 수행하였다. 또한 무형유산 가시성 제고를 높이기 위해 ICH Courier 발간, 유네스코 관련 도서 및 각종 회의 보고서 발간 등 총 224건의 정보 보급 사업을 수행하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지표 :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1-2-2	소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지 표 명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아태지역 무형유산에 관한 정보(문서, 사진, 음원, 영상) 의 구축 현황			
지표의의	무형문화유산의 소멸, 훼손 방지를 위해 관련 정보의 아카이빙, 복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무형유산원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유형별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p>■ 센터 소개 페이지, DB 서비스(2012-2017)    ■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e-지식관(2014-2017)</p>																																			
통계표	<table><tr><th colspan="6">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단위: 건)</th></tr><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5">유형별 건수</th></tr><tr><th>문서</th><th>사진</th><th>음원</th><th>영상</th><th>기타</th></tr><tr><td>센터 소개 페이지, DB서비스 (2012-2017)</td><td>3,170</td><td>4,673</td><td>44</td><td>712</td><td>3,088</td></tr><tr><td>디지털콘텐츠 서비스 : e-지식관 (2014-2017)</td><td>1,607</td><td>603</td><td>899</td><td>108</td><td>-</td></tr><tr><td>계</td><td>4,777</td><td>5,276</td><td>943</td><td>820</td><td>3,088</td></tr></table>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단위: 건)						구분	유형별 건수					문서	사진	음원	영상	기타	센터 소개 페이지, DB서비스 (2012-2017)	3,170	4,673	44	712	3,088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 e-지식관 (2014-2017)	1,607	603	899	108	-	계	4,777	5,276	943	820	3,088
무형유산 정보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현황 (단위: 건)																																				
구분	유형별 건수																																			
	문서	사진	음원	영상	기타																															
센터 소개 페이지, DB서비스 (2012-2017)	3,170	4,673	44	712	3,088																															
디지털콘텐츠 서비스 : e-지식관 (2014-2017)	1,607	603	899	108	-																															
계	4,777	5,276	943	820	3,088																															
해설	<p>아태지역의 48개국 중 22개국 무형유산 보호에 대한 현황 정보 조사하였으며, 지난 5년간 축적한 문서, 영상, 음원, 사진 등 정보들을 홈페이지, 디지털아카이브, e-지식관 등 온라인 형태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 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 : The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는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에 근거하여 아태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li></ul>																																			
출처	<p>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p>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주요지표 : 아태지역 정보화 협력사업 수행현황</li></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1	소관부서		유형문화재과
지 표 명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건축문화재 관련 보수·복원 관련 기반 및 해체보수 수리기술 연구 현황			
지표의의	건축문화재 관련 조사기법, 보수 및 보강, 보존처리 기술조사(국내외 사례조사), 국가지정 석탑 원형기록 보존을 통한 보수·복원 관련 기반 구축, 건축문화재 해체보수 수리기술 현장조사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유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건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div> <div>그래프</div> </div>	<div> <div> <div>3</div> <div>2</div> <div>2</div> <div>2</div> </div> <div> <div>건축문화재 수리복원 기술연구</div> <div>건축문화재 보존 기술교류 연구</div> <div>건축유적 복원정비 연구</div> <div>중요 석탑 수리복원</div> </div> </div>												
<div> <div>통계표</div> </div>	<div> <div> <div>건축문화재 조사연구 (단위: 건)</div> <table> <tr> <th>구분</th><th>건축문화재 수리복원기술 연구</th><th>건축문화재 보존기술교류 연구</th><th>건축유적 복원정비 연구</th><th>중요 석탑 수리복원</th><th>합계</th></tr> <tr> <td>현황</td><td>3</td><td>2</td><td>2</td><td>2</td><td>9</td></tr> </table> </div> </div>	구분	건축문화재 수리복원기술 연구	건축문화재 보존기술교류 연구	건축유적 복원정비 연구	중요 석탑 수리복원	합계	현황	3	2	2	2	9
구분	건축문화재 수리복원기술 연구	건축문화재 보존기술교류 연구	건축유적 복원정비 연구	중요 석탑 수리복원	합계								
현황	3	2	2	2	9								
<div> <div>해설</div> </div>	<div> <p>2004년부터 2021년까지 건축문화재 수리복원 기술 연구 총 3개 사업 추진 중에 있다. 2017년까지 건축문화재 관련 조사기법, 보수 및 보강, 보존처리 기술조사(국내외 사례조사), 국가지정 석탑 원형기록 보존을 통한 보수·복원 관련 기반 구축, 건축문화재 해체 보수 수리기술 현장조사가 실시되었으며, 『경상남도의 석탑 II』을 발간했다.</p> <p>국가지정 석탑은 총 189건 205기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2004년부터 지역별로 국가지정 석탑의 조사연구 및 기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13년 동안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위치한 석탑에 한 조사 완료하였다.</p> <p>건축문화재 보존기술교류연구는 2017년~2021년까지 국외 건축문화재 수리현장 조사, 연구, 수리 등 공동조사연구 및 기술교류, 국내 건축 문화재 수리현장 기술 및 정책지원으로 총 2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2017년 세부 추진 결과로 ‘태국 문화부(Office of Architecture, Fine Arts Department, THAI)와의 건축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교류를 위한 MOU 협약 및 실무협약서 체결’, ‘태국 피마이 역사유적공원 및 주변 채석산지에 한 1차년도 공동조사 추진(03.21~03.26)’,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유산 보존관리 기술교류 협력 추진’,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프레이피투 사원 복원정비사업단 초청연수 지원 및 현장교육’, ‘방글라데시 문화재보존 및 관리역량 강화사업 관련 초청연수 지원 및 현장교육’이 있다.</p> <p>건축유적 복원정비연구는 ‘황룡사’, ‘미륵사’ 복원 정비연구가 추진 중에 있다. 중요 석탑 수리복원 ‘미륵사지 석탑’, ‘경주 불국사 삼층석탑’ 보존 사업이 진행 중이다.</p> </div>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문화재 : 건축문화재란 유형문화재 중 건조물에 해당하는 문화재를 칭하는 것으로 건조물문화재라고도 함. 목조 건축문화재, 석조 건축문화재로 구분 됨</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li> <li>4. 문화재청 홈페이지(<a href="http://www.cha.go.kr">http://www.cha.go.kr</a>)</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건조물문화재 재질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2	소관부서		천연기념물과
지 표 명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자연문화재(동물, 지질, 식물, 명승)에 대한 조사연구 현황			
지표의의	국제적 보존 대상, 천연기념물과 같은 자연문화재의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제 연구 경쟁력을 갖는 연구 성과 도출 및 미래 연구자원의 확보에 필요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천연기념물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동물분야</th><th>지질분야</th><th>식물분야</th><th>명승분야</th></tr></thead><tbody><tr><td>현황</td><td>6</td><td>3</td><td>2</td><td>3</td></tr></tbody></table>	구분	동물분야	지질분야	식물분야	명승분야	현황	6	3	2	3								
구분	동물분야	지질분야	식물분야	명승분야															
현황	6	3	2	3															
통계표	<table border="1"><thead><tr><th colspan="6">자연문화재 조사연구 (단위: 건)</th></tr><tr><th>구분</th><th>동물분야</th><th>지질분야</th><th>식물분야</th><th>명승분야</th><th>합계</th></tr></thead><tbody><tr><td>현황</td><td>6</td><td>3</td><td>2</td><td>3</td><td>14</td></tr></tbody></table>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단위: 건)						구분	동물분야	지질분야	식물분야	명승분야	합계	현황	6	3	2	3	14
자연문화재 조사연구 (단위: 건)																			
구분	동물분야	지질분야	식물분야	명승분야	합계														
현황	6	3	2	3	14														
해설	<p>동물분야 조사연구 사업추진 기간(2009년~2020년) 동안 2017년 세부추진내용은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번식지 여건 개선을 통한 증식·보존 연구”, “저어새와 노랑부리백로 등 천연기념물 조류에 한 이동경로 기초연구”, “축양동물 및 천연기념물 동물의 유전자원 확보 및 유전체 분석”, “천연기념물 동물 및 자연사자원 확보를 위한 기관 간 공동연구”, “기증 매머드 화석표본 연구”,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 동물 서식지의 실태 및 보전현황 조사를 위한 천연기념물(동물) 서식지 9개소에 한 정기조사 실시”로 총 6개 연구가 시행되었다.</p> <p>지질분야 연구는 천연기념물 화석산지 연구, 한반도 지질 다양성 조사, 한-포르투갈 공동발자국 국제공동연구, 세 분야로 나뉘어 시행되었다.</p> <p>식물분야는 천연기념물 식물 신규 유형 개발 및 지정기준 개정 연구, 천연기념물 식물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 방안 연구로 총 두 개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p> <p>명승분야 연구는 전통 구곡과 팔경 자원조사 및 지정자원 DB 구축, 명승 원림 복원 연구 및 중요 유적지 실태조사, 명승분야 국제 공동연구로 세 가지 연구가 추진되고 있다.</p>																		
관련용어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조지표 : 명승 유형별 현황</li><li>• 보조지표 : 천연기념물 유형별 현황</li></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3	소관부서		무형문화재과
지 표 명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실재 전승 무형유산의 기초목록과 전승 현황			
지표의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16.3.)에 따른 무형유산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실재 전승 무형유산 및 무형문화재 전승 현황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무형문화재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무형문화재 조사연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그래프 작성 불가)									
통계표	<table><tr><th colspan="3">무형문화재 조사연구현황</th></tr><tr><th>구분</th><th>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th><th>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th></tr><tr><td>현황</td><td>-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 전통지식 무형유산 항목 발굴 및 실태조사</td><td>-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정기조사</td></tr></table>	무형문화재 조사연구현황			구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	현황	-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 전통지식 무형유산 항목 발굴 및 실태조사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정기조사
무형문화재 조사연구현황										
구분	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								
현황	-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 전통지식 무형유산 항목 발굴 및 실태조사	-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유네스코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정기조사								
해설	<p>무형문화재의 조사와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는 1.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2015년~계속), 2. 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가 있으며, 무형문화재 전승현황조사의 세부 내역으로는 국가무형문화재 정기조사(2009년~계속),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목록 정기조사(2016~2017년)가 있다.</p> <p>한국무형유산종합조사 2017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 전통지식 무형유산 항목 발굴 및 실태조사</li><li>- 전라지역 농경·어로 분야 85개 항목 발굴, 현장조사 실시, DB 구축</li><li>- 무형유산으로서 농업·어업 전통지식의 개념, 조사기준, 조사방법 등 확립</li><li>- 무형문화재 보전정책 기초자료 활용 및 타부처(농식품부, 해수부) 국가중요농·어업유산, 세계중요 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자료 지원 등 정책적 연계 기대</li></ul> <p>무형문화재 전승현황 조사 2017 추진내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실태 조사</li><li>-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종목 전승현황 조사</li></ul>									
관련용어										
출처	1.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li><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범주별 현황</li><li>• 보조지표 :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취약종목 현황</li></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4	소관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외
지 표 명	조선왕실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조선왕실문화재의 보존 및 조사 연구 현황			
지표의의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문화재 수집 및 조사 연구를 통해 조선왕실과 대한제국 황실 문화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조선왕실문화재 조사연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조선왕실문화재 조사연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그래프 작성 불가)						
통계표	조선왕실문화재 조사연구현황						
	구분	서양식 생활유물 조사연구	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	왕실문화도감 발간	고문헌국역총서 발간	학술지 고궁문화 발간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도록 발간
	2013	-	『동문고략』 등 8종 110책	왕실문화도감 궁중악무	국역영정모사도감의궤	-	조선왕조 어책Ⅱ 교명·죽책·금책
	2014	-	『무자진작궤』 등 13종 59책	-	국역보인소의궤	-	
	2015	-	2015년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등 26종 64책	-	국역황태자가례도감의궤	-	-
	2016	연구시작	『황제추존시의궤』 등 24종 49책	왕실문화도감 국가제례	국역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	-	-
	2017	-	『국조보감감인소의궤』 등 36종 127책	의장물儀仗物	국역영건일감	일반논문 2편 자료 소개 2편	-
해설	<p>서양식생활유물조사연구는 2016년 도자 식기 1,500여점에 한 연구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주방도구에 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제과형틀, 조리도구, 식사도구 등 500여점을 대상으로 제작국가, 제작 시기, 유입 경로 등을 조사했다.</p> <p>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 학술조사연구는 2012년부터 환수도서 등 조선왕조 기록문화유산의 원문 이미지 DB를 구축하고 있다. 2012년 『갑오군정실기』 등 9종 223책, 2013년 『동문고략』 등 8종 110책, 2014년 『무자진작의궤』 등 13종 59책, 2015년 『철종빈전혼전도감의궤』 등 26종 64책, 2016년 『황제추존시의궤』 등 24종 49책을 구축하였다.</p> <p>2017년에는 『국조보감감인소의궤』 등 36종 127책을 구축하여 총 116종 632책을 완료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다.</p> <p>왕실문화도감 발간은 2014년에는 『왕실문화도감 : 궁중악무』, 2016년에는 『왕실문화도감 : 국가제례』, 2016-17년에는 ‘의장물儀仗物’에 한 조사를 진행하여 관련 연구 성과를 검토하고 의장물 목록, 문헌 기록 및 각종 시각자료를 수집·정리하였다. 2018년에는 제4편 『왕실문화도감 : 의장물(가제)』을 발간하여 조사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p> <p>고문헌국역총서 발간 2013년 제1책 『국역정모사도감의궤』, 2014년 제2책 『국역보인소의궤』, 2015년 제3책 『국역황태자가례도감의궤』를 발간하고, 2016년에는 제4책 『국역순조관례책저도감의궤』와 제5책 『국역건일감』을 발간하였다. 2017년에는 순조의 딸 덕온공주의 가례와 관련된 기록인 『국역덕온공주가례등록』을 발간하였다.</p> <p>2007년부터 학술지 『고궁문화』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p> <p>국립고궁박물관은 2010년부터 다양한 소장 유물을 분야별로 소개하는 소장품 도록을 발간해 오고 있다. 열두 번째 도록 『조선왕조 어책Ⅰ-옥책』과 열세 번째 도록 『조선왕조 어책Ⅱ교명·죽책·금책』은 2013년과 2014년 박물관 소장 조선왕조 어책류를 조사한 결과물이다.</p>						
	관련용어						
출처	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2.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5	소관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지 표 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립문화재연구소가 5년간 수행한 연구 중 특허(디자인) 출원·등록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관련 정책 지원 및 국가 문화재의 발굴 및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지난 5년간의 국립문화재연구소의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연구실적 특허 출원 현황 등 연구실적(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div>(단위: 건)</div>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r></thead><tbody><tr><td>특허출원</td><td>10</td><td>2</td><td>4</td><td>1</td><td>6</td></tr><tr><td>특허등록</td><td>9</td><td>15</td><td>4</td><td>1</td><td>2</td></tr><tr><td>디자인등록</td><td>5</td><td>0</td><td>4</td><td>4</td><td>2</td></tr></tbody></table>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허출원	10	2	4	1	6	특허등록	9	15	4	1	2	디자인등록	5	0	4	4	2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허출원	10	2	4	1	6																										
특허등록	9	15	4	1	2																										
디자인등록	5	0	4	4	2																										
통계표	<table><tr><th colspan="6">연구실적 특허[디자인] 출원·등록 현황 (단위: 건)</th></tr><tr><th>구분</th><th>2013</th><th>2014</th><th>2015</th><th>2016</th><th>2017</th></tr><tr><td>특허출원</td><td>10</td><td>2</td><td>4</td><td>1</td><td>6</td></tr><tr><td>특허등록</td><td>9</td><td>15</td><td>4</td><td>1</td><td>2</td></tr><tr><td>디자인등록</td><td>5</td><td>0</td><td>4</td><td>4</td><td>2</td></tr></table>	연구실적 특허[디자인] 출원·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허출원	10	2	4	1	6	특허등록	9	15	4	1	2	디자인등록	5	0	4	4	2
연구실적 특허[디자인] 출원·등록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특허출원	10	2	4	1	6																										
특허등록	9	15	4	1	2																										
디자인등록	5	0	4	4	2																										
해설	<p>국립문화재연구소는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문화유산의 공동 조사·연구, 국제학술대회, 인적교류를 시행하고 있다.</p> <p>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 국제연수(ACPCS)와 아시아권 문화재 보존과학의 국제협력을 위해 국외에 현지 기술교육팀을 파견해 왔으며, CollAsia와 Asian Archaeology를 개최하여 국제적 학술연구교류의 장을 마련해 왔다. 국제기구와 MOU체결과 협업을 통해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일본,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공동조사 연구를 통해 고대문화 네트워크 연구를 추진하는 등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공유·확산하고 있다. 또한 일본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역사왜곡에 따라 국외 발굴 및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 연구도 강화하고 있다.</p> <p>연구성과를 토대로 2017년 12월까지 61건의 특허를 출원했으며, 42건을 특허등록하였다.</p>																														
관련용어																															
출처	<div>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div> <div>2. 「2018 문화재연감」</div>																														
관련지표	<div>• 주요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전문서적 현황</div> <div>• 주요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일반서적 현황</div>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6	소관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외
지 표 명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문화재 융·복합 및 과학적 보존처리 조사 연구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 융·복합 및 보존처리 조사 연구 현황에 대해 각 사업별 연구추진 기간에 대한 연구 진행 사항 및 성과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문화재연구소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div><div>(단위: 건)</div><table><thead><tr><th>구분</th><th>문화유산 융복합연구(R&amp;D)</th><th>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th><th>『보존과학연구』 발간 (편)</th></tr></thead><tbody><tr><td>현황</td><td>6</td><td>4</td><td>8</td></tr></tbody></table></div>	구분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보존과학연구』 발간 (편)	현황	6	4	8				
구분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보존과학연구』 발간 (편)										
현황	6	4	8										
통계표	<table><thead><tr><th colspan="4">문화재 R&amp;D 및 보존처리 연구현황 (단위: 건)</th></tr><tr><th>구분</th><th>문화유산 융복합연구(R&amp;D)</th><th>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th><th>『보존과학연구』 발간 (편)</th></tr></thead><tbody><tr><td>현황</td><td>6</td><td>4</td><td>8</td></tr></tbody></table>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현황 (단위: 건)				구분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보존과학연구』 발간 (편)	현황	6	4	8
문화재 R&D 및 보존처리 연구현황 (단위: 건)													
구분	문화유산 융복합연구(R&D)	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보존과학연구』 발간 (편)										
현황	6	4	8										
해설	<p>문화유산 융복합연구(R&amp;D)부분에는 1. 건조물문화재 생물피해 상관관계 분석 연구(2015~2019년) 2. 전통 석회재료 품질개선 연구(2017~2021년), 3.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및 품질평가 연구(2014~2020년), 4. 전통 한지 품질개선 연구( 2017~2021년), 5. 출토 유물의 과학적 분석( 2015~2022년), 6. 대형불화(괘불탱) 과학적 조사 연구( 2016~2020년)가 있다.</p> <p>문화재 과학적 보존처리 및 조사연구 부분에는 1. 무기질문화재 보존처리(2010년~계속), 2. 유기질문화재 보존처리(2010년~계속), 3.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보존처리 공동연구( 2017년~2019년), 4. 문화재 보존처리 현장 공개행사(生生 보존처리 데이(Day)) 개최(2015년~계속)가 있다.</p> <p>매년 문화재 보존에 관한 조사, 연구 및 보존처리 내용 등의 연구 결과를 『보존과학연구』에 발표하여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7 보존과학연구 제38집에는 「전라도 목조 문화재 표면 미생물 분포 변화」 등 문화재 조사, 연구 및 보존처리 관련 연구논문 8편 및 간행규정 수록되었다.</p>												
관련용어													
출처	1.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보조지표 : 수중문화재 발굴조사 건수</li><li>• 보조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연구실적</li></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1-7	소관부서		안전기준과
지 표 명	문화재 안전방재기술개발 연구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가지정건축문화재 보존 및 안전 관리 기술개발 연구 현황			
지표의의	과학적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지정건축문화재 안전방재 기술개발 연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재 안전방재기술개발 연구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안전기준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재 안전방재기술개발 연구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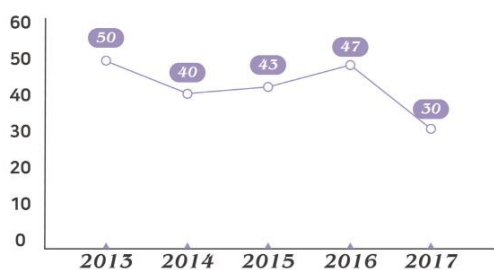
관리번호	연구 7-2-2-1	소관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지 표 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서적 발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되는 연구, 학술 전문서적 발간 현황			
지표의의	문화유산의 전반적인 조사·연구를 기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되는 학술전문서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적 발간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적 발간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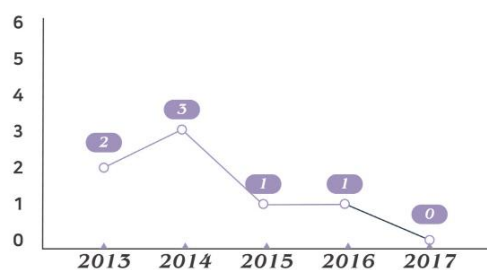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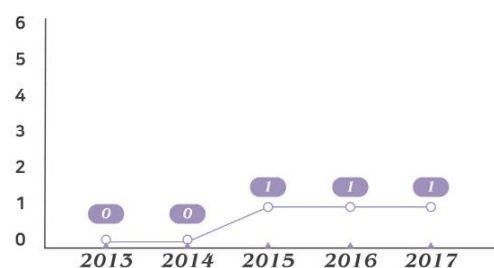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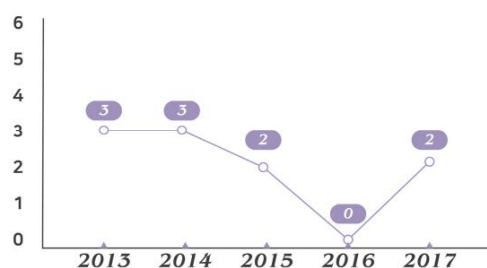
논문



발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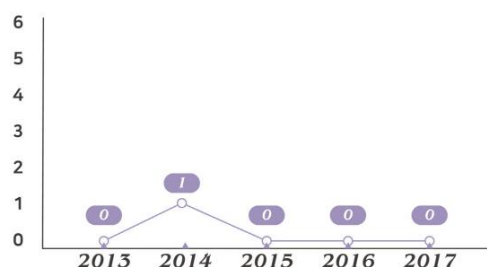
유적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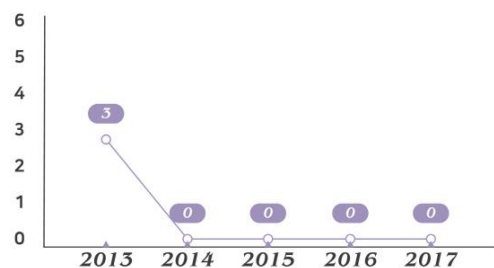
해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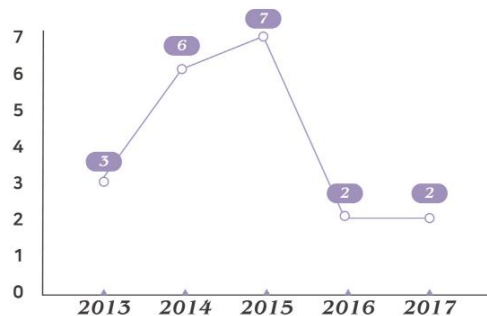
몽골조사



러시아조사



중국조사



기타

## 통계표

국립문화재연구소 전문서적 발간 현황 (단위: 권)						
기관명	발간자료	2013	2014	2015	2016	2017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고서	논문	50	40	43	47	30
	발굴조사	2	3	1	1	0
	유적탐사	0	0	1	1	1
	해외조사	3	3	2	0	2
	기타	3	6	7	2	2
	몽골조사	0	2	2	4	2
	러시아조사	0	1	0	0	0
	중국조사	3	0	0	0	0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3	3	4	3	3
	학술조사	3	2	1	2	4
	보존과학	0	1	1	1	0
	보수/정비	1	0	3	0	0
	학술세미나	2	1	1	3	5
	연보	1	1	1	1	1
	도록	0	0	0	1	0
	현장설명회자료	1	0	1	2	2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발굴	3	1	2	1	1
	기획	2	1	0	3	1
	기타	2	3	2	1	0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	0	0	0	0	2
	기타	0	0	0	0	1
문화재보존과학센터	공동연구	4	4	2	1	1
	석조보존	0	0	1	1	4
	보존관리지침	7	3	0	1	1
	복원기술	2	3	0	3	4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보고서	3	3	3	2	2
	도록,자료집	1	1	0	0	2
	학술대회자료	1	1	1	2	1
	기타	0	0	0	0	2
국립고궁박물관	도록	소장품도록	1	2	1	1
		전시도록	3	1	3	3
	조사연구서	고문헌국역총서	1	1	1	1
		왕실문화도감	0	1	0	0
		왕실문화기획총서	1	2	1	1
		왕실문화유산보존연구	0	0	1	1
	학술지(논문)		4	5	4	4
	학술세미나 자료		3	1	4	4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실태조사		0	0	0	8
	무형유산 학술총서		0	0	0	3
	무형유산 문헌조사		0	0	0	2
	무형유산 정책연구		0	0	0	1
	지역무형유산 발굴		0	0	0	1
	지역무형유산 학술지		0	0	0	2
	무형유산 학술지		0	0	0	0
한국문화재단	월간문화재		12	12	9	7
	지역무형유산 발굴		1	0	1	0

해설	<p>국립문화재연구소는 논문을 비롯하여 총 8종의 전문서적을 발간하고 있으며, 2017년 30편의 학술논문이 게재되었다.</p> <p>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는 총 10개의 연구분야 중 8개의 전문학술서적이 발간하고 있다.</p> <p>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는 총 3가지 분야의 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p> <p>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총 4가지 연구분야 중에 조사연구보고서를 포함하여 2개의 전문학술서적을 발간하고 있다.</p> <p>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총 5가지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p> <p>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는 3가지 연구 분야 중 2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p> <p>문화재보존과학센터는 7개의 연구 분야 중 4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p> <p>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총 4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p> <p>국립고궁박물관은 총 4가지 분야의 연구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p> <p>국립무형유산원은 6개의 전문학술자료를 발간하고 있다.</p> <p>한국문화재단은 2개의 전문학술 서적을 발간하고 있다.</p>
관련용어	
출처	<p>1.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nrich.go.kr/kor/index.do">http://www.nrich.go.kr/kor/index.do</a>)</p>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일반서적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연구 7-2-2-2	소관부서		국립문화재연구소
지 표 명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반서적 발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일반서적 현황			
지표의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전체 서적 중에 전문 학술 연구 분야 서적을 제외한 일반서적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적 발간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적 발간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p>(단위: 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발간 개수</th> </tr> </thead> <tbody> <tr> <td>문화재窓</td> <td>68</td> </tr> <tr> <td>홍보책자</td> <td>7</td> </tr> <tr> <td>연보</td> <td>6</td> </tr> <tr> <td>공감! 문화재</td> <td>72</td> </tr> </tbody> </table>	구분	발간 개수	문화재窓	68	홍보책자	7	연보	6	공감! 문화재	72		
구분	발간 개수												
문화재窓	68												
홍보책자	7												
연보	6												
공감! 문화재	72												
통계표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일반서적 (단위: 개)</th> </tr> <tr> <th>구분</th> <th>발간 개수</th> </tr> </thead> <tbody> <tr> <td>문화재窓</td> <td>68</td> </tr> <tr> <td>홍보책자</td> <td>7</td> </tr> <tr> <td>연보</td> <td>6</td> </tr> <tr> <td>공감! 문화재</td> <td>72</td> </tr> </tbody> </table>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일반서적 (단위: 개)		구분	발간 개수	문화재窓	68	홍보책자	7	연보	6	공감! 문화재	72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일반서적 (단위: 개)													
구분	발간 개수												
문화재窓	68												
홍보책자	7												
연보	6												
공감! 문화재	72												
해설	<p>국립문화재연구소는 ‘문화재 창’을 비롯하여, ‘홍보책자’, ‘연보’, ‘공감!문화재’와 같은 일반서적을 발간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배포되는 서적을 통해 다양한 정보 및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내용 일반을 파악할 수 있다.</p>												
관련용어													
출처	<p>1.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a href="http://www.nrich.go.kr/kor/index.do">http://www.nrich.go.kr/kor/index.do</a>)</p>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지표 :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간 전문서적 현황</li> </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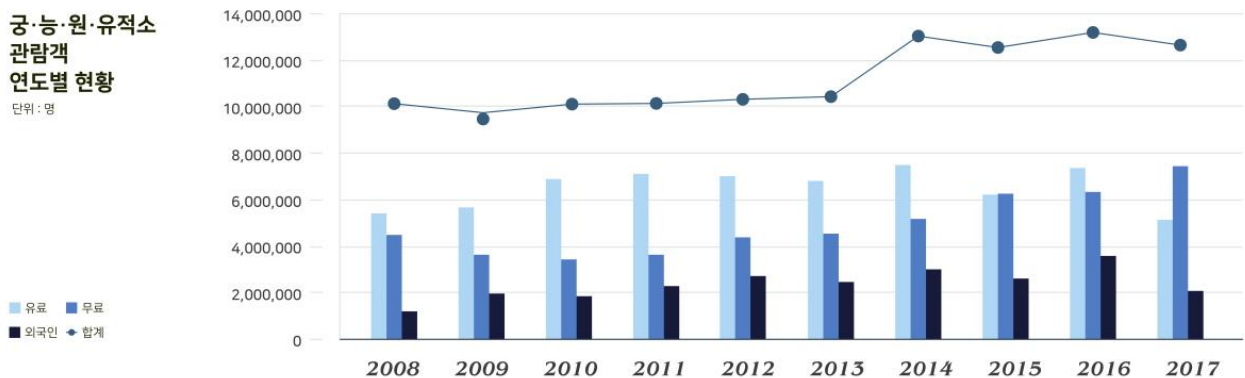
### 4.3.3. 문화유산 향유 지표

#### ■ 대표지표

- 대표지표 정의 :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국민과 외국인 현황을 주요 사적지 및 프로그램별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대표지표 의의 : 우리나라 주요 사적지 및 세계유산 관람, 공연·전시·교육 등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등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향유하는 국민과 외국인의 향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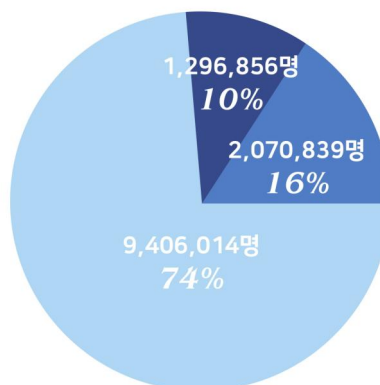
#### 문화유산 관람

궁·능·원·유적소  
관람객  
연도별 현황  
단위 : 명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간 궁·능·원·유적지 45개소를 방문한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면, 관람객 총원은 2008년 10,144,496명에서 2017년 12,773,709명으로 2,629,213명(25%) 상승하였다. 유료 관람객은 5,488,703명에서 5,186,566명으로 302,137명(-5%) 감소하였고, 무료 관람객은 4,655,794명에서 7,587,143명으로 2,931,349명(62%)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1,394,170명에서 2,089,392명으로 695,222명(49%) 증가하였다.

2017년  
궁·능·원·유적소  
관람객 현황  
단위 : 명



문화재청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신장을 위해 2013년 8월 12일부터 만24세 이하 국민의 궁·능·원·유적관리소 무료관람을, 한복 착용자는 2013년 10월 19일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유적정비사업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무료 개방을 시행하며, 2017년 1월부터 만인의총관리소도 유적소에 포함하였다.

4대궁 및 종묘  
관람객 현황  
단위: 명  
**12,849,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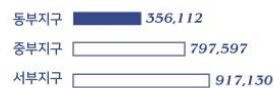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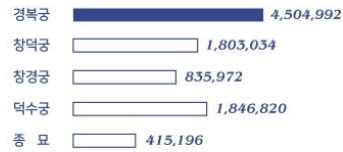
4대궁 및 종묘



왕릉



유적관리소



관람객  
비율 현황  
단위: 명



지난 10년간 3개 유형별 문화유산 관람객 현황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시대변화에 따른 관람객 및 문화재 관람 정책의 동향을 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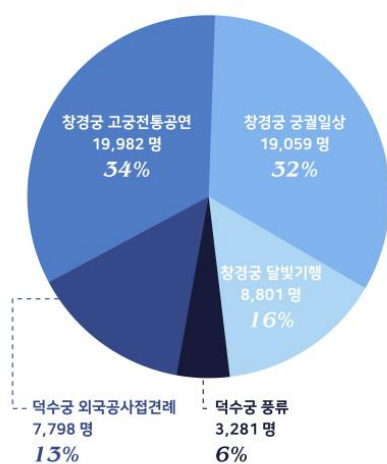
4대궁 및 종묘 관람객은 2008년 6,929,726명에서 2017년에는 9,406,014명으로 35% 증가했다. 유료 관람객은 3,878,525명에서 4,316,356명으로 11% 증가했고, 무료 관람객은 3,051,201명에서 5,089,658명으로 66% 증가하였다. 외국인 관람객은 1,379,976명에서 2,071,128명으로 50% 증가했다.

능 관람객은 2008년 1,996,362명에서 2017년에는 2,070,839명으로 3% 증가했다. 유료 관람객은 955,168명에서 760,173명으로 20% 감소했고, 무료 관람객은 1,041,195명에서 1,310,666명으로 25% 증가했다. 외국인 관람객은 6,656명에서 12,009명으로 80%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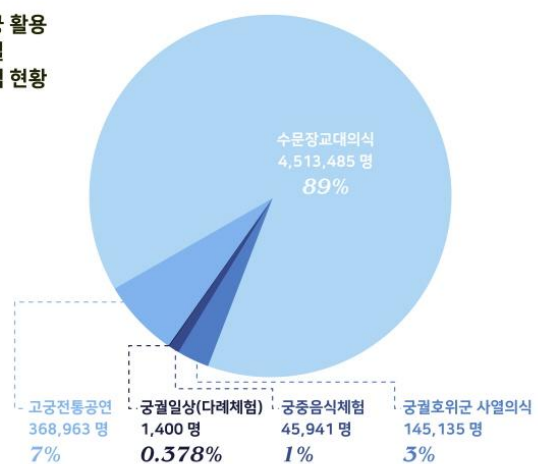
유적관리소 관람객은 2008년 1,218,408명에서 2017년에는 1,296,856명으로 6% 증가했다. 유료 관람객은 655,010명에서 110,037명으로 83% 감소했고, 무료 관람객은 563,398명에서 1,186,819명으로 110% 증가했다. 외국인 관람객은 7,538명에서 6,255명으로 17% 감소했다.

한편 4대궁에서는 다양한 궁궐 활용프로그램이 펼쳐지는데, 2017년의 경우 경복궁의 수문장교대의식에 4,513,485명이 관람해 프로그램 호응도가 가장 높았다. 그 외에도 경복궁의 고궁전통공연(368,963명), 궁궐호위군 사열의식(145,135명) 등 4대궁 중 경복궁 프로그램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다.

창경궁, 창덕궁,  
덕수궁 활용  
사업별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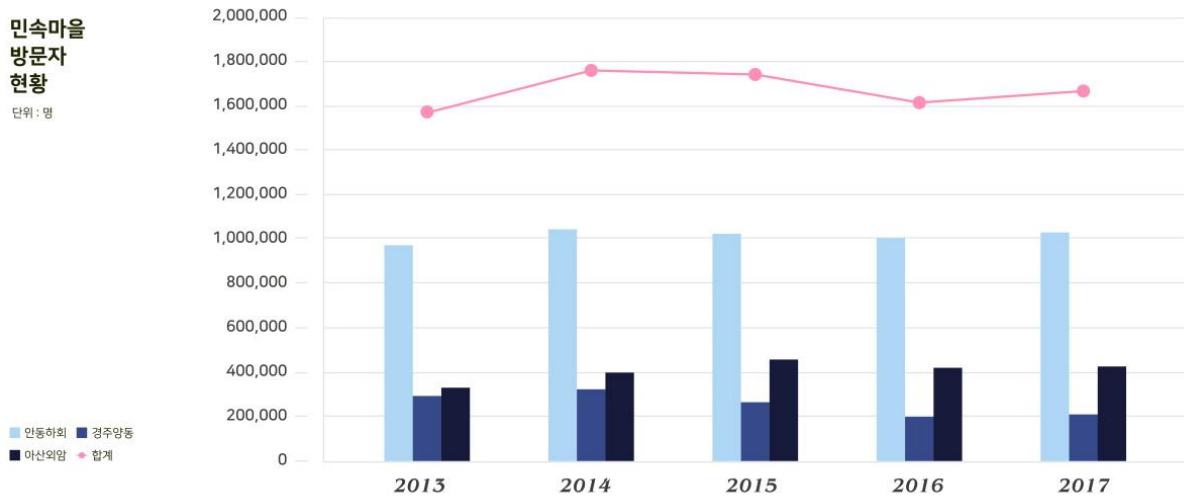


경복궁 활용  
사업별  
관람객 현황



### 민속마을 방문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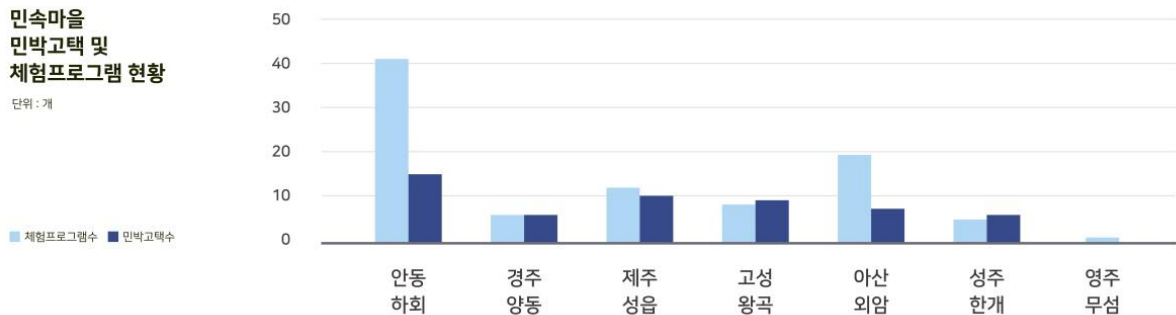
단위: 명



민속마을은 7개가 지정돼 있는데 이 중 규모면에서 성읍민속마을이 가장 크다. 외형상으로는 안동하회, 성읍민속 등 대부분이 초가가 주를 이루는 반면 성주한개마을은 와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7개 민속마을 중 유료입장으로 운영되는 3개 민속마을의 연간 방문객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 안동하회마을(6,495,535㎡, 458가옥, 41개 프로그램)의 방문객 수가 1,045,492명(62%)으로 경주양동마을(969,119㎡, 478가옥, 6개 프로그램)과 아산외암마을(197,292㎡, 236가옥, 19개 프로그램)의 방문객 수보다 많다. 이 결과는 민속마을별 체험프로그램 및 민박고택 현황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3개 마을 중 체험프로그램 수와 민박고택 수가 많은 안동하회마을과 아산외암마을이 방문객수도 함께 높다. 민속마을 방문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여가문화의 질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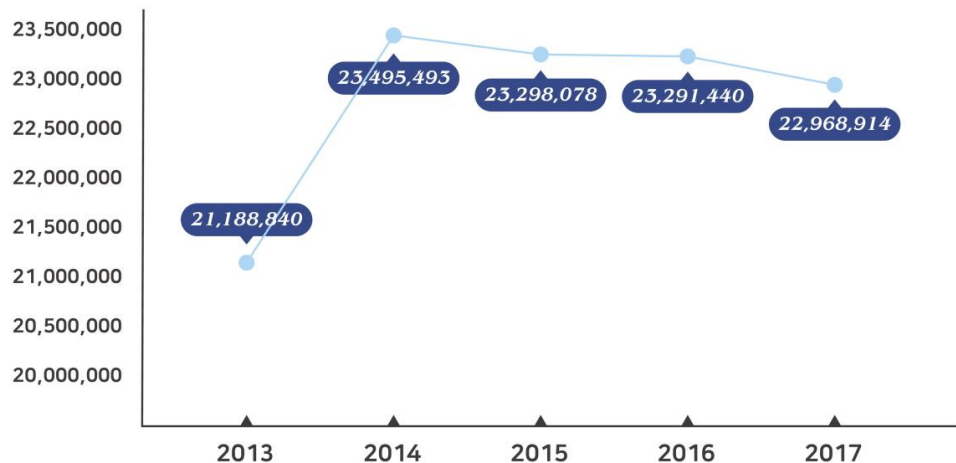
### 민속마을 민박고택 및 체험프로그램 현황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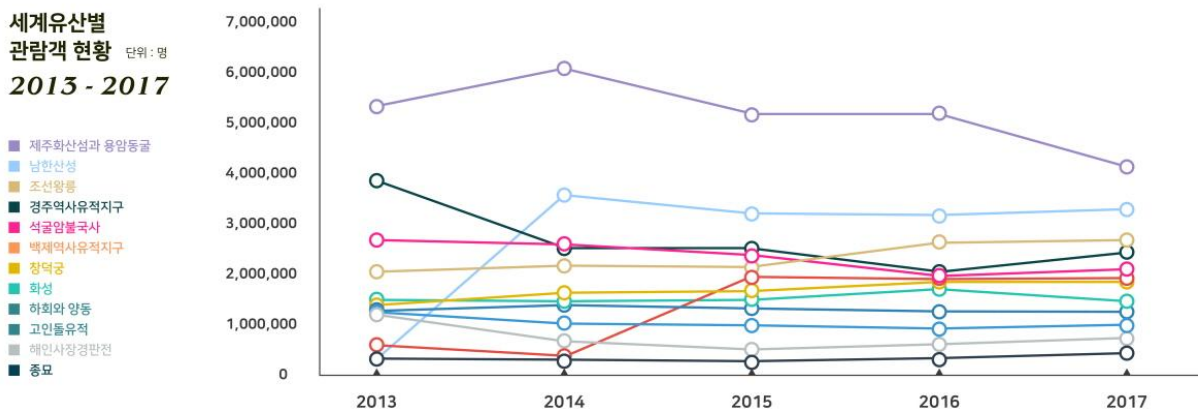
###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람객 현황 2013 - 2017

단위: 명





2018년 8월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전 세계 167개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총 1,092건이다. 유형별로는 문화유산이 845건, 자연유산 209건, 복합유산이 38건이다. 전 세계 5개 문화권역별로 보면 유럽/북아메리카 문화권에 514건(47.1%), 아시아태평양 문화권에 258건(23.63%)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많은 13건(2018년 8월 기준)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유산을 10건 이상 보유한 국가 32개국 중 20개 국가가 유럽/북아메리카 문화권에, 5개 국가가 아태평양 문화권에, 4개 국가가 남미 문화권에, 그리고 1개 국가가 아프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다. 2017년 우리나라에 소재한 12개 세계유산의 관람객 현황은 총 22,968,914명으로 전년 대비 약3%정도 감소되었다. 세계유산별 특징은 3개 세계유산(창덕궁, 화성,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전년대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교통접근성이 낮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대신 수도권외 내륙지방의 세계유산들이 전반적으로 약상승세를 띠고 있다. 이는 대외정세로 인한 해외관광객의 제주도 유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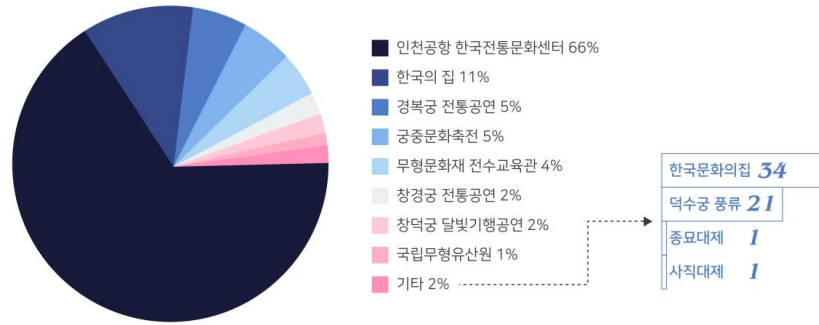
## 공연 사업 운영 및 관람객 현황



문화재청은 4대궁 및 소속기관 등 12개 구역에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와 전수자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유산 관련 공연을 펼치고 있으며, 2017년 3,305건 공연에 1,079,813명이 관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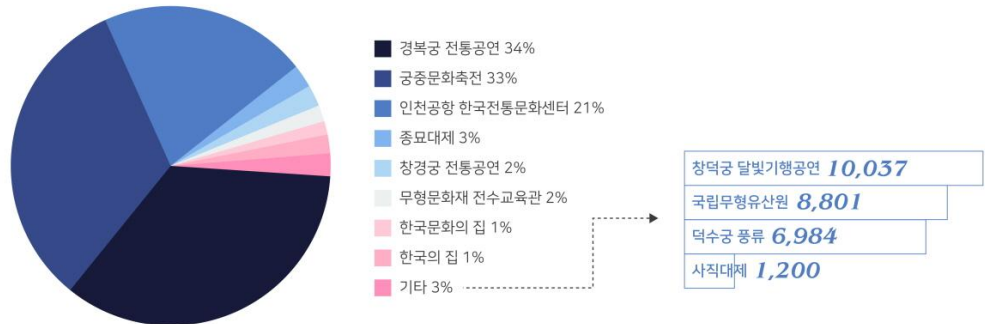
### 공연 사업 개최 현황

단위: 횟수



### 공연 관람자 현황

단위: 명



공연 개최횟수에서는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가 하루 6회 공연을 상설화 해 총 2,190회를 개최해 전체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관람객 수는 경복궁 주야간 전통공연 관람객이 369,963명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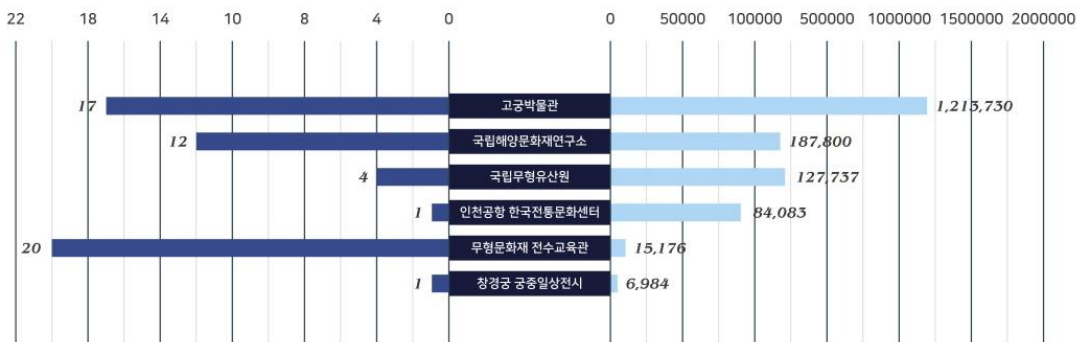
### 전시 사업 운영 및 관람자 현황

#### 전시 사업 개최 현황

단위: 횟수 55

#### 전시 관람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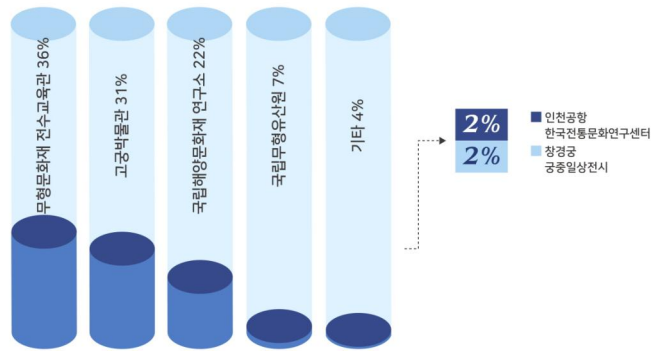
단위: 명 1,635,510



문화재청은 2017년 6개 장소(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연구센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창경궁 궁중일상전시)에서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에 관한 전시를 개최하였는데, 개최된 전시 수는 상설전과 기획전을 포함해 총 55개였으며, 총 관람 인원은 1,635,510명이었다. 전시의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에서는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재를 중심으로, 국립무형유산원·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등에서는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기획된 다양한 주제로 펼쳐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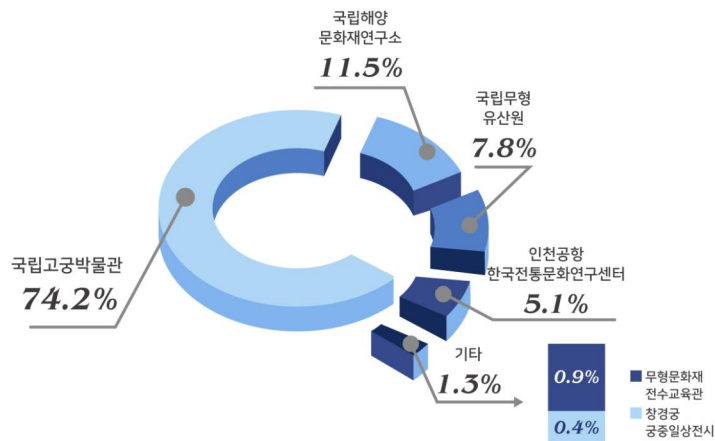
### 전시 사업 개최 현황

단위: 횟수



### 전시 관람자 현황

단위: 명



전시 개최 회수는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이 20회(36%)로 가장 많았으며, 국립고궁박물관이 17회(31%)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관람객 현황의 경우에는 국립고궁박물관이 1,213,730명(74%)으로 다른 곳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는 수준 높은 전시기획과 소재지역의 장점이 결합된 결과로 보인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접근성이 좋고 경복궁과 인접하여, 다수의 경복궁 방문객이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결과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전시 콘텐츠에 관한 것이다. 문화유산 중 중요하고 잘 알려진 유물을 콘텐츠로 전시를 기획하는 박물관이 전승자들의 작품을 콘텐츠로 전시를 기획하는 전수교육관 등에 비해 여러 면에서 이점을 갖고 있다. 많은 국민이 문화유산의 다양성을 향유하려면 장소나 환경 외에도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제공방법 및 향유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야 할 것이다.

### 교육 사업 운영 및 참여자 현황

교육 사업 개최 현황 단위: 횟수 2,869

교육 참여자 현황 단위: 명 392,671



2017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 장소는 모두 6곳(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한국의집, 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의집, 국립해양문화연구소)이었으며, 총 2,869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참여인원은 모두 392,671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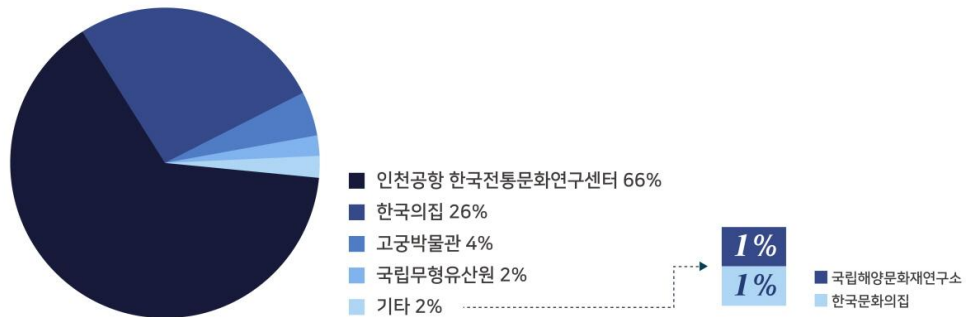
#### 교육 사업 개최

현황 단위: 회수



#### 교육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회수는 한국의 집이 773회(27%)로 가장 많았고,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연구센터가 730회(25%), 국립고궁박물관이 669회(23%) 순이었다. 참여자 수는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연구센터가 66%이었으며, 한국의 집이 102,952명(26%), 국립고궁박물관이 15,328명(4%)이었다.

하지만 이는 교육 프로그램의 유형에 따른 특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연구센터와 한국의 집은 비교적 간단한 체험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기에 짧은 시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국립고궁박물관과 국립무형유산원은 전문적이고 일정 기간 수업이 이어지는 주제별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참가신청 및 유료로 운영되기에 운영 회수와 참여 인원이 적을 수밖에 없다. 두 유형의 프로그램 모두 장점과 특성을 갖고 있고, 주관처의 교육 목적과 장소특수성을 고려해 개발해 운영 중이기에 각자의 역할에 따라 우리나라 문화유산 교육과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활성화 되려면 수요자를 배려한 다채로운 정보와 접근 경로를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 ■ 세부지표

- 문화유산 향유 지표에 대한 세부지표는 총 8개이며, 각 세부지표마다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제작해 제시함
-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는 8개 대표지표를 구성하는 통계 지표이기도 하며, 향후 문화유산 통계를 소관부서별로 개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계 카드이기도 함
- 지표별 통계의 기간 설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표에 대해서는 가능한 2000년 이후부터 18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고자 하였음. 그리고 일반적인 지표 변동사항 파악을 위해서는 과거 10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함. 그 외 근거 자료 자체가 단기간의 것이거나, 정책 및 사업 시행 기간 자체가 짧은 경우 등의 통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동안의 정보를 나타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함
- 문화유산 향유 지표의 8개 세부지표는 다음 8개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와 같음

## 8. 문화유산 향유 세부지표

### 8.1. 문화유산 관람

#### 8.1.1. 문화유적

- 8-1-1-1. 궁·능·원 관람객 연도별 현황
- 8-1-1-2. 민속마을 방문객 및 향유 현황

#### 8.1.2. 세계유산 관람

- 8-1-2-1. 세계유산 관람객 현황
- 8-1-2-2. 국내외 세계유산 현황

### 8.2. 문화재 향유

#### 8.2.1. 문화재 공연

- 8-2-1-1. 공연 사업 운영 현황

#### 8.2.2. 문화재 전시

- 8-2-2-1. 전시 사업 운영 현황
- 8-2-2-2. 문화유산 국외 전시 현황

#### 8.2.3. 문화재 교육

- 8-2-3-1. 교육 사업 운영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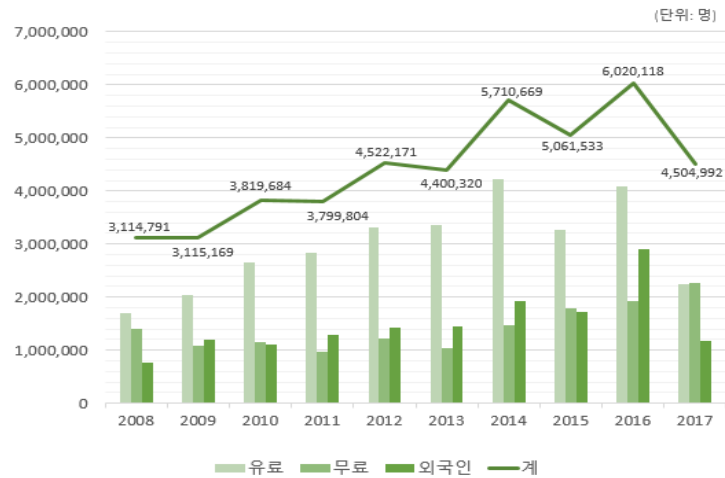
관리번호	항유 8-1-1-1	소관부서		궁능문화재과
지 표 명	궁 · 능 · 원 관람객 연도별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응용
지표정의	지난 10년간 궁 · 능 · 원 · 유적 45개소의 국가지정문화재를 방문하는 관람객 총괄 현황			
지표의의	지난 10년간 궁 · 능 · 원 · 유적 45개소의 관람객 현황과 유형을 확인하여 문화유산 향유의 수준을 향상하고 관람환경을 고품격화 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보완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궁 · 능 · 원 관람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궁능문화재과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설문은 수시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설문조사		
	조사 표본	궁 · 능 · 원 관람 현황 및 관람객 설문(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수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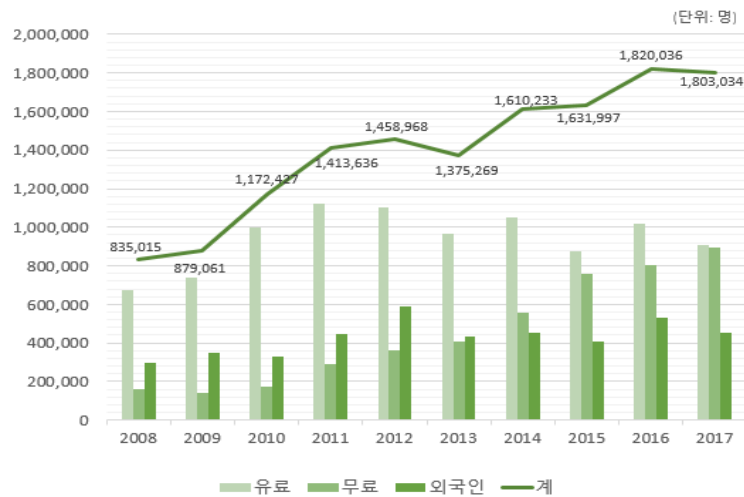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관광정책 개발,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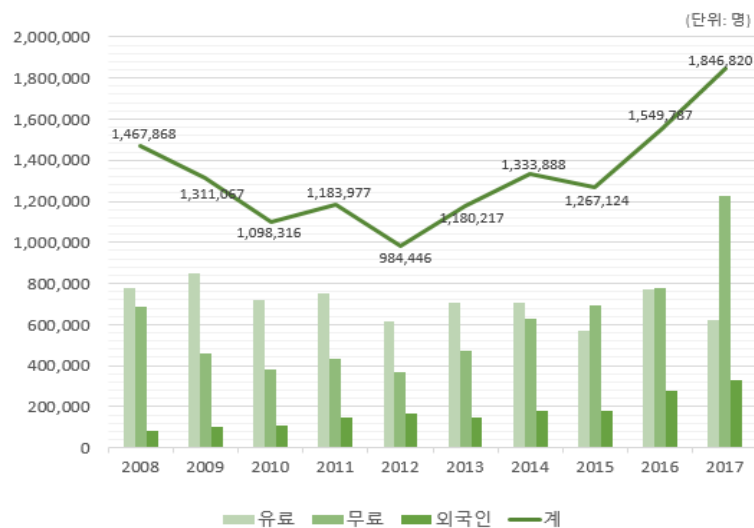
경복궁 관람객 현황



창덕궁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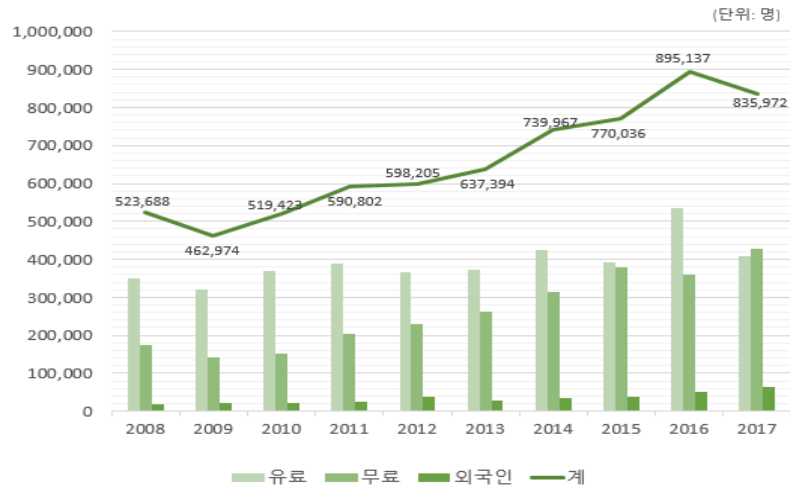


덕수궁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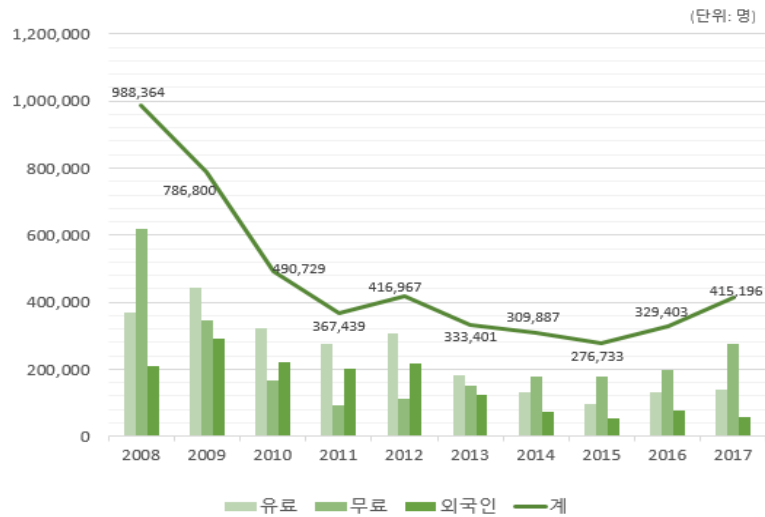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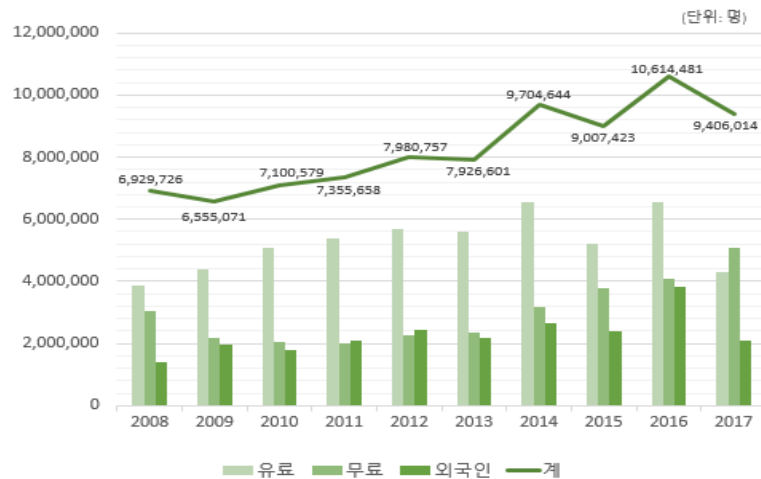
창경궁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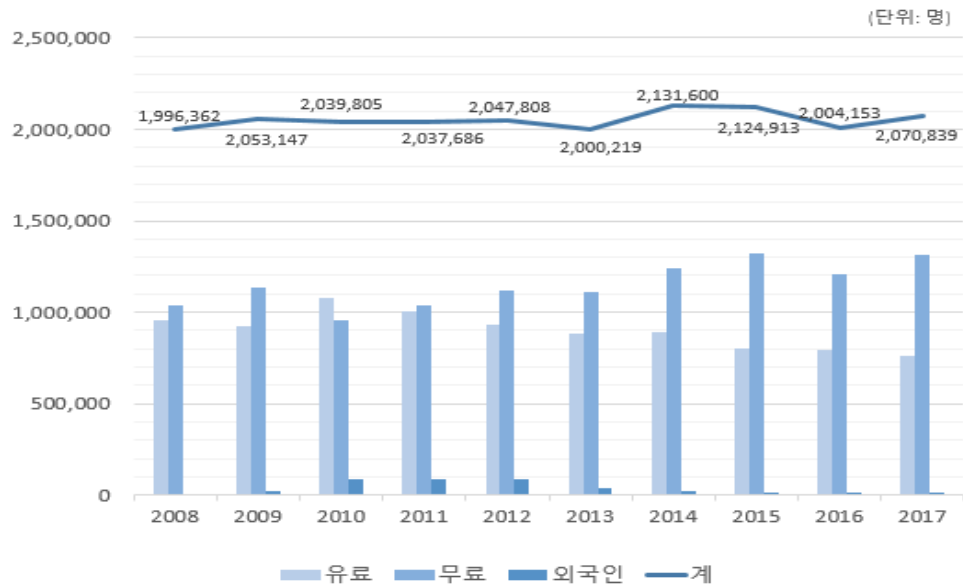
종묘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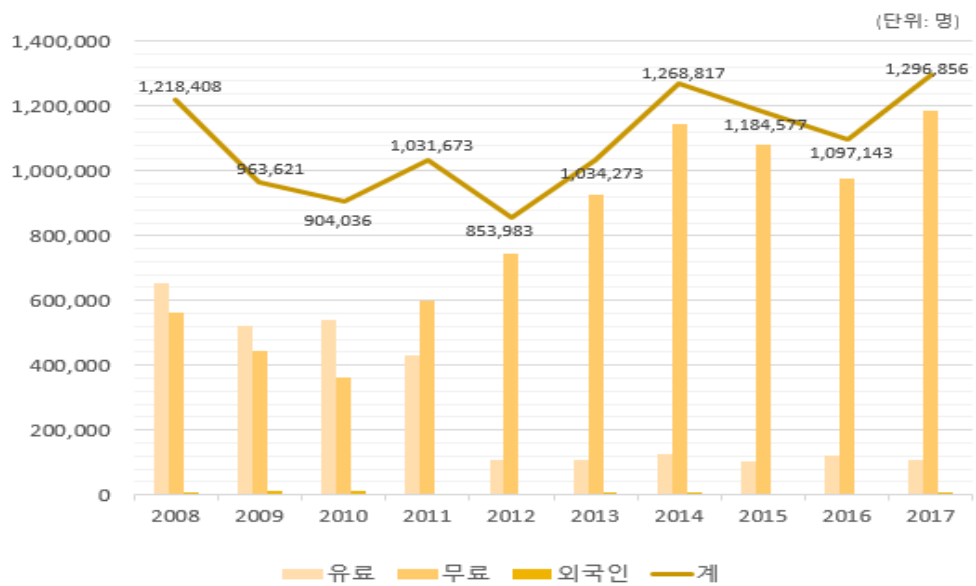
4대궁 및 종묘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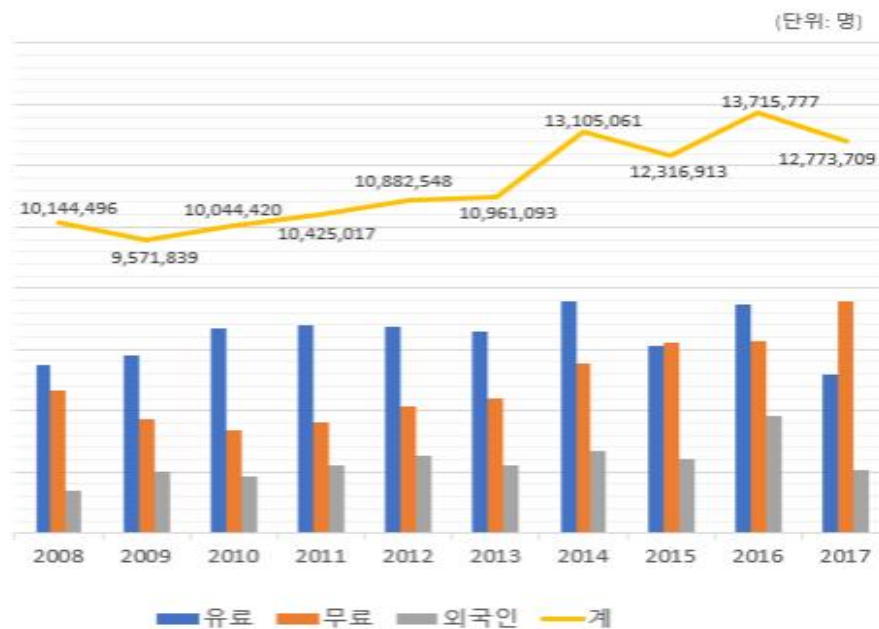
## 능 관람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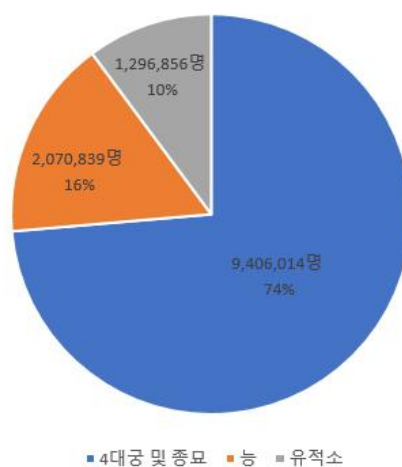
## 유적소 관람객 현황



## 궁·능·원 관람객 총계 현황



## 궁·능·원 관람객 비율 현황



통계표

공·농·원 관람객 현황 (단위: 명)											
공·농·원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복궁	유 료	1,704,962	2,029,600	2,657,856	2,837,375	3,309,842	3,356,845	4,228,406	3,277,285	4,084,132	2,239,396
	무 료	1,409,829	1,085,569	1,161,828	962,429	1,212,329	1,043,475	1,482,263	1,784,248	1,935,986	2,265,596
	계	3,114,791	3,115,169	3,819,684	3,799,804	4,522,171	4,400,320	5,710,669	5,061,533	6,020,118	4,504,992
	외국인	773,990	1,191,250	1,103,311	1,284,747	1,423,821	1,446,982	1,917,948	1,714,487	2,897,935	1,168,321
창덕궁	유 료	673,265	739,981	1,001,177	1,120,395	1,100,054	968,878	1,052,596	873,920	1,019,433	907,694
	무 료	161,750	139,080	171,250	293,241	358,914	406,391	557,637	758,077	800,603	895,340
	계	835,015	879,061	1,172,427	1,413,636	1,458,968	1,375,269	1,610,233	1,631,997	1,820,036	1,803,034
	외국인	299,223	352,195	327,650	443,502	587,397	430,917	454,707	405,780	532,728	452,562
덕수궁	유 료	779,352	851,457	716,669	749,908	615,697	704,816	707,078	571,350	772,996	622,101
	무 료	688,516	459,610	381,647	434,069	368,749	475,401	626,810	695,774	776,791	1,224,719
	계	1,467,868	1,311,067	1,098,316	1,183,977	984,446	1,180,217	1,333,888	1,267,124	1,549,787	1,846,820
	외국인	80,559	99,653	105,340	147,315	167,739	144,338	182,096	178,593	278,133	327,755
창경궁	유 료	350,666	319,676	368,779	387,706	367,240	373,820	425,882	391,563	534,732	407,558
	무 료	173,022	143,298	150,644	203,096	230,965	263,574	314,085	378,473	360,405	428,414
	계	523,688	462,974	519,423	590,802	598,205	637,394	739,967	770,036	895,137	835,972
	외국인	16,981	20,844	23,132	26,361	39,634	29,179	34,747	38,789	49,749	63,906
총 모	유 료	370,280	442,617	322,438	275,242	305,627	180,941	132,797	98,089	131,299	139,607
	무 료	618,084	344,183	168,291	92,197	111,340	152,460	177,090	178,644	198,104	275,589
	계	988,364	786,800	490,729	367,439	416,967	333,401	309,887	276,733	329,403	415,196
	외국인	209,223	291,338	220,363	203,158	216,497	121,728	74,035	54,505	75,494	58,584
4대궁 및 종묘 소 계	유 료	3,878,525	4,383,331	5,066,919	5,370,626	5,698,460	5,585,300	6,546,759	5,212,207	6,542,592	4,316,356
	무 료	3,051,201	2,171,740	2,033,660	1,985,032	2,282,297	2,341,301	3,157,885	3,795,216	4,071,889	5,089,658
	계	6,929,726	6,555,071	7,100,579	7,355,658	7,980,757	7,926,601	9,704,644	9,007,423	10,614,481	9,406,014
	외국인	1,379,976	1,955,280	1,779,796	2,105,083	2,435,088	2,173,144	2,663,533	2,392,154	3,834,039	2,071,128
능 소 계	유 료	955,168	922,439	1,080,161	1,003,091	929,285	886,780	893,953	804,086	793,454	760,173
	무 료	1,041,195	1,130,708	959,644	1,034,595	1,118,523	1,113,439	1,237,647	1,320,827	1,210,699	1,310,666
	계	1,996,362	2,053,147	2,039,805	2,037,686	2,047,808	2,000,219	2,131,600	2,124,913	2,004,153	2,070,839
	외국인	6,656	22,124	87,194	88,618	89,885	41,568	20,085	13,889	10,214	12,009
유적소 소 계	유 료	655,010	519,549	541,892	431,911	109,802	107,970	125,179	101,573	120,382	110,037
	무 료	563,398	444,072	362,144	599,323	744,181	926,303	1,143,638	1,083,004	976,761	1,186,819
	계	1,218,408	963,621	904,036	1,031,673	853,983	1,034,273	1,268,817	1,184,577	1,097,143	1,296,856
	외국인	7,538	14,016	10,788	4,984	1,187	7,670	6,962	4,701	5,215	6,255
총 계	유 료	5,488,703	5,825,319	6,688,972	6,805,628	6,737,547	6,580,050	7,565,891	6,117,866	7,456,428	5,186,566
	무 료	4,655,794	3,746,520	3,355,448	3,619,389	4,145,001	4,381,043	5,539,170	6,199,047	6,259,349	7,587,143
	합 계	10,144,496	9,571,839	10,044,420	10,425,017	10,882,548	10,961,093	13,105,061	12,316,913	13,715,777	12,773,709
	외국인	1,394,170	1,991,420	1,877,778	2,198,685	2,526,160	2,222,382	2,690,580	2,410,744	3,849,468	2,089,392

해설	<p>이 지표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궁·능·원·유적 국가지정문화재 45개소를 방문한 관람객의 총괄 현황이다.</p> <p>지난 10년간의 관람객 추이를 살펴보면, 궁·능·원·유적 국가지정문화재 45개소를 방문한 관람객 총인원은 2008년 10,144,496명에서 2017년 12,773,709명으로 2,629,213명(25%) 상승하였다. 유료 관람객은 5,488,703명에서 5,186,566명으로 302,137명(-5%) 감소하였고, 무료 관람객은 4,655,794명에서 7,587,143명으로 2,931,349명(62%)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1,394,170명에서 2,089,392명으로 695,222명(49%) 증가하였다.</p> <p>4대궁 및 종묘 관람객은 2008년 6,929,726명에서 2017년에는 9,406,014명으로 2,476,288명(35%) 증가하였다. 유료 관람객은 3,878,525명에서 4,316,356명으로 437,831명(11%) 증가하였고, 무료 관람객은 3,051,201명에서 5,089,658명으로 2,038,457명(66%)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1,379,976명에서 2,071,128명으로 691,152명(50%) 증가하였다.</p> <p>능 관람객은 2008년 1,996,362명에서 2017년에는 2,070,839명으로 74,477명(3%) 증가하였다. 유료 관람객은 955,168명에서 760,173명으로 194,995명(-20%) 감소하였고, 무료 관람객은 1,041,195명에서 1,310,666명으로 269,471명(25%)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6,656명에서 12,009명으로 5,353명(80%) 증가하였다.</p> <p>유적소 관람객은 2008년 1,218,408명에서 2017년에는 1,296,856명으로 78,448명(6%) 증가하였다. 유료 관람객은 655,010명에서 110,037명으로 544,973명(-83%) 감소하였고, 무료 관람객은 563,398명에서 1,186,819명으로 623,421명(110%) 증가하였고, 외국인 관람객은 7,538명에서 6,255명으로 1,283명(-17%) 감소하였다.</p> <p>※ 궁·능·원·유적 국가지정문화재는 2013년 8월 12일부터 만24세 이하 국민 무료관람을 시행하였고, 한복 착용자는 2013년 10월 19일부터 무료관람을 시행하였다. 또한 세종대왕유적관리소는 유적정비사업에 따라 2018년 12월까지 무료 개방을 시행하며, 2017년 1월부터 만인의총관리소도 유적소에 포함하였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 : 왕이 다스리던 시대에 왕의 거처와 관청을 아울러 갖춘 건축물로, 서울 시내에 소재한 조선시대 왕궁인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창경궁이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음</li> <li>• 릉 : 왕과 왕비의 무덤</li> <li>• 원 : 왕세자나 세자빈 및 왕의 친척, 계비, 왕의 생모 등 왕의 사친(私親)의 무덤</li> <li>• 만인의총 : 조선 선조 30년(1597) 정유재란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하여 왜적과 싸우다가 전사한 만 여명의 관리와 군사, 백성을 함께 묻은 무덤으로, 전남 남원시 향원동에 위치함</li> <li>• 칠백의총 : 임진왜란(1592) 때 의병장 조헌과 함께 금산에서 왜군을 막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700명의 병사들을 위한 무덤과 사당으로, 충남 금산군 금성면에 위치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2017)</li> <li>2. 「주요업무통계자료집」 (2008~2015)</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궁궐 활용프로그램 운영 현황</li> <li>• 보조지표 : 궁·능·원 안내해설사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항유 8-1-1-2	소관부서		근대문화재과
지 표 명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응용
지표정의	전국 8개 민속마을 중 유료입장제를 진행하고 있는 3개 민속마을(안동 하회, 경주 양동, 아산 외암)의 방문객 현황			
지표의의	매년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을 확인하여 각 민속마을에 대한 국민 관심도와 호응도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근대문화재과 외 각 민속마을 담당부서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민속마을 방문객 현황, 방문객 설문(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수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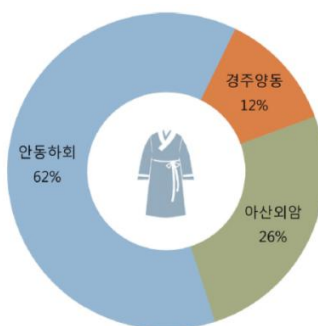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1. 민속마을 중 자유관람제인 4개 민속마을(제주 성읍, 고성 왕곡, 성주 한개, 영주 무섬)은 방문객 집계기 어려움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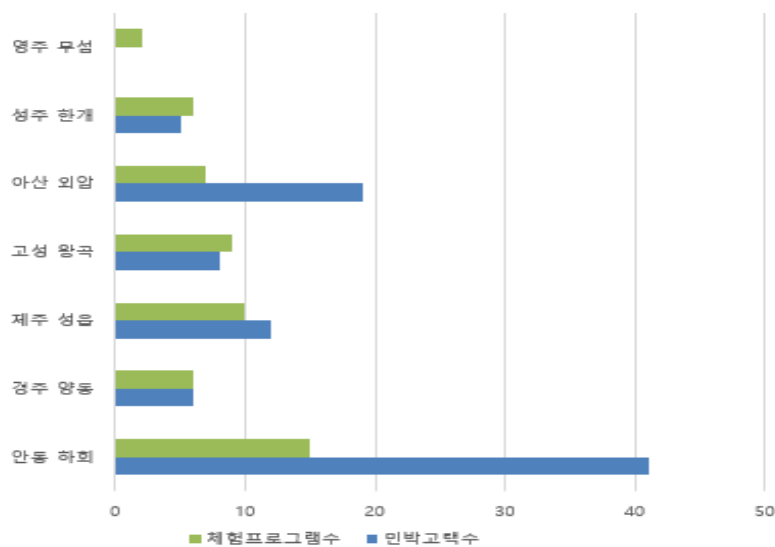
2013-2017년 3개 민속마을 방문객 추이



2017년 3개 민속마을 유료방문객 비율



민속마을별 체험프로그램 및 민박고택 현황



[illegible]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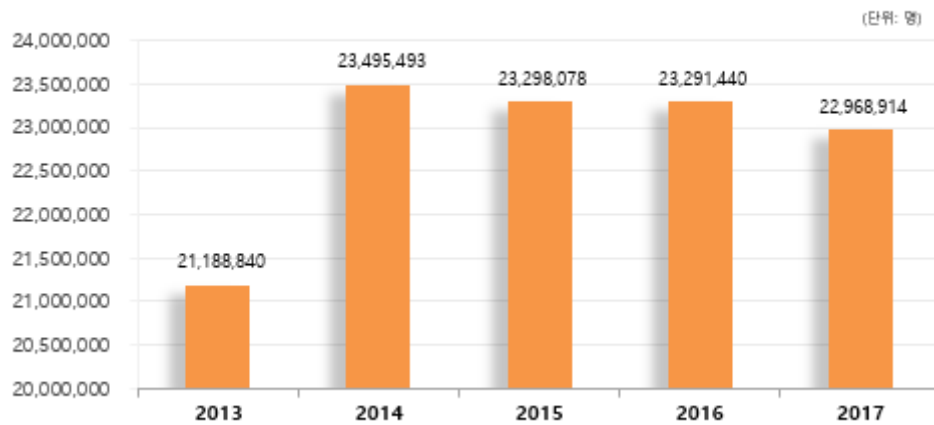
관리번호	항유 8-1-2-1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세계유산 관람객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응용
지표정의	국내 소재 12개의 세계유산의 관람객 현황 및 유형 분류			
지표의의	국내 소재 세계유산별 관람객의 추이를 살펴 관람객의 관심도, 인지도, 호응, 홍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세계유산 관람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세계유산 관람 현황, 관람객 설문(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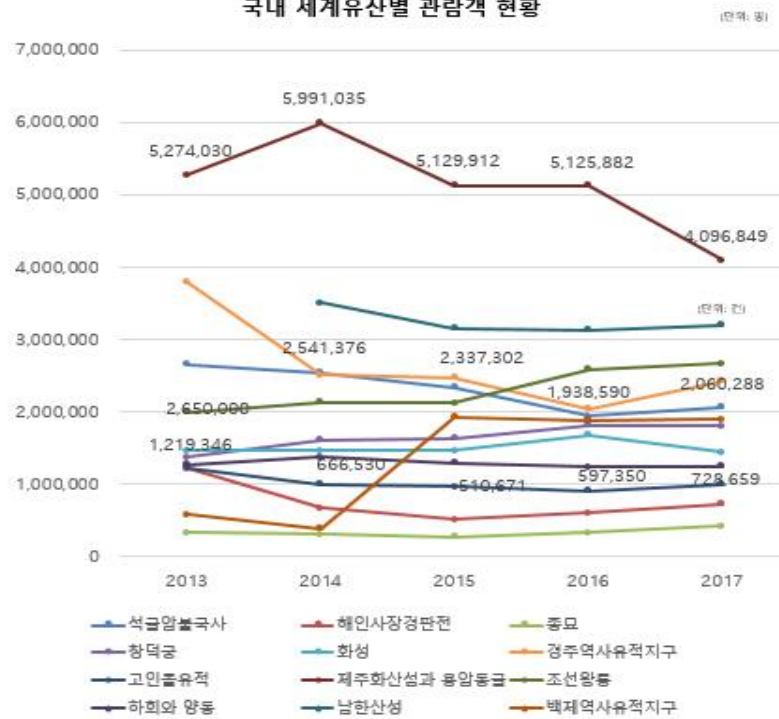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1. 2018년에 등재된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은 관람객 집계기 없는 관계로 미포함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유네스코 세계유산 년도별 관람 총원



국내 세계유산별 관람객 현황



국내 세계유산 유형별 분류



세계유산 관람 현황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석굴암·불국사	2,650,000	2,541,376	2,337,302	1,938,590	2,060,288	11,527,556
해인사장경판전	1,219,346	666,530	510,671	597,350	728,659	3,722,556
종묘	333,401	309,887	276,733	329,403	415,196	1,664,620
창덕궁	1,375,269	1,610,233	1,631,997	1,820,036	1,803,034	8,240,569
화성	1,464,614	1,462,551	1,462,566	1,684,444	1,437,362	7,511,537
경주역사유적지구	3,793,263	2,505,091	2,475,191	2,037,724	2,423,938	13,235,207
고인돌유적	1,230,469	1,002,241	965,691	911,682	1,000,812	5,110,895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5,274,030	5,991,035	5,129,912	5,125,882	4,096,849	25,617,708
조선왕릉	2,000,219	2,131,600	2,124,913	2,589,458	2,665,334	11,511,524
하회와 양동	1,269,951	1,376,446	1,298,832	1,239,669	1,247,149	6,432,047
남한산성	0	3,506,309	3,156,393	3,128,280	3,195,335	12,986,317
백제역사유적지구	578,278	392,194	1,927,877	1,888,922	1,894,958	6,682,229
합계	21,188,840	23,495,493	23,298,078	23,291,440	22,968,914	114,242,765

통계표

국내 소재한 12개 세계유산의 관람객 현황과 추이를 알 수 있는 통계이다. 총 관람객은 전년 대비 약3%정도 감소되었다.

세계유산별 특징은3개 세계유산(창덕궁, 화성,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전년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교통접근성이 낮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대신 수도권외 내륙지방의 세계유산들이 전반적으로 약상승세를 띠고 있다. 이는 대외정세로 인한 해외관람객의 제주도 유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향후 관람객 집계에 있어 관람객 유형별 집계 보완 필요

해설

국내 소재한 12개 세계유산의 관람객 현황과 추이를 알 수 있는 통계이다. 총 관람객은 전년 대비 약3%정도 감소되었다.

세계유산별 특징은3개 세계유산(창덕궁, 화성,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전년대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교통접근성이 낮은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대신 수도권외 내륙지방의 세계유산들이 전반적으로 약상승세를 띠고 있다. 이는 대외정세로 인한 해외관람객의 제주도 유입이 감소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 향후 관람객 집계에 있어 관람객 유형별 집계 보완 필요

관련용어

- 세계유산 : 역사, 예술 학문적으로 뛰어난 보편적·세계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 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의거하여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문화재

출처

-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 「2018 문화재연감」

관련지표

- 보조지표 :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 보조지표 : 국내외 세계유산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항유 8-1-2-2	소관부서		세계유산팀
지 표 명	국내외 세계유산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목적/대상	행정 , 응용
지표정의	국내 소재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분포된 세계유산의 현황을 문화권역별, 주요 보유국별로 분류한 지표			
지표의의	국내외 세계유산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세계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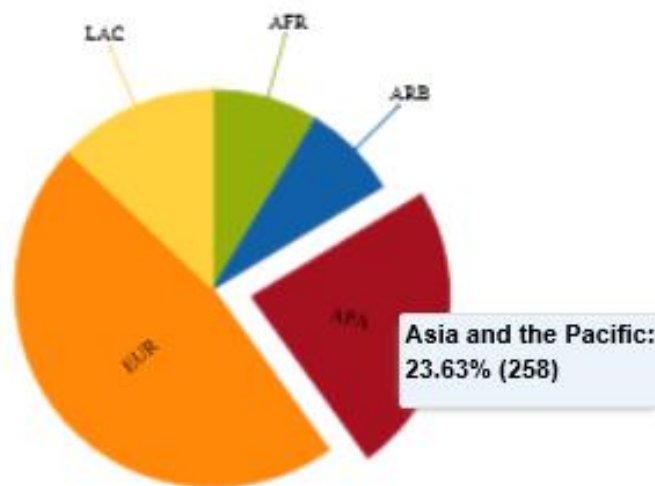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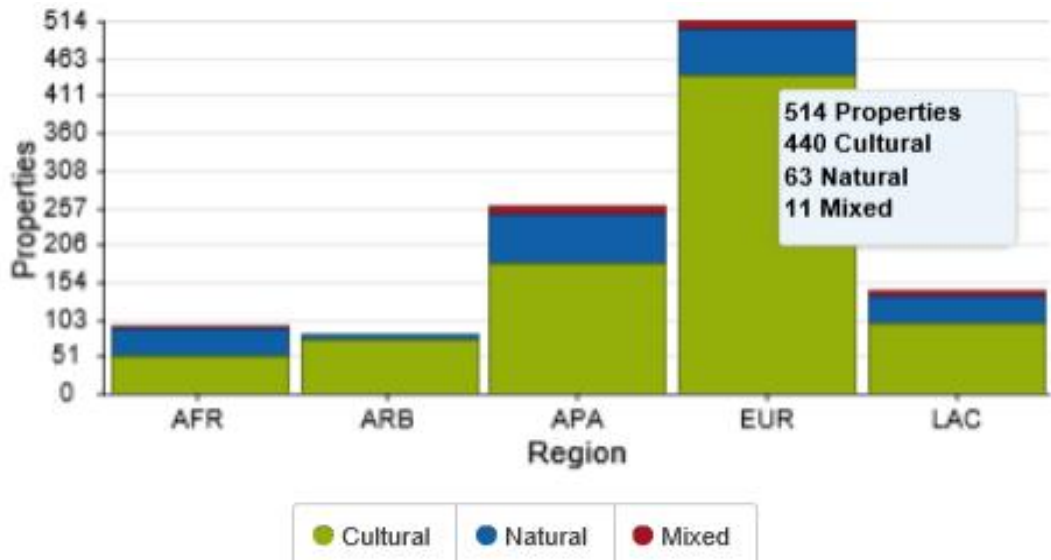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국내외 세계유산 현황 조사		
	조사 대상	세계유산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국내외 세계유산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국내외 세계유산 분포현황(2018년 8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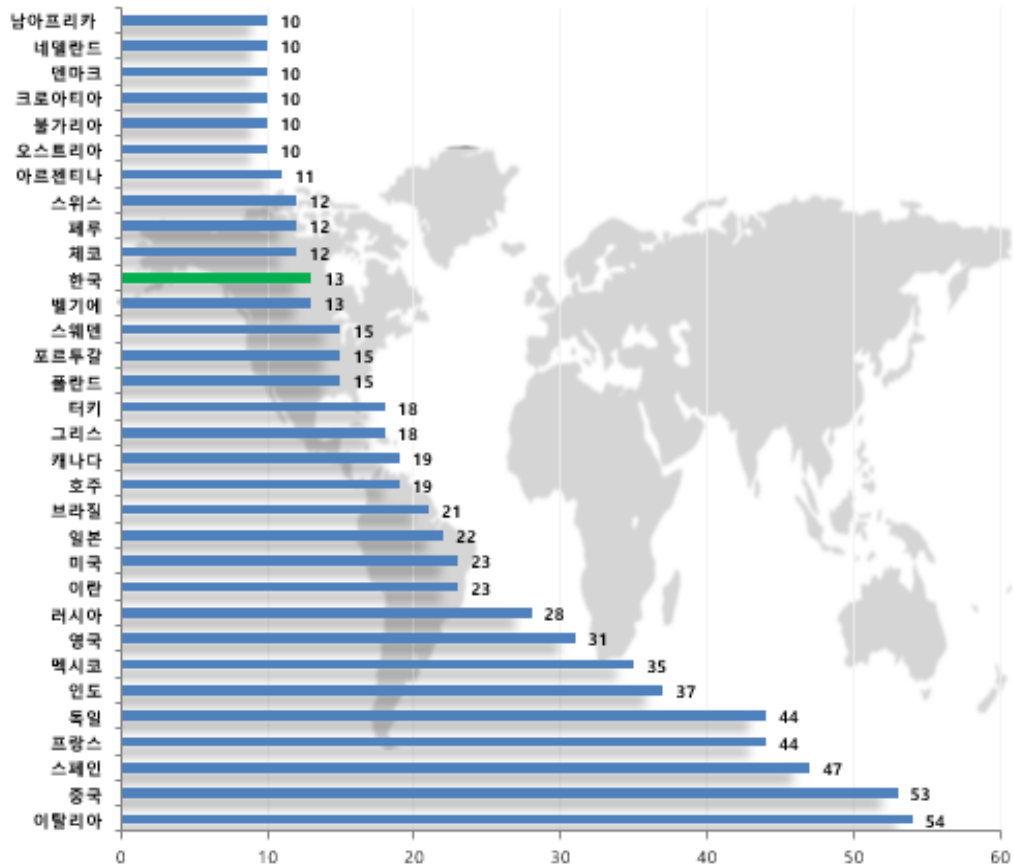
세계 유산 5개 문화권 역별 현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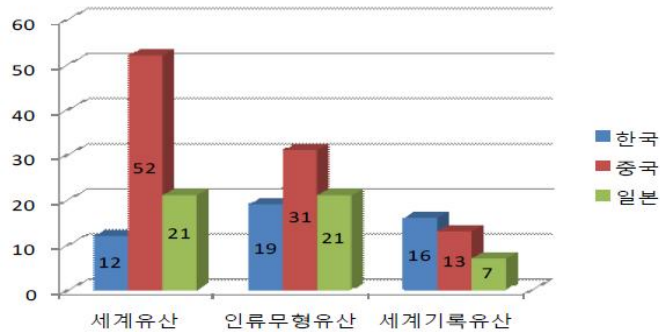
세계유산 국가별 현황 (10점 이상 보유국)

(단위: 점)



2018년 8월 기준, 세계유산은 총 1,092점이며 10개 이상 보유한 32개국에서 714점, 그 외 135개국에서 378점 보유

한중일 유네스코 유산 등재 현황



통계표

세계유산 5개 문화권역별 현황(2018년 8월 기준)

문화권역	문화	자연	혼합	소계	%	국가수
라틴 아메리카/캐리비안 (LAC)	96	38	7	141	12.91%	28
유럽/북아메리카 (EUR)	440	63	11	514	47.07%	50
아시아/태평양연안 (APA)	181	65	12	258	23.63%	36
아랍 (ARB)	76	5	3	84	7.69%	18
아프리카 (AFR)	52	38	5	95	8.70%	35
계	845	209	38	1,092	100%	167

## 세계유산 10건 이상 보유국 현황(2018년 8월 기준)

순위	국가명	점수	순위	국가명	점수
1	이탈리아	54	17	터키	18
2	중국	53	18	폴란드	15
3	스페인	47	19	포르투갈	15
4	프랑스	44	20	스웨덴	15
5	독일	44	21	벨기에	13
6	인도	37	22	<b>한국</b>	<b>13</b>
7	멕시코	35	23	체코	12
8	영국	31	24	페루	12
9	러시아	28	25	스위스	12
10	이란	23	26	아르헨티나	11
11	미국	23	27	오스트리아	10
12	일본	22	28	불가리아	10
13	브라질	21	29	크로아티아	10
14	호주	19	30	덴마크	10
15	캐나다	19	31	네덜란드	10
16	그리스	18	32	남아프리카	10

## 한중일 유네스코 유산 등재 현황(2017년 12월 기준)

국가명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합계
한국	12	19	16	47
중국	52	31	13	96
일본	21	21	7	49
계	85	71	36	192

## 해설

국내 소재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분포된 세계유산의 현황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통계이다. 특히 세계유산을 10건 이상 보유한 국가 32개국 중 20개국이 유럽/북아메리카 문화권에, 5개국이 아태평양 문화권에, 4개국이 남미 문화권에, 그리고 1개국이 아프리카 문화권에 속해 있다.

## 관련용어

- 인류무형유산 : 유네스코는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하여 세계인이 관심을 가지고 보존할 수 있도록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 유산을 선정한 '인류 구전 및 무형 유산 걸작'을 지정
- 세계기록유산 : 유네스코가 인류의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유산이 훼손되거나 영원히 사라질 위험에 있는 기록유산의 보존과 이용을 위하여, 기록유산의 목록을 작성하고 효과적인 보존수단을 강구하기 위해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을 지정

## 출처

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ttp://heritage.unesco.or.k>)

## 관련지표

- 보조지표 : 세계유산 등재 및 잠정목록 현황
- 보조지표 : 세계유산 관람 현황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관리번호	항유 8-2-1-1	소관부서		국립무형유산원 외
지 표 명	공연 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가공
			목적/대상	행정, 응용
지표정의	문화재청 소속기관에서 운영되는 공연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예능 보유자, 이수자 등 전수자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공연 현황			
지표의의	공무형문화재 예능보유 전수자들의 공연참여도와 공연개최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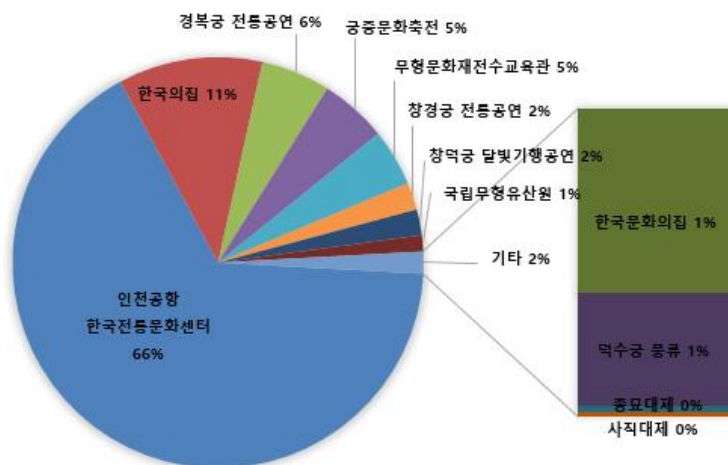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공연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설문은 수시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공연사업 운영 현황, 관람객 설문(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수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1. 개최장소 및 주최기관을 중심으로 분류 2. 문화재 연감과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의 데이터가 다르므로 연감을 우선으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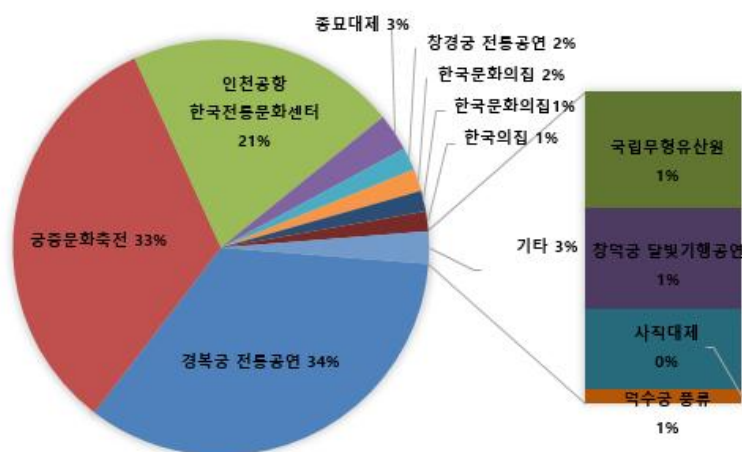


그래프

공연 개최 현황



공연 관람객 현황



통계표

구분	횟수	인원
경복궁 전통공연	180	368,963
궁중문화축전	175	353,951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2,190	226,663
종묘대제	1	31,434
창경궁 전통공연	71	19,059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148	18,661
한국문화의집	34	17,334
한국의집	375	16,726
국립무형유산원	42	10,037
창덕궁 달빛기행공연	67	8,801
덕수궁 풍류	21	6,984
사직대제	1	1,200
계	3,305	1,079,813

해설	<p>문화재청이 관리 중인 사적과 소속기관 등에서 무형문화재 예능보유자와 전수자들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공연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p> <p>궁궐과 종묘를 비롯한 사적과 공연장 12개의 장소에서 연간 3,305회의 공연이 개최되며 연인원 1,079,813명이 참여하고 있다. 공연개최횟수는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가 하루 6회 공연으로 최대이며, 공연별 관람객은 경복궁 주야간 전통공연의 관람객이 369,9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3층에서 내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설문화센터</li> <li>•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 국가무형문화재의 전승을 위해 1997년 문화재청이 건립하여 한국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며, 다양한 전통 공연과 전시·체험·전수교육·강습 등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 (현재, 예능종목은 8개 단체와 기능종목 12개 공방이 입주). 주요시설은 민속극장 '풍류', '전통공예관', 전통공예품 상설전시판매장, 세미나실, 예능연습실, 공예교육실기실 등으로 구성</li> <li>• 한국문화의 집 : 2003년 개관 후, 내국인들에게는 멋스러운 옛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전통문화교육공간으로, 전통예술의 기악, 성악, 무용 분야를 골고루 보여주는 상설공연과 외국인 및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한국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li> <li>• 한국의 집 : 1980년 경복궁 자경전을 본떠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웅수가 지은 후, 내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전통생활과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지어진 문화공간으로, 전통음식, 전통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전통한옥이며 한국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음</li> <li>• 국립무형유산원 :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 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개원하였고, 무형문화재기념관, 대·소 공연장, 상설·기획·융복합 전시실, 세미나실, 아카이브,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로 구성됨</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각 기관 홈페이지</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전시 사업 운영 현황</li> <li>• 보조지표 : 교육 사업 운영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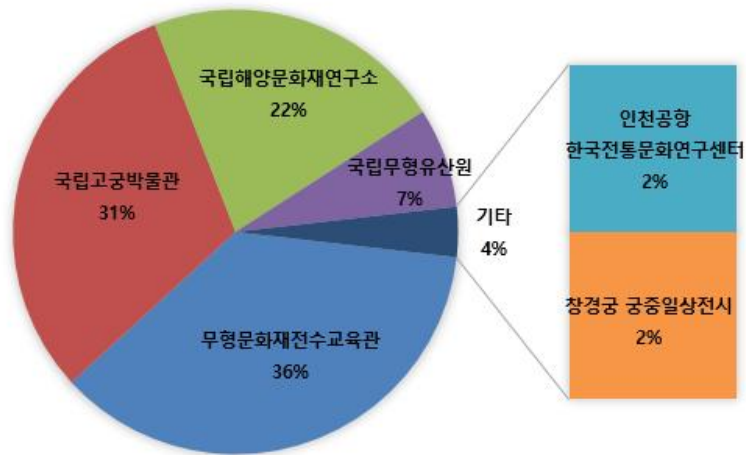
관리번호	항유 8-2-2-1	소관부서		국립고궁박물관 외
지 표 명	전시 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가공
			목적/대상	행정, 응용
지표정의	유물, 박물관 소장품, 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의 작품 등으로 구성하여 문화재청 소속기관의 전시장과 그 외 대중집합장소에서 개최되는 전시와 관람 현황			
지표의의	전시를 통해 문화재청의 핵심과업을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대국민행사로, 유물과 작품을 통해 역사와 과거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호응도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전시 관람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등 소관부서 전체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관람객 설문
	조사 표본	전시 관람 현황, 관람객 설문(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건		연 1 회
지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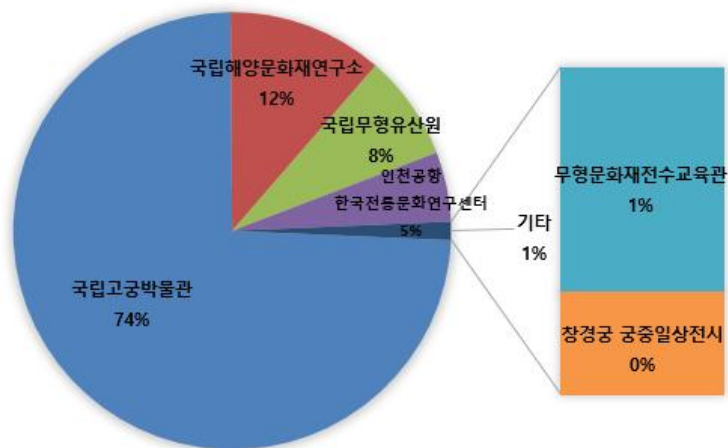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전시 개최 현황



전시 관람객 현황



통계표

전시 사업 운영 현황 (단위 : 건)		
구분	횟수	관람객
고궁박물관	17	1,213,73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12	187,800
국립무형유산원	4	127,737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1	84,083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20	15,176
창경궁 궁중일상전시	1	6,984
합계	55	1,635,510

해 설	<p>문화재청과 소속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전시사업이 개최되는 곳은 모두 2017년 기준 6개 장소(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국립무형유산원,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연구센터,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창경궁 궁중일상전시)였고, 개최된 전시는 55개로 상설전과 기획전 등이 포함된 수치이며, 총 관람객은 1,635,510명이다.</p> <p>특히 고궁박물관은 수준 높은 전시기획으로 2, 3순위의 국립해양문화재 연구소와는 관람객 수에서 8-9배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접근성이 좋고 경복궁과 인접하여, 다수의 경복궁 방문객이 쉽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지리적 환경의 영향도 크다.</p> <p>또한 목포에 있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은 관람객 규모는 비슷하나 연간 전시운영횟수는 크게 차이가 난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전시시설이 중규모이나 지속적으로 기획전을 개최하며 지역에서 역사와 과거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문화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관련 콘텐츠 사업의 핵심기관이 되어야하나 전시운영횟수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형문화재 사업의 핵심기관으로 학예인력의 충원 또는 외부초빙, 협업전시, 순회전시 유치 등을 통해서 보다 활발한 사업 추진을 필요로 한다.</p> <p>그리고 유동인구가 많은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전시의 관람객이 높은 점을 볼 때, 전시의 수준을 보다 향상시켜 국가이미지 제고에 보다 집중할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p> <p>[참고] 향후 전시의 유형별(기획전, 상설전, 대관전 등) 조사 및 관람자 만족도 조사(전시내용의 전달력, 이해도 등)을 통해 정교하게 2/3차 정보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으로 전시의 내용과 메카니즘을 보완하여 수준 높은 전시를 개최</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궁박물관 : 조선(1392-1897) 왕실 및 대한제국(1897-1910) 황실과 관련된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상설전시 및 특별 기획전시를 개최하며,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운영</li> <li>•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우리나라 바다의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고선박(옛 침몰선)과 전통 선박 복원, 옛 선박의 조선기술과 항해기술 연구, 해양고고학적 유적지와 유물 조사, 섬 문화 연구, 전통 고기잡이 연구 등의 연구성과를 보고서와 영상물로 제작·공개하며, 다양한 전시회와 교육,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음</li> </ul>
출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각 기관 홈페이지</li> </ol>
관련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조지표 : 공연 사업 운영 현황</li> <li>• 보조지표 : 교육 사업 운영 현황</li> <li>• 보조지표 : 주요 기관별 문화유산 보유 현황</li> <li>• 보조지표 :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 연도별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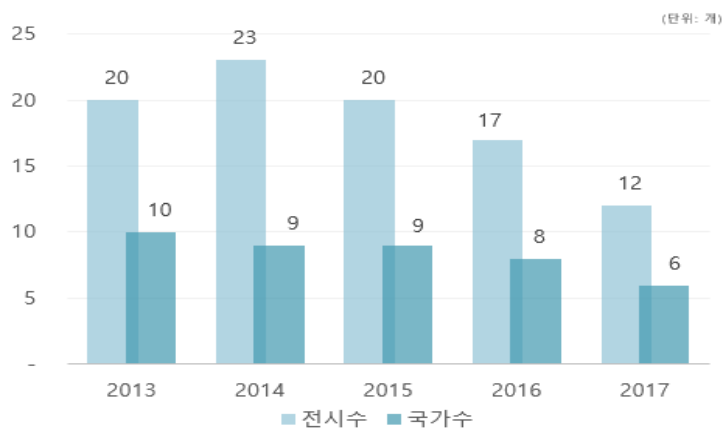
관리번호	항유 8-2-2-3	소관부서		국제협력과
지 표 명	문화유산 국외전시 현황 (국외 반출 허가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목적/대상	행정
지표정의	지난 5년간 해외에서 전시된 문화재의 국가별 현황			
지표의의	문화재의 국외 전시 개최빈도수를 확인하여 국제 문화교류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문화유산 국외전시 현황 조사			
	조사 대상	국제협력과			
	조사 시기	매년 12월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조사 표본	문화유산 국외전시 현황(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연 1 회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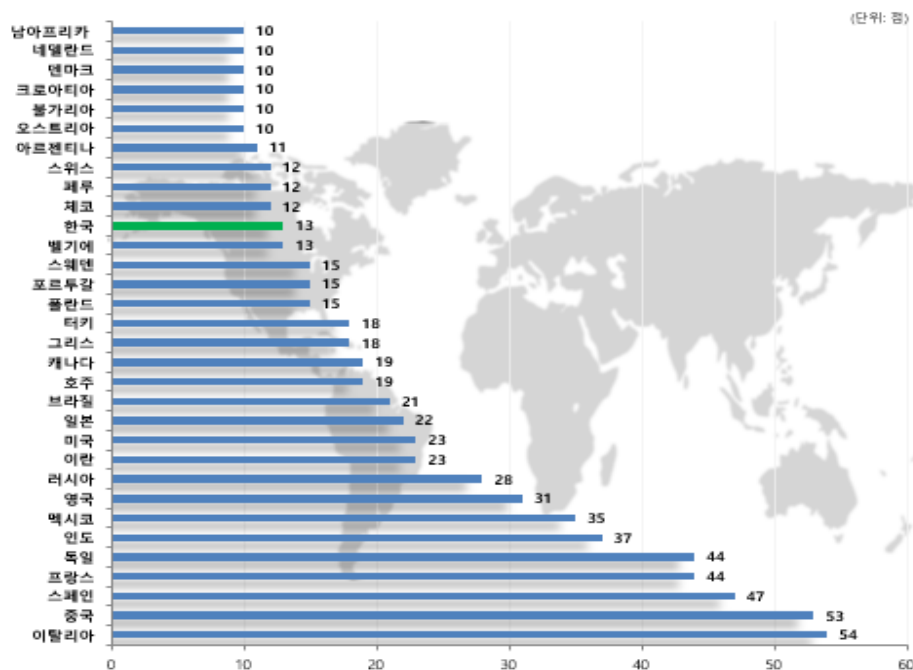
문화유산 국외전시 및 국가수 현황



문화유산 국외전시 작품 현황



세계유산 국가별 현황 (10점 이상 보유국)



## 통계표

국가별 전시횟수 (단위: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일본	6	11	10	4	1	32
미국	7	7	2	3	5	24
중국		1	1	3	1	6
프랑스		1	2	3		6
영국	2	2	1			5
호주	1	1	1			3
싱가포르				1	2	3
독일	1	1				2
터키	2					2
벨기에	1	1				2
헝가리	1	1				2
인도			1	1		2
이란					2	2
이탈리아			1			1
바티칸					1	1
러시아				1		1
대만				1		1
체코	1					1
벨라루시			1			1
스위스	1					1
계	전시수	23	26	20	17	총98회
	국가수	10	9	9	9	총20개국

문화유산 국외전시 작품 현황 (단위:건)				
구분	국보	보물	비지정	합계
2013	11	34	1,278	1,323
2014	3	6	1,115	1,124
2015	2	4	1,544	1,550
2016	1	5	923	929
2017	2	12	755	769
합계	19	61	5,615	5,695

## 해설

지난 5년간의 문화유산을 통한 해외전시교류를 분석한 결과, 모두 5,695점(국보 19점, 보물 61점, 비지정 5,615점)이 출품을 위해 반출되었다.

그리고 전시상위국가를 살펴보면, 1순위는 일본으로 22회, 2순위는 미국으로 21회로 공동 3순위인 중국, 프랑스와는 3배가 넘는 차이가 나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전시교류가 일본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p>관련용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국외반출 허가 :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 독창성을 국외에 널리 알리고 국가 간 문화재를 통한 국제교류 증진으로 국가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제39조 및 제60조에 따라 허가된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에 한하여 2년 미만의 기한으로 반출가능한 제도</li> </ul>
<p>출 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문화재보호법」</li> </ol>
<p>관련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조지표 : 전시 사업 운영 현황</li> </ul>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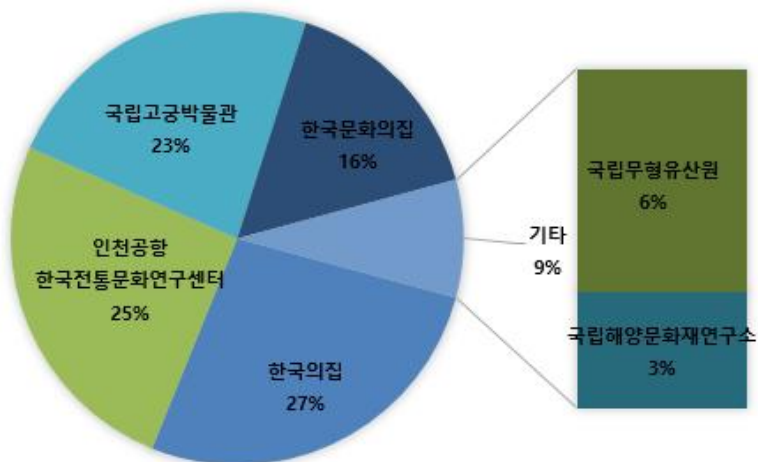
관리번호	항유 8-2-3-1	소관부서		문화유산교육팀
지 표 명	교육 사업 운영 현황	통계 유형	작성법	보고, 조사, 가공
			목적/대상	행정, 응용
지표정의	문화재청 소속기관 또는 관련사업 장소에서 1년간 운영된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의 현황을 분석한 지표			
지표의의	대중들과 직접 접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과거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이해를 넓혀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와 호응도를 읽을 수 있는 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방법	조사 명칭	교육 사업 운영 현황 조사		
	조사 대상	문화유산교육팀		
	조사 시기	매년 12월, 설문 수시		
	조사 방법	보고식 서면조사, 설문조사		
	조사 표본	교육 사업 운영 현황, 참여자 설문(100%)		
	조사 주관	정보화담당관실		
측정단위		측정주기	지표의 성격	
건		수시	<input type="checkbox"/> 투입	<input type="checkbox"/> 과정 <input type="checkbox"/> 산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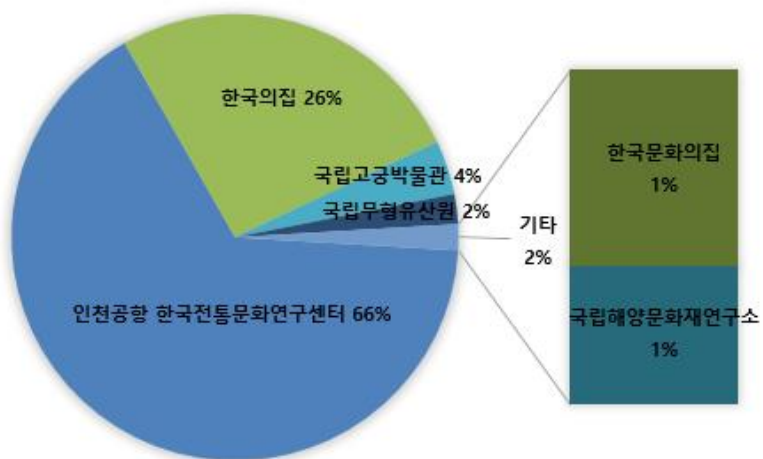
사용분야	문화재청 홈페이지 주요 서비스-문화재 통계, 통계자료집 제작, 각종 행정 및 홍보자료				
유의사항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관련직무	(소관부서가 관리 과정에서 작성)				
지표변경 이력					
연번	변경연도	변경항목	변경전	변경후	사유

그래프

### 교육, 체험 개최 현황



### 교육, 체험 참여자 현황



통계표

교육사업 운영 현황 (단위 : 회, 명)		
구분	회수	참여인원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730	258,446
한국의집	773	102,952
고궁박물관	669	15,328
국립무형유산원	158	8,505
한국문화의집	456	4,360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83	3,080
합계	2,869	392,671

해설	<p>2017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된 장소는 모두 6곳(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한국의집, 고궁박물관, 국립무형유산원, 한국문화의집, 국립해양문화연구소)이며, 프로그램은 모두 2,869회 개최되었고, 참여인원은 모두 392,671명이다.</p> <p>참여인원이 높은 1,2순위인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와 한국의집은 비교적 간단한 체험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1순위의 경우는 예약없이 즉석체험이 이뤄지는 장점이 있었다.</p> <p>하지만 3~6순위의 기관 프로그램은 예약신청, 유료, 보다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함께 진행되는 단기, 중기, 장기프로그램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운영횟수와 참여인원이 비교적 적다. 이와같이 교육프로그램은 성격이 다양하므로 보다 세밀한 정보수집을 통해 고차원적인 통계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과 체험프로그램을 분리하고, 장기교육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인원을 연인원으로 환산하여 집계할 필요가 있다.</p> <p>[참고] 향후 데이터 수집시, 교육체험프로그램의 유형별 분류와 참여자 유형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프로그램의 기획을 보다 정밀하게 접근하여야 함</p>
관련용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천공항 한국전통문화센터 : 인천국제공항 제1, 2여객터미널 3층에서 내외국인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자는 취지로 한국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상설문화센터</li> <li>• 한국문화의 집 : 2003년 개관 후, 내국인들에게는 멋스러운 옛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전통문화교육공간으로, 전통예술의 기악, 성악, 무용 분야를 골고루 보여주는 상설공연과 외국인 및 청소년을 위한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한국문화재단에서 관리·운영</li> <li>• 한국의 집 : 1980년 경복궁 자경전을 본떠 국가무형문화재 대목장 신응수가 지은 후, 내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생활과 문화를 소개할 목적으로 지어진 문화공간으로, 전통음식, 전통공연, 전통혼례, 전통문화상품을 판매하고 체험하는 전통한옥이며 한국문화재단이 관리·운영하고 있음</li> <li>• 국립무형유산원 :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손에 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복합문화공간으로 2014년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개원하였고, 무형문화재기념관, 대·소 공연장, 상설·기획·융복합 전시실, 세미나실, 아카이브, 게스트하우스 등의 시설로 구성됨</li> <li>• 고궁박물관 : 조선(1392-1897) 왕실 및 대한제국(1897-1910) 황실과 관련된 유물을 보존·전시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상설·특별기획전시를 개최하며, 교육프로그램과 문화행사를 운영</li> <li>•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우리나라 바다의 수중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을 위한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연구성과를 보고서와 영상물로 제작·공개하며,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다수의 전시회와 교육, 문화행사를 운영하고 있음</li> </ul>
출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li> <li>2. 「2018 문화재연감」</li> <li>3. 각 기관 홈페이지</li> </ol>
관련지표	



## **5. 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방안**

### **5.1. 문화유산 정책통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언**

#### **5.1.1. 문화유산 통계 SWOT 분석**

#### **5.1.2.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안**

### **5.2. 문화유산 정책통계 추진 과제**



## 5. 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방안

### 5.1. 문화유산 정책통계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제언

#### 5.1.1. 문화유산 통계 SWOT 분석

##### ■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근간으로서 문화유산 통계

-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통계와 문화유산 정책통계를 구분하여 사용함. 문화유산 통계는 모든 유산에 관한 통계를 의미하며,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근간이 됨. 그리고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문화재청 및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에 관한 통계를 의미함. 그러므로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문화유산 통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책과 전략 반영이 요구되는 통계임
-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광의의 개념인 문화유산 통계에 대한 문화재청의 인식 정립이 우선되어야 하기에 문화유산 통계에 대한 SWOT 분석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 ■ 강점(Strength)

-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 : 5천년 우리 민족의 역사를 다양한 장르, 형식, 내용으로 담고 있는 문화유산 자체의 폭넓고 다양한 스펙트럼과 그에 대응하는 콘텐츠
- 문화유산 활동의 다채로운 성과 : 문화재 지정 및 등록, 문화재 관리, 문화재 보호 활동, 문화재 활용 및 향유 등 다채로운 범주별로 축적되어 있는 각종 성과
- 모든 분야에 대응하는 풍부한 통계 자원 : 지정 및 등록문화재 자체가 지닌 전 분야의 연계성과 그에 따른 활용 가능성
- 국민의 정체성과 직결된 통계 내용과 의미 : 우리 민족의 시대별 생활상을 담고 있는 문화재 자체의 성격과 이를 통계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 ■ 약점(Weakness)

- 행정 결과 중심의 통계 현황 : 관리업무 및 행정결과 위주의 집계식 현황이 현 통계 자료가 가진 한계
-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방향 : 문화재 지정부터 향유까지 다양한 노력과 실



천을 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역할 대비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통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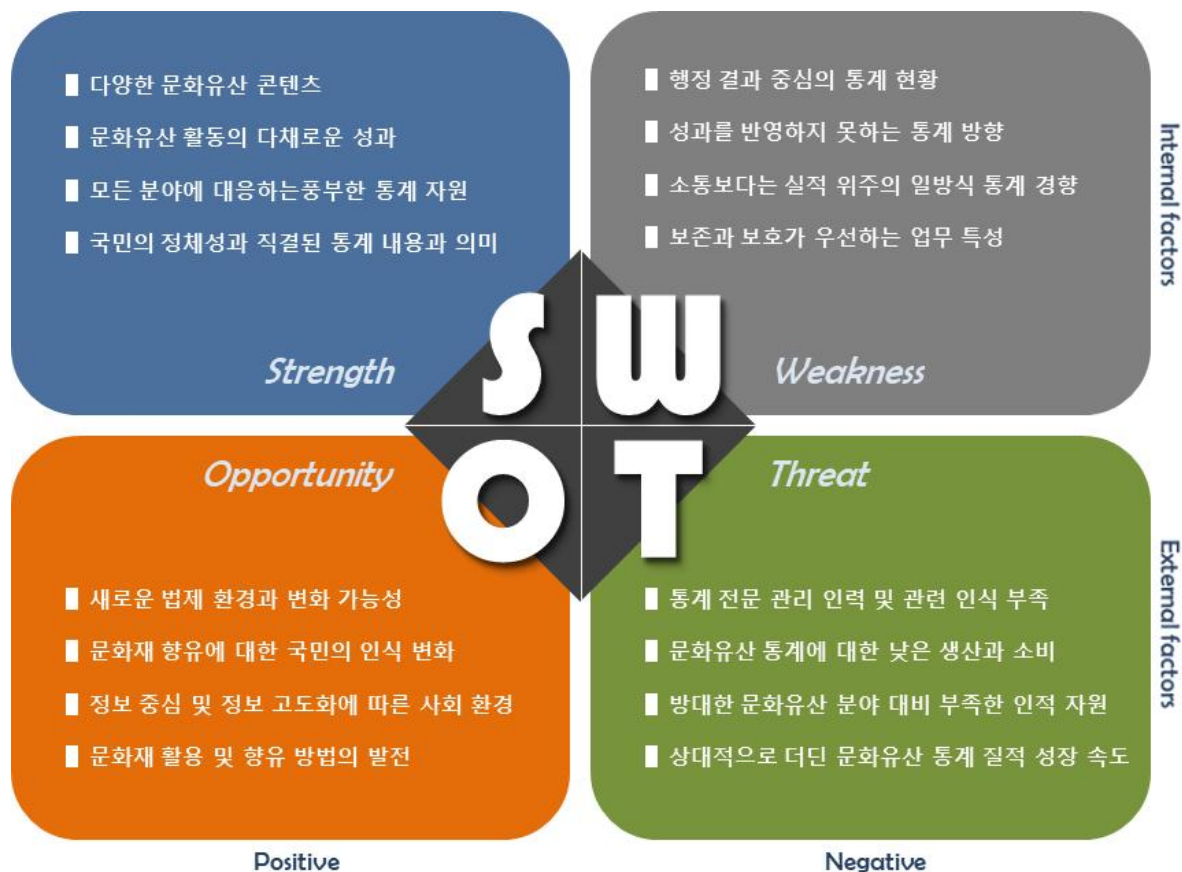
- 소통보다는 실적 위주의 일방식 통계 경향 : 통계 내용을 통해 국민, 수요자와 소통하기 보다는 행정행위 결과로서 실적 통계를 일방식으로 공개하는 차원에 그침
- 보존과 보호가 우선하는 업무 특성 : 문화재 관리업무의 가장 우선이자 기본이 되는 보존과 보호 업무가 가진 특성으로 인해 통계의 확장 정체

## ■ 기회(Opportunity)

- 새로운 법제 환경과 변화 가능성 : 점차 분법화·전문화되고 있는 문화재 관련 법제로 인하여 새롭게 생겨날 역할과 그에 따른 통계 수요
- 무형유산 및 문화재 향유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 생생문화재, 서원·향교 활용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등 유·무형 전반의 활용사업 강화와 기대 이상의 국민 호응도
- 정보중심 및 정보고도화에 따른 사회 환경 : 빅데이터시대, 네트워크사회, 만물지능화시대 등 정보가 견인할 미래사회와 정보고도화
- 문화재 활용 및 향유방법의 발전 : 국가와 지자체가 공조하는 문화재 활용방법, 문화재 자원 발굴에 호응하는 국민의 다양한 향유방법 등으로 인해 새롭게 요구될 다양한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발전 가능성

## ■ 위협(Threat)

- 통계 전문 관리 인력 및 관련 인식 부족 : 문화유산 정책통계 전문 관리 인력의 부족과 문화유산 통계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낮은 인식
- 문화유산 통계에 대한 낮은 생산과 소비 : 행정자료 이전 학술 및 사회, 생활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유산 통계에 대한 낮은 생산과 소비
- 방대한 문화유산 분야 대비 부족한 인적 자원 : 콘텐츠로서의 장점인 방대한 문화유산의 분야별 실천과 결과들이 부족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업무 스트레스와 위협으로 역전하는 상황
- 상대적으로 더딘 문화유산 통계의 질적 성장 속도 : 전 세계적으로 타 분야 대비 문화유산 분야 통계의 성장 속도가 더딘 현실(문화유산 통계 활용도가 높은 유네스코 역시 문화유산에 관한 통계 자체의 내용은 모범이 될 만한 사례 부족함)



〈그림 30〉 문화유산 통계 SWOT 분석도

### 5.1.2.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안

#### ■ 현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상의 문제점

- 일반적인 통계 생산 구조는 통계 작성 목적에 따라 기획 및 설계 - 자료 수집 - 자료 처리 - 자료 정리 및 공급 - 통계자료 활용의 순으로 진행됨
- 그러나 현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생산 구조는 통계 작성의 목적부터 명확하지 않은 데다가 행정행위의 결과로 생산되기에 사업 계획 - 사업 시행 - 사업결과 수집(일부 설문조사) - 보고자료 구성 시 통계 생산 - 통계자료 활용의 순으로 진행됨

#### ■ 일반적인 통계 관리체계와 생산 구조



#### ■ 현행 문화재 정책통계의 생산 구조



〈그림 31〉 일반적 통계 생산 구조와 현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구조 비교

- 지금까지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한 마디로 ‘행정을 위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생산되었다고 할 수 있음. 시대변화에 따라 ‘문화재 정보 중 하나’ 정도의 차원이나 ‘국민의 알 권리 혹은 민원’ 정도의 차원에서 문화유산 정책통계를 공급하였는데,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발전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과감하고 근본적 변화 요구됨
- 통계 관리 면에서는 현 문화재청의 통계 관리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됨. 현행 관리체계는 16개 과 및 실, 4개 소속기관에서 128개의 통계자료(총괄지표로 인한 중복항목 포함)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보화담당관실이 분기별 통계 현황을 조사하고 매년 연말 한 해의 현황 결과를 종합 편집해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을 발간하고 있음(물론 이 발간 자료는 발간 이전보다 큰 폭의 변화와 성과를 반영하고 있음). 그리고 정보화담당관실의 담당인력은 2018년 12월 현재 1명 이어서(2019년 1월부터 담당자 1명 충원 예정)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방대한 양을 다루기에도 벅찬 상황임. 이러한 관리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적인 데이터 관리

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과 통계에 대한 연구와 활용방안을 스스로 개발할 수 없다는 점임

- 한편, 통계지표로 생산 가능하거나 관련 통계에 대한 수요가 많으리라 기대할 만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 정책 관련 내용 중에는 자료 자체가 불완전하게 남아있어 작성이 어려운 경우와 내용 자체가 공개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어서 과별 담당자 역시 아쉬움을 뒤로 하고 통계자료로 공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이상의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은 문화재청 역시 공감하고 있지만, 예산과 인력의 문제는 마음먹은 대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개선을 현실화하기 위해 한 걸음씩 가능한 부분부터 실천해 가야 함
- 그러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문화유산 정책통계 개선을 위해서는 통계 관리체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출발점은 개선의 기반이 될 통계 품질 기준과 통계 조직의 관계에 대한 이해임



〈그림 32〉 통계의 품질 기준과 통계 조직 관계도

- 통계의 품질 기준은 ‘신뢰성’ 및 ‘대응성’이며, 그에 따른 정확성·비교성·일관성·관련성·시의성 및 적시성·접근성 및 명확성이 요구됨. 그리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통계생산 및 관리조직의 역량이 뒷받침 되어야 함
- 문화유산 정책통계 품질 제고를 위해서는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만약 당장 그러지 못할 경우에도 장기적 비전을 두고 현재 실현 가능한 최선의 방편으로 통계 품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함(본 연구팀은 현실 가능한 방편으로 지금껏 간단한 표 양식으로만 통계 현황을 조사하던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문화유산 통계 지표카드’를 작성해 제시하였음)

##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1 : 통계 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통계자료 공유인프라 마련이 점차 고도화되고 있으며,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통계자료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민·관 공동 활용이 가능한 문화유산 정책통계 관리체계 구축 필요함
- 또한 국민 응답부담 가중, 조사비용 증가를 해결할 새로운 방식의 통계 생산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 개방·공유 기반을 통해 등록자료를 활용한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 가능함. 나아가 민간·공공의 실시간 자료 등 다양한 빅데이터(예: 문화유산 방문자 SNS 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유산 통계 생산도 필요함. 네트워크·웹 형태의 관계를 강조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 정적 선형 관점이 아닌 종합적인 동태적 관점(holistic dynamic view)에서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을 지향해야 함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과정에서 반드시 염두에 뒤야 할 점은 통계 가치가 문화유산에만 내재된 것이 아니라 전체 네트워크 안에서 중요성을 갖는다는 점임. 나아가 네트워크 내에서 새롭게 생산될 문화유산 통계 및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환경적 변수를 포괄하고 진화의 개념을 내포하여야 함. 이는 과거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던 공진화, 협력적 경쟁과 같은 새로운 현상을 반영하기 때문임

##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2 : 데이터 관리 기반 구축

- 통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통계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리 기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통계를 위한 데이터 관리의 주요 현안은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이질적인 대량의 데이터를 어떻게 통합·처리할 것인가임
- 그리고 정기적인 정보생산과 이를 보존·활용하는 대규모 반복조사과정에서 파생되는 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메타데이터’와 ‘메타-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함
- 메타데이터(meta data)란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라기 보다는 ‘데이터에 대한 문서’로서 원하는 데이터 검색·관리·데이터 연계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를 의미함. 메타데이터는 속성정보라고도 하며, 대량의 정보 가운데에서 원하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찾아내고 이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콘텐츠에 부여되는 데이터임. 여기에는 콘텐츠의 위치와 내용, 작성자에 관한 정보, 권리 조건, 이용 조건, 이용 내력 등이 기록됨. 컴퓨터에서는 보통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과 빠른 데이터 검색을 위한 목적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즉 메타데이터는 식별정보, 특성정보, 내용서술 정보, 검색정보, 관리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메타데이터의 종류는 기술형·관리형·구조형 메타데이터로 구분됨

- ▶ 기술형(descriptive) 메타데이터 : 정보자원 검색을 목적으로 한 메타데이터이며, 제목·요약·저자·키워드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자원에 대한 상세정보를 아래의 예 같이 제공함. 또한 기술형 메타데이터는 명확한 정보로 구성되는 관리형 메타데이터나 관계형 메타데이터와 달리, 대부분 주관적임. 예를 들어, 어떤 조각상을 적절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지식과 개인의 해석능력이 필요함

- 디지털 문서 : 제목, 요약, 저자명, 공동 저자명, 머리말 등
- 회화 : 작품의 크기, 재료, 제목, 제작 시기 등

- ▶ 관리형(administrative) 메타데이터 :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자원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파일타입은 무엇인지, 접근 권한자가 누구인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등록 일시·권한 보유자·담당자 연락처·사용한 툴 등이 포함됨. 웹 사이트 콘텐츠 관리 시스템은 관리형 메타데이터를 잘 활용한 사례로, 메타데이터를 활용하여 어떤 웹 페이지의 새로운 버전이 작성될 때마다 누가 만들었는지를 추적·관리함. 일반적으로 서술형 메타데이터와 관리형 메타데이터와의 구분은 메타데이터 이용자의 시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구조형(structural) 메타데이터 : 복합적인 디지털 객체들을 함께 묶어주기 위한 메타데이터이며, 물리적인 파일과 페이지·페이지의 장·장과 전체로서의 책 사이의 관계를 기록하기 위해 필요함. 즉, 자원들 간의 연관 관계를 맺는데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책의 페이지 번호나 호수 등을 말함. 책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일을 하는 회사는 디지털화된 단어들이 원래 몇 페이지에 있었는지 연관시키는데 관계형 메타데이터를 사용함. 디지털 자원의 경우, 관계형 메타데이터를 사용해 해당 자원을 구성하는 개별 파일을 연결하기도 함

○ (공통적으로 호출 가능한 메타데이터로서) 메타데이터란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앞단(header)에 추가되는 소량의 데이터임.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검색·추가·분류 등의 작업이 용이하도록 별도로 함께 추가되는 정보를 말함

○ 메타데이터를 분석하면 데이터를 적절하게 정리하거나 다시 가공할 때에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음. 하지만 메타데이터 그 자체만으로는 효용을 향상시켜 주지 않음. 즉 메타데이터는 메타데이터가 부여된 맥락을 구조화시켜 그 활용도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함.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구조화하고 체계적으로 검색·분류·재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가장 일반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워드에는 메타데이터에 기본적으로 작성자에 대한 정보와 문서를 생성한 날, 코멘트 및 문서 수정 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

- 흔한 사례로 디지털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 기록할 때 카메라 자체의 정보와 함께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sup>[6]</sup>이라는 메타데이터를 함께 저장함. 일반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 생성되는 메타데이터는 아래 표와 같은 속성을 저장하고 있음

〈표 5〉 사진 메타데이터의 속성

구 분	메타데이터 속성
사진 메타데이터	• 파일 생성 날짜와 시간
	• 파일 생성된 지리적 위치 또는 주소
	• 작성자 이름, 회사명, 컴퓨터이름 또는 IP 주소
	• 문서에 공헌한 사람의 이름 또는 코멘트
	• 카메라 종류와 사진이 촬영된 시간
	• 오디오 및 비디오 촬영기기의 종류 및 기록된 시간
	• 스마트폰의 제조사, 모델 및 서비스 제공자

-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공통적으로 호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속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표 6〉 공통적으로 호출 가능한 메타데이터 속성

구 분	메타데이터 속성
공통적 메타데이터	• 데이터 생성 날짜, 시간
	• 데이터 수정 날짜, 시간
	• 작성자 이름
	• 작성자 소속
	• 작성자 연락처
	• 데이터 명칭
	• 데이터 형식
	• 데이터 크기
	• 데이터 설명

[5] 너무 많은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나 민간이 사용하는 메타데이터는 보안/프라이버시 등에 대한 논쟁이 있다. 메타데이터가 그 자체로 나쁜지는 않으나 개인, 회사 또는 단말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카메라,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단말은 사용자 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자동으로 메타데이터와 함께 파일을 생성하고 있다.

[6] 사진 메타데이터 표준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들에는 EXIF(Exchangeable Image File Format), XMP(Extensible Metadata Platform from Adobe), IPTC(Interna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s Council)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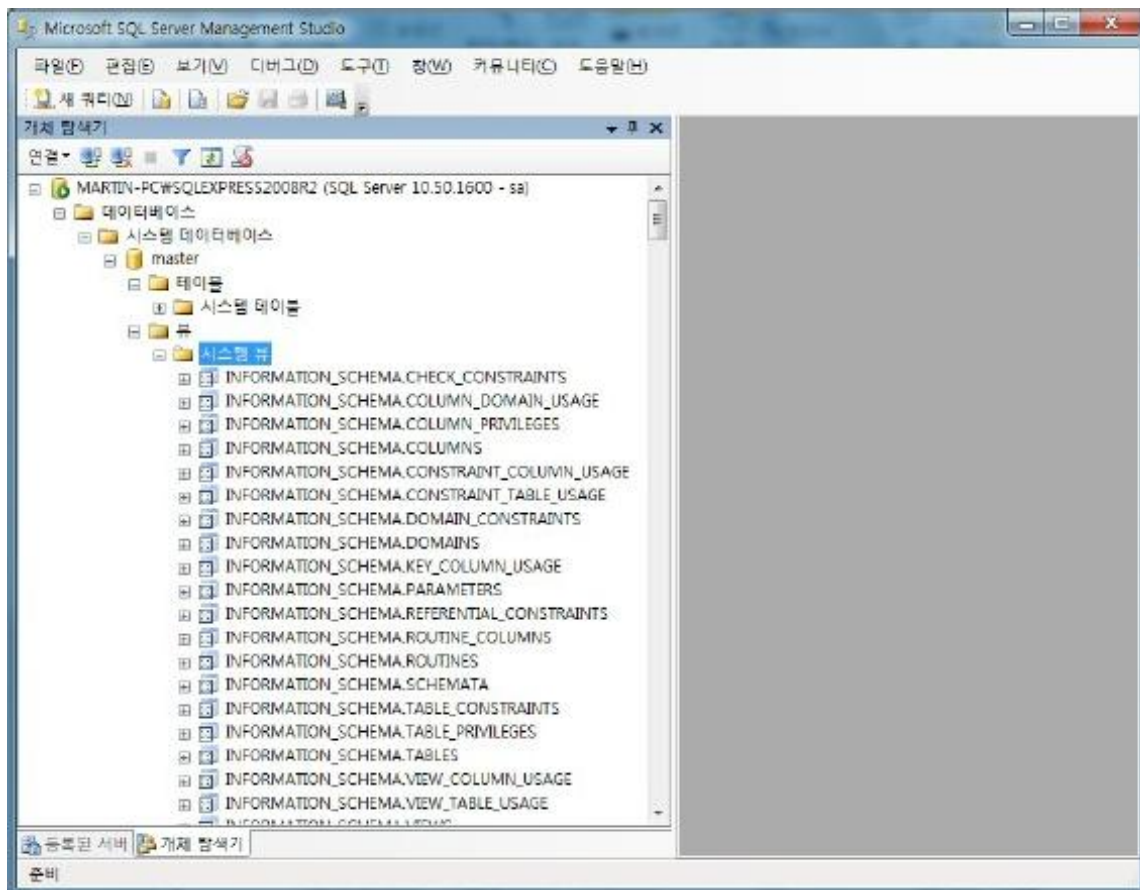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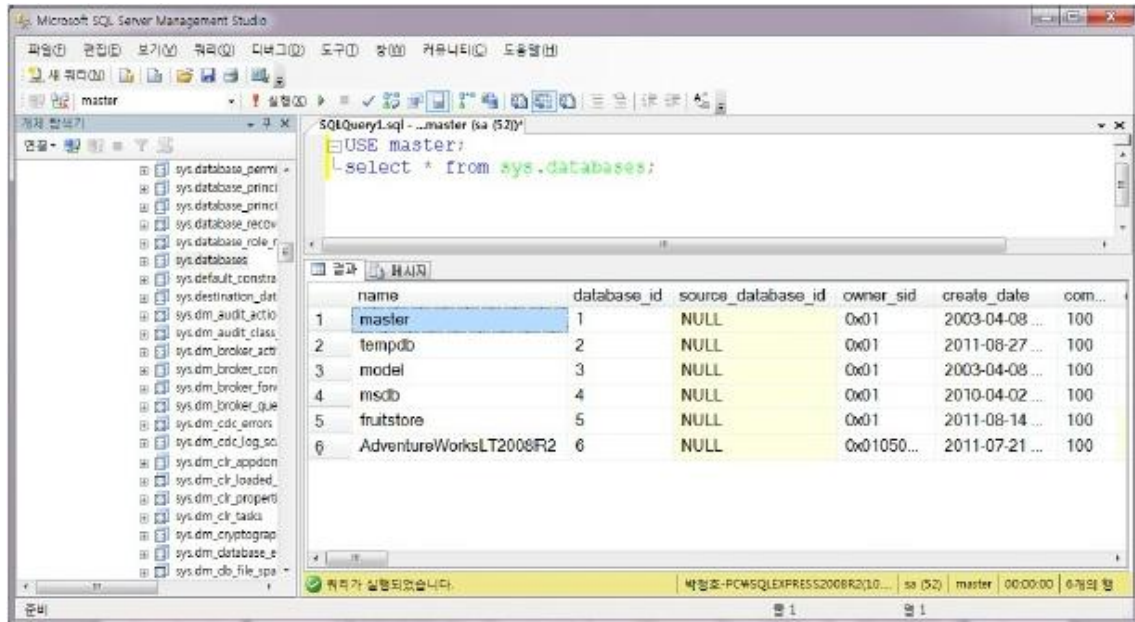
- 그러므로, 문화유산 통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메타항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아래 그림은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작성기관용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중 통계 종류별 메타항목을 설명한 자료임

순서	관리번호	항목명	내 용	순서	관리번호	항목명	내 용
1	1	조사개요		25	2-1-1	면접 형태	조사표 설계시 고려된 면접 형태 예) 자제식, 타제식
2	1-1	통계명	통계명	26	2-1-2	조사표 형태	표지, 컴퓨터 이용
3	1-2	통계 종류	지정·일반, 조사·가공·보고	27	2-1-3	질문의 형태	자유 응답식, 폐쇄식
4	1-3	법적근거	승인번호, 승인일자	28	2-1-4	조사표 사전 시험	사전시험 시 사용된 방법
5	1-4	조사목적	필요성 및 어디에 쓰이는가를 명시	29	2-1-5	조사표 개편 확정일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사표의 확정일
6	1-5	조사주기	연·분기·월·부정기 등	30	2-2	표본설계	
7	1-6	조사대상		31	2-2-1	모집단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조사단위의 집합
8	1-6-1	대상격체	개인·사업체·가구·기타	32	2-2-2	추출률	조사대상이나 추출단위가 수록된 목록이나 역도
9	1-6-2	조사법위	개념적 범위, 시간적범위, 장소적범위	33	2-2-3	추출단위	모집단의 모든 조사단위를 서로 중복되지 않게 구분한 조사단위의 집합
10	1-6-3	조사단위	조사표가 작성되는 단위 예) 가구, 사업체	34	2-2-4	층화	추출단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는 방법
11	1-6-4	조사지역	전국·시도·시군구·읍면동·기타	35	2-2-5	표본추출법	사용된 표본추출방법, 확률추출법(단순임의추출법,계통추출법,층화추출법,집락추출법), 비확률추출법(판단추출법, 할당추출법) 등
12	1-7	조사방법	전수/표본,자제식/타제식, 비모조사/우편조사/집합조사/면접조사/전화조사/인터넷조사/CATI/CADI/CAP/CASI등	36	2-2-6	표본규모	표본규모
13	1-8	조사체계	예) 조사담당자 → 지방통계청 → 통계청	37	2-2-7	표본오차	표본오차
14	1-9	적용분류	조사에 사용된 표준분류 등	38	2-2-8	표본관리	
15	1-10	조사기간		39	2-2-8-1	조사구관리	조사구역내 조사대상 가구수를 유지·관리하는 방법
16	1-10-1	조사대상기간/시점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대상기간 예)매년12월말기준또는매월15일이 포함된주간	40	2-2-8-2	표본관리	표본조사구내의 변동사항을 표본에 반영하는 등 표본관리 방법
17	1-10-2	조사실시기간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실시기간 예) 익년 3월	41	2-2-8-3	표본 교체	표본교체 내역
18	1-10-3	실제 조사기준시점	파악하고자 하는 정보의 구체적 시간적 기준 예)2004.12.31 0시	42	2-2-8-4	비표본오차 관리	비표본오차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방법
19	1-10-4	실제 준비대상기간	일정기간으로 정해진 구체적 조사대상기간 예)2004.9.13.~19.	43	2-3	자료처리 방법	
20	1-10-5	실제 준비조사기간	구체적 준비조사기간 예) 2004.10.30~10.31	44	2-3-1	자료처리 단계별 소요인력	사전내용검토및부호기입,입력,내용검토,결과표작성및DB수출 단계별 소요 인력
21	1-10-6	실제 조사실시기간	조사에 소요되는 구체적기간 예) 2004.11.1~11.10.	45	2-3-2	작업처리 순서	자료처리에 적용된 작업처리 순서
22	1-11	주요 연혁	주요 연혁	46	2-3-3	소요장비	자료처리에 사용된 장비 현황
23	2	조사 방법론		47	2-3-4	부호목록	순서코드, 불응코드, 유효자릿수코드, 분류코드 등 사용된 부호목록
24	2-1	조사표 설계		48	2-3-5	자료입력 방법	C/S방식 PC입력, KEY-ENTRY입력, ICR, OMR, PDA 등
				49	2-3-6	집계방법	중앙집계/지방집계, 전부집계/일부집계, 기계집계/수집계
				50	2-3-7	내검 및 오류정정	내검 및 오류정정시 사용된 검사 방법 및 오류정정방법
				51	2-3-8	승수 적용	승수 적용 방법

〈그림 33〉 통계의 종류별 메타항목 사례

- 메타-데이터베이스(meta-database)란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으로 하여금 고유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정보를 모아 놓은 시스템을 말함. 메타-데이터베이스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시스템 카탈로그, 시스템 뷰, 시스템 테이블, 데이터 사전 등이 있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서의 메타-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뷰, 인덱스, 저장 프로시저, 사용자 정의 함수, 제약 조건 등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객체들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관리함
- 실시간으로 획득되는 이질적인 대량의 데이터 통합·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은 단일 부서의 정보자원들을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의 개념에서 전사적인 정보 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데이터웨어하우스(data warehouse) 개념으로 진화하였음. 데이터웨어하우스의 데이터 통합관리는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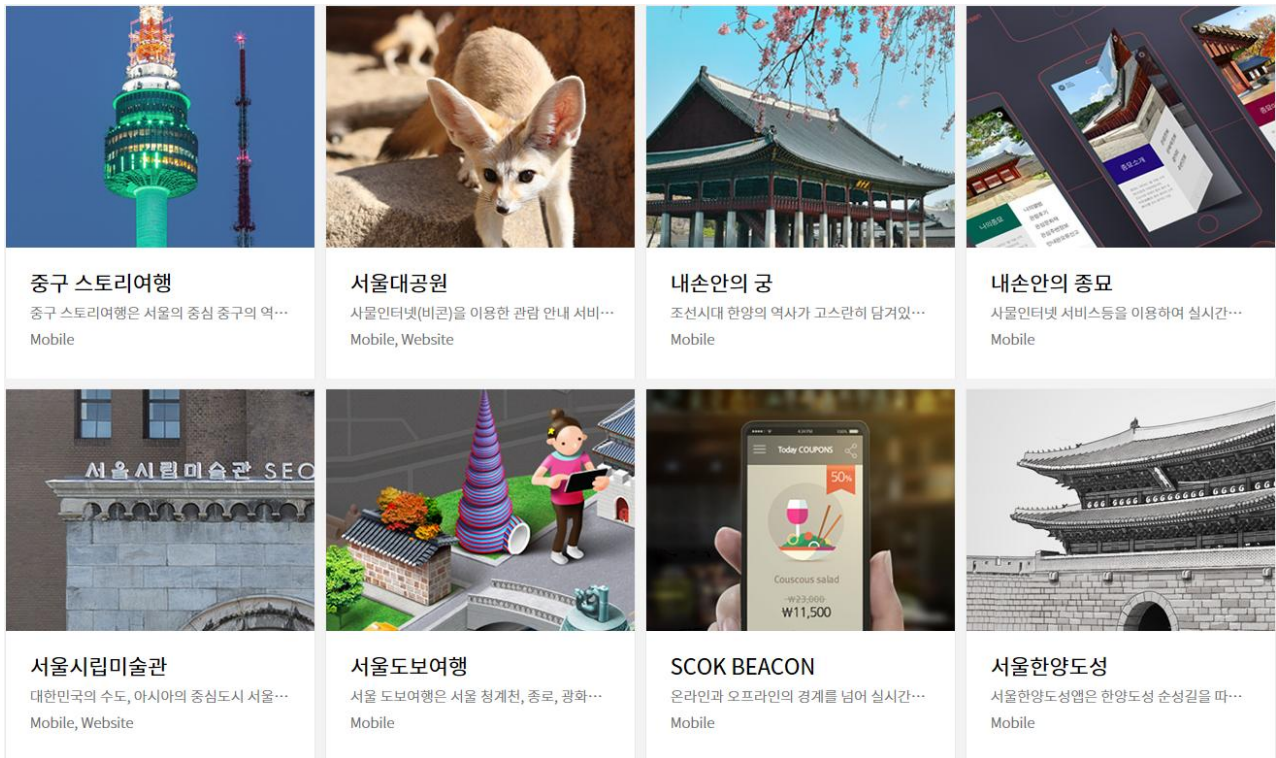
〈그림 34〉 메타-데이터베이스 사례

- 전사적인 메타데이터 관리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효율적인 통계 및 정보 활용을 통한 공공데이터 공유, 비즈니스 가치 제고를 위해 중요한 요소임. 글로벌 기업들은 오랜 기간 축적한 데이터를 버리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저장해 활용 중임

- 문화유산 통계의 경우 역사와 함께 숨 쉬어 온 객체로써 관련 데이터를 단절적 정보보다는 시계열적 정보로 구축해 왜곡된 통계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본임. 따라서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음
  - ▶ 메타데이터는 모든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유지 보수 및 변경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해줌
  - ▶ 즉, 메타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각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상세 설명은 물론 데이터 유형, 담당자, 보관주기, 데이터간의 매핑관계, 작업 흐름도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줌
  - ▶ 메타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데이터 관리 기능의 유연성과 확장성이 제공되고, 데이터 의미 공유 및 교환이 용이하여 정보의 유용성이 증가함. 또한 일관성 있는 의미 정보 관리를 통해 보다 정확한 의미 교환이 가능하므로 저비용으로 전사적 데이터 연계·통합 효과가 창출됨
  - ▶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데이터 위치 검색 및 활용 용이성이 제공되고, 데이터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데이터의 가치 향상에 기여함

####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3 : IT 기술의 접목과 활용

-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차원을 넘어 IT 기술을 접목한 일반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통계 구축·활용 필요함. 풍부한 문화유산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 및 수요자로부터 생성되는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이 수반되어야 함. 빅데이터 기술은 지금까지 처리할 수 없었던 대용량의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로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반기술임.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와 그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요자 중심의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witches 벤처기업은 문화유산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울 대표 관광지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witches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내 손안의 궁' 모바일 통합서비스는 다음과 같음
  - ▶ 음성해설 서비스 : 4대궁과 종묘의 문화재를 해설사 캐릭터가 상세히 설명
  - ▶ 영상 서비스 : Full HD 고해상도의 문화재 영상과 장애인을 위한 수화 동영상 제공
  - ▶ 다국어 서비스 :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어 등)로 안내
  - ▶ 사물인터넷 서비스 :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 신호를 받아 문화재 정보를 자동으로 안내
  - ▶ 문화재 SNS : 이용자들이 사진을 올리고 관광후기와 댓글을 작성하는 커뮤니티



〈그림 35〉 witches의 역사와 문화 소개 서비스 현황

- witches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문화유산 데이터는 지능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재 SNS' 서비스처럼 문화유산의 향유 분석이란 측면에서 수요자의 반응 및 피드백을 수집·저장·활용하는 것도 가능함. 수요자의 향수, 낭만, 즐거움, 시·공간에서의 일체감을 포함한 다양한 감정을 문화유산의 가치와 결합하는 방안 개발해야 함. 문화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데이터 및 통계 구축, 활용은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임



〈그림 36〉 내 손안의 궁 모바일 통합서비스

##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4 : 문화유산 통계의 부가가치 창출

- 문화유산 정책통계 및 문화유산 통계를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국민의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공공정보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사회영역별 가치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사회적·행정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가치를 유발하는데, ①지식정보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 ②이를 통한 민간 기업의 수익창출 기회 제공 ③정부와 시민 간의 양방향 소통을 통한 열린 정부 구현 ④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 제고 유도 등으로 이어짐.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에서 볼 수 있음

〈표 7〉 공공정보 민간 활용의 사회 영역별 가치

구 분	효 과
경제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는 공공정보를 이용해 우수한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수익 창출(공공정보를 주 사업에 활용하거나 연계 활용하는 '직접 매출효과'와 기업 브랜드 및 인지도를 확대하기 위한 '간접 매출효과'로 구분 가능)</li> <li>• 다양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매쉬업(Mash-up)하여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 즉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기대</li> <li>• 국가지식정보자원 검색·이용의 기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국가경제 산업부문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타 경제산업 활용을 지원</li> <li>• 정보처리 기술, 관련 SW 및 HW,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간 시너지 효과 창출</li> <li>•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롱테일 경제의 활성화 유도</li> </ul>
정치·사회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민 입장에서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정보 채널의 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li> <li>• 정보채널이 다양해짐에 따라 시민은 공공정보에 대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시킴</li> <li>• 공공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의 출발점이며, 일방적인 정보제공이나 홍보가 아닌 쌍방향적인 대화 가능</li> <li>• 시민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참여, 모니터링을 통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li> </ul>
행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필요한 민원, 불편한 행정행위가 감소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li> <li>• 공공기관에 가해지던 정보 요구와 정보서비스 요구 업무를 줄일 수 있음</li> <li>• 정부부처 간 또는 공공기관 간 업무나 정책 결정에 있어 상호효율성 증가</li> <li>• 공공정보를 바탕으로 민간의 노하우와 경험, 창의성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의 유연화 및 전문화 유도</li> <li>• 원스톱 및 논스톱 서비스 등 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li> </ul>

- 한편, 개별국가 내 오픈데이터에 대한 관심은 이제 글로벌 수준의 관심사가 되어 가고 있음. 2013년 6월 북아일랜드 G8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오픈데이터 참여원칙을 담은 오픈데이터 헌장에 조인하였으며, G8 오픈데이터 헌장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활용 예시를 제시하였음[7]

〈표 8〉 G8이 선정한 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와 활용 예시

분야	데이터	활용방안 예시
범죄, 치안	범죄 통계, 안전 정보	점포 설치, 업무활동 시 경보 발신
지구관측	기상 및 기후, 농업, 임업, 어업, 수렵활동정보	기상정보 연동 농수산물 작황 및 가격 예측, 계절상품 수급변동 예측
교육	학교 목록 및 성적 기록, 디지털 기술	맞춤형 학습지도, 적성검사, 진학상담, 경력관리
에너지, 환경	오염 수준, 에너지 소비	스마트 에너지 관리, 위해물질 사전경고
금융, 거래	거래 금액, 계약 및 입찰정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과 지출 내역	공공사업 참여계획 정교화, 경쟁업체의 부정행위 감시
지리	지형, 우편, 국가지도, 지방지도	최적 경로 추천, 서비스 내용 지역별 시각화
국제개발	원조, 식량 안보, 개발자원, 토지	자원의 글로벌 이동 파악 및 개발, 최적입지와 자원 선정
정부의 책무와 민주주의	정부 접촉 창구, 선거결과, 법률 및 법령, 급여, 의전 및 선물	국가별 사업 환경위험 파악
건강	처방 데이터, 치료 효과 데이터	신약 개발 효율화
과학, 연구	게놈 데이터, 연구 및 교육 활동, 실험결과	맞춤형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 신사업 개발
통계	국가 통계, 인구센서스, 인프라, 재산, 기술	국가별 시장 특성 및 잠재가치 예측, 국가별 기술 경쟁력 파악
사회 이동성과 복지	주택, 의료보험, 실업급여	사회공헌 전략 수립
교통, 인프라	대중교통 시간표	최적 스케줄 안내, ICT 신제품 시장성파악

[출처] G8 Summit(2013). G8 Open Data Charter and Technical Annex. 다음에서 재인용 : 삼성경제연구소, 「스마트 뉴딜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CEO Information(제907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

[7] 삼성경제연구소, 「스마트 뉴딜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CEO Information(제907호)』, 삼성경제연구소, 2013

- 그러나 위의 표를 살펴보면 문화유산 관련 오픈데이터는 찾아 볼 수 없음. 문화유산이란 선조의 문화 중에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 법적 가치와 함께 소유와 관리가 중시됨. 최근 시민의 참여를 포괄하는 사회적 가치, 즉 공공재적 자원가치 개념에서 문화유산 오픈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한다면 타 분야 못지않은 가치 높은 공공데이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5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 문화유산 정책통계를 기반으로 한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필요함. 지수란 구체적인 숫자 자체의 크기보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량이나 가격 등 해당 수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임
  - ▶ 통상 비교의 기준이 되는 시점(기준시점)을 100으로 하여 산출함
  - ▶ 예를 들어, 소매판매액지수가 2014년 109.7이라는 의미는 기준시점(2010년=100)에 비해 소매판매액이 9.7% 증가하였음을 말함
- 일반적으로 지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준시점, 가중치, 지수식이 필요함
  - ▶ 기준시점 : 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시점으로 2015년 현재 통계청에서 작성하는 지수들의 기준시점은 2010년도임. 기준시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되는데 보통 5년마다 개편되고 있음
  - ▶ 가중치 : 종합지수를 작성할 때 개별 구성항목의 지수를 단순 산술평균하지 않고 각 항목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가중평균 하는데 이때 고려되는 중요도가 가중치임(예를 들어,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 2012년 전국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액에서 각 품목의 소비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1,000분비로 산출한 값을 가중치로 하고 있음)
- 지수는 지수산식에 따라 라스파이레스지수, 파쉐지수, 피셔지수 등으로 구분함
  - ▶ 라스파이레스지수 : 기준 시 가중치와 가중산술평균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는 지수인데 통계청에서 작성하여 공표하는 대부분의 지수가 이에 따르고 있음
  - ▶ 파쉐지수 : 비교 시 가중치와 가중조화평균 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함. 비교 시마다 매번 가중치를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 ▶ 피셔지수 : 라스파이레스지수와 파쉐지수의 기하평균으로 계산한 지수임
- 지수의 대표적인 사례로 통계청에서 생산한 지수를 들 수 있는데, 산업활동동향을 보여주는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소매판매액지수 등과 소비자물가의 추이를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현재 다양한 지수를 작성하고 있음
- 문화유산 분야에서도 현행 대표지표를 응용하면 문화유산 현황지수, 문화유산 가치



지수, 문화유산 보존지수, 문화유산 관리지수, 문화유산 연구지수, 문화유산 향유지수 등의 개발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지수를 통해 국민에게 보다 직관적인 차원의 통계를 서비스 할 수 있음

##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제언 6 : 문화유산 통계의 가능성

-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는 훌륭하지만 냉철하게 판단할 때 관련 데이터는 매우 취약한 형편임. 이는 데이터의 원천이 취약한 것이 아니라 자료로서의 데이터가 취약한 것이며, 통계로 이어지지 않고 유의미한 자료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지 않기 때문임
- 문화유산 통계가 갈라파고스가 되지 않으려면 다음의 환경과 현실을 직시해야 함
  - ▶ 한국의 IT 인프라는 최고 수준임. 세계 최고 속도를 자랑하는 네트워크, 스마트폰 보급률이 50%에 육박하는 사용자 기반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환경임. 데이터 경쟁력은 사용 강도와 규모 모두 중요함. 국내의 대형 포털과 통신 업체가 페타바이트(petabyte) 급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글로벌 서비스 업체는 그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 ▶ 교통, 지리, 기상 및 기후, 범죄 및 치안 분야의 데이터는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하루에도 수십 기가(gigabyte)급의 데이터가 수집되어 ICT 신제품 시장성 파악, 서비스 내용 지역별 시각화, 기상정보 연동 활용을 통한 농수산물 가격 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음. 세계평화를 위해 교육과학문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경우 문화유산과 관련된 사회, 문화, 인류, 환경, 과학 등의 데이터를 매쉬업(mash-up)하여 제공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 문화유산 통계는 행정업무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데이터의 차원도 다양하고 복합적 차원이 아닌 1차원적 데이터만이 다루어지고 있음
  - ▶ 새로운 문화유산이 발견되고 수집되면 그 문화유산 자체의 놀라움에 압도됨.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의 미래 활용가치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됨. 문화유산으로 그릴 수 있는 미래는 관련 데이터를 수집·저장·관리·활용함으로써 그 가치가 배가 될 것이며, 다행스러운 점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임
  - ▶ 우리나라의 환경은 테스트베드로서 분명한 장점이 있음. IT기기에 대한 높은 관심, 도심에 집중되어 있는 인구, 신기술을 적용하기 좋은 대도시형성과 문화유산과의 근접 등은 제대로 활용된다면 행정업무에만 주로 사용되었던 문화유산 통

계를 전 국민의 향유와 공유를 넘어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가치로 승화할 수 있음

- ▶ 이상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최고 기반의 활용 인프라를 가졌음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 시대에 동참하지 못한 채 갈라파고스로 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함



## 5.2. 문화유산 정책통계 추진 과제

### ■ 배경 및 필요성

-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단점을 개선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생산·관리체계 및 통계 서비스 기반 개선 필요
-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사회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문화유산 통계 기반 구축 필요

### ■ 목표

-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생산 및 관리체계를 문화유산 분야의 특성과 문화재청의 현실에 맞게 구축한다.
- 오늘날의 시대 특성과 다가 올 미래사회에 문화유산 통계가 국민에게 유익하고 효율적 가치를 지닐 수 있도록 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 기반을 개선한다.
- 추진 과제의 완료 기한은 5년 단기로 정하고 과제별 임무를 제안한다.

### ■ 과제

- 목표에 따른 추진과제 및 세부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9〉 문화유산 정책통계 추진 과제

추진과제	세부내용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통계 지표 관리체계 수립 및 정비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통계 전담조직 마련
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 기반 개선	통계 서비스 전략 및 체계 확립
	통계 서비스 콘텐츠 개선
	통계 플랫폼 구축
문화유산 통계 콘텐츠 개발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및 서비스
	IT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구축

### ■ 추진목적

- 문화재청의 현 시스템에 맞춘 효과적인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문화유산 정책통계 품질을 개선하기 위함

### ■ 추진내용

- 통계 지표 관리체계 수립 및 정비
  - 문화유산 정책통계 TF팀 조직·운영
  -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 검토 및 문화유산 정책통계 지표 확정
  - 문화유산 정책통계 지표 관리체계 정비 및 통계청 승인·등록
  - 문화유산 정책통계(신규 지표) 운용
-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 문화유산 정책통계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 메타데이터 시스템 및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 이상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은 외주 용역을 통해 추진
- 통계 전담조직 마련
  - 통계 조직 구성 및 운영안 마련
  - 기본 인력 및 운영예산 마련
  - (가칭)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팀 운영

## ■ 추진일정

추진과제	2019	2020	2021	2022	2023
<b>1. 통계 지표 관리체계 수립 및 정비</b>					
- 문화유산 정책통계 TF팀 조직·운영	●				
- 지표 카드 검토/문화유산 정책통계 지표 확정	●				
- 지표 관리체계 정비 및 통계청 승인·등록	●	●			
- 문화유산 정책통계(신규 지표) 운용			●	●	●
<b>2.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b>					
- 문화유산 정책통계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	●
<b>3. 통계 전담조직 마련</b>					
- 통계 조직 구성 및 운영안 마련	●				
- 기본 인력 및 운영예산 마련		●	●	●	
- (가칭)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팀 운영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통계 지표 관리체계 정비율 (통계청 승인·등록 시 100%)	50%	100%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율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100%)		25%	50%	75%	100%
통계 전담조직 마련율 (서비스팀 운영 개시 시 100%)		10%	40%	90%	100%

## ■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통계 지표 관리체계 정비	별도 예산 투입 없음 (TF팀 및 조직 구성원간 추진)	-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100,000,000원×2년=200,000,000원	200,000
메타데이터/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150,000,000원×2년=300,000,000원	300,000
통계 전담조직 마련	별도 예산 투입 없음 (문화재청 조직인력 충원으로 추진)	-
<b>합계</b>		<b>500,000</b>

## ■ 기대효과

-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마련
- 문화유산 정책통계 품질 개선
- 문화유산 통계로의 확대 활용 기반 마련

## ■ 검토사항

- 통계 지표 관리체계 수립 및 정비 시
  - TF팀은 문화재 정책, 문화유산 정책통계, 예산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사안별로 판단·실행 가능해야 하기에 정책총괄과, 정보화담당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의 담당자로 구성 필요
  - 연구팀이 제시한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는 문화유산 정책통계 지표보다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어 문화재청의 구성원들이 직접 활용 여부, 범위, 대상을 확정해야 함
-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 시
  - 기본 데이터베이스란 통계지표별 원천 자료를 엑셀 등을 활용해 문화유산 통계와 관련해 생산된 모든 자료를 데이터화 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 통계 지표에 관한 데이터만 하더라도 방대한 양이기에 데이터베이스 범위에 따라 많은 투입 인력이 필요하고, 기간 역시 3년~5년 정도 소요될 수 있음. 범위에 대한 판단은 TF 및 구성원의 합의로 도출 필요
  -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경우 구축 후 활용을 고려한다면 '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 개선' 및 '문화유산 통계 콘텐츠 개발'과 연계되어 있어 이 두 과제와 연동해 추진할 수 있음

## 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 기반 개선

### ■ 추진목적

- 문화재 정책 및 전략이 뒷받침 된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개선된 품질을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 ■ 추진내용

- 통계 서비스 전략 및 체계 확립
  - 통계 서비스 목적 및 방향, 방법 수립
  - ※ 이상 통계 서비스 전략 및 체계 확립은 ‘문화유산 정책통계 TF팀’ 겸임해 추진
- 통계 서비스 콘텐츠 개선
  - 현행 통계 서비스 콘텐츠 정비
  - 통계 서비스 신규 경로 개발 : 도서, 리플릿 등
- 통계 플랫폼 구축
  - 통계 전용 플랫폼 개발
  - 문화유산 통계 플랫폼 운영

## ■ 추진일정

추진과제	2019	2020	2021	2022	2023
<b>1. 통계 서비스 전략 및 체계 확립</b>					
- 통계 서비스 목적, 방향, 방법 수립	●				
<b>2. 통계 서비스 콘텐츠 개선</b>					
- 현행 통계 서비스 콘텐츠 정비	●	○			
- 통계 서비스 신규 경로 개발 : 도서, 리플릿		○	●	●	
<b>3. 통계 플랫폼 구축</b>					
- 통계 전용 플랫폼 개발			●		
- 문화유산 통계 플랫폼 운영			○	●	●

[참고] '○'으로 표기된 부분은 추진 가능 여부 및 추진 경과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한 경우임

## ■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통계 서비스 콘텐츠 정비율 (정비 완료 시 100%)	50%	100%			
통계 서비스 신규 경로 개발율 (도서 혹은 리플릿 등 개발 완료 시 100%)		25%	70%	100%	
통계 플랫폼 구축율 (전용 플랫폼 운영 개시 시 100%)			30%	90%	100%

## ■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통계 서비스 전략 및 체계 확립	별도 예산 투입 없음 (문화유산 정책통계 TF팀 겸임)	-
통계 서비스 콘텐츠 개선	10,000원×1,000권×8종=80,000,000원 (대표지표 8개 주제별 별책으로 발간 시)	80,000
통계 플랫폼 개발	150,000,000원×1년=150,000,000원	150,000
<b>합계</b>		<b>230,000</b>

## ■ 기대효과

- 문화유산 정책통계 품질 개선
- 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 경로 다각화
-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통계를 통해 공유되는 인터넷 플랫폼 마련

## ■ 검토사항

- 통계 서비스 신규 경로 개발 시
  - 신규 경로는 도서 개발 추천하며, 본 연구팀이 제시한 3개 주제에 따라 3권의 도서로 개발할 수도 있고, 8개 대표지표에 따라 8권의 도서로 개발할 수도 있음. 이러한 도서의 필요성은 인터넷이나 인포그래픽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심도 있는 정보를 도서에 담을 수 있기 때문인데, 발간 주기는 “문화재 5개년 기본계획”의 성과를 담아내는 차원에서 5년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됨
  - 리플릿의 경우는 인포그래픽의 용도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 활용 목적에 따라 개발 여부 결정 필요. 단, 도서 발간 시 도서의 부록으로 발간하는 것도 고려 필요
- 통계 플랫폼 구축 시
  - 여기서 제시한 통계 플랫폼은 문화재 정책만을 다룬 문화유산 정책통계와 비교해 보다 넓은 광의의 개념을 가진, 우리나라 및 전 세계 문화유산 관련 통계가 집중·확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인터넷 홈페이지)을 의미함
  - 이러한 개념의 통계 플랫폼 구현이 가능할 때 전 세계 가장 우수하고 선진적인 문화유산 통계 체계와 서비스도 구현 가능하다고 기대됨

## 문화유산 통계 콘텐츠 개발

### ■ 추진목적

-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차원을 넘어 사용자 중심의 스마트 시대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유산 통계 콘텐츠 개발해 사용자 중심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

### ■ 추진내용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
  - 문화유산 통계 활용 콘텐츠 TF팀 조직·운영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검토 및 수정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온/오프라인)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및 서비스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 문화유산 통계 지수 시스템 구축
  - 문화유산 통계 지수 서비스(온라인)

※ 이상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및 시스템 구축은 외주 용역을 통해 추진
- IT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IT 활용 콘텐츠 개발
  - IT 활용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구축
  - IT 활용 문화유산 통계 서비스(전방위 네트워크)



## ■ 추진일정

추진과제	2019	2020	2021	2022	2023
<b>1.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b>					
- 문화유산 통계 활용 콘텐츠 TF팀 조직·운영	●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검토 및 수정	●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	●	●	●	●	●
<b>2.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및 서비스</b>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			
- 문화유산 통계 지수 시스템 구축			●		
- 문화유산 통계 지수 서비스			●	●	●
<b>3. IT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b>					
- IT 활용 콘텐츠 개발		●	●		
- IT 활용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구축			●		
- 문화유산 통계 IT 서비스				●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2019	2020	2021	2022	2023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율 (인포그래픽 서비스 개시 시 100%)	100%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및 서비스율 (지수 서비스 개시 시 100%)		50%	100%		
IT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율 (문화유산 통계 IT 서비스 개시 시 100%)			50%	90%	100%

## ■ 소요예산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	별도 예산 투입 없음 (본 연구팀 납품 파일 수정해 서비스)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80,000,000원×1년=80,000,000원	80,000
문화유산 통계 지수 시스템 구축	150,000,000원×1년=150,000,000원	150,000
IT 활용 콘텐츠 개발	150,000,000원×2년=300,000,000원	300,000
문화유산 통계 IT 서비스 시스템 구축	150,000,000원×1년=150,000,000원	150,000
<b>합계</b>		<b>230,000</b>

## ■ 기대효과

- 사용자 중심의 문화유산 통계 서비스 구현
-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문화유산 통계 생태계 확립
-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문화유산 통계 가치 제고

## ■ 검토사항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 시
  - TF팀은 IT를 활용한 문화유산 통계 서비스에 대한 사안을 논의하고, 문화유산 통계의 새로운 비전과 운용방안을 설계해야 하기에 정책총괄과, 정보화담당관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의 담당자로 구성 필요. 또한 TF팀의 판단에 따라 IT 활용 종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한 설계도 고려 필요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은 본 연구팀이 별도 납품한 인포그래픽 디자인 채택 유무에 따라 수치, 간략 정보 등의 간단한 교정을 거쳐 2019년 하반기 시행 가능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시
  - 문화유산 통계 지수는 앞서 본문 '5.1.2. 문화유산 정책통계 생산 및 관리체계 개선안'의 다섯 번째 제언처럼 본 과업을 통해 제시한 8개 대표지표에 대한 지수로 개발하면 '대표지표와 지수'라는 연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개발 속도와 비용 절감에서도 효과적일 것으로 추정됨
- IT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시
  - 개발 목적과 서비스 방향성에 있어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범위를 넘어 국민이 향유하고 활용하는 문화유산 통계라는 개념을 설정해 문화유산 통계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차원으로 추진한다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방법은 일반 IT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도 가능
  - 또한, TF팀의 판단에 따라 문화유산 정책통계 및 관련 지표만 공개하거나 문화재 IT 활용 소스를 제공 또는 공유하는 정도로 문화재청 역할을 구분할 경우 기업이 자발적으로 문화유산 통계 IT 콘텐츠를 개발·활용하도록 홍보 및 권장하는 과정 필요함

## “문화유산 정책통계 추진 과제 로드맵”

추진과제	2019	2020	2021	2022	2023
<b>1. 통계 지표 관리체계 수립 및 정비</b>					
- 문화유산 정책통계 TF팀 조직·운영	●				
- 지표 카드 검토/문화유산 정책통계 지표 확정	●				
- 지표 관리체계 정비 및 통계청 승인·등록	●	●			
- 문화유산 정책통계(신규 지표) 운용			●	●	●
<b>2. 데이터 관리기반 구축</b>					
- 문화유산 정책통계 기본 데이터베이스 구축		●	●		
- 메타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베이스 구축				●	●
<b>3. 통계 전담조직 마련</b>					
- 통계 조직 구성 및 운영안 마련	●				
- 기본 인력 및 운영예산 마련		●	●	●	
- (가칭)문화유산 정책통계 서비스팀 운영				●	●
<b>4. 통계 서비스 전략 및 체계 확립</b>					
- 통계 서비스 목적, 방향, 방법 수립	●				
<b>5. 통계 서비스 콘텐츠 개선</b>					
- 현행 통계 서비스 콘텐츠 정비	●	○			
- 통계 서비스 신규 경로 개발 : 도서, 리플릿		○	●	●	
<b>6. 통계 플랫폼 구축</b>					
- 통계 전용 플랫폼 개발			●		
- 문화유산 통계 플랫폼 운영			○	●	●
<b>7.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b>					
- 문화유산 통계 활용 콘텐츠 TF팀 조직·운영	●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검토 및 수정	●				
- 문화유산 통계 인포그래픽 서비스	●	●	●	●	●
<b>8.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및 서비스</b>					
- 문화유산 통계 지수 개발		●			
- 문화유산 통계 지수 시스템 구축			●		
- 문화유산 통계 지수 서비스			●	●	●
<b>9. IT 활용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b>					
- IT 활용 콘텐츠 개발		●	●		
- IT 활용 콘텐츠 서비스 시스템 구축			●		
- 문화유산 통계 IT 서비스				●	●

## **6. 결론**

6.1. 문화유산 통계의 현재와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지향점

6.2. 연구 내용에 관한 정리 사항



## 6. 결론

### 6.1. 문화유산 통계의 현재와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지향점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출발점으로 삼은 것은 과연 문화유산 통계가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수요자 중심의 통계가 되려면 ‘공급과 수요’가 활발하거나 역동적인 ‘사회현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유산이라는 한정된 자원’과 ‘현상이 되기 어려운 시간적·공간적 본성’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팀은 문화유산 통계가 가진 근본적인 한계를 철저하게 인식한 후 문화유산의 특성 또는 문화재 정책 및 시행 내용 중 ‘공급과 수요’, ‘사회현상’ 등의 요소와 가능성을 찾아 우리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가공하고 길을 만드는 것을 임무라 여기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만약 문화유산 통계가 ‘수요자 중심’이 되어 사용자의 필요에 대응하고 문화유산과 관련한 현상을 분석·진단할 수 있게 된다면, 문화유산 통계는 사회과학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게 될 것이라 기대하며 과업의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



〈그림 37〉 통계의 효용성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공급과 소비 과정

연구를 마무리하며 문화유산 통계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위해 앞서 3장에서 제기한 바 있는 문화유산 통계의 네 가지 현실을 토대로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지향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 ■ 문화유산 통계의 현실과 개선방향 1 : 행정행위 결과 중심 통계

- 문화유산 통계의 주된 자원은 시간 상 ‘과거’에 속하는 ‘유산’으로, 통계를 생산하는 근본 요인인 ‘현상’이 될 수 없는 한계를 지님
- 문화유산 분야에서 출발점이 되는 행위는 문화재를 발굴하는 것으로, 문화재는 우리 민족 전체의 자산이기에 이 과정에서부터 공익의 차원에서 문화재 행정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음. 더구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관리는 필수적이기에 이 역시 문화재 행정행위가 뒤따르게 됨

- 그러므로 문화유산 분야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술’과 ‘행정’인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이러한 내용을 통계화 하면 결국 행정행위 결과 중심의 통계가 주를 이루게 됨
- 전 세계 대부분의 문화유산 분야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통계를 활용하는 차원은 주로 관광 자원의 홍보라는 측면에 국한됨. 지금까지 오랜 시간 여러 나라에서 문화유산 분야 통계가 큰 변화나 역할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관광 자원 중에서도 유산이란 한계와 특성을 벗어나지 못한 내용 및 방향 때문이라고 판단됨
-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문화재 정책의 흐름이 크게 바뀌는데, 보존과 관리에 국한되었던 비전이 ‘활용’으로 확대되면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옴. 활용에 기반한 활동 결과물이 빈약했던 초기에는 불가능했지만, 활용 정책을 펼친 지 10여 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서는 활동의 결과를 별도의 데이터로 축적 가능할 만큼 다채로운 내용과 결과가 생산되어 있음
- 지역 문화재 활용사업,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국제 교류 등은 문화유산 분야에서 활용을 중심으로 일어난 다양한 활동 내역과 결과를 보여 주고 있으며, 향후 관련 정책의 방향성까지 읽어낼 수 있음. 바로 이 부분이 문화유산 정책통계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이며, 수요자와 만나는 접점이기도 함. 수요자를 고려한 정책과 활동은 점차 수요자 중심의 문화유산 통계로 요청받거나 확대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정부 정책에서부터 대국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매개가 될 것이라 기대됨
- 그러므로 행정행위 결과 중심의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문화유산 통계의 방향성은 수요자 즉, 문화유산 향유자와 문화유산이 만나는 접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급과 소비 과정을 담아내는 것임. 이를 위해 필요한 조사통계, 가공통계 등의 개발과 활용은 필연적으로 뒤따를 것이라 예상됨

## ■ 문화유산 통계의 현실과 개선방향 2 : 단순 집계식 통계

- 문화유산 통계가 행정행위 결과 중심일 수밖에 없는 근본적 한계와 마찬가지로 문화유산 분야가 발굴 및 보존에 관한 ‘학술’과 ‘행정’ 행위에만 집중하면 그 결과는 단순 집계식 통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그나마 공연이나 전시라는 활동이 있지만 이 역시 수동적인 차원의 투입대비 산출을 집계하는 통계만 생산해 옴
- 이러한 경향은 문화유산 분야뿐만 아니라 현대예술을 다루는 문화 분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음. 그 이유는 공급방식과 수요 자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화유산 분야든 현대예술 분야든 ‘수요자와 소통하고 수요자가 참여하는 새로운 활동’이 필요함. 문화유산 분야의 경우 앞서 환기한 바처럼 ‘활용’ 중심의 정책이 열매를 맺으며 국민이 향유하는 문화유산의 이미지가 확대되고 있고, 문화유산과 국민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정보의 생산 및 공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즉 문화유산 통계 개선은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 방법을 확대하기 위한 도구이자 매개체로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함. 이는 결국 수요자의 다양한 향유 방법을 안내하고 견인할 가공통계의 필요로 이어짐
- 가공통계는 통계의 작성 목적과 통계 활용 목표가 명확한 일종의 ‘전략적인’ 통계라고 할 수 있음. 집계식 통계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가장 기본적인 통계로 또 다른 중요성을 갖지만, 통계를 생산하는 공급자나 통계를 사용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특별한 목적을 투영하기는 어려움. 문화유산 정책통계가 말 그대로 문화재 정책의 의도와 결과를 반영하려면, 결국 특정 목표를 지지하기 위한 가공통계가 필요함
- 한편, 본문에서 대표지표로 제시된 8개 지표 중 ‘역사’에 관한 통계는 가공통계의 특별한 사례를 보여주는데, 그 어떤 분야도 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가공통계의 새로운 경향의 창출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나아가 역사 분야 학술연구, 국민의 역사에 관한 궁금증, 각 분야별 필요 등에 대응하는 통계 사례가 되리라 기대됨

### ■ 문화유산 통계의 현실과 개선방향 3 : 시계열 분석과 예측이 어려운 통계

- 시계열 분석은 기본적으로 ‘관찰’을 전제로 하며, 관찰의 목적은 ‘변동요인’을 도출해 현황을 분석하는 데 있음. 그러나 기존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관찰도, 변동요인도, 현황 분석도 담보해 내지 못했음. 그 이유는 먼저 ‘과거’의 유산을 발굴·보호하는 임무가 최우선인 문화유산 분야 특성으로 인해 관찰의 목적 및 효용성이 모호했기 때문이며, 다음으로는 통계를 작성하는 공급자가 명확한 목적 없이 통계를 생산했기 때문임
- 다시 말해, 지금까지 문화유산 정책통계가 시계열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하거나 관련 정보를 불완전하게 제공하는 통계였기 때문임. 곧 현황을 분석해야 하는데 과거라는 시간에 속한 유산은 변동요인이 완료된 통계 자원인데다, 문화유산 정책통계 작성자가 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관찰에 적합한 통계를 생산하지도 않았다는 것임. 관찰에 의해 변동요인을 파악해야 통계를 통해 ‘예측’이 가능함
- 시계열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통계 생산은 의외로 간단함. 먼저, 시계열 분석이 가



능한 통계를 만드는 것인데 이는 데이터를 빠짐없이 기록하고 나열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함. 현재 5년 단위로 끊겨 있는 통계지표 사례는 시계열 분석 자체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결론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왜곡된 결과는 역측을 낳아 정책 수립마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 다음으로, 데이터와 통계지표를 전담해 관리하고 연구할 인력이 필요함. 분석은 대상을 관찰하고 변동요인을 도출할 수 있는 '절대 시간'이 확보되어야 가능함. 단순히 집계식 행정결과 위주의 통계 수치만으로는 올바른 분석과 예측이 불가능함

- 결국 시계열 분석과 예측이 가능한 통계를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배치해야 함

#### ■ 문화유산 통계의 현실과 개선방향 4 : 사용자 고려 없는 일방식 통계

- 지금까지 문화유산 정책통계가 사용자를 배려할 수 없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앞서 열거한 세 가지 문제점 때문이며, 나아가 문화유산 통계를 소비할 사용자에게 대한 설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임
- 사용자에게 대한 설정 자체가 없었던 이유는 국가와 국민 모두 유산의 '발굴'과 '보존'에만 관심을 두는가 하면 자원의 '공급'에만 집중했기 때문임. 문화유산 통계가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려면 자원의 '공급과 수요', '생산과 소비'라는 맥락에서 문화유산 통계를 이해해야 함. 이러한 맥락 속에서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비전과 지향점을 정립할 수 있으며, 문화유산 통계의 전략적 필요성도 부각될 것임
- 사용자 설정을 위해서는 앞서 본문에서 제시한 바 '문화유산 통계의 생태계'를 정립하고, 공급과 수요 또는 생산과 소비에 따른 '주체'들을 설정한 후 문화유산 통계를 생산·공급·활용해야 함. 참고로 지금까지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두 가지 유형의 수요자가 존재했는데 행정통계의 수요자인 정부나 국회, 그리고 막연하거나 의무적인 차원에서 행정행위의 결과를 공개하기 위해 설정된 불특정 다수의 국민임
- 결국 문화유산 통계의 사용자 설정은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지향점, 관리 및 생산방법, 활용방법을 창출하는 데 기반이 되기에 사용자를 고려한 통계 생산의 목적과 전략에 따라 문화유산 통계, 문화유산 정책통계가 생산·소비되어야 함. 그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통계의 공급과 소비방식에서 일방식이든 쌍방식이든 다양한 통계 제공 방법들이 개발될 것임

## 6.2. 연구 내용에 관한 정리 사항

마지막으로 본 연구 내용 중 독자를 위해 정리해야 할 사항과 미처 본문에서 다루지 못했던 사항 몇 가지를 부연하자면 다음과 같다.

### ■ 유산(heritage)의 분류에 관하여

- 본 연구는 문화유산 통계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문화유산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사용하였음. 이에 따라 본문 ‘2.1.1. 국외 문화유산 관련 통계 동향’에서 ‘유산(heritage)’을 자연유산과 인공유산으로만 분류하였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산은 자연유산,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산을 인공유산이라 규정함
- 유네스코에서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유산을 ‘자연유산’, 사람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유산을 ‘문화유산’,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유산을 ‘복합유산’으로 분류하고 있음

### ■ 대표지표에 관하여

- 8개로 제시된 대표지표는 기존 문화유산 정책통계를 재편성해 체계화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연구팀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전혀 새로운 지표를 대표지표로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의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묶을 수 있는 지표가 대표지표로 합당하다고 판단함
-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판단에 의한 것인데, 첫째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문화유산에 관하여 알고 싶은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판단이며, 둘째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문화재 정책 방향 및 결과에 관하여 반드시 알려야 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판단임. 근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생산해 온 우리나라 문화재 통계가 다른 어떤 나라의 문화재 관련 통계와 비교해도 우수하고, 빠르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 문화재 관련 필수 정보를 잘 담고 있다는 확신에 의한 것임
- 8개 대표지표를 표현함에 있어 그래프와 그래픽만 이용하고 표는 생략하였는데, 그 이유는 뒤따르는 세부지표를 통해 구체적인 사항과 표를 통한 정보 전달이 가능하기 때문임
- 8개 대표지표를 개별적으로 확대하고 편집해 별도의 도서 발간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이미 여타 정부부처나 타 기관 중에서는 ‘인구’, ‘주거’ 등 특정 주제를 정해 통

계지표를 묶고 통계자료집을 발간한 사례가 있음. 문화유산 통계 역시 8개 대표지표를 각각의 주제로 설정해 통계 도서를 발간할 수 있어 이를 적극 제안함

## ■ 역사 지표에 관하여

- 역사 지표의 적절성과 효용 가치에 대해 다른 측면에서 여러 시각이 있으리라 예상됨. 적절성의 문제는 기록유산을 활용해 작성한 통계란 측면에서 문화유산의 범주에서 생산된 통계라 할 수 있으나, 기록유산에 대한 연구를 근간으로 작성해야 하기에 역사 학술분야의 범주에서 생산해야 할 통계이기도 하다는 점임.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문화재청이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역사 분야에서 간간히 유사 학술 결과물이 있었으나 통계를 목적으로 한 작성 사례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있음. 효용 가치의 문제는 문화재 행정이란 측면에서 역사 통계가 무의미할 수 있으나, 문화재 정책을 위한 자료라는 측면에서는 통계 활용 목적에 따라 유의미한 통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임. 한편, 역사 지표는 일반 국민의 다채로운 요구에 대응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다양한 방면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음
- 역사 지표의 작성 방법에 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함. 가장 좋은 방법은 통계 관리 및 연구 전담팀을 설치해 분야에 따라 정기적인 과제를 정하고 생산·관리·활용하는 것임. 차선의 방법은 문화재청의 연구용역 발주 시 관련 분야의 통계 생산을 의무화 해 그 결과를 자료로 축적해 가는 것임
- 연구팀이 제시한 역사 지표의 세부 분류가 ‘정치’, ‘사회’, ‘문화’, ‘대외교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연구기한 내 연구팀이 생산할 수 있었던 7개의 역사 세부지표에 맞춘 분류임. 최종 분류자의 판단에 따라 세부 분류 상 ‘경제’라는 카테고리를 하나 더 추가할 수도 있고, ‘정치’, ‘생활’, ‘교육’, ‘기술’, ‘교류’만 제시한 세세부 분류를 보다 다양한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도 있음

## ■ 세부지표 120개, 지표카드에 관하여

- 8개 대표지표 아래 구성되어 있는 세부지표 120개는 각각 해당 대표지표를 완전하게 지원 또는 지지하고 있지 못함. 이는 기존의 「통계를 보는 문화유산」에 있는 통계지표를 우선해 세부지표를 정비·작성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별도로 추가해야 할 필요 지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데이터가 부재하거나 불완전해 작성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임. 추후 담당자의 판단이나 소관부서의 필요에 따라 세부지표

는 더 많이 생산·확대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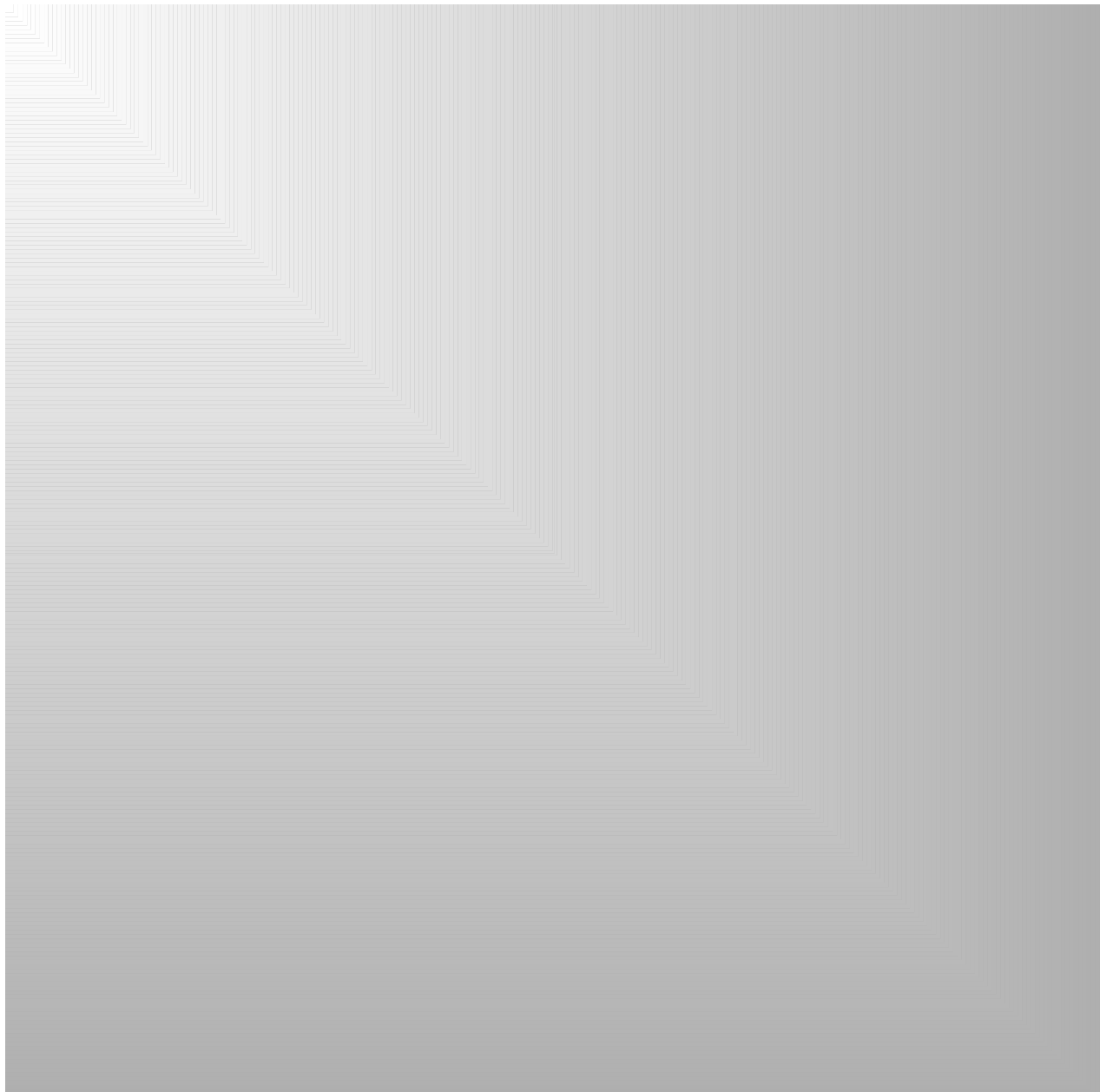
-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에 있는 통계지표 중 본 보고서의 세부지표에서 누락된 지표 수는 14개임. 이는 지표명이 다르더라도 관련 내용이 본 보고서 세부지표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 수치임. 누락된 지표 내용은 (문화재청)세출예산 및 기금 운용(1-1-3), 건조물문화재 지역별 현황(4-1-2), 건조물문화재 소유자별 현황(4-1-3), 전통가옥 국가지정 현황(4-1-5), 전통가옥별 지붕 형태(4-1-6), 유물전시관 건립 현황(4-2-3), 능·원·묘 현황(4-5-1), 궁·능·원·묘·유적관리소 내 지정·등록 문화재 현황(4-5-3), 민속마을별 건물 형태(4-8-1), 아태지역 무형유산 보호 현황 조사 연구 실적(6-3-1), 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재 보존처리(7-3-1), (한국전통문화대학교)학생 및 교원 현황(7-5-1), 취업 현황(7-5-2), 전통문화교육원 운영 현황(7-5-3) 등임
- 세부지표는 '문화유산 통계 지표 카드'라는 명칭의 카드 형식으로 작성하였는데,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문화유산 통계 관리를 염두에 둔 것임. 통계 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전담팀에 의한 데이터 관리로부터 시작되지만, 현 문화재청 통계 관리 체계 현실을 고려해 연구팀에서 통계 관리 방법으로 제안한 것임. 이에 대한 관리 및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의 통계 소관부서 전체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문화유산 통계 및 문화유산 정책통계 용어에 관하여

- 5장 서두에서도 잠시 다뤘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화유산 통계'와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용어 규정을 다시 확인함. 이 규정은 연구 과정에서 용어 정의의 필요성 및 독자의 연구 내용 이해를 위해 연구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 일반적으로 문화유산 통계와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시선이나 입장에 따라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문화유산 통계를 자연유산·문화유산·복합유산을 모두 포함한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였고, 문화유산 정책통계를 문화재청이 직접 생산해 다루고 있는 우리나라 지정 및 비지정문화재에 관한 통계만을 대상으로 한 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였음
- 이에 따라 본문 2장부터 4장까지는 문화유산 통계의 범위 내에서 국내·외 문화유산 통계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문화유산 통계의 대표지표 및 세부지표를 개발·정비함. 그리고 5장에서는 문화재청이 직접 생산·관리·활용 중인 문화재 관련 통계 및 현황을 중심으로 문화유산 정책통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음
- 간단히 정리하자면, 문화유산 통계는 모든 유산에 관한 통계이고, 문화유산 정책통계는 문화재청의 업무에 직결된 통계를 의미함



## 참고문헌





## 참고문헌

### ■ 사료

- 『列邑院宇事蹟』
- 『文獻備考』
- 『書院謄錄』
- 『朝鮮王朝實錄』
- 『通文館志』
- 『通信使謄錄』
- 『戶口總數』

### ■ 단행본

- 경기도박물관 저, 『경기도 고인돌』, 경기도박물관, 2009
- 김학범 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1(역사문화명승편)』, 김영사, 2013
- 김학범 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2(자연명승편)』, 김영사, 2104
- 김학범 저, 『통계방법과 자료분석』, 도서출판대명, 2004
- 남궁 평 외 공저, 『통계적 사고』, 박영사, 2009
- 마누엘 카스텔 저, 박행웅 역, 『네트워크 사회 : 비교문화 관점』, 도서출판 한울, 2009
- 반 다이크 저, 배현석 역, 『네트워크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배상면 편역, 『조선주조사』, 우곡출판사, 1997
- 백육인 저 『정보자본주의』,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 이상한 · 정영훈 공저,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가이드』, ㈜프리렉, 2015
- 이우리 저, 『시계열분석과 예측』, 도서출판탐진, 2013
- 장경희 저, 『의궤 속 조선의 장인 1, 2』, 술과학, 2013
-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저,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2012
- 한국인구학회 저, 『인구대사전』, 통계청, 2007



## ■ 논문, 보고서 등

- IBM, 「애널리틱스 : 빅데이터 이용의 현실보고서」, 2012
- 강원도 정선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용역 최종보고서」, 강원도 정선군 문화관광과, 2013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체계적 운영 연구」, 문화재청, 2016
- 삼성경제연구소, 「스마트 뉴딜 :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업의 활용」, CEO Information 제907호, 2013
- 서형준·명승환, 「수요자 중심의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방안-민간부문 정보통신 담당자의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7(3), 2014
- 원창애,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 하원교 외, 「만물지능인터넷 패러다임과 미래창조」, 주간기술동향, 2013
- 허필선 외, 「공공정보 민간 활용 시장 및 파급효과」, 전자통신동향분석, 28(4), 2013

## ■ 자료집

- 일본 문화청, 「平成30年度 我が國の文化政策」, 2018
- 중국 문화관광부, 「中華人民共和國文化和旅游部 2017年文化發展統計公報」, 2018
- 문화재청 국제협력과, 「MOU 체결 통계자료」(내부자료)
-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요업무 통계자료」(내부자료)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6」, 문화재청, 2016
- 문화재청 정보화담당관실, 「통계로 보는 문화유산 2017」, 문화재청, 2018
- 문화재청, 「2001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1
- 문화재청, 「2002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2
- 문화재청, 「2003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3
- 문화재청, 「2004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4
- 문화재청, 「2005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5
- 문화재청, 「2006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6
- 문화재청, 「2007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7
- 문화재청, 「2008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8
- 문화재청, 「2009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09
- 문화재청, 「2010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0
- 문화재청, 「2011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1

- 문화재청, 「2012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2
- 문화재청, 「2013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3
- 문화재청, 「2014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4
- 문화재청, 「2015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5
- 문화재청, 「2016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6
- 문화재청, 「2017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7
- 문화재청, 「2018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2018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08.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09.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0.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1.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2.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3.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4.12.31.
- 문화재청,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문화재청, 2015.12.31.

## ■ 법령, 행정규칙, 각종 규정 등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고도보존육성에 관한 특별법」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 인터넷 사이트

- 강릉시청 홈페이지([www.gn.go.kr](http://www.gn.go.kr))
- 공공데이터포털 홈페이지([www.data.go.kr](http://www.data.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sit.go.kr](http://www.msit.go.kr))
-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kosis.kr](http://kosis.kr))

-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사전([opendict.korean.go.kr](http://opendict.korean.go.kr))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홈페이지([www.iha.go.kr](http://www.iha.go.kr))
- 국립문화재연구 홈페이지([www.nrich.go.kr](http://www.nrich.go.kr))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seamuse.go.kr](http://www.seamuse.go.kr))
- 네이버 지식백과 내 자격증사전([terms.naver.com](http://terms.naver.com))
- 네이버 지식백과 내 한국민족문화대백과([terms.naver.com](http://terms.naver.com))
- 문화재지킴이 홈페이지([jikimi.cha.go.kr](http://jikimi.cha.go.kr))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홈페이지([www.heritage.go.kr](http://www.heritage.go.kr))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http://www.cha.go.kr))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센터 홈페이지([stat.mcst.go.kr](http://stat.mcst.go.kr))
- 문화콘텐츠닷컴 홈페이지([www.culturecontent.com](http://www.culturecontent.com))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홈페이지([data.si.re.kr](http://data.si.re.kr))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홈페이지([data.seoul.go.kr](http://data.seoul.go.kr))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통계 홈페이지([www.sejong.go.kr/stat.do](http://www.sejong.go.kr/stat.do))
- 유네스코 UIS.Statistics 홈페이지([data.uis.unesco.org](http://data.uis.unesco.org))
- 유네스코 세계유산 홈페이지([whc.unesco.org](http://whc.unesco.org))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heritage.unesco.or.k](http://heritage.unesco.or.k))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홈페이지([www.unesco.or.kr](http://www.unesco.or.kr))
-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www.bunka.go.jp](http://www.bunka.go.jp))
- 중국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v.cn](http://www.mct.gov.cn))
- 캐나다 통계청 홈페이지([www.statcan.gc.ca](http://www.statcan.gc.ca))
- 터키 관광청 홈페이지([www.kultur.gov.tr](http://www.kultur.gov.tr))
- 페루 관광청 홈페이지([www.peru.travel](http://www.peru.travel))
- 피바디고고학민속학박물관 홈페이지([www.peabody.harvard.edu](http://www.peabody.harvard.edu))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www.nuch.ac.kr](http://www.nuch.ac.kr))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http://www.mois.go.kr))